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빛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라'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설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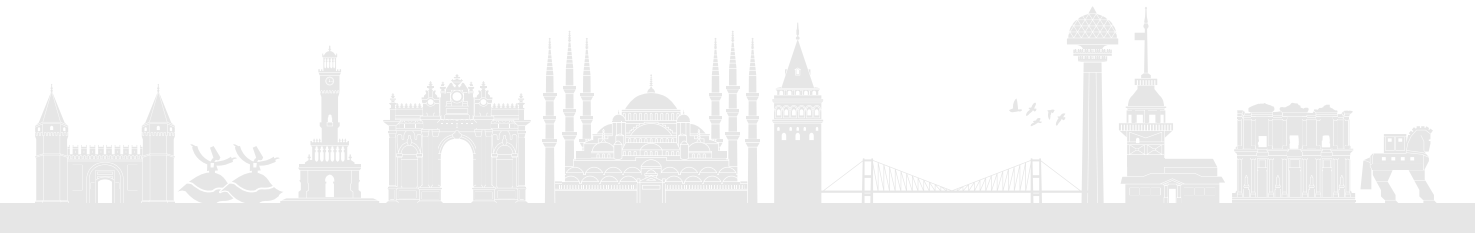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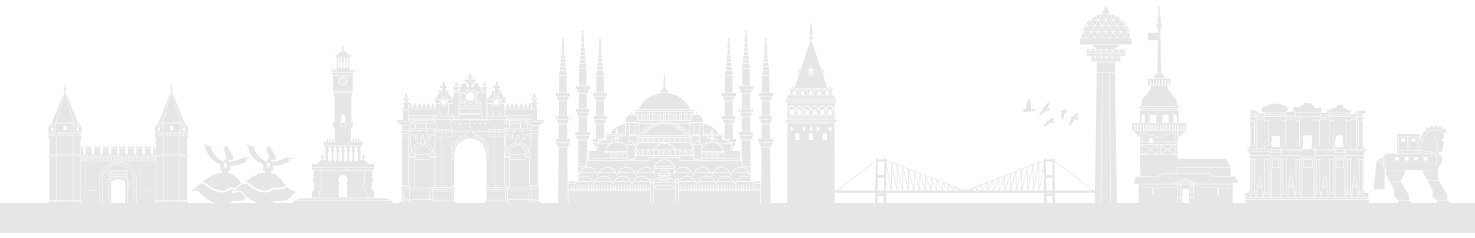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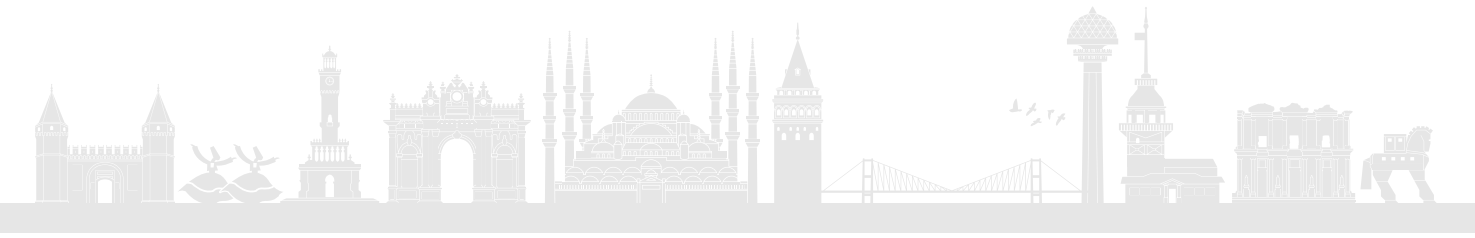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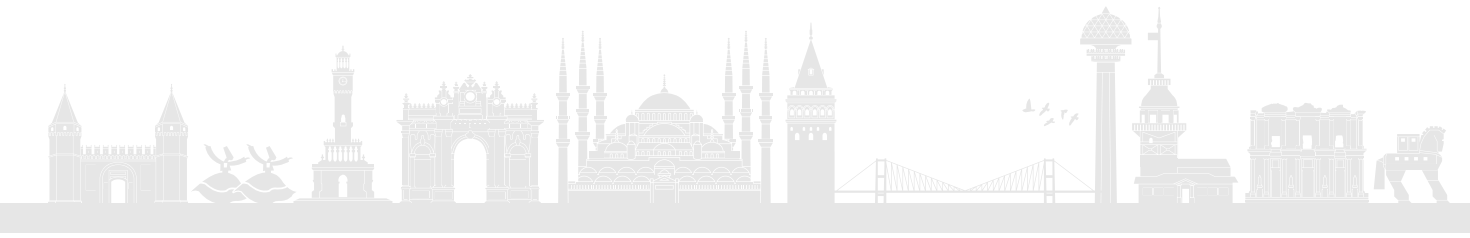
서문	003	I G021 장건	058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G022 장기	061
일러두기	008	I G023 장기 여타	063
		I G024 장기 여타의 네 제자들	065
I G001 자디드운동	023	I G025 재패르 자브바를르	067
I G002 자라 톨고이	025	I G026 젤릴 맘매드쿨루자데	069
I G003 자르 쿠르간 미너렛	026	I G027 저야오거우 기병정별도 암각화	071
I G004 자바트 헤이엣	028	I G028 푸르캣	072
I G005 자브키이	030	I G029 적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074
I G006 자야톨라크와 히우힐루	032	I G030 전설적 이야기	076
I G007 자원시르	033	I G031 절멸 위기의 투르크어	077
I G008 자카트	036	I G032 점서	078
I G009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	039	I G033 정령	080
I G010 자히트 자리프오를루	041	I G034 정의발전당	081
I G011 작명과 관련된 민간 신앙	044	I G035 제1차 민족 건축 양식	083
I G012 잔다르 공국	046	I G036 제1차 세계 대전	086
I G013 잘그이스-토베	048	I G037 제2차 민족 건축 양식	090
I G014 잘릴 기니아토비치 케예크바예프	050	I G038 제나프 세하베티	093
I G015 잘마우이즈 캠프르	051	I G039 제르라히	095
I G016 잠 전투	052	I G040 제르라흐 파샤 복합단지	098
I G017 잠브 아투	053	I G041 제말 쉬레야	101
I G018 잠인 톨고이	055	I G042 제부르	103
I G019 장 폴 루	056	I G043 제와트 헤예티	104
I G020 장가르	057	I G044 제이네프 코르크마즈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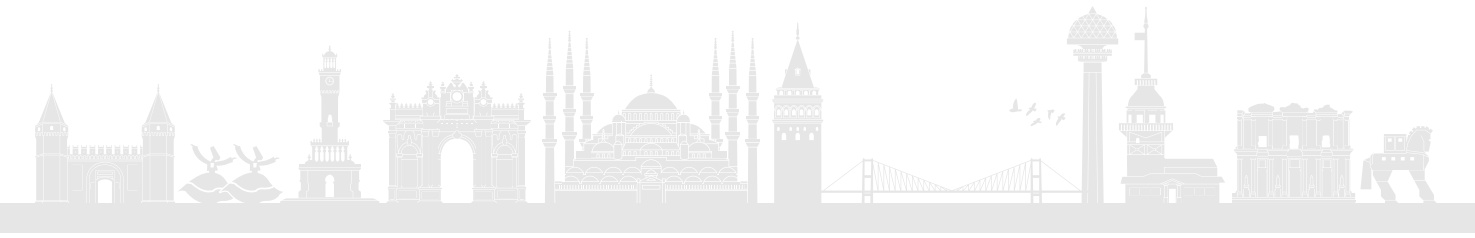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I G045 제즈자르 아흐메드 파샤	109	I G069 줄리오 몬게리	149
I G046 제키 벨리디 토칸	111	I G070 줄피아	152
I G047 제트 자르기	113	I G071 중앙유라시아	154
I G048 제티겐	115	I G072 중앙유라시아의 언어	155
I G049 제티수	116	I G073 쥬베	156
I G050 쟀 의식	118	I G074 즈라우	158
I G051 쟀에워	119	I G075 지르	159
I G052 쟀시민	121	I G076 지르 이야기	160
I G053 조가방촌	122	I G077 지명 설화(아제르바이잔)	161
I G054 조상송배	123	I G078 지야 오스만 사바	162
I G055 족타우	126	I G079 지야라	165
I G056 즐린	127	I G080 지이아 괴칼프	167
I G057 즐탄 곰보츠	128	I G081 지이아 파샤	169
I G058 죄르지 허저이	129	I G082 지자흐 붕기	171
I G059 주나이드 칸	130	I G083 지크르	173
I G060 주르나	132	I G084 지하드	175
I G061 주르흐 올 유적	134	I G085 진실의 단계	177
I G062 주마	136	I G086 질지 선우	178
I G063 주마니요즈 잡버러브	137	I G087 짐미	179
I G064 주바이다 후사이너바	138	I G088 집사	181
I G065 죽으려고 늙다	140	I G089 차가 바이람	184
I G066 죽은 자들	142	I G090 차가타이 구릉기	185
I G067 죽음과 관련된 민속신앙	144	I G091 차가타이 칸국	186
I G068 즐러 네메스	147	I G092 차가타이-오스만 투르크어 사전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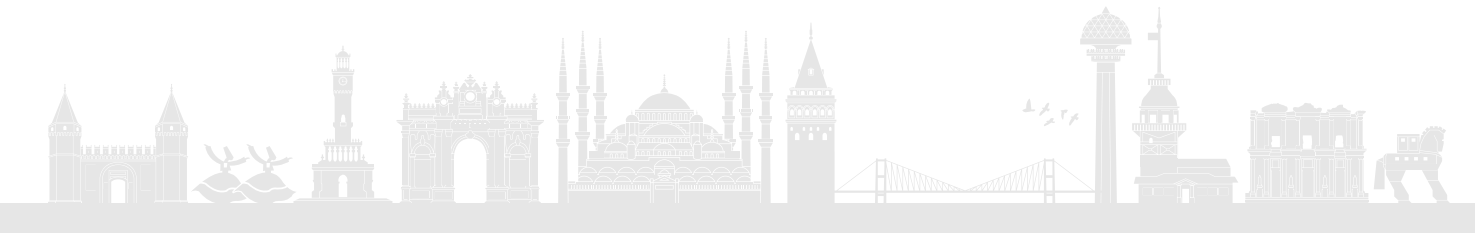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I G093 차간-사알라와 바가 오구이.....	189	I G117 출몬	227
I G094 차낙칼레 도자기.....	191	I G118 출판	228
I G095 차도르	194	I G119 좁파 토이.....	231
I G096 차람	196	I G120 최브캔	232
I G097 차르히이	197	I G121 초호온	234
I G098 차크-차크.....	198	I G122 추바시어	235
I G099 차탈회이위크	199	I G123 추바시인	236
I G100 차트한	201	I G124 추스티이	237
I G101 착한 왕자와 나쁜 왕자 이야기	202	I G125 출림인	239
I G102 찬다를르 가문	203	I G126 출산과 관련된 민간 신앙	240
I G103 찬드만 올	206	I G127 출생 40일 축하식	242
I G104 찰드란 전투.....	207	I G128 치닐리 퀴슈크.....	243
I G105 처녀의 탑.....	209	I G129 치쉬티	246
I G106 처카르	211	I G130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	248
I G107 천사(이슬람).....	213	I G131 치헤르틴 저	250
I G108 철록	215	I G132 칭기즈 휘세이노브.....	252
I G109 청년투르크당	216	I G133 칠래 의식	254
I G110 청동그릇(홍노).....	218	I G134 칠린가가즈	255
I G111 체벤도르지	219	I G135 칭기즈 아이트마토프	256
I G112 체슈메	220	I G136 칭기즈 칸.....	258
I G113 체예크	222	I G137 칭기즈 칸 석상.....	260
I G114 첼칸인	223	I G138 카간	262
I G115 초나르-다쉬.....	224	I G139 카눈(법).....	263
I G116 초칸 칭기소비치 발리하노프.....	225	I G140 카눈(악기)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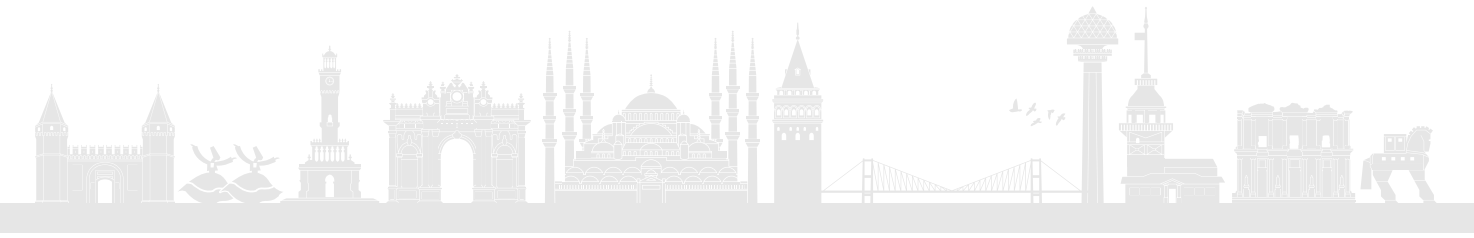
I G141 카데쉬 협정문서.....	268	I G165 카라쿠스	315
I G142 카디	270	I G166 카라타이 마드라사.....	316
I G143 카디 부르한 엠티.....	272	I G167 카라한 칸국.....	319
I G144 카디르	274	I G168 카라한 투르크어.....	320
I G145 카디리	277	I G169 카러브치	322
I G146 카라 조르가.....	278	I G170 카레시 공국.....	323
I G147 카라괴즈	280	I G171 카르가투이	324
I G148 카라만 공국.....	283	I G172 카르나이	326
I G149 카라만르라르	285	I G173 카를로비츠 조약.....	327
I G150 카라바흐	286	I G174 카를루크	330
I G151 카라바흐 칸국.....	290	I G175 카를루크어파.....	332
I G152 카라바흐라르 영묘.....	293	I G176 카말 압둘라.....	333
I G153 카라발가순	295	I G177 카말 탈르브자대.....	335
I G154 카라발가순 비문	298	I G178 카메트	337
I G155 카라숙 문화.....	299	I G179 카무스 튀르키.....	338
I G156 카라쑤 무덤.....	300	I G180 카부드 영묘	341
I G157 카라-오유크.....	302	I G181 카부스 영묘.....	342
I G158 카라유르가	303	I G182 카스	344
I G159 카라임	304	I G183 카스테예프 국립예술박물관	345
I G160 카라임어	306	I G184 카숨 베이 자키르	346
I G161 카라차이인	307	I G185 카움 나시리.....	348
I G162 카라칼파크어	308	I G186 카이	349
I G163 카라칼파크인	309	I G187 카이구수즈 압달.....	351
I G164 카라코윤루(흑양조).....	311	I G188 카이마캄	353



I G189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	354	I G213 칸 꾸미기.....	398
I G190 카자흐(기원).....	358	I G214 칸 알-칼릴리.....	400
I G191 카자흐 민속악기박물관.....	359	I G215 칼라 가웨리.....	403
I G192 카자흐 전통 문양.....	361	I G216 칼라운.....	404
I G193 카자흐스탄.....	362	I G217 칼라지어.....	406
I G194 카자흐스탄 구전 문학.....	365	I G218 칼란 미너렛.....	407
I G195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366	I G219 칼릉 말.....	409
I G196 카자흐스탄 국립 중앙 박물관.....	367	I G220 칼리프 압틸메지드.....	410
I G197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369	I G221 칼릴라와 담나.....	412
I G198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371	I G222 칼박 타쉬.....	414
I G199 카자흐어.....	373	I G223 칼지 조.....	415
I G200 카자흐어 문자.....	374	I G224 캄.....	417
I G201 카자흐인.....	375	I G225 캄란 미르자.....	419
I G202 카자흐인의 작명 관습.....	376	I G226 캄바 라마.....	420
I G203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377	I G227 캄바르 바트르.....	421
I G204 카작.....	379	I G228 캄카스.....	422
I G205 카잔 크렘린.....	380	I G229 캄타 아술라.....	424
I G206 카즈.....	383	I G230 कै말뤼드되블래 서한집.....	425
I G207 카즈 우마헤.....	384	I G231 카쿽 샤이예.....	428
I G208 카즈구르트.....	385	I G232 카탐 첼레비.....	429
I G209 카파도키아.....	387	I G233 커밀 야신.....	430
I G210 카프다을르 콘스탄틴.....	389	I G234 커밀 허라즈미야.....	432
I G211 카프탄.....	392	I G235 커적버이 울더쉐브.....	434
I G212 카피틀레이션.....	394	I G236 킱사라이.....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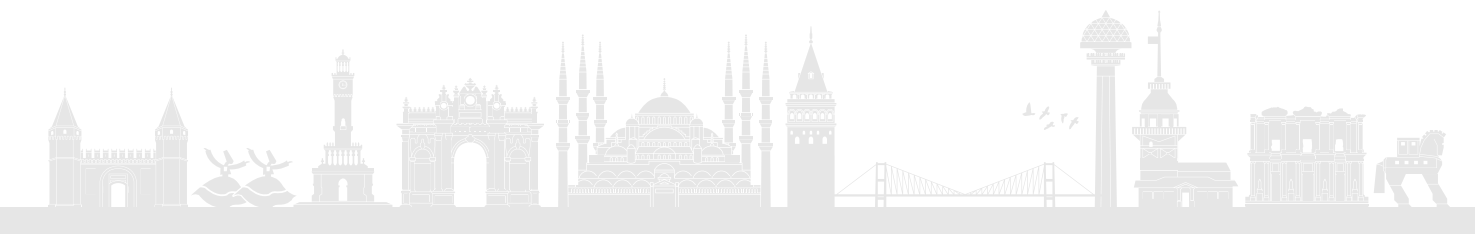
I G237 케네사르 봉기	437	I G261 코칸드	481
I G238 케레메트	439	I G262 코칼더쉬 마드라사(부하라)	483
I G239 케르굴라 말을 탄 켄데베	440	I G263 코칼더쉬 마드라사(타슈켄트)	485
I G240 케말리즘	441	I G264 코켈 문화	486
I G241 케페	442	I G265 코크 파시	488
I G242 켈린 살림	443	I G266 코푸즈	489
I G243 코네우르겐치	445	I G267 콕 푸가	491
I G244 코니아	447	I G268 콘구르 부가	493
I G245 코니아 성벽	450	I G269 콘체스티	494
I G246 코니아 알라엠티딘 모스크	452	I G270 콕카리-울락	495
I G247 코니아 인제 미나렐리 마드라사	456	I G271 콕세다으 전투	496
I G248 코란	458	I G272 콕제	498
I G249 코란 해설서	460	I G273 콕제 팔라치	499
I G250 코로글루 서사시	461	I G274 콕프릴뤼 가문	500
I G251 코무즈(키르기스스탄)	466	I G275 코슬레	504
I G252 코무즈	467	I G276 쿠뎀	506
I G253 코보즈	469	I G277 쿠디리게	507
I G254 코블란드 바트르	470	I G278 쿠라이	509
I G255 코사-코사	471	I G279 쿠레시	510
I G256 코소보 전투	473	I G280 쿠루순루 모스크	512
I G257 코자바시으	475	I G281 쿠룸친 문화	514
I G258 코즈 케르페쉬 바안 슬루	477	I G282 쿠르드	515
I G259 코즐로프 P.K.	478	I G283 쿠르드 노동자당	517
I G260 코츠쿤치 칸	480	I G284 쿠르만가즈 사그르바울르	519



G285 쿠르반 바이라므.....	520	G309 쿠툼 미나르 복합단지	562
G286 쿠르칸	522	G310 쿨	564
G287 쿠르트	523	G311 쿨투라 석굴 개요	566
G288 쿠렐타이	524	G312 콧두스 무함마디이	568
G289 쿠만딘인	526	G313 퀴췌 카이나르자 조약	570
G290 쿠미스 알루	527	G314 퀴타하 도자기	572
G291 쿠미크인	528	G315 퀴 사륙	574
G292 쿠바다바드 궁전	529	G316 큐이	575
G293 쿠바이르	531	G317 크나 계제시	576
G294 쿠브라위야	532	G318 크드르 아타	577
G295 쿠빌라이	535	G319 크라딘	578
G296 쿠삼 이븐 압바스	539	G320 크라센인	580
G297 쿠산 왕조	540	G321 크레타 전쟁(1645~1669)	582
G298 쿠안쉬 임 푸사르	543	G322 크림 칸 궁전	584
G299 쿠유크	544	G323 크림차크	588
G300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안힐루	546	G324 크사술 엔비아아	589
G301 쿠차	547	G325 크산토스	591
G302 쿠타드구 빌리그	548	G326 크산티 클막 놉	592
G303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	550	G327 크즈 코루	593
G304 쿠투즈	552	G328 크즈 쿠우	595
G305 쿠툼 옷딘 아이박	553	G329 크즈-즈벡	596
G306 쿠트	556	G330 크즐라르 아아스	598
G307 쿠트루그 티무르 미너렛	557	G331 크즐바슈	599
G308 쿠툼 미나르	559	G332 클-쿠비즈	602



G333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	603
G334 키르기스스탄	604
G335 키르기스어	606
G336 키르기스-킵차크어파	607
G337 키르베	608
G338 키르크 키즈	610
G339 키메섹	612
G340 키스티비	613
G341 키질 석굴	615
G342 키타브 알 디르야크	617
G343 키타프 무카디메 예부 레이스 에스 사마르칸디	619
G344 키프로스 문제	620
G345 킵차크	622
G346 킵차크 초원	626
G347 킵차크 칸국	627
G348 킵차크어파	629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633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637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G001 | 자디드운동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운동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Jadidlik

자디드운동은 원래 크림-타타르인인 이스마일 가스프랄르(Ismail Bey Gaspirali : 1851년~1914년)에 의해 1883년 이슬람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1905년 이후 불가-타타르인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자디드(jaded)란 용어는 ‘우술리 자디드(Usul-I jaded)’에서 유래했다. 우리말로로는 ‘새로운 방법’이란 뜻이다. 자디드운동은 전통 무슬림 신학교의 교과 과정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을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자디스트(jadidist), 개혁주의자라 하는데, 이들이 세운 무슬림 신학교는 지리학, 과학, 유럽어와 같은 세속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범투르크어의 창조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운동은 나중에 전반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슬람 보수주의자인 카디미스트(Qadimist)들은 자디드운동이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돕는다는 이유로 자디스트들을 비난했다. 이 운동은 초기에는 친소비에트적 성향을 띠기도 했지만, 나중에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민족의식을 자각시키면서 반소비에트 저항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자디드운동이 발생한 근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 국내외 사정에 있었다. 첫째,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패배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 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파가 권력을 잡았고,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민족주의 구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1908년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청년투르크당(Young Turks) 혁명이다. 청년투르크당의 헌정 회복운동과 절대군주제를 유지하던 오스만 제국에 대한 항거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셋째, 20세기 초의 중근동에서의 민족주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 범이슬람 운동가인 아프가니(Afgani)의 노력으로 이슬람을 구심체로 해서 서구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운동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이스마일 가스프랄리 흉상(크리미아, 러시아)

20세기 초 중근동의 민족주의운동 확산은 피압박 민족이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을 각성시켜 개혁과 근대주의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자디드운동은 세 그룹에 의해 전개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불가-타타르인 마르자니(Marjani : 1815년~1889년)가 영도한 그룹이다. 이들은 종교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각성을 촉구

했으며 이슬람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경멸하고 코란과 하디스에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옹호했다. 이들의 이 같은 이슬람 개혁 정신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근대 개혁운동의 길을 터주었다. 두 번째 그룹은 타타르의 진보적 무슬림 인텔리겐차들이다. 이들은 이미 1905년 이전부터 이스탄불, 카이로, 메디나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개혁과 지적, 정치적 부흥에 큰 기여를 했고 1910년에는 ‘청년교육위원회’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해 대중에게 개혁사상을 주입시켰다. 또한, 이들은 ‘청년부하라당’(Young Bukhara Party), ‘청년히바당’(Young Khiva Party) 등을 결성해서 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오랜 전통인 아미르(Amir, 首長) 제도를 부정했고 무슬림 성직자 기구를 멸시했으며 민주적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민족어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 당시까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차가타이계 투르크어를 신학교에서 배워왔는데, 이러한 언어교육이 부유한 계층에만 한정돼 다수의 일반 대중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그룹은 민족언어의 창조를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은 그룹이다. 마침내 불가-타타르인인 압둘 카이움 나시리에 의해 대중 언어에 기초해서 타타르 문자어가 창조되었다. 이어 아제리 문자어, 카자흐 문자어 등이 창조되기도 했다.

지식인들 중심으로 전개된 자디드운동은 당시 인구의 80%를 차지했던 농촌 지역의 보수적 거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범민족적 운동이 아닌 도시 지역 중심의 운동이란 한계를 지녔다. 하지만 소비에트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개된 중앙아시아의 민족저항운동인 바스마치운동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디드운동
- 다국어 표기 Jadid movement(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마일 가스프랄르, 바스마치운동, 청년투르크당, 이스탄불, 부하라, 히바
- 참고문헌(오프라인) 金文京, 舊소련의 中央아시아 强占과 무슬림 抵抗運動 -바스마치운동(1917~1927)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Allworth, E., *Central Asia: 120 years of Russian Rule*, Durham N C., 1989.
Fierman, William, *Soviet Central Asia*, Westview Press, 1991.

I G002 | 자라 톨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Zaraa Tolgoi

자라 톨고이 유적은 아이막 바양 솜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다. 1988년에 발견되었고, 평탄지에 위치한 8기 가운데 6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자라 톨고이 2호는 상층에 고리 모양의 적석이 드러났는데, 직경은 7m이다. 적석을 제거하자 드러난 내부에서는 동물뼈가 다량 수습되었다. 묘광 서쪽에서는 도굴 구멍이 확인되었다. 깊이 1.2m에 이르자, 묘광벽을 따라 장벽에만 수직으로 판석을 세워 만든 석곽 상부가 노출되었다. 묘광 내부에는 심하게 부식된 목제편이 많이 있었고, 그중 일부에서는 붉은색 칠 흔적이 확인되었다. 묘광 북쪽에서는 하악골, 요골 등 인골이 수습되었다.

자라 톨고이 3호는 2호 무덤에서 동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름 5m~5.5m 규모이다. 중심부는 흙으로 채워져 있고 함몰되었다. 적석을 제거하자 드러난 내부는 돌로 채워져 있었다. 묘광 중앙에는 길이 2cm의 철못, 길이 5cm의 삼익형 철촉 등이 있었다. 깊이 1.7m의 묘광 북쪽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과 목탄이 확인되었다. 인골은 보존 상태가 양호했는데,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시신을 바로 펴서 신전장(伸展葬)으로 매장되었고 두개골이 없었다. 허리

부근에서 철제대구, 가슴 부근에서 철편이 출토되었다. 석곽 내에서는 목관 장식으로 보이는 철제 띠가 다량 수습되었는데, 목관재가 부착된 채 남아 있었다. 추정 연대는 B.C. 3세기~A.D. 1세기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라 툴고이 유적, 자라아 툴고이
- 다국어 표기 Зараа Толгой(러시아어), Zaraa Tolgoi(몽골어)
- 참고문헌(인라프오)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2013. ULAANBAATAR.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1)』, 2011.

I G003 | 자르 쿠르간 미너렛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Jar Kurgan minaret

자르 쿠르간 미너렛 은우즈베키스탄 테르메스 인근에 카라한 칸국 시기에 건축된 모스크의 미너렛이다. 19세기 발굴 조사서에는 미너렛 곁에 모스크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 미너렛은 1108~1109년에 건설되었다. 비문에 따르면 건축가는 알리 빈 무함메드 엘 세라시(Ali bin Muhammed el Serahsi)이다.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은 미너렛 몸체에 있다. 주요 재료가 벽돌인 이 미너렛은 주춧돌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코니와 미너렛 최상단층은 지진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이 손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높이는 21.6m이고 주춧돌의 높이는 4m 가량이다. 윗부분의 지름은 4.10m, 밑부분의 지름은 5.40m이다.

팔각형 주춧돌의 각 면에는 벽감(龕壁)이 있다. 입구는 이 주춧돌의 한 면에 위치해 있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미너렛의 상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존재한다. 주춧돌의 각 면마다 존재하는 직사각형 패널에 테라코타로 만든 쿠픽 서체의 비문이 있다. 이 중 하나에 미너렛의 건



자르 쿠르간 미너렛
Source: <https://uzbekistan.travel/>

설 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외에 기하학 문양도 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진 원통형 몸체에는 16개의 둥근 홈이 파여 있다. 이 홈의 윗부분은 작은 아치가 있는 벽감으로 연결된다. 이 벽감 바로 위에는 테라코타로 만든 넓은 띠가 둘러 있는데 여기에는 코란 구절이 쿠픽 서체로 새겨져 있다.

다른 카라한 칸국의 건축물들과 유사하게 이 미너렛도 벽돌을 놓히거나 세워 지그재그 문양이 나타나게 쌓아 올려 장식성을 배가시켰다. 원통형의 몸체에 홈이 파인 형태는 이후 투르크 건축에서 꾸준히 재현된다. 특히 13세기에 건축된 안탈리아 이블리 미너렛 모스크(Antalya Yivli Minare camii)와 에르주룸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Erzurum, Çifte Minareli Medres)에 있는 유사한 형태의 미너렛으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르 쿠르간 미나레트
- 다국어 표기 Manar-i Jar Kurgan(페르시아어), Car Kurgan minaret(튀르키예어), Çar kurgan(튀르키예어), Jar Kurgan minor(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3907/original/IMG12813.jpg?1384713846,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24/karahanlilar-5_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1990.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 Form, Function and Mean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I G004 | 자바트 헤이엣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Cavad Heyet

남아제르바이잔(이란 북부)의 문학과 철학 분야 연구에서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인 자바트 헤이엣(Cavad Heyet)은 1925년 5월 24일 태브리즈(Təbriz)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해매단(Həmədan) 및 테헤란(Tehran) 등 도시에서 받았다. 그는 테헤란 대학교(Tehran Universiteti) 및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 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외과의사로 이란에서 처음 심장 개수술(open heart surgery)을 했다.

자바트 헤이엣은 의사임에도 투르크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영어,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이들 언어로 작품들을 창작했다. 그의 연구들은 남아제르바이잔의 문학 비평, 문학 평론, 투르크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1979년부터 테헤란에서 튀르키예어와 페르시아어로 만드는 잡지 <와를릭(Varlıq)>의 편집장을 지냈다. 이 잡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귀중한 연구들을 게재했으며, 국가 유산의 연구 및 학습,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잡지에 실린 대표적인 문학 비평 및 평론가로는 자바트 헤이엣, 해미트 니트기(Həmid

Nitqi), 매함매델리 페르자네(Məhəmmədəli Fərzanə), 애지즈 뫼흐쉬니(Əziz Möhsüni), 해미트 맴매드자대(Həmid Məmmədzadə), 새매트 새르다르니야(Səməd Sərdarniya) 등이 있다.

자바트 헤이엣의 저서는 『아제르바이잔 구전 문학(Azərbaycan şifahi xalq ədəbiyyatı, Bakı, 1990)』,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고찰(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nə bir baxış, Bakı, 1993)』, 『투르크인들의 역사와 문화 고찰(Türklərin tarix və mədəniyyətinə bir baxış, 1993)』, 『문학평론(Ədəbiyyatşünaslı, 1996)』, 『투르크어와 방언들의 역사(Türk dili və ləhcələrinin tarixi, Bakı, 2006)』, 『완벽의 절정(Kamillik zirvəsi, Bakı, 2009)』, 2권으로 구성된 『우리의 언어, 문학, 정체성을 위해(Dilimiz, ədəbiyyatımız və kimliyimiz uğrunda, Bakı, 2 cilddə, 2013)』 등이다. 이 연구들은 고대부터 19세기까지 아제르바이잔의 민속, 고전문학을 다양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문학 평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의 남과 북 문학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봤다는 점이다.

자바트 헤이엣은 바쿠 국립대학교(Bakı Dövlət Universiteti), 캐재르 대학교(Xəzər Universiteti),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 등 여러 대학의 명예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2014년 8월 12일 바쿠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제2명예의 묘지(I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자바트 헤이엣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바트 헤이엣

● 다국어 표기 Cevad Heyet(튀르키예어), Джавад Хейет(러시아어), Cavad Heyat(투르크멘어), هیئت جواد(페르시아어), Cavad Heyət(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5/Dr._Cavad_Heyet_%28cropped%2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Doktor Cavad Heyət (Məqalələr toplusu)*, Bakı: Azərneşr, 1995.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smayılova Nəzakət, *Cənubi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Müasir Mərhələdə, Yaxud "Varlıq" Ədəbi Məktəbinin Nümayəndələr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0.

Məmmədli Pərvanə, *Cənubi Azərbaycan Ədəbiyyatı Məsələləri*, Bakı: Sabah nəşriyyatı, 2015.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Xudiyev Nizami, *Cavad Heyət Möcüzəsi*, Bakı: Azərneşr, 2005.

I G005 | 자브키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Zavkiy

자브키이(Zavkiy)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가장 위대한 우즈베키스탄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민주주의 문학과 풍자 장르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본명이 우바이둘라 우스타 살리흐 오글리(Ubaydulla usta Salih ogli)인 그는 1853년 코칸트에서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마을학교에 입학시켰고, 이후 마드라사로 보냈다.

자브키이는 마드라사의 교육과 독학으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공부하고, 동양 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쌓았다. 그가 정확히 언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드라사 재학 기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할 무렵 무키미이(Muqimiy)나 푸르캣(Furkat)과 같은 당대 문인들의 모임에 합류하여 이들과 교류했다. 자브키이는 곧 이들과 함께 시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시를 쓰는 한편, 염소 가죽으로 부츠를 만드는 일을 아버지에게 배워 이를 생업으로 이어갔다. 아버지가 편찮으시자 그는 마드라사 작은 방구석에서 제화공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시장에 작은 가게를 열어 부모님을 돌보았다. 이 제화공의 일은 그가 일반 노동자와 보통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들의 꿈과 열망을 직접 관찰하는데 도움이 됐다.

자브키이는 1870년대와 1880년대를 거치면서 시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낭만적인 가잘(g'azal)과 무함마스(muxammas)를 집필하는 것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돌려 부지런한 보통 사람들의 삶,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고통받는 계층의 삶을 작품에 담았다. 그는 식민주의의 현실과 사회의 문제들, 개인의 악덕과 부정, 부도덕 등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했다. 당시 우즈베크 전통 문학에서 무키미이가 시작한 풍자시가 폭넓게 발전한 데는 자브키이의 공이 크다. 그의 참신함은 무엇보다 러시아 식민지가 되어 버린 나라의 불평등과 인권 침해를 과감하게 다루었다는 점에 있다.

1900년대 초 자브키이의 작품 중 「판사 선거의 사건(Voqelai qozi saylov)」이라는 마스나비

(masnaviy)는 식민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치르는 사기성 ‘선거’의 무익함, 부패와 속임수, 곧 선출된 후보의 역겨운 행태를 사실 그대로 그려냈다. 또한, 그는 시 「놀랄 만한 시대(Ajab zamona)」와 「압두라흐먼 사탄(Abdurahmon shayton)」 등을 통해서 식민 체제의 사회적 불평등, 불의, 차르 행정부의 비호를 받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소수의 관리들을 비판했다.

시골의 상황과 농민들의 삶의 문제 또한 자브키이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페르가나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다. 이 여행을 통해 시골의 실제 상황, 농민들의 삶, 그들의 고된 노동과 비참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된다. 이 경험은 그의 여러 작품에 반영된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열심히 노동하는”, “평생 빵 한 덩어리를 배불리 먹지 못한”, “말랐고 노랗고 배고픔에 험싸인”과 같이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묘사한다. 「양기코르건의 마을(Yangiqo'rg'on qishlog'i)」, 「셔흐마르던 여행기(Shohimardon sayohati)」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의 이런 작품은 무키미이의 「여행기(Sayohatnoma)」의 영향을 받았다.

1916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하지 않다(Ajab ermas)」라는 무함마스(muhammas)는 자브키이의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의 모든 우즈베크 사회 정치 시에서 중요한 현상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자브키이는 식민지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조국의 비극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회적 변화를 예고한다.

자브키이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일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인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시로 풍자했다. 이 같은 작품으로는 가벼운 조롱,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유머로 가득 차 있는 「덧신 설명(Ta'rif kalish)」, 「나의 말(Otim)」, 「등롱(Fonus)」, 「나의 황소(Sigirim)」, 「날벌레들(Pashshalar)」 등이 있다. 자브키이의 낭만적인 가잘과 무함마스는 그 당시 가수들이 노래로 불러 민요만큼 인기가 많았다.

자브키이는 말년에 소비에트 정권에 저항한 투르크인들의 바스마치운동에 반대하는 풍자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1920년 말 바스마치 세력에 납치되었고, 이에 그의 친구들이 온갖 노력으로 소비에트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브키이를 구출했다. 그러나 자브키이는 바스마치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당한 구타와 괴롭힘 등으로 생긴 병 때문에 1921년 여름에 사망했다.

자브키이는 러시아 혁명과 2월 혁명, 10월 혁명 모두를 겪는 등 거친 역사적 환경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그는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견지하면서 독창적인 시들을 썼다. 그의 시는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10월 혁명 이후 쓴 사회적 주제의 시는 우즈베크 소비에트 시의 초기 사례로 손꼽히며, 그는 우즈베크 시 문학의 초기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 현재 코칸트시에는 자브키이의 이름이 붙은 마할라, 학교, 거리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브커이이
- 다국어 표기 Zavkiy(우즈베크어), Завк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키미이, 푸르캣, 바스마치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 Ibrohimova M., *Zavqiy ijodi: maqolalar, xotiralar, she'rlar*, Farg'ona: Farg'ona, 2008.
-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uch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75.
- Zavqiy, *Ajab zamona: she'rlar*, Toshkent: Sharq, 2003.

I G006 | 자야툴라크와 히우힐루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Zayatulak and Hyuhlyu

자야툴라크와 히우힐루(Заятуляк менэн Хыухылу)는 바시키르 서사시(쿠바이르)로, 바시키르 민족의 초기 서사 창작물 중 하나이다. 산문과 운문 형태로 존재하며, 러시아의 인류학자이자 사전편찬자인 달(В.И. Даль)이 처음 채록하여 잡지 <모스크바인> 1843년 1호에 「바시키르 루살카」란 제목으로 러시아어로 번역해 발표했다. 이 서사시는 1858년 수호돌스키(Л.В. Суходольский), 1875년 이그나티예프(Р.Г. Игнатъев), 1902년 술타노프(С.Г. Султанов), 1910년 가푸리(М.Гафури) 등이 러시아어 또는 타타르어로 채록했다.

이 서사시에는 혈족 관계가 붕괴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주요 주제는 가족의 성립과 인간 개인의 행복을 위한 투쟁이다. 서사시의 주인공인 자야툴라크는 형들과의 갈등으로 집을 떠난

다. 아시리쿨 호숫가에서 그는 용왕의 딸인 히우힐루(바시키르어로 히우는 ‘물’, 힐루는 ‘미녀’란 의미로, 즉 ‘물의 미녀’란 뜻이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녀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자야톨랴크는 부모, 친구들과 인연을 끊고 용궁으로 떠난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은 고향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부 지참금으로 수많은 말을 받아 히우힐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자야톨랴크와 히우힐루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부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다. 자야톨랴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씨족 공동체의 일을 보았는데, 약속한 기일 내에 아내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낙심한 히우힐루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갔고, 아내 없는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자야톨랴크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야톨랴크 메넨 히우힐루
- 다국어 표기 Заятуляк и Хыухылу(러시아어), Zayatülek ve Huhul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쿠바이르, 바시키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шкорт халык ижады. 3-сө т. Эпос. Өфө, 1998.
Киреев А.Н.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Уфа, 1970.
Сбор.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М. 1977.

I G007 | 자완시르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Cavanşir

알바니아의 군주 자완시르(아제르바이잔어 표기 : Cavanşir, 영어 표기 : Juansher, 재위: 637년 ~669년)은 알바니아의 기르디만 지역(Girdiman vilayəti)에 살던 사비르 투르크인 메흐라니 부족(Mehranilər sülaləsi) 출신이다. 591년 사산 제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의 협정에 의해 기르디만은 사산 왕조의 영토로 복속되었다.

알바니아의 북쪽에 위치한 카자르는 비잔틴과 동맹을 맺고 사산 조에 맞선다. 알바니아의 바라즈 그리고르(Varaz Qriqor, 재위: 630년~642년)는 비잔틴 제국 황제 이라클리오스(Heraclius, 재위: 610년~641년)에 의해 권력을 상실하고, 알바니아는 602년~628년에 벌어진 비잔틴-사산 전쟁의 무대가 된다.

633년 칼리프의 군대가 이라크에서 사산 제국의 국경을 넘었을 때, 알바니아-기르디만 지역의 총독으로서 바라즈 그리고르는 속국의 의무를 다한다. 634년 야즈데게르드 3세(Yazdegerd III, 재위: 632년~651년)를 돕기 위해 아들 자완시르를 3,000명의 원군과 함께 보낸다.

636년 사산 군에 합류한 자완시르는 칼리프군과 전투를 벌였다. 사산 조는 그에게 군기와 종이 달린 나팔, 두 개의 황금 창, 황금물로 칠한 방패, 진주로 장식한 황금 벨트, 금으로 장식한 검, 그리고 왕관을 주었다. 638년 아랍인들이 사산 조의 수도인 매다인(Mədain)을 포위했을 때, 자완시르는 알바니아 군대와 함께 6개월간 도시를 방어했다. 두 번 중상을 입은 후, 전투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사산 조의 패배를 예감한 자완시르는 640년 알바니아로 돌아왔다.

칼리프 국은 651년 사산 조를 멸망시킨다. 자완시르는 알바니아를 지키기 위하여 비잔틴 황제 편에 선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스 2세(Constantine II, 재위: 641년~668년)의 도움으로 자완시르는 이베리아에서 아라즈 강과 대르벤트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 알바니아의 통치자가 된다. 자완시르는 북쪽에 인접한 카자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카자르 칸의 딸과 결혼한다.

자완시르는 21세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알바니아에 있던 사산 조 관리들과 영주들을 숙청하고 바르다에 감금되어 있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했다.

670년대에 벨랜재르(Bələncər) 인근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아랍인들을 물리친 카자르인들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알바니아를 공격했다. 자완시르는 퀴르 강 인근에서 카자르인을 물리쳤다. 하지만 카자르가 3년 후 대군을 동원해 침공했을 때 패했다. 결국, 자완시르는 카자르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매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카자르는 몇 년 후 조약을 위반하고 계속 알바니아를 공격했다.

당시 알바니아와 비잔틴의 교류는 아르미니야(Arminiya,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Ərməniyyə)의 영토를 통해 가능했는데, 우마이야조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알바니아와 비잔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알바니아는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

667년과 670년 자완시르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리프 무아위야 1세(Mu'awiya I, 재위: 661년

~680년)를 만나 협상했다. 협상 결과 칼리프는 알바니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세금을 3분의 1로 줄여주었다. 이 협상 결과에는 알바니아의 전략적 위치, 풍부한 자원, 자완시르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아랍의 첫 번째 침략 후, 아제르바이잔의 남부 지역인 아대르바이간(Adərbayqan)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칼리프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했으나, 알바니아는 자완시르의 정책 덕에 내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681년 자완시르는 친비잔틴 영주들의 음모로 살해되고 말았다.

이후, 바라즈 트라닷(Varaz Trdat, 재위: 670년~705년)가 왕위에 오르지만, 칼리프는 차츰 알바니아의 자치권을 박탈했으며, 카자르는 자완시르에게 복수한다는 구실로 알바니아를 공격하여 개벨레(Qəbələ)와 배르데(Bərdə)의 도시와 마을을 약탈했다. 바라즈 트라닷은 카자르와 어렵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칼리프가 비잔틴 지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알바니아에 군대를 보냈다. 결국 705년, 자완시르의 마지막 후계자는 비잔틴 제국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 친척들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끌려가 처형됐다.

이것으로 알바니아의 메흐라니 왕조의 통치가 끝나고, 알바니아는 주권을 상실했다. 이후 알바니아의 행정은 칼리프의 총독에게 맡겨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반시르, 자완쉬르, 자반쉬르, 주안셰르

● 다국어 표기 Cavanşir(아제르바이잔어), Cavanşir(튀르키예어), Juansher(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2-Ci Cild. Bakı. "Elm". 2007. 608 Səh.

Azərbaycan Tarixi: Dərslük Z. Büny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neşr, 1994, 680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Bünyadov Ziya. *Azərbaycan 7–9-Cü Əsirlərdə*, Bakı, 2008.

Məmmədova Fəridə. *Azərbaycanın Siyasi Tarixi və Tarixi Coğrafiyası*. Bakı: 1993.

Məmmədova Fəridə. *Qafqaz Albaniyası və Albanlar*. Bakı: 2005.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ük*. -

Bakı: Mütercim, 2015. - 336 Səh.

Şərifli M.X. *9-Cü Yüzlün Yansı - 11-Ci Yüzlərdə Azərbaycan Feodal Dövlətləri*. Bakı, 2013.

vəlixanlı Nailə. *Ərəb Xilafəti və Azərbaycan*. Azərneşr, Bakı, 1993.

I G008 | 자카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Zakat

자카트(아랍어: زكاة)는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어원은 ‘정화(정결)’ 혹은 ‘희사’를 의미하는 ‘زكوا’이다. 사다카(sadaqa)가 자발적인 희사를 의미한다면, 자카트는 의무적인 희사이다. 코란에서도 자카트가 사다카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희사를 의미했으나, 하디스에 따르면 메디나 시대 이후 의무적인 희사로 바뀌었다. 자카트가 의무화된 이후로 예언자 무함마드는 자선을 따로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았고, 무슬림들은 자발적으로 희사의 의무를 행했다고 한다. 특히 하디스에서는 라마단 이후 의무적으로 자카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자카트를 알라의 명령으로 수행해야 하는 예배의 일종으로 본다. 또한, 자카드가 개인과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 연대를 강화하며, 경제 구조에 활력을 일으키며,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이점이 있으며, 부자들을 인색함과 탐욕에서 구원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복지정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형제애를 키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자카트는 이슬람교도들의 의무이나, 모든 사람이 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카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우선 조건은 기부자가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카트가 신앙 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는 노예와 첩, 미성년자, 가난한 자는 자카트의 의무가 없다.

자카트의 양 또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재산의 40분의 1, 즉 2.5%이다. 여기서 총재산은 소유자의 일시적인 재산이 아닌, 이슬람력 기준으로 최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재산은 타인과 소유권 다툼 없이 납부자의 온전한 처분권이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도, 뇌물, 이자를 통한 수익과 같이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얻은 재화는 자카트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총재산은 당사자와 당사자가 책임지는 가정의 소비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대출이나 채권 증식 가능성이 있는 재화, 농산물, 화폐가 아닌 귀금속, 광물 및 가축 등 재산의 종류와 항목에 따라 총재산의 인정 여부나 자카트의 비율은 학파와 학자



자자카트를 위한 쌀을 희사하는 이슬람 신도

에 따라 달라진다.

자카트 수혜자는 전통적으로 8개 범주로 나뉜다. 이들에게 모두 같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지 여부는 학파마다 해석이 다르다.

1.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파마다 다르다.
2.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
3. 자카트를 관리하거나 수집하고 배포하는 기관(또는 사람)
4. 노예와 첩
5. 채무자들. 여기서 채무자는 기본적인 요구(생계)를 충족하기 위하여 빚을 진 사람, 전쟁이나 세력 다툼의 희생으로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한다.

6. 종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자하드 전사들이나 순례자들을 의미했으나, 현대에서는 알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7. 여행자.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여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여행을 마치고 귀향하는 길은 여행으로 치지 않는다.
8. 이슬람에 동조하거나 개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비무슬림이지만 이슬람에 협조적이고 잠재적인 동맹자들이다.

자카트의 수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카트 납부자의 가족, 친척, 배우자, 아이, 비무슬림, 무함마드의 가족, 부자이다. 또한, 모스크나 마드라사를 짓는 것 등은 자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카트는 과거에는 대부분 일종의 세금처럼 국가나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에 내고, 기관이 수혜자들에게 일정량씩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과거처럼 국가가 관리하여 배분하거나, 신자들이 관련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한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튀르키예 국가 중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카트를 행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카트, 자카트
- 다국어 표기 Zekat(튀르키예어), Zekat(아제르바이잔어), Zeker(카자흐어), Zakot(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30779&cid=50766&categoryId=5079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919&cid=40942&categoryId=31600>
- 참고문헌(오프라인) Erkal, Mehmet. “ZEKÂT”,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4, Istanbul: TDV, 2013, pp.197~207.

I G009 |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Cahit Sıtkı Tarancı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Cahit Sıtkı Tarancı)는 튀르키예 공화국 시기의 시인이다. 1910년 10월 4일 디야르바크르 피린취치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우세인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Hüseyin Cahit Sıtkı Tarancı)이다. 디야르바크르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스탄불에서 프랑스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했다.

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인 시인 지야 오스만 사바(Ziya Osman Saba)를 이곳에서 만났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시에 입문한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는 첫 시를 잡지 <무히트(Muhit)>와 <세르베티퓌눈-우야느쉬(Servetifünûn-Uyanış)>에서 선보였다.

그리고 첫 산문은 1931년 4월 15일 잡지 <아카데미>에 게재했다. 다음해에는 시, 단편소설, 수필을 잡지 <바르투>, <유젤>, <인클라프츠 겐치릭>, <인산>, <권뒤즈>, <악프나르>, <쿨투르 하프타스>, <데메트>, <일퀴>, <프나르>, <이쉬테 이스탄불>, <야라트쉬>와 신문 <쥬후리에트>, <악삼(문화면)>, <바탄(문화면)>, <예술과 문학> 등에 기고했다.

1931년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을드즈에 있는 정치대학에 입학했다. 이 시기 보헤미안 삶을 살았던 자히트 스트크는 공부에는 통 관심이 없었고 음주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치대학에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다. 이후 그는 이스탄불 무역학교로 옮겨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신문 <쥬후리에트(Cumhuriyet)>의 창립자 나디르 나디와 도안 나디의 지원으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파리로 넘어가 1938년부터 1940년까지 파리정치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파리 라디오 방송국의 튀르키예어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신문 <쥬후리에트>에 지속해서 짧은 글들을 기고했다. 그는 파리 유학 시절 튀르키예 시에서 중요한 인물인 옥타이



자히트 스트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르파트(Oktay Rifat)와 만났다. 이 만남은 지야 오스만 사바와 글벗이 된 것처럼 그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 나치 독일 전투기가 파리에 폭탄을 투하하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40년 6월 13일 자전거를 타고 리옹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제네바로 넘어갔다. 여기서 잠깐 머문 뒤 튀르키예로 돌아왔다. 그는 1944년 아나톨루 신문사에서, 이후에는 농산물청과 노동청에서 통번역가로 근무했다.

문학 부문에서 그의 중요한 첫걸음은 시 「35살(Otuz Beş Yaş)」이 1946년 CHP 시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것이다. 그는 프랑스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와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컸다. 시인 보들레르(Baudelaire)의 영향을 받아 시의 미학적인 부분을 중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고등학교 친구인 시인 지야 오스만 사바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시인 보들레르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매력에 빠지면서 시작한 일들이 우리에게 행운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시와 삶 사이에 무언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은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는 시의 목표를 시 그 자체로 보았다. 그는 효율적인 단어 사용을 중시했고, 감성을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개인적 상황으로 인한 소극성과 외로움도 그의 시에 반영되었는데 죽음이나 고독, 도피로 표현되었다. 특히 그가 태어난 곳을 떠나 이스탄불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복잡하고 비관적인 상황이 시와 이야기에 많이 드러난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자기 고향과 가족이 멀리 떨어져 그를 외롭고 힘들게 했는데, 이러한 감정이 그의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시에서는 설렘의 감정도 느낄 수 있다. 직유나 꾸밈에 의존하지 않고 담백하고 짧은 음절이나 문장 하나로 시행을 구성하고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의 시는 짜임새가 있다.

공화국 시기 튀르키예 시를 대표하는 시인인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의 대표작은 『내 인생에서 침묵(Ömrümde Sükût, 1933)』, 『35살(Otuz Beş Yaş, 1946)』, 『희망의 아름다움(Düşten Güzel, 1952)』 등이다. 그가 죽은 뒤에 『이후(Sonrası, 1957)』, 『시 모음집(Bütün Şiirleri, 1983)』이 발간되었고, 사후 50주년을 기념하여 생전에 썼던 많은 이야기를 묶은 『창에서 하루가 사라지지 않기를(Gün Eksilmesin Pencereden, 2006)』이 출판되었다.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가 태어난 디야르바크르 집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1954년 몸이

마비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한 그는, 1956년 10월 12일 흉막염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앙카라 제베지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히트 스텝 타란즈

● 다국어 표기 Cahit Sıtkı Taranc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4/46/Cahit_Sitki_Taranci.gif

● 참고문헌(오프라인) Beysanoğlu Beysanoğlu, *Cumhuriyet Dönemi Türk Edebiyatının Diyarbakırlı Üç Büyük Şairi: Cahit Sıtkı Tarancı - Ahmed Arif - Sezai Karakoç*, San Matbaası, Ankara, 1997.

Samanoğlu Gültekin, *Cahit Sıtkı Tarancı*,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8.

Tarancı Cahit Sıtkı, *Ziya'ya Mektuplar*,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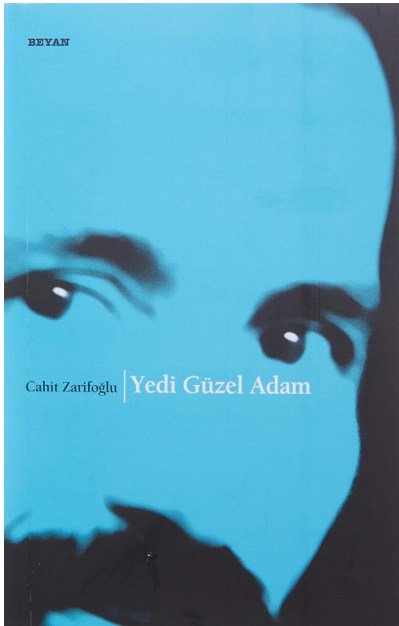
Timur Kemal, Uludağ M. Emen (Editörler), *Doğumunun Yüzüncü Yılında Cahit Sıtkı Tarancı Uluslararası Sempozyumu*, Atatürk Kültür Merkezi, Ankara, 2013.

I G010 | 자히트 자리프오을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Cahit Zarifoğlu

자히트 자리프오을루(Cahit Zarifoğlu)는 1940년 7월 1일 앙카라에서 태어났다. 친가는 캅카스 지역에서 마라쉬로 이주하여 정착한 가족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니야지(Niyazi)인데 판사였고, 어머니는 마라쉬 사람 쉐리페였다.

자히트 자리프오을루는 아버지의 직장 전근에 따라 어린 시절을 마라쉬, 시베렉(산르우르파), 실반(디아르바크르), 바이칸(시르트), 크즐자하맘(앙카라), 앙카라에서 보냈다. 그는 중등 교육을 마라쉬에서 받은 뒤 이스탄불 대학교 문과대에서 독일어문학을 전공했다. 1967년과 1973년에는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어학 연수를 했다. 틈틈이 유럽 주요 도시를 여행하기도 했다. 대학교 재학 중 이스탄불에 있는 신문사에서 비서로 근무했고 몇몇 기관에서 번역일을 했다. 그



『멋진 남자 일곱 명(Yedi Güzel Adam)』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리고 이스탄불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튀르키예 국영방송국(TRT)에서 번역일도 했다. 1983년에는 이스탄불 TRT 라디오로 발령받아 기자, 취재, 연구 책임자로 근무했다.

자히트 자리프오을루는 마라쉬 고등학교에 다닐 때 문학에 관심 있는 몇몇 친구들과 어울렸고 이들과 <함레>라는 교지를 만들었다. 동시에 마라쉬 지역 신문에서 문학-예술면을 담당하기도 했다. 1962년에는 이스탄불에서 세자이 카라코취를 알게 됐다. 1965년에는 신문 <새로운 독립>의 문학-예술 면에 「압두르라흐만 켄(Abdurrahman Cem)」이라는 시를 기고했다. 그의 시는 <예니 데르기>, <추상>, <투르크어>, <파피루스> 같은 잡지에도 게재되었다.

1969년부터 누리파크달이 앙카라에서 만든 잡지 <문학(Edebiyat)>에 작품을 신기 시작했다. 이 잡지가 발행될 때

시집과 이야기 책도 나왔다. 1976년에는 친구인 라심 외즈덴외렌, 에르뎀 베야즈트, 알라에딘 외즈덴외렌과 함께 잡지 <마베라(Mavera)>를 창간했다. 잡지와 함께 만든 아카베 출판사에서 시와 일기를 책으로 엮었고, 뒤이어 어린이 책도 발간했다. 그는 아흐메트 사오람, 베다트 잔 등 여러 필명을 사용하며 글을 썼다. 마지막 시는 잡지 <예디 이클림(Yedi İklim)>에 기고했다. 그의 마지막 시집은 1986년 출판된 『두려움과 간구(Korku ve Yakarış)』이다.

잡지 <마베라>는 자리프오을루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이 잡지를 단지 문학 잡지가 아닌 출판물이라고 인식했고, 그가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무슬림의 문제에 귀 기울였고, 긴장감을 갖고 주시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예술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는 마지막에 이스탄불 TRT 라디오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

자히트 자리프오을루는 시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정신,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세계를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시도에는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면 그는 대체로 ‘두번째 혁신파’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주제로

시를 쓰게 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시로 작품 경향을 선회한다. 197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이슬람교 신비주의 철학과 정치적 메시지의 흔적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자히트 자리프오을루의 대표적인 시집은 『표적이 된 아이들(İşaret Çocukları, 1967)』, 『멋진 남자 일곱 명(Yedi Güzel Adam, 1973)』, 『멘질레르(Menziller, 1977)』, 『두려움과 간구(Korku ve Yakarış, 1986)』 등이다. 수필집으로는 『첻바퀴 같은 이 세상(Bir Değirmendir Bu Dünya, 1986)』, 『원대한 꿈 뒤에(Zengin Hayaller Peşinde, 1999)』 등이 있다. 아동문학 책으로는 『참새(1983)』, 『딱따구리(소설, 1983)』, 『Katuraslan(1983)』, 『유렉 할아버지와 파디샤(동화, 1987)』, 『어린 세자(동화, 1987)』 등이 있다.

자히트 자리프오을루는 1987년 6월 7일 폐암으로 이스탄불에서 운명했다. 그의 묘지는 카브리 위스퀴다르 베이레르베이에 퓌뤼제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히트 자리프오을루, 자히트 자리프올루
- 다국어 표기 CAHIT ZARIFOGLU(영어), Cahit Zarifoğl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위스퀴다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8dgmmXjTL._SL1500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Alim(Hazırlayan), *Cahit Zarifoğlu: Yürek Safında Bir Şair*, KannusYayınları, İstanbul, 2003.
Süreya Cemal, “760. Gün”, *Hürriyet Gösteri*, S. 80, İstanbul, 1987.
Şirin Mustafa Ruhi, *Güneşe Yol Açan Çocuk, Cahit Zarifoğlu Kitabı*, İzYayınları, İstanbul, 2003.

I G011 | 작명과 관련된 민간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The naming tradition and folk beliefs

일반적으로 튀르크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부모를 비롯해 양가 조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가족 전통과 문화에 따라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튀르크 민간에서는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처럼 아이가 살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이름은 단순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성격·사회적 지위·직업·성공·가족 등 아이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술적 힘을 지녔다고 여겼다. 따라서 전통 사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대다수가 무슬림인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튀르크인들은 알라신의 자비와 축복, 권능, 힘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이름을 짓거나 무슬림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삼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나 계절과 관련된 이름을 짓기도 한다. 즉 태어난 날이 종교적·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그와 관련한 이름을 짓는 것이다. 고대 튀르크 전통 민간 신앙으로는 천신사상,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을 들 수 있는데 튀르크의 이슬람화 이후 비이슬람적 요소들, 즉 민간 신앙과 관련된 의례나 습속, 행위들은 경계와 배척의 대상으로 여겨져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신앙은 이슬람 의례와 전통에 투영되어 내재적 요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행위에도 이러한 민간 신앙이 투영됐다. 산, 나무(거목, 자작나무), 꽃(튤립, 장미, 연꽃), 새(독수리), 강인한 동물(사자, 늑대), 돌, 바위, 귀금속(다이아몬드, 쇠/철, 금, 은, 진주), 폭포, 바다, 강, 호수, 물, 하늘 등 자연물의 글자를 이름에 사용하여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특히, 튀르크족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자연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글자를 아이의 이름에 넣는데, 이는 숭배 대상의 힘이 아이를 보호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튀르크 전통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영웅, 존경받는 부족장의 이름, 민족 혹은 사회 지도자의 이름들을 본떠 아이에게 지어주기도 했다. 영웅(카흐라만, Kahraman), 전사

(알프 Alp, 알페르 Alper) 등을 직접 이름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정치가, 학자, 문학자, 사상가, 교육가 등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날 당시 사회와 가정의 상황, 부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친·인척, 가족 등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의 이름은 아이의 건강·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에는 주술 신앙적 힘이 아이에게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아이의 이름에 이아시야마크(Yaşamak, 살다)의 파생어인 이아시야르(yaşar), 이아시야르베이(yaşarbey) 이아시야베이(yaşabey), 이아샤귄(yaşagül)이나 하야트(Hayat, 인생), 외뫼르(Ömür, 목숨·수명) 등을 넣기도 했다. 이외에도 괴벡 아드(Göbek Adı, 태명), 타크마 아드(Takma Adı, 별명) 등을 아이에게 붙여주었다. 괴벡 아드는 탯줄을 자를 때 붙여주며, 종교적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아이에게 지어준다.

튀르키예 민간에는 태명과 관련하여 ‘죽어서는/무덤/저승/사후세계에서는 태명으로 불린다.’라는 말이 있다. 튀르키예에서 타크마 아드(takma adı)는 아이가 자라(혹은 아이 때) 신체적, 정신적, 내외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름에 붙여 친근하게 이를 때 사용되어 왔다.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종교적으로 신망받는 사람이나 이맘을 불러 잔치를 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간소하게 한다.

작명과 관련하여 민속 신앙과 종교적 특징이 반영된 여러 의례가 진행되는데, 특히 튀르키예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3일째 되는 날 위츠 예메이(Üç Yemegi)라고 불리는 작명 의례를 진행한다. 이날 그 지역 종교청 소속 공무원, 호자 혹은 종교적 신앙이 두텁고 신망받는 사람 등을 불러 진행하게 한다. 작명 의례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을 방문하여 코란 구절을 읽고 아이의 오른쪽 귀에 대고 아이의 이름을 3번 부른다. 그런 후에 아이가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을 기도한다. 작명 의례에서 외부인을 부르지 않을 때는 아이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아버지가 대신 작명 의례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같다. 이 의례에 참석한 사람들도 아이의 오른쪽 귀에 대고 아이의 이름 세 번 부르기, 아이를 메카의 방향으로 향하게 안기 등 종교적 의미를 지닌 행위를 하며, 아이의 선물로 수건, 돈, 사탕 등을 준다. 작명 의례가 다 끝나면 가족들은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참석자들은 아이 가족에게 축하를 한다. 투르크멘인은 작명 의례를 행하는 날 양을 잡고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초대한다. 튀르키예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이가 처음 난 날을 비롯하여 아이가 첫걸음을 떤 날, 처음 말을 한 날, 머리카락이나 손

톱을 자른 날 등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이 같은 일을 함께 축하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드 베르메, 아드 웨르메

● 다국어 표기 Ad ver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cı yay, İstanbul 2001.

I G012 | 잔다르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Beylik of Jandar

잔다르 공국은 13세기~15세기에 아나톨리아의 중북부에 자리했던 투르크멘계 공국이다. 이 공국의 명칭은 공국을 건설한 야만(Yaman)의 부친인 잔다르(Jändâr)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잔다르는 코니아의 룸 셀주크가 쇠퇴할 무렵, 일 칸국 게이하투 칸(재위: 1291년~1295년)의 후원을 받아 마수드 2세와 전투하여 현재 아나톨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 카스타모누(Kastamonu)를 차지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흑해의 남쪽 연안 및 그 배후지, 옛 지명이 파플라고니아(Paphlagonia)인 곳에 공국을 건설했다. 이 공국은 이후 야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었고, 일 칸국이 멸망할 무렵 야만의 아들 슈자 앓 딘은 일 칸의 지배를 벗어 던지고 시노프를 장악하여 그곳의 공국을 병합하기도 했다.

그러나 1385년 술레이만 베이(Sulaymân Bey)가 오스만의 술탄 바야지드 1세에 의해 살해되면서 이 공국은 잠시 명맥이 단절되었다. 이후 술레이만 베이의 조카이자 그의 전임 군주의 아들인 무바리즈 앓 딘 이스펜디아르(Mubâriz al-Diz Isfendiyâr)가 티무르에 의해 1402년

~1403년 경에 복권되면서 이 공국은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 공국의 다른 이름인 ‘이스펜디야르(Isfendiyār)’는 1385년에 등극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공국은 시노프와 삼순(Samsun) 등의 도시에서 재차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스펜디야르의 재위 시기(r.1402/1403년~1440년)에도 여전히 오스만의 공세가 이어져, 1417년 경에는 오스만의 술탄 무라드 2세에게 토시아(Tosya), 창키리(Cankiri) 등의 도시를 이양해야 했다. 이와 같은 약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 1443년에 즉위한 이스펜디야르의 손자 이스마일 베이(Ismā'il Bey)는 1460년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형제인 키질 아흐메드(Kizil Ahmed)에게 양위해야 했다.

그 후 이스마일 베이는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지정한 거주지인 필리폴리스(Philippolis)에서 사망했다. 키질 아흐메드는 카스타모누에 유폐되었다가 아크코윤루의 군주 우준 하산에게 달아났다. 그는 메흐메드 2세가 사망한 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 술탄 바야지드 2세에게 용서한 대접을 받았으나, 잔다르 공국은 결국 1462년 오스만에 병합되었다. 키질 아흐메드의 아들 메흐메드(Meḥmed)는 바야지드 2세의 딸과 결혼했으며, 메흐메드의 두 아들 샴시(Shamsī Pasha)와 무스타파 파샤(Muṣṭafā Pasha)는 오스만 술탄 셀림 2세와 무라드 3세 치하에서 고위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공국에 대한 기록은 이븐 바투타, 클라비호 등 여행자들의 여행기, 오스만의 연대기 등에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펜디야르 공국, 잔다르도올라르 베이리이

● **다국어 표기** İsfendiyaroğulları(튀르키예어), İsfendiyaroğulları Beyliği(튀르키예어), Candaroğulları(튀르키예어), Candaroğulları Beyliğ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229.

CL. Cahen, "İSFENDİYÂR OĞHLU," in *Encyclopaedia of Islam (EL2)*, Vol. 4, Leiden: Brill, 1997, pp.108~109.

I G013 | 잘그이스-토베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제사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Zhalgiz-Tobe

잘그이스-토베(Zhalgiz-Tobe)는 알타이의 추야 강변에 있는 암각화 유적이다. 추야 강의 왼쪽 지류인 차간 부른지 강의 오른쪽 강변으로, 코시-아가치 마을에서 남쪽으로 9km~10km 떨어진 곳이다. 유적이 위치한 산의 형태는 편자 모양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반원형 극장처럼 보인다. 현재에도 유적지 안쪽에 통나무로 지은 집이 있을 정도로 바람과 악천후를 막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생활한 유목 민족도 여러 가지로 편리한 장소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곳 구릉 주위의 고대 분묘와 여러 지점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산의 암벽 표면에는 수많은 그림이 남아 있는데, 오클라드니코바는 그림이 700개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곳에는 동물 그림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사냥 장면, 활을 쏘거나 말을 타는 장면 등 전쟁과 관련된 그림도 발견되었다. 암각화는 선 굵기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부드러운 사암에 그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을 들고 말을 탄 기병을 그린 것이다. 특히 무기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개별 무기와 무기 세트가 잘 그려져 있다. 유적에 남겨진 그림은 청동기 시대인 BC 8세기부터 초기 투르크 시대인 AD 6세기~11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동물 문양은 청동기 시대부터 그린 것으로 보이고, 기마병 그림에 표현된 마구 중 등자로 미루어 초기 투르크 시대까지 계속 이곳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의 정상에는 돌궐 문자로 쓴 문구가 남아 있는데, 이 문구는 ‘동물에게 짐을 싣고, 상품을 판매는 가격에 팔기 위한 것이다’로 번역된다. 이 문구는 무역상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카라반의 경로뿐만 아니라 추야 강을 베이스로 한 무역기지가 주변에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장소는 독특한 성소의 음향 효과로 소리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 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알고 이곳을 다양한 집단 기원과 제의(祭儀) 행위 장소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잘그이스-토베 유적은 알타이에 있는 암각화 유적 가운데 남겨진 그림이 가장 많다. 특히, 동물 문양뿐만 아니라 기마병의 그림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잘그이스-토베 암각화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잘그이즈-토베

● 다국어 표기 Жалгыз-тоб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돌궐 문자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Маточкин Е.П. Петроглифы Алтая. Новосибирск: 1992.

Окладникова Е.А. Наскальные рисунки в долине р. Дялангаш (Горный Алтай). // Первобытное искусство.

Новосибирск: 1976. С. 83~96.

I G014 | 잘릴 기니아토티치 케예크바예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Jalil Giniyatovich Keyekbaev



잘릴 기니아토티치 케예크바예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잘릴 기니아토티치 케예크바예프(Jalil Giniyatovich Keyekbaev)는 1911년 우파(Ufa)주 카란-엘가(Karan-Yelga) 마을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카로보 마을의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1929년에서 1932년까지 우파에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37년 그는 제1모스크바 국립외국어교육원 게르만어 문헌학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지역의 로할스키 중등학교에서 1년간 독일어 교사로 근무했다. 1938년부터 1941년까지 그는 우파 외국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우파 주에서 전쟁을 피해 피난 온 교사들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1942년 가후리구 사이트바빈스카야 중등학교 교장이 된 그는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공화국의 다양한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1943년부터 1944년까지 바시키르 서적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했고, 1944년부터 1953년까지는 우파 항공기관에서 근무했다.

1948년 그는 모스크바 주립대학에서 「바시키르 문화 언어의 정형화(Orthoepy of the Bashkir Literary languag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테미르야제프 바시키르 교육 기관(현 바시키르 주립대학)에서 수석강사로 일했으며, 이후 외국어학부 학장이 되었다.

그는 1951년부터 1968년 사이에 테미르야제프 바시키르 교육기관의 바시키르 언어학과 학과장(1951년-1968년)과 교무부총장(1957년-1961년)을 역임했다. 바시키르 언어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1966년에는 「바시키르어 음성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비교 역사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으로 정교수로 승진했으며, 1967년에는 바시키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명예 학자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30년 등단한 뒤 문학가로도 활동했다. 괴테, 하인리히 하이네, 에리히 바이너트, 빌리

브레델, 그림 형제의 독일어 작품을 바시키르어로 번역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에세이, 이야기들을 저술했으며, 바시키르 민요 등을 작곡하고 연주하기도 했다. 그는 1968년 3월 19일 바시키르 공화국에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잘릴 기니아토티치 케예크바예브
- 다국어 표기 Jalil Giniyatovich Keyekbaev(영어), Джалиль Гиниятович Киекба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바시키르 공화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An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mp.www.en.freejournal.org/62442324/1/jalil-keyekbaev.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лишев И. Г., Киекбаев М. Дж. Предисловие. // Киекбаев Дж. Г. Основы историче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урало-алтайских языков. Уфа, 1996. С. 6.

I G015 | 잘마우이즈 캠프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Zhalmayuz Kempir

잘마우이즈 캠프르(Zhalmayuz Kempir)는 카자흐 민족과 키르기스 민족의 신화에 나오는 노파 모습의 악한 존재이다. 캠프르는 보통 악의 두목으로 의인화된다. ‘잘마우이즈’는 ‘처먹다’ ‘게걸스럽게 먹다’, ‘캠프르(кемпир 또는 kampir)’는 ‘노파’라는 의미이다. 즉 잘마우이즈 캠프르는 직역하면 ‘게걸스럽게 먹는 노파’란 뜻이다. 잘마우이즈 캠프르는 아이들을 납치하는 존재이며 식인귀이다. 그녀는 수면 위를 가볍게 달릴 수 있으며, 사람이 다가오면 7개의 머리를 가진 노파로 변신해 그 사람을 잡아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

잘마우이즈 캠프르의 형상이 모성 수호자 신앙에서 유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점은 미스탄 캠프르(мыстан кемпир)와 유사하다. 사후 세계의 파수꾼이자 여주인, 출산과 불의 주인인 주

술사-샤먼의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 이 의견을 뒷받침한다. 몇몇 전설에서 잘마우이즈 켐피르는 주인공을 수호하는 선한 바바-야가(슬라브 신화의 마녀)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때 그녀는 주인공이 연주하는 돔브라(악기)나 마법의 거울을 구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키르기스 민족에게서 잘마우이즈 켐피르는 인적이 없는 산이나 숲에 사는 누더기를 입은 노파의 형상이다. 그녀는 처녀를 속여 자신의 오두막으로 끌어들인 뒤 몰래 그녀의 무릎에서 피를 빨아 먹는다. 그리고 희생자가 약해지면 그때 잡아먹는 악령이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잘마우이즈 켐피루
- 다국어 표기 Жалмауыз кемпир(러시아어), желмогуз кемпир(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439.
Баялиева Т.Д. Доисламские верования и их пережитки у киргизов, Ф., 1972, С. 103.

I G016 | 잠 전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ttle of Jam

부하라의 우바이둘라 칸(Ubaydulla I, 재위: 1534년~1539년)은 칸에 오르기 이전부터 호라산 지역을 장악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당시 칸이었던 코치쿤치 칸(Ko'chkhunchi xon, 재위: 1452년~1530년)을 대신하여 우바이둘라 칸이 실질적인 지배를 펼치던 시절 행했던 1528년 잠 전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사파비의 이스마일 1세(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 사망 이후 등극한 타흐마스프 1세(Tahmasp I, 재위: 1524년~1576년)는 나이가 어렸다. 이 때문에 사파비의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우바이둘라 칸은 이를 틈타 1524년 10월 호라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정한다. 타흐마스프 1세와 우바이둘라 칸의 첫 전쟁은 1524년~1526년 사이에 벌어졌다. 우바이둘라 칸은 발

흐를 점령하고 담간과 호라산의 서쪽 국경까지 진출했으나, 헤라트를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철수한다. 두 번째 원정은 1526년~1528년에 이뤄졌다. 우바이둘라 칸은 아스타라바드에서 마슈하드까지 차지했고 7개월 동안 헤라트를 포위했다. 그러나 1528년 9월 24일 잠 전투에서 사파비군의 대포 공격으로 패배하게 된다. 오스만 제국이 촉발시킨 바그다드 반란으로 인해 사파비도 이 전쟁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1529년~1531년 3차 원정에서 우바이둘라 칸은 마슈하드와 헤라트를 단기간에 점령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우바이둘라 칸은 1531년~1543년 마지막 원정을 시도했지만, 헤라트 포위는 다시 실패했다.

마지막 원정 이후 부하라 칸국과 호라즘 사이 갈등이 발생했고 호라산 공략은 더는 시도되지 않았다. 시아파 세력인 사파비를 공략하기 위해 수니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부하라 칸국을 지원하려 했지만, 지리적 거리 차이 때문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잼 전투, 잼 전쟁, 잠 전쟁

● 연관 검색어 우바이둘라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Adle, C., Irfan Habib; K M Bai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pp.1102~1114.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G017 | 잠브 아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Zhamby Atu

잠브 아투(Zhamby Atu)는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경기이다. 양궁은 선 채로 활을 쏘아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과녁에 명중시키는 경기이지만, 잠브 아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과녁에

명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잠브는 말총으로 짠 가느다란 밧줄에 매달린 은색 원반이다. 화살을 쏘아서 이 원반을 맞힌다. 보기만 해도 박진감 넘치는 잠브 아투는 말을 탄 선수가 트랙을 달리면서 화살을 쏘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 과녁에 명중시키는 경기이다. 대개 과녁이 3개 정도 설치되며 선수는 하나 하나 명중시켜야 한다. 유목 생활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은 기본적인 것이며, 이러한 기술은 사냥이나 전쟁에서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정지 상태보다 말을 타고 움직이면서 하는 사격은 유목민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잠브 아투는 공식적인 규칙을 가진 종목이라기보다는 행사 때 편의적으로 과녁을 만들고 적절한 트랙을 달려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양궁처럼 어떤 기록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축제 때 하는 전통 경기로 간주된다. 선수는 기록보다는 제시되는 상품에 따라 경기에 충실하는 경향이 있다. 잠브 아투는 고도의 집중력과 활쏘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녁을 정확히 겨누기에 시간이 짧고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직관적으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초보자에게는 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잠브 알트쉬, 잠브 아트마이, 알트 카박
- 다국어 표기 Жамбы ату(잠브 아투, 카자흐어), Жамбы ату(잠브 아투, 러시아어), жамбы атыш(잠브 아트쉬, 키르기스어) джамбы атмай(잠브 아트마이, 키르기스어), алтын кабак(알트 카박, 우즈베크어), кабак(카박, 타지크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전통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45분 잠브 아투) <https://www.youtube.com/watch?v=OHcFFKB58S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yr-media.kz/tanym/6646-zhamby-atu-mergendkt-zhetldred.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a Jeteyeva,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I G018 | 잠인 톨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Zamyn Tolgoi

잠인 톨고이 유적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첵겔리 솜 차츠 박의 옛 중심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 높은 산으로 오르는 좁은 계곡의 낮은 언덕 남사면에 분포한다. 유적 남쪽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서북쪽 가장자리는 차츠 박 중심지로 통한다.

잠인 톨고이 흥노 무덤군은 몽골-한국 공동조사단이 2001년 호드긴 톨고이 유적에 대한 물리 탐사를 하기 위해 바트첵겔리 솜을 찾았을 때 새로이 발견하고, 그해 8월 유구(遺構) 분포도를 작성했다. 잠인 톨고이 유적에서는 무덤 60기가 발견되었는데,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 1기가 유적 북쪽에 존재한다. 나머지 무덤은 고리형이고, 동쪽에 있는 몇 기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적석 중심부의 함몰부가 깊다. 서쪽과 중앙에 있는 고리형 무덤은 규모가 작고 여러 기씩 연접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른 톨고이
- 다국어 표기 ЗАМЫН ТОЛГОЙ(러시아어), Zamyn Tolgoi(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몽골 국립역사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호드긴 톨고이 유적, 2003.
국립중앙박물관·몽골 국립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1), 2011.

I G019 | 장 폴 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프랑스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Jean Paul Roux



장 폴 루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프랑스의 투르크학자이자 이슬람 문화 전문가인 장 폴 루(Jean Paul Roux)는 1925년 1월 5일 태어났다. 그는 프랑스 동양학의 요람인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원(the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및 응용고등연구기관(l'E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에서 수학했다. 1966년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국립 과학 연구센터(CNRS)에서 27세부터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1957년~1970년 CNRS에서 연구 책임자, 1960년~1966년에는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원에서 과학 담당 책임자로 일했다. 1965년에는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요청을 받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슬람 예술 교

사로 이슬람 예술을 가르쳤다.

장 폴 루는 1971년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랑주리 미술관(Orangerie des Tuileries)에서, 1977년 그랑팔레에서 이슬람 예술과 관련된 두 개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3년에는 이슬람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프랑스에 이슬람 예술학과(Département des arts de l'islam)를 설립했다. 그는 평생에 걸쳐 투르크와 몽골의 역사를 연구했으며, 이슬람 예술, 튀르키예 문명, 신화와 더불어 비교 종교의 역사와 관련된 기초 연구자료를 포함하여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장 폴 루는 2009년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진 파울 루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8/81/Jean-Paul_Roux.jpg
http://t0.gstatic.com/images?q=tbn:AND9GcQJwC3ZV_SQX2s-neL7NaP8w74Auey5IAJYI8UcwQR2-tdSB76opAndgKIN6zMw

● 참고문헌(오프라인) KAVAS, A. Türk Tarihçisi Jean Paul Roux'nun(1925~2009) Ardından. *İstanbul Üniversitesi İlahiyat Fakültesi Dergisi*, (19), 203~208.

I G020 | 장가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Jangar

장가르는 칼묵(오이라트)과 서몽골 같은 몽골계 민족에게 널리 퍼진 영웅 서사시이다. 불가 칼묵인들이 이 대규모 서사시 연작을 만들었다. 몽골에서 장가르란 이름은 장가라이(Джангарай), 장르바이(Жданрвай), 중라(Джунра), 중가르(Джунга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된다. 중가르는 중가르 칸국과 관련이 있다.

장가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세계의 정복자를 뜻하는 페르시아어의 '제한기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와 '(소리가) 울리다'란 의미의 몽골어 '징게네흐'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고아', '외톨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시베리아의 투르크-몽골계 민족들의 영웅 서사시에서 묘사하는 최초의 선조, 태초의 인간인 영웅의 형상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외토리 사내'란 의미인 야쿠트의 에르-소고토흐(Эр-Соготох), '외톨이-고아'란 의미인 쇼르의 차기스(Чагыс)가 있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인도의 왕'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서사시에서 장가르는 신화적인 '시초'에 태어난 고아이다. 한 살 때 그는 여러 괴물들과 싸웠으며, 다섯 살 때 시크시르기의 포로가 되었다. 일곱 살 때 장가르는 남동부 지배자의 딸인 미녀 샤브달과 결혼해서 이상적인 국가 붐바(티베트 불교 건축물의 중앙부와 명칭이 동일)의 통치자가 된다. 다른 판본에서는 홍고르가 장가르를 지도자로 선언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함께 장가르 부친의 왕국을 몰락시킨 네 명의 칸을 피해 산 속 동굴로 피신했을 때였다. 홍고르는 장가르의 첫 번째 용사가 되고, 알탄 체지는 장가르의 책사가 된다. 모든 판본에서 장가르와 홍고르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묘사되고 이 둘은 운명적으로 엮인다. 마법의 수 12로 표현되는 장가르의 열

두 친위대에 자신의 가족과 지배지를 떠났던 옛 영주들이 참여한다. .

게세르처럼 장가르도 문화 영웅과 세계 통치자의 개별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의 권력은 ‘모두’를 의미하는 숫자인 40 칸의 인정을 받는다. 장가르 형상이 형성될 때 이상적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크라바르틴(전륜성왕(轉輪聖王))에 관한 불교 신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가르의 형상이 이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후기의 여러 판본에서 장가르의 영웅적 형상은 제거되는데, 나약하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의 부하인 흥고르의 형상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흥고르의 중매, 결투, 가차 없는 아버지와 약혼녀 처벌, 지하 세계의 존재들과 겨루고 천상의 존재가 된다는 것 등이 여러 영웅 서사시의 사례들과 교차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잔가르, 잔카르
- 다국어 표기 Canqar(아제르바이잔어), Джангар(러시아어), Cangar Destan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게세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672 с

| G021 | 장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외교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Chang-Chien

장건(張騫)은 흉노 격멸을 위해 대월씨(大月氏)와 공수동맹을 체결하라는 한무제(漢武帝)의 명령에 따라 파견되었지만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중국에는 서역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개통시킨 한(漢)의 외교관이다.

한무제는 흉노의 한 투항자로부터 흉노에 의해 멀리 서북방으로 쫓겨간 대월씨가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이 정보에 따라 한무제는 흉노를 동서에서 협공하기 위해 대월씨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하고, 당시 낭위(郎位)의 직위에 있던 장건을 B.C. 138년 대월씨에



장건 석상(양관, 중국)

사신으로 파견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장건의 서역장정(西域長征)이다.

당시, 흉노는 한나라를 부단히 침범하고, 실크로드(Silk Road)를 장악하여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가했다. 이에 한무제는 차단된 교역로를 확보하고 흉노를 협공할 목적으로 서역 제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

장건은 수행원 감부(甘父)와 함께 100여명을 인솔하고 장안을 떠났다. 하지만 농서(隴西)에서 이미 이 지방까지 남하한 흉노에 체포되어 압송되었다. 그는 흉노에서 흉노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고 10년간 지내다 기회를 틈타 감부와 함께 탈출했다.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장건은 천산북로(天山北路)를 따라 마침내 대원, 강거를 거쳐 대월씨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월씨의 정세는 그간 크게 바뀌어 있었다. 대월씨의 새로운 왕은 대하(大夏)를 병합하고 일리강에서 멀리 서투르키스탄으로 서천해서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를 중심으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흉노를 공격할 의향이 없었다.

이에 실망한 장건은 대월씨를 떠나 대하의 바르크에서 1년간 체류하며 관망하다가 B.C. 128년 천산남로를 따라 오늘날의 청해(靑海)를 경유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도중 흉노에게 재차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그는 1년 뒤 흉노 선우의 죽음을 계기로 발생한 내란을 틈타 탈출하여 B.C. 126년 장안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곡절 많은 장건의 사행(使行)은 13년간이나 걸렸고, 귀향한 사람은 그와 수행원 감부뿐이었다. 한무제는 그의 노고와 공덕을 평가하여 그를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봉하고 감부에게는 봉사군(奉使君)이란 칭호를 하사했다. 바로 이것이 장건의 제1차 서역사행(西域使行)이다.

이후에도 장건은 2차, 3차, 4차에 걸친 서역사행을 통해 대원, 강거, 오손 등 서역 제국들과 접촉했다. 그는 오손과 대흉노 협공을 위한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고 오손 사자 수십인을 데리고 귀환했다. 한나라는 이러한 장건의 서역 교통로 개척에 힘입어 본격적인 서역 진출에 착수했다. 이후 후한 시대(A.D. 25년 ~ A.D. 220년)에 반초(班超)와 그의 아들인 반용(班勇)이 장건을 계승해서 서역과의 경제, 문화 교류 증진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 다국어 표기 張騫(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실크로드, 서역, 무제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인물세계사, 장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164&cid=59014&categoryId=5901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장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248&cid=40942&categoryId=34304>

- **참고문헌(오프라인)** Barfield, Thomas J. “The Shadow Empires: Imperial State Formation Along the Chinese–Nomad Frontier”. *Empires: Perspectives from Archaeology and Histo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I G022 | 장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시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Zangi

이마드웃딘 장기(Īmadüddin Zengi)는 투르크멘 군사지휘자이자 이라크의 총독으로 모술과 알레포를 정복했고, 장기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다.

장기는 알레포에서 셀죽 군사령관 악송쿠르(Aksunkur)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악송쿠르는 술탄 말리크샤의 죽음 이후 벌어진 계승분쟁에서 투투쉬를 떠나 바르키야루크 진영으로 들어갔으나 투투쉬 측에 패전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알레포 성채에서 발견되었고, 모술 총독 퀴르보아가 그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모술의 궁정에서 성장했다. 모술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으나 그는 매번 모술 총독을 섬기는 유능한 가신 역할을 했다. 셀주크 왕조 내부의 분쟁과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다.

그는 남부 이라크의 마즈야드 왕조의 군주 두바이스 이븐 사다카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그의 보호자였던 모술의 이라크 총독 악송쿠르 알 부르수키에 의해 와시트와 바스라의 영주로 임명되었다. 1126년 칼리프 무스타르시드가 이라크 남부에서 셀주크 세력을 몰아내려 공격을 시도했고 셀주크 술탄 마흐무드 이븐 말리크샤가 이에 맞설 때 술탄의 편에서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다. 1126년 악송쿠르 알 부르수키가 암살되자 이라크의 셀죽 술탄 마흐무드(재위: 1118년 ~ 1131년)가 장기를 부르수키가 다스리던 여러 지역(모술, 디야르 라비아, 디야르 무다르, 디야르 바크르와 알레포)의 총독, 2명의 셀주크 왕자들의 아타벡으로 임명했다.

장기는 1127년 모술에 공식 입성했고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 또한 1128년 십자군의 압력으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 있던 알레포에 입성하여 질서를 회복했다. 이때 그는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장기는 셀주크의 대술탄, 지역 술탄, 압바스 칼리프, 지방 군소 영주들 사이의 복잡한 정치-군사적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갔다. 그는 셀주크 계승 분쟁에도 개입했고 압바스 칼리프 무스타르시드(재위: 1118년~1135년)와도 적대했다. 그는 1135년 칼리프 무스타르시드가 암살된 후 새 칼리프 알 라시드와 셀주크 왕권 도전자 다우드와 동맹하여 술탄 마스우드(재위: 1134년~1152년)에 대적했다. 그는 또 제국 전역으로부터 인정받은 마스우드, 대술탄 산자르(재위: 1118년~1157년), 마스우드가 세운 새 칼리프 무크타피(1136년~1160년)를 맨 나중에 가서야 인정했다. 이 같은 점들로 미루어 그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독자 노선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라크의 복잡한 정치상황 가운데서는 영토 팽창이 어렵다고 보고 시리아와 북메소포타미아로의 팽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시리아 여러 지역으로 원정을 감행하여 힘스와 바알벡을 점령했고, 다마스쿠스는 정복하지 못했으나 일종의 종주권을 얻었다. 그는 안티오크와 에데사로부터 쳐들어오는 십자군들과 아르투조와 쿠르드인들을 여러 번 막아냈다. 1144년 겨울 그는 에데사 백작령을 28일간 포위 끝에 멸망시켰다. 이는 주요 십자군 국가의 수도를 최초로 함락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서유럽 기독교권의 제2차 십자군 구성이 촉발됐지만, 그는 이로써 지하드의 영웅이라는 평판을 무슬림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1146년 원정에 나섰다가 자신의 노예병들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아들 사이프 앳딘 가지는 모술에서, 또 다른 아들 누르 앳딘 마흐무드는 알레포에서 각각 장기의 지배권을 계승했다.

장기는 이븐 알 아씨르 등 유명한 역사가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성취, 특히 십자군과의 투쟁 공적으로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실 십자군을 상대로 한 지하드보다 전략 요충지 다마스쿠스 공략에 더 신경을 썼다. 셀주크 제국의 틀 안에서 자치적인 영주국을 만드는 것이 그의 정치적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잔기
- 다국어 표기 Zeng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 Heidemann, “Zang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1, 2002, pp.451~452.
- Gülay Ögün Bezer, “Zengi, İmadüddi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4, 2013, pp.258~261.

I G023 | 장기 어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Zangi ota

장기 어타의 본명은 셰이흐 아이 허자[Sheikh Ay Khodja, 또는 오이허자 이븐 토쉬허자 (Oyxōja ibn Toshxoja)]이다. 피부가 검은색이라 ‘검은 아버지’라는 의미의 ‘장기 어타’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검은 피부는 아랍 혈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흐멧 야사위(카자흐어 표기 : Қожа Ахмет Ясауи, 영어 표기 : Ahmad Yassaviy, 1093년~1166년)의 스승인 아르슬란 버버(Arslan bobo)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 말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장기 어타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고, 아버지 사망 후 아흐멧 야사위의 제자인 하킴 어타(Hakim ota)에게서 야사비 종단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야사비 종단 수피교도들을 가르쳤다. 당시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이때 장기 어타와 그의 제자들은 애국, 근면, 정의, 선, 친절, 경건함 같은 보편적인 사상을 대중에게 가르쳤다. 특히 그와 그의 제자들은 불가 산맥과 우랄 산맥 근처의 타타르족과 바시키르족에게 이슬람을 전파하기도 했다. 장기 어타가 사망한 후 킵차크 칸국의 우즈베크 칸(Ghiyāth al-Dīn Muḥammad Ūzbak, 재위: 1312년~1341년)과 그의 백성 중 7만여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의 제자 중 널리 알려진 이는 우준 하산 어타(Uzun Hasan ota), 사이드 어타(Sayyid oto), 사드르 어타(Sadr ota), 바드르 어타(Badr ota)이다.

장기 어타는 철저하게 이슬람 규율에 맞추어 살았으며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가축 치는 일을 하며 스스로 밥벌이를 했다. 일부 전승과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스승인 하킴 어타의 전처인 안바르 비비(Anbar-Bibi)로, 스승이 사망한 후 청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어타 복합단지(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장기 어타는 1258년 타슈켄트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장기 어타 복합단지 내에 영묘가 있다. 아내의 영묘도 같은 복합단지 내에 있다. 장기 어타의 영묘 인근에서는 매년 9월 초순 그의 이름을 딴 축제가 열린다.

장기 어타도 아흐멧 야사위나 하킴 어타와 같이 신비주의 시를 썼으나, 단 한 수의 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장기 오타
- 다국어 표기 Zangi ota(우즈베크어), Zangi ata(영어), Zengi At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멧 야사위
- 참고문헌(오프라인) “ЗАНГИОТА”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З ҲАРФИ, Тошкент;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p.26~27.
 Deweese, Devin. “Yasavī ‘Šayḡs’ In The Timurid Era: Notes On The Social And Political Role Of Communal Sufi Affiliations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Oriente Moderno*, 15 (76), no. 2, 1996, pp.173~188.
 Tosun. Necdet. “ZENGI AT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4, Istanbul: TDV, 2013, pp.261~262.

I G024 | 장기 어타의 네 제자들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Zangi ota 4 xalifalari

투르크-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비한 현자로 알려진 장기 어타(Zangi ota)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숭배를 받았고, 제자들을 두었다. 그중 수피즘의 기초 입문 제자라 할 수 있는 무리드(murid) 단계 다음의 위치인 칼리프(수피 종단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수도승을 이룸. 이슬람과 수니파의 칼리프와는 다름. 우즈베크어로 xalifa)가 된 네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들은 우준 하산 어타(Uzun Hasan ota), 사이드 어타(Sayyid ota), 사드르 어타(Sadr ota), 바드르 어타(Badr ota)이다.

장기 어타의 첫 칼리프는 우준 하산 어타로 장기 어타 이후 피르(Pir)의 자리를 잇게 된다. 사이드 어타는 두 번째 칼리프로, 본명은 사이드 아흐마트 이븐 사이드 아부 바크르(Sayid Ahmad ibn Sayyid Abu Bakr)이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자손이다. 정확한 출생연도는 알 수 없고, 1292년이나 1311년경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훗날 야사위 타리카트의 대표적인 수피 수도승 중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칼리프인 사드르 어타의 본명은 마블러너 사드릿딘 무함마트(Mavlonno Sadriddin Muhammad)이고, 4대 이슬람교 대표자인 칼리프 알리의 후손이다. 바드르 어타의 본명은 마블러너 바드릿딘 무함마트(Mavlonno Badridin Muhammad)이고, 바드르 버버(Badr bobo)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한 마드라사에서 수학하여 서로 잘 알던 학우였다고 한다. 『라샤핫(Rashahot)』에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밤, 이들은 ‘(종교적) 길’에 들어가 알라와 더 가까워지는 꿈을 꾸다. 이들은 아침이 되자 집을 나와 대초원과 사막을 지나 먼 길을 여행하며 쇼쉬로 향한다. 타슈켄트에 다다랐을 때 어떤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과 마주했는데 소들 옆에 입술이 두껍고 맨발 상태인 까만 피부의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장기 어타였다. 네 친구는 그 곁에 다가간다. 장기 어타는 그들에게 외지인 같은데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우준 하산은 “우리는 부하라의 샤리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마음속에 종교(수피즘)에 대한 갈증이 생겨 피르(스승)를 찾으러 이쪽으로 왔습니다.”라고 답한다. 이에 장기 어타는 그들에게 “쉬

고 있으라.”고 말한다. 이어 자신은 주변을 살피고 냄새를 맡아본다며 “어쩌면 당신들을 인도할
 분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한다. 네 친구가 쉬는 동안 장기 어타는 정말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돌아 멀리 바라보며 공기를 맡아본다. 그리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그 후 그는 눈을 뜨고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보
 다 더 완벽하게 당신들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이때 우준 하산과 사드르
 는 즉시 장기 어타를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사이드와 바드르
 는 일개 목자가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느냐며, 그를 의심한다. 장기 어타는 그들에게 불쾌감을
 표하지 않는다. 우준 하산과 사드르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충실한 제자가 되어 스승의 지도, 친
 절, 신성하고 도덕적인 자질, 가르침 덕분에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장기 어타를 의심한 사이드와 바드르는 이후에 장기 어타의 부인인 안바르 어나(Anbar ona)
 의 도움을 받아 장기 어타에게 용서를 빈다. 장기 어타는 결국 이 두 청년을 용서하고 제자로 받
 아들인다. 그들도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들 네 제자는 타슈켄트 지역에서 차례대로 칼리프 위를 받은 후, 스승과 마찬가지로 순결,
 근면, 애국심, 정의, 친절, 정직, 고귀함 및 기타 보편적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
 했다. 이 네 제자는 당대 이슬람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장기 오타의 제자들, 우준 오타, 사이드 오타, 사드르 오타, 바드르 오타.
- 다국어 표기 Zangi ota 4 xalifalar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장기 어타
- 참고문헌(오프라인) Husniddinov Zuhridin.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Saidov, Akmal. “*Hazrat Zangi ota*” *ilmiy Ommabop Qo‘llanma*, Toshkent, Sharq, 2015.

I G025 | 재패르 자브바를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Cəfər Cabbarlı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인 재패르 자브바를르(Cəfər Cabbarlı)는 1899년 3월 20일 흐즈 소도시(Xızı rayonu)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가난 때문에 가족과 함께 바쿠로 이주한 그는 종교학교를 다닌 후, 바쿠 기술학교(Bakı Politexnik Məktəbi)에서 수학했다. 그는 이어서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 바쿠 국립 대학교)의 의대와 동양학과에서 수학했다.

재패르 자브바를르는 시로 문단에 데뷔했는데, 그의 첫 시는 1911년 <해기그-애프카르(Həqiqəti-əfkar)>라는 신문에 실렸다. 그는 시 창작을 이어가며 서정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의 작품들을 썼다. 그는 「소녀의 성(Qız qalası)」이라는 제목의 역사-신화적 연작시(poema)도 창작했다. 시와 함께 그의 단편 「아슬란과 패르하드(Aslan və Fərhad)」, 「딜라래(Dilarə)」, 「맨수르와 시타래(Mənsur və Sitarə)」, 「피루채(Firuzə)」 등도 인기를 끌었다.

재패르 자브바를르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극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희곡 작품은 「충실한 새리야(Vəfalı Səriyyə; 이 작품의 다른 제목은 ‘눈물 속의 미소(göz yaşı içində gülüş), 1915)」, 「낮은 옷들(Solğun çiçəklər, 1915)」, 「내스렛딘 사흐(Nəsrəddin şah, 1916)」, 「애디르네 정복(Ədirmə fəthi, 1917)」, 「트라빌리스 전쟁[Trablis müharibəsi, 다른 제목은 ‘별’(Ulduz), 1917]」, 「지식인(Aydın, 1919)」, 「오그타이 엘오글루(Oqtay Eloğlu, 1921)」, 「불의 며느리(Od gəlini, 1918)」, 「세빌(Sevil, 1918)」, 「다이아몬드(Almaz, 1931)」, 「야샤르(Yaşar, 1932)」, 「귀환(Dönüş, 1932)」 등이다. 이들은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깊이 있는 희곡 작품으로 손꼽힌다.

한편 재패르 자브바를르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 시절에 펼쳤던 활발한 독립 활동 때문에 소비에트 정권 시절 여러 차례 체포됐다. 그는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압력을 받았다.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시절에 창작되어 당시 극장에서 상연된 그의 희곡 「바쿠 전쟁(Bakı müharibəsi)」은 국가보안위원회(SSRİ



재패르 자브바를르 묘비

Dövlət Təhlükəsizlik Komitəsi)에 의해 몰수되기도 했다. 「트라빌리스 전쟁[Trablis müharibəsi: 다른 제목은 ‘별(Ulduz)’, 1917]」, 「애디르내 정복(Ədirnə fəthi, 1917)」 등의 공연은 소비에트 시대에 금지됐다.

재패르 자브바를르는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도망자들(Qaçaqılar)」과 같은 작품들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로 번역했다. 문학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재패르 자브바를르의 논문들, 특히 연극과 극예술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들은 문학 비평과 문학 평론의 지평을 넓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화 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르재 파탈리 아쿤드자대(Mirzə Fətəli Axundzadə)의 극작품인 「하즈 가라(Hacı Qara)」가 영화로 제작됐다. 「세빌(Sevil)」이라는 극작품도 영화화됐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재패르 자브바를르가 썼다. 그의 사망 이후에도 그의 「다이아몬드(Almaz, 1936)」와 「세빌(Sevil, 1970 재제작)」 등이 영화로 제작됐다.

재패르 자브바를르는 1934년 사망했고, 바쿠 제1명예의 묘지(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아제르바이잔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영화관, 지하철역, 도서관, 하우스 박물관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재패르 잡바를르

● 다국어 표기 Cafer Cabbarlı(튀르키예어), Джафар Джаббарлы(러시아어), Jafar Jabbarli(투르크멘어), Джафар Джаббарли(타타르어), جعفر جبارلی(페르시아어), Jafar Jabbarli(우즈베크어), Джафар Джаббарлы(카자흐어), Jafar Jabbarli(키르기스어), Cəfər Cabbarl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미르재 파탈리 아쿤드자대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zadə Arif, *Şair Cəfər Cabbarlı*, Bakı: Elm Nəşriyyatı, 1989.

Əfəndiyev Paşa, *Cəfər CabbarlıVə Xalq Yaradıcılığ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5.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liyev Rəhim, Cəfər Cabbarlının Yaradıcılıq Təkamülü,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9.

Məmməd Arif, Cəfər Cabbarlının Yaradıcılıq Yolu, Bakı: ADU Nəşriyyatı, 1957.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 (Dərslük), İki Cildə, 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Rüstəmli Asif, Cəfər Cabbarlı: Hayatı, Sənət və Mücadelesi, Ankara: Sistem Yayınları, 2011.

Rüstəmli Asif, Cəfər Cabbarlı və Milli İstiqlal Hərəkatı,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2018.

I G026 | ஜலீல் மம்மேட் குலு자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소설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Jalil Mammadkuluzadeh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산문 작가이자 극작가인 ஜலீல் மம்மேட் குலு자대(Cəlil Məmmədquluzadə)는 1869년 2월 22일 도시 나흐츠반(Naxçıvan)의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873년~1876년 몰라 엘리 휘세인자대(illərdə Molla Əli Hüseynzadə), 1877년~1879년 하즈 몰라 바그르(Hacı Molla Bağır) 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1879년부터 나흐츠반에 있는 3년 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1882년~1887년에는 자가프가지아 교대(Zaqafqaziya Müəllimlər Seminariyası)에서 공부했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은 작가의 문학적 관점과 예술적 취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그는 1887년~1897년에는 울루한르(Uluxanlı), 나흐츠반 지역의 시골 마을인 바쉬 노라셴(Baş Noraşen)과 네흐람(Nehrəm)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이때 고아 학생들에게 교육비나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는 1906년 4월 7일 잡지 <몰라 내스렛딘(Molla Nəsrəddin)>을 창간했다. 이 잡지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투르크-무슬림 세계에서 처음으로 풍자적 저널리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이 잡지에 실은 풍자적인 글과 풍자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잡지는 1906년~1931년 사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발행됐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저널리스트 겸 출판인이자, 위대한 극작가, 산문 작가로도



펠릴 맴매드굴루자데와 그의 아내 모비

알려져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에 ‘몰라 내스렛딘 (Molla Nəsrəddin) 문학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비판적 사실주의 스타일로 쓰여졌다. 그는 문학 활동 초기에는 알레고리 서정극인 「차 세트(Çay dəstgahı)」, 주인공이 2~3명이고 2~3개 사건으로 이뤄진 연작 산문인 『다나바쉬 시골의 이야기들(Danabaş kəndinin əhvalatları)』, 단편소설 『건포도 게임(Kişmiş oyunu)』, 『우체국 박스(Poçt qutusu)』를 썼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 농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가 1909년 저술한 코미디 「죽은 자들(Ölülər)」은 아제르바이잔 극작품의 걸작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광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방도시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배반하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성직자들의 행태를 폭로하고 있다. 그는 이후 「어머니의 책(Anamın kitabı)」과 같은 희곡을 저술했는데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들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통일을 가로막는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전면에서 드러나 있다.

그의 이야기들에서는 여성 억압에 대한 반대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잡지 <몰라 내스렛딘>에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을 반대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글들이 실렸다. 여성 문제에 다룬 작품으로는 『이란에서의 자유(İranda hüriyyət)』, 『칸의 목주(Xanın təsbehi)』, 『영사 부인(Konsulun arvadı)』, 『도살자(Qəssab)』, 『몰라 패젤리』, 『피르베르디의 수탉(Pirverdinin xoruzu)』 등이 있다.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는 그의 희곡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소비에트 통치 때 심각한 정치적·이념적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계속했다. 그가 당시 저술한 작품으로는 「아마도 돌려줬을 거예요(Bəlkə də qaytardılar)」, 「병어리(Lal)」, 「사기꾼들(Oyunbazlar)」, 「미친 사람들의 모임(Dəli yığıncağı)」, 「남편(Ər)」 등이 있다. 특히 희곡 「미친 사람들의 모임」은 깊은 풍자를 담은 완벽한 극작품으로 평가된다. 그의 『나의 기억

(Xatiratım)』은 자신의 생애와 작품 세계의 변천을 서술한다.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1918년 ~1920년)이 붕괴된 후 그는 이란(남부 아제르바이잔)으로 건너가 잠시 그곳에서 잡지 <몰라 내 스랏딘>을 발행했다.

그는 1932년 바쿠에서 생을 마감했고, 현충원 ‘명예의 묘지(Fəxri Xiyaban)’에 묻혔다. 그의 작품들 중 「우체국 박스」, 「구르바넬리 베이(Qurbanəli bəy)」, 「어린 양(Quzu)」, 「죽은 자들」, 「어머니의 책」 등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젤릴 메흐매드굴루자데

● 다국어 표기 Celil Mehmetkuluzadeh(영어), Calil Mammadguluzade(튀르키예어), Mirza Celil(영어), Mirza Calil(튀르키예어), Джалил Мамедгулузад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Cəlil Məmmədquluzadə Ensiklopediyası*,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8.

Cəlil Məmmədquluzadə, Əsərləri, 4 cildə, Bakı: Öndər nəşriyyatı, 2004.

Əlimirzəyev Xəlil, *Problemlər və xarakterlər dramaturgiyas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79.

Həbibbəyli İsa, *Cəlil Məmmədquluzadə: mühiti və müasirləri*, Naxçıvan: Əcəmi nəşriyyatı, 2009.

Ⅰ G027 Ⅰ 저야오거우 기병정벌도 암각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암각화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Petroglyph of Calvary Lead Expedition of Zheyaogou

중국 신장 하미지구(哈密地區) 하미시(哈密市) 저야오거우(折腰溝)에서 청동기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기병정벌도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투루판 등 신장 지역에서 감속성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기병정벌도는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청동기시대 기병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여섯 명씩 두 그룹이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서로 달려들어 접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 쪽에는 낙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화살을 쏘는 궁수와 말을 탄 기마인물

이 좀 더 크게 표현되어 있다. 말을 탄 무사를 기병대의 우두머리로 생각한다면, 일찍부터 조직된 기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암각화의 기법상 원근 기법으로 크게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암각화를 통해 말을 탄 무사들이 장창을 무기로 사용했고, 화살을 쏘는 궁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저야오거우

● 다국어 표기 折腰溝(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王嶸, 『西域藝術史』, 昆明: 雲南出版集團公司·雲南人民出版社, 2006.

I G028 | 푸르캣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Zokirjon Xolmuhammad Furkat

우즈베크 민주 문학의 대표자이자 계몽주의자인 푸르캣의 본명은 저키르전 혈무함맛 오글리(Zokirjon Xolmuhammad O'g'li)이다. 본명보다는 '푸르캣'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푸르캣' 외에도 이따금 '아이으를룩(Ayrılıq, 이별)'이라는 필명을 쓰기도 했다.

그는 1858년 5월 코칸트에서 태어났다. 8세~9세에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졸업 후 마드라사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1875년 코칸트 칸국 내에 심화된 내전으로 인해 마드라사가 폐쇄되자 푸르캣은 돈을 벌며 독학으로 공부했다. 이 시기에 푸르캣은 창작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발행되던 <투르키스탄 지역 신문(Turkiston viloyatining gazetasi)>에 푸르캣의 시가 게재되었다.

푸르캣은 1889년 5월 타슈켄트로 이주하고 코칼더쉬(Ko'kaldosh) 마드라사로 진학한다. 이 시기에 푸르캣은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펼쳤고, 러시아 문화에도 몰입한다. 푸르캣은 19세기 우즈베크 문학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발표한다. 그의 작품 「김나지움(Gimnaziya)」, 「과학에 관하여(Fan haqida)」, 「연극에 관하여(Teatr haqida)」, 「음악 모음에

관하여(Musiqiy to'plam haqida)», 「시인의 위치 및 시의 위대성에 관하여(Shoirning o'rni va she'riyatning yuksakligi haqida)», 「전시회에 관하여(Ko'rgazma haqida)», 「그랜드 피아노(Royal)», 「수버러브(Suvorov)」 등은 진보주의적 정신과 러시아 문화와 과학과의 결합을 추구했다. 이를테면 「과학에 관하여」 같은 시는 러시아의 기술 발전 과정, 철도, 전기 및 전신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다. 그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일종의 현자, 지식인으로 묘사한다.

1891년 5월 푸르카트는 타슈켄트를 떠나 사마르칸트로 이동한 후 튀르키예, 그리스, 불가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한다. 1892년 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여행했고, 메카에서 오래 머물렀다. 1892년 가을에는 인도를 여행하고, 1893년 3월 카슈미르를 여행한 다음 카슈가르에서 거주했고, 이후 중국 신장 지역 야르켄트(Yarkent) 시에도 머물렀다.

푸르카트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인도, 아프가니스탄, 카슈가르 사람들은 지역 지주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억압을 견디면서 살고 있음을 목도했다. 푸르카트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특히 영국 식민주의의 억압적인 정책과 행동을 비판하며 압제에 반대하는 저항을 강조했다.

한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창작 동기였다. 고국으로 보내는 편지나 사랑에 대한 가잘(g'azal), 무삿다스(musaddas) 등 여러 작품에서 그는 간절한 향수를 담았다. 그는 말년을 야르켄트에서 보냈으며, 1909년 세상을 떠났다.

푸르카트의 시는 러시아어, 타지크어, 위구르어 등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그의 시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즈베크 서정시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의 여러 시가 노래로 불리는 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인이자 사회평론가인 푸르카트는 우즈베크 문화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조키르존 홀무함마드 푸르카트, 조키르존 홀무함마드 푸르카트
- 다국어 표기 Zokirjon Holmuhammad, Furqat(우즈베크어), Закирджан Халмухаммад Фурк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키미이, 자브키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furqat-1859~1909>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uchin kitob*, Toshkent: O'qituvchi, 1975.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Gayumov A., *Furqat ijodiyoti*, Toshkent: Fan, 1990.

Rasul X., *Furqat she'riyatidan*, O'zbekiston, 1980.

I G029 | 적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색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Red

튀르키예인들이 지닌 붉은색(al)에 대한 믿음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붉은색이 신앙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불과 아궁이의 수호령 알 루흐(Al Ruh)처럼 불을 상징하는 경우, 두 번째는 Alkarısı, Albastı 등과 같이 악령의 속성을 대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오방색과 관련되어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처럼 붉은색은 불과 관련된 믿음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투르크인들은 불이 잡귀나 악령을 물리칠 수 있으며 재앙을 막는다고 여겨왔다. 그런 까닭에 불의 상징인 적색은 벽사(辟邪)와 신성함의 의미를 갖는 색으로 인식되었다. 투르크 민속학자인 레샷 겐취에 따르면 투르크 민속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의미하는 단어 알(al)은 짙은 다홍색 혹은 불꽃의 색깔에 해당하고, 크즐(kızıl)은 좀 더 밝고 연한 붉은색의 표현에 사용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단어가 혼용되었다고 한다. 투르크의 고대 신앙 가운데 하나인 알 루후(Al Ruhu, 붉은 정령) 혹은 알 아테슈(Al Ateş, 붉은 불)는 불의 정령이자 수호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투르크 신앙에서 붉은색이 불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투르크인들은 네브루즈(춘분에 해당되는 민간 명절)를 즐겨왔다고 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훈족은 3월 21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들판에 모여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러한 전통을 기려, 아나톨리아반도에 정착한 옛 튀르키예인들은 네브루즈 하루 전날 밤 들판에 모여 불을 피우거나 하루를 정해 집에 있는 오래된 바구니나 광주리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태웠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집에 있던 묵은 것들을 태워 '정화한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관습이다. 또한 네브루즈에 ‘네브루즈 불’을 지피고 그 위를 뛰어넘는 풍습도 널리 행해지는데, 이는 각종 질병과 잔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나쁜 기운이 사라지길 기원하는 일종의 액막이이다.

옛 튀르키예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수호령 ‘알 루후(Al Ruhu, 붉은 정령)’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 튀르키예인들은 붉은 정령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으며, 알 루후의 상징색인 적색을 국기에도 사용해왔다. 희생절인 쿠르반 명절에 소나 가축을 도축하고 그 붉은 피를 아이의 이마에 찍는 행위 또한 잡귀나 액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풍속 중 하나다. 또한 붉은색은 투르크 민속에서 여성성 혹은 여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었다. 「현자 코르쿠트의 서」 가운데 디르세 한의 아들 보아츠 한의 이야기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많은 투르크 민속 시에 나오는 ‘붉은색을 입다’라는 표현은 여성(여성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붉은 신(Al tanrı, 알 탄르)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지닌 존재로 알타이 투르크족 신앙에서 나타나는데, 우마이 여신은 생명과 창조와 신이자 콧(복)을 내리는 신인 데 반해 알 탄르는 영혼을 취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투르크어에서 알(al, 붉은색)은 불과 관련되어 있음을 투르크 신화에서 불의 신을 알라즈(alaz), 이알라즈(yalaz), 이알큰(yalkın) 등으로 불렀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불의 신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붉은색을 나타내는 알(al)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몽골어에서는 불을 ‘гал/ gal’(투르크어식 표기)이라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 렌크 일레 일길리 젤레넥셀 튀르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Al renk ile ilgili geleneksel tür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백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녹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황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흑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ıcı yay, İstanbul 2001.

I G030 | 전설적 이야기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Mifoloji rəvayətlər

‘전설적 이야기’(Mifoloji rəvayətlər)은 아제르바이잔 구비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이다. 주로 악마나 귀신 등 초자연적인 존재의 만남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고유 종교 및 신앙(folk demonology)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야기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설과 동일하지만 전설의 전형적인 규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해설자 및 화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이 오로지 정보 전달 기능만이 우선시되며, 문장의 미학적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 다른 장르적 특징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직접 말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해설자나 해설자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할머니나 가족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목걸이 등의 장식품을 ‘전설적 이야기’의 증거로 보여주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신화적 전설
- 다국어 표기 Mythological legends(영어), mitoloji revayetler(튀르키예어), мифологические легенды(러시아어), Mifoloji revayətlər(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신화적 전설, 래와멧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I c., Bakı, 2018, s.362~363

I G031 | 절멸 위기의 투르크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북아시아 ● 나라 불가리아, 몰도바,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소수어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ndangered Turkic Languages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같은 지배 언어의 포식 현상으로 인하여 20세기 이후 지구상의 많은 투르크어가 급속히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 절멸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러시아 연방 국가에 속한 투르크 국가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들은 러시아어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출름 투르크어, 투바어는 절멸 임박 언어(nearly extinct languages)로 수십명의 노년층만 쓰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이내에 사라질 위험에 놓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카라임어, 크림 타타르어, 불가리아-튀르키예의 유럽 지구에서 통용되는 가가우즈어, 쇼르어, 텔레위트어, 알타이어는 가장 젊은 모국어 화자의 나이가 40-50대를 넘긴 심각한 절멸 위기의 언어(seriously endangered language)이다. 절멸 위기의 언어(endangered language)로 부분적으로는 어린이도 사용을 하지만, 사용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투르크어로는 추바쉬어, 노가이어, 캅카스 지역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 루마니아의 가가우즈어, 시베리아의 타타르어, 하카스어가 있다. 시베리아 지역의 야쿠트어와 돌간어 이외에 우랄, 사모예드, 몽골, 통구즈어, 고대 시베리아 언어들, 시베리아 에스키모들의 언어 등도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대부분 지배 언어, 즉 외국어의 구조적 특징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본래의 언어 구조가 파괴되지만, 사실 그것만이 언어의 절멸 이유는 아니다. 언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이다. 언어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면,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모국어 대신 지배 언어를 선호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지배 언어가 더 매력적이며 더 권위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중 언어주의 체제 속에서 젊은층은 자신의 모국어 사용 대신 지배 언어로서 단일 언어를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성을 상실한 언어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학술 단체들이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알타이학회의 경우, ‘한국어 계통 규명을 위한 알타이제어 현지

조사 연구 및 음성 영상 DB구축' 사업을 통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알타이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절멸 위기의 투르크어
- 다국어 표기 Tehlikedeki Türk Dilleri(튀르키예어), Endangered Turkic Languages(영어)
- 연관 검색어 출름 투르크어, 투바어, 야쿠트어, 돌간어, 가가우즈어, 쇼르어, 추바쉬어, 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Türk dili haritası üzerine keşifler* (Vol. 7). Grafiker, 2002.
김주원 외, 『사라져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2008.

I G032 | 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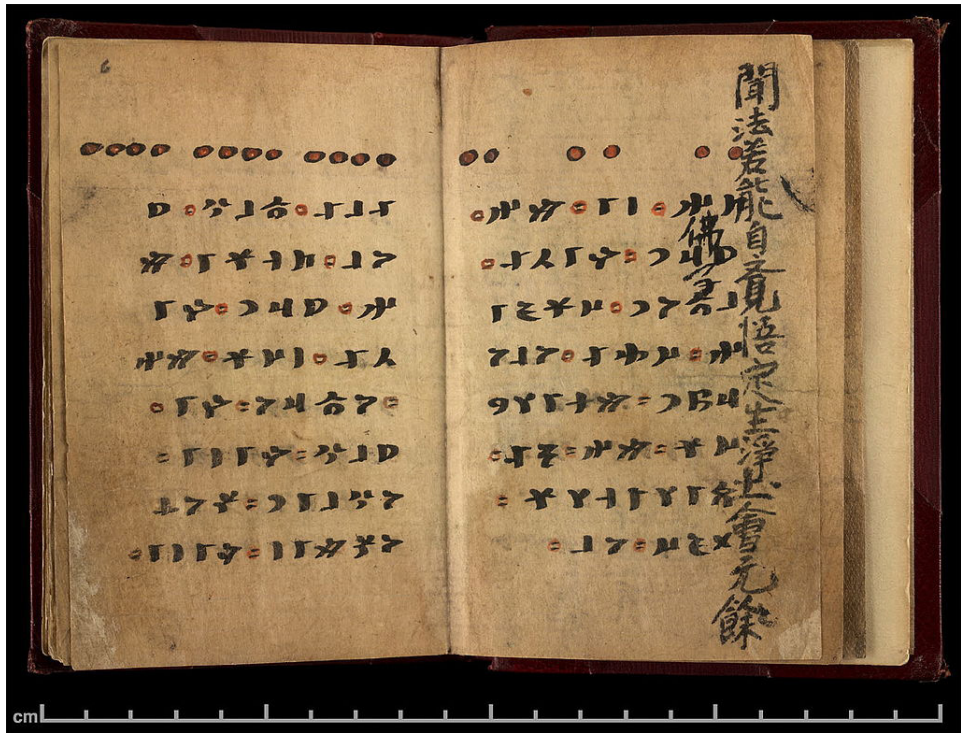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Irk Bitig, Irq Bitig

점서(占書)는 9세기경 고(古)투르크어로 쓰인 길흥화복을 알려주는 책으로, 1907년 중국 둔황석굴(막고굴, 모카오쿠, 莫高窟)에서 영국의 탐험가 아우렐 스타인(Aurel Stein)이 발견했다. 투르크어로 이르크 비티그(Irk Bitig)라 불리는 이 책은 오르콘 문자라 불리는 고투르크 문자로 썼으며 초기 투르크 신화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르크는 '징조' '조짐', 비티그는 '책'이라는 뜻이다.

점서는 현재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13.75X8.75cm 크기에 104페이지 분량이다. 책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은 한자로, 본문은 고대 투르크어로 각각 썼다. 책의 제목인 '징조의 책'은 본문의 마지막에 표기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수의 오류와 누락이 발견되는데, 이로 인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사본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페이지에 책이 호랑이해 두 번째 달 열다섯 번째 날에 타이군탄(Tayguntan) 마니교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점서는 유목민인 투르크인들이 살았던 세계의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동물이 대



점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부분의 징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말과 낙타와 같은 길들여진 동물이나 호랑이와 사슴과 같은 야생 동물이 자주 등장한다. 들짐승끼리 싸우거나 다치면 나쁜 징조이다. 또 가축이 학대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도둑맞는 것도 나쁜 징조이다. 반면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좋은 징조이다.

하늘의 신 텡그리는 몇몇 징조들에 등장하는데, 그는 주로 길을 잃거나 지친 동물들을 구한다. 길의 신은 여행자를 도와주고 오래된 것을 수선하며 나라의 질서를 지킨다.

칸의 명칭 또한 몇몇 징조에서 나타난다. 칸의 주둔지를 세우거나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 사냥을 나가는 것 모두 좋은 징조들이다.

점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내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 알거라, 이 점서는 좋은 것이다. 모든 이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점서는 산문과 운문 두 가지 형식으로 쓰였는데, 특정한 운율 법칙은 없으며 대구법, 두운법, 리듬 등은 운문적 특성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르크비틱, 으르크비틱, 이르크비티그, 으르크비티그
- 다국어 표기 Irk Bitig(아제르바이잔어), Книга гаданий(러시아어), Irk Bitig(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스타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7/Irk_bitig_06.jpg/1024px-Irk_bitig_0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Talat Tekin, Irk Bitig. The Book of Omens,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1993.
Стеблева, Ия Васильевна. Жизнь и литература доисламских тюрков. Вост. лит., 2007, 75~89.

I G033 | 정령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ingling

비추린에 따르면, 정령은 바이칼 호수의 서쪽 지역에 있는 예니세이강 상류에 존재하던 동북아시아의 민족이다. 주나라 시대에는 귀방이라고 불렸다. 흉노 제국 몰락 이후 몽골 북부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북흉노와 선비족에게 빠르게 동화되었다.

정령에는 최고의 통치자가 따로 없었으며 각 부족은 독립적인 지도자가 주도했고, 외부 위협이 발생할 때 군대에 합류했다. 최고의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카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왕위와 관련된 언어로 ‘천국의 큰아들’을 의미하는 khoulou fule를 사용했다.

정령은 외관은 몽골 민족이지만 유목만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를 수행하며 정착 생활을 했다. 타가르인은 가축 사육 및 농업 생산을 모두 통합했는데 농업이 우세했다. 고대 투르크족은 무덤에 말을 함께 매장했으나 예니세이강 주변에서는 무덤에 말과 마구를 넣지 않았다. 초원 유목민과는 달리 좌식 생활을 주로 한 민족으로 알려졌다.

정령은 문헌에서는 3세기경 처음 등장하는데, 선비족이 건국한 전연에 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빈(翟斌)은 전연을 배신하고 하북성을 근거지로 세력을 형성한다. 그의 아들 적진(翟眞)은 전연과 대치하다가 선우걸에게 피살된다. 적진의 사촌 적료(翟遙)는 정령을 이끌고 남쪽

으로 달아나 여양 태수 등념지에게 항복한다. 485년 돌궐이 유연을 멸망시키고 정령은 돌궐에 속하게 된다. 5세기 말 타림 분지 북동부(특히 고창)에 정주했으며, 6세기 초 준가리아에 세력을 뻗쳐 에프탈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링
- 다국어 표기 Динли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Древняя Сибирь.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выставке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древнего населения Сибири. 1976.
Бичурин Н. Я. Повествования о ДOME хойху //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I G034 | 정의발전당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정당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dalet Kalkınma Partisi

정의발전당은 현재 튀르키예의 집권 여당으로 보수주의 정당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이후 만성적으로 경제를 괴롭혀왔던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면서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시켜 전국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정책적으로 확대시키면서 군부와 사법부 등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세속주의 세력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집권 이후에는 온건 세속주의에 기반한 사회 개혁이나 유럽 연합 가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등 다소 온건한 성향을 보였으나, 점차 보수적으로 변해 반 대파들에게 이슬람주의 정당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2023년 5월 14일 총선 결과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 600석 가운데 정의발전당의 의석수는 267석으로 최대의석을 차지했다. 정의발전당은 과거 이슬람계 정당인 복지당(RP)에서 활동했



정의발전당 당사(양카라, 튀르키예)

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 총리였던 일드름, 전 외교장관이었던 차부쉬오을루와 함께 2001년 8월 14일 창당했다. 2002년, 2007년, 2011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여 단독 정부를 구성해 오다 2015년 6월 선거에서는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조기 총선을 통해 단독 정부를 구성하며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 정당의 전신은 이슬람주의 색채를 띤 미덕당(Virtue Party)이다.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슬람계 정당인 복지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도 이슬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17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제 전환, 2018년 3월 다른 정당과의 동맹이 가능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했으며 2023년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6월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민족주의행동당(MHP)과 선거 동맹을 맺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공동 대선후보로 내세웠고, 대선에서 에르도안이 당선되었다.

에르도안은 2014년 8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에 따라 당적을 상실했으나 2017년 4월 국민투표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당적을 회복했고, 2017년 5월 정의발전당 특별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현재에도 당 대표로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AKP, 아케페
- 다국어 표기 Justice Development Party(영어), Adalet Kalkınma Parti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728&cid=43920&categoryId=43921#TABLE_OF_CONTENT3
- 참고문헌(오프라인) Tocci, Nathalie, "Turkey and the European Union". 《The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Turkey》 Routledge, 2012.

I G035 I 제1차 민족 건축 양식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양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 Ulusal Mimarlık Üslubu

오스만 시대 말기 제2입헌군주제 시대(1908년~1920년) 이후 오스만 엘리트들은 이슬람 대신 ‘투르크’라는 개념을 이용한 새로운 역사·문화·언어 개념을 국가에 퍼트리기를 바랐고, 이런 흐름은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과거의 건축 요소와 양식을 새로운 건축에 적용시키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 흐름을 통해 발전한 양식을 ‘제1차 민족 건축 양식(I. Ulusal Mimarlık Ülubu)’ 또는 ‘제1차 민족 건축 시기(I. Ulusal Mimarlık dönemi)’ 또는 ‘제1차 민족 건축운동(I. Ulusal Mimarlık Akımı)’이라고 부른다. 때때로 신고전 투르크 양식(Neoklasik Türk üslûbu)이라고도 한다.

이 양식은 제2입헌군주제 시대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양식에 대한 명명 자체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다. 오스만 제국 말기에 시작된 이 양식은 공화국 건립 이후 그 영



앙카라 민속박물관

향력이 더욱 커진다. 특히 전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튀르키예인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좋은 양식이었다.

당시에 활동하던 많은 건축가들은 이 양식을 받아들여 건축물을 설계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는 미마르 케말레틴 베이(Mimar Kemalettin Bey, 1870년~1927년), 미마르 베다트 텍(Mimar Vedat Tek, 1873년~1942년), 미마르 무자페르 베이(Mimar Muzaffer Bey, 1881년~1921년), 아리프 히크멧 코윤오울루(Arif Hikmet Koyunoğlu, 1888년~1982년) 등이다. 그들 이외에도 공화국 초기의 많은 건축가들도 이 양식을 받아들였다.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은 일반적으로 오스만 시대와 셀주크 시대의 건축물에 사용되던 아치와 문양, 장식과 같은 요소들을 서구 건축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민족의식을 건축에서 보여주자는 것이 기초적인 목적이었다. 이 시기에 건설된 건물들은 대체로 오스만 시대와 셀주크 시대의 모티브를 외관에 적용했다. 건물의 외관, 특히 전면 입구 장식에서 이 양식의



이시 은행 본사

독특함이 드러난다. 대리석 기둥, 타일 장식, 금속 공예 장식으로 입구를 특히 강조한다. 대부분은 계단을 통해 입구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입구 바로 위에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발코니를 달아 입구를 강조한다. 건물 각 모서리는 탑처럼 보이게 마무리하여 건축의 기념비적 성격을 더했다. 천장 부분은 무카르나스로 마무리한다.

튀르키예 공화국 건립 이후 이 건축 양식은 민족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느낀 국가의 의지와 맞물려 특히 공공기관 건물에 많이 적용되었다. 20세기 초 공화국 건립 직후 건설된 공공기관 건물의 평면, 외관과 내부 공간에서 이 양식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양식을 통해 튀르키예의 '투르크'라는 민족의식과 전통 건축의 해석 방식을 알 수 있다.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 이시 은행 본사(İş Bankası Genel Müdürlüğü), 1928년, 건축가 Giulio Mongeri
- * 제2국회의사당(II. Meclis), 1924년, 건축가 Vedat Tek

* 앙카라 민속박물관(Ankara Etnografya Müzesi), 1925년~1928년, 건축가 Arif Hikmet Koyunoğlu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1차 민족 건축 시기, 제1차 민족 건축운동, 신고전 투르크 양식

● 다국어 표기 I. Ulusal Mimarlık Ülubu(튀르키예어), First national architectural movement(영어)

● 연관 검색어 제2차 민족 건축 양식

● 멀티미디어 링크 앙카라 민속 박물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3/Ankara-Turkey-viewP5280010.JPG/1024px-Ankara-Turkey-viewP5280010.JPG>

지라앗 은행 본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c/Ziraat_Bankas%C4%B1_5.JPG/1024px-Ziraat_Bankas%C4%B1_5.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oğlu, İnci. *Erken Cumhuriyet Dönemi Mimarlığı*, Ankara: O.D.T.Ü. Mimarlık Fak. Basım İslığı, 1980.

Sözen, Metin. *Cumhuriyet Dönemi Türk Mimarlığı*, Ankara: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Yayınları, 1984.

Giray, Kıymetç “Sanat Tarihi Cumhuriyet Dönemi Türk Mimarisi”, *T.C.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Türkiye Kültür Portalı Projesi*, Ankara, 2009.

Yaldız, Esraç “Birinci Ulusal Mimarlık Dönemi Kamu Yapıları”, *SOCIAL SCIENCES STUDIES JOURNAL* Vol 4, Issue:24, 2018.

I G036 | 제1차 세계 대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World War I

참전국 대부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제1차 세계 대전은 오스만 제국이 참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승전국의 영토 분할 점령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과 공화국 수립은 1차 대전의 후폭풍 가운데 하나였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

자의 손에 암살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친세르비아 분리주의운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선포했다. 기존의 동맹 관계와 새로운 교섭에 따라 독일-오스트리아가 동맹국(Central Powers), 영국-프랑스-러시아(Entente Powers)가 협상국으로 나뉘었고, 결국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오스만 제국은 처음에는 참전하지 않았으나 1914년 8월 2일 청년 투르크 정권 최고의 강경파이자 친독파였던 국방장관 엔베르 파샤(1881년~1922년)가 비밀리에 독일과 참전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오스만 제국이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계기는 괴벤과 브레슬라우라는 2척의 독일 전함이 1914년 8월 11일 영국 지중해 함대에 쫓겨 오스만 영해에 들어온 사건이었다. 이때 영국은 오스만 정부에 그들을 내보내거나 전함을 몰수하고 선원을 구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스만 측은 그 두 전함을 사서 이름을 야우즈와 미딜리라고 개명하고 선원들에게 오스만군 제복을 입히고 독일 해군 제독 빌헬름 수송을 오스만 제국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수송은 엔베르의 명령을 직접 받아 흑해의 러시아 기지들을 포격하고 전함들을 침몰시켰다(1914년 10월 29일). 이리하여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에 돌입했다.

낙후된 농업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경제와 군사 기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강국들과 여러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원래 부족했던 자원과 산업 기반은 이미 1차, 2차 발칸 전쟁(1912년~1913년)으로 인해 더욱 부족해졌고, 교통망이 부실하여 군대가 신속히 이동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갈리폴리와 이라크의 쿠트 알 아마라에서의 승리를 제외하면, 오스만 측은 전쟁 기간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군 혹은 러시아군에 혹독한 패배를 당했다.

1914년 겨울 개전 초기에 오스만 정부는 동아나톨리아의 조지아 국경 근처 카르스 주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목표는 캅카스 산맥으로 진격해 러시아 치하의 무슬림들을 봉기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전은 전략적 요충지인 사르카므쉬에서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오스만군은 한 겨울에 고산지대의 험준한 지형에 예산이 없어 외투도 보급받지 못한 채 투입되었다. 그 결과는 참혹해 약 7만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주로 추위와 질병이었다. 사르카므쉬에서의 참패 이후 동아나톨리아는 러시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나톨리아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고조시켜 1915년 봄 시리아로의 강제 이주와 관련된 대량 학살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917년 혁명 당시의 국내사정 때문에 퇴각할 때까지 동아

나톨리아를 장악했다.

1915년 1월 시리아의 제말 파샤 휘하의 군대는 시나이반도에서 수에즈 운하의 봉쇄 및 이집트 점령을 목표로 기습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은 곧 실패했고 오스만군은 퇴각했으나 영국을 자극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전선이 생겨 버렸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을 포섭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히자즈 지역으로부터 아랍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으며, 알렌비 장군의 영국군도 1917년~1918년 사이 가자,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을 차례로 점령하며 북상했다. 전쟁 초기의 사르카므쉬 전투와 이집트 침공은 튀르키예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담한 실수였다.

개전 초기에 이집트에서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한 영국과 프랑스군은 오스만 제국의 수뇌부 이스탄불을 대담하게 노리는 상륙작전을 다르다넬스 해협의 갈리폴리에서 감행했다. 이것이 유명한 갈리폴리 전투(튀르키예인들은 차낙칼레 전투라고 부른다)이다. 이 전투의 목표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오스트리아군과, 동부 전선에서 오스만군과 싸우던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에의 보급로를 해협들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에는 자신의 심장부를 향한 크나큰 위협이었다. 1915년 3월 18일 이루어진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으나 같은 해 4월 25일 영국군과 ANZAC(Australia-New Zealand Army Corps) 군대가 갈리폴리반도에서 수륙 양면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이후 참혹하고 고단한 참호전이 1916년 1월 협상국 군대들이 철수할 때까지 9개월간 지속됐다. 오스만 제국이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에 이긴 점,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의 창건자로 추앙된 무스타파 케말이 이 전투에서 전쟁영웅으로 떠오른 점 등은 튀르키예 대중이 이 전투를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했다. 튀르키예 역사학에서는 이 전투를 튀르키예 현대사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국군은 1914년 11월부터 공세에 나서 파오(Fao)와 바스라를 점령했고, 갈리폴리 공격과 같은 시기에 바그다드로 가는 길목의 티그리스강에 면한 쿠트 알 아마라를 공격해 차지했다(1915년 5월). 영국군은 그 후 북상했으나 셀만팍에서 누렛딘 파샤에 의해 저지당해 11월 쿠트로 후퇴했다. 이때 폰 데어 골츠가 지휘하는 오스만군이 1916년 1월 포위했고, 결국 영국군은 1916년 4월 29일 항복했다. 그 후 새로 들어온 영국군이 1916년 12월 쿠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다음해 2월 23일 쿠트가 함락되었다. 영국군은 진격을 계속해 바그다드도 차지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비르딩 전투 방면(1916년 4월~6월)

알렌비의 시리아 점령도 위협적이었지만 오스만 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낸 것은 밀른(Milne) 장군이 불가리아 패배 이후 이스탄불로 진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1918년 10월 30일, 오스만 대표들과 협상국 대표들이 무단야(무드로스)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은 사실상 끝났다.

이 전쟁은 제국의 자원들을 거의 다 소진하게 했다. 오스만 군대에 신식 독일제 군사 장비 등이 보급되었으나 식량, 식수, 피복 그리고 연락과 교통 장비가 크게 부족했다. 이 점들은 전쟁 수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오스만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탈영병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고, 탈영병들은 흔히 비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치안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물자가 군대로 집중되어 후방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아사하거나 민간 폭력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오스만의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보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일각의 추산에 의하면 사망자가 약 500만명에 이른다.

패전 후 연합진보당 내각은 사임하고 망명했고, 부마 페리드 파샤가 이끄는 새 정부가 만들어져 점령군과 교섭했다. 그 가운데 무스타파 케말은 이스탄불을 떠나 아나톨리아에서 저항운동을 3년간 벌였다. 1922년 11월에야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졌다. 1923년 7월 로잔에서 튀르키예의 앙카라 정부와 협상국 사이에 맺은 조약에 따라 1923년 10월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국 멸망과 공화국 수립은 1차 대전의 패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1차 세계 대전

● 다국어 표기 *Dünya Savaşı I; Birinci Dünya Savaşı* (튀르키예어), *Birinci Dünya müharibəsi* (아제르바이잔어), *Бірінші дүниежүзілік соғыс* (카자흐어), *Birinchi jahon urushi* (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estami S. Bilgiç, “World War I”,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98~601.

Ercüment Kuran, “Birinci Dünya Savaş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6, 1992, pp.196~200.

I G037 | 제2차 민족 건축 양식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양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I. Ulusal Mimarlık Üslubu

제2차 민족 건축 양식(II. Ulusal Mimarlık Üslubu)은 제2차 민족 건축운동(II. Ulusal Mimarlık Akımı) 또는 신지역주의(Yeni Yöreselcilik)라고 부르기도 한다. 튀르키예에서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10년간 유행한 건축 양식으로 전통 튀르키예 비종교(세속) 건축 요소를 반영한 양식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튀르키예는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어진 외국인 건축가의 지나친 활동에 대한 반발과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보여준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도 제2차 민족 건축 양식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이stanbul 대학교 문과대학

제2차 민족 건축 양식은 제1차 민족 건축운동이 셀주크-오스만 시대의 종교 거대 건축 요소를 서구 건축 기술과 결합하여 반영한 것과 달리, 민간 건축물의 요소를 좀 더 단순한 형식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좌우 대칭을 중요시하고, 석재로 감싼 전면, 쉽게 건설 가능한 지붕 지지대와 쉬운 채광 등 전통 목재 가옥 요소들이 건물에 적용되었다.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처럼 오스만 시대와 셀주크 시대의 건축 양식을 일부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투르크 민간 건축 양식, 더 정확히는 가옥 건축 양식의 특징을 따왔다. 지붕 지지대, 공간에 쉽게 빛을 받을 수 있는 전통 목재 가옥 요소들은 새로운 건축 기술로 쉽게 건물에 적용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폴 본타즈(Paul Bonatz, 1877년~1956년), 세닷 학크 엘데미(Sedat Hakkı Eldem, 1908년~1988년), 에민 오나트(Emin Onat, 1908년~1961년), 오르한 아르다(Orhan Arda, 1911년~2003년) 등이 있다. 특히 세닷 엘데미는 미술 아카데미(Güzel Sanatlar Akademisi)에서 조직한 민족 건축 세미나(Milli Mimari Semineri)에서 투르크 민간 건축을 중

심으로 한 작업을 했고, 이는 제2차 민족 건축 양식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제2차 민족 건축 양식의 유행은 끝나게 되었다.

제2차 민족 건축 양식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이스탄불 대학교 문과대학(İstanbul Üniversitesi Fen ve Edebiyat Fakültesi). 건축가 에민 오나트(Emin Onat), 학크 엘렘(Hakkı Eldem), 1943년
- 앙카라 대학교 과학대학(Ankara Üniversitesi Fen Fakültesi). 건축가 에민 오나트(Emin Onat), 학크 엘렘 Hakkı Eldem), 1943년
- 아넷카비르(Anıtkabir), 에민 오나트(Emin Onat), 1942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2차 민족 건축운동, 제2차 민족 건축 시대

● 다국어 표기 II. Ulusal Mimarlık Üslubu(튀르키예어), II. Ulusal Mimarlık Akımı(튀르키예어), Yeni Yöreselcilik(튀르키예어), Second National Architecture Movement(영어)

● 연관 검색어 제1차 민족 건축 양식, 에민 오나트

● 멀티미디어 링크 앙카라 대학교 과학 대학

<https://www.ankara.edu.tr/wp-content/uploads/sites/6/2017/03/075.jpg>

아넷카비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a/Ataturk%27s_Mausoleum_%286225341313%29.jpg/1024px-Ataturk%27s_Mausoleum_%286225341313%2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sol, Doğan. “Cumhuriyet Dönemi Mimarlığından Bir Panorama” *İTÜ Sempozyum kitabı: Osmanlı Kültürel Mirası ve Mimarlıkta Süreklilik*, 9/10 Aralık 1999.

Giray, Kıymet. “Sanat Tarihi Cumhuriyet Dönemi Türk Mimarisi”, *T.C.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Türkiye Kültür Portalı Projesi*, Ankara, 2009.

I G038 | 제나프 세하벳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Cenap Şehabettin

제나프 세하벳틴(Cenap Şehabettin)은 튀르키예의 근대 문학을 주도한 시인이며 작가이다. 1870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고 지금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 비톨라(마나스트르)에서 태어난 그는 ‘에데비야트 제디데(Edebiyat-ı Cedide)’ 문학 동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아버지는 1877년~1878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오스만 세하벳틴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나프 세하벳틴은 여섯 살이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한동안 이스탄불 톱하네에 있는 페이지에 맥테비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에이위프 군사 중등학교(Eyüp Askerî Rüştiyesi)로 진학했고 1889년 군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1885년~1887년)에 무알림 나지(Muallim Naci)의 영향으로 가젤 형식의 시를 써서 신문 <사데트>에 게재했다. 학창 시절 친구 두 명과 함께 잡지 <세바트>(1886년 3월 15일 창간, 12권)를 만들었고, 『타마트(Tamat)』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했다. 이후에 레자이자데 마흐무트 에크렘과 하미트 타르한의 영향을 받아 서양식으로 시를 써서 잡지 <세르베티 뤼눈>에 게재했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학교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4년간 머물렀는데 이때 프랑스 시를 가까이에서 접했다. 그는 고답파(1860년대 프랑스 시 문학의 한 유파)와 상징주의 시를 만났다. 고답파 시인인 샤를 브르베(Charles Brevet)에게 강의를 들었고 시인 폴 베를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잡지 <말루마트(Malûmat)>와 <마리프(Maarif)>에 발표한 시는 서양식 운율을 사용해 지었다. 이후에 잡지 <하지네이 뤼눈(Hazine-i Fünun)>, <멕테프(Mektep)>에도 시를 선보였다.

유럽에서 돌아와 한동안 하이다르파샤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근무했다.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기 위해 검역과를 지망했다. 메르신, 로도스(그리스)에서 검역의로 진료했고 1896년에는 보건조사관으로 제다(Cidde, 사우디아라비아)로 발령받았다. 긴 시간 동안 시리



제나프 세하벳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 보건부장으로 있었던 제나프 세하벳틴은 2차 메쉬루티예트 이후 이스탄불로 돌아와 의료 분야 감사로 일했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당시 영향력 있는 신문 <타난>, <휘리에트>, <펜(1908)>, <학(1912)>에 논설을 쓰고 있었다. 논설은 연합진보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지야 괴칼프와 친구들이 만든 잡지 <젊은 작가들>에서 시작한 ‘언어개혁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는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면 오스만 투르크어의 풍부한 어원이 사라지게 되고, 튀르키예어만으로는 학문적인 견해를 다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오스만 제국 사람이었다. 그는 전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섰다. 그는 1914년 당시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 다뤘튀눈에서 프랑스어와 서구 문학 강의를 맡았다. 이때부터는 입장을 정하고 연합진보당 지도자를 칭찬했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스스로 은퇴했다.

잡지 <세르베티 튀눈>에 게재된 시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제나프 세하벳틴의 시에서도 묘사가 이뤄진다. 존재를 기술하는 문장은 그림과 사진처럼 이해했고 독자들도 마치 그림을 보듯 천지만물, 생명, 사물, 상황, 사건을 시각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돼 튀르키예에도 퍼진 한 흐름이다. 제나프 세하벳틴과 함께 시작한 이 유형은 테브피크 피크레트, 아흐메드 하셈, 야흐야 케말, 아흐메트 함디 프나르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제나프 세하벳틴의 시집은 『타마트(1887)』, 『선택한 시(1934, 사후에 출간)』, 『모든 시(1984, 사후에 출간)』 등이며, 희곡은 「장님 술래잡기(1917)」, 「도련님」, 「거짓말」 등이다. 산문집은 『순례길에서(1909)』, 『행복의 기록(1915)』, 『먼 지평선(1917)』, 『유럽 편지(1919)』, 『산문 전쟁, 산문 평화, 중독성 있는 말(1918)』, 『윌리엄 셰익스피어(1932)』 등이다.

제나프 세하벳틴은 말년에 사전 제작에 열심이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채 1934년 2월 13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무덤은 이스탄불 바크르콰이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나프 세하벳틴
- 다국어 표기 CENAP SEHABETT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르베티 뛰눈,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a/Cenab_%C5%9Fahabettin.jpg/400px-Cenab_%C5%9Fahabetti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yüz Kenan, *Batı Tesirinde Türk Şiiri Antolojisi*, 2. Baskı, Doğu Matbaası, Ankara, 1958.

Ergun Sadeddin Nüzhet, *Cenab Şehabettin: Hayatı ve Seçme Şiirleri*, Yeni Şark BitikYurdu, İstanbul, 1935.

Kaplan Mehmet, *Türk Edebiyatı Üzerinde Araştırmalar*, Dergah Yayınları, İstanbul, 1976.

Kurdakul Şükran, *Çağdaş Türk Edebiyatı Meşrutiyet Dönemi*, Broy Yayınları, İstanbul, 1986.

I G039 I 제르라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Jerrahi

제르라히는 누렛딘 제르라히(Nûreddin Cerrâhi, 정식 이름: Nûreddin Muhammed ibn-i Abdullah er-Rûmî el İstanbulî el Cerrâhî, 1678년~1720/21년)가 설립한 수피즘 종단으로, 제르라히 타리카트라고도 칭한다. 누렛딘 제르라히의 종단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라마잔니 이이에(Ramazâniyye) 종단과 할베티이이에(Halvetiyye) 종단의 네 분파 중 하나인 아흐메디 이이에(Ahmediyye)에 도달한다. 이로 인해 제르라히는 할베티이이에-라마잔니이이에의 분파로 분류된다. '제르라히'라는 이름은 종단 창립자인 누렛딘 제르라히가 이스탄불 '제르라히(Cerrâhi)' 구에서 태어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종단은 누렛딘 제르라히가 1703년 데르가흐(Dergâh, 수피들의 교육 장소이자 모임 장소)를 개관한 날을 종단 창립일로 삼는다. 제르라히는 누렛딘 제르라히의 제자와 동료들로 인해 이스탄불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퍼졌으며, 그의 계보와 종단은 현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셰이크 세르타리크자데 에민 에핀디(Şeyh Sertarîkzâde Emin Efendi)는 이스탄불에서의 종단 확대에 공을 세워 피리 사니(pir-i sani)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며, 셰이크 이아히야 모라위(Şeyh Yahyâ Moravî, ?~1770년)는 부임지였던 현 그리스 영토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제르라히를 전파했다. 특히 셰이크 야히야는 관료 출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 고위직 인사와

의 친분을 이용하여, 종단의 명성을 높이고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제르라히 종단의 인사들은 오스만 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튀르키예 공화국 건립 이후 텍케(tekke, 수피들의 교육 장소이자 모임 장소) 폐쇄 명령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르라히 종단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갔다. 1966년~1985년 종단 지도자였던 무자페르 오자크(Muzaffer Ozak)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대화와 작품들을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알리고, 이들 지역에 텍케를 개설하기도 했다.

제르라히 종단의 기본 원리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무릎을 꿇고, 비밀을 지키고, 셰이크 앞에서 작게 말하고, 셰이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셰이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며, 모든 피조물을 무시하지 않는 전통(adap), 둘째는 사랑, 관대, 친근, 인내, 숙명, 사고와 같은 법(ahkam), 셋째는 회개, 청빈, 만족, 순종과 같은 원칙(bina), 넷째는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 알라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알라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알라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하는 우애(ahbab)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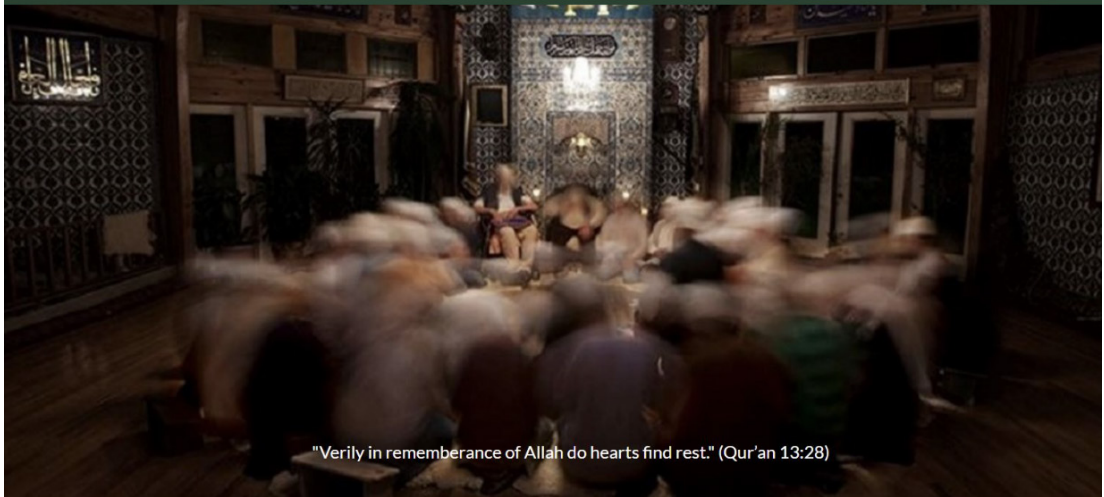
제르라히는 무함마드 시절부터 이어온 순나의 원칙에 매우 엄격한 종단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이유로 비르기비(Birgivi, 1523년~1573년)의 저서를 읽을 것을 명하기도 했다.

제르라히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에게도 칼리파 직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파트마 뮈케렘(Fatma Mükerrerem), 에미네 빈나즈(Emine Binnaz), 에미나 니메트 바즈(Emine Nimet Bacı) 등이 그 예이다.

과거 졸업 시에는 졸업장(icazetname)를 주지 않았으나, 후에 텍케나 데르가흐에 셰이크로 부임할 때 졸업장이 필요하여, 관과 가운을 입혀주는 졸업 의식 때 도장을 찍어 전해주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제르라히의 관의 색상은 노란색과 주황색이며 끝이 뾰족하고 사륙(터번)은 초록색이며, 네 개의 장식과 마흔 개의 가지가 달려 있다.

제르라히 셰이크들은 튀르크 신비주의 전통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품을 남기며 종단의 전통을 보존했다. 누렛딘 제르라히부터 1876년까지 모든 제르라히 셰이크들의 전기를 담은 압뮐라티프 파즐리(Abdülatif Fazlî)의 『성인들의 장미 정원(Gülşen-i Azîzân)』, 이브라힘 파흐렛딘(İbrahim Fahreddin)이 제르라히의 역사와 전통, 구조를 비롯하여 저자 자신과 그의



"Verily in remembrance of Allah do hearts find rest." (Qur'an 13:28)

제르라히 종단 미국 홈페이지
Source: <http://www.jerrahi.org/>

셰이크들과 제자를 설명한 『성스러운 피르 누렛딘의 빛들(Envâr-ı Hazret-i Pîr Nûreddin)』 등이 이 종단의 대표작이다. 이외에도 종단 소속의 셰이크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라히릭, 제라히, 제르리히예
- 다국어 표기 Cerrâhiye(튀르키예어), Cerrahlik(튀르키예어), Cerrahilik(아제르바이잔어), Jerrahi(영어)
- 연관 검색어 텍케
- 참고문헌(오프라인) Yola. Şenay. "CERRÂHİYY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7, İstanbul: TDV, 1993, pp.416~420.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ürkiye'de Mezhepler ve Tarikatlar*, İstanbul: GerçekYayınevi, 1969.

I G040 | 제르라흐 파샤 복합단지

● 시기 AD 1500~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errahpaşa Complex

제르라흐 파샤 복합단지는 술탄 메흐메드 3세(III.Mehmed, 재위:1566년~1603년) 통치 시기 대재상(Sadrazam)이었던 제르라흐 메흐메드 파샤(Cerrah Mehmed Paşa, ?~1604년)에 의해 이스탄불에 건설되었다. 모스크 정문의 비문에 따르면 건물은 1593년~1594년에 건설되었다. 건축가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건설 당시 황실 수석 건축가가 다우드 아아(Davud Ağa, ?~1599년)였기에 일반적으로 그가 설계했을 것이라고 본다.

1660년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대화재 당시 복합단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가 수리되었고, 1782년 다시 한번 대화재로 훼손되었으며, 1894년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미너렛과 배랑(Son cemaat yeri)의 돔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20세기 초, 미너렛은 원래의 양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재건되었으나 다른 부분들은 훼손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 1958년 수리와 개조를 통해 1982년 수리 작업이 완료되었다.

제르라흐 파샤 복합단지는 불규칙한 사각형 영역 내에 모스크, 마드라사, 하맘(목욕탕), 영묘, 샤드르반 및 체슈메로 구성되어 있다.

모스크:

2층으로 된 모스크는 기도실과 배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랑은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역마다 돔으로 덮여 있다. 배랑의 아치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주두 위에 있으며, 흰색과 붉은색 돌이 교대로 배열되어 장식성을 더 하였다.

직사각형의 기도실 중앙의 약간 평평한 돔은 첨두아치로 연결된 6개의 피어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미흐랍은 모스크 남쪽에 있으며, 키블라를 구성하는 이완 형식의 공간은 세미 돔으로 덮여 있다. 그로 인하여 키블라는 남쪽으로 좀 더 확장된 형태이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개의 세미 돔은 중앙 돔을 지지하며 남은 공간을 덮는다. 북쪽에 있는 세미 돔은 입구 위를 덮고 있다. 이 북쪽 세미 돔 양옆은 각각 두 개의 작은 돔으로 덮여 있다.

배랑에도 두 개의 미흐랍이 있으며, 북동쪽에는 모스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돔으로 덮인



제르라흐 파샤 모스크 내원과 배랑
Source: <https://tr.wikipedia.org/wiki/>

계단이 있다. 입구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있으며, 그 위에 비문이 있다. 문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알라”와 “무함마드”라는 문구가 원형으로 적혀있다.

미흐랍은 밖으로 붙임 기둥이 있어 벽에서 돌출된 형태로 보인다. 미흐랍 벽감은 무카르나스와 대리석 모자이크로 장식되어있다. 민바르의 경우 양 옆면이 기하학적인 별 문양에서 발전하여 식물 문양으로 변형되는 형식으로 장식되어있다.

미너렛은 모스크의 북서쪽에 있다.

마드라사: 과거 단지 내에 있던 마드라사는 도로가 단지 내를 가로 지르게 나는 바람에 단지에서 분리되어있다. 마드라사는 모스크 북쪽에 있으며, 문은 도로를 향하고 있다. 입구를 지나면 작은 입구 내원이 있다. 이곳을 지나 8개의 계단을 통해 마드라사 내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직사각형의 마드라사는 고전적인 오스만 마드라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앙의 정사각형 내 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기둥과 벽돌로 된 돔으로 덮인 배랑(Revak)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드라사의 각 방은 돔으로 덮여 있으며 문과 창문이 있다. 방 내부는 화로를 위한 벽감과 장(槩)으로 쓸 수 있는 벽감이 있다. 북쪽에는 정사각형의 교실이 있다. 마드라사는 복원 후 현재 이스탄불 대학교 제르라흐파샤 의과대학 의학사 연구소 및 박물관(Cerrahpaşa Tıp Fakültesi'nin Tıp Tarihi Bilim Dalı Araştırma Merkezi ve Müzesi)와 사용되고 있으며, 의학자이자 의학사 연구자인 쉬헤일 원웨르(Süheyl Ünver, 1898년~1986년) 아카이브가 있다.

영묘:

제르라흐 메흐메드 파샤의 영묘는 모스크의 북서쪽에 인접한 벽에 팔각형의 형태로 건설되었다. 고전적인 오스만 영묘 형태이며 주재료는 석재이다. 돔으로 덮여있는 영묘 각 면 상단과 하단에는 창문이 있다. 하단 창문은 직사각형에 철로된 격자 장식이 있으며, 상단 창문은 첨두 아치와 석고 격자 장식이 있다. 영묘에는 제르라흐 메드메드 파샤와 그의 세 아들의 관이 있다.

하맘:

현재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복합단지 동쪽 면에 위치해 있다. 과거 도면에 따르면 탈의 공간은 정사각형 형태에 돔이 있었으며, 목욕탕은 팔각형 드럼 위에 돔이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르라흐 메드메드 파샤 모스크, 제르라흐 모스크, 제라흐 모스크
- 다국어 표기 Cerrahpaşa külliyesi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시키르공화국,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mustafacambaz.com/data/media/48/cerrah_eski_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rchnet.org/sites/1975>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1986.
Öz, Tahsin. *İstanbul Camileri I*,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62.
Seyhan, Köksal. "CERRAHPAŞA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7.Cilt, İstanbul: TDV, 1993, pp. 424-425.

I G041 | 제말 쉬레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Cemal Süreya

본명이 제마렛틴 세베르(Cemalettin Seber)인 제말 쉬레야(Cemal Süreya)는 1931년 에르잔에서 태어났다. 1938년 일어난 데르심 반란(Dersim İsyanı)으로 쉬레야의 가족은 빌레지크로 추방됐다. 추방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겨우 23살 된 어머니를 잃었다. 빌레지크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가난한 중학 시절을 보낸 쉬레야는 이스탄불 하이다르파샤 고등학교를 1950년 졸업했다. 이후 앙카라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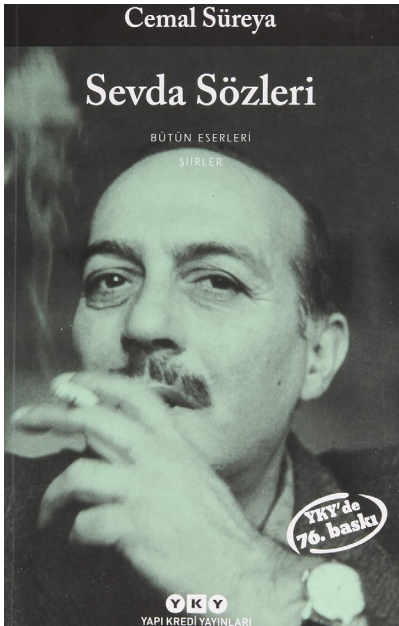
쉬레야는 1955년 재무부에 들어가 부감사 및 감사로 근무하다가 1965년 그만두고 글쓰기와 번역 일을 했다. 그는 1972년 재정검사위원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1975년~1976년 조폐공사에 파견돼 감사직을 다시 맡은 뒤 1982년 공직에서 은퇴했다.

쉬레야는 1950년 이후 튀르키예 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2세대 혁신파(ikinci yeni)’에서 에디프 잔세베르(Edip Cansever), 투르구트 우야르(Turgut Uyar), 세자이 카라코취(Sezai Karakoç), 에제 아이한(Ece Ayhan)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쉬레야는 생전에 산문 책 두 권을 출판했고, 사후에 산문집 일곱 권이 발행됐다. 시 번역본은 그가 죽은 뒤 『산산조각이 난 가슴(Yürek ki Paramparça)』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출판됐다. 그의 작품 선집은 『정치학도 시인(Mülkiyeli Şairler, 1966)』, 『사랑의 시 100선(100 Aşk Şiiri, 1967)』 두 권이다. 시집으로는 『유목민(Göçebe, 1965~1966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문학상 시 부문 수상)』, 『나에게 키스하고 나를 낳아줘(Beni Öp Sonra Doğur Beni, 1973)』, 『사랑에 빠진 자가 하는 말(Sevda Sözleri, 1984)』, 『달귀진 말발굽(Sıcak Nal, 1988 베흐체트 나자티길 문학상 시 부문 수상)』, 『늦가을(Güz Bitigi, 1988)』 등이 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쉬레야는 계모의 편애 때문에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시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는 추방 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이색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 배경이 됐다.

그는 개인적 문제에 집중한 시를 쓰다가 1960년대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2세대 혁신



『사랑에 빠진 자가 하는 말(Sevda Sözleri)』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파 시인들처럼 사회주의와 사실주의의 메시지에 맞는 시를 썼다.

쉬레야는 주로 개성, 사랑, 여성, 에로티시즘, 성과 같은 주제로 시를 썼고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시어는 구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에 유머와 비극을 섞어 자신을 묘사하기도 했다. 시를 권위에 대한 반란의 수단으로 본 그는, 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쉬레야는 동양과 서양 문학 작품을 동시에 익혔다. 전통을 부정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어느 정도 동조했지만, 이 개념 전체를 자기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현대 튀르키예 시의 형식을 전혀 느낄 수 없게 하는 시인 중 한 명이였다. 민중 시뿐만 아니라 고전 튀르키예 시도 즐겨 읽었고,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사는 서구 시인들의 문학예술 작품도 가능한 한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문학에 역사와 정

치, 그림, 음악, 영화를 덧붙여 풍성하고 다채로운 시 세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그의 산문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을 흥분시키는 미묘한 뭔가가 있었다.

2세대 혁신파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 제말 쉬레야는 시를 ‘단어’로 구성된 예술로 보았다. 그에게 추상화와 형상화도 중요했지만 ‘단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추상적 단어 사용과 단어를 문자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은 시 작법에서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다. 알고 있는 단어를 기존의 의미 밖에서 사용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의 시에 사용되는 ‘단어’는 ‘예술’로 재탄생됐다.

쉬레야는 1990년 1월 9일 눈을 감았고, 이스탄불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말 수레야
- 다국어 표기 CEMAL SUREYA(영어), Cemal Sürey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81FW8vH1aYL._SL1500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slan Gonca Gökalp, “Metinlerarası İlişkiler Işığında Cemal Süreya Şiirinin Bileşenleri”, *Turkish Studies*, 4/1: 1, 2009, pp.435~463.
- Bezirci Asım, *İkinci Yeni Olayı*, Evrensel Yayınları, İstanbul, 1994.
- Duruel Nursel, A'dan Z'ye Cemal Süreya, *kitap-lık'ın* (Aylık Edebiyat Dergisi) armağanıdır, sayı: 57, Yapı Kredi Yayınları, Ocak, 2003.
- Erdost Muzaffer İlhan, *İkinci Yeni Yazıları*, Onur Yayınları, Ankara, 1997.
- Erdost Muzaffer İlhan, *Şiirin U Dönüşü*, Onur Yayınları, Ankara, 2009.
- Karaca Alâattin, *İkinci Yeni Poetikası*. Hece Yayınları, Ankara, 2005.
- Perinçek Feyza, Duruel Nursel, *Cemal Süreya Şiirin Hayatı Şiire Dahil*, Can Yayınları, İstanbul, 2005.
- Turan Metin, *Maliyeci Cemal Süreya*, Ankara Serbest Muhasebeci Mali Müşavirler Odası etkinliği, 11 Ocak, 2019.

I G042 I 제부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경전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Zebur

제부르는 아랍어 자부르(Zabur)의 튀르키예어 발음인데, 구약성서 시편을 가리키는 코란의 용어이다.

코란은 코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로 알라가 모세에게 내린 테브라트(토라), 예수에게 내린 인질(그리스도교 복음서)과 함께 다윗에게 내린 자부르를 든다. 코란에서 자부르는 히브리 성서의 시편을 가리킨다. 코란에는 모두 13번 나오는데 단수 자부르는 3번(4:163, 17:55, 21:105), 복수 주부르(Zubur)는 10번(3:184, 16:44, 26:196, 35:25, 54:43, 54:52) 나온다. 알라가 다윗에게 내린 계시가 담긴 책이라고 언급한다(4:163, 17:55).

자부르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성서 히브리어에서 노래를 뜻하는 자미르(Zamir)와 유사하여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히브리 성서 시편을 미즈모르(Mizmor)라고 하는데, 시리아어로는 마즈모라(Mazmora), 에티오피아어로는 마즈무르(Mazmur)이다. 자부르는 이러한 용어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어에서는 시편을 메즈무를라르(Mezmurlar)라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부르

● 다국어 표기 Zabur(아랍어), Zebur(튀르키예어), Zabur(우즈베크어), Zəbur(아제르바이잔어), Забур жырлар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코란, 테브라트, 인질

● 참고문헌(오프라인) Graham, William A. "Scripture and the Qur'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558~569. Vol. 4.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4.

Horowitz, J. and R. Firestone. "Zabūr."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372~373. Vol. 12. Leiden: Brill, 2002.

Jeffery, Arthur. *The Foreign Vocabulary of the Qur'an*. Baroda, India: Oriental Institute, 1938.

Kassis, Hanna E. *A Concordance of the Qur'an*.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Schippers, Arie. "Psalms."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314~318. Vol. 4.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4.

I G043 | 제와트 헤예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Cevat heyet

제와트 헤예티(Cevat heyet)는 1925년 5월 24일 이란 타브리즈에서 태어났다. 종교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버지 미르자 알리 헤예티는 이란이 헌법 군주국이 되게 이끈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또한 투르크 국가와 무슬림 국가들 간의 영적인 단결과 문명화된 관계 발전에 앞장서기도 했다.

미르자 알리 헤예티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튀르키예와 이란의 지식인들이 설립한 이란의 이슬람 연합(İslâm Teşkilatı_İslam Union)의 수장이었으며, 이란의 사법기관 창립자들 중 한 명으로 이후 법무부 장관까지 승진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사상을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었고, 이는 그의 아들 제와트 헤예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와트 헤예티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마치고 테헤란의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1941년 테헤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학부 3학년이 되던 해 튀르키예로 파견되었으며, 1946년 이스탄불 대학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였지만 이스탄불에 머무는 동안 투르크 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그는

파리에서 4년간 수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1952년 테헤란으로 돌아와 여러 병원에 외과를 만들었다. 그의 많은 수술 경험은 이란의 의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1954년 폐쇄 심장 수술을, 1956년에는 이란 최초로 대동맥 판막 협착 수술을 시행했다. 1961년 자비드(Cavid)란 이름의 사립 병원을 설립했고, 이듬해 심장 개폐 수술을 성공



제와트 헤에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적으로 수행했다. 1969년 그는 이란에서 최초의 심장 판막 교체 및 신장 이식 수술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장기 이식 수술 개발의 선구자였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그는 이란 정부로부터 의학 분야의 1급 공로상을 받았다. 당시 그의 수술 성공담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63년 국제외과학회 이란 상임대표로 뽑혔으며 1983년에는 파리의 국제 외과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테헤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수술을 하면서 그는 1964년부터 12년 동안 테헤란에서 격월간 의학 저널 <Dâniş-i Pezişki>를 발행했다. 그의 의학 논문 중 일부는 유럽의 프랑스어 및 영어 저널에 게재되었다. 그는 이렇듯 매우 성공한 의사였다.

제와트 헤에티는 어릴 적부터 이란 민족주의자들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 차별, 이란에서의 투르크어 사용 금지 현장을 종종 목격했고, 자신이 속한 민족의 현실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는 1979년 샤 정권의 붕괴로 등장한 해방기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2개월마다 테헤란에서 발행되는 튀르키예어-페르시아어 잡지 <varlık>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반세기 이상 금지된 자국민의 언어와 문학을 되살리기 위해 애썼다. 의사였지만 그는 이란 내에 거주하던 투르크인들에게 투르크의 역사, 언어, 문학을 가르쳤으며, 이란 극단주의자들의 투르크인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무시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곤 했다.

제와트 헤예티의 이러한 노력은 이란의 샤 정권이 지워버리려고 애쓰던 투르크인들의 역사, 언어 그리고 모든 정체성 회복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이란의 투르크인과 이란인들 사이의 형제애, 종교적 동질성, 시민권 등 그들을 강화하고 연대하는 공통된 조국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외에도 투르크 언어와 문학, 투르크 역사와 관련된 저서들을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출간했다. 이러한 저서들은 양국에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였으며, 한편으로는 투르크학자로서 자국민의 영적 고통과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했다. 제와트 헤예티는 2014년 8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바트 헤예트, 제밋 헤예티
- 다국어 표기 جواد هینت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d/Dr._Cavad_Heyet.jpg/1024px-Dr._Cavad_Heyet.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heyet-cevat>
- 참고문헌(오프라인) Heyet, Mehemed Rıza. “Profesör Doktor Cevad Heyet’in Hayatı ve Eserleri”, *Bir Ömrün Salnâmesi*, 2010, pp.26~34.

I G044 | 제이네프 코르크마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Zeynep Korkmaz

제이네프 코르크마즈(Zeynep Korkmaz)는 1922년 7월 5일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한 도시 네브셰히르(Nevşehir)에서 출생한 투르크학, 언어학자이며 교수이자 연구가이다.

코르크마즈는 이즈미르 여자고등학교(Izmir Kız Lisesi)와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의 튀르키예어문학과를 마치고, 이후 동 대학에서 학위 과정 중 1948년부터 학과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조교직을 수행하며 투르크 제어(Türk Lehçeleri) 관련 강의를 했으며, 1950년 남서부 아나톨리아 방언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4년 학교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저명한 투르크학자 안네마리 폰 가바인(Prof. Dr. A. von Gabain, 1901년~1993년) 교수, 유명한 알타이어 학자 오멜잔 프리트삭(Prof. Dr. Omeljan Pritsak) 교수와 함께 객원연구원으로서 고대 투르크어와 위구르어를 연구했다.

이듬해 귀국한 코르크마즈는 1957년 앙카라 대학교의 부교수, 1964년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1965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Stiftung)의 연구 보조금을 받아 영국과 독일에서 체류하며 학술 연구를 계속 했으며,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옥스퍼드의 보드레이안 도서관에서도 동양학 관련 사료 연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뮌헨, 마르부르크, 튀빙겐, 베를린, 함부르크에 있는 주립 도서관(Sassbibliothek)에서도 수기로 기록된 문헌 및 문화사 작품 관련 연구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 관련 부처 여러 곳에서 대외 활동을 병행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앙카라 대학교 교무위원(Senato Üyeliği)직을 수행하며, 튀르키예 문화연구소(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 TDK)의 여러 보직을 겸했다.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는 정회원, 위원회 임원뿐만 아니라 문법·응용학 분과 책임자직을 수행했다. 1974년에서 1983년까지 문화부의 문화·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고 <국가문화저널(Millî Kültür Dergisi)>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1971년~1983년에는 하제테페 대학교에서도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강의했으며, 1981년~1983년에는 앙카라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 학과장직을 겸했다. 1983년~1990년 대학 간협의회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1984년~1988년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이사회 위원, 1989년~1990년 고등교육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교수직에서 은퇴했다. 이후 1991년부터는 가지 대학교에서 계약 교수로 수년간 일했다.

코르크마즈는 튀르키예어와 관련된 다양한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우즈 투르크어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외국 도서관에서 다양한 사료를 살피고 중요한



제이네프 코르크마즈 『튀르키예어에 관한 연구들 1-2(Türk Dili Üzerine Araştırmalar 1-2)』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연구에 관한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투르크어의 음성학 적 연구 및 문법 연구와 관련한 소논문들을 다수 집필했다. 튀르키예어 문법, 형태론과 관련된 연구도 펼쳤고, 그녀의 저서 『튀르키예어 문법(Türkiye Türkçesi Grameri)』은 2003년 튀르키예작가협회 언어상을 수상했다. 관련 연구 분야에서 책 14권, 250여 편에 달하는 연구 논문을 출판했으며, 연구 논문의 일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러시아 모스크바의 과학 저널에 독일어, 영어 및 러시아어로 게재되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타튀르크의 연설문을 현대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코르크마즈는 이 번역본을 책으로 출간했다. 또한 자신의 박사 논문 연구 주제와 관련해 출판한 『남서부 아나톨리아 방언』은 1955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상을 받았

다. 다른 저서 『튀르키예어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의 아타튀르크와 튀르키예어(Türk Dilinin Tarihi Akışı İçinde Atatürk ve Türk Dili)』는 1967년 유누스 나디 아르마안에서 1위를 수상했다. 앞서 언급한 다채로운 대외 활동을 통해 연구소, 정부 부처에서 20개 이상의 감사패를 받았다.

제이네프 코르크마즈는 알타이어 연구, 투르크 제어, 특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행한 오우즈어 연구 활동으로 투르크학과 언어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튀르키예어의 문법서를 집필하여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오우즈어에서 오늘날 튀르키예어로 이어지는 언어의 변화를 음운, 형태론적으로 연구한 그녀는 튀르키예어의 과거와 현재, 그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이네프 코르크마즈, 제이네프 콜크마즈
- 다국어 표기 Zeynep Korkmaz(튀르키예어 및 영문 표기)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앙카라, 안네미리 폰 가바인,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411yna0vjXL.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biyografi.net/kisiyrinti.asp?kisiid=4261>
- 참고문헌(오프라인) Korkmaz, *Türk Dili Üzerine Araştırmalar*, C.1, TDKYay.: 629, Ankara, 1995.

I G045 | 제즈자르 아흐메드 파샤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관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ezzar Ahmed Paşa

보스니아 출신인 제즈자르 아흐메드 파샤(Cezzar Ahmed Paşa)의 출생연도는 불명확하다. 1720년, 1722년, 1735년 등 여러 주장이 있다.

제즈자르 아흐메드는 1756년 보스니아 총독 헤킴 오울루 알리 파샤(Hekimoğlu Ali Paşa, 1689년~1758년)의 휘하로 들어가 그와 함께 이집트로 갔고, 이집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758년에는 순례를 떠났고, 카이로 셰이훔벨레드(Şeyhülbeled : 이집트 도시 지역 통치자, 시장)였던 불루트카판 알리 베이(Bulutkapan Ali Bey)의 측근인 베헤이라 주 카시프(kaşif : 맘루크 지역 행정, 재정, 군사 관료) 압둘라 베이(Abdullah Bey)를 모시게 되었다. 베두인 반군이 이 압둘라 베이를 살해하자 제즈자르는 카쉬프로 임명되었고, 이 전투에서 많은 수의 적을 살해하여 ‘낙타의 도살자’라는 의미의 ‘제즈자르(Cezzar)’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칭호는 공식 문서에도 사용되었다. 단기간에 큰 명성을 얻은 제즈자르는 불루트카판 알리 베이의 측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후 맘루크인들의 음모에 연여 더이상 카이로에 머물 수 없었던 제즈자르는 이스탄불로 도피한 뒤,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으나 알리 베이의 압력으로 인하여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로 갔다. 당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쉬하브(Shihab) 왕조의 영역으로 도피했던 제즈자르는 이후 다마스쿠스 수비대의 오스만 파샤(Osman Paşa) 휘하로 들어갔다. 그는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히르 엘 외메르[Zâhir el-Ömer, 또는 자히르 알 우마르(Zahir al-Umar), 1689년~1775년]와의 전쟁에 참전하여 이들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제즈자르가 베이루트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이를 의심한 쉬하브의 에미르 유스프(Emir Yusuf, 재위: 1770년~1789년)가 그에게 베이루트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고 에미르 유스프는 그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에 제즈자르는 1773년 베이루트를 떠나 적이었던 자히르 엘 외메르를 이용할 생각으로 그가 있는 아크레로 도피했다. 그러나 곧 위험을 느낀 제즈자르는 다시 아크레를 탈출하여 다마스쿠스로 갔다.

제즈자르는 이미 오스만 제국 중앙정부에 자신의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루멜리 베이레르베이 직, 카라히사르 산작 장(mutasarrif) 직을 받았고 1775년 재상 직과 시돈 지역의 베이레르베이(beylerbey) 직을 받게 되었다. 그는 관할 지역에서 반군을 제압하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오스만 중앙정부의 관심사를 따라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오히려 세력을 키워나가는 제즈자르에게 의심을 눈길을 보냈으나,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심지어 그 이외에는 적절한 인물이 없어 혼란한 이집트 지역의 에미리 하즈(Emîr-i Hac : 순례 무리가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와 다마스쿠스 총독에 임명했다. 이 기간에도 그는 아크레에 머물며 맘루크인들의 반란, 시돈의 시아파 부족들과 팔레스타인 북부 산악 지역의 반정부 성향 부족들을 처리했으며 레바논에서는 쉬하브 에미르들과 싸워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무너뜨렸다. 마론파-드루즈파의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프랑스인들과 기독교계의 아랍인들을 상대하며 면화, 곡물, 비단 무역을 독점하며 이 지역의 하층민이던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는 오스만 정부에 항의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지역에 프랑스 식민지역이 건설되고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178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재위: 1804년~1814년)가 이집트를 점령하며 프랑스와의 관계는 다시 바뀌게 된다. 오스만 정부는 이집트 사정에 밝은 제즈자르를 이집트 세라케르(Serasker : 현재의 참모총장에 해당)에 임명한다. 이집트에 갇혔던 나폴레옹은 시리아 지역을 탈출구로 삼아 진출하고, 1799년 3월 19일과 20일 이 지역의 핵심이었던 아크라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영국 해군의 도움을 받은 제즈자르는 강하게 저항했다. 나폴레옹은 결국 5월 21일 퇴각했다.

프랑스의 패배에 오스만 중앙정부는 기뻐하면서도 제즈자르의 영향력 강화에 불안감을 가졌고, 제즈자르도 중앙정부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며 일련의 정치적 투쟁을 하기도 했다. 그러

나 결국 제즈자르는 헤자즈 세라케르와 다마스쿠스 총독에 임명됐다. 제즈자르는 1804년 4월 23일 아크라에서 사망했다.

제즈자르는 생전 통치 지역에서 적대적인 세력에게는 가혹한 정책을 시행했고,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는 상업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아크라, 베이루트, 시돈과 같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모스크를 비롯하여 시장, 대상 숙소, 목욕탕, 분수, 물레방아 등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집트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인 니잠나메이 므스크(Nizamnâme-i Mısır : 이집트의 조례 또는 이집트의 법령)를 작성했으며, 자신의 활동과 통치 지역의 상황과 자신의 신심과 도덕성에 대한 소책자를 쓰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자르 파샤, 젓자르 파샤
 - 다국어 표기 Cezzar Ahmed Paşa(튀르키예어), Jazzor posho(우즈베크어), Jazzar Pasha(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mecen, Feridun. “CEZZÂR AHMED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7, İstanbul: TDV, 1993, pp.516~518.
- Uzunçarşılı, İsmail Hakkı. *Osmanlı Tarihi IV*, Ankara: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1988.

I G046 | 제키 벨리디 토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Zeki Velidi Togan

제키 벨리디 토간(Zeki Velidi Togan)은 1890년 12월 10일 현 러시아 연방 바시키르 공화국의 이십바이스키군(Ishimbaysky District)에서 태어났다. 명문가에서 자란 제키 벨리디 토간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아랍어를, 어머니에게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그는 러시아 연방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이맘(이슬람 종교 공동체를 지도하는 통솔자)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카잔(Kazan)으로 떠나 카시미예 마드라사(Kâsımiye Medresesi)에서 교육을 받는다. 카잔에서 공부할 당시 그는 바시키르 사회의 문제와 함께 투



제키 벨리디 토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르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카잔의 동양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স탄으로 답사를 떠나게 된다. 그는 1915년 러시아 의회에서 바시키르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페테르부르크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정치 문제를 다루며, 동양학자들과 다양한 학술적인 교류를 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제키 벨리디 토간은 바시키르인들의 계몽을 목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다. 그는 바시키르 자치공화국의 수립을 이끌었으며 바시키르 공화국의 정부 수반이 되었다. 그는 러시아 내전 중 차르의 압력에 맞서 소련과 협력했다. 예상과 달리 바시키르 공화국의 독립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투르크িস탄 독립운동을 지속해나갔다. 그는 1921년 설립된 투르크িস탄 민족 연합의 최고지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투르크িস탄에서 30개월 동안 바스마치와 볼셰비키군과 함께 투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술적인 연구와 비문 필사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러시아 대군의 파견으로 인하여 투르크িস탄 독립운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그는 1923년 2월 21일 이란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는 이란 마슈하드 도서관에서 이제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븐 파들란(Ahmad ibn Fadlan)의 작품을 발견한다. 그는 같은 해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후 헤라트, 카불을 거쳐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서 제키 벨리디 토간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유럽으로 망명하게 된다. 그는 유럽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영국, 독일, 프랑스의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했다. 1925년 5월 20일 그는 튀르키예 교육부 차관 함둘라 수피 타느르외베르(Türkiye Maarif Vekili Hamdullah Suphi Tanrıöver)의 초청으로 이스탄불에 가게 되었고, 이후 앙카라로 이주하여 1925년 6월 3일 튀르키예 공화국 시민이 되었으며 교육, 저작권 및 번역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이스탄불 대학교에 문학부(당시 명칭 İstanbul Dârülfünunu Edebiyat Fakültesi) 투르크역사학 교수로 재직한다. 그는 쿠프뤼뤼 자데 메흐메드 푸아트(Köprülüzâde Mehmed Fuad)가 이끄는 투르크학 연구소에 바르톨드(V. V. Bartold)를 초청하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르톨드의 통역을 맡는다. 1930년 그는 앙카라에 설립된 튀르키예 역사연구원과 당시 사회에 출판되어 있던 역사책들을 비판한 것으로 인해 레쉬드 칼립(Reşid Galib), 쉘

세틴(M. Şemsettin) 그리고 막수디(Sadri Maksudi)의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대학 일을 그만두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난다. 그는 1935년 6월 6일 이븐 파들란(Ahmad Ibn Fadlan)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의 본 대학에서 근무한다. 1939년에는 괴팅겐 대학으로 옮긴다. 하지만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그해 9월 1일 튀르키예로 돌아와 이스탄불 대학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44년 범투르크주의에 연루되어 15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이후 계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10월 군사대법원의 판결로 석방된 그는 1947년 3월 31일 무죄 선고를 받고 1948년 대학으로 복귀한다. 1953년에는 문을 닫았던 이슬람 연구소를 다시 열고 이사가 되었으며, 1970년까지 이스탄불 대학에서 근무했다. 그는 수술을 받은 뒤 악화되어 1970년 7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키 율리디 토간
- **다국어 표기** Әхмәтзәки Вәлиди Туган(바시키르어), Валидов, Ахмет-Заки(러시아어), ゼキ・ヴェリディ・トガン(일본어), 泽基 瓦利迪 托甘(중국어), زكي وليدي طوقان.(아랍어)
- **연관 검색어** 카잔, 바시키르인,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8/%D0%92%D0%B0%D0%BB%D0%B8%D0%B4%D0%B8.jpg>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ogan-ahmet-zeki-velid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ogan-ahmet-zeki-velidi>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şan Satılmış, *Zeki Velidi Togan*, Ankara: AlternatifYayın evi, 2003.

Ⅰ G047 Ⅰ 제트 자르기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법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Zheti Zhargy(Seven Charters)

제트 자르기(Zheti Zhargy)는 카자흐 칸국의 타우케 칸 시기(1680년~171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총 7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 ‘7조 법령’이라고도 한다. 법령 정비에 톨레-비(대쥬즈), 카

즈백-비(중쥬즈), 아이테케-비(소쥬즈) 등이 참여한 것을 보면 다수 카자흐인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어로 제트는 ‘일곱’, 자르기는 ‘법령’이란 뜻인데 특히 자르기의 어원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 투르크어 ‘자르’이다.

15세기 후반에 성립된 카자흐 칸국은 타우케 칸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영토가 거의 오늘날의 크기에 이른다. 당시 타우케 칸의 본령은 현재 타슈켄트 남동부의 안그렌 지역에 있었고, 여기에 각 쥬즈의 대표들이 모여 타우케 칸이 제시한 7개의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산법 - 목축지, 하천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령
- ② 형법 - 살인을 제외한 여러 가지 죄에 관한 처벌 법령
- ③ 사형법 -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령
- ④ 군법 - 군인 복무에 관한 규정, 군지휘관 선발에 관한 법령
- ⑤ 가족법 - 가족과 혼인에 대한 법령
- ⑥ 홀로 남은 부인법 - 홀로 남은 부인 및 고아들의 재산 소유 제한 및 그들의 권리를 규정한 법령
- ⑦ 재판절차법 -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령.

이들 법령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 타우케 칸 시기에 제정되었는데, 몽골인의 법령인 ‘야사’와 이슬람 국가에서 엄히 준수하는 ‘샤리아’와 유사한 점이 있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서 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타우케 칸 사후 중가르를 비롯한 외적의 침입과 세 쥬즈 간의 분열로 인하여 카자흐 칸국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7조 법령’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제트 자르그
- 다국어 표기 Жеті Жарғы(카자흐어), Жеты Жарг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법령, 카자흐 칸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081016042748/http://tarih.ru/2008/09/19/pravlenie-tauke->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G048 | 제티겐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황영삼, 김근식 ● 라틴 문자 Jetigen

제티겐(Jetigen)은 손가락으로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카자흐인들의 전통 현악기이다. 기본적으로 말총으로 만든 7개의 현을 이용하며, 대체적인 모습은 가야금과 유사하다. 제티겐은 일곱(제티 - 카자흐어) 개의 현이라는 뜻이다. 현재 제티겐의 현은 7개 이외에 14, 21, 23개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되며 무게는 1kg 정도로 가벼운 편에 속한다. 제티겐은 돔브라와 코브즈 등처럼 옛날 음유 시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는 소리를 내는 데 사용되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인들은 들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제티겐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다.

제티겐에 대한 전설이 있다. 옛날 한 마을에 살던 노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추위로 인해 키우던 가축들이 모두 폐사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아들이 한 명



제티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씩 세상을 떠나자 줄(현)을 하나씩 이용하여 악기처럼 만들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아들이 사망하면서 7개의 현이 만들어졌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이다.

제티겐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악 오케스트라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젓티겐
- 다국어 표기 Жетіген(카자흐어), Жетыге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코브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b/b3/Zhetygen.jpg/1024px-Zhetygen.jpg> (106 제티겐) <https://www.youtube.com/watch?v=rB6cr1u1o5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248725>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G049 | 제티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Zhetytsu

제티수(Zhetytsu)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 및 인접 지역, 키르기스스탄의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이름으로, 러시아어로는 ‘세미레치예’라고 불린다. ‘제티’는 ‘일곱’, ‘수’는 ‘강’이란 뜻으로, 7개의 강이 발하쉬호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제정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중남부 지역의 원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남동부 지역에서는 텐산산맥에 가로막혀 더 이상 팽창을 하지 못했다. 그 무렵에 해당 지역에 건설한 도시로는 베르노예(알마티)와 피쉬펙(비슈케크)이 있다(1854년).

7개의 강은 모두 텐산산맥에서 발원하여 발하쉬호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중 제일 긴 강은 일리강(1,001km, 중국령 포함하면 1,439km)으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리강 북쪽에 위치한 강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라탈강(390km)으로 이 강은 발하쉬호로 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티수 지역

로 흘러간다. 이 강에 콕수강(205km)이 접속한다. 다음 북쪽에 위치한 강은 악수강(316km)으로, 발하쉬호로 바로 흘러가며 이 강에 바스칸강(137km)이 접하고 있다. 그 북쪽으로 있는 렘시강(418km)이 발하쉬호로 흐르고, 동쪽에 위치한 텐텍강(200km)은 발하쉬호 동쪽의 사숙 호수로 흐른다.

제티수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귀중히 여기는 ‘황금 인간’도 이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역사적으로 15세기 중엽 카자흐 칸국이 성립될 때도 이 지역은 카자흐인들의 유목 지대로서 카자흐인들의 땅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시작된 동쪽의 중가르인들의 침입으로 이 일대는 중가르인의 땅으로 되었고, 이후 중가르를 멸한 청국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제정 러시아의 팽창으로 이 지

역은 러시아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때 알마티와 비슈케크를 비롯한 현재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제정 러시아 시기에 제티수 지역은 세미레치예주에 편입되고 투르케스탄 총독부령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 혁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행정 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는데, 제티수 지역은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역과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재편되었다.

- 다국어 표기 Жерісу(카자흐어), Жети-Суу(키르기스어), Семиречь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세미레치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dreamstime.com/cartographic-infographic-seven-rivers-semirechye-translation-seven-rivers-zhetysu-cartographic-infographic-seven-rivers-semirechye-image159132537>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ngritravel.kz/my-country/jetyisu-beskonechnyie-chudesa-na-semi-rekah-413484/>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G050 | 켄 의식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yin-i Cem

켄 의식(Ayin-i Cem)은 튀르키예에서 사실상 제2의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알레비 종파의 종교의식이다. 비정통 이슬람에는 정통 이슬람의 엄격한 종교적 계율에 따른 의식(儀式)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샤먼들이나 이슬람 이후 수피 지도자들이 행했던 의식처럼, 남녀가 합동으로 의식에 참여한다. 남녀가 합동으로 예배나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통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남녀가 참여하는 합동 의식은 알레비 종파의 '켄 의식(Ayin-i Cem)'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의식은 주로 저녁 7시 무렵에 거행되며, 남녀 모두 참여한다. 의식은 데데(dede)가 주관하는데, 과거 샤먼이나 수피 지도자들의 기능과 역할이 그에게서도 발견된다. 데데는 현세와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의식이 시작되면 먼저 사방을 향해 큰절을 올린 후, 입

에 물을 머금어 식장 주변에 뿔어냄으로써 부정을 씻는 의식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식은 샴머니즘의 곳에서도 목격된다. 데데는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알레비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겸하는데, 켄 의식과 공동체의 다른 의식을 주관하며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니 켄
- 다국어 표기 Ayin-i Ce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레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_h1waylgn8o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터키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샴머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 제8권 1호, 2009.
우덕찬, “터키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중동문제연구』 제9권 2호, 2010.
Kehl-Bodorgi, Krisztina. *Die Kizilbash/Aleviten*, Berlin: Klaus Schwarz Verlag. 1988.
Ocak, Ahmet Yaşar, *Alevî ve Bektaşî İnançlarının İslam Öncesi Temelleri*,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5.

I G051 | 켄에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장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emevi

켄에위(Cemevi)는 알레비 종단의 집회 장소이다. 집단을 의미하는 켄(Cem)과 집을 의미하는 에브(ev)의 합성어이다. 지역과 계통별 특성에 따라 텍케(tekke), 데르가흐(dergah), 자비에(zaviye), 니야즈 에비(niyaz evi), 메이단 에비(meydan evi), 크르크라르 메이나드(Kırklar meydanı), 뷁웁 에브(büyük ev), 타리카트 에비(tarikat evi)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알레비 신자들이 12개의 종교적 의무와 전통을 수행하던 장소는 수피즘과 마찬가지로 과거 텍케나 자비에, 데르가흐와 같은 곳이었다. 이런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종교적 원로의 집에 모여 이를 수행했다. 현대에 들어와 알레비는 재단과 협회를 만들어 도시로 활동 중심지를 옮기며 자연스럽게 집단적으로 종교적 의무와 전통을 수행할 장소를 새롭게 찾아냈다. 1990년



카르탈 쟈메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대 이후 이들은 종교적 모임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쟁메위’라 부르기 시작했다. 쟈메위는 종교적 활동 이외에 재단과 협회의 운영, 교육과 문화 지원 역할도 겸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쟈메비
- 다국어 표기 Cemevi(튀르키예어), Cəm ev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텍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c/Kartal_cemev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Üçer, Cenksu. “CEMEVİ: ÂDÂB VE ERKÂNIN İCRÂ EDİLDİĞİ MEKÂN”, *Türk Kültürü ve Hacı Bektaş Veli -Araştırma Dergisi* Kış 2018 Sayı 88, 2018, pp.59~84.
Üçer. Cenksu. “Alevîlik; Yapılar, Grupların Temel Özellikleri Ve Bazı Mülâhazalar”. *Dinî Araştırmalar Dergisi* 12/33, 2009, pp.63~88.

I G052 | 쟁시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Simin Geng

중국의 투르크 문헌학자인 쟁시민(Simin Geng)은 1929년 11월 28일 장쑤성 쉬저우에서 태어났다. 1952년 베이징대학교 동양어학과를 졸업했다. 언어에 특출난 재능을 보인 그는 위구르어, 카자흐어, 튀르키예어, 고대 및 현대 투르크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에 능통했다.

대학 시절 위구르어를 배운 쟁시민은 농지개혁에 참여하기 위해 신장 북부 타청구 예민현 카자흐족 부락을 방문하여 카자흐어를 익혔다. 1년 후 카자흐어 문학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했으며, 1953년 중국 최초로 중앙민족대학교에 카자흐어 언어문학 전공을 개설하고 언어 교재를 편찬했다. 1957년 소련 전문가 데니셰프가 중앙민족대학교의 투르크어 연구반에서 강의하도록 임용되었을 당시, 그는 조교로 일하며 강의 일부를 맡기도 했다. 1976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관련 지도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국 최초의 고대 투르크어 수업을 개설하고 주재했으며, 최초로 고대 투르크어 교과서를 편찬했다.

수십년 동안 고대 투르크-위구르 문학 연구에 전념한 쟁시민은 수많은 작품을 번역하고 출판했다. 그의 연구는 국제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찬사를 받았다. 독일 본 대학, 미국 인디애나 대학, 미국 런던 대학교 등 외국 유명 대학에서 투르크계, 중앙아시아계, 동양계 관련 강의 및 연구를 위해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민 쟁
- 다국어 표기 耿世民(중국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aike.baidu.com/item/耿世民/7975187>
- 참고문헌(오프라인) Geng, S. M. *Western Literature and History on the Draft*. China: Lanzhou University press, 2000.

I G053 | 조가방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Zhaojiafangcun

중국의 흉노 무덤 유적인 조가방촌(趙家房村)은 내몽골 자치구의 차하얼 우익기(察右后旗)에 위치한 유적으로, 토광묘와 목관묘가 발굴되었다. 사자는 양신직지(仰身直肢)장으로 묻혔다. 토기가 머리 근처에서, 금 장식이 입 안에서 각각 발견되었고, 철도와 철검이 몸 부분을 덮고 있었다. 토기는 협사갈도, 니질회도이다. 한경도 발굴되었는데 장의자손경(長宜子孫鏡), 일광경(日光鏡), 중환문조문경(重環紋鳥紋鏡) 등이다. 청동벨트 장식, 금 장식, 골제 화살촉과 함께 오수전도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오수전이 매장됐다는 점에서 동한대(東漢代)의 유적으로 본다. 동한대는 중국 내에서 몽골 무덤이 거의 중국화된 시기이다. 흉노의 유물이 중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한(漢)대인데, 이를 남흉노 문화라고 한다. 이 시기 유적에서는 철기와 금 장식, 한경, 오수전 등이 발견되었다. 서한대에 철기가 점차 늘어나고, 동한대에 증원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한대의 경우 토광묘가 아닌 벽돌로 쌓은 전신묘가 발견되기도 한다.

조가방촌의 무덤 형태는 목관묘와 토광묘이긴 하지만 출토된 여러 가지 한경과 오수전 등은 중원과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롱파합, 이란호구 유적 등과 무덤 양식은 유사하지만, 철기와 중국 유물들이 많이 출토된다는 점은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흉노 무덤으로 여겨지는 도롱파합 유적과 차이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조가방촌

● 다국어 표기 趙家房村(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盖山林, 內蒙古察右后旗赵家房村发现匈奴墓群, 『考古』, 1977-02期.
강인욱, 2003, 「고고학으로 본 흉노의 발생과 분포」, 『문화재』.

I G054 | 조상숭배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조상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Ancestor worship(Manizm)

고대 투르크의 조상숭배는 보편적 종교 현상 가운데 하나로, 그들의 가장 오래된 신앙이자 천신신앙과 함께 이슬람화 이전 투르크 민간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조상숭배는 죽은 자가 산 자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어 경외심을 느끼는 것이 바탕이 되었다.

윈베르 귀나이(Ünver Günay)와 하룬 권교르(Harun Güngör)에 의하면, 투르크의 조상숭배는 모든 죽은 사람의 사령(死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령숭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계사회가 확립되던 시기에 보다 구체화되어 죽은 조상 가운데 특히 부계 조상의 사령을 대상으로 한다. 조상령 가운데 부족 시조, 부계 조상, 부족의 안녕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부족장이나 통치자같이 생전에 공적을 남긴 사람의 사령 등이 투르크 조상숭배의 대상이 된다.

조상령을 위한 제의(祭儀)는 곱탄르(천신, Gök tanrı), 예르-수(지모신, Yer-sub), 우마이(여신, Umay)에 대한 제의와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 조상령이 천신이나 지모신, 우마이 등의 수호신(령)과 위계질서에서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사령이 살아있는 부족과 부족민들과 함께 한 사회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투르크의 조상숭배의 특징은 고인의 시신이나 무덤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영혼관과 관련이 있다. 투르크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영혼이란 인간의 정신적, 영적 구조(토대)이며, 육체와는 다른 일종의 기(氣)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영혼이 인간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었다. 즉 영혼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지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닌 비물리적, 추상적인 개념이며 목숨, 삶, 숨, 본질, 정수 등과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또한, 죽음 후 고인의 영혼은 타계로 가며 소멸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투르크는 현세와 내세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믿음이 조상숭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투르크의 영혼관과 관련해 표현 및 개념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주장도 많지만, 적어도 영혼은 모든 존재물(생명체)의 본질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체에 활력

을 붙여넣어 주는 추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이란 뜻의 튀르키예어 루흐(ruh)는, 옛 투르크어 틴(Tin/Tin)에 상응하는데 이는 ‘살아있는’이란 의미로 쓰였다. 지금도 이 말은 종교학, 민속학에서 ‘영혼’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쓰인다. 영혼이란 개념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인 잔(Can)은, 보편적으로 민속신앙에서 육신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잔이 잠시 몸을 빠져나가게 되면 혼절하며,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은 이것이 육신을 빠져나가 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섬망의 상태 혹은 간질 등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소멸하지 않는 힘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투르크 문화에서 영혼은 생명체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투르크 여러 종류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즉 육신에서 분리되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영혼, 잠을 자는 동안에 육신을 떠나 밖을 돌아다니는 영혼, 사람에게 정기나 생기를 부여하는 영혼, 죽은 이의 영혼을 지칭하는 영혼 등 기능과 활동에 따라 다른 영혼들이 있다고 여겼다. 자는 사람의 얼굴을 이불로 덮거나 씻지 않고 자는 것을 꺼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투르크는 육체혼을 비롯하여 신체를 자유로이 떠날 수 있는 자유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나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투르크는 이처럼 고인의 시신에 깃든 육체혼과 죽음 후 내세로 가는 자유혼에 대한 개념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는 조상령이 사후세계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고인의 시신과 시신의 주거지로 여겨지는 무덤을 훼손하는 것을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다. 투르크는 고인의 영혼이 내세에도 현세와 같은 삶을 영위한다는 믿음에서 무덤에 부장품(껴묻거리)을 고인과 함께 묻기도 했다. 부장품은 고인이 생전에 타던 말의 꼬리(혹은 말 모형), 칼, 활 등 무기류와 일반 생활용품, 값비싼 장식품 등으로 다양하다. 종종 도굴꾼에 의해 무덤이 훼손되기도 했는데, 이는 투르크에서는 모욕적인 일이자 큰 죄로 생각되었다.

조상숭배의 기본은 부족이나 개인의 생명이 시작된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과 부족 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시조에 대한 숭배와 제의로 이어졌다. 돌궐(궤투르크, Gök Türk)은 훈족의 습속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달에 성산(聖山)에 모여 천신과 조상령을 비롯한 시조에게 희생 제물(쿠르

반, kurban)을 바쳤으며 이후 투르크계 민족 또한 조상에 대한 제의를 행했다. 『주서』, 『수서』, 『북사』, 『통전』, 『유양잡조』의 기록에 따르면, 돌궐의 시조는 흉노의 별종으로 회색 늑대(뵈리, böri)를 시조 토렘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주서 이역(異域) 돌궐(突厥) 열전』에 따르면 암컷 이리와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식 가운데 아사나씨(阿史那氏)가 돌궐의 시조가 되었다. 몇 세대 이후 이들은 동굴에서 나와 금산(金山, 알타이산맥)의 남쪽에 기거하며 대장장이로 지냈다. 이후 금산의 모습이 투구(兜鍪)와 닮아 이들의 말을 본떠 부족 이름이 ‘돌궐’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색 늑대(이리)는 북아시아 지역에서 천계와 인간계를 잇는 일종의 샤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화에서 회색 늑대는 천신에 의해 투르크에게 보내진 것으로 묘사되며, 전쟁 등과 같은 위기에서 부족민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고대부터 북아시아 지역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이리 모티브를 통해, 이들 지역이 역사적 공통성을 지녔으며 밀접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궐(궤투르크)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서투르크계 민족들 또한 늑대를 신성시하여 군기에 이리 머리를 그려 넣거나 부족장 천막 앞에 늑대 머리가 그려진 깃발을 꽂아 두기도 했다.

현대 튀르키예에서는 늑대를 민족주의자들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이슬람화 이후 투르크계 민족이 세운 국가나 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의가 여전히 이어졌다. 조상숭배는 기복신앙과 맞물려 민족 명절, 종교 명절, 통과의를 앞두고 고인의 무덤을 방문하여 살피고 무사 안녕의 기도를 드리는 민속 행위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타라르 켈튀

● 다국어 표기 Atalar kült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예르-수, 우마이, 돌궐

● 참고문헌(온라인)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cacı yay, İstanbul, 2001.

I G055 | 족타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Zhoktau

족타우(Zhoktau)는 카자흐 민족의 애가(哀歌)이다. 족타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민족 전통 의례에서 망자를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카자흐 민족의 관습인 족타우는 유목 부족의 고대 장르 중 하나였다. 보통 7음보~8음보로 쓰이는 족타우의 가사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인이 행한 좋은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족타우는 망자의 어머니나 누이, 또는 여성 친척이 짓는다. 족타우는 3일간 부르는데, 이 기간 족타우를 부르는 여성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족타우는 1년 동안 몇 차례 반복해 부른다. 하지만 명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족타우는 보통 아킨이 작곡하고 수시로 연주된다. 잠불 자바예프(Джамбул Джабаев), 케넨 아제르바예프(Кенен Азербает), 알틴벡 코라즈바예프(Алтынбек Коразбаев) 등의 족타우가 널리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족타이, 카자흐인의 애가
- 다국어 표기 Жоктау(러시아어), жоқтау(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5. — Т. II. 335. Yerkebulan Dzhelbuldin.
Dana Jeteyeva.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hks. Author House. 2014, 86~87.

I G056 | 졸린 I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Jolin I

러시아의 초기 투르크 무덤 유적인 졸린 1은 알타이 해발 2,000m 유스티드 계곡의 상류, 나린골과 보구티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다. 유적에는 남북 방향으로 일렬로 서 있는 스키타이 문화의 무덤 8개가 있고, 그 동쪽 편에서 초기 투르크 시대 무덤 2기(9, 10호)가 발견되었다.

9호 무덤의 봉분은 직경 10m, 높이 0.5m~0.6m로 편평한 화산암으로 덮여 있었다. 묘실은 봉분 아래의 무덤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설치했다. 무덤 상부의 적석은 구지표층 위에 돌을 한 겹 깔 것이다. 무덤 구덩이는 타원형(250cm×210cm)으로 깊이는 0.3m~0.4m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망자의 왼쪽에 말을 매장했는데, 직경 4cm~5cm의 낙엽수 통나무 8개가 수직 방향으로 무덤 구덩이의 중앙을 가로질러 인간과 말의 매장 공간을 구분했다. 말은 등을 땅에 두고 다리를 굽힌 채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로 묻혔다. 사람은 머리가 동쪽을 향하고 얼굴이 북쪽으로 향해서 말과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도록 묻혔다. 말의 두향은 서쪽이다. 인골의 우측 팔뼈 부근에서 발견된 고리트 안에는 철제 화살 6개가 담겨 있었고, 투부 등도 확인되었다. 허리 부분에서는 목제 벨트 장식도 출토되었다. 좌측에서는 철제 장검이 출토되었다. 검의 날에는 금을 감입해 만든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남성 의복 조각도 확인되었다. 말은 마구가 착장된 채 묻혔는데, 철제 재갈과 등자, 안장의 부속품 등이 출토되었다. 10호는 9호보다 크기만 작고 대부분 비슷하다.

알타이 지역에는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의 유적들이 있다. 이 지역의 유적은 말의 등자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코크 파시 단계, 개마와 금속제 등자를 사용한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졸린 I 유적은 알타이에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 쿠디리게 단계의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졸린1
- 다국어 표기 Джолин I(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흉노, 쿠디리게, 코크 파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G057 | 졸탄 곴보츠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Zoltán Gombocz



졸탄 곴보츠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졸탄 곴보츠(Zoltán Gombocz)는 1877년 6월 18일 헝가리 서쪽 국경 도시인 소프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장 피에르 루슬로(Jean-Pierre Rousselot)에게 음성학 교육을 받았다. 23세에 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공립 대학인 외트비시 로란드 대학교(Eötvös College)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1903년~1904년에는 라이프치히, 파리, 옘살라, 헬싱키에서 음성 및 문법 연구를 했다. 1905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06년에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의 부교수로, 1914년에는 콜로즈바르 대학교의 우랄-알타이어 교수가 되었다.

서구의 언어학 연구 경향을 따르던 곴보츠는 헝가리어, 알타이어 및 투르크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투르크어의 차용어에 대한 연구를 헝가리어로 분석하는 주요 논문들을 저술했다. 그는 헝가리어와 튀르키예어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1914년 야노스 멜리히와 함께 헝가리어 어원 사전을 출판하기도 했다. 1915년 발표한, 헝가리인 성씨 중 투르크어에서 기원된 단어들에 대한 연구인 『Árpád 시대의 고유명사(Árpádkori török személyneveink, Budapest, 1915)』는 헝가리와 투르크의 관계 규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21년 그는 부다페스트 대학의 헝가리어과 학과장이 되었다. 1927년에는 외트비르 로란드 대학교의 소장이 되었으며, 1927년~1928년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강의했다. 1935년 5월

1일 부다페스트 대학교 철학부 학장으로 근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 다국어 표기 Zoltán Gombocz(헝가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e/Zolt%C3%A1n_Gombocz_%281877-1935%29_linguist.gif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gombocz-zol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Ross, Alan SC. "Professor Zoltán Gombocz."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67.3 1935, pp.580~582.

Németh, Gyula. *Gombocz Zoltán*. Akadémiai kiadó, 1972.

I G058 | 죄르지 허저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yörgy Hazai

죄르지 허저이(György Hazai)는 1932년 4월 30일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4년 부다페스트 로란트 대학 예술 및 인문학부 투르크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1954년-1955년 불가리아에서 튀르키예 방언을 연구한 그는 1956년~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에서 초청 교수로 투르크학 강의를 했으며, 투르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3년에는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수년간 연구를 수행했다. 1966년에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헝가리로 돌아온 그는 이후 8년 동안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출판사의 관리자로 일했다. 1992년 그는 키프로스 대학의 투르크학 과장이 되었고, 2000년 부다페스트로 돌아와 3년 동안 안드라스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다.



죄르지 허저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죄르지 허저이는 튀르키예어의 역사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했으며, 오스만 튀르크어의 주요 작품 중 일부 텍스트를 출판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법론과 연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으며, 발칸반도에서 통용되는 튀르크어 방언을 연구하며 키릴 문자와 라틴 문자로 튀르크어를 전사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60년에 가까운 연구 생활 동안 그는 20권이 넘는 저서와 300건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튀르키예어, 역사, 문학, 문화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헝가리어에서 독일어로, 헝가리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10개 이상의 번역문, 비평 및 여러 백과사전을 남겼다.

2001년 TÜBA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그는 2014년 튀르키예 제11대 압둘라 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Medal of merit)을 받았다.

그는 2016년 1월 7일 부다페스트에서 영면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게오르기 하자이
- 다국어 표기 György Hazai(헝가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5/5d/Georq_Hazai.jpg?20190618093447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tuba.gov.tr/en/news/about-academy/a-final-farewell-to-tuba-honorary-member-prof.-dr.-gyorgy-hazai>
- 참고문헌(오프라인) Kellner-Heinkele, B & Zieme, P. "György Hazai Schriftenverzeichnis, 1955-1996". *Studia Ottomanica: Festgabe für György Hazai zum 65. Geburtstag*. 1997, pp.233~264.

I G059 | 주나이드 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Junaydxon

주나이드 칸의 본명은 무함멧 쿠르반 세르다르(Muhammet-Kurban Serdar)이며, 1857년 튀르크멘 요무드 부족의 지도자였던 호지바이(Khojibay)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문맹이었으

나 부족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마을의 카디(kadi, 판사)가 되었으며 수자원 관리직(mirab)을 맡기도 했다. 그는 투르크멘 부족들을 통합하고, 러시아 임시정부의 이반 자이트 세브(Иван Матвеевич Зайцев, 1879년~1934년)와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주나이드 칸은 1917년 9월 히바 칸국에서 ‘젊은 히바인’들이 주도해 칸에게 개혁을 요구하던 시기에 수도에 갔다. 아스판디요르 칸(Asfandiyorxon, 재위: 1910년~1918년)은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볼셰비키의 지지자들로부터 타슈켄트를 탈환했다. 그러나 1918년 히바에서 아스판디요르 칸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자,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에 성공한 그는 아스판디요르 칸을 폐위시키고 사형에 처한 뒤 아스판디요르 칸의 동생인 사이드 압둘라흐(Sayid Abdullah, 재위: 1918년~1920년)를 칸의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히바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주나이드 칸이었다.

주나이드 칸은 1918년 9월 정적들을 숙청했다. 그는 히바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본래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소련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 및 소련 세력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주요 전투에서 붉은 군대에 패배했다. 결국 그는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쳤고, 1938년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쥐네이트 한, 쥐네이드 한, 주나이드칸
- 다국어 표기 Junaydxon(우즈베크어), Jüneyit han(투르크멘어), Cüneyd 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스판디요르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Abazov, Rafis. *Historical Dictionary of Turkmenistan*, Lanham Md: The Spacecrow Press, 2005.
Adle. C.; Irfan Habib; K M Baï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3.

I G060 | 주르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Zurna

오보에의 조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주르나(Zurna)는 튀르크 음악에서 민속음악과 메흐테르 연주에 사용된다. 주르나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어 ‘잔치 네이(neyi)’라는 뜻의 ‘수르-나이(sûr-nây)’라고 알려져 있다.

주르나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한 악기로 BC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울로우스(aulous), 로마 시대의 티비아(tibia)와 유사하다. 튀르크인은 주르나를 ‘수르나이(surnây)’와 ‘나이 튀르키(nây-i Türki : 튀르크인들의 네이)’로 기록했다.

맘루크 조의 메흐테르에서는 아랍의 주르나를 연주했고, 북쪽의 튀르크 문화권과 카잔, 크림 반도, 동유럽의 쿠만 튀르크, 이란-튀르크 문화권에서도 주르나와 유사한 악기를 연주에 사용했다. 키르기스-튀르크 문화권에서는 주르나가 군악대에서 사용되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된 주르나는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지닌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르-나이(sûr-nây), 카슈미르에서는 수르나이(surnaî),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수나 또는 사흐나이(suna/sahnâî), 수마트라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세루나이(serunai), 중국에서는 수오나(suona), 그리스 북쪽 지역과 불가리아에서는 조우르나(zourna), 리비아와 튀니지에서는 주크라(zukra), 알바니아에서는 수를레(surle), 시리아, 이라크,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다게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르나(Zurna)로 부른다. 주르나는 오스만 제국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여러 나라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주르나는 카므슈[Kamış 또는 십시(Sipsi)]라고 부르는 리드 역할의 부분, 에템(Etem/Lüle/metem)이라 부르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는 부분, 네지즈(Nezik/Tepe/Nazik)라고 하는 에템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 아우르트루크(Avurtluk/Tablu/bilezik)라고 불리는 카므슈를 입으로 물었을 때 입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괴브데(Gövde/Zurna borusu)라는 몸체 부분으로 구성된다. 괴브데 앞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주르나

있고, 뒤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다. 주르나의 소리는 이 구멍을 막거나 열면서 발생한다. 위에서 부터 네 개의 구멍은 오른손으로 잡고 남은 세 개의 구멍은 왼손으로 잡는다. 왼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주르나를 잡는 역할을 하고 남은 손가락을 움직여 연주한다. 일부 주르나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구멍이 더 있는데, 이는 실제 연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 구멍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 뚫은 것이다.

주르나 연주자는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주르나는 음이 높고, 날카롭고, 넓게 퍼지며, 소리가 매우 커서 보통 야외에서 연주한다. 주르나의 날카로운 음 때문에 군악대에서는 주로 적의 신경을 건드리는 데 사용한다. 주르나는 단독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북과 함께 연주된다.

튀르키예에서 주르나는 지방에 따라 크기와 종류가 다르다. 카바 주르나(Kaba zurna)는 33cm, 오르타 주르나(orta zurna)는 31cm, 주라 주르나(cura zurna)는 29cm, 질 주르나(zil zurna)는 23cm이다.

주르나는 현재도 민속음악과 전통 군악대 음악 연주 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르나이, 수르나
- 다국어 표기 Zurna(아제르바이잔어), Сырнай(카자흐어), Сурнай(키르기스어), Zurna(크리미아 타타르어), Surna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다울, 메흐테르
- 멀티미디어 링크 주르나_제작과정_튀르키예어
<https://www.youtube.com/watch?v=6TLbl-pSizM>
 주르나_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i3nbjeq1srw>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5589&cid=60476&categoryId=60476>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Erhan. "Zurna",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44, Istanbul: TDV, 2013, pp.513~514.

I G061 | 주르흐 올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Zurkh Uul

고비-알타이 아이막의 자르갈란 솜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주르흐 올이라 불리는 낮은 산이 있다. 이 산에서 사면과 평탄면이 만나는 말단부를 중심으로 자리한 320여기의 청동기 시대 무덤, 히르기수르 58기, 흉노 시대의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이 주르흐 올 유적이 있는 곳은 해발 1500m~1600m 가량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평탄면이다.

이곳에서 청동기 시대 무덤 1기와 흉노 시대 무덤 4기가 발굴되었다. 흉노 시대의 1호 무덤은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데, 직경 9m 가량의 원형 고리 무덤이다. 깊이 120cm, 남북 380cm, 동서 180cm로 무덤 구덩이를 팠으며 목곽 안에 목관을 설치했다. 각재를 정(井)자형으로 쌓아서 조립했는데, 길이는 330cm이고, 북쪽의 너비(180cm)가 남쪽(150cm)보다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목재는 목재 켄트를 이용해서 연결했다. 목관도 사다리꼴이고 길이 220cm, 북쪽 너비 90cm, 남쪽 너비 60cm이다.

1호의 유물은 목곽과 목관 사이의 빈 공간에서 출토되었는데, 피장자의 두개골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도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토된 활과 화살은 스키타이 시대의 고리트와 같은 형태이며, 하나의 통에 넣도록 고안되었고, 자작나무 껍데기로 제작했다. 이외에 청동제와 골제 화살촉도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목제 팽이도 나왔는데, 다른 무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목곽 외부에서는 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의 뼈가 대량 출토되었다. 뿔이 있는 양 머리뼈 10개, 염소 머리뼈 1개, 양과 염소의 갈비뼈와 다리뼈 등이다. 이는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로 보인다. 1호의 피장자는 35세~40세 가량의 남성이다.

주르흐 올 유적은 몽골 서부 지역의 흉노 무덤 구조를 뚜렷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고학 자료이다. 특히 1호의 목곽과 목관에 사용된 목제 뼈기는 고비-알타이 아이막 축트솜의 히르기스트 홀로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외에도 대형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무덤 축조 재료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흉노 무덤에서 사용된 기술을 알 수 있다. 목관과 목곽을 사용한 흉노 무덤 축조방법은 중국의 기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알타이 산악 지대의 문화로 알려진 스키타이 문화권 중에서 파지리크 문화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다.

1호 무덤은 흉노 무덤 가운데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파지리크 문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흉노 고분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주르흐 올

● 다국어 표기 Зурхул(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파지리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G.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의 문화유산』 IV. 2014.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의 문화유산』 V. 2015.

I G062 | 주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Juma

주마는 아랍어 ‘주므아(jum‘a)’에서 차용한 단어다. 아랍어 주므아는 ‘모이다’라는 뜻의 동사 ‘자마아’에서 파생한 말로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인 금요일, 또는 금요일예배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뜻은 그대로 튀르키예어 주마에 전해졌다. 금요일과 금요일예배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튀르키예어에서는 금요일예배를 ‘주마 нама즈(cuma namazı)’로 부르기도 한다. 금요일 합동예배는 정오에 열리는데, 평일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와 달리 예배 인도자의 설교가 있다. 설교를 쿠트바(khutba)라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통신 수단이 발전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는 이맘이 쿠트바를 할 때 통치자 이름을 언급했고, 이를 미루어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를 추측할 수 있었다.

왜 금요일에 무슬림들이 합동예배를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고이타인(S. D. Goitein)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다. 안식일에는 요리를 비롯하여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필요한 음식물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은 시장에 몰려들었다. 이에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에 이슬람을 전도하려 했고, 이것이 결국 주마가 금요일예배로 자리 잡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오늘날 투르크 문화권 국가에서 금요일은 주말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금요일을 부분적으로 주말 휴일로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극단주의 무슬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주마흐
- 다국어 표기 jum‘ah(아랍어 음차), cum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нама즈, 월레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악시암 нама즈, 앓스 нама즈, 두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WOKB5EzHS0>

● 참고문헌(오프라인) S. D. Goitei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Muslim Friday Worship,” *Muslim World* 49:3, 1959, 183~195.

I G063 | 주마니요즈 잡버러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Jumaniyoz Jabborov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인, 시인, 극작가 및 산문 작가인 주마니요즈 잡버러브(Jumaniyoz Jabborov)는 1930년 카슈카다리야(Qashqadaryo)주 거선(Koson) 지역의 보러티(Po'loti)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으며, 1953년 모스크바의 문학 교육기관 과정을 졸업했다.

주마니요즈 잡버러브는 1953년~1962년 잡지 <동방의 별(Sharq yulduzi)>에서 근무했다. 1962년~1964년에는 잡지 <굴한(Gulxan)>의 편집장을 맡았다. 1964년~1976년에는 신문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에서 부장 및 부편집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또 1976년~1981년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81년~1985년 가푸르 굴럼 출판사의 이사, 1985년~1990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번역 부서 고문을 역임했다. 1990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산하 문학, 예술 및 건축 분야 국가 훈장 수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주마니요즈 잡버러브의 창작 활동은 1950년대에 시작된다. 그는 평생에 걸쳐 20권 이상의 시집, 산문집을 펴냈고, 수십 편의 서사시 및 희곡을 썼다. 그의 대표작은 시집 『조국을 노래한다(Vatanimni kuylayman, 1953)』, 『굴자혼과 하산존(Guljahon va Hasanjon, 1967)』, 『산에서 만남(Tog'dagi uchrashuv, 1986)』, 『봄의 숨결(Bahor nafasi, 1956)』, 『목표를 향해 가는 길(Maqsad yo'lida, 1958)』, 『산의 메아리(Tog'lar sadosi, 1961)』, 『모국의 노래(Ona yer qo'shig'i, 1962)』, 『새벽의 꿈(Subhidam xayollari, 1964)』, 『시선집(She'rlar, 1966)』, 『사막의 날들(Sahro Sanami, 1967)』, 『서정시(Lirika, 1970)』, 『신념(E'tiqod, 1978)』, 『내 마음의 여인(Ko'nglim go'zali, 1991)』, 『사랑의 세계는 신기한 세계이다(Ajab dunyo-sevgi dunyosi,

1996)』, 희곡 『고집쟁이들(O'jarlar, 1971)』, 『세월이 지나서(Yillar o'tib, 1975)』, 『나의 새하얀 비둘기(Mening oppoq kabutarim)』 등이다.

주마니요즈 잡버러브는 재능 있는 번역가이기도 했다. 그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호피즈 셰로지(Hofiz Sheroziy), 우바이드 자코니(Ubayd Zokoniy), 미하일 레르몬토프(Mixail Lermontov), 바이런(George Gordon Byron)과 피르다브시(Firdavsiy)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시인, 산문 작가, 극작가 및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주마니요즈 잡버러브는 문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상과 여러 훈장 및 메달을 받았다. 1980년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예술가 칭호를 받았으며, 1997년에는 국민작가 칭호를 부여받았다.

주마니요즈 잡버러브는 2010년 80세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주마니요즈 잡보로브, 주마니요즈 잡보로브, 주마니요즈 잡버러프

● 다국어 표기 Jumaniyoz Jabborov(우즈베크어), Джуманияз Джаббар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가푸르 굴럼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G064 | 주바이다 후사이너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Zubayda Husainova

수수께끼를 전문으로 연구한 우즈베키스탄의 민속학자 주바이다 후사이너바(Zubayda Husainova)는 1918년 12월 9일 오렌부르크(Orenburg)에서 태어났다. 안디잔(Andijan)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타슈켄트에서 속기술을 공부했다. 이후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교의 속기사가 되었고, 1938년 9월에는 언어문학연구소로 옮겼다. 1950년에는 낮엔 근무하고 저녁엔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의 언어문학과에서 공부했다. 언어문학연구소에서 1958년까지 연구 조교, 선임 연구 조교, 1958년부터 연구원, 1968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녀는 연구소에서 주관한 20개 이상의 민속 현지 연구에 참여했다. 1967년 그녀의 「우즈베크 수수께끼의 주요 특징과 배경」이라는 주제의 졸업 논문이 통과됐다. 197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베루니이(Beruniy) 국가상을 수상했다.

주바이다 후사이너바는 50년 이상 민속예술의 사례를 수집해 이를 기록 및 체계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방문했으며, 수십 편의 서사시와 수백 편의 동화를 수집해 기록했다. 특히 평생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민속 수수께끼를 수집하고 출간했다. 그녀는 1981년 출판된 『우즈베크 수수께끼의 완전한 컬렉션』의 편집 및 출판 준비를 담당했다.

주바이다 후사이너바가 만수르 아프잘러브(Mansur Afzalov), 헐리트 라술(Xolid Rasul)과 공동으로 집필한 『우즈베크 민담(O'zbek xalq ertaklari, 1958년~1960년)』은 큰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계속 재간되고 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러시아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또한 주바이다 후사이너바는 37권으로 이루어진 『우즈베크 민속 예술(O'zbek xalq ijodi)』 시리즈 출간에 크게 기여했다. 그녀는 이 시리즈 중 『물소녀(Suv qizi)』, 『황금 사과(Oltin olma)』, 『어이자멸(Oyjamol)』, 『웃으면-꽃, 울면-구슬(Kulsa-gul, yig'lasa-dur)』, 『굴너르 파리(Gulnor pari)』, 『굴산버그(Gulshanbog')』, 『하산헌(Hasanxon)』, 『어이슬루브(Oysuluv)』, 『말리카 아이요르(Malika ayyor)』, 『누르알리(Nurali)』 등의 출간에 참여했다.

그녀는 1987년~1988년 2권으로 출간된 학술 서적인 『우즈베크 민속 속담』 출간에 참여했고, 시인이자 작가인 라흐마툴라 유수프 오글루(Rahmatulla Yusuf oglu)가 부르는 27편의 서사시(doston)를 채록하여 출간한 『고로글리(Go'ro'g'li)』 모음집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논문 「우즈베크 수수께끼(O'zbek topishmoqlari, 1966)」와 수십 편의 소논문을 통해, 우즈베크인의 생활과 민속의 장르 시스템에서 수수께끼의 역할, 연구사, 분류, 주요 특징과 역사적 근거, 동화와 서사시의 예술적 기능, 역사적 의미 등을 연구했다.

민속학자 주바이다 후사이너바는 2002년 3월 26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주바이다 후사이노바
- 다국어 표기 Zubayda Husainova(우즈베크어), Зубайда Хусаинов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더스틴, 고로클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zayev To'ra, *Zubayda Husainova, Hodi Zarif suhbatlari*; Toshkent: SHAMS-ASA, 2013.
To'labojev Olim va bosh, *XX asr o'zbek folklorshunosligi, Antologiya*, Toshkent: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17.

I G065 | 죽으려고 눕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소설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Ölmeye Yatmak

『죽으려고 눕다(Ölmeye Yatmak)』는 아달레트 아아오을루의 대표작으로 1973년 발표된 소설이다. 발표 당시 매우 큰 화제가 되었던 이 소설에서 그녀는 입체적으로 튀르키예 공화국 내부의 여성의 지위와 튀르키예 민족주의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비판함으로써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작가는 ‘근대화’와 진보적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행된 여성에 관한 개혁이 과연 여성의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는다. 서구에 저항하고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 실현 차원에서 구체화된 ‘여성 혁명’이 과연 튀르키예 여성들에게 어떤 득과 실을 가져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신격화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대과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여성으로 행한 최초의 도전이었다.

아달레트 아아오을루는 튀르키예의 세속화와 서구화를 추진하는 진보적 남성 지식인들도 전통적 가부장제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그녀는 다원적,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하나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차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도시와 작은 시골이라는 공간의 이질성, 그리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여성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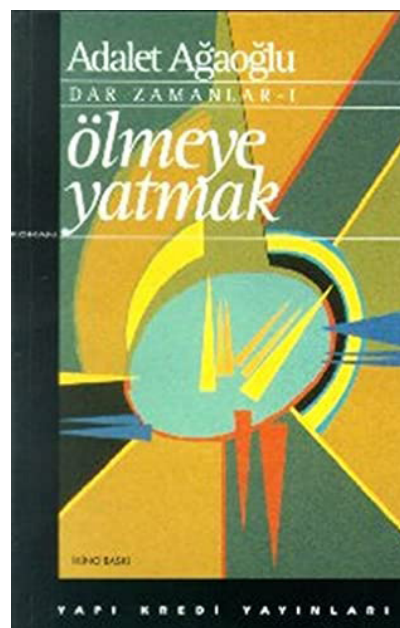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측면만을 보면, 공화국 출범 후 튀르키예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아달레트 아아오을루는 1973년 출판된 이 소설에서 공화국 출범 이후 튀르키예 지식인 여성의 분열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한다.

소설의 주제는 어느 대학의 부교수 지식인 여성의 위기와 분열이 사회적 증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룬다. 여주인공인 지식인 여성 아이셀(Aysel)이 유년기부터 부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 결혼, 제자와의 불륜, 자살 기도 등의 사건들이 그려진다. 한 여성의 개인사가 당시 사회의 이념과 제도 변화 속에서 펼쳐진다. 개인사를 둘러싼 사회상에 대한 비판은 아이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셀은 개인적, 사회적 삶의 붕괴에 대한 자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계획한다. 죽음을 시도하기 위해 침대에 누운 아이셀은 공화국 초기 유년 시절을 언제나 아타튀르크의 이념에 부합하는 튀르키예 여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자신을 회상한다.

아아오을루는 이러한 세속화와 민족담론 속에서 근대적 여성의 균열을 보게 된다. 『죽으려고 눕다』에서 아이셀은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젠더에 따른 성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아이셀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식인으로 성장하고 싶었으나,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미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젠더 역할이나 성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지식인 여성’상은 그녀에게 커다란 균열로 나타나게 된다.

아이셀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비로소 제도 교육의 허점과 공백을 깨닫는다. 아이셀의 내부에서 일었던 분열과 문제의식은 튀르키예가 근대적 교육과 더불어 여성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제도 개혁이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에 근본적인



『죽으려고 눕다(Ölmeye Yatmak)』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죽기 위해 늙다
- 다국어 표기 Ólmeye Yatma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달레트 아아오을루,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41qZFtv4tBS.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ğaoğlu Adalet, *Ólmeye Yatmak*, İstanbul:Yapı Kredi Yayınları, 1994.
Aytaç Gürsel, *Karşılaştırmalı Edebiyat Bilimi*, İstanbul: Say Yayınları, 2003.
오은경,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시대의 창, 2014.

I G066 | 죽은 자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희극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Ölülər

「죽은 자들(Ölülər)」은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적 문인 켈리르 멤매드굴루자대(Cəlil Məmmədquluzadə)가 1909년에 쓴 희곡이다. 이 작품은 코미디 장르이지만, 주제가 비극적인 사건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비평가들은 비극적 코미디로 분류한다.

작품의 줄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희곡의 주인공인 셰이크 내스룰라흐(Şeyx Nəsrullah)는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현혹한다. 광신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그는 매일 어린 여자들과 ‘시계(sığə)’라는 계약결혼 방식으로 혼인하고 몰래 성관계를 한다. 그는 많은 돈과 재산까지 얻는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야반도주한다. 이 희곡의 또 다른 주인공은 셰이크 내스룰라흐와 달리 고등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이스칸데르(İskəndər)이다. 그의 아내 해미대 자반쉬르(Həmidə Cavanşir)는 “셰이크 내스룰라흐가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이런 사건이 예레반(İrəvan)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 희곡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나흐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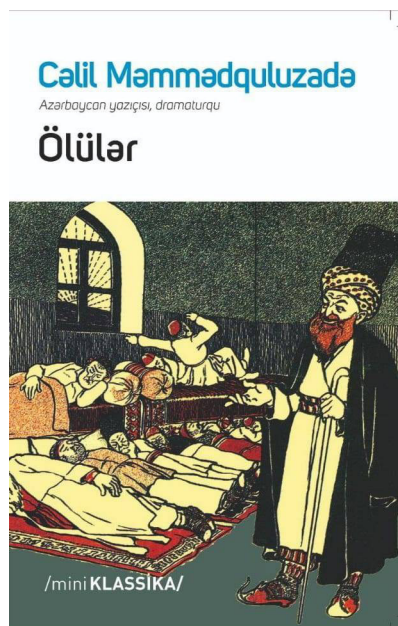
(Naxçıvan)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작품은 1913년 최초로 슈사(Şuşa)에서 공개됐다. 작품은 승인됐지만, 광신자들의 집결지인 슈사에서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작품은 1916년 4월 29일 바쿠(Bakı)의 타그예브 극장(H.Z.Tağıyev Teatrı)에서 최초로 공연됐다. 공연의 감독은 휘세인 애래블린스키(Hüseyn Ərəblinski)가 맡았다. 미르자가 엘리에브(Mirzağa Əliyev)가 이스칸대르 역을, 알리굴루 내재포브(Əliqulu Nəcəfov)가 셰이흐 내스룰라흐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뒀다. 바쿠에서 발행된 신문 <열린 단어(OPEN WORD, Açıq söz)>의 1916년 5월 1일 신문 기사는 이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타그예브 극장에서는 문학 축제가 열렸다. 몰라 내스렛딘(Mola Nəsrəddin)의 작품 「죽은 자들」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마다 1막이 끝나면 작가를 무대로 불러 박수 치면서 축하했다. 출판사, 문학, 학교, 무대의 종사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자를 불렀다. 저자가 무대에 올라오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관객들에게 소감을 묻자 “셰이흐 내스룰라흐가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사실일리 없다. 이 작품은 사람들의 무지나 미신을 자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술탄 매지드 개니자대(Sultan Məcid Qənzadə)는 「죽은 자들」의 저자인 켈리르 맘매드굴루 자대를 러시아 작가인 니콜라이 고골(Qoqol)에 비교한다. 휘세인 자비드(Hüseyn Cavid)는 “이 극은 솜씨 있게 저술됐으며 우리 삶 속에서 내용을 가져왔다. 또한 아이디어가 혁명적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무슬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차례 공연됐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저 세상에서 보내는 인사(O dünyadan salam, 1991)」와 「죽은 자들-21세기(Ölülər-XXI əsr, 2016)」 같은 영화들이 제작됐다.

이 작품에서는 셰이흐 내스룰라흐가 패배하고 이스칸대르가 승리하게 되지만 끝내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눈물 속의 웃음’이라고 할 만하다. 아제르바이잔 일각에서는 켈리르 맘매드굴루



「죽은 자들(Ölülər)」 표지

Source: <https://www.qanun.az/images/news/compressed/>

자대가 프랑스 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작품 『신성한 아누타의 기적(Müqəddəs Antuanın möcüzəsi)』의 영향을 받아 이 작품을 썼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윌뤼래르

● 다국어 표기 Ölüler(아제르바이잔어), Ölüler(튀르키예어), Өлгендер(카자흐어), -O'lganlar(우즈베크어), Мертвые(러시아어), The Dead(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qanun.az/images/news/compressed/2023-08-01-16-25-551690892755.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limirzəyev Xəlid, *Problemlər və xarakterlər dramaturgiyas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79.

Həbibbəyli İsa, *Cəlil Məmmədquluzadə: mühiti və müasirləri*, Naxçıvan: Əcəmi nəşriyyatı, 2009.

İrəfilov Hüseyn, *Ölülər*, Bakı: Az.SSR EA nəşriyyatı, 1966.

Məmmədquluzadə Cəlil,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Çarşioğlu nəşriyyatı, 2004.

I G067 | 죽음과 관련된 민속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Death

투르크 전통 신앙에서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 날아간다고 보았는데, 보통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설화나 전설, 민담 등에서는 영혼을 나비나 새에 비유했다. 투르크족은 죽음을 원래 있던 곳 혹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죽음을 ‘(그가) 돌아갔다’라는 의미의 ‘된뒤(döndü)’나 하늘 혹은 천신에게 ‘날아갔다’라는 의미로 ‘우츨 깃티(uçup gitti)’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또한 죽음을 ‘이승을 떠나다’, ‘(천국/저세상/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다’, ‘잠시) 초대받은 삶을 끝내다’, ‘새 삶을 시작하다’, ‘신의 곁으로 가다’, ‘잠을 자다’ 등으로 표현했다.

요즘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을 율뒤(öldü,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보통 하야타 괴즈레리니 움두(Hayata gözlerini yumdu, 눈을 감았다), 시즈레레 외뮌르(Sizlere

ömür, 남은 이들에게 안녕이 있길), 손 우이쿠수나 야트(Son uykusuna yattı, 마지막 잠이 들었다), 하야트느 카이벤티(Hayatını kaybetti, 삶을 잃었다), 웨파트 엠티(Vefat etti, 별세하셨다) 등으로 표현한다.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튀르크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암시하는 일련의 현상이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가구나 생활품이 갑자기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소리를 내는 것,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갑자기 길게 울거나 짖는 것, 부엉이가 지붕 위에 앉거나 집 근처에서 우는 것, 일식 혹은 월식,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것 등을 이러한 현상으로 여겼다. 또한 꿈에서 침대, 나체의 사람, 뱀, 집이 무너지는 것, 끓고 있는 솥이나 장작, 이빨이 빠지거나 깨지는 것, 신발이 뒤집혀 떨어지는 것, 신부맞이 일행이나 결혼식, 집에 찾아온 많은 방문객 등을 보면 곧 가까운 이나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자연현상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이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상장례와 관련된 행위나 의례 등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용품들을 보게 되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에는 비슷한 행동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술적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튀르크 문화권에서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며, 이를 막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하면 찾아올 죽음을 피하고 액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꺄 튀르크족(돌꺄족)은 초상이 나면 고인을 천막 안에 모시고 천막 주위를 말을 타고 7번 돌았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은 천막 입구에서 칼로 얼굴을 긁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러한 의식은 7번 행해졌다. 꺄 튀르크족에게 7은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신성한 숫자였으며, 고인을 모신 천막은 고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덤이자 하늘로의 승천을 돕는 장소를 의미했다. 꺄 튀르크족은 많은 눈물과 얼굴의 상처를 통해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인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했다. 꺄 튀르크족은 고인을 위해 말과 양을 잡아 천막 앞에 놓았으며, 머리는 돌탑 위에 매달아 두었다. 또한, 고인이 탄 말과 사용했던 물품들을 시신과 함께 화장하고, 그 재는 무덤에 묻었다. 옛 튀르크족은 저승에서도 이승의 삶과 같이 생활품이나 탈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초상이 나면 고인의 말을 함께 묻거나 화장했다. 말은 중요한 희생 제물이었고, 장례 음식으로도 사용했다.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튀르크족에게 말은 재물이었으며, 전쟁에서 쓰는 무기임과 동시에 평생을 함께하는 벗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동물이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유목 투르크족에게는 고인과 함께 말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투르크계 카자흐인 및 키르기스인들은 19세기까지 이 풍습을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매장은 고인이 죽은 때를 기준으로 보통 한두 계절 바뀌는 것을 기다려 행한다. 예를 들어 사망 시점이 봄이나 여름일 경우 가을에 매장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죽었다면 따뜻해지는 봄을 기다려 묻었다. 이는 매장 시 무덤 준비나 무덤 조성의 환경적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었다. 무덤은 위로 봉긋하게 솟은 구릉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무덤 벽에는 고인의 모습, 고인이 생전 참여했던 전쟁이나 싸움 등을 그려 넣기도 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지 3일,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변에 영혼의 평안을 위해 율뤼 아시으(ölü aşu, 고인을 위한 음식)를 만들어 나눠주었다. 이 전통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우즈 투르크족의 상장례도 꼭 투르크족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인을 모신 천막 주위를 말을 타고 달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또한 얼굴과 귀에 칼로 상처 내어 내면의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했으며, 머리카락은 풀어 헤치고, 옷은 뒤집어 입어 상중임을 알렸다.

옛 투르크족 상장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장례요의 일종인 아으트(ağıt)를 읊는 것이다. 투르크족의 장례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Kasgarlı Mahmut, 투르크 언어학자)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vânu Lugatî't-Türk)』에 기록된 알 페르 통가(Alp Er Tunga)의 서거를 애도하는 사구(Sagu, 옛 투르크어로 장례요를 지칭함)이다. 또한, 오르훈 비석(Orhun Abideleri)에도 곡을 하고 애도가를 부르는 전문인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율뤼 일레 일길리 켈레넥셀 튀르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ölüm ile ilgili geleneksel tür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영혼과 관련된 민속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n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ıcı yay, İstanbul 2001.

I G068 | 줄러 네메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yula Németh

줄러 네메스(Gyula Németh)는 1890년 11월 2일 헝가리 북부 도시 카르차그(Karczag)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그에게 라틴어, 그리스어 및 주요 유럽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 그는 14세에 튀르키예어(당시 오스만 투르크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여름방학 동안 오스만 제국을 방문하여 이스탄불, 아이든, 이스미르 등지를 여행하며 튀르키예어에 대한 지식을 쌓기도 했다.

그는 1909년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졸탄 고펜츠(Zoltán Gombócz), 베르나트 문카치(Bernát Munkácsi), 이그낙(Ignác Goldziher), 아르민 밤베리(Armin Vámbéry) 등 동양학자의 지도 아래 공부했다. 1910년 여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카르어와 쿠미크어를 공부했다.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에 그는 국가 장학금을 받아 독일의 라이프치히, 키엘 그리고 베를린에 머무르며 수학했으며, 학생이었지만 국제 중앙 및 동아시아 기구의 헝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추바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추바시 공화국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1914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1916년에는 1913년 이후 아르미니우스 밤베리(Árminius Vámbéry)의 죽음으로 공석이었던 부다페스트 대학교 동양어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1918년에는 튀르키예학과의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1922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 1932년 정회원이 되었다. 1930년에는 투르크 문헌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9세기 헝가리 정복 역사(Formation of the Hungarian Conquerors of the Hungarian Conquerors)』를 출판했다. 이 책은 현재까지 헝가리 고대 역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서적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헝가리 사람들의 민족 형성에서 투르크 부족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는 1931년 우고르-핀 연구소의 특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7년에는 코르빈상(Corvin Wreath, 헝가리의 국가 교육과 문화, 과학, 예술 등 학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학자들에게 주는 상)을 수상했다. 1938년에는 에스토니아 학자 연구소의 명예회원, 1939년에는 국립 과학 기관 및 연구소 연합의 부회장, 같은 해 헝가리 지역 사회과학연구소의 이사가 되었다. 1949년에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언어문학분과장과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47년에서 1949년까지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학장과 총장을 두 번 지냈으며, 1950년에는 부다페스트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54년에는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 1955년에는 베를린 독일 과학 아카데미 특파원 회원, 1957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주로 고대 헝가리 역사, 헝가리와 투르크의 관계 연구였다. 또한 오스만-투르크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연구했으며, 튀르키예어 내의 페르시아어-아랍어 사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페르시아인과 투르크인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페르시아어가 투르크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페르시아어적인 요소가 오구즈 투르크어(남부 투르크계 그룹)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튀르키예어의 아랍어 차용어의 대부분은 페르시아어를 통해 튀르키예어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페르시아어-아랍어 요소는 오스만 문학 관용구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르크인들의 생활이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바뀐 것은 투르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6년 12월 14일 헝가리 카르차그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줄라 네메스
- 다국어 표기 Gyula Németh(헝가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nemeth-gyula-julius>,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nemeth-gyula>
- 참고문헌(오프라인) Nuri Yüce, "Gyula Németh", TDED, XXII. 1977. s. 309-313.

I G069 | 줄리오 몬게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iulio Mongeri

줄리오 몬게리(Giulio Mongeri)는 이탈리아 이주민 가문 출신의 오스만 제국-튀르키예 국민으로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가 중 하나이다. 1873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의 부모는 밀라노 출신으로 1848년 제1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을 피해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밀라노에서도 이름있는 가문이었다. 이스탄불 이주 후 그의 아버지 루이기 몬게리(Luigi Mongeri, 1818년~1882년)는 의사였다.

줄리오 몬게리는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밀라노로 가서 그의 삼촌 곁에서 자란다. 밀라노에 살던 그의 삼촌들은 예술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브레라 아카데미(Brera Academy)에 진학하고 1892년 건축 전문대에 입학하여 카밀리오 보이토(Camillo Boito, 1836년~1914년)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튀르키예로 돌아온 이후에도 보이토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자신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는 수학 중 여러 번 프로젝트 경연에서 수상했다. 또한 사진 예술에도 관심을 가졌다.

줄리오 몬게리는 1897년 졸업 후 오스만 제국으로 귀국한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그는 처음에는 프리랜서 건축가로 활동했는데, 이스탄불 내 이탈리아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건물을 주로 설계했다. 그가 설계한 최초의 작품은 에드아르도 드 나리(Eduardo de Nari)와 공동 설계한 성 안토니오 교회(Sant'Antonio Kilisesi, Beyoğlu İstiklal Caddesi, İstanbul, 1906년~1912년)와 아파트이다. 1907년 이탈리아 대사관 설계자로 지명된 그는 동시에 이스탄불의 미술학교 사나이 네피세 멕테비(Sanayi-i Nefise Mektebi)에서도 일했다. 학교에서는 미래의 튀르키예 공화국 건축 제1세대를 양성했다. 1908년 이후, 몬게리도 오스만 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제1차 민족 건축 양식(I. Ulusal Mimarlık Akımı)의 영향을 받았다.

1911년~1912년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몬게리는 한동안 학교를 쉬고 이탈리아로 갔다. 전쟁 이후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 교사직과 건축 설계를 계속 수행했다.



타심 공화국 광장의 독립 기념탑

그가 받은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의 영향은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후 건설한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새로운 수도 앙카라에서 건설한 첫 작품인 지라아트 은행 본사 건물(Ziraat Bankası Genel Müdürlük Binası, Ulus, Ankara. 1929년)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들을 설계했다.

몬게리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베네치아에서 살던 딸의 곁으로 갔다. 여전히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오기도 했으나, 짧은 시간 머물기만 했다. 제1차 민족 건축 양식의 선두 주자였으며, 공화국 건축 1세대를 양성한 몬게리는 1953년 베니치아에서 생을 마감했다.

줄리오 몬게리의 대표작



지라아트 은행 본사 건물

- 오스만르 은행 건물(Osmanlı Bankası Binası, Ulus, Ankara, 1926)
- 탁심 공화국 광장 기념탑(Taksim Cumhuriyet Anıtı'nın kaidesi, Taksim Meydanı, İstanbul, 1928)
- 지라아트 은행 본사 건물(Ziraat Bankası Genel Müdürlük Binası, Ulus, Ankara. 1929)
- 튀르키예 이시 은행 본사 건물(Türkiye İş Bankası Genel Müdürlük Binası, Ulus, Ankara. 1929)
- 첼리크 팔라스(Çelik Palas, Bursa, 1932)
- 이탈리아 대사관(지금의 마츠카 아키프 툰첼 기술 전문 고등학교, İtalyan Elçiliği Binası, Maçka Akif Tunçel Teknik ve Endüstri, İstanbul)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줄리오 몬게리, 기울리오 몬게리
- 다국어 표기 Giulio Mongeri(튀르키예어), Giulio Mongeri(이탈리아어)
- 연관 검색어 사나이이 네피세 맥테비, 제1민족 건축 양식
- 참고문헌(오프라인) Çinici, Damla. “Başkent Ankara’nın İnşasında Etkin Bir Mimar: Giulio Mongeri ve Yaşam Öyküsü”, *Ankara Araştırmaları Dergisi*. 2015; 3(1): 13~41..
- Alferi, Bianca Maria. “D’Aronco and Mongeri: Two Italian Architects in Turkey.” In *Environmental Design: Journal of the Islamic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Centre*, 142~153. Rome: Carucci Editore, 1990.

I G070 | 줄피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Zulfiya



줄피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우즈베크 현대 서정시인 줄피야(Zulfiya)는 1915년 3월 1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언어문학 과학연구소의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 국영 출판사,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신문사 및 잡지 편집부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우즈베크 문학가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과 결혼했으며, 시인으로서의 성장에 하미트 올림전의 영향이 컸다.

줄피야는 194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봄이 왔다, 너를 물어보러(Bahor keldi seni so'roqlab)」, 「이별의 날들(Hijron kunlarida)」, 「내 눈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니(Ko'rganmiding ko'zlarimda yosh)」, 「심장이 어디 있니(Sen qaydasan, yuragim)」,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겪게 했니(Ne baloga etding mubtalo)」 등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에 대한 시를 썼다. 그녀는 이들 시를 통해 남편을 잃은 슬픔,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또한 줄피야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삶, 자유, 노동, 애국심을 노래했다.

그의 대표작은 『인생의 페이지(Hayot varaqlari, 1932)』, 『소녀들의 노래(Qizlar qo'shig'i)』,

『홀가르(Hulkar, 1947)』, 『나는 새벽을 노래한다(Men tongni kuylayman, 1950)』, 『친구들과의 대화(Dugonalar bilan suhbat, 1953)』, 『서정시(Lirika)』,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Yuragimga yaqin kishilar, 1958)』, 『꽃(Gullarim)』, 『작품 선집(Tanlangan asarlar, 1959)』, 『시(She'rlar, 1963)』, 『마음은 항상 출동 중(Yurak hamma vaqt yo'lda, 1966)』, 『폭포(Shalola, 1976)』, 『세월들, 세월들(Yillar, yillar, 1978)』, 『서사시(Dostonlar, 1975)』, 『무지개(Kamalak)』 등이다. 이들 작품은 가족과 윤리, 의무, 도덕, 젊음과 기쁨, 양심과 믿음, 사랑을 주제로 쓴 깊이 있는 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줄피야는 이러한 문학적 공헌을 인정받아 소련으로부터 레닌 훈장 2개, 노동 적기 훈장(Mehnat Qizil Bayroq) 3개를 받았다. 또 국가 간의 우정과 명예의 훈장도 받았다. 1985년에는 노동 영웅(Mehnat Qahramoni) 칭호를 받았다. 그녀는 또 1965년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 칭호를 받았고, 1977년에는 함자(Hamza)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1996년 8월 1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줄피야

● 다국어 표기 Zulfiya(우즈베크어), Зулф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하미트 열림전, 함자,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1/1c/Zulfiyaxonim.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sheriyati/ozbek-zamonaviy-sheriyati/zulfiya/>

● 참고문헌(오프라인) Kattabekov A. va boshqalar, *O'zbek sovet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90.

Mamjonov S., *Zulfiya*, Toshkent: O'zbekiston, 1985.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I G071 | 중앙유라시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북아시아, 남아시아 ● 나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대륙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Central Eurasia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라는 용어는 1960년대 헝가리계 알타이학 연구자 데니스 사이노어(Denis Sinor)가 처음 사용했고,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중앙유라시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내륙아시아(Inner Asia) 또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가 전체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중앙유라시아는 동서로는 동유럽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고, 남북으로는 북극해에서 카프카스산맥, 힌두쿠시산맥, 파미르고원, 쿤룬산맥, 황하에 이르는 광대한 지리적 공간을 가리킨다.

‘중앙유라시아’라는 명칭과 함께 ‘투르키스탄(투르크인들의 땅)’이라는 지역 명칭도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과정(그레이트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중앙유라시아가 투르크화한 결과 투르키스탄이 성립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주장한다.

중앙유라시아의 지명들, 대표적으로 투르키스탄, 서역, 신장, 카슈가르,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은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지은 명칭이며, 이들마저도 각기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다.



NASA 위성 사진으로 본 유라시아 지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내륙아시아, 유라시아
- 다국어 표기 Борбордук Евразия(키르기스어), Орталық Еуразия(카자흐어), Төв Еврази(몽골어), Markaziy Evroosiyo(우즈베크어), Orta Avrasya(튀르키예어), 欧亚大陆中部(중국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사마르칸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고마츠 히사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I G072 | 중앙유라시아의 언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anguages of Central Eurasia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륙의 거주민들의 다양한 언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중앙유라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크게 알타이계 언어들, 한어-티베트계 언어들, 인도-유럽계 언어들로 나뉜다.

알타이계 언어들은 투르크계 언어들과 몽골계 언어들로 나눌 수 있고, 투르크계 언어들은 불가리아어군(추바시어(러시아 연방공화국)) 및 지역에 따라 남부어군(투르크메니스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사용되는 투르크멘어), 서부어군(원래 크림반도에서 쓰였지만, 1944년에 행해진 크림-타타르인의 강제 이주 후 현재는 중앙아시아 여러 도시에서도 쓰이게 된 크림 타타르어, 러시아 연방의 타타르 공화국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는 타타르어, 러시아 연방의 바시키르 공화국의 바시키르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의 카라칼파크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키르기스어), 동부어군(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사용되는 우즈베크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사용되는 위구르어), 북부어군(러시아 연방의 서시베리아 남부에서 사용되는 알타이어, 쇼르어 투바어)으로 나뉜다. 몽골계 언어들은 몽골국, 중국 내몽골 자치구, 러시아 부랴트 연방 공화국의 동부 몽골어와 몽골국 서부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부 지역, 러시아 연방의 칼미크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서부 몽골어로 구분된다.

한어-티베트계 언어들은 티베트자치구와 중국 서남부 각 성에서 사용되는 티베트-버마어파의 티베트어가 있으며, 인도-유럽계 언어들은

지역에 따라 이란어파 서부 그룹의 타지크어(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주변 지역)와 이란어파 동부 그룹의 파미르계 언어들(타지키스탄 동부)로 분류된다.

19세기 이후 중앙유라시아로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이들 언어와 함께 러시아어와 중국어도 널리 통용된다.

중앙유라시아에서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언어의 교체, 문자의 교체, 각 언어 간 상호 침투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란계 언어(페르시아어)를 사용하던 중앙아시아 정주민은 대부분 10세기를 기점으로 투르크어를 받아들였다. 이런 투르크화는 20세기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투르크어 전파 과정에서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특히 티무르 조에 완성된 투르크문어인 차가타이 투르크어는 수많은 페르시아어 단어와 문법까지 차용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중앙 유라시아 언어들
- 다국어 표기 Orta Avrasya Dilleri(튀르키예어), Төв Евразийн хэлүүд(몽골어), Орталық Еуразия тілдері(카자흐어), Борбордук Евразия тилдери(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어, 바시키르어, 우즈베크어, 티무르, 쇼르어, 투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고마츠 히사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I G073 | 첩베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übbe

일반적으로 법복, 예복, 가운 등으로 번역되는 첩베(cübbe)는 튀르키예어로, 아랍어 주베(الجبّة)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 jupa, 이탈리아어 giuppa, 프랑스어 jupe 등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첩베는 일반적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좌우 양면이 만나 앞을 덮는 형태이

다. 소매는 넓고 크지만,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좁게 만들기도 한다. 옷의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조금 짧고 칼라를 좁고, 직각이다. 천은 비단, 양모, 면, 비단과 면의 혼합 소재 등이 이용되었다.

이 의복은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스타일로 보인다. 하디스 등에 무함마드가 칩베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무함마드가 칩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어떤 종교적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칩베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상과 기도 시 유용하게 여긴다. 튀르키예 등지에서는 예복으로 주로 사용하고, 오스만 시대에는 이슬람 학자, 종교인의 복장이었다.

이와 유사한 의복은 중앙아시아 투르크인에게도 있으나 대체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할랏(khalat)으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칩베의 흔적으로는 압바스 칼리프가 셀주크 술탄 투으룰 베이(Tuğrul Bey, 재위: 1038년~1063년)에게 검은색 칩베를 입혀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맘루크 조에서 술탄, 아미르, 군인들이 윗옷으로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오스만 조에서는 학자 계층이 많이 입었는데, 흰색 터번과 함께 종교인과 학자임을 표시하는 의상이기도 했다.

현대에는 재판정에서 법률가들이 착용하거나, 대학교 교수·강사가 예복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이맘, 하팁(hatip, 금요일예배나 명절 예배 전 설교하는 성직자), 와이즈(vaiz, 예배장에서 설교하는 성직자)와 같은 종교인들이 착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쥬베, 쥐베

● 다국어 표기 cübb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ürkoğlu, Sabahddin. Cengiz kalle, "Cübb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102~103.

Koçu, R. Ekrem. *Türk Giyim Kuşam ve Süslenme Sözlüğü*, Ankara, 1967.

I G074 | 즈라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zhiraw

대개 15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옛날 카자흐 음유 시인 및 구전시를 즈라우(또는 쥐르)라고 한다. 동시에 즈라우는 음송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만든 사람도 포함한다. 즈라우는 카자흐인들의 전통 사회에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삼는데, 서정적인 모습과 교훈적인 요소가 있다. 마땅한 교육 수단이 없던 시절 즈라우가 음송하는 내용은 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다.

칸국의 시기에는 즈라우가 이념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했다. 카자흐 칸국의 지도자들은 즈라우를 통해 통치 이념을 확대하고 전승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또한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과시하며 구성원들의 복종을 요구하기도 했다. 즈라우가 언급한 내용은 당시 호족과 재판관에 해당하는 ‘베이’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쳤고 전체 부족 사회에도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즈라우는 칸의 조력자 역할도 했다는 것이다. 카자흐 칸국의 초기 즈라우들로는 아산 카이그(Asan Kaigy)와 카즈투간(Kaztugan-zhiraw)이 있는데, 이들은 15세기 인물들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즈라우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이전 시대와 거의 동일했다. 17세기~18세기 동쪽의 중가르인들의 침입을 받아 카자흐인들이 대재앙의 시련에 빠졌을 때에도 즈라우는 살아남아 카자흐인 사회에서 그 역할을 계속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 지배하에서도 즈라우의 전통은 이어졌는데, 이때부터는 ‘아큰(akyn)’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아큰’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사용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쥐라우
- 다국어 표기 жырай(카자흐어), жыра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Ekx3KUI4b8>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ticlekz.com/article/23916>

I G075 | 지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Zhyr

지르(Zhyr)는 몇몇 투르크 민족이 부르는 낭독 방식의 남성 노래를 일컫는다. 고대 투르크어에서 '이르(Иыр, жыр)'는 '시'를 의미했다. 여기에서 유래해 오늘날 카라칼파크어, 키르기스어, 노가이어, 카라차예프어, 발카르스크어, 바시키르어, 타타르어에서 '노래'를 '지르'라고 한다. 이외에도 지르는 7음절, 8음절 율격을 지니는 카자흐스탄의 민속시 형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주로 영웅 서사시나 역사가(歷史歌), 애가(Жоктау, 哀歌), 교훈가(Толгау, 教訓歌), 서정시 장르에 사용된다. 아바이, 토라이기로프 등 카자흐 문학의 창시자들이 자신들의 창작 작품에 지르를 자주 사용했다. 음절의 수를 정하는 것은 지르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더 옛 시기의 지르에서는 음절의 수가 혼합되어 있었고, 이런 율격은 현대 카자흐 애가나 노가이 이이르, 바시키르 코바이-이이르 등에 남아 있는데, 각 행에 7개~15개의 음절이 있기도 한다.

지르에서는 짝을 이루는 행을 티라다(тирада, 길게 소리를 끄는 창법)로 낭독한다. 역사적으로 티라다는 행진가보다 먼저 생겨났다. 따라서 지르는 다른 시 율격들 이전에 발생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티라다를 이루는 시행(詩行)과 각운(脚韻)은 점차 변화해서 완성된다. 티라다에서 시행과 각운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시의 구조와 일치한다. 지르에서 각운은 단운(單韻, дара уйкас)과 복운(複韻, аралас уйкас)으로 나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즈르, 씨르
- 다국어 표기 Жы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바시키르어, 키르기스어, 카라칼파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5. — Т. II. 364~365.

I G076 | 지르 이야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Zhir iyase, Yer iyesi

지르 이야세는 타타르 미샤리 신화에 나오는 정령으로 대지의 수호신이다. '지르'는 타타르어로 '대지', '땅'을 의미하고 '이야세'는 '주인'을 뜻한다. 따라서 지르 이야세는 '땅의 주인'이란 의미이다. 많은 투르크 민족과 몽골의 신화에는 동일한 수호신이 존재한다. 타타르어로는 'Cir İyäse', 추바시어로는 'Сәр Ийә', 사하어로는 'Сир Иччи'이다.

지르 이야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 지르 이야세는 아버지 대지나 어머니 대지와 관련된 정령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머니 대지는 예르-아나(Yer Ana), 아버지 대지는 예르-아타(Yer Ata)라고 부른다. 어머니 대지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세계 창조 때 생겨났다. 지르 이야세는 인간에게 병을 옮기기도 한다. 그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 매년 봄 파종 이후 희생제를 올린다. 지르 이야세와 비슷한 존재로 카잔 타타르의 바수 아나시(басу анасы), 추바시의 이라시 아메세(ираш амэшә)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르 이야세
- 다국어 표기 Жир иясе(러시아어), Yer İyesi(튀르키예어), Yer iy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이리흐, 추바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273~274.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449.

I G077 | 지명 설화(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설화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Geographical legends

지명 설화는 아제르바이잔 설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설화 중 하나이다. 이 설화는 산, 바위, 강, 호수 등과 같은 장소와 고대 정착지의 형성 및 그 명칭을 설명하는 구전 설화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지명 설화는 특히 산악 지방에 풍부하다. 지명 설화는 종종 특정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면에서 전설(rəvayət)과 유사하다. 토부즈(Tovuz)에 위치한 초반산(Çoban dağı), 바쿠(Bakı)에 있는 ‘처녀탑(Qız qalası)’, 라촌(Laçın)의 ‘제이란 블라그(Ceyran bulağı)’ 같은 장소와 마을에 대한 설화가 대표적인 지명 설화이다.

장소, 마을, 정착지의 이름을 설명하는 지명 설화에는 해당 장소의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및 사건들이 담긴다. 예를 들어, 슈시(Şuş)와 라촌(Laçın)시 사이에 위치한 신부 바위(꺄린 가야, Gəlin qaya)의 명칭은 신부가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는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지명 설화의 일부에는 신성한 인물들에 관한 것도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지역에는 해즈랏 엘리(Həzrət Əli)라는 이름과 관련된 장소들이 있다. 해즈랏 엘리는 이슬람의 4대 칼리프 중 하나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ī ibn Abī Tālib, 601년~661년)의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로 해즈랏 엘리의 손, 발, 말, 칼의 자국이 남아 있는(남아 있다고 믿는) 곳을 사람들은 신성한 장소로 여겼고, 오늘날에는 소원성취를 위한 장소로 여기기도 한다.

일부 지명 설화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들에서는 연인이 이별하는 이유가 계급 차이나 소속 집단의 차이, 종교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부모가 이별을 종용하자 젊은 연인이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이별 설화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일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잔길란 시(Zəngilan rayonu)의 ‘칸 버즘나무 숲(Xan çinar meşəsi)’ 및 ‘배싯 강(Bəsit çayı)’은 지주의 딸과 목동 사이의 이별에, 아그타마르 호수(Axtamar gölü)는 무슬림 소년과 아르메니아 기독교 소녀의 사랑 이야기에 각각 바탕을 두고 있다.

지명 설화 연구는 지리적 장소의 원래 이름과 의미를 잊고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에서 발생한다. 민간 어원의 좋은 예라고 여겨지는 이 설화는 지명에 대한 학술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지명은 종종 표기의 유사성과 표음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설명된다. 그 예로는 아그담 시(Ağdam rayonu)의 ‘고기를 안 먹는 시골(Ətyeməzli kəndi)’이라는 의미인 ‘옛예매즐리 캔디’란 지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앳예매즐리(Atyeməzli, ‘말(馬)을 안 먹는 시골’이라는 뜻)로 설명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이웃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말고기를 먹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말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표기의 유사성에 기초한 이러한 설화를 지명 설화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지명 설화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지리적 위치에 대한 사고방식과 사람들의 도덕관을 반영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오그래펠 레전드
- 다국어 표기 Coğrafi əfsanə(아제르바이잔어), Geographical legends(영어), coğrafi əfsanelər(튀르키예어), легенды географи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pp.340~356.

I G078 | 지야 오스만 사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ZIYA OSMAN SABA

지야 오스만 사바(Ziya Osman Saba)는 튀르키예의 근현대 작가로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1910년 3월 30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아이셰 테브히데(Ayşe Tevhide)는 이스탄불 토박이로 베식타쉬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바르바로스 하이레틴 파샤 묘지로 이어지는 하이렛딘 선착장 해안가에 위치한 연안 저택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오스만 베이(Osman bey)는 파리 주재 무관을 지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 결혼한 것은 크림반도에서 부르사로 이주

했다가 학업을 위해 이스탄불로 거주지를 옮긴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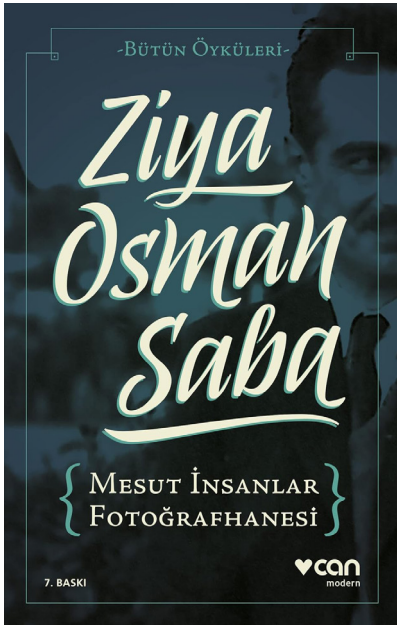
지야 오스만 사바는 여덟 살에 스페인독감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그후 급격한 감정변화를 겪게 된다.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 이모와 외삼촌의 보살핌 속에 유치원을 다녔다. 이후 기숙학교인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때 시(詩)를 접하게 된다.

그는 동창생 야샤르 나비 나이으르(Yaşar Nabi Nayır)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으로 그는 문예지 <세르베티 뤼눈>과 연을 맺으면서 시를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튀르키예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인 제브데트 쿠드레트(Cevdet Kudret), 케난 홀루시(Kenan Hulusi), 와스피 마히르(Vasfi Mahir)와 친분을 쌓게 된다.

지야 오스만 사바는 1928년 고등학교 동창생 6명(야샤르 나비; Yaşar Nabi, 사브리 에사트; Sabri Esat, 제브데트 쿠드레트; Cevdet Kudret, 와스피 마히르; Vasfi Mahir, 무암메르 뤼트피; Muammer Lütfi, 케난 홀루시; Kenan Hulusi)와 함께 『7인의 횃불(Yedi Meşale)』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가 된다. 그는 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유수프 지야(Yusuf Ziya)의 지원으로 발행된 문예지 <7인의 횃불(Yedi Meşale)>의 창간멤버가 된다. 지야 오스만 파샤는 ‘7인의 횃불파’가 고수하고자 했던 시적 세계관을 끝까지 고수했던 유일한 시인이다.

1929년에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의 삼촌이 주재원으로 파리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는 사촌 여동생 네르민(Nermin)과 함께 삼촌을 따라 파리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네르민에게 예전부터 좋은 감정이 느끼고 있던 사바는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데, 당시 그는 이스탄불 법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법대에 다니면서 그는 일간지 <공화국(Cumhuriyet)> 회계부에서 근무했다. 1936년 이스탄불 법대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에 낙방하자 그는 곧바로 부동산은행(Emlâk Bankası)에 입사했다. 12년 지속된 결혼생활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고, 그를 염세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는 결국 1943년 부인과 이혼하고 만다.

같은 해에 그는 『사빌과 비둘기(Sebil ve Güvercinler)』를 발간했다. 1년 후인 1944년 그는 은행에서 만난 동료 레잔(Rezzan Hanım)과 재혼했고, 그의 삶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은행에서 일하던 그는 앙카라로 발령이 나면서 잠깐 앙카라에 머물렀지만, 이스탄불에 대한 향수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앙카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그는 다행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이스탄불에서 교육부 출판교



『행복을 간직한 사람들의 사진관(Mesut İnsanlar Fotoğrafhanesi)』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정국(Maarif Basımevi Tashih Bürosu)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지야 오스만 사바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때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레니에 앙리 드(H. de Régnier), 말라르메(Mallarmé), 랭보(Rimbaud), 보들레르(Baudelaire), 쉬페르비엘(Supervielle)과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첫 시집 『사빌과 비둘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집 『지난 시간(Geçen Zaman)』을 1947년 출판했고, 1952년에는 단편소설집 『행복을 간직한 사람들의 사진관(Mesut İnsanlar Fotoğrafhanesi)』을 펴냈다. 1949년에는 공쿠르 형제의 소설 『제르미니 라세르퇴(Germinie Lacerteux)』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그는 잡지에는 실렸지만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시들을 모아 1957년 『숨을 쉬다(Nefes

Almak)』를, 1959년에는 『변화하는 이스탄불(Değişen İstanbul)』을 각각 발간했다.

그는 1950년 심장마비 증세를 겪으면서 교육부를 그만둬야 했는데, 이후에는 <와르륵(Varlık)> 출판사에서 편집 업무를 맡았다.

결국 그는 1957년 1월 29일 두 번째 심장마비가 일어나 이스탄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에이위프 술탄에 있는 가족 장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존속했던 묘지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실돼 안타깝게도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야 오스만
- 다국어 표기 ZIYA OSMAN SAB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C7tRq+HaL._SL1500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bal Oktay, *Şair Dostlarını*, Elif Yayınları, İstanbul, 1964.
Kemal Yaşar, “Ziya Osman Sabalçın”, *Varlık*, Sayı: 448, Şubat, 1957.

Kırcı Musatfa, *Hüzünlü Anlar Fotoğrafçısı Ziya Osman Saba*, Kibatevi Yayınları, İstanbul, 2010.

Tarancı Cahit Sıtkı, *Ziya'ya Mektuplar*,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1957.

Ziya Saba Osman, *Mesut İnsanlar Fotoğrafhanesi*,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1952.

I G079 I 지야라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Ziyara

지야라(Ziyara) 또는 지야라트(Ziyarat)는 ‘방문하다’란 의미의 아랍어 ‘지야르(زیر)’에서 기원한 단어로 성지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무덤, 영묘 등을 순례 또는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함마드는 초기에는 무덤 방문을 금지했다. 그것은 이슬람 이전 시대의 관습에 따라 뺨을 때리거나 옷깃을 찢고 한탄하는 형식의 애도가 이슬람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이 내세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후에 방문을 허용했다.

무함마드 사후에 무함마드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대다수 수니파 법학자들은 순례 후 예언자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했다. 시아파에서도 무함마드와 이맘들의 무덤을 방문하면 신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투르크계 문화권에서도 지야라는 일반적으로 성자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의 경우 수피 수도승들은 각 종단의 성인들이나 동료들의 무덤을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메카와의 거리가 멀어서 특정한 방문지(무덤, 영묘)가 메카 순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민중의 믿음이 있다. 부하라의 낙쉬반드(Naqshband, 1318년~1389년), 메르브의 아부 유수프 하마다니(Abu Yusuf Hamadani, 1062년~1141년), 탁트이 술라이만(Takht-i Sulayman)의 영묘 등 여러 유명 영묘에는 메카 순례를 대체하는 방문이 이어진다.

무덤이나 영묘의 관리자들은 해당 무덤 주인의 자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방문자들에게 방문지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에 대해 안내하기도 하고 방문자가 기부한 물품이나 돈을 관리하



지아라 장면

기도 한다.

투르크계 문화권에서 영묘 방문자는 상당수가 여성이다. 영묘 방문을 통해 임신이나 결혼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신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 등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방문한다. 동시에 방문지에서 일부 민간신앙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묘 방문은 정통 이슬람주의자에게 비난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케말리즘,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구 소련의 공산주의로 인하여 이런 방문에 대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위축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래된 전통이 새로운 토대 위에서 구현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야렛, 지아레트
- 다국어 표기 Ziyare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피르와 지야렛가흐, 영묘
- 참고문헌(오프라인) ZARCONE, Tn. “ZIYARA-6. The Turkish lands, including the Balkans and Central Asia”,

Encyclopedia of Islam Vol. XI (ed; P. 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chs),
Leiden; Brill, 2002, pp.534~535.

Kademir, M.Yaşar. “Ziyaret”,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4*, İstanbul: TDV, 2013, pp.496~498.

I G080 | 지이아 괴칼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사상가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Ziya Gökalp

20세기 초 튀르키예의 사상가 지이아 괴칼프(Ziya Gökalp)는 디야르바크르에서 1875년 혹은 1876년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메흐메드 지이아였다. 그의 아버지는 신오스만인들의 애국주의와 입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신학문과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신식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세상을 떠났다.

지이아 괴칼프는 그 후 삼촌으로부터 아랍어, 페르시아어, 전통 무슬림 학문을 배웠고 무슬림 신학자, 철학자, 신비주의자들의 저작들을 접했다. 이슬람 정통 학문, 신비주의, 신식 학문의 영향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그가 이스탄불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삼촌이 막으려 하자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그의 삶은 위의 세 가지 충돌하는 영향들 사이의 갈등을 지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이었다.

지이아 괴칼프는 이스탄불에서 수의(獸醫) 학교를 다녔고 연합진보당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그는 1897년 체포되었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디야르바크르로 유배되었다. 1908년의 혁명 이후 그는 자유주의적 오스만주의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디야르바크르에서 활동했고 연합진보당의 디야르바크르 지부를 설립했다(1908년 10월 22일). 1909년 살로니카에서 열린 연합진보당의 총회에 지역 대표로 참여했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거기에 남게 되었는데, 그는 이상주의적 인민주의적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했다. 그는 잡지 <젊은 펜들과 새로운 철학자(Genç Kalemler Yeni Felsefe Mecmuası)>에 기고하는 젊은 작가들의 집단에 참여했고, 언어와 문학의 민주화와 당시 청년 투르크 혁명에 부응하는 사회적 변혁의 원리가 될 이념을 개발하



지이아 괴칼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는 데 힘썼다. 당시 괴칼프는 이상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작가들의 리더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 그는 이스탄불에 살았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카잔, 크림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망명해 온 지식인들과 교류하여 범투르크주의적인 색채를 띠기도 했으나 주로 오스만 제국 범위 내에서의 투르크 민족주의 사상가로 입지를 굳혔다. 그는 제국을 해체하려 하는 비투르크 종족들의 도전에 대응하여 투르크인들이 민족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문명과 문화의 개념을 구분했는데, 문화를 '같은 문명 속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민족들을 구별해주는 가치들과 제도들'이라고 정의했다. 투르크 민족은 동양 문명권에서 서양 문명으로 넘어가는 가교가 될 것이고, 그런 변형 가운데 투르크 문화에 깊이 각인된 이슬람 요소들은 생명

력 있는 영성으로 남을 것이며, 근대 문명을 고유의 문화와 신앙에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서구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스탄불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서 강의와 기고문에서 이런 사상을 설파했고, 그의 관점이 교육, 언어, 가족, 법, 경제, 종교 등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1차 세계 대전 후 괴칼프는 영국군에 의해 말타섬으로 유배되었고 1921년 풀려난 후에는 무스타파 케말의 민족주의운동에 동참했으며, 1924년 사망할 당시 튀르키예 대국민의회(Büyük Millet Meclisi)의 의원이었다. 그는 대단한 명성을 누렸으나 그의 사상은 사후에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세속주의 국민국가로 건립되는 데 있어서 지이아 괴칼프의 사상에 진 빛은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한 때 청년 투르크운동 안에서 자유주의적 노선을 취하여 그와는 대립각을 세웠던 시리아인 사티 알 후스리(Sati' al-Husri)가 1919년 튀르키예를 떠나 아랍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했을 때 괴칼프의 민족주의 이론, 사회철학, 세속주의, 국민교육 등의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야 괴칼프, 지야 괴칼프
- 다국어 표기 Ziya Gökalp(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연합진보당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0/Ziya_G%C3%B6kalp-1.jpg/330px-Ziya_G%C3%B6kalp-1.jpg
- 참고문헌(온라인) Niyazi Berkes, “Gökalp, Ziy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online edition).
- 참고문헌(오프라인) M. Orhan Okay, “Gökalp, Ziy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4, 1996, pp.124~128.

I G081 | 지이아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Ziya Paşa

지이아 파샤(Ziya Paşa)는 오스만 제국의 시인, 저술가, 탄지마트 시대의 관료였다. 19세기 중엽 신오스만인 운동의 주요 인물로, 오스만 제국 정부의 부패와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다. 유럽에 망명하여 여러 신문을 발행했고, 그와 사상이 맞는 망명객들을 주변에 거느렸다. 비록 그는 근대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으나 술탄의 궁정문화에도 익숙했고 문화적 전통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에르주룸 출신의 세관 관료를 아버지로 이스탄불 칸달리에서 태어났으며, 1846년에 문학학교(Mekteb-iEdebiye)를 졸업했다. 같은 해 그는 탄지마트 개혁 초기의 주도자였던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의 추천으로 관직을 얻었다. 1862년 대재상 푸아드 파샤가 그를 궁정의 마베인(Mabeyn-i Hümayun)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키프로스, 자닉, 아마시아 등의 지역 관직으로 내보냈다. 그는 여러 차례 법령 규정 최고위원회(Meclis-iVala-yı Ahkam-i Adliye)의 위원으로 봉직했다. 아마시아 산작의 무타사리프(중앙정부 직할 산작의 수장)로 봉직하던 중 그는 파리에 머물고 있던 이집트 왕자 무스타파 파줄 파샤의 초청으로 파리로 건너갔다.

지이아 파샤는 파리에서 나뭇 케말 등 지식인들과 함께 신오스만인 운동을 시작하여 파리에

서 <무흐비르(Muhbir, 전령, 1867)>, 런던에서 <휘리에트(Hürriyet, 자유, 1868)> 같은 신문들을 발행했다. 비록 관료로서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무스타파 파즐 파샤는 1867년 귀국했지만 이 신문들의 발행을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했고, 반정부적 색채를 희석시키라는 요구를 했다. 무스타파 파즐 파샤는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재정 지원을 끊었고, 그 가운데 나뭇 케말도 떨어져 나갔지만 지이아 파샤는 계속 <휘리에트>를 발행했다.

1871년 지식인 관료의 혐오 대상이던 관료 독재의 주인공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가 사망한 후 많은 동료들이 이스탄불로 돌아갔다. 지이아 파샤도 같은 해 <휘리에트>를 100호까지 내고 귀국했다. 귀국 후 지이아 파샤는 여러 관직에 단기간 봉직했으며, 1876년에는 미드하트 파샤를 도와 술탄 압틸아지즈 페위 시도에 동참했다.

그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지식과 총명함, 오랜 관료 경험 등으로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저술가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제국 행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다. 그의 글은 근대 정치사상과 함께 문화적 전통주의를



지이아 파샤 거리 이정표(이스탄불, 튀르키예)

경향을 보였다. 그는 특히 루소 등 18세기 프랑스 계몽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개혁과 전통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의 사상은 의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는 의회와 유사한 제도적 요소가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정치 전통에도 존재했다는 입장이었고, 반란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그는 의회의 설립에 찬성했으나 술탄이 정당한 독립성을 지니고 국사에 적극적으로 간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이중적인 입장은 관료계와 술탄제 양쪽 모두에 대한 그의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재능 있는 시인으로 신비주의를 담은 작품을 썼는데, 신앙과 이성의 갈등을 그렸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어로 쓰인 에스파냐의 무슬림 역사 및 종교 재판의 역사에 대한 책들, 몰리에르의 희곡 『르 타르튀프』와 루소의 『에밀』을 번역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야 파샤

● 다국어 표기 Ziya Paş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ücel Bulut “Ziya Pash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609~611.

Abdullah Uçman, “Ziya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4, 2013, pp.475~479.

I G082 | 지자흐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Jizzax qo'zg'oloni

지자흐 봉기는 1916년 러시아가 전 투르키스탄 지역에 내린 징집령에 반발하여 지자흐(Jizzax)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봉기이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는 후에 민족해방운동으로 진화한다.

사마르칸트주의 지자흐 지역은 농업이 경제의 중심인 곳으로, 징집령 이전에 이미 증세가 됐

고 농토를 러시아 이주민에게 분배한 것으로 인해 현지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1916년 7월 3일 러시아 정부는 전 투르키스탄 지역에 징집령을 내렸다. 징집 대상자는 19세~43세 사이의 노동 가능 연령의 남성으로 지자흐 지역에서만 1만 1,000여 명이였다. 7월 5일 이에 반발한 지역민들은 법령의 폐지와 징집 명단 작성 중단을 요구하며 봉기했다. 이 봉기는 나지르허자 에션(Nazirxoja eshon)과 압두라흐먼 제바치(Abdurahmon jevachi)가 주도했다. 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징집 반대 봉기를 확장하기 위해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등 다른 도시에 지역 대표를 파견했다.

7월 13일 다민 쿨렬(Damin kulol)이 마을 원로 미르자요르 후더요러브(Mirzayor Xudoyorov)를 찾아가 징집 명단을 요구하자 장로는 이를 거부하며 외려 모욕을 가한다. 징집에 반발한 주민은 농기구로 무장하고 지자흐의 신시가지로 향한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지역 관리인들이 도착하지만,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지역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봉기에 합류하게 된다. 나지르허자 에션은 봉기군의 지도자가 된다.

지자흐 봉기의 참가자들은 군사, 행정 및 기타 식민지 행정부에 속한 지역을 공격한다. 7월 13일 기차역과 통신선을 끊고 철도와 교량을 철거한다. 7월 14일에는 압두라흐먼 제바치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대표자들과 회의를 열고 지자흐에서 12km 떨어진 쿠야버쉬(Kuyaboshi)에 모여 다 같이 움직이기로 결정한다.

지자흐 봉기 소식을 접한 차르 정부는 이바노프(Иванов-Ринов) 대령이 이끄는 13개 중대, 2개 포병 부대, 카자크 부대(기병대) 등 총 2,500명을 지자흐로 파견한다. 7월 18일 투르키스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동시에 식민지 정부는 봉기를 진압하고 봉기 참가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이바노프의 군대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해 지자흐를 점령한다. 그 후 저민(Zomin)을 점령한 후, 상저르(Sangzor)로 진군한다. 군대는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사격을 가한다. 압두라흐먼 제바치는 600여 명의 생존자와 함께 7월 20일~21일 아파나시예프(Афанасьев) 대령이 이끄는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이바노프의 부대가 합류하며 패배한다.

봉기군은 후퇴하고, 압두라흐먼 제바치, 나지르허자 에션, 토라쿨(To'raqul)과 에션쿨(Eshonqul) 토라베커브(To'rabekov) 형제, 커짐 허지 에션(Qozim hoji eshon)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식민군은 봉기를 일으킨 마을에 불을 질렀고, 봉기군의 가족들을 처벌했다.

처벌 대상에는 노약자,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었다.

7월 26일~27일 추가로 징벌 부대가 지자흐에 도착했으며, 3,000명의 봉기군이 체포되었다. 봉기군의 지도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는 수감형과 추방 선고를 받았다.

지역 토착민들은 봉기에 가담했거나, 봉기군에 동조했거나 체포하는 데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텝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자크 봉기, 지작 봉기, 1916년 지자흐 봉기

● **다국어 표기** Jizzax qo'zg'oloni(우즈베크어), Джизакское восстание(러시아어), The 1916 Uprisings in Jizzakh(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Sharopov Abdulla, *O'zbekiston tarixidan universal qo'llanma*, Toshkent: Akademnashr, 2019.

I G083 | 지크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Zikr

지크르는 아랍어 디크르에서 차용한 말이다. 아랍어 첫 음절 ‘디’가 튀르키예어에서 ‘지’로 변했다. 아랍어 ‘디크르’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수피는 신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신을 기억하는데, 이를 디크르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염주문(念主文), 염주행(念主行)이라고 옮길 수 있다. 불가의 염불행과 유사한 의미다.

코란은 알라를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잊었을 때 알라를 기억하라.”(18장 24절) “오, 믿는 자들이여, 알라를 많이 기억하라.”(33장 41절) 지크르에 사용하는 표현은 짧게는 ‘알라’라는 단어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크르를 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소리를 내면서 하기도 하고, 밖으로 들리지 않게 혼잣말처럼 또는 마음속으로 하기도 한다. ‘알라’를 지크르 하는 경우 첫 음절 ‘알’을 소리 내서 또는 소리 내지 않고 표현할 때 몸을 한쪽으로 움직였다가 ‘라’를 하면



테케에서 행하는 지크르 모습

서 반대쪽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지크르 문장으로는 이슬람교의 신앙 증언 중 첫 번째 문장인 ‘알라 외에 신은 없다’는 뜻의 아랍어 ‘라 일라하 일랄라’가 많이 사용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크르는 다양한 문장으로 가능하다. 같은 수피 종단에서 파생된 종단이라도 지크르 수행법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 이슬람사에는 나크시벤디의 영향을 받은 후피야(Khufiyya) 종단과 자흐리아(Jahriyya) 종단이 있는데, 전자는 지크르를 조용하게 했지만 후자는 크게 소리 내어 행했다. 이러한 수행법의 차이가 양 종단의 무력 충돌을 초래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크르, 디크르
- 다국어 표기 Dhikr(아랍어 음사), Zekr(페르시아어), Zikr(튀르키예어), Zikir(튀르키예어), Zikr(우즈베크어), Zikr(아제르바이잔어), Зик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낙시반디, 자흐리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h395-JcvQo><https://www.youtube.com/watch?v=psN1gCbTgLc>

● 참고문헌(오프라인) Gardet, L. “Dhikr.”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2, 223~227. Leiden: Brill, 1991.

Gibb, H.A.R. and J. H. Kramers, eds. “Dhikr.” In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75.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3.

Lipman, Jonathan N. *Familiar Strangers: A History of Muslims in Northwest Chin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I G084 | 지하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Jihad

지하드는 ‘힘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자하다(jahada)’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지하드는 이슬람 문헌에서 ‘종교적 명령을 알고 그에 따라 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선행을 명하고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노력하는 것, 이슬람을 전파하고 외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이들과 싸우는 전쟁’, 수피즘에서는 ‘부도덕과 악행의 명령에서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하드를 하는 이’는 무자히드(Mujahid)라 부른다.

코란에 지하드는 명사로 4번, 지하드에서 파생된 동사의 형태로 24번 등장한다. 이 용어는 코란에 전쟁이라는 의미와 알라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로 등장한다. 다양한 하디스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종합하면, 지하드는 알라를 삶의 목적으로 섬기는 것, 알라와 예언자가 말한 삶의 기준을 개인 및 사회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슬람을 전하는 것,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을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것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위협과 공격에 맞서 싸우는 방식은 단지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 혀(말), 손(행위) 등 모든 인간의 행위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하드를 성전(聖戰)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좁은 의미의 지하드, 성



‘지하드’를 표방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군사 퍼레이드

전이 성립되는 요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종교에 대한 억압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력과 억압하에서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고 있다.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비무슬림에 대한 첫 시도는 평화로운 협정이며, 정복지의 타 종교(인)는 강제적인 개종보다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타 종교 중 이슬람 이전의 아랍 다신교는 절대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편이었다. 이들은 이슬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법학자들의 경우 ‘비무슬림과의 전쟁’을 특히 강조하고, 이에 모든 힘과 노력을 쏟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법이 전쟁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발리 학파와 말리크 학파, 하바피 학파는 전쟁으로서 지하드의 원인은 비무슬림들이 무슬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샤피이 학파는 비무슬림들의 불충 그 자체가 전쟁의 이유라고 한다. 한발리 학파, 말리크 학파의 법학자 중 일부는 샤피이 학파의 견해에 동조하기도 한다.

시아파의 경우 지하드를 열 개의 신앙의 의무 중 하나라고 본다. 이 지하드에는 비무슬림과의 전쟁, 악행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영적 싸움을 모두 포함된다.

현대에는 ‘지하드’의 기치를 내걸고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서방 국가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테러 행위를 자행하지만, 이슬람학자들도 테러 행위를 지하드로 인정하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향

● 다국어 표기 Cihad(아제르바이잔어), Cihat(튀르키예어), Jihod(우즈베크어), Жихад(카자흐어), Jihad(투르크멘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el, Ahmet. “Cihad”,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7, Istanbul: TDV, 1993, pp.527~531.

Tyan, E. “Djihad”, *Encyclopaedia of Islam* Vol. II (ed; 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Brill, 1991, pp.538~540.

I G085 I 진실의 단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qa'iq al-haqa'iq

『진실의 단계(Daqa'iq al-haqa'iq)』는 나시르 알 딘(Nasir al-Din)이 페르시아어로 저술한 마술과 점성술에 관한 책이다.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ersan 174) 중이다. 1271년 카이세리(Kayseri)와 아크사라이(Aksaray)에서 제작된 이 책은 셀주크 술탄 그야셋딘 케이후스레브 3세(III. Gıyaseddin Keyhusrev, 재위: 1265년~1284년)에게 헌정되었다.

이 책은 모두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 저자는 자신을 나시르 알 딘 무함마드 이븐 이브라힘(Nasir al-Din Muhammad b. Ibrahim b. 'Abd Allah al-Rammal al-Mu'azzim al Sa'ati al-Haykali)이라 소개하며 모든 이슬람 국가를 방문했으며 문학, 부적, 마법을 공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책의 이름이기도 한 ‘진실의 단계’인데,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이름에 알 시지스타니(al-Sijistani)를 추가했는데 이로 미루어 그의 조상이 시스탄에서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을 가진 자의 동반자(Mu'nis al-'Awarif)’라는 제목의 세 번째 장에서 소개한 저자의 이름에 알 시와시(al-Siwasi)가 표기된 것을 보면, 그

가 후에 시바스(Sivas)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의 단계』는 옛 천문학(점성술), 마법, 용이나 팔이 많은 천사와 같은 환상 생물, 상상의 새, 다양한 종류의 천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부적이나 주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성과 도시와 같은 다양한 장면도 담고 있다.

이 책에 담긴 세밀화는 위구르 회화, 그중 특히 불교 미술과 카이세리 인근에 위치한 괴레메(Göreme)에 남은 비잔틴 동굴 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과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관은 투르크 전통의 것이며, 천문 관련 묘사에서는 위구르 회화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 세밀화들은 동서양 문화권의 흔적뿐만 아니라, 중세 이슬람과 아나톨리아반도의 천문학, 점성술, 주술과 마법 등도 연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카이크 알 하카익, 키타브 다카이크 엘 히카이크
- 다국어 표기 Daqa'iq al-haqa'iq(페르시아어), Kitab Daka'ik El Haka'ik(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642358/1528074/restricted>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642358>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Öney, Gönül. *Anadolu Selçuklu mimari süslemesi ve el sanatları*, Ankara: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92.

Peacock, Andrew Charles Spencer. "A Seljuq Occult Manuscript and its World." *The Seljuqs and their Successors: Art, Culture, and History*(ed. Sheila R. Canby, D. Beyazit, and Martina Rugiadi),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p.163~179

I G086 | 질지 선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Zhizhi

질지(鄧支)는 질지골도후(鄧支骨都侯) 선우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그는 서흉노의 선우로 집권 기간은 B.C. 56년~B.C. 36년이다. 흉노는 쇠퇴하며 서흉노와 동흉노로 분열되었다. 그는 흉

노 서부에 웅거하며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를 쳐서 쫓아냈다. 그러나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를 도운 전한은 스스로 흉노를 평정할 수 없다고 여기고 오른쪽 땅에 머물렀다. 그때 질지 선우는 오손과 힘을 합치려 했으나, 오손은 한나라와 내통하고 질지를 배신했다.

질지 선우는 B.C. 49년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그디아나 일대까지 확장했다고 한다. 전한이 파견한 서역 현지 관리인 서역 도호기도위 감연수와 부기도위 진탕은 서흉노가 전한에서 먼 곳에 있지만, 세력을 한까지 확장할 것을 두려워해서 서흉노를 칠 것을 계획했다. 질지 선우는 이 소식을 듣고 도피했다가 의구심이 들어 다시 돌아와 버티다가 자신의 성에서 부상을 입고 전사했다.

● 다국어 표기 ЧжиЧж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예렉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반고: 《한서》 권94 하 흉노전제64 하-권70.

I G087 | 짐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himmi

짐미는 ‘약속, 계약 등’을 의미하는 아랍어 ‘딤미(dimmi. ذمي)’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과 함께 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의 일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다. 이슬람 탄생 초기에도 이른바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했다.

짐미는 적과 동맹 및 협력을 하지 않으며 정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규칙 준수 책임이 있었으며,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짐미는 후에 이슬람 지

역이 확장되며 다른 종교에도 적용되었다. 이런 짐미로서 인정받는 계약은 이슬람 세력이나 국가가 타 지역을 정복한 후 도시 단위 및 종교 단체별로 체결되었다. 이 계약에 의해 삶,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대신 이른바 인두세라고 하는 지즈야(Jizya)를 내야 했다.

오스만 제국도 이슬람법에 따라 짐미 제도를 도입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짐미는 법적, 정치적으로 오스만 제국에 소속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짐미에게 일반적인 오스만 제국 법률을 따르게 하되, 그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도 만들어 시행했다. 이것은 일부 법조항들의 경우 무슬림과 분리해서 별도로 적용했음을 의미한다.

오스만 제국은 짐미에게 지즈야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교회를 짓지 않는 것, 불신을 상징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성경을 읽거나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 교회의 종을 울리지 않는 것, 술을 무슬림 구역에서 판매하거나 무슬림에게 판매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대신에 국가는 종교의식과 예배를 허가하고, 무슬림으로 강제 개종을 시키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짐미 구역의 종교 건물을 모스크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보장했다. 즉 오스만 제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짐미의 생활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가의 승인을 받은 각 종교 지도자는 자신들의 공동체 재산을 관리하고 종교 업무를 수행하며 혼인, 이혼,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 일정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는 일종의 사법적 관할권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이슬람법 해석에 따르면, 짐미는 무슬림 옷을 입거나 사치스러운 복장을 할 수 없고, 무슬림 노예와 첩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으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짐미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행되었다.

탄지마트 이후 짐미는 지즈야 대신 군역세(bedel-i askerî)를 내야 했다. 1856년 개혁 칙령과 함께 고전적인 의미의 짐미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짐미, 짐마, 짐마,
- 다국어 표기 Zimmi(튀르키예어), Zimm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kyıldız, Gül. “Osmanlı Devletinde Gayrimüslimlerin Hukuki Statüsü,” *Ermeni Araştırmaları 1. Türkiye Kongresi Bildirileri II. Cilt*, 2003. pp.171~187.

Kenanoğlu, M. Macit. "ZİMM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4, İstanbul: TDV, 2003, pp.438~440.

Cahen, Cl. "DHIMMA", *Encyclopaedia of Islam* VOL.II (ed. B.Lewis, V.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E.J. Brill, 1991, pp.227~231.

I G088 I 집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 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김근식, 최선아 ● 라틴 문자 Jami' al-tawarikh

『집사(Jami' al-tawarikh)』는 일 칸국의 가잔 칸(Ghazan, 재위: 1295년~1304년)의 명으로 라시드 앳 딘 하마다니(Rashid-al-Din Hamadani, 1247년~1318년)가 페르시아어로 썼다. 이 책은 몽골과 투르크 부족의 역사와 족보 및 전설 및 칭기즈 칸 이후 몽골의 역사, 유라시아 민족의 역사, 이슬람 이전 이란의 왕, 이슬람의 칼리프 시대의 역사 및 이슬람 이후의 페르시아 역사, 투르크 민족사, 중국의 역사, 유태인 역사, 프랑기스탄(Frangistan, 당시 서부 유럽을 지칭하던 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집사』는 라시드 앳 딘 하마다니가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국, 인도의 역사가들도 참여했다. 심지어 프랑스 가톨릭 사제도 집필에 참여했다. 『집사』 편찬에는 투르크 박물학자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의 『세계 정복자의 역사』, 몽골의 『금서』 등이 원전으로 사용되었다.

『집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는 몽골인들과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들의 역사를, 2부는 이슬람 이전의 세계사를 중심으로 중국, 이스라엘, 프랑크, 로마, 인도, 중앙아시아 등의 역사를 각각 다루었다.

『집사』는 당대 투르크 부족을 설명한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일부 판본의 경우 위구르인의 세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여러 필사본 중 세밀화가 포함된 것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판본은 4개이다. 에든버러 대학교 도서관(Edinburgh University Library Or Ms 20) 소장본과 칼릴리 컬렉션[Khalili Collection MSS 722, 과거 영국 왕립 아시



『집사』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판본[MS H 1653], 바드르 전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 Nr.59)]은 아랍어로 작성된 판본이다.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Topkapı Saray kütüphanesi. MS H 1653)이 소장 중인 페르시아어 판본은 14세기에 티무르의 역사가 추가된 버전이다.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에는 다른 판본(Topkapı Saray kütüphanesi. MS H 1654)도 있다.

에든버러 판본은 150장에 70개의 세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1306년~1307년 완성되었다. 무함마드 시대의 이야기 몇 장면과 고대 이란 왕들 인생의 일부 장면, 투르크 왕조의 역사와 셀주크 조와 관련된 장면 몇 부분이 묘사되었다. 선을 중심으로 묘사되었으며 색은 부차적으로 사용되었다. 장식성은 적으며, 사건 주변 인물의 형상은 평평하게 묘사되었다. 특히 전쟁 장면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은 중앙아시아 인물 형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장면 묘사로 인해 위구르 출신 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칼릴리 컬렉션의 장면은 1314년 작품으로 20개의 세밀화가 묘사되었다. 에든버러 판본과 유

사하며, 풍경 묘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무함마드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무함마드가 묘사된 것이 특징적이다

툽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판본[MS H 1653]은 1425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1314년에 제작된 필사본에 다른 작품들이 추가된 것이다. 이 판본의 경우 셀주크 화풍과 극동(중국)의 화풍이 함께 공존한다. 선과 구성, 동북아시아 인물 묘사와 셀주크식 포즈가 공존한다. 전쟁 장면에서는 측면으로 그려진 인물이 운동감이 느껴지는 선으로 묘사되었으며,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툽카프 궁전 박물관 판본에는 118개의 세밀화가 있으나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4세기 말이나 15세기 초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미 앓 타바리흐, 연대기의 집성, 세계사, 라시드 알 딘의 세계사
- **다국어 표기** Câmî'ut-Tevârîh(튀르키예어), Cəmi ət-Təvərix(아제르바이잔어), Jome at-tavorix(우즈베크어), Жами ат-таварих(카자흐어), التواريخ(아랍어), جامعالتواريخ(페르시아어), Джами ат-таварих(러시아어), Судрын чуулган(몽골어)
- **연관 검색어** 집사,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c/Battle_of_Badr2.jpg/1024px-Battle_of_Badr2.jpg
https://www.khalilicollections.org/wp-content/uploads/2016/06/1514_mss-0727-28b.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halilicollections.org/collections/islamic-art/khalili-collection-islamic-art-the-jami-al-tawarikh-of-rashid-al-din-mss727-folio-36b/>
- **참고문헌(오프라인)**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YKY, 2009.
Şeşen, Ramazan. "CÂMÎU't-TEVÂRÎH" *TDV İslâm Ansiklopedisi* 7.Cilt, İstanbul: TDV. 1993, pp.132~134.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Т.1, кн. 1, М., Л., 1952.

I G089 | 차가 바이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Chaga-Bayram

차가 바이람(Chaga-Bayram)은 태양과 알타이를 숭배하는 알타이 민족의 새해맞이(음력) 축제이며, 이 축제는 2월 말 시작되어 겨울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얀 축제라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키이라(кыйра) 또는 딜라마(дьалам, ялама)라 불리는 성스러운 끈을 나무에 묶고 알타이의 신들을 대접하는데, 라마교와 샤머니즘의 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차가 바이람은 하얀 달(White Moon)이란 뜻의 몽골 새해맞이 축제 차간 사르(Tsagaan Sar)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같은 투르크계 투바 민족이나 몽골계 부랴트 민족에게도 유사한 축제가 있다. 이 시기에 축제에 사용할 유제품을 준비했기에 ‘하얀 달’이란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차가(чара)는 알타이어로 ‘하얀, 흰’을 의미하며 바이람(байрам)은 축제를 뜻한다. 새해 이전까지 경전을 읽으며 금식했던 남자들이 주관하는 의식이 끝나면 바로 축제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모여 여러 문화행사와 경기를 즐기고 동물의 가죽을 쓰고 썰매를 타기도 한다. 알타이의 차가 바이람은 투르크 민족과 몽골 민족 사이의 오랜 교류를 증명하는 축제이다. 차간 바이람의 기원인 차간 사르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등장하며, 12세기 몽골에 전파된 티베트 불교 의식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가 파이람
- 다국어 표기 Чага-Байрам(러시아어), Цагаан сар(몽골어)
- 연관 검색어 투바
- 멀티미디어 링크 2019년 알타이 공화국 차가바이람
<https://www.youtube.com/watch?v=aLwh5vCTjb4>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з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G090 | 차가타이 구룽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문학운동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Chig'atoy gurungi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궁정(宮廷)을 제외하면 문인들을 모으고 문학운동을 이끌어가는 문학 조직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없었다. 차가타이 구룽기(Chig'atoy gurungi)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문학 조직이다.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선 후 1919년 피트랏(Fitrat)이 이끄는 시인과 학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문학협회를 결성하고, 협회 이름을 '차가타이 간담', '차가타이의 즐거운 대화'란 의미인 차가타이 구룽기(Chig'atoy gurungi)로 명명했다.

차가타이(Chig'atoy, 1185년~1242년)는 칭기즈 칸의 차남으로 차가타이 칸국을 건립했다. 차가타이 사망 후에도 차가타이 칸국은 존속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언어는 차가타이어이며 그들의 문학은 차가타이 문학으로 분류되었다. 차가타이어는 고(古)우즈베크어이다. 차가타이 구룽기는 몽골 침략 시기의 투르크어로 만들어진 문학을 우즈베크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보물로 보존하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풍부한 문학 유산을 수집, 연구, 출판하는 것을 임무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맹 퇴치, 복잡한 아랍어 철자 개정, 우즈베크어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피트랏은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무엇보다 우즈베크 고전문학을 고대 시기부터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협회의 일원인 엘벡(Elbek)은 민속 문학의 예문들을 수집 및 연구하는 일을 맡았고, 카유 라마잔(Qayum Ramazon)은 우즈베크어의 역사 및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출판(Cho'lpon)도 다방면의 창의적 활동에 기여하려 했다.

10월 혁명 이후 우즈베크 문학의 쇠퇴를 경험한 협회 회원들은 우즈베크 고전문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이 협회는 '국민적인-문화적인 자치'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1918년 붉은 군대에 의해 무너진 투르크스탄 자치(Turkiston muxtoriyati) 사상을 문학-문화 분야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 당시 모든 조직은 소비에트 정책을 찬양해야 했으나, 이들은 예술과 무관한 시나 192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볼셰비키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잘

못 해석한 작품들을 비난했다. 이로 인해 ‘차가타이 구룽기’의 중요한 회의 및 토론은 무장 경비대의 감독하에 진행되기도 했다. 소련 정부는 정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차가타이 구룽기의 결성을 허용했다. 피트랏과 그의 동료들도 이 조건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우즈베크어를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전문학과 민속 문학을 수집 및 연구하며, 새로운 우즈베크 문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작업은 점점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때문에 차가타이 구룽기는 1922년 해체되었다.

차가타이 구룽기는 구성원들의 시적 경험으로 우즈베크 시의 탄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출판, 어이벡(Oybek), 가푸르 굴럼(G'afur G'ulom),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샤이흐저다(Shayxzoda), 미르테미르(Mirtemir), 우스먼 너시르(Usmon Nosir)와 같은 시인이 출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가타이 구룽기, 차가타이 간담회
- 다국어 표기 Chig'atoy gurugi(우즈베크어), Чигатай гурунги(Чаргатайская бесед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출판, 어이벡, 가푸르 굴럼, 하미트 올림전, 샤이흐저다, 미르테미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K.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Toshkent: O'qituvchi, 1995.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G091 | 차가타이 칸국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오은경 ● 라틴 문자 Chagatai Khanate

몽골 제국의 4대 칸국 중 하나로, 칭기즈 칸이 둘째 아들 차가타이에게 속지로 분할한 지역에 있던 칸국이다. 차가타이 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순수 유목 국가였다. 차가타이 칸국은 투르키스탄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 칸국이나 킵

차크 칸국과 명확한 영토적 경계는 없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거대 도시들도 존재했지만 차가타이 칸국의 기본 노선은 도시화나 정주화가 아니었고 유목 국가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다. 차가타이 칸국에는 여타 칸국들과는 달리 일정한 수도도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집합장소로 일리(III)강 유역의 알말릭(Almalig)이 이용되었다. 또한, 차가타이 칸국은 주민의 대다수가 유목 혹은 반유목 생활을 하는 투르크족들이었기 때문에, 몽골족의 원래 거주 지역을 제외하면, 피정복 민족과 정복 민족이 동일한 전통을 가진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차가타이 칸국의 국가 성격으로 인해 수적으로 적은 몽골인 지배층이 오히려 다수의 피지배층인 투르크족에 의해 흡수되어 동화되는 투르크화 현상이 나타났고, 몽골어와 투르크어가 혼합되어 차가타이투르크어가 생성되기도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차가타이투르크어는 중세 투르크어와 중세 몽골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차가타이 칸국은 유목민적 전통을 고수하여 자체 기록이 많지 않아 몽골의 4대 칸국 중 역사가 가장 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차가타이 칸국의 사료는 그들과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졌던 일 칸국의 사료에서 발췌해야만 한다.

현존하는 사료들에 따르면 차가타이 칸국에는 총 19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다음 군주들의 집정 기간이 중요하다. 제5대 군주였던 알루구(Alughu, 1260년~1266년)는 쿠빌라이와 아릭보게간의 대칸위 승계 분쟁에서 쿠빌라이 진영에 협조해 쿠빌라이가 대칸에 등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차가타이 칸국의 반자치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제7대 바락(Baraq, 1266년~1271년)의 재위 기간은 하이두(Qaidu)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활약하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벌어진 양자 간 전쟁에서 패배한 바락은 하이두의 종주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이때 차가타이 칸국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하이두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1282년 즉위한 제10대 군주 두아(Du'a, 1282년~1307년)는 차가타이 칸국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로 칸국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1301년 하이두가 주도한 복위 전쟁이 실패로 끝난 후, 두아가 독자 노선을 취하여 1303년경부터 차가타이 칸국은 건국 후 최초로 다른 칸국들과 같이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후 그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해서 차가타이 칸국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두아의 개혁은 그의 사후 제12대 군주 케벡(Kebek, 1318년~1326년)이 계승해 추진했다. 케벡은 차가타이 칸국의 역대 군주 중 유일하게 전통적인 유목 생활보다는 정착 생활과 도시 생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그의 재위 기간에 정착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도시들이 재건되었고 14세기 티무르 제국 시대의 번영과 영화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차가타이 칸국이 태평성대를 구가한 최극성기라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가타이 한국

● 다국어 표기 察合台汗国(중국어) Çağatay Kağanlığ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킵차크 칸국, 사마르칸트, 부하라, 티무르제국

● 멀티미디어 링크 지식백과 실크로드사전 차가타이 칸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634&cid=62093&categoryId=62093>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차가타이 칸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312&cid=40942&categoryId=33437>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KRADER, LAWRENCE, "QAN-QAYAN AND THE BEGINNINGS OF MONGOL KINGSHIP". *Central Asiatic Journal*. 1 (1), 1955.

René Grousset,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now*.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

I G092 | 차가타이-오스만 투르크어 사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ügat-ı Çağatay ve Türkî-İ Osmanî

차가타이-오스만 투르크어 사전은 1882년 샤이크 술레이만 에펜디(şeyh Süleyman Efendi)에 의해 이스탄불에서 출판되었다.

이 사전에는 차가타이 투르크어와 술레이만이 이 사전을 집필하던 당시 사용되던 우즈베크어로 된 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전히 차가타이 투르크어만을 담은 사전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저자 술레이만은 이 사전 서문에서 차가타이 투르크어가 전 세계 다양한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아 전역의 투르크인들이 사용하던 공용어임을 강조하면서, 오스만 제국 내에 거주하는 투르크인들도 오스만 투르크어의 전신인 차가타이어를 배워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전의 두 번째 장인 카바이드(Kavâid)에서는 차가타이 투르크어의 형태론 그리고 음성학적 특성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랍 문자 순서에 따라 6754개의 표제어를 수록하며 사전을 구성했다. 이 사전은 1902년 부다페스트에서 이그낙 쿠노스(Ignaz Kúnos)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가타 차가타이 뷔 투르키 오스마니
- 다국어 표기 Lügat-ı Çağatay ve Türkî-ı Osmanî(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그낙 쿠노스,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Kaman, S., Şeyh Süleyman Efendi ve “Lugat-i Çağatay ve Türkî-i Osmânî”ye tanık olarak katkılar. *RumeliDE Dil ve Edeb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16), 2019, 69~97.
-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4.
- Caferoğlu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II, 2005.
-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G093 | 차간-사알라와 바가 오구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제사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sagaan Salaa and Baga Oygör

차간-사알라 유적은 알타이에서 러시아와 몽골 국경에 위치한 초기 투르크 시대 암각화 유적이다. 산의 서쪽에 위치한 바위들에서 15km에 걸쳐 새겨진 1만개 넘는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1994년부터 몽골, 러시아, 미국 학자들이 계속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암각화 유적으로 판명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중세 시대인 투르크 시대(7세기~8세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인 스키타이,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중세 이전 시기(신석기 시대~초기 철기 시대)의 암각화는 대부분 동물 문양이고, 중세 시대 암각화의 주요 주제는 사람이다. 중세 시



차간-사알라 유적 암각화
Source: <https://whc.unesco.org/>

대 암각화는 이전 시대와 달리 사람이 활을 쏘거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 등 전투 혹은 사냥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선긋기 기법과 선쫓기 기법이 사용됐다. 사람들은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장면이 한 바위에 그려져 있다. 가장 큰 기마인은 바위의 가장 위에 그려졌는데, 수십 미터 아래로 이어진 길 위의 기마인과 구분된다. 가장 오래된 그림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소 B.C. 6000년 전이라는 의견과 10,000년 이상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가 오구이와 차간-살라
- 다국어 표기 Цагаан-Сала и Бага-Ойгур(러시아어), Tsagaan Salaa and Baga Oygur(영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en/list/1382>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Цэвээндорж Д., Якобсон Э. Петроглифы Цагаан-Салаа и Бага-Ойгура (Монгольский Алтай),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5.

I G094 | 차낙칼레 도자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도자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anakkale ceramics

차낙칼레 지방의 도자기에 대한 17세기 이전의 기록이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차낙칼레 지방의 원래 이름은 칼레이-술탄니예(Kale-i Sultaniye)였으나 18세기부터 튀르키예어의 도기나 자기 그릇을 의미하는 차낙 침렉(çanak çömlek)에서 유래한 차낙칼레(çanakkale, 도기의 성)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17세기 이후부터 이 지방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것이다. 초기에는 아나톨리아반도 서부를 중심으로 이스탄불과 같은 국내에 팔리고, 이후 해양 무역로를 통해 그리스 섬 지방이나 마케도니아, 헝가리 등지로 수출되고, 일상 용품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차낙칼레의 도자기 공방에서는 타일을 생산하지 않았다. 타일과 도자기 등 일상 용품을 함께

생산한 튀르키예 도자기 역사에 비춰보면 특이한 점이다. 차낙칼레 도자기는 튀르키예의 이즈니크(İznik)나 쿠타하(Kütahya) 도자기와는 형태가 무척 다르다.

차낙칼레 도자기는 주로 굽은 입자의 붉은색 점토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드물게 베이지색 점토를 사용하기도 했다. 차낙칼레 도자기는 시대별로 그 특성이 다른데, 17세기에 생산된 제품은 커다란 크기(지름 22cm~34cm)에 깊이가 깊은 그릇, 큰 단지와 그릇이 다수이다. 문양은 크림색에 두꺼운 화장토로 된 면 위에 보랏빛을 띠는 갈색이나 주황색, 노란색, 남색의 화장토를 이용하여 그렸다. 색은 대부분 한 가지를 쓰거나, 많아야 두세 가지를 함께 썼다. 붓으로 윤곽이 없는 추상적 문양을 그리거나 점, 추상화된 꽃, 새, 나무, 물고기, 동물,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모스크, 저택, 요트, 갠리온선과 같은 그림을 단순한 구성으로 그렸다. 그릇의 둘레 부분에는 철책 모양이나 점, 또는 잎사귀나 꽃을 늘어놓았다. 물고기 비늘 무늬를 파도처럼 늘어놓은 문양은 차낙칼레 도자기의 상징처럼 되기도 했다. 초기의 그릇과 항아리는 지름 15cm~20cm, 높이 10cm~15cm 정도로 크지 않았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생산된 제품들은 형태와 사용이 더 다양하다. 물통, 세숫대야, 꽃병, 화분, 촛대, 자르프(Zarf, 손잡이가 없는 잔으로 뜨거운 것을 마시기 위해 사용하던 커피잔 받침대), 잔, 접시, 화덕, 인형 등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품목을 만들면서 만듦새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용처가 늘어나자 더 빠른 판매에 집중하면서 생산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화려해지고 더 과장된 장식으로 인해 미적 균형을 잃게 된다. 이 시기에는 갈색, 검은색 같은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에브루(Ebru)가 섞인 색이 있는 유약을 사용한다. 대부분은 윤곽선이 없고 유약 위에 금도금이나 은도금,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으로 커다란 꽃과 로제트, 잎사귀, 점무늬를 그렸다. 그림 이외에 양각으로 된 꽃, 잎, 로제트 같은 것도 함께 장식했다.

통통한 몸체에 새 부리같이 구부러진 주둥이와 로제트 모양의 양각으로 만든 눈이 있는 새 머리 달린 물통은 차낙칼레 후기 생산품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기의 물병은 대부분 크기가 30cm를 넘는다.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을 단색이나 한두 가지 색으로 만든 것 또한 차낙칼레 후기 생산품의 특징이다.

19세기 이후 점점 질이 떨어졌고, 1차 세계 대전 중 차낙칼레 전투, 즉 갈리폴리 전투(1915년~1916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생산 시설이 몰락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시 도자기를 제작하고



차낙칼레 도자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있지만, 기존 차낙칼레 스타일이 아니라 이즈니크나 퀴타하 제품과 유사하다.

차낙칼레 도자기는 비록 후기 생산품이 질적으로 떨어졌을지라도, 당시까지 오스만 제국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형태와 문양의 도자기를 탄생시켰다는 점, 민중 위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낙칼레 자기, 차낙칼레 도기, 차낙칼레 타일

● 다국어 표기 Çanakkale seramiği(튀르키예어), Çanakkale ceramics(영어)

● 연관 검색어 이즈니크 도자기, 퀴타하 도자기,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Nzp9>

http://seramik.kaleicimuzesi.com/foto/193_b.jpg, http://seramik.kaleicimuzesi.com/foto/170_b.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Öney, Gönül. “Çanakkale Seramikleri”, *Anadolu’da Türk Devri Çini ve Seramik Sanatı*,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07. pp.365~367.

I G095 | 차도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hador

차도르는 일부 무슬림 여성의 의복으로, 페르시아어 표기는 차도르(چادر)이다. 이 차도르가 튀르키예어로 수입되며 차르샤프(çarşaf)의 형태로 변화했다. 아제르바이잔어로는 차르샤브(çarşab)로 표기한다. 차도르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이 의복은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외출할 때 착용했거나, 착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단 하나의 천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머리와 상체를 가리는 부분과 허리부터 발까지 가리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얼굴을 가리는 천을 따로 다는 형식으로 변했다. 현재 얼굴을 가리는 천은 이란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라졌다.

천은 과거 면과 양모, 비단 등으로 수제 제작했으나, 현대에는 다양한 재질로 공장에서도 만



차도르를 입고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무슬림 여성

든다. 사람들은 각기 경제적 사정에 맞추어 이를 구매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남색, 보라색, 짙은 녹색 등이지만 취향에 따라 푸른색, 녹색, 라일락색과 같이 밝은 색으로도 제작된다.

차르샤프는 과거에는 이란과 이라크 여성들이 주로 착용했다. 기록에 따르면 18세기~19세기에 이집트 여성들도 착용했다. 튀르키예의 경우 오스만 제국 탄지마트(Tanzimat, 1839년~1876년) 시기에 순례를 다녀온 이들이 아랍인이나 이란인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에서는 무함마드 시대가 아닌 후대에 창조된 전통이란 이유로 차르샤프가 널리 퍼지지 않았다. 하지만 1870년 야슈마크(yasmak, 눈만 가리지 않는 얇은 천으로 된 베일)와 페라제(Ferace,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여성 외출용 겉옷의 일종)의 착용을 금지한 이후 차르샤프가 널리 퍼지게 된다. 1892년, 압뉘메지드 2세(Abdülmecid II, 재위: 1922년~1924년)는 일부 남성 범죄자가 차르샤프 속에 숨어서 궁에 진입하는 시도 따위를 한다는 이유로 차르샤프를 입은 채 입궁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튀르키예에서는 상류사회 여성을 중심으

로 얼굴을 가리는 부분을 버리고, 하단 부분을 허리까지 짧게 만들었다. 그러다 의복 혁명 이후 망토가 차르샤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르샤프

● 다국어 표기 çarşab(아제르바이잔어), çarşa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탄지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Koçu, R. Ekrem. *Türk Giyim Kuşam ve Süslenme Sözlüğü*, Ankara; Sümerbank 1967.

Türkoğlu, Sabahaddin. “ÇARŞAF”,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231~232.

I G096 | 차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saram

차람 유적은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 카흐타시의 아우시키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1899년 타라코가 이 무덤을 처음 발굴했다. 무덤은 20기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5기를 1903년 스몰레프가 발굴했다. 무덤은 나무관이 있는 흉노의 무덤 구조이고,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1997년~2005년에는 미야예프가 자바이칼 발굴대를 이끌고 유적의 북쪽에 있는 7호를 발굴했다. 7호가 이 유적에서 가장 큰 무덤이다. 유적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5기의 부속묘도 발굴했다. 남아 있는 인골로 보아 7호 무덤의 순장묘로 판단되었다. 7호 무덤의 구조는 몽골에서 발굴된 엘리트급의 무덤과 대부분 동일했다. 무덤은 사각형으로 32m×32m, 깊이는 1.5m이다. 남쪽으로는 길이 20m 가량의 묘도가 있다. 나무 무덤방은 깊이 17m에서 드러났고, 무덤방의 높이는 170cm~180cm이다. 한경과 양산이 붙은 마차, 은제 드리개, 문자가 새겨진 철이배 등이 출토되었다. 한경의 스타일로 미루어 BC 1세기~AD 1세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보인다. 관련 학자들은 자바이칼 지역에서 확인된 흉노의 무덤 중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아람

● 다국어 표기 Царам(러시아어), Tsaram(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няев С.С., К хронологии сюнну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Забайкалья. // Ранние кочевн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Л.: 1975.

С. 47~48.Талько-Гринцевич Ю.Д., Материалы к палеоэтнологии Забайкалья. СПб: Фонд «АзиатИКА». 1999. 124 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юнну. Вып. 4)

Ⅰ G097 Ⅰ 차르히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Charxiy

우즈베크 고전문학 전통을 계승한 현대 시인 아스카르알리 함러알리 오글루 차르히이(Asqarali Hamroali o'g'li Charxy)는 1900년 코칸드에서 태어났다. 구식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차르히이는 어릴 적부터 하피즈(Hafiz), 사아디(Sa'adiy), 나버이이(Navoiiy), 베딜(Bedil)의 시 가잘(g'azal)을 즐겨 읽었다. 또한 그는 술라이먼쿨 러지이(Sulaymonqul Rojiy), 미르자 호칸디와 같은 코칸드 시인들로부터 아루즈(aruz) 기법을 배웠다. 차르히이는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코칸드의 <신 페르가나(Yangi Farg'ona)> 신문사와 <무쉬툼(Mushtum)> 잡지에서 근무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달콤함과 씹쓸함(Shirin va achchiq, 1959)』, 『시집(She'rlar, 1966)』, 『알리허자와 허자알리(Alihoja and Xojaali, 1970)』, 『데번(Devon, 1972)』이 있다.

차르히이는 수년 동안 코칸드의 무키미이(Muqimiy) 박물관에서 과학 연구자로 근무하며 무키미이의 다면적 문학 유산 수집 및 보존에 공헌했다. 그는 1975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 시인이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79년 12월 18일 코칸드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르히의
- 다국어 표기 Charxiy(우즈베크어), Чарх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I G098 | 차크-차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chak-chak



차크-차크

차크-차크는 러시아의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과 타타르스탄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도 즐기지만 주로 바시키르와 타타르 민족의 대표적 디저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 세크-세크로 발음하기도 한다. 선명한 노란빛의 유과는 태양의 고향을, 꿀에 묻혀진 둥근 알갱이들은 민족의 결속을 상징한다. 과거에 차크-차크는 결혼식 같은 큰 행사에서만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과 타타르스탄의 대표적 디저트가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소금과 빵을 대접하는데, 타타르스탄과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에서는 차크-차크를 손님맞이에 사용한다.

차크-차크는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작은 구슬 모양의 알갱이들을 만들고 이것을 기름에 튀긴다. 가끔은 반죽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들의 조각을 섞기도 한다. 튀겨진 알갱이들은 데워진 꿀에 적셔 일정한 모양으로 뭉치고 식힌다. 결혼식용 차크-차크는 더 크고 캔디나 젤리 같은 것으로 덮기도 한다. 가장 큰 차크-차크는 2018년 카잔에서 개최된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서 사용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크-세크, 착착, 책책
- 다국어 표기 Чак-чак(러시아어), Çək-çək(아제르바이잔어), Chakchak(우즈베크어), چک چک(아랍어), чэк-чэк(타타르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카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FRykdLbuN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if.ru/food/world/41706>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703-chak-chak-s-ks-k>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венская, О. Кухни народов мира. Татарская кухня, М.:Директ-медиа, 2011.
Мингазова, Р. Кулинарные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тата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молодежный взгляд в будущее, Курск, 2018.

Ⅰ G099 Ⅰ 차탈회이위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Çatalhöyük

튀르키예 코니아에서 52km 떨어진 춤라(Çumra)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2012년 튀르키예에서 11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천년 동안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던 이 유적지는 1958년 영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멜라트(James Mellaart)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유적지의 발굴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당시까지 최초의 도시 출현 시기를 BC 4500년경의 청동기 시대로 보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서 신석기 시



차탈회이위크 유적지의 거주지

대 후기에 해당하는 BC 7500년부터 BC 57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10층으로 된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 유적지는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한 신석기 시대 주거지로서 신석기 시대 초기 농경 정착생활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유물들은 수도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일명 히타이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탈 호육, 차탈 효육, 차탈회워
- 다국어 표기 Çatalhöyü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Mellaart, James. *Çatal Hüyük: A Neolithic Town in Anatolia*. London: Thames & Huds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 Todd, Ian A. *Çatal Hüyük in Perspective*. Menlo Park, CA: Cummings Pub. Co., 1976.

I G100 | 차트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Chathan

차트한은 손으로 뜯는 하카스 민족의 전통 현악기이다. 공명통이 있는 치터와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는 악기이지만, 그 모양이 치터보다는 더 긴 형태의 중국의 쟁(箏)이나 한국의 가야금, 몽골의 야트к(Яатга)과 유사하다. 속이 깎인 나무로 된 몸통의 길이는 1.5m에 이른다. 고대 차트한은 바닥이 없었지만 나중에 악기의 아랫부분을 막고 작은 돌을 넣어서 연주할 때 떨리는 소리를 내게 했다. 차트한이 진화하면서 현의 개수가 3개에서 6개~7개까지 늘어났으며, 14개의 현이 있는 차트한도 있다.

차트한은 하카스 민족의 전통 음악인 배음 창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보통 하이지(Хайджи)가 영웅 서사시를 음창할 때 반주하는 악기로 사용되곤 한다. 그래서 차트한은 하카스 민족의 관습과 의례와 떼어 수 없으며 그 음은 하카스 민족의 일생과 함께한다. 옛날에 모든 유르트에서는 차트한을 연주했으며 하카스인들은 차트한을 생명체처럼 다루었는데, 하이지는 공연에 앞서 이 악기의 심장과 소리가 영원하고 노래를 부르는 내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차트한에게 술을 권하곤 한다.

전설에 따르면 차트한은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차트한이라는 유목민이 긴 나무 통과 말총을 이용해 칸의 가축을 모두 수용하는 거대한 방목장에 올려 퍼지는 마법의 악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사람과 맹수들은 유순해지고, 새는 지저귀지 않고, 말 떼는 달리기를 멈추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티간
- 다국어 표기 Chatigan(영어), Чатх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이지, 유르트, 하카스인
- 멀티미디어 링크 예브게니 울루그바셰프(Улугбашев Евгений)의 차트한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2XckLRCsZrM>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muzcentrum.ru/radio-old/programs/expomusic/34124-v-efire-ekspomuzyka-khakasskij-chatkhan>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dwick, N. K., Zhirmunsky, V., & Zhirmunskii, V. M., Oral Epics of Central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3~24.

I G101 | 착한 왕자와 나쁜 왕자 이야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dgü ögli Tigin ile Ayıǵ Ögli Tigin

‘착한 왕자와 나쁜 왕자 이야기’는 고대 위구르인들이 남긴 문서로, 중국 간쑤 지역의 베제클리크 천불동에서 발견됐다. 폴 펠리오(Paul Pelliot)가 프랑스로 가져갔고, 현재 파리 국립중앙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에 등록번호 Pelliot Chinois 3509번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텍스트는 제임스 러셀 해밀턴(James Russell Hamilton)의 박사 논문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이후 1998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번역해 『iyi ve Kötü Prens Öyküsü』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인 『대방편불보사경(大方便佛报思经)』의 6장 악우품제육(惡友品第六)에 수록되어 있다. 10세기 무렵 당시 불교를 믿던 위구르인들이 고대 위구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착한 왕자가 자신의 나라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왕의 허락을 받고 재물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형인 착한 왕자를 시기하던 나쁜 왕자도 이 모험에 동행한다. 이들은 배로 가는 여정 내내 많은 위험과 사건들에 휘말리게 된다. 착한 왕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용의 나라로 가서 가난한 백성들을 구할 온갖 재물을 구한다. 하지만, 모든 공적이 형에게 갈 것을 시기한 나쁜 왕자는 착한 왕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눈을 송곳으로 파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모든 것을 잃은 착한 왕자는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지만, 결국 그의 착한 성품으로 인하여 부처가 된다.

이 문서는 금광명경과 함께 고대 위구르어 및 과거 투르크인들의 종교였던 불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 왕자 이야기
- 다국어 표기 Prens Kalyanamkara ve Papamkara Hikayesi, iyi ve Kötü Prens Öyküs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고대 위구르어, 금광명경, 베제클리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Eraslan, K., *Eski Uygur Türk.esi Grameri*. Ankara: TDK, 2012.
Ercilasun, A. B., *Türk Dili Tarihi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17.Baskı. Ankara: Akçağ Yayınları, 2016.
Hamilton, J. R., *İyi ve kötü prens öyküsü*. Ankara: TDK, 1998.

I G102 | 찬다를르 가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가문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Çandarlı family

찬다를르 가문은 오르한 가지(Orhan Gazi, 재위: 1326년~1362년) 시대부터 셀림 2세(II. Selim, 재위: 1566년~1574년) 시대 초기까지 약 150년간 많은 학자와 정치가를 배출한 가문이다. 현존하는 가계도에 따르면 이 가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 현재 찬다를르 가문의 자손 중 찬다를르 마흐무트 첼레비(Çandarlı Mahmut Çelebi)계는 찬다르(Çandar)라는 성을 쓰고, 그 외의 자손으로 이어진 계는 찬다르오울루(Çandaroğlu, 찬다르의 아들 또는 찬다르의 자손이라는 의미)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다.

가문의 이름인 '찬다를르(Çandarlı)'는 쟌데리(Cenderî), 첸데리(Çenderî), 찬다를르(Çandarlı), 쟌데르뤼(Cenderlü), 찬다르루(Çandarlu), 쟌데렐리(Cendereli), 쟌데렐뤼(Cenderelü) 등 약간의 발음상 차이를 보이며 기록되었으나 이후 '찬다를르'로 고정되었다.

가문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문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스키셰히르(Eskişehir)와 세이잇가지(Seyitgazi) 지역 출신이라고 한다. 15세기 전기 작가 아흐메디

(Ahmedi, 1334/35년~1412/13년)가 최초로 기록에 남긴 찬다를르의 가문 사람인 카라 할릴 하이렛딘 파샤(Kara Halil Hayreddin Paşa, ?~1387년)를 쟈데리(Cenderi)로 명명한 것이나, 18세기 전기 저작물 작가인 뮈스타킴자데 쉐레이만 사뎃딘(Müstakimzâde Süleyman Sâdeddin, 1719년~1788년)이 시브리히사르(Sivrihisar) 지역의 쟈데레(Cendere) 출신으로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찬다를르 가문의 시작은 시브리히사르 지역의 쟈데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문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카라 할릴 하이렛딘 파샤는 술탄 오스만 1세(I. Osman, 재위: 1299년~1326년)의 장인인 셰이흐 에데발리(Şeyh Edebâli)와 동서지간이며, 오스만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히(Ahi) 조직의 일원이었다. 카라 할릴은 오스만 제국 건국 이후 일미이에(ilmiye, 오스만 제국 내 이슬람법 기관) 계급으로 부상했다. 오스만 1세 재위 말년에 빌레지크(Bilecik) 지역의 판사(kadı)로 임명되었고 1331년 이후 이즈니크(İznik) 지역의 판사로 일했다. 1362년에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인 부르사(Bursa)의 판사직을 맡았다. 무라드 1세(I. Murad, 재위: 1362년~1389년) 시대에는 사법부 최고직이라 할 수 있는 카자스케르(kazasker)에 올랐다. 이후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재상(Sadrazam 또는 vezîr-i âzam)직에 임명되었다. 카라 할릴은 예니체리 제도와 데브쉬르메 제도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대재상직 이외에도 군사 업무를 병행했다. 카라 할릴은 1387년 병사했고, 이즈니크에 안장되었다.

카라 할릴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알리 파샤(Ali Paşa, ?~1406년)는 1387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재상직을 이어받았고 1388년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원정에 참여했다. 제1차 코소보 전쟁에서 무라드 1세가 사망하자, 무라드 1세의 장남 바이예지드 1세(I. Bayezid, 재위: 1389년~1402년)가 술탄 위를 이어받는 것을 지지했으며 바이예지드 1세 시대에도 대재상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무라드 1세의 아들 쉐레이만 쉐레비(Süleyman Çelebi, 재위: 1402년~1411년)의 아나톨리아와 루멜리아 통치를 지지했으며 그의 대재상으로 활동했다. 1406년 사망한 알리 파샤는 부친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자손은 없다.

카라 할릴의 둘째 아들 일리아스 파샤(İlyas Paşa)는 군에 복무했으며 1390년 코소보 전투에서 전사했다. 가문의 세레즈(Serez) 지파는 이 일리아스 파샤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진다.

카라 할릴의 막내아들 이브라힘 파샤(İbrâhim Paşa, ?~1429년)는 무라드 2세(II. Murad, 재위: 1421년~1444년) 시대에 대재상직에 임명되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했다.

이브라힘 파샤의 장남 할릴 파샤(Halil Paşa, 재임: 1439년~1453년)는 카자스케르직(職)을 지낸 후 대재상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차 1444년~1446년, 2차 1451년~1481년)의 퇴위에 관여하고, 이스탄불 정복 작전에서도 메흐메드 2세와 반목하여 이스탄불 정복 직후인 1453년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당했다.

이브라힘 파샤의 차남 마흐무드 첼레비(Mahmud Çelebi)는 무라드 2세의 여동생이자 메흐메드 2세의 고모인 합사 술탄(Hafsa Sultan)과 결혼하여 오스만 황가의 사위로 기록되었다.

할릴 파샤의 여섯 아들과 두 딸 중 막내아들인 이브라힘 파샤(İbrâhim Paşa, 1429년~1499년, 할아버지 이브라힘과 구분하기 위해 이브라힘 2세 라고도 부른다)는 찬다를르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대재상직을 지냈다. 1453년 판사가 된 그는 1465년 카자스케르, 1498년 대재상직에 임명되었고 베네치아 원정 등에 참여했다. 그는 1499년 원정 중 사망했다.

이브라힘 2세 이후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직에 오른 찬다를르 가문의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가문의 일원들은 학자, 수도승과 같은 다른 직종에서도 활약했다. 또한 데프테르다르(defterdar, 재무부 장관), 니샨즈(nişancı, 술탄과 고관의 문서를 봉인하는 직위)와 같은 행정 직위나 카자스케르, 판사직 등을 맡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찬다릴리 가문
 - 다국어 표기 Çandarlı ailesi (튀르키예어), Çandarlılar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대재상, 예니체리, 데브쉬르메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epe, M. Münir. “ÇANDARL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209~211.
- Uzunçarşılı, İsmail Hakkı. *Çandarlı Vezir Ailesi*, Ankara:Türk Tarih Kurumu, 1988.

I G103 | 찬드만 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Chandmani Uul

찬드만 울은 오브스 아이막의 중심 도시인 울란 곶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붉은색 바위산으로, 이곳에서 초기 철기시대 목관묘 및 흉노 무덤 10기가 확인되었다. 소련 공동조사단이 1973년 3기, 1974년 4기를 발굴했고, 1973년 발굴 내용만 정식 발표되었다.

정식 보고된 무덤 가운데 29호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졌다. 지표면에 노출된 적석의 직경은 4.5m 가량이다. 적석 아래 깊이 0.5m에서 묘광선이, 깊이 1.3m에서 목관이 각각 확인되었다. 목관의 크기는 길이 1.8m, 높이 0.4m, 너비 0.5m 가량이다. 목관 남벽 바깥에 판석을 이용해서 곱을 세운 흔적이 남아 있다. 무덤은 이미 도굴되어 관 안에서 두개골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부위는 비교적 원래 위치에 있었다. 허리 주변에서는 검은색 토기편, 철환, 화살촉이, 두 다리와 무릎 주변에서는 철촉과 삼익형 철촉이 확인되었다. 왼쪽 팔과 오른쪽 발 옆까지 골제 활채가 놓여 있었는데 시신 위에 활을 가로로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에 조사한 44호, 50호, 51호는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이 유적에서는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국 거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적의 연대는 B.C. 3세기~A.D. 1세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찬드마니 울
- 다국어 표기 Чандмань Уул(러시아어), Chandmani Uul(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2011.
Д. Цэвээндорж, Д. Баяр, Я. Цэрэндагва, Ц. Очирхуяг . «Археология Монголии». Улаанбаатар, 2008.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G104 | 찰드란 전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Battle of Chaldiran

사파비의 샤 이스마일 1세(I İsmayıl, 재위: 1501년~1524년)는 아제르바이잔 칸국과 인근 영토를 단기간에 통일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고, 호라산이나 이라크와 같은 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정복했다. 이것은 빠르게 성장 중이던 오스만 제국의 반감을 불렀다.

1507년 샤 이스마일은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국경을 넘어 둘가드르 공국(Dulqədiroğulları bəyliyi)을 공격한다. 샤 이스마일은 이 과정에서 오스만의 셀림 1세(I. Selim, 재위: 1512년~1520년)의 외조부와 숙부, 조카를 살해한다. 이에 오스만과 사파비의 관계가 악화되고, 오스만 측은 군대를 모집한다. 이미, 오스만 제국에서 활동 중이던 크즐바슈가 전쟁을 계기로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술탄 셀림 1세는 전쟁 전 40,000명의 크즐바슈를 처형하고 추방한다.

1514년 8월 23일, 마쿠 근처 찰드란 평원에서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약 300명의 예니체리 부대와 중화기로 무장한 기병, 그리고 발칸 지방에서 모집한 부대로 구성된 10만여 명의 오스만 군대와 사파비 군대가 마주하게 되었다. 오스만군의 우익에는 아나톨루 베이레르베이(Anadolu Beylerbeyi) 시난 파샤(Sinan Paşa)가, 좌익에는 루멜리 베이레르베이(Rumeli beylerbeyi) 하산 파샤(Hasan Paşa)가, 중앙에는 대포와 예니체리가 배치되었다.

사파비군은 경무장한 기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크즐바슈 부대는 보병이나 대포와 같은 화기도 없었기에 규모나 장비 측면에서 오스만 군대보다 약했다. 약 40,000명의 사파비 군대의 우익은 한 샴르(Xan Şamlı)가, 좌익은 매햄매트 칸 우스타즐르(Məhəmməd xan Ustacılı)가 지휘했다. 전투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전투가 시작된 후, 오스만 보병대의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크즐바슈의 일부가 반격에 나섰다. 오스만의 기병대는 보병대를 도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오스만 기병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샤 이스마일은 전군에 공격을 명령한다. 그러나 이때 수비를 맡은 기병은 오스만 군대의 화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 오스만군은 최후의 공격을 가하고 사파비군은 후퇴한다. 이 전투에서 사파비는 샤 이스마일 1세가 부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햄매트 칸 우스타즐르,

사르 피레 우스타즐르(Sarı Pirə Ustacı), 휘세인 베이 랠레 샴르(Hüseyn bəy Lələ Şamlı), 하덤 베이 힐라패(Xadim bəy Xülafə)와 같은 지휘관들을 잃었다.

오스만 제국은 하산 파샤, 말코초을루 알리 베이(Malkoçoğlu Ali Bey), 말코초을루 투르 알리 베이(Malkoçoğlu Tur Ali Bey), 설레이만(Süleyman) 위웨이스 베이(Üveys bey), 설레이만(Süleyman) 등의 지휘관을 잃었다.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장한 사파비 여성들이 참전했고, 그들 중 일부는 오스만군에 잡혔다. 새래프한 비들리시(Şərəfxan Bidlisi)의 작품 『시애래프나메(Şərəfnamə)』를 보면, 사파비는 이 전투에서 약 5,000명의 기병을 잃었다.

이후, 오스만 군대는 사파비로 진격하여 호이(Xoy), 매랜드(Mərənd), 타브리즈(Təbriz) 같은 도시를 점령한다. 그러나 곧 예니체리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오스만군은 아나톨리아반도로 돌아온다.

찰드란 전투 결과, 사파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아나톨리아 동부 영토 일부를 오스만 제국에 넘겨주었으며, 실크로드의 통제권도 오스만 제국에 넘어갔다. 사파비는 곧 타브리즈에서 카즈빈(Qəzvin)으로 천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찰디란 전투, 찰도란 전투

● 다국어 표기 Çaldıran Muharebesi(튀르키예어), Çaldıran döyüşü(아제르바이잔어), Chaldiron jang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사파비, 샤 이스마일, 크즐바슈, 돌가드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3–Ci Cild (13–18–Ci Yüzlər). Bakı. “Elm”. 2007. 592 Səh.

Azərbaycan Tarixi Üzrə Qaynaqlar (Tərtibçi: S. Əliyərli), Bakı, 2007.

Əfəndiyev O.Ə. *Azərbaycan Səfəvilər Dövləti*; Bakı, “Şərq–Qərb”, 2007.

Xacə Zeynalabidin Əli Əbdü Bəy. *Təkmilətül-Əxbar (Səfəvi Dövrü — Şah İsmayıl və Şah Təhməsib Dövlətlərinin Tarixi)*. — Bakı: Elm, 1996–200s.

“Qızılbaşlar Tarixi”. *Tərcümə və Şərhlər*: M. Ə. Məhəmmədi. Bakı, “Azərbaycan” Nəşriyyatı, 1993.

Məmmədov E. N. *Orta Əsr İslam Fikrində Din və Fəlsəfə*. AMEA Z. Bünyadov Adına Şərqsünaslıq İnstitutu. Bakı: İdrak, 2019, S. 162~172.

Münşi İsgəndər Bəy. *Dünyanı Bezəyən Abbasın Tarixi (Tarixə-Ələmarayə-Abbas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 Evi.

Nağıyev Sadiq. “Qızılbaşlıq Haqqında”, Bakı, “Əbiləv, Zeynalov Nəşriyyatı” — 1997.

N Ə C Ə F O V T. H. Qaraqoyunlu və Ağqoyunlu Dövlətlərinin Siyasi Tarixinin Türkiyə Tarixiünaslıqında Tədqiqinə Dair.

“Azərbaycan Tarixinin Problemləri” – Bakı, 1993.

Nəcəfli T.H. *Qaraqoyunlu və Ağqoyunlu Dövlətlərinin Tarixi Müasir Türk Tarixşünaslığında.*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ərcim, 2015. - 336 Səh.

Onullahi S.M. *XIII-XVII Əsrlərdə Təbriz Çəhərinin Tarixi.* - Bakı, 1982.

I G105 | 처녀의 탑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탑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ız qalası

‘처녀의 탑’이라는 의미의 그즈 갈라스(Qız qalası)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탑이다. 현재 바쿠의 ‘도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채리시에해르(İçərişəhər) 남동 쪽에 있는 이 탑은 19세기 후반까지 카스피해 연안에 있었다. 해수면이 하강하고, 바다였던 부분을 매립하면서 탑의 위치가 카스피해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위치의 특성이 이 탑의 용도가 경계, 방어나 봉화대 이외에도 등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확한 건설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이슬람 이전의 사산 조 시대(6세기~7세기)에 건설되었다는 설과 기초 부분은 기원전 7세기~6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설까지 있다. 일반적으로는 12세기에 건설되었거나 혹은 그 이전에 건설된 탑을 12세기에 복원했다는 학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녀의 탑’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바쿠를 구원한 소녀 전설이나, 성안에 갇혔다가 자살한 소녀의 전설을 그 기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학술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경사진 암석 지대 위에 건설된 이 원통형 탑의 높이는 29.7m, 탑의 두께는 하단은 5m 가량이며 상단은 4m 가량이다. 탑의 내부는 어도비이고, 외부는 석재이다. 하단 13.7m까지는 사각형으로 절단된 석재를 순서대로 배열했지만, 상단부에는 돌출된 부분이 있게 석재를 배치했다. 탑의 최상단은 두 개의 넓은 벨트 형태이다. 원래 최상단은 이 지역의 다른 탑처럼 요철 모양이었으나, 수리 과정에서 평평하게 만들었다 또한 탑에 연결된 돌출부가 있다. 벽 형태의 이 돌출부는 방어 목적 또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녀의 탑

탑의 내부는 총 8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3m, 다른 층은 각 2.5m이다. 각 층은 얇은 아치형 지붕이 있다. 내부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다. 보안을 위해서 입구는 지면과 접하지 않고, 다소 높게 위치해 있으며, 사다리나 로프 등을 통해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계단도 2층에서 시작되며 총안(銃眼)만 있다. 3층에는 깊이 21m의 우물이 있다.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장식 요소는 없지만, 장식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탑 외부의 석재를 쌓은 방식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장식이라 말할 수 있다. 탑의 서쪽 14m 높이의 위치에 쿠팅 서체의 석문이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모두 명확히 읽기는 어렵고 오로지 ‘다우드의 아들 마수드’ 정도가 확인된다.

19세기에 러시아인들이 탑의 상단부를 수리하면서, 등대용 조명을 설치해 등대로 잠시 사용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 다시 수리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이트 타워, 크즈 칼라스

● 다국어 표기 Qız qalası(아제르바이잔어), Kız Kulesi(튀르키예어), Qiz qal'asi(우즈베크어), Қыз мұнарасы(카자흐어). Maiden Tower(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ayan, Yüksel. “Bakü Kız Kalesi”, *Sanat Tarihi Dergisi*, Sayı/Number XV/1 Nisan/April 2006, 113~124.

Musa Marjanlı(ed), *Qədim Qalanın Yuxuları*,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3.

I G106 | 처카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Chokar

무함마드 유수프 무함마드 요쿱 오글리 처카르(Muhammad Yusuf Muhammad Yoqub o'g'li Chokar)는 1889년 히바에서 태어나 히바의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 무함마드 요쿱 하로트는 호라즘에서 매우 유명한 가수(mashshoq)였다. 이는 훗날 처카르

가 시인이자 작곡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처카르는 우즈베크와 동양 고전 시인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공부하며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우즈베크 고전문학 작가들의 뒤를 이어 진보적인 신념을 계승하고자 했던 처카르는 시를 통해 칸과 주변 관리들의 부패한 행동을 폭로하고, 동시대 종교인들의 억압과 위선을 비난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아바즈 어타르(Avaz O'tar)와 함께 민주주의 문학 이념을 선전했다.

소련의 지배는 처카르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 시기에 호라즘 주 교육부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히바에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주도했다. 그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호라즘 민속 음악과 고전 음악에 기반을 둔 『호라즘 음악사 개론(Qisqacha Xorazm muzika tarixi, 1925년 모스크바 출판)』을 집필했다.

그는 주로 사회주의적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그의 대표작은 『레닌 동지(O'rtoq Lenin)』, 『10월(Oktyabr)』, 『10월의 깃발(Oktyabr bayrog'i)』, 『이 좋은 시절(Bu xush zamon)』, 『봄에게 바치며(Bahorga big'ishla)』, 『목화에 집중하며(Paxtaga ahamiyat)』, 『목화를 따세요(Paxtani tering)』, 『집단농장의 소녀(Bahorga big'ishlab)』, 『트랙터(Traktor)』, 『나의 사랑하는 조국(Sevikli Vatan)』, 『집단농장으로 갑시다(Kolxoz boraylik)』, 『우즈베키스탄의 15주년을 맞이하여(O'zbekiston 15 yilligiga)』, 『우즈베키스탄의 25주년을 맞이하여(O'zbekiston 25 yilligiga)』 등이다.

소련 정부는 처카르의 예술 및 문학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1924년 노동 적기 훈장(Mehnat Qizil Bayroq)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1944년 처카르는 우즈베크 SSR의 명예 예술가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52년 타슈켄트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수프 무함마드 요쿰 오굴리 초카르

● 다국어 표기 Chokar(우즈베크어). Чок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히바, 호라즘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muhamedova Farogat, *Chokar She'rlar*,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4.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G107 | 천사(이슬람)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ngel

천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에서 신과 인간을 잇는 역할을 한다. 신과 인간의 거리가 먼 종교에서는 그 역할이 크다. 정확히 ‘천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신에게 종속되어 인간에게 전달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천사, 또는 그와 유사한 존재들은 신의 명령, 소식을 전달하는 임무 이외에 수호의 역할이나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천사나 그에 준하는 개념(존재)은 고대 종교 이외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에도 존재한다.

이슬람에서의 천사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사자(使者)의 의미를 가진 말라크(malāk)에서 기원한다. 많은 투르크 언어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아랍어의 영향을 받거나 페르시아어의 천사에 해당하는 파리쉬타(Farishta)의 영향을 받았다. 천사를 튀르키예어에서는 Melek,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Mələk, 우즈베크어에서는 malak이나 farishta, 카자흐어에서는 Періштіре, 투르크멘어에서는 Perişde, 타타르어에서는 Фәрештә라고 한다.

이슬람교에서 천사에 대한 믿음은 기본이다. 이슬람교에서 천사는 빛에서 탄생했으며, 천사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알라의 부름을 듣고 그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천사는 먹고 마시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천사는 하나 이상의 날개가 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이 ‘날개’에 ‘편, 손’과 비유, 은유적으로 ‘힘’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천사에게 성별은 없다.

그들은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언자에게 축복과 인사를 보내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외에도 종말의 날에 나팔을 불고 부활에 대해 알린다. 또한,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으며 낙원과 지옥의 수호자들도 있다.

천사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알라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천사들은 알라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상징이며 신의 세계와 물질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알라는 천사를 통해 자연을



『집사』에 그려진 무함마드와 천사 가브리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관리하고, 천사들은 전능하신 알라의 통제하에 있다. 천사들의 능력과 지식은 알라가 내려주거나 가르쳐준 것 이상이 있을 수 없다. 천사들은 알라의 하나됨을 증명하며, 선지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천사에게 적대적인 것은 알라와 그의 사도들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천사들의 무오류성, 천사들이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지 여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슬람 예술에서도 천사는 주로 세밀화에 묘사된다. 천사는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날개의 빛깔은 다양하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천사는 초기에는 남성으로 묘사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여성으로 묘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멜렉, 멜레크, 말라크, 파리슈타, 파리쉬타

● 다국어 표기 Melek(튀르키예어), Mələk(아제르바이잔어), Фәрештә(타타르어), malak(우즈베크어), farishta(우즈베크어), Періште(카자흐어), Perişde(투르크멘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uB6>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erverli, M. Sait. “Melek”,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9, Istanbul: TDV, 2004, pp.40~42.

Macdonald, D. B. -W. Madelung, “Malā`ika” *Encyclopaedia of Islam* VOI. VI (ed; C. E. BOSWORTH, E. VAN DONZEL, B. LEWIS AND CH. PELLAT), Leiden; Brill, 1991, pp.216~219.

Blair, Sheila. *Images of Paradise in Islamic Art*, Dartmouth College: Hood Museum of Art, 1991.

I G108 | 철륵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부족 연맹체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ie-le

흉노 시대 이래 중국 문헌에 기록된 정령(丁零)·고차(高車)의 후신(後身)인 투르크계 부족 연맹체를 지칭한다. 정령은 주나라 시대 귀방(鬼方)으로 불렸다. 그들은 원래 바이칼호의 서쪽 지역에 있는 예니세이강과 레나강 제방 인근에서 살았고 흉노 제국의 시대에도 그 근처에 복속되어 있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철륵의 기원으로 두 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투르크(Türük)의 음사(音寫)로 보는 설로,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에 산재한 투르크계 민족을 투르크(Türk)라 하는데, 이것은 ‘Türük’라는 말이 축약된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돌궐 비문에 등장하는 툴레스(Töles)의 음사로 보는 설인데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중국 문헌에 따르면, 철륵은 15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설연타, 회흘, 도파, 골리간, 다람갈, 동라, 복골, 발야고, 갈라록, 발실밀, 혼, 곡설, 해결, 글필, 백습 등이다. 수(隋)나라 때에는 바이칼호 남쪽에서 아랄해(海)·카스피해(海) 북쪽에 걸친 지역에 분포했다.

돌궐에 정복되었으나 그 일부 부족인 설연타(薛延陀)가 630년 당나라와 협력하여 동(東)동궐을 일시 와해시켰다. 646년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 육도독부(六都督府)와 칠자사주(七刺史州)로

나뉘어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682년 동돌궐의 부흥과 더불어 당나라에서 독립하고, 동돌궐에 항복해 예속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위구르가 강성해져 철륵을 주도하는데 9개 부족이 연합한 토쿠즈-오구즈(Toquuz-Oghuz)라는 부족연맹을 통합한 것이었기에 온 위구르(On-Uygur, 10 위구르)라고 불렸다. 위구르는 744년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오르콘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목 국가를 수립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정령, 툴레

● 다국어 표기 鐵勒(중국어), Töles(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돌궐, 흉노, 오르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6373&cid=40942&categoryId=31642>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102&docId=160868203&qB=7Yag7L+g7KallOyYpOq1rOymi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Mackerras, Colin, *The Uighur empire : according to the T'ang dynastic histories : a study in Sino-Uighur relations, 744~840* (2n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ed.). Canberra, 1972.

Pulleyblank, Edwin G., "Central Asia and Non-Chinese Peoples of Ancient China".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I G109 | 청년투르크당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단체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Young Turks

오스만 제국 말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압뎀 하미드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항해 입헌정치를 주장하며 이스탄불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체를 지칭한다. 이들은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개혁 세력이다. 1876년 서구 강대국들의 압력과 영토 침략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된 압뎀 하미드 2세는 187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서구식 개혁정치를 중단하고 이슬람의 자주성과 통일을 강조하는 보수정치를 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탄의 보수정치와 중앙집권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 급속히 성장했다.

청년투르크당의 기원은 헌법을 부활하고 전제정치를 폐지시키기 위해 1889년 대학과 사관학교의 학생들이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다. 청년투르크당은 1906년 공식 정당인 ‘연합진보당 [İttihat ve Terakki Cemiyeti : 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CUP)]’를 결성하면서 실질적인 혁명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08년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했으며, 발칸반도의 분열에 대해 오스만 왕가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청년투르크당 지도부는 1908년 5월 13일, 술탄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어 입헌군주제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술탄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투르크당은 1908년 6월 12일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에 성공한 청년투르크당은 1908년 6월 24일 헌법을 부활시켰다. 또한 의회제를 도입하고, 전국적인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1909년 선거에서 청년투르크당의 핵심 정당인 CUP가 압승했다. 아랍계 60명, 알바니아계 25명, 아르메니아계 14명, 슬라브계 10명, 유대계 4명 등 총 104명이 당선돼 청년투르크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청년투르크당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당 지도부가 국외로 탈출하고 오스만 제국의 패망으로 1922년 11월 자연히 해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청년투르크, 영턱스
- 다국어 표기 Jön Türkler(튀르키예어) Genç Türkl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뮐 하미드 2세,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0979&cid=51716&categoryId=51716>
- 참고문헌(오프라인) Hasan Kayali. *Arabs and Young Turks: Ottomanism, Arabism, and Islamism in the Ottoman Empire, 1908~191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M. Şükrü Hanioglu, *Preparation for a Revolution: The Young Turks, 1902~1908*,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Stephen Kinzer, *Crescent and Star: Turkey Between Two Worlds*, Farrar, Straus and Giroux, 2001.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I G110 | 청동그릇(흉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bronze bowl

흉노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청동그릇은 청동술을 제외하고 주로 주전자와 쟁반이다. 주전자는 대형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바닥에는 청동술에 붙은 다리와 유사한 굽다리가 있으며, 어깨 부분에는 주구, 그 반대편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뚜껑이 있는 유물도 있다. 이들 유물이 나온 곳은 아이막의 노인울라 유적 25호 무덤, 호흐 우추링 도고이 유적 1호,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골모드 유적 1호와 20호 무덤, 도르릭 나르스 유적 2호 무덤이다.

주로 파손된 채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타히팅 핫거리 유적과 호흐 우추링 도고이 유적에서는 완형이 출토되었다. 흉노 무덤에 부장된 주전자는 술을 담는 용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동 주전자는 기형이 서로 비슷하지만 무덤의 형식에 따라 문양이나 장식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호흐 우추링 도고이 유적 1호 무덤에서 나온 완형의 주전자는 양쪽에 손잡이가 붙은 것으로 손잡이 위에는 버섯 모양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이외에 귀족 무덤에서 발견된 주전자에도 신화적인 동물장식이 있다.

타히팅 핫거리 유적에서 출토된 장식에는 동물 전체가 표현되어 있다. 신화적 동물을 표현한 것인데 표범과 비슷하고 몸체는 용과 유사하며, 다리는 네 개다. 골모드-II 유적 1호 무덤에서 나온 금은 마구와 옥기, 마차 부품 등에 장식된 동물 문양과도 유사한데,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은 것이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쟁반은 음식, 삶은 고기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서몽골의 철기 시대 파지리크 문화 무덤에서는 네 개의 소형 다리가 달린 나무 접시가 많이 발견되는데, 양과 소의 뼈가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유사한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비 알타이 지역의 흉노 무덤에서도 대형 접시가 출토된 바 있다. 하지만 흉노 무덤에서 나오는 접시는 주로 청동제이다. 타히팅 핫거리 유적 1호, 골모드 유적 1호 등에서 출토됐다. 평면이 원형과 타원형인데, 양쪽 좁은 면의 구연부 아래에 손잡이용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도르릭 나르스 유적 2호 출토품은 평면이 원형이고, 손잡이 아래에 고리가 달려 있고 동물 문양이 장식되었다. 흉노의 청동그릇 중 쟁반은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그

이전 시대인 파지리크에서는 나무 쟁반을 사용했다. 청동 쟁반과 함께 귀족 무덤에서 발견되는 청동 주전자도 피장자의 계급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청동 그릇

● 다국어 표기 Бронзовая чаша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Полосьмак Н. В., Богданов Е. С.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 гг. —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2016.

I G111 | 체벤도르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seveendorj D.

체벤도르지는 몽골의 고고학자, 흉노 연구자이다. 그는 1972년 연구보조원으로 고고학과 인연을 맺었고, 2002년에는 고고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후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았다. 그는 1998년 'Chandmani burials'에 대한 연구, 즉 몽골의 고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구석기 시대부터 흉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프랑스, 러시아 등 외국에서도 그의 저서가 출판되었다. 그는 논문 400편을 발표하고 저서 26권을 썼다. 공동 연구 출판물도 30편을 발간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소련과 함께 청동기 시대 및 철기 시대 공동 연구를 했다. 소련 측에서는 볼코프(V.V. Volkov)가 참여했다. 이들은 찬드만산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1970년대 말에는 소련의 오클라드니코프(Okladnikov)와 함께 구석기 유적 및 몽골의 암각화 유적을 확인했다. 특히 고비 알타이에서 이시겐 툴가(Ishgen Tolga) 유적을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 발견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는 두 마리의 황소와 쟁기로 땅을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1980년대부터는 오니 톨트, 솔비 울 등 흉노 무덤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까지 러시아의 바실레프스키(Vasil'evskii), 데레비얀코(A.P. Derevyanko) 등과 공동으로 연구 조사했다. 그는 러시아와 헝가리의 고고학자들과 함께 수이 톨고이(Sui Tolgoi), 모린 톨고이(Morin Tolgoi), 바얀부라그(Bayanbulag), 버러(Boroo) 성지 등도 발굴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체벤도르즈

● 다국어 표기 Цэрэндорж Д. (러시아어), Tseveendorj D. (몽골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Д. Цэвээндорж, Д. Баяр, Я. Цэрэндагва, Ц. Очирхуяг. «Археология Монголии».

Улаанбаатар, 2008.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G112 | 체슈메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구조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Çeşme

튀르키예어 체슈메는 수도관이 설치된 수도로, 가정이나 사적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대중을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를 의미한다. 즉 일종의 공공수도이다. 체슈메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의 눈(目, chesm)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물이 흐르는 근원을 눈으로 부른 것에 기인했다.

이슬람교에서 물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을 보급하는 일을 선행 중 하나로 여긴다. 하디스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문이 등장한다. 이슬람 이후 투르크 사회에서도 부유한 이들은 사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물을 팠다. 같은 맥락으로 체슈메를 만들거나 체슈메 관련 재단을 세우는 것도 선행으로 취급받았다.

투르크인들은 일반적으로 체슈메를 도시나 농촌 거주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다. 일부는 별판 등에 설치하기도 했다. 거주지 인근 길에 있는 체슈메는 지역민에게 물을 제공하는 용도



슬탄 아흐메드 3세 체슈메

로 수도꼭지가 달려 있으며, 동물을 위한 수도꼭지를 따로 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체슈메가 설치되는 곳은 수원(水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수원에서부터 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왔다. 물을 공급받기가 어렵지 않은 위치인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설치하지 않고 계속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다.

체슈메는 후원자의 사정, 설치 위치, 당시의 유행, 활용 방식 등에 따라 형식과 크기에 큰 차이가 있다. 벽면에 수도꼭지가 달린 형식이나, 현대의 공공 식수대처럼 단독의 작은 기둥 형식이 있는가 하면, 작은 건물 수준으로 지붕이 있는 대형 체슈메도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체슈메도 많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체슈메

- 다국어 표기 çeşme(튀르키예어), cy бҫпқак(카자흐어), favora(우즈베크어), fəwara(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pusulahaber.com.tr/d/other/cse5.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4/Tophane_%C3%87e%C5%9Fmesi_-_Nisan_2013_p1.JPG/1280px-Tophane_%C3%87e%C5%9Fmesi_-_Nisan_2013_p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Eyice, Semavi. “Çeşm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277~287.
Aytöre, Ayhan. “Türklerde Su Mimarisi”, *Milletlerarası Birinci Türk Sanatları Kongresi-Kongreye Sunulan Tebliğler* (1959), Ankara 1962, pp.45~69.

I G113 | 체에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Cheek

체에크는 남부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하카스 투르크인들의 전통 자수 예술의 한 형태이다. 체에크는 하카스인들의 민속 의복인 모피로 만든 장옷이나 시게데크라 알려진 장 조끼의 뒷면에 머리를 땡듯 길게 다양한 색의 실로 꿰맨 장신구이다. 하카스인들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장인을 *çeek salcañ kızı*(색실을 땡는 여성)이라 부른다.

체에크는 하카스인들의 특수 재봉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다. 체에크를 재봉할 때 재단사는 필요한 유색실들을 무지개색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러한 기술은 시게데크 봉제뿐만 아니라 이데크티그 톤(겨울 모피 코트와 함께 입는 바지) 재단처럼 다른 하카스 민족 전통 의상 제작에도 적용된다. 미누신스크의 마르타야노브(Martyanov) 박물관에 전시된 하카스인들의 이데크티그 톤 자수에 사용된 유색실은 갈색, 라일락색, 자주색, 분홍색, 빨간색, 연한 녹색, 녹색 순으로 배열되지만, 또 다른 체에크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등의 순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체크
- 다국어 표기 Cheek(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시계테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а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с. 57., 1959.

I G114 | 첼칸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Chelkans

첼칸인은 알타이 공화국에 살고 있는 투르크계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쿠르마치-바이골(Курмач-Байгол), 수로나시(Суронаш), 마이스크(Майск), 비이카(Бийка), 추이카(Чуйка) 마을이나 투라차크(Турачак) 지역, 고르노 알타이스크(Горно-Алтайск)시에 살고 있다.

첼칸인은 역사적으로 쿠-키지(ку-кижи, 백조 사람)이나 레베딘치(лебединцы, 레베디-백조 강가에 사는 사람들)로 불렸다. 2000년 이전에는 첼칸인이 알타이 민족에 속했지만, 지금은 소수민족이다. 2010년 기준으로 알타이 공화국에 1113명, 알타이 변강에 10명이 살고 있다. 첼칸어는 북알타이어와 밀접하다. 대부분의 첼칸인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첼칸어 구사 비율은 56%, 알타이어 구사 비율은 18%이다. 첼칸인에 대한 첫 기록은 1625년 러시아 문서에 나오는데, 러시아 카자크 페도로프와 푸티메치가 텔레 땅과 첼칸인들의 땅에 파견되었다는 내용이다. 첼칸인의 생업은 사냥과 씨레 농사, 어업, 채집이다. 러시아인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양봉과 텃밭 농사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첼간인, 첼칸두인

● 다국어 표기 Челканцы(러시아어), Çalkandular(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xWPQ1CHAwo>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115 | 초나르-다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수공예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Chonar-Dash

투바어로 ‘부드러운 돌’을 의미하는 초나르 다쉬(Çonar daş)는 파고다이트(agalmatolite, 영어로는 pagodite)로도 알려져 있다. agalmatolite는 그리스어로 장식을 의미하는 agálmatos, 돌을 의미하는 lithos의 합성어이다. 이 광물은 주로 납석 광물로서 구성이 조밀하고 세립된 변성암이다. 파고다이트 또는 동석이라고도 하는 이 광물은 고대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부랴티아에서 인장, 가정 용품 및 보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투바인들도 고대부터 이 광물을 수공예품 제작에 사용하여 작은 조각상과 부적을 만들었다. 투르크어로 초나르 다쉬(Çonar daş)는 ‘절단 가능한 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뜻처럼, 강철 도구로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잘 부서지지 않아 사포로 연마하는 게 가능하며, 탄력 있고 부드러워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쉽다.

투바인들은 과거 스키타이인들과 같이 동물들의 신체 비율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 묘사하고자 하는 모습을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암석 위에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었다. 투바인들은 자신들의 유목 생활 방식을 석조 예술을 통해 표현했다. 석조품에 나타나는 낙타, 숫양 또는 말과 같은 동물 형상들은 알타이 민족의 공통 신앙 체계인 샤머니즘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투바인들은 바위와 암석이라는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완성했다. 또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도 이들의 예술 작품은 그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나르-타쉬
- 다국어 표기 Pagodite or agalmatolite(영어), agalmatolita /агальматолита(러시아어), Chonar-Dash / Чонар-Даш(투바어)
- 연관 검색어 투바어, 스키타이, 투바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alMrcys26A>
- 참고문헌(오프라인) Оорзхак В. О., “Добйцха Цхонар-Дасха: традиционнойа технологийа и элемен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тувинцев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Тхе Ехтрактион оф Цхонар-Дасх: традиционал тецнологй анд а парт оф Туван енвиронментал цултуре)”. Нов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уви / Тхе Нец Ресеарч оф Тува, но. 4, 2018.

I G116 | 초칸 친기소비치 발리하노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근식, 황영삼 ● 라틴 문자 Shoqan Shynghysuly Walikhanov

초칸 친기소비치 발리하노프(Чокан Чингисович Валиханов, Шоқан Шыңғысұлы Уәлихан)는 러시아 제국 최초의 카자흐인 학자로 역사, 민속학, 인류학, 지리학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의 본명은 무함메드-하나피야(Мухаммед-Ханафия, МҰхаммедканафия)이다. 발리하노프는 1835년 11월 오늘날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쿤티메스 본영(орда Кунтимес)의 아블라이 칸 손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853년 옴스크 유년사관학교를 마치고 서시베리아현에서 근무했고, 중앙아시아와 중국 탐험대에 참여했다. 1858년 발리하노프는 상인으로 변장하고 천산산맥을 횡단하여 동투르크িস탄(카슈가르, 알티샤하르,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으로 가서 동투르크িস탄 인류학과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1860년~1861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면서 포타닌, 베레진, 바실리에프,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혁명가, 민주주의자, 작가들과 교류했다.

발리하노프는 첫 번째 카자흐 출신 서양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인류학적으로 정확한 풍경과 세태를 묘사한 회화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그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동투르크িস탄 지역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수준 높고 가치 있는 학문적 성과를 이룩했다. 「중가르 스케치(Очерки Джунгарии, 1861)」, 「키르기스인들(Киргизы, 1858)」, 「아블라이(Аблай, 1861)」, 「청제국의 서쪽 변방과 쿨자市(Западный край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и и г. Кульжда, 1858)」, 「중국 지방 난루 동쪽의 6개 도시와 알티샤르의 정세(О состоянии Алтышара или шести восточных



초칸 친기소비치 발리하노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городо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Нан-лу, 1858~1859)», 그리고 발표되지 않은 1854년~1859년 사이의 일기와 「발리하노프 중위의 카슈가르 여행 보고서 중 발취(Выписка из отчета о путешествии в Кашгар поручика Валиханова)」 등이 그의 학문적 결과물들이다.

그는 키르기스의 영웅 서사시 「마나스(Манас)」를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음유시인 아킨(акын)들의 음률과 리듬, 시작법 등이 발리하노프의 주된 관심이었다. 또 그는 「코지 코르페시와 바얀 술루(Козы-Корпеш и Баянслу)」를 처음 채록했다. 그는 카자흐 유목 봉건주의와 러시아 전제주의의 식민 정치를 비판하고 카자흐인들이 정주 생활과 농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카자흐인들의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칸 벨리하노프, 초콘 발리호노프
- 다국어 표기 Валиханов, Чокан Чингисович(러시아어), Шоқан Шыңғысұлы Уәлиханов(카자흐어), Cho'qon Valixonov(우즈베크어), Çokan Velihanov(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마나스, 코지 코르페시와 바얀 술루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9/Chokan_Valikhanov_portrait.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genc.ru/world_history/text/1895386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5 т. / гл. ред. Б. Г. Аяган. — Алматы, 2006. — Т. 5. — С. 280~281

I G117 | 출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solmon

출몬은 몽골-통구스, 시베리아 지역의 투르크 민족 신화에 나오는 금성의 주인을 의인화한 천상의 신이다. 부랴트어로는 솔본(солбон), 하카스어로는 솔반(солбан), 알타이어로는 출몬(чолмон), 투바어로는 출반(чолбан) 또는 솔반(шолбан), 야쿠트어로는 출본(чолбон)으로 표기한다. 아침 별과 저녁 별의 역할을 한다. 알타이 샤먼 신화에서 아침 별(샛별, 타파흐 출몬, тапах чолмон)은 태양의 별로, 저녁 별(인니르 출몬, Иныр Чолмон)은 달 별로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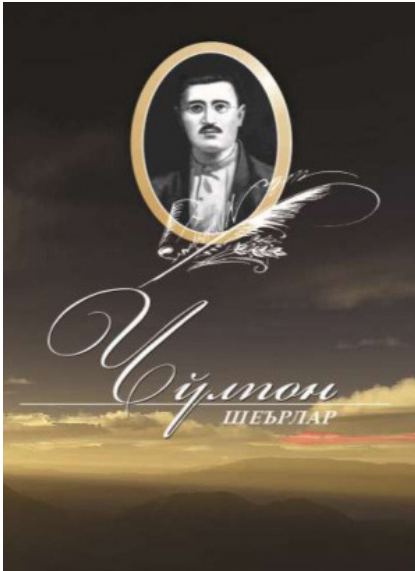
저녁 별은 몽골 민속이나 예벤키 민속에서 여성이고, 아침 별은 남성(모든 별의 주인)이다. 몽골 신화에 따르면 출몬이 하늘에 있을 때는 전쟁을 불러오고, 땅에 있으면 평화가 정착된다. 마술사 시두르구(Шидургу)가 하늘에서 내려온 출몬을 잡아 두어 전쟁이 더 이상 없게 하려고 제안했다고 한다. 야쿠트 신화에서 출본은 대지에 추위를 흩뿌린다. 최초의 야쿠트 샤먼인 차치가르 타아스(Чачыгар Таас)는 출본이 하늘에 떠 있게 만드는 고정 쇠를 잘라버려 출본을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다. 오이라트 민간 신앙에 따르면 생산의 힘이 출본에 집중되는데 토르구트 부족의 여성들은 출본에게 아이를 부탁한다고 한다. 예벤키인들은 출본을 강력하고 무서운 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출본이 하늘에 있을 때 동화를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 하카스 샤먼 주술에서는 솔반을 ‘하늘의 지배자’로 부른다. 알타이 서사시에서 출몬은 하늘의 바닥에 살며, 기적의 영웅 수호자인 쌍지팡이를 들고 황금 옷을 입은 노인이 ‘흰 출몬’으로 변신한다. ‘흰 출몬’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는 영웅의 말로 묘사되기도 한다. 출몬은 말과 연관되는 특성이 있다. 오이라트인들은 출몬을 얼룩말의 갈기로 부르고, 부랴트인들은 게세르에서 솔본을 ‘나와 함께하는 말’로 부른다.

부랴트 신화에서 솔본은 텡그리 신전에 등록되며(솔본 타이지-텡그리, 우하 솔본), 밝은 서방신과 관련되고, 샤먼의 주술에서 자주 등장하고 북에 그려진다. 솔본은 자연 사간-텡그리나 에세게 말란-텡그리의 아들이다. 솔본은 에세게 말란-텡그리의 가축을 돌보는 천상의 목동이며, 천마 목장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르몬
- 다국어 표기 цолмо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어, 야쿠트어, 야쿠트인, 게세르, 텅그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623.

I G118 | 출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Cho'lpon



출판 시선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

현대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가 압둘하미드 출판(Abdulxamid Cho'lpon)은 함자(Hamza),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 피트랏(Fitrat), 샷릿딘 아이니(Sadriiddin Ayni)와 같이 우즈베크 1세대 문학 예술인이다.

‘새벽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출판(Cho'lpon)은 별명이자 필명이며, 본명은 압둘하미드 술라이먼 오글리 출판(Abdulxamid Sulaymon og'li Cho'lpon)이다. 그는 1897년 안디잔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구식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공부하면서 동양 및 서양 고전문학을 독학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전과 근대 작가들, 서구와 러시아 작가들, 이웃 나라 당대 작가들의 작품도 깊이 있게 연구했다. 또한, 아랍어, 페르시아어, 튀르키예어 및 러시아어에 능통했으며, 서구와 러시아, 인도, 이웃 나라의 고전,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번역하기도 했다.

출판의 문학 활동은 1913년에 시작되었으며, 그의 첫 시, 단편, 수필 및 언론 기사는 <페르

가나의 목소리(Sadoi Fargona)>,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i Turkiston)>, <투르키스탄 지역 신문(Turkiston viloyatining gazetasi)>, <거울(Oyna)>, <소비에트(Sho'ro)>와 같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다. 「무지의 희생자(Qurboni jaholat)」와 「의사 무함마드요르(Doktor Muhammadiyor)」 같은 그의 초기 작품은 후진성과 무지에 반대하며 계몽주의 및 민족주의적인 이념을 담았다. 이 때문에 출판은 이미 혁명 직전에 계몽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사상의 젊은 예술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출판은 <붉은 깃발(Qizil bayroq)>, <공산주의자(Ishtirokiyun)>, <투르키스탄(Turkiston)>, <부하라 통신(Buxoro axboroti)> 등 신문사에서 일하며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시인의 세계관도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출판의 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깨어남(Uyg'onish, 1922)』, 『샘들(Buloqlar, 1924)』, 『새벽의 비밀들(Tong sirlari, 1926)』, 『서즈(Soz, 1935)』와 같은 시집에서 출판의 창작적인 완전성, 이념적 예술적 특징이 명확하게 보인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의 힘, 자유와 혁명, 도덕성과 여성의 자유와 같은 당시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현대적인 시대정신이 가득 차 있다.

또한, 출판은 인도주의적인 시인으로서 자신의 시에 현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담으며 항상 진실을 썼다. 그는 창작의 자유가 짓밟히고 진실이 금지된 1930년대에도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출판은 자신의 시에서 언어의 풍부함,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그의 산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단편 「눈 속의 튜립(Qor qo'ynida lola)」, 「달이 빛나는 밤에(Oydin kechlarda)」, 「빵 굽는 여자(Novvoy qiz)」, 「아침밥(Nonushta)」 등과 장편 「밤과 낮(Kecha va kunduz)」 등으로 소설 장르에도 귀중한 유산을 남겼다. 두 권으로 이루어진 『밤과 낮』은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투르키스탄에서의 비극적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는 그 당시 우즈베크 국민의 삶을 어두운 밤에 비유한다. 국가를 지배하는 사회적 불의, 차르 정권의 부패, 차르 권력의 붕괴, 차르 정부의 위기, 차르와 지방 공무원들의 비열한 행동, 악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린다. 이와 동시에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혁명이 가까워졌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출판은 극작에도 재능을 보였다. 「하인의 반란(Cho'rining isyoni)」, 「양치기의 사랑(Cho'pon

sevgisi)», 「주먹쟁이(Mushtumzoʻr)», 「카르쉬버예프 동무(Oʻrtoq Qarshiboyev)», 「공격(Hujum)», 「요르키네이(Yorqinoy)」와 같은 크고 작은 희곡을 창작했다.

문학 비평과 언론 기고문도 꾸준히 집필했다. ‘문학은 무엇인가(Adabiyot nadir)’, ‘소비에트 정부와 문예(Shoʻro hukumati va sanoe nafisa)’, ‘위대한 힌두(Ulugʻ hindu)’, ‘동부가 깨어난다(Sharq uygʻonmoqda)’, ‘훌륭한 학교의 주인(Buyuk maktab egasi)’, ‘타고르와 타고르학(Tagor va tagorshunoslik)’, ‘미르저 울루그벡(Mirzo Ulugʻbek)’, ‘500년(500yil)’과 같은 기사들은 당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우즈베크 문학과 예술에 유산을 남겼으며,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든 출판은 1938년 대숙청 시기에 ‘국민의 적’으로 낙인찍혀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 그는 처형된 지 18년 뒤인 195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출판

● 다국어 표기 Abdulxamid Choʻlpon(우즈베크어), Абдулхамид Чулп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밤과 낮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3880.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cho-lpon-1897~1938>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ʻ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ʻ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ʻzbekiston, 1993.

Choʻlpon, *Asarlar uch jildlik*, Toshkent: Gʻofur Gʻulom nomidagi Adabiyot va sanʼat nashriyoti, 1994.

Karimov N., *XX asr adabiyoti manzaralar*, Toshkent: Oʻzbekiston, 2008.

I G119 | 초파 토이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Choppa toy

초파(чоппа)는 천둥신의 이름 초파에서 유래했으며 토이(той)는 축제, 명절을 뜻한다. 즉 천둥신의 축제이다. 초파 토이는 천둥신에게 비와 풍년을 기원하는 발카르인(балкарцы)과 카라차예프인(карачаевцы)이 이슬람교 수용 이전부터 열어 온 봄맞이 축제이다. 이 축제는 울루튜즈[Уллутюз, 오늘날 엘브루스키(Эльбрусский)] 지역에서 이른 봄에 진행된다.

축제는 아침과 저녁 행사로 나뉘며 각 행사의 진행자는 서로 다르다.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로 밀, 보리, 귀리 짚단을 든 노인들, 보리, 밀, 귀리 씨앗을 든 소년들, 물동이를 든 소녀들, 막대기를 든 청년들, 맥주통을 든 장년 남성들, 염소 젖이 들어 있는 가죽 자루를 든 유부녀들이 모여든다. 노인들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젊은이들은 가죽을 상징하는 축제 가면을 쓴다. 대장간 앞에 동물 가죽을 깔고 진행자가 행사를 이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과 맥주를 끼얹고 진행자에게는 곡식을 뿌린다. 진행자는 귀족 출신 집안에서 특별히 선별된다. 모든 행사는 원무를 추면서 끝난다. 원무를 출 때는 노래를 부르며 지나간 삶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행운을 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파 토이
- 다국어 표기 Чоппа той(러시아어), Choppa toy(영어)
- 연관 검색어 발카르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oev-kovcheg.ru/mag/2014-20/4806.html>
<http://kcr.narod.ru/tansy/15.html>
<http://www.elbrusoid.org/articles/karachay-balkar-lit/421446/>
<http://www.elbrusoid.org/articles/karachay-balkar-lit/421446/>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G120 | 최브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스포츠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Chovkan

전통 스포츠인 최브캔(Çövkən)의 어원은 ‘나무로 만든 막대’를 의미하는 중세 페르시아어 ‘çûbikân/چوگان’이라는 학설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자료에 최브캔이 ‘나무’로 기록되어 있다. 즉 최브캔은 경기에 이용되는 나무 막대의 이름인 셈이다. 튀르키예어에서는 최으엔(çöğen)으로 변형되었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튀르키예어 표기 Dîvânu Lugâti't-Türk)』에도 çöğen으로 기록되었다. 쿠이이최브캔(kuyiçövkən), ‘초막 게임(çomaq oyunu)’ 및 ‘최브캔바지(çövkənbazi)’ 등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최브캔은 말을 탄 채 나무로 만든 끝이 구부러진 막대로 상대 골문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경기이다. 게임 중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고, 6명~8명으로 구성된 각 팀의 말 색상은 다르다. 경기 시간은 통상 30분이며 2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기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이 스포츠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1세기경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잔틴, 아랍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즉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남아제르바이잔 및 인접 국가들에서 수 세기 동안 이 경기를 즐겼다. 카라한 조와 셀주크 조의 기록에도 최브캔이 언급되고 있으며 후에 무굴 제국을 통해 인도에도 퍼진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이후 중국의 기록에도 최브캔이 나온다. 최브캔을 서양 폴로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최브캔은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다. 외랜갈라(Örənqala) 타워에서 실시된 고고학 발굴에서 최브캔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 유약 도기가 발견됐다. 이 그림들을 통해 이 경기가 9세기 베이래간 시(Beyləqan şəhəri)에 전파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경기의 핵심은 젊은이들에게 영웅심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카라바그 칸국(Qarabağ xanlığı, 1747년~1822년) 시대에도 최브캔에 대한 인기는 높았다. 슈샤 시(Şuşa şəhəri) 즈드르 평원(Cıdır düzü), 한칸디(Xankəndi)와 호잘르(Xocalı) 사이에 있던 아그담(Ağdam)시에서 경마 경기들이 열렸고 그중 하나가 최브캔이었다고 한다.



최브칸

Source: <https://unesco.preslib.az/images/>

현대에 들어서는 1950년 최브칸을 비롯하여 많은 아제르바이잔 승마 경기가 다시 열렸고 1960년 5월 아제르바이잔 서쪽 지역의 일부 시골 팀들이 최브칸 경기를 했다. 오늘날에도 최브칸 경기를 하는데,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대통령배를 놓고 큰 대회가 열린다.

2013년 최브칸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최브칸, 초브칸
- 다국어 표기 Chovkhan(영어), Çevgan(튀르키예어), Çevgen(튀르키예어), човкан(러시아어) Chavgon(우즈베크어), چوگان ایرانی(페르시아어), Çövkən(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nesco.preslib.az/images/site/image03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unesco.preslib.az/az/page/McWOq5gxuw>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Sovet Ensiklopediyası*. 10-cu cild. p.377.
Halıcı, Feyzi. “ÇEVGÂ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8, İstanbul: TDV, 1993, pp.294~295.

I G121 | 초호온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chohoon

초호온은 야쿠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중 하나이다. 초호온은 야쿠티아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빌유이(Vilyui) 지역에서는 초호온을 카부르(Kabur)와 베휴케(behYYke)라 한다. 초호온은 고대부터 만들어 먹은 야쿠트인들의 전통 요리 중 하나이지만, 1950년대 후반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초호온을 만들어 파는 노인 인구의 수가 점차 줄고, 비법을 전수받아야 할 젊은이들의 초호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초호온의 조리 방법은 꽤 간단한 편이지만,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호온의 주원료는 생버터이다. 실온에 30분 정도 둔 버터를 치대서 부드럽게 만들며 서서히 따뜻한 우유를 첨가해야 하는데, 이때 따뜻한 우유의 온도는 버터가 녹지 않는 온도여야 한다(약 64°C 이하). 만들어지는 버터 크림은 케이크용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버터 크림에 딸기, 또는 각종 베리 잼 등을 추가하며 천천히 저어준다. 만일 더 달콤한 초호온을 원할 경우에는 설탕을 추가하면 된다. 뚜껑이 있는 그릇에 버터 크림을 옮겨 담은 후, 뚜껑을 덮고 찬물에 담아 식힌다. 이때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도 무방하다. 차갑게 식은 초호온은 칼로 작게 조각 내고 토르티야, 팬케이크와 같은 것과 함께 제공한다.

야쿠트인들은 여름에는 초호온을 따뜻하게 해서 먹고, 가을과 겨울에는 반냉동 상태로 먹는다.

현재 초호온은 대량 생산돼 음식점 및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매점,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도 제공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호훈
- 다국어 표기 чохоон(러시아어), chohoon(영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russia.travel/objects/326908/>,

● 참고문헌(오프라인) Хамнаева, Н. И., and П. В. Смагло. “О СОХРАНЕНИИ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и сервиса. 2019.

I G122 | 추바시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Chuvash Language

추바시어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볼가강의 동쪽에 위치한 추바시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투르크계 언어이다. 추바시 공화국 북쪽으로는 마리엘 공화국, 동쪽으로는 타타르 공화국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모르도바 공화국이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자치주로 지정된 추바시 지역은 1925년 자치공화국으로 승격했다. 당시 소련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민족어 교육 정책으로 추바시어로 쓴 책, 잡지, 신문들이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이 1936년 헌법을 개정하고 민족 간 의사소통 문제점 및 교육의 단일성을 근거로 러시아어 우위정책을 내세우면서 추바시어는 공화국의 국어로서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러시아 연방 국가들의 민족 정체성 복원과 함께 민족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각 공화국들의 주권 회복과 함께 민족어 복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추바시어 사용 인구 1,843,300명 중 70%인 907,000명이 추바시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 러시아 연방공화국들 중 타타르스탄, 바시키르 공화국에서도 약 2백만 명이 추바시어를 사용한다. 추바시어는 화자 수는 적지만 투르크어족 중 가장 먼저 분파된 언어로 추정되기 때문에 투르크 언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추바시어는 러시아어 표기에 사용되는 33개의 키릴 문자에 [Ă ă], [Ě ě], [Ç ç], [Ÿ ŷ] 4개의 문자를 추가했다. 추바시어는 투르크어족의 오구르-볼가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투르크어들과는 구조적 공통점만을 공유할 뿐, 다른 투르크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추바쉬어

● 다국어 표기 Чăваш чĕлхи(추바시어), Çuvaşça, Çuvaş dili(튀르키예어), Cuvash(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ılmaz Emine, “Çuvaşlar ve Çuvaşça”, *Türkler*, c. 20, 110~118, Yeni Türkiye yay., Ankara, 2002.

Yılmaz Emine, *Çuvaşça Çok Zamanlı Morfoloji Bir Deneme*, GrafikerYaymcılık: 9, 1. Basım, Ankara, 2002.

김민수,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추바시 공화국』,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참글, 서울, 2018.

정경택,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제28권 4호, 31~52, 2012.

I G123 | 추바시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우덕찬 ● 라틴 문자 Chuvash people

추바시인은 러시아 연방의 추바시 공화국의 토착해 온 투르크계 민족이다. 추바시인은 150만 명 정도이며 러시아와 추바시 공화국에 절반씩 살고 있다. 추바시 민족은 인류학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상류 지역 추바시[비랴, 투리(вирьял или тури)]-북서 추바시, 중하류 지역 추바시[아나트 엔치(анат енчи)]-북동 추바시, 하류 지역 추바시[아나트리(анатри)]-남추바시가 그것이다.

추바시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를 믿지만, 원시 종교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 있다.

추바시어는 투르크 언어의 불가르 그룹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언어이다(불가르-하자르 그룹, 오구즈어). 대부분의 추바시인은 러시아어와 타타르어를 구사한다. 7세기~8세기에 투르크계인 불가르, 수바르 민족이 북 캅카스와 아조프해 연안 스텝 지역에서 불가강과 카마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9세기~10세기에는 그 지역의 핀-우고르 거주자들과 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불가르, 수바르 민족과 핀-우고르 주민들이 결합되어 추바시 민족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불가-불가르 왕국(Волжская Булгария, 10세기~13세기)에서 민족이 번성했고, 다음에는 금장 칸국(Золотая орда), 카잔 칸국(Казанское Ханство)에 속했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었다.

추바시인의 사회적 통합의 기본적 형태는 농업 공동체이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들이 독립적

인 거리나 마을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대가족을 형성했다. 추바시인들의 전통적인 생업은 농업이다. 보리, 호밀, 귀리 같은 곡물이나 아마, 대마 같은 농작물을 재배했고 목축은 발달하지 않았다. 양봉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나무 가공과 관련된 수공업이나 거적, 밧줄, 요업, 뜨개질, 자수 등과 같은 수공업도 발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추바쉬인
- 다국어 표기 чуваши(러시아어), تشوفاش(아랍어), Chuvash people(영어), Çuvaş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공화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124 | 추스티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Chustiy

추스티이(Chustiy)는 소비에트 시대 우즈베크 고전문학의 전통을 이어온 시인으로 ‘20세기의 나비이’라고도 불린다. 극작가 및 번역가였던 추스티이는 시인이자 가수로도 유명했다. 그의 시와 노래 수십 편은 축음기에 녹음되어 전해진다. 시인의 본명은 나비헌 누릴라허자 오글리(Nabixon Nurillaxo‘ja o‘g‘li)이고, 추스티이는 그의 필명이다. 그는 1904년 5월 태어났다. 그는 12살 때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며 가족의 생계를 돕고, 동시에 구식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10월 혁명 이후 추스티이는 소비에트 경제, 문화, 과학 및 교육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1930년~1939년에는 집단 농장(kolxoz) 및 언론 단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그는 무키미이 뮤지컬 드라마 극장에서 근무했으며,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문학기금의 이사를 맡았다. 1950년부터 1976년까지 우

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1976년 은퇴했다.

추스티이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약 20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대표작으로는 『승전기(Zafarnoma, 1939)』, 『살아서 천국에 간 할머니(Tiriklayin jannatga kirgan kampir, 1939)』, 『일어나(Qo'zg'ol, 1942)』, 『검(Shamshir, 1943)』, 『튤립 초원(Lolazor, 1945)』, 『꽃의 메아리(Gulsadosi, 1949)』, 『인생의 즐거움(Hayot zavqi, 1951)』, 『꽃피는 계절(Gul mavsumi, 1969)』, 『침묵한 자들의 세계(Indamaslar olami, 1969)』, 『가잘(G'azallar, 1978)』, 『소신 추스티이도 기억해주십시오(Yod eting kamtarin Chustiyni ham, 1984)』, 『하요트노마(Hayotnoma, 1988)』, 『충성의 꽃(Sadoqat gullari, 1992)』, 『영혼의 소망(Ko'ngil tilagi, 1994)』이 있다.

추스티이는 극작품 『다브룬 어타(Davron ota)』, 『희생자 우마리브(Qurbon Umarov)』, 『용감한 가족(Jasur oila)』과 허피즈(Hofiz), 서비르 테르미지이(Sobir Termiziy), 미르자 골립(Mirza G'olib), 알리 사르더르(Ali Sardor), 툴순저다(M. Tursunzoda)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추스티이는 1983년 8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타슈켄트, 코칸드, 나망간의 거리, 학교, 도서관, 영화관 등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2004년 6월에는 시인 추스티이 탄생 10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추스티의, 추스티, 나비훈 누릴라허자 오글리
- 다국어 표기 Chustiy(우즈베크어), Чуст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무키미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코칸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zamonaviy-o-zbek-she-riyati/chustiy-1904~1983>
<https://arboblar.uz/uz/people/chustij>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Chustiy, *Hayotnoma*,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8.

I G125 | 출림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Chulyms

출림인 대부분은 자신을 출림 사람이라고 하지만, 톰스크 카라가스(томский карагас)나 출림 타타르(чулымский татар), 출림 하카스(чулымский хакас)라고도 한다. 출림 민족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사는 토착 투르크 민족 중 하나로 소멸해 가는 소수민족이다.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역에 35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베리아 서부에 위치한 톰스크주 테굴데트스키 지역(Тегульдетский район)에 가장 많은 출림인이 살고 있다. 출림어는 투르크어족의 위구르 지파에 속한다.

출림이란 명칭은 오비강(Река Обь)의 지류인 출림강(Река Чулым)에서 유래한다. 민족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는데, 돌존(A.П. Дульзон)의 견해에 따르면, 출림족은 12세기~13세기 출림강 유역에 이주한 투르크 민족이 시베리아 원주민인 셀쿠프족(селькуп), 케트족(кет)과 결합해서 생겨났다. 16세기~17세기 러시아 왕국의 구성원이 되면서 출림인 상당수가 러시아인, 시베리아 타타르인, 하카스인에게 동화되었다.

1720년대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나, 샤머니즘 전통과 의례가 남아 있다. 출림인의 주업은 어업과 모피 사냥이지만 전형적인 타이가의 삶을 살면서 농업과 목축에도 종사한다. 출림인은 나무를 잘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나무로 숟가락이나 그릇, 찻잔, 카누, 활 등을 만들고, 느릅나무로 만든 다양한 식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출림인
- 다국어 표기 Чулымцы(러시아어), Çulim Tatarları(튀르키예어), Чулымд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오비강, 하카스인, 시베리아 타타르인
- 멀티미디어 링크 사라져가는 출림 민족
<https://www.youtube.com/watch?v=GrRf0rZcepQ>
- 참고문헌(온라인) 러시아의 사라져가는 민족, 출림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126 | 출산과 관련된 민간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Birth

투르크 전통 사회에서는 혼인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를 부인(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쓸모없는’, ‘황폐한’, ‘열매 없는 나무’, ‘꺼진 아궁이’ 등의 표현으로 속되게 부르기도 했다. 따라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데, 의학의 힘을 빌려 치료받는 것뿐 아니라 민간요법을 쓰거나 기자(祈子) 행위도 병행했다.

민간요법은 약초나 과일, 우유, 고기, 약재 등을 달인 물을 마시거나 몸(특히 배, 허리 등)에 바르는 것, 약수를 마시거나 온천욕을 하는 것 등이다. 기자 행위는 지역에서 영험하다고 믿는 샘물, 강, 나무, 산 등을 방문하는 행위, 이슬람 성인의 사당(Türbe)이나 종교적으로 신실한 이의 무덤을 방문하는 행위, 희생제물(kurban)을 바치는 행위, 마을이나 지역에서 이슬람 학식이 높은 자 혹은 지혜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연장자(hoca), 무당(büyücü)을 찾아가 부적이나 주술을 부탁하는 행위, (신성한) 나무에 소원을 적은 천을 매다는 행위 등이다.

이슬람 성인의 사당을 방문하여 기자치성(祈子致誠)을 드리는 행위는, 전통 신앙 중 하나인 조상령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조상령에게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던 행위에서 유래된 것이다. 나무에 천을 매다는 행위는 투르크 전통 민간 신앙 가운데 수목 신앙, 천신 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 민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다. 근래에도 이따금 목격되고 있으며,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행위로 변화했다.

전통적으로 투르크 사회는 부계 중심 사회로 남자아이의 출산을 더 선호했다. 출산과 관련된

의례는 아이(자식)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들의 탄생으로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과 가문 전승 의식에 따라 투르크 민속에서 기자, 성별 예측, 아이의 이름짓기 등의 행위가 이어져 왔다. 따라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성별 예측에도 관심을 지녔다. 태몽으로 아이의 성별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이 말을 타는 꿈, 집에 깃발이 꽂혀 있는 꿈, 산모가 여자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꿈, 배(과일), 총기 등을 태몽으로 꾸면 아들을 낳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임신부가 꿈에서 과일, 구슬, 사과를 보거나 말에서 떨어지는 꿈, 자개 단추를 다는 꿈, 남자아이를 보는 꿈 등을 꾸면 딸을 낳 것이라고 믿었다. 현대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집에서 산실을 꾸미고, 산파와 경험 많은 여성들이 출산 준비를 도왔다. 출산 전에는 임신부와 태아를 외부적, 내부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산실 축성 의례를 했으며, 난산(難産)을 막고 순산하기를 바라는 다양한 민속 행위가 행해졌다.

출산 때 행해지는 대부분의 민속 행위들은 모방·유도 주술에 속하는데 막히거나 잠긴 곳을 푸는 행위를 통해 순산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산실에는 출산에 필요한 따뜻한 물, 축성받은 물, 수건, 솜, 알코올 등 출산과 산후 처치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는다. 전통적으로 산실은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는데, 특히 아이를 잃은 여성의 출입을 금했다.

순산을 위해 아나톨리아 내륙 지방에서는 ‘하와 아나는 엘리(Havva Ananın Eli, 하와 어머니 손)’, 메리엠 오투(Meryem out, 마리아 풀)’, ‘메 리엠 아나 엘리 오투(Meryem ana eli out, 어머니 마리아 손풀)’, ‘파트마 아나 엘리 오투(Fatma ana eli out, 어머니 파트마손 풀)’ 등으로 불리는 식물인 허브베니트를 말려 물에 타 마신다. 허브베니트는 강장 작용, 수렴 작용, 소독 작용 등이 탁월한 풀로 이 물을 마시면 출산 시 고통이 줄어들고 난산을 겪지 않게 된다고 믿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움 일레 일길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Doğum ile ilgili inanışla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I G127 | 출생 40일 축하식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yrkynan shygaru

카자흐인들은 신생아 출생 후 40일이 되면 축하 행사를 갖는다. 카자흐인들은 아기가 출생하여 40일이 지나면 건강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며, 이때 외부인 접촉을 허용한다. 이를 기념하면서 벌이는 잔치가 바로 ‘크르크난 쉬가루’이다. 이 잔치에는 여자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어 준비된 잔칫상(다스타르한)을 받는다.

의식은 우선 40개의 돌맹이와 은반지를 목욕통에 넣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여자들이 각각 물 40 스푼씩을 물통에 넣고 아기를 위해 잠시 소원을 빈다. 이렇게 모인 물을 가장 존경받는 여자 친척이 아기에게 적시면서 “30개의 등뼈와 40개의 갈비뼈가 튼튼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의 말을 한다. 그리고 이 여성이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처음으로 자르고 깎는다. 처음으로 잘린 머리카락은 손바닥으로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아기 옷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바느질된 공간에 부착하거나 별도의 상자에 보관한다. 처음으로 깎인 손톱은 깨끗한 땅에 묻는다. 아기를 씻긴 물은 며느리 중 한 사람이 깨끗하게 씻긴 암소에게 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기를 부자로 만든다고 카자흐인들은 믿었다. 물통에 남아 있는 물품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분배되었다. 이 전통은 현재 카자흐스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르크난 쉬가루
- 다국어 표기 Кыргызнан Шығару(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의 출생의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DS7iF4i2qI>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hobbex.com/node/47611>

I G128 | 치닐리 쿠피슈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Çinili Köşk

치닐리 쿠피슈크는 톱카프 궁전 내에 건설된 건물로 지금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Arkeoloji Müzesi) 건너편에 있다. 쿠피슈크(köşk)는 정원 내에 건설된 장식적인 집이나 저택 또는 소궁을 의미한다. 치닐리 쿠피슈크의 정식 이름은 스크차 사라이(Sırça Saray, 유리 궁전)이나 현재는 전면부의 타일 장식에서 이름을 딴 ‘치닐리(çinli, 타일이 있는) 쿠피슈크’로 더 많이 불린다.

치닐리 쿠피슈크는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 시대인 1472년에 건설되었다. 쿠피슈크에 남아 있는 석문에 따르면, 메흐메드 2세의 명으로 건설됐다. 건축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737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건물 전면을 포함한 많은 곳이 보수 및 복구돼 원형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 19세기에는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 1842년~1910년)에 의해 제국 박물관(Müze-i Hümayun)으로 사용되었으나 유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쿠피슈크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현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일부 유물을 옮겼다. 고고학 박물관을 확장한 1908년에는 쿠피슈크에 남아 있던 고고학 유물 전부를 새 박물관으로 이전시켰다. 대신 고고학 박물관에 있던 투르크 이슬람 유물을 쿠피슈크로 옮겨 투르크-이슬람 유물 박물관(Türk ve İslâm Eserleri Müzesi)으로 이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박물관은 다시 문을 닫았고, 수리와 복원을 거쳐 1953년 이스탄불 정복 500주년을 기념하여 이스탄불을 정복했던 메흐메드 2세의 유물을 전시하는 파티흐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67년 투르크 타일 예술 박물관(Türk Çini Sanatı Müzesi)으로 바뀌었다.

치닐리 쿠피슈크는 직사각형 평면에 2층으로 되어 있다. 주로 흰색 석재를 사용했으며 양면과 후면에는 붉은색 벽돌을 덧대었다. 후면 중앙은 돌출되어 있다. 후면 하단에는 원래 카펫 문양을 응용한 장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볼 수 없다. 전면을 이루는 2층 형태의 갤러리 상단 주두는



치닐리 퀴슈크 정면

18세기 보수 공사 중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 뒤편 중앙은 타일로 장식된 이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완 양옆에는 이완과 유사하나 좀 더 작은 크기의 아치형 벽감이 있다.

치닐리 퀴슈크 1층은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완은 볼트와 돔으로 덮여 있다. 밖에서 볼 때는 평면인 옆면의 내부도 이완과 아치로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 지하층도 1층과 유사하나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지하층의 방은 대체로 작고 볼트로 덮여 있다.

치닐리 퀴슈크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이완의 안쪽 면과 방을 덮은 타일 장식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훼손되었다. 전면부와 이완에는 모자이크 기술로 처리한 타일이 있다. 아치에는 터키색 바탕에 흰색 타일을 모자이크 기술을 이용해 쿼픽 서체 장식을 했다. 이완 내에는 남색 바탕에 흰색과 노란색 술루스 서체로 장식한 석문이 있다. 전면부의 큰 이완 주변에는 띠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타일 장식이 있다. 그 외 내부 공간은



치닐리 쿠피슈크 정면 이완

바닥에서부터 3m 높이까지 6각형 타일로 장식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은 부분은 삼각형 타일을 조합했다. 특히 일부 장소에서는 중앙에 금박으로 문양을 강조한 터키석 색 타일을 볼 수 있다.

비록 여러 번의 보수 공사로 원형을 많이 잃었으나 네 개의 이완을 기본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건축 양식이 오스만 초기 시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의미가 큰 건축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닐리 쿠피슈크, 치닐리 쿠피슈크
- 다국어 표기 Çinli Köşk(튀르키예어), Tiled Pavilion(영어), Tiled Kiosk(영어)
- 연관 검색어 톱카프 궁전, 오스만 함디 베이
- 멀티미디어 링크 치닐리 쿠피슈크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8/cinili-kosk-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tanbul.ktb.gov.tr/TR-165594/cinili-kosk.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ap, 1986.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pevi, 1997.

Eyice, Semavi. “Çinli Köşk”,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337~341.

I G129 | 치쉬티

● 시기 기타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hishtiyya

치쉬티는 인도에 최초로 설립된 이슬람 수피즘 종단 중 하나이다. 종단을 체계화한 콰자 무인 알 딘 하산(Khwadja Mu'in Al-Din Hasan, 1142년~1236년)의 계보에 속한 아부 이샤크 샤미(Abu Ishaq Shami, ?~940년)가 치쉬티 지방 출신이어서 ‘치쉬티’라는 이름이 붙었다. 종단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4대 칼리프 알리(Alī ibn Abī Ṭālib, 656~661년)로 이어져 예언자 무함마드까지 닿는다. 인도에서 증흥하기 전의 치쉬티 종단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인도 무슬림의 영적 생활에 큰 역할을 한 이 종단은 12세기에 콰자 무인 알 딘 하산이 체계화시키며 인도 전체에 퍼졌다.

치쉬티 종단의 역사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종단 초기로 셰이크들이 시골이나 소도시를 중심으로 교세 확장을 위하여 노력한 1200년~1356년경이다. 이 시기에 편자브 지방과 라즈푸타나 지방에 치쉬티 종단의 텍케(tekke, 수피 수도승들의 숙소이자 예배 장소)를 건설했다. 이후 도시가 아닌 교외 지역에도 종단의 텍케를 건설하며 중앙 텍케가 힘을 얻게 된다. 이 시기에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는 것은 꺼리는 편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투글루크 왕조의 무함마드 빈 투글루크(Muhammad bin Tughluq, 재위: 1325년~1351년)가 국가 전체에 치쉬티 종단의 확대를 강요한 시기이다. 투글루크의 노력으로 종단은 점차 커져 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 조직은 마비되어 간다. 이에 종단의 일부 셰이크

들은 술탄과 손을 잡기를 거부한다. 반면, 젊은 수피 수도자들은 국가에 봉사한다. 그 결과 중앙 조직은 해체되고, 13세기~15세기 지방 중심의 텍케 시대가 시작된다. 이때 니자멧딘 에블리아(Nizâmeddin Evliya, 1238년~1325년)는 약 700명의 수도승을 다른 지방으로 파견했고, 이들은 파견된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지방 텍케들은 지역 군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종단 초기의 반정치적 태도를 벗게 된다. 이들 텍케는 지역 군주의 후원을 받았고, 텍케는 지역 군주에 도덕적, 영적 지지를 보냈다. 치쉬티 종단은 이 시기에 벵골 지역, 다카 지역, 구라자트 지역에 진출했다.

세 번째 단계는 15세기경 생긴 사르비레 분파에서 인도 무슬림의 정신적 지주가 될 울레마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이다. 네 번째 단계는 니자미 분파가 중흥한 18세기이다.

초창기 치쉬티 종단에서는 『영적으로 배운 자의 지식(Awarif ul-Maarif)』을 기초로 삼았다. 『은둔자의 계시(Kashf al-Mahjub)』는 종단 내에서 널리 선호된 서적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치쉬티 종단의 고명한 셰이크들 중 나시루웃딘 치라그흐 데흐라비(Nasiruddin Chiragh Dehlavi, 1274년~1337년)나 부르하누딘 가리브(Burhanuddin Gharib, 1256년~1337년), 기수 다라즈(Gisu daraz, 1321년~1422년)의 대화를 담은 서적을 통해 종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치쉬티 종단의 기초적인 사상은 ‘존재의 단일성(Wahdat al-wujūd)’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초창기 셰이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후대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치쉬티 종단은 알라와 멀어질 수 있는 사유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꺼리고, 폭력을 반대하며 우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갈등과 불화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와는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알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고, 이것은 천국을 바라거나 지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어야 한다. 이들은 알라에 대한 사랑을 새로 입교하거나 개종한 사람이 느끼는 알라에 대한 사랑, 예언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노력의 결과로 발전한 사랑, 존재 자체의 기쁨으로 인한 사랑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 모든 사랑은 수피 수도자들이 발전시켜야 할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수행 방식은 사마(sama)를 포함하는, 신의 이름을 암송하는 디크르(Dhikr)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취시티예, 취시티야

- 다국어 표기 Çiṣṭiyā(아제르바이잔어), Chishtiya(우즈베크어), Çiṣṭiye(튀르키예어), Чистийа(카자흐어), Çiṣṭiā(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무인 알딘 치쉬티, 존재의 단일성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estiya>
- 참고문헌(오프라인) Nizami, Khaliq Ahmad. “ÇİŞTİYY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343~346

I G130 |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Çifte Minareli Madrasa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에 건설된 마드라사로, 당대의 마드라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하투니예 마드라사(Hatuniye Medresesi)라고도 불린다. 술탄 알라 알 딘 케이쿠바드(Sultan Ala al-Din Kayqubad I, 재위: 1220년~1236년)의 딸 한데 하툰(Hande Hatun)과 일 카니드 술탄 가이하투(II Khanid Sultan Gaykhatu, 재위: 1291년~1295년)의 아내 파디샤 하툰(Padisha Hatun)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 비문이 없어 정확한 건설 연도는 알기 어려우나 양식 등으로 미루어 13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벽면의 재료와 양식이 상이한데, 이는 살투루(Saltuklu 또는 Saltukids) 공국 시대의 건축물 위에 건설한 때문으로 보인다. 17세기까지 거의 폐허였다가 일부 수리하여 대포 공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후에 다시 마드라사로 사용되었다. 20세기 튀르키예 공화국 건립 이후 한동안 박물관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비어 있다.

전체 크기는 35x48m로 2개 층과 4개의 이완, 개방형 중정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건물이다. 양쪽으로 두 개의 미너렛이 우뚝 솟아 있는 대문이 특징적이다. 이 두 개의 미너렛으로 ‘치프테 미나렐리(Çifte Minareli, 두 개의 미너렛이 달린)’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문 벽감은 다소 깊은 편이며, 여기에는 팔메트 문양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패널 5개가 둘러싸고 있다. 대문 상단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양옆의 직사각형 벽감 상단에는 쌍두독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수리가 양각된 장식이 있으며, 하단에는 생명의 나무가 양각된 장식이 있다. 여기서부터 미너렛이 솟아 있다. 벽돌로 된 미너렛에는 흠이 파여 있으며 이 흠은 터키석 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미너렛 지지대에는 터키석 색 타일로 장식된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로제트에 같은 색의 타일로 ‘알라’와 ‘무함마드’, 4대 칼리프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면 대문 오른쪽에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작은 미흐랍이 있다. 대문보다는 장식이 단순하다.

입구와 연결된 이완을 통해 들어가는 중정은 삼면이 첨두아치로 만들어진 2개 층의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완 양옆은 다시 아치로 나뉜다. 입구 서쪽에는 돔으로 덮인 정사각형의 기도소가 있다. 이외에 1층에 20개, 2층에 22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들은 모두 배럴볼트

로 덮여 있다.

건물 남쪽의 이완 뒤쪽에는 건물과 결합된 형태로 내부, 외부 모두 십이각형 몸체에 원뿔로 덮인 영묘가 있다. 이 영묘의 겉은 아치로 장식되어 있으며, 지붕과 몸체 사이는 기하학 무늬의 패널로 장식되어 있다. 비문이 없어 영묘의 주인은 알 수 없다.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는 셀주크 조에 건설된 마드라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당대의 마드라사 건설 기술과 양식이 집약된 건축물이다. 그 형태는 시바스 킱 마드라사와 유사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프테 미나렐 영묘
- 다국어 표기 Çifte Minareli Medres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시바스 킱 마드라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f/%C3%87ifte_Minareli_Medrese.JPG/1024px-%C3%87ifte_Minareli_Medrese.JPG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128020/medium/IAA140084.jpg?1506114249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1947>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Ünal, Rahmi Hüseyin. *Çifte Minareli Medrese (Erzurum)*.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1989.

I G131 | 치헤르틴 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Chikhertin Zoo

이 무덤은 울란바토르시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투브 아이막 바얀차간 솜에 위치한다. 한국 학자들과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 고고연구소가 2016년~2017년 공동 연구한 무덤이다.

해발 1365m~1385m 사이 평탄면을 이루는 곳에 300기 이상 무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6기의 흉노 무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치헤르틴 저는 그중 가장 큰 고리형 무덤이다. 바닥에 길이 4.7m, 너비 3.1m, 높이 1.5m 정도의 대형 목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존 상태는 좋지 않았다. 목곽 뚜껑 위에는 동서 양쪽에 마차 2대를 부장했다. 마차는 4륜으로 흑칠 흔적이 있었다. 무덤이 이미 도굴되어서 목곽 내부에는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201호 무덤의 동쪽에는 2기의 배장묘가 위치한다. 4륜 마차는 몽골의 흉노 무덤에서 발견된 2륜 마차와 다르다. 4륜 마차는 알타이의 파지리크 유적 5호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 유적 발굴 결과, 흉노의 고리형 무덤은 낮은 계급의 무덤이라는 그간의 추정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향후 초대형 무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장 주체부에서 출토된 청동기에 붙어 있던 목탄 샘플의 연대 측정 결과는 B.C. 3세기~B.C. 2세기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몽골과 자바이칼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 가운데 조성 시기가 가장 이르다. 현재 학계에는 흉노의 기원지와 관련해 중국의 오르도스 및 알타이의 파지리크 문화설이 있다. 치헤르틴 저는 발굴된 흉노 무덤 가운데 이른 시기의 것이므로, 기원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헤르틴저

● 다국어 표기 Чихэртийн зОО(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파지리크 유적

● 참고문헌(오프라인) 중앙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몽골아카데미 고고학 연구소, 『몽골의 무덤』, 진인진, 2017.
양시은·G.에렉젠, 「몽골지역 흉노시대 분묘 연구」, 『중앙고고연구』 2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I G132 | 친기즈 휘세이노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북아시아, 기타 ● 나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스라엘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Çingiz Hüseynov



친기즈 휘세이노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평론가인 친기즈 휘세이노브(Çingiz Hüseynov)는 1929년 4월 20일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바쿠에서 받았고, 1947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 바쿠 국립 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미하일 바실리예비치 로모노소프(Mixail Vasilyeviç Lomonosov)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Moskva Dövlət Universiteti)의 언어학과로 편입해 1952년 졸업했다. 이후 그는 모스크바 동양 대학교(Şərqsünaslıq İnstitutu)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소비에트 장관 협의회에 속한 공공 과학 아카데미(İctima Elmlər Akademiyası)에서 다민족 사회주의 문화부(Çoxmillətli sosisalit mədəniyyəti kafedrası)의 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학술적인 작업 외에도 구 소비에트 작가연맹(SSRİ Yazıçılar Birliyi)에서 아제르바이잔 작가의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그의 모교인 모스크바 국립 대학에서 언어학과 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

친기즈 휘세이노브는 아제르바이잔어와 러시아어로 창작했다. 1959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한 그의 작품들은 처음부터 문학 평론가들의 관심은 물론, 독자들의 관심도 폭넓게 끌었다. 그러나 그가 문학계에 알려진 것은 「섬들(Adalar)」이 출간된 이후이다. 그의 첫 책은 『나의 누이(Mənim bacım)』로 1962년 바쿠에서 출판됐다. 이후 『녹아내리는 동상(Əriyən heykəl, 1964)』, 『힘든 내리막(Çətin yoxuş, 1969)』, 『노브르주귄뤼(Novruzgülü, 1969)』, 『이름을 얘기 안 했다(Adını demədi, 1973)』, 『매함매드, 맴매드, 맴미스(Məhəmməd, Məmməd, Məmiş, 1977)』, 『가족의 비밀(Ailə gizlinləri, 1986)』, 『패탈리의 정복(Fətəli fəthi, 1988)』, 『이 생생한 현상(Bu canlı fenomen, 1988)』 등 다양한 책이 연이어 출판됐다. 『이 생생한 현상』에는 그의 학술적,

이론적 연구들이 담겨 있다.

그가 인기를 얻은 작품은 1977년 출판된 소설 『매햄매드, 맘매드, 매미스』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가족-친족 마피아의 존재와 그 원인을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은 삶의 내적 측면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소설’이다. 이 작품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의 생애에서 소설가로서의 새로운 장은 『패탈리의 정복』이 열었다. 오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쓴 이 소설은 중심에 미르재 패탈리 아쿤도브(Mirzə Fətəli Axundov)라는 작가를 두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9세기 아제르바이잔 민족 전체의 운명을 다루었다. 소설 『가족의 비밀』은 작가의 독창성을 드러냈는데, 이 소설의 첫 버전의 제목은 ‘설교자의 회개(Vaizin tövbəsi, 러시아어 Исповедь проповедника)’였다. 이 소설에서 그는 압바소브(Abbasovla) 가족이 겪는 생활의 단면을 묘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후에 그는 『의사 N(Doktor N)』, 『흥겨운 게임들(Tamaşalı oyunlar)』, 『미라지(Merac)』 등의 소설을 썼다. 2009년에는 그가 러시아어로 쓴 『지나간 날과의 만남에(Ötən günlərin görüşünə, Минувшее - навстречу)』라는 회고록이 출판됐다. 친기즈 휘세이노브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출판됐지만, 그의 모국인 아제르바이잔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친기즈 휘세이노브

● **다국어 표기** Çengiz Hüseynov(튀르키예어), Чингиз Гусейнов(러시아어), Чыңгыз Хусейнов(타타르어), Çingiz Huseýnow(투르크멘어), Chingiz Huseynov(우즈베크어), Шыңғыс Гусейнов(카자흐어), Чынгыз Хусейнов(키르기스어), Çingiz Hüseynov(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gGrU>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Dərslük), İki Cildə,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Sultanlı Vagif, “Yazıram Ki, Əzablardan Qurtarım... (Çingiz Hüseynov Haqqında)”, *Xalq Cəbhəsi Qəzeti*, № 96 (126), 23 May, 2002.

Yusifli Vagif, *Çingiz Hüseynovun Səksəncinci Baharlı*, *Azərbaycan Dərgisi*, 2009, №5, S.137~140.

Бабаева Э. С. Жанрово-Стилевое Своеобразие Романов Ч. Г. Гусейнова «Магомед, Мамед, Мамиш» И «Семейные Тайны», Махачкала: 2007.

Рафик Исмаилов. Двужычие В Современно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Прозе И Пробл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Кандидат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Баку: 1988.

I G133 | 칠래 의식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Chilla ceremony

칠래 의식[Çilə(Çillə) mərasimi]은 일 년 중 특정 시기에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칠래는 크게 가을-겨울 의식과 봄-여름 의식으로 나뉜다. 아제르바이잔의 칠래 의식은 주로 겨울에 몰려 있다. 전통 역법에 따르면, 겨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대 칠래(Böyük çillə), 소 칠래(Kiçik çillə), 보즈 달(Boz ay, 회색 달)이다. 대 칠래는 매년 12월 21일부터 40일간이다. 칠래(çillə)의 어원은 숫자 '40'과 '무겁다'라는 의미의 채흘(çehl)이다. 대 칠래는 동지(冬至)이며 이날 '일 년 중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라는 의미의 새비-엘다(Şəbi-yelda)를 행한다. 소 칠래는 대 칠래가 끝나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일간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소 칠래의 10일째 되는 날 흐드르 내비(Xıdır Nəbi)라는 명절이 시작된다. 이 명절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나톨리아 및 발칸반도에도 있는데, 지역과 역법에 따라 날짜에 차이가 있다. 소 칠래 이후 보즈 달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약 한 달이다. 이후 3월 20일~21일 노부르즈 명절(Novruz bayramı)이 시작되는데, 노부르즈를 준비하는 의식은 보즈 달에 거행한다. 노부르즈 시작 전 4개의 채르샨배(çərşənbə)를 거행하는데, 이 중 마지막 채르샨배(İlaxır çərşənbə)를 가장 화려하게 치른다.

칠래 이외에 명절이나 역법상 날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의 '계절 의식'들도 있다. 자연의 힘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욕망에 기반한 의식이기 때문에 명절, 역법을 무시하더라도 일부 의식은 계절 의식에 포함된다.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기우제에는 뭉샬래로 나가기(Müsəlləyə çıxmaq) 의식과 침채하툰(Çömçəxatun) 의식 등이 있고, 폭우를 막기 위해 태양을 부르는 의식으로는 고두-고두(Qodu-Qodu) 의식이 대표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칠라
- 다국어 표기 Chilla(영어), çille(튀르키예어), чиле(러시아어), Çilə(Çillə) mərasim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노부르즈
- 참고문헌(온라인) <http://intangible.az/front/az/aboutExample/21945>

- 참고문헌(오프라인) Bəhlul, Abdulla. *Azərbaycan Mərasim Folkloru*, Bakı, 2005.
- Xürrəmçizi. A. *Azərbaycan mərasim folkloru*. Bakı, 2002.

I G134 | 칠링가가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Chilling-agac

칠링가가즈(Çilingağac)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봄이 오기 전, 즉 노브루즈 명절 전에 아이와 청년들이 하는 매우 오래된 민속놀이이다. 놀이 도구는 막대기와 팻(pəl)이다. 이 팻은 칠링기(Çilingi)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팻은 15cm 정도이며 막대기는 약 50cm~70cm이다. 함께 경기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놀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한 손으로 칠링기를 떨어트리고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으로 칠링기를 쳐내는 것이 공통적인 규칙이다.

여러 놀이 방법 중 하나로는 두 명씩 짝지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한다. 한 명이 칠링기를 쳐낼 때 상대방은 손으로 상대를 막거나 자신의 막대기로 칠링기를 쳐낸다. 이때 칠링기를 쳐낸 쪽이 칠링기를 칠 기회를 얻는다. 다음 타자에게 순서를 넘겨 칠링기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칠링기를 들어 친다. 이 경기는 정해진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큰 원형 선을 그리고, 칠링기를 원의 중심에 놓는다. 그 후 제비뽑기로 시작 순서를 정한다. 먼저 막대기로 칠링기를 쳐서 원 밖으로 칠링기를 빼내는 쪽이 승리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선 방법과 거의 유사하나 칠링기가 더 길고 원도 더 크다. 선수 하나는 원 위에 서서 왼손으로 칠링기를 쳐 원 밖으로 나가게 한다. 칠링기를 가장 멀리 던진 선수가 승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칠링아가즈
- 다국어 표기 Chilling-agac(영어), Çelikçomak(튀르키예어), чилингагадж(러시아어), Çilingağac(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노브루즈
- 참고문헌(온라인) <http://intangible.az/front/az/aboutExample/18661>

● 참고문헌(오프라인) Qafarov, nomiç. “Azərbaycan Xalq Oyun Adlarının Linqvistik Təhlili”, *Türk Halklarının Geleneksel Spor Oyunları*, Bişkek, 2015, pp.149~152.

Qafarlı, Remezan. *Azərbaycan Uşaq Folkloru*, Bakı, 2011.

I G135 | 칭기즈 아이트마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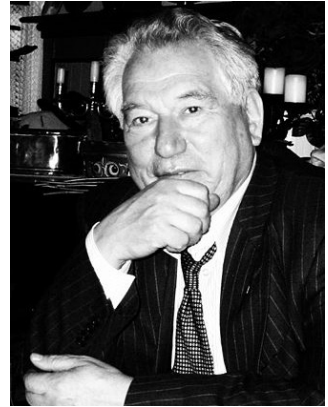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Chingiz AYTMATOV

아이트마토프 칭기즈 투라쿨로비치(АЙТМАТОВ, Чингиз Туракулович, 1928년~2008년)는 키르기스 작가이자 사상가, 정치가이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는 키르기스스탄의 쉘케르 마을(Alay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투라쿨 알로이(Turakul Aloy)는 당위원회 간부였으나 1937년 스탈린 대숙청 시기 희생자가 되어 처형을 당했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는 15세에 마을 시민 협의회에서 지방서기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잠불(Jambyl) 수의과대학(Zoo Veterinary Technical College)에서 수학했고, 1953년 키르기스 농업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키르기스 가축연구소의 실험 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1956년~1958년에는 모스크바 고리키 문학연구소에서 수학했다.

그의 작품 출판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됐다. 1952년부터 지역 언론을 통해 작품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1956년부터 중앙 언론을 통해 작품들을 출판했으며, 1957년 작가연합 회원이 됐다.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잡지 <해외 문학>의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또 룩셈부르크 주재 러시아 대사, 여러 유럽 국가 주재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로 창작 활동을 했다. 첫 작품을 1950년 발표한 그는 『바이담톨 해변에서(Baydamtol sohillarida, 1955)』와 『얼굴을 맞대고(Yuzma yuz, 1958)』 등을 키르기스어로 출판한 뒤 1961년부터는 러시아어로 출판했다. 그의 대표작은 『자밀라(Jamila)』, 『얼굴을 맞대고』, 『낙타눈(Butakoz)』, 『첫번째 선생님(Birinchi muallim)』, 『안녕, 굴사리!(Alvido Gulsari, 1966)』, 『하얀 배(Oq kema, 1970)』, 『일찍 나는 두루미들(Erta

uchgan turnalar, 1975)』, 『바다로 달려나가는 페기포스(Sohil bo'ylab chopayotgan olapar, 1977)』 등이다. 이외에도 그는 『백년보다 긴 하루(눈보라 정거장)[Asrga tatigulik kun(Bo'ronli bekat, 1980)』, 『최후 심판의 날(Qiyomat)』, 『카산드라의 상표(Kassandra tamg'asi)』, 『망조(Oxirzamon nishonalari)』, 『산이 무너질 때(영원한 신부)』, 『Tog'lar kulaganda(Abadiy qayliq)』, 『후지산 등반(Fudziyamada kunchiqish)』 등의 작품을 썼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자밀라』는 여러 유럽 언어로도 번역(루이 아라공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루이 아라공),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문학 과정의 현상”(E. Gachev)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산과 사막의 이야기들(Tog' va cho'l qissalari, 5편)』로 1963년 국가상을 수상했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는 『자밀라』 이후 4편의 이야기, 여러 편의 단편과 수필들을 발표했다. 아이트마토프 연구자인 레브첸코(L. Levchenko)는 『자밀라』 이후 작품인 『안녕, 굴사리!』를 수작으로 꼽는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의 창작 활동을 세계 문학의 맥락에서 연구한 가체브(E. Gachev)는 작품 주제에 따라 열정적인 사랑(자밀라), 진실(안녕, 굴사리!), 정의(일찍 나는 두루미들), 양심(동화 이야기 이후 - 하얀 배), 희생(해변을 달리는 개) 등으로 분류했다. 아이트마토프의 문학은 구소련의 문학, 특히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칭기스 아이트마토프, 칭기즈 아이트마토프
- **다국어 표기** Айтматов(키르기스어), Чингиз Туракулович(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e/Tschingis_Ajmatow.jpg/330px-Tschingis_Ajmatow.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йтматов Ч. Повести гор и степей.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65.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землей и водой / Очерки, статьи, беседы, интервью. Фрунзе, 1979.
Собр. соч., т. 1-3. М., 1982.

Статьи, выступления, диалоги, интервью. М., 1988.
 срга татигулик кун, Киёмат. Романлар. Т., 1998.
 Когда падают горы (вечная невеста). СПб.: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2006.
 Охирзамон нишоналари (СДорасв тарж.). Т.: Ўз-н Миллий кутубхонаси нашр., 2007.
 Танланган асарлар. 1-3 ж. Т.: Шарк НМАК, 2009; Тоглар кулаганда (Абадий кайлик) // Жяхон ад-ти. 2009. №11.
 Ауэзов М. Путь добрый! // Лит-ная газета. 1958. 23 октября.
 Арагон Л. Самая прекрасная на свете повесть о любви // Культура и жизнь. 1959. №7.
 Асаналиев К. Открытие человека современности. Фрунзе, 1968.
 Лебедова Л. Повести Ч.Айтматова. М., 1972.
 Коркин В. Человеку о человеке [О творчестве Ч.Айтматова]. Фрунзе, 1974.

I G136 I 칭기즈 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Chingiz Han

원조(元朝) 비사에 따르면 칭기즈 칸은 1155년과 1167년 사이에 보돈차르(Bodonchar)를 공동의 조상으로 하는 몽골족의 보르지기드 씨족(Borjigid Obog)에 속한 예쉬게이(Yesügei)의 장자로 태어났다. 예쉬게이는 1160년 몽골국이 금과 타타르의 연합 공격으로 패망하자 몽골초원을 통일하려는 운동에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칭기즈 칸이 출생할 즈음, 그는 선조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타타르를 습격해서 타타르의 수장 테무친 위게(Temujin Üge)를 생포하여 돌아왔는데, 그때 아들이 태어나자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바로 불세출의 위대한 정복자인 칭기즈 칸이다. 이러한 관습은 몽골족이나 투르크 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들은 신생아의 이름을 출생 직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나 주변의 자연물과 관련 있게 짓거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제일 처음 본 물건이나 제일 처음 방문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 지었다.

서부 몽골의 대표 세력이었던 나이만을 복속시킨 테무친은 몽골고원 전역을 통일하고 1206년 오논강 상류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2차 추대)돼 명실상부한 몽골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세계사에서 센세이셔널한 정복전쟁을 일으켜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칭기즈 칸 동상(울란바토르, 몽골)

‘대몽골 제국’(Yekke Mongghol Ulus)을 탄생시켰다. ‘칭기즈’라는 말의 어원과 의미는 아직도 전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칭호는 ‘대양의 최고 군주’ 혹은 라시드 웃딘이 정의한 것같이 ‘황제 중의 황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칭기즈 칸은 몽골 제국의 영토를 분할했는데 몽골민의 전통인 말자상속(末子相續)의 풍습에 따라 칭기즈 칸의 영지였던 본토를 제4자인 톨루이(Tolui)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제1자인 장자 조치에게는 킵차크 스텝 지역을 분봉해서 ‘조치 울루스’(Jochi Ulus), 제2자인 차가타이에게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분봉해서 ‘차가타이 울루스’(Chaghatai Ulus), 제3자인 외괴데이에게는 나이만족의 구 영토를 분봉하여 ‘외괴데이 울루스’(Ögedei Ulus)를 성립시켜 훗날 몽골의 4대 칸국 건설의 기초가 되게 했다. 1225년에서 1227년까지 계속되었던 칭기즈 칸의 제2차 서하 정벌은 서하의 멸망뿐만 아니라 칭기즈 칸의 생애도 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칭기즈 칸의 사망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2차 서하 정벌 도중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에도 학계에서 그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장지(葬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칭기즈 칸은 1227년 8월 18일과 29일 사이에 사망했으며 그의 장지는 몽골족이 가장 신성시하는 부르칸 칼둔(Burqan qaldun) 지역이라는 게 설득력이 가장 높다.

칭기즈 칸은 비정한 정복자로 역사 무대에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인류의 문화유산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가 건설한 세계 제국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북쪽 민족들 사이에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그들의 세계관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995년 송년 특집호에서 지난 1,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 칸을 선정했다. 이는 칭기즈 칸이 태평양과 동유럽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고, 인터넷보다 700여 년 앞서 국제통신망을 건설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칭기즈 칸, 징기스한
- 다국어 표기 Genghis Khan(영어), 成吉思汗(중국어)
- 연관 검색어 쿠릴타이, 킵차크, 쿠빌라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라츠네프스키, 김호동 역, 『칭기스한』, 지식산업사, 1992.
 룩 관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1989.
 李龍範, 中世 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8.
 조성을 편역, 「격동의 아시아 정복왕조시대」, 『송조와 몽골제국』, 집현전, 1988.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G137 | 칭기즈 칸 석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he Stone of Genghis Khan

투바 영토의 바룬-켄치크(Baruun-Khemchik) 지역의 비직티크 카야(Bizhiktig Khaya) 마

을 주변 초원 한가운데에는 손에 그릇이나 잔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의 석상이 있다. 현지 투바인들에게 칭기즈 칸이라 알려진 이 석상은 중세 시대에 제작됐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명 석조 조각 중 하나이다. 의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석상은 중세 유목민 귀족의 복장을 하고 있고, 제작 연대가 8세기~9세기로 올라가며, 위구르 제국의 것이다.

특히 6세기 이후의 투르크인들이 만든 이러한 형태의 조각상들은 샤머니즘의 조상 숭배와 관련이 깊으며, 전투에서 전사한 용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샤머니즘의 조상 숭배는 수세기 동안 토착 투르크인들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샤머니즘을 믿는 아시아 대륙의 투르크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투바인들 그리고 몽골인들이 오늘날까지 조상 숭배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러한 유형의 조각품(석상 포함)들은 사냥, 자식, 질병, 도난 혹은 손실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기원하고 발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들은 석상 앞이나 근처에 음식, 음료 등이나 돈과 같은 제물들을 차리기 위해 제단석이나 상 등을 놓는다.

투바인들은 석상이 사람의 질병을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석상 근처에 데려와 무당과 함께 치유 의식을 치른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투르크인들은 석상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옷을 입히고 때로는 음식을 주며 배를 불리는 의식을 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무당이 제를 지내는 목조 가옥과 예배당이 이러한 석상들 주변에 세워지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더 스톤 어브 쟁히스 칸

● 다국어 표기 The Stone of Genghis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비직티그 카야

● 참고문헌(오프라인) Леус, П., “Каменный Цхингисхан”.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 тувй иҥинде (с.81-82).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тсионный издательский тсентр, 2006.

I G138 | 카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관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Qaghan

카간은 유목 국가의 최고 관직명이다. 이 관직명은 A.D. 402년 유연(柔然)의 지배자 사륜이 권위의 상징으로 자신을 구두벌가한(丘豆伐可汗)이라고 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사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유연 제국을 계승한 돌궐(突厥), 회흘(回紇), 몽골(蒙古)과 같은 대부분의 유목 제국 수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카간(可汗, Qaghan)이라는 관직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사서를 엄밀히 살펴보면 흉노 제국 멸망 후 일시적이지만 몽골리아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선비의 몇몇 부족장이 가한(可汗, 카간) 또는 한(汗, 칸)이라는 관직명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유목 제국의 수장을 지칭하는 관직명으로 카간이 사용된 것은 유연의 사륜 재위 시기 부터다. 주지된 바와 같이 흉노 제국에서는 수장을 칭하는 관직명으로 ‘선우’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황제와 같이 ‘하늘(天)’을 가리키는 존칭으로 한 나라에서 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칭호였다.

그러나, 후한 시대에 들어 흉노 제국이 남흉노와 북흉노로 양분되어 두 사람의 선우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 존칭의 가치가 하락했다. 후한 말에는 선우라는 관직명이 한의 왕과 같은 위치의 작명(爵名)이 되고 한의 천자가 북방 민족의 군장에게 내리는 영호(榮號)로 변했다. 이같이 관직명으로서 선우의 권위가 하락하자 농경 국가의 황제와 대적할 만한 칭호가 필요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유연 제국을 성립한 사륜이 채택한 카간(가한)이었다. 카간은 투르크 민족이 몽골리아의 고토에서 이동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셀주크 조,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최고의 수장을 지칭하는 관직명으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기에는 최고 통치자를 술탄(Sultan) 또는 파디샤(Padishah)로 지칭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한
- 다국어 표기 可汗(중국어), Kağ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유연, 돌궐, 흉노, 선비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 사전, 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720&cid=62093&categoryId=62093>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KRADER, LAWRENCE, "QAN-QAYAN AND THE BEGINNINGS OF MONGOL KINGSHIP". Central Asiatic Journal. 1 (1), 1955.

René Grousset,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now*.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

I G139 I 카눈(법)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kanun

오스만 시대에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보완하는 국법 혹은 세속법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카논(kanon, 원래는 자막대기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규범을 의미하게 되었음)에서 유래한 아랍어 카눈(qanun 복수는 qawanin)이 튀르키예어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슬람법인 샤리아는 무슬림의 공적 생활과 사생활을 모두 관장하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관계의 모든 것을 다루지만, 도덕과 의도를 강조하는 종교적 원칙에 기반했으므로 토지 관계, 세금 징수, 형벌 등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세속법의 요소는 이슬람 왕조들에서 약간씩은 흔히 보이는 것이고, 종교에 입각한 법 외에 공익을 위해 세속 권력에 의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이슬람 성립 초기부터, 그리고 이슬람에 접목된 페르시아 계통의 정치사상 전통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세속법은 전통적으로 샤리아에 비해 권위가 현저히 떨어졌다.

11세기경 투르크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아시아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고 몽골의 침입이 13세기에 대대적으로 발생한 후 투르크-몽골식으로 군주의 칙령에 입각한, 세속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정법이 강력하게 대두했다. 몽골의 정복 후, 몽골 제국의 세속법 이야기(yasa, 혹은 자사크(jasaq))의 영향으로 종교법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법도 정당하다는 관념이 크게 강

화되었다. 몽골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인도아대륙 등에서 국가 제도, 군사, 세금, 토지 점유권, 형법 등에서 군주가 내린 결정들이 샤리아와는 완전히 별개로 일련의 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전근대 이슬람권의 세속법 중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이 오스만 제국의 카눈이었다. 카눈은 오스만 군주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군주권 정당화 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종교적으로는 샤리아가 지역 사회의 관행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관행이 규범화된 것이라고 정당화되어, 입법 내용이 실제로 전통에 입각했는지와 무관하게 카눈을 ‘오래된 카눈(kanun-i kadim)’이라고 흔히 불렀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샤리아가 우위를 갖는 것이 당연했으므로, 현실에서 카눈이 더 중요했던 시기에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샤리아에 더 우선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카눈은 강력한 군주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군주의 권위에 의하여 각 지역의 관습을 참고해 내린 칙령들이 집대성되어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이 걸쳐 각 지방의 카눈나메(법전)가 먼저 생기고 점차 집대성되어 15세기말 중앙의 카눈나메로 정비되기 시작했고, 실레이만 대제 시대(1520년~1566년)에 완성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카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술탄의 신민들이 세금을 내는 일반민(reaya)과 세금을 면제받는 지배층(askeri, 군인, 관료, 종교인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른바 아스케리는 국가의 일에 복무하는 대가로 티마르 같은 세수입이 있는 땅을 받았다. 각 지역의 카눈나메는 과거에 무슬림 정권이 있었던 곳이나 기독교 정권이 있었던 곳을 막론하고 해당 지역에 있었던 국가의 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토지 세금대장(tahrir defteri)의 전문(前文)으로 수록되었다. 카눈나메로는 중앙 정부의 구성, 의전, 승진, 봉급, 왕조 계승 등을 다룬 중앙 조직 법전(teşkilat kanunnamesi), 전 제국에 걸친 농민, 기병, 중앙 정부 사이의 토지관계, 조세, 형벌에 더해 부수적으로 도시의 상거래를 다루는 일반 법전(umumi kanunname), 각 지방 행정단위(sancak)의 특정 지방 조세에 대한 법전, 특수 군사 직능 집단에 대한 법전 등이 있었다.

셀림 1세와 실레이만 1세는 카눈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16세기 종교 관료계(ilmiye)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즉 케말파샤자데와 에부수우드가가 각각 카눈을 샤리아와 피상적으로라도 조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카눈과 샤리아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는 군주 주변의 군사-관료 엘리트와 종교적 당위성을 더 중요

시하는 올라마 사이의 알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17세기~18세기 오스만 군주권의 지속적인 축소와 함께 카논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샤리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위치도 낮아졌다. 이는 술탄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내적 모순들이 나타나면서 술탄의 법체계도 불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프티들의 파트와가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니샨즈들의 카논 입법 관련 권위가 축소되고, 셰이헨 이슬람의 국가 중대사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증대되어 1696년 카논이라는 단어를 샤리아라는 단어와 나란히 쓰는 것을 금지한다는 칙령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적용은 카논을 참고하는 경향이 계속 있었고, 카논은 대체로 명시적으로 폐기되지 않고 니잠나메, 아달레트나메 등 단발성 칙령들에 의해 보충되었다.

한편 탄지마트(1839년~1876년)로 대표되는 19세기 근대 개혁기에 이르러서는 샤리아로부터 독립적인 세속법의 제정이 가속화되어 유럽의 법을 모델로 하여 변용한 수많은 법들이 오스만 국가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제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바탕에는 이즈티하드(법적인 창안)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고 샤리아의 사회 관련 부분은 역사의 산물이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었다. 입헌주의운동과 ‘기본법(kanun-iEsasi)’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헌법(1876년)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성취였다. 이 연장선상에서 1917년 이슬람권 최초로 가족법(Hukuk-ı Aile Kararnamesi)이 만들어졌고, 카디 법정이 셰이헨 이슬람에게서 독립하여 법무부 휘하에 두어졌으며, 로잔 조약 체결(1923년)에 이르는 카피투레이션 폐지와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의 세속법 체계가 등장했고 세속 민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특히 민법에서, 이슬람으로부터 법의 원천을 찾는 경향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오늘날의 법을 지칭하는 단어도 ‘카논’이다.

● 다국어 표기 Kanu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il İnalçık “Kanu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4, 2001, pp.324~327.

Gábor Ágoston, “Kanu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06~307.

I G140 | 카눈(악기)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nun

카눈은 지터류 현악기로, 사다리꼴 몸체에 현이 걸려 있으며 손톱이나 피크로 현을 통겨서 소리를 낸다. 일반적으로 몸체에 짧은 현부터 긴 현까지 순서대로 걸고 떨림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 종류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나 사다리꼴 몸체는 아랍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리아인들이 사용했던 키소로(Kisoro)라는 악기가 아랍에서 발전되어 키사레(Kisare)라고 불리는 악기가 되었는데, 카눈은 키사레에서 더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악기는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우즈베키스탄과 아르메니아 등에서도 연주되고 있다.

맘루크의 역사가 이븐 할리칸(Ibn Khallikan, 1211년~1282년)은 철학자 파라비(Al-Farabi, 872년~950년)가 발명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파라비의 어떠한 저서에서도 현악기를 언급할 때 이 악기에 대해 묘사한 적이 없어 할리칸의 기록은 전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카눈은 12세기에 안달루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져 피아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클라키보드와 하프시코드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오스만에서는 15세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악기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16세기 이스탄불에서 사용된 카눈은 페르시아와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서 사용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세밀화에 묘사된 이 시기의 카눈은 몸체 전체가 목재이며, 현은 금속이었다. 현재 위구르인들도 이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17세기 카눈의 형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형태는 18세기 중반에 갖춘 것이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에는 페르시아에서 사용된 카눈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카눈이 등장했다. 이는 오스만 제국 내의 아나톨리아, 시리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오스만 제국으로 퍼졌다고 주장한다.

튀르키예의 카눈은 일반적으로 네 개의 기둥에 25~26코스의 현(총 75개~78개의 줄)이 걸려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7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현은 과거에는 청동 줄 또는 동물 내장을 꼬아 만든 줄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나일론을 이용한다.



카눈

카눈은 아랍 지방에서 발명된 악기이나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과 위구르 등 투르크인들의 고전 음악과 민속 음악 연주에 빼놓을 수 없는 악기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커눈
- 다국어 표기 Qonun(우즈베크어), Kanun(튀르키예어), Qanun(아제르바이잔어), قانۇن(위구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mi/original/DP-13784-001.jpg>
<https://www.youtube.com/watch?v=VS3LafxrMI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6868&cid=60476&categoryId=60476&expCategoryId=60476>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kaya, Fikret. "Kanu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16, pp.327~328.

I G141 | 카데쉬 협정문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reaty of Kadesh

카데쉬 협정문서는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 박물관(Istanbul Archaeology Museums)에 있는 인류 최초의 평화협정 문서이다. BC 12세기 중엽부터 당시 한창 뻗어 나가던 이집트의 신왕국과 또 다른 소아시아 내륙의 강국 히타이트 제국은 지금의 시리아 남부에 있는 성곽 도시 카데쉬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접전을 계속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Ramesess II, 재위: B.C. 1279년~B.C. 1213년)와 히타이트의 무와탈리 2세(Muwatalli II, 재위: B.C. 1290년~B.C. 1272년) 간의 전투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어떤 일방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양국의



고대 이집트인과 히타이트인 사이의 참혹한 카데쉬 전쟁을 새긴 조각
(룩소스, 이집트)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치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민족이 지중해와 소아시아, 이집트를 침범하자 두 왕국 모두 이 새로운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B.C. 1259년, 람세스 2세와 무와탈리 2세의 동생인 하투스리 3세(Hatusilli III, 재위: B.C. 1266년~B.C. 1236년)는 카데쉬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로 체결된 국제법상 조약이었다. 이 조약문은 당시 국제 언어인 아카드어로 기술되었다. 원래 이 조약문은 은판에 새겨졌는데, 현재 원본은 간데없고 복사본인 점토판 세 개만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 박물관에, 두 개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은 전쟁을 중단한다. 둘째, 상호 군사원조를 약속한다. 셋째, 상호 약탈을 금지한다. 넷째, 상대국의 도망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되돌려보낸 도망자에게는 사면을 베풀어야 한다. 여섯째, 하투스리의 자손이 히타이트의 왕위



카데쉬 협정문서

에 오를 수 있도록 람세스 2세가 도와주어야 한다. 일곱째, 카데쉬와 아무르는 히타이트의 지배권에 둔다.

이 조약으로 두 나라는 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오늘날 뉴욕에 가면 유엔본부 건물 입구에 커다랗게 확대 복사된 카데쉬 평화협정 문서가 게시되어 있다. 이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데시 협정문서
- 다국어 표기 Kadeş antlaşması(튀르키예어), Treaty of Kadesh(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 박물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d/Treaty_of_Kadesh.jpg/800px-Treaty_of_Kadesh.jpg
<https://www.youtube.com/watch?v=h9bH7z2Z1ac>
- 참고문헌(오프라인) Bederman, David J., *International law in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Breasted, James Henry, "Treaty with the Hittites". *Ancient Records of Egypt: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ersian Conquest*. II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6.
Rowton, M. B.,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between Ramesses II and Hattušiliš III".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3 (1), 1959.

I G142 | 카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Kadi

카디(Kadi)는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 법정의 재판관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어근인 'Qazā(قضا)'는 '명령하다', '판결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 중에 칼리프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샤리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인물을 가리킨다. 본래 울라마 중에서 이슬람법과 판결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카디로 선발된다.

카디는 샤리아나 법학 이론들, 수많은 판례와 규율 등을 고려하여 무슬림의 생활에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론상으로 카디의 권한은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 분야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슬람권에서 카디, 그중에서도 ‘카디 중의 카디(Qāzī al-Quzāt, قاضى القضاة)’라는 칭호는 압바스 칼리프 조 시기부터 행정 부서의 수장인 와지르와 더불어 국가 관료제의 정점에 해당했다. 이들은 수도에 배치되었고, 지방의 몇몇 주요 지역에 배치된 카디들의 대표자도 있었다. 카디는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았다.

아랍권에서 맘루크 술탄국 시기부터 카디에 관한 독특한 현상은 ‘카디 중의 카디’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시기에 각 주요 지방의 재판관도 되었다. 그러나 수도와 각 지방 카디 사이의 누층적 구조는 여전히 존재했으므로, ‘카디 중의 카디’가 증가한 것은 칭호의 승격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수도에 배치된 ‘카디 중의 카디’의 수가 법학파의 수만큼 증가했으므로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법학파의 카디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카디 중의 카디’는 카디의 수가 증가한 만큼 일반 카디의 임면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특수한 사안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카디 중의 카디’는 세속 군주가 여는 마잘림 법정에 배석하여, 샤리아 규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카디는 울레마에 속하는 학자인 동시에 정치에 참여하는 국가 관료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오스만 제국에서 첫 카디의 임명은 시조 오스만의 독립과 독자성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300년 오스만 초기의 법학자 두르순(Dursun)이 처음으로 오스만의 이름으로 후트바(이슬람 금요일예배에 앞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부른 이후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의 독자 정권으로서 공공연히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확장하면서 카디의 수도 증가했고, 이들을 통솔하기 위해 초창기의 오스만 수도였던 부르사의 카디는 여러 카디를 감독하는, ‘카디 중의 카디’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오스만 조에서 카디는 규정된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정식 관료였는데, 그 봉급의 규모에 따라 지위의 고하가 나뉘었다. 문서마다 10악체(akçe)부터 500악체까지 받는 여러 단계의 카디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 혹은 여럿을 아우르는 일종의 지방 사법 단위(Kada’)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위 행정 단위인 산자크(Sancak), 예아레트(Eyalet) 등에

배치된 카디들이 있었다. 한편 봉급이 많은 카디는 ‘카디 아스케르(Kadi ‘Asker)’라 불리는데, 이들의 부임지는 대와지르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디에 보내달라고 술탄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카디의 수가 증가하고 부임지는 적어서 순번에 따라 임명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임되었다. 해임된 이들은 무임금의 상태에서 다음 임지 발령을 기다려야 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카디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정부가 임명하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기도 했다. 특히 중-하위 카디의 경우 고위 관료들이 파견되지 않는 다양한 실무직을 맡기도 하고, 물가를 조정하거나 길드 및 건축 등과 도시의 다양한 공공 업무를 감독하기도 했다. 카디는 19세기에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 이후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된 후 카디 직위는 사라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드

● 다국어 표기 Kadi(튀르키예어), قاضي(아랍어), قاضی(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오스만

● 참고문헌(오프라인) Gy. Kaldy Nagy, “Kadi,” *The Encyclopaedia of Islam* 4, Leiden: Brill, 1997, pp.373~375.

Wael B. Hallaq,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38~56.

I G143 | 카디 부르한 엷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Kadi Burhan al-Din

카디 부르한 엷딘(Kadi Burhan al-Din)은 동부 아나톨리아의 시인이자 학자, 카디, 재상, 아 타벡, 술탄이다. 그는 아나톨리아 중앙부에 있던 살루르의 오구즈 투르크부에서 3대째 카디였던 샴스 앳 딘 무함마드의 아들로 1345년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호라즘 출신이지만, 그는 카 이사리에에서 태어났다. 카디였던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에는 부친의 가르침을 받

고, 장성한 후에는 이집트,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에서 학문 여행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1364년~1365년경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다스리던 에레트나 공국의 기야스 옛딘에게 발탁되어 부친의 뒤를 이어 카디가 되었고, 기야스 옛딘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카디 부르한 옛딘은 이듬해 여러 백들이 일으킨 반란에 가담했고, 그 반란으로 인해 기야스 옛딘이 사망했다.

이후 카디 부르한 옛딘은 에레트나 공국의 왕자들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와지르와 아타벡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1381년~1382년경에는 에레트나 공국의 영지를 차지하여 스스로 술탄이 되었다. 에레트나 공국의 수도는 시바스였으므로 그도 시바스에 머물렀다. 그는 이후 18년간 술탄 자리에 있었는데, 끊임없는 백들의 반란과 카라만 공국 및 오스만 등 주변의 강력한 세력과의 전쟁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변 세력들에 맞서며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예를 들면 1387년경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과 싸워 패배했지만, 곧 그를 도와 아크코윤루(백양조) 사이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크코윤루가 공국의 동쪽에 위치하여 아마시아나 에르진잔 등 자신의 영내에 있던 여러 백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자 다시 아크코윤루와 연합했다. 그러나 그가 카이사리에의 반란 세력인 세이흐 무아야드를 처형하면서 아크코윤루의 카라우스만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아크코윤루의 공격으로 인해 1398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티무르 조 사료에 의하면, 오스만의 바야지드 1세가 티무르의 아나톨리아 입성 이전 아나톨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할 무렵, 카라우스만과 시바스의 하킴, 카디 부르한 옛딘을 함께 살해했다.

카디 부르한 옛딘은 시인이자 역사서 『Tardjih al-Tawdih』를 쓴 저술가이기도 했다. 그는 주로 아랍어로 작품을 썼다. 그의 시집[디반(Diwan)]은 1,500여개의 가사를 수록할 정도의 방대한 양인데 그중 몇몇 시는 동부 투르크어 방언으로 쓰였다. 그는 종교인이었으나 신비주의적인 성격은 크게 띠지 않았고, 그의 작품은 페르시아 서정시의 전통과 수사적 특징을 충실히 따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디 부르한 옛딘
- 다국어 표기 Kadi Burhâneddin(튀르키예어), قاضی برهان الدين(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에레트나 공국, 아크코윤루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65~366.
- Rypka, "Burhan al-Din,"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1327~1328.

I G144 | 카디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 Kadir

문학계에서는 시인 카디르(A.Kadir)라고 일컫지만, 그의 본명은 이브라힘 압둘카디르 메리츠보유(İbrahim Abdulkadir Meriçboyu)이다. 카디르는 1917년 7월 16일 이스탄불 에이위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인 1911년 튀르키예에서는 지야 괴칼프(Ziya Gökalp)와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Mehmet Emin Yurdakul)을 중심으로 '젊은 작가들(Genç Kalemler)'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민족주의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카디르는 군 장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의 권유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쿨레리 군사 고등학교(Kuleli Askeri Lisesi)에 입학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뒤인 1935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카디르의 첫 번째 시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정시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첫 시를 돌아가신 어머니께 바치기 위해 1934년~1935년쯤에 썼다. 당시 나는 17살, 고등학교 1, 2학년이었다.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초반부터 독서를 즐겼는데, 점차 시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파르크 나피즈(Faruk Nafiz), 네지프 파즐(Necip Fazıl)의 작품을 즐겨 읽었고 이들을 모방해 시를 썼다. 대체로 죽음이나 사랑이 주제였고 비관적인 시였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오노레 드 발자크, 에밀 졸라,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막심 고리키를 읽기 시작했다. 이후에 시인 나즘을, 단편소설 작가 사바하딘 알리를 만났다.”

카디르는 193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앙카라 군사학교(Ankara Harp Okulu)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1938년 나즘 히크메트의 시를 읽다가 체포되었다. 5년 10개월 형을 받은 그

는 항고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이후 군사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1941년 이스탄불 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첫 시집 『통보(Tebliğ)』를 1943년에 펴냈다. 1943년은 2차 세계 대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다. 히틀러 파시즘이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튀르키예까지 들어왔다. 이로 인해 그는 시련을 당했다. 그는 튀르키예 내 나치 지지자들과 독일 제국주의 지지자들의 고발로 시집을 모두 수거당하고, 4년 6개월간 다른 도시로 추방됐다. 그는 물라, 발루케 시르, 코니아, 크르쉐히르 등을 전전했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 어쩌다 일을 구해도 해고를 당하면서 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학업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카디르는 추방 기간이 끝난 1947년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비스킷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출판사에서 번역과 편집을 도왔다. 그는 시를 써서 <아큰(Akın)>, <소리(Ses)>, <신문학(Yeni Edebiyat)>, <행군(Yürüyüş)>, <샘물(Pınar)>, <이삭(Başak)>, <하루(Gün)>, <퇴적물(Yığın)>, <비와 토지(Yağmur ve Toprak)>, <사상과 예술(Fikir ve Sanat)>, <지표면(Yeryüzü)>, <동행(Beraber)>, <예디테페(Yeditepe)>, <시인들의 잎사귀(Şairler Yaprağı)>, <일요우편(Pazar Postası)>, <시대(Dönem)>, <미래(Gelecek)>, <투사(Militan)>, <예술작업(Sanat Emeği)>, <문학81(Edebiyat 81)>, <와르륵(Varlık)> 등 정기 간행물에 기고했다.

1953년 결혼한 그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된 시를 비롯한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현대어로 읽는 메블라나(Bugünün Diliyle Mevlana)』를 출간했다. 1959년 두 번째 시집 『환영합니다. 할릴 이브라힘(Hoşgeldin Halil İbrahim)』을 출간한 그는 공을 많이 들어서 『호메로스(Homeros)』를 번역했다. 1960년에 출판한 『진정한 정의(Asıl Adalet)』에는 세계 여러 시인의 작품을 담았고, 1961년에는 『엘뤼아르(Eluard) 시 선집(Seçme Şiirler)』을 출간했다.

그는 1959년 번역서 『호메로스』로 하빕 에디프 퇴레한(Habip Edip Törehan)상을, 1961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번역상을, 1980년에는 하산 알리 에디즈 문학번역상을, 1983년에는 야즈코 번역상을 받았다.

1961년에는 번역물 외에 시집 『4개의 창문(Dört Pencere)』을 출간했는데, “이 시집에서도 카디르의 사회주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자신만의 고유한 고치에서 실을 성공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디르는 1964년 『현대어로 읽는 하이얌(Bugünün Diliyle Hayyam)』을, 1965년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의 시를 오늘날 튀르키예어로 번역했고, 1968년 첫 번째 시집 『통보』에 수록한 시들을 포함하여 그가 쓴 모든 시를 한데 모은 『행복할 때(Mutlu Olmak Varken)』를 출판했다.

이어서 그는 1970년 아즈라 에르하트(Azra Erhat)와 공동으로 번역한 『오디세이아(Odysseia)』를 출간했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유럽과 제3세계 시인의 작품들을 단독 번역과 공역으로 『세계 민족·민주주의 시집(Dünya Halk ve Demokrasi Şiirleri)』 시리즈 시집 3권을 차례로 출간했다

1966년 회고록 『1938년 군사학교 사건과 나즘 히크메트(1938 Harp Okulu Olayı ve Nazım Hikmet)』를 출간했고, 1978년에는 소련 여행기인 『소련 러시아에서 보름(Sovyet Rusya'da Onbaş Gün)』을 간행했다.

카디르의 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순간과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이 명확하고 생생하다. 카디르의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하층민이다. 튀르키예 문단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카디르는 옥타이 르파트와 멜리흐 제브데트처럼 자신이 쓰는 시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해도 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고민했다. 자유와 행복에 대한 동경을 갖고 세계로 나가고 싶어 했고 인류를 대표하여 소리쳤다. 카디르의 시는 폭력과 억압을 반대했고, 당시 다른 시인들처럼 억압받는 사회에서 침묵하는 대중의 대변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초기 그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격양된 어조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서정적으로 바뀌었다. 다음은 시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시구이다.

누가 알까, 지금 이 세상에
생계가 어려운 이가 넘쳐난다
손가락을 움켜질 손도, 입도 넘쳐난다
한 입 삼킬 음식도 구할 수 없다
누가 알까, 지금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사람
말해야 하는 사람
누가 알까, 그건 시인

1930년대에 나즘 히크메트가 시작한 사회주의 시는 1940년대 카디르가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3월 1일 유명을 달리한 카디르는 이스탄불 진지르리쿠유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 카디르, 아브둘 카디르
- 다국어 표기 Abdullah Kadir(영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이스탄불,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나즘 히크메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aş Gülen, *A. Kadir*, Gerçek Sanat Yayınları, İstanbul, 1988.
Behramoğlu Ataoğlu, "A. Kadirle Bir Konuşma", *Militan*, Sayı:15, İstanbul, 1976.
Hatipoğlu Aydın, "Hayattan Şiir Damıtan Ozan A.Kadir", *Vatan*, 23 Ocak, 1978.
Oktay Ahmet, *Cumhuriyet Dönemi Türk Edebiyatı 1923~1950*,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93.

I G145 I 카디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diryya

카디리는 압둘 카디르 길라니(Abdul Qadir Gilani, 1077년~1166년)가 세운 수피 종단이다. 이 시기는 수피 셰이크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모여 규칙을 세우고 모임을 만들며, '종단'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때이다. 각 종단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카디리의 활동 무대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이슬람권이었다.

길라니의 계보는 4대 칼리프 알리(Alī ibn Abī Ṭālib, 656년~661년)로 올라간다. 압둘 카디르는 수피즘을 받아들이고, 마드라사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과 이슬람법 해석에 대해 토론했으며,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퍼트렸다. 이 과정에서 카디리 종단의 중심 사상이 확립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카디리 종단은 대략 길라니가 사망한 이후 아나톨리아반도, 발칸반도, 시리아, 인도, 북아프리카와 안달루시아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이 종단은 각 지역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갈렸다.

카디리 종단의 다섯 가지 기본 규칙은 자비를 베풀고, 금지사항(하람)을 피하고, 봉사를 아름

답게 만들고, 결단력을 늘리고, 축복에 존경을 보이는 것이다. 카디리 종단의 중점적인 가르침은 길라니의 유서에 잘 나타난다. 그는 유서에서 종교적 명령을 따르며 금기를 세심하게 지키고, 알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금한 죄를 범하지 말고 죄가 될 만한 것들을 건들지 말 것을 충고하면서 카디리 종단이 순나와 성전(聖典) 위에 세워졌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음의 안정과 관대함, 많은 자선, 많은 어려움을 견디는 것, 종단 동료들의 환난을 돕는 것이 종단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대함, 신의 뜻에 대한 만족, 인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와 지식, 자신이 영계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양털 옷을 입는 것, 여행을 하고 청빈하게 지내는 것들이 예언자의 특징이며, 수피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카디리 종단에도 알라의 일곱 이름을 외우며 수행하는 방식이 있으며, 은둔의 전통과 테스트피를 세며 기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콰디리에, 카디르릭, 커디리라르, 카디리에
- 다국어 표기 Qadiriyya(아제르바이잔어), Qodiriylar(우즈베크어), Kādīriyye(튀르키예어), Қадирия(카자흐어), kadiřya(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압둘 카디르 길라니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ürkiye’de Mezhepler ve Tarikatlar*, İstanbul: Gerçek Yayınevi, 1969.
Azmat, Nihat. “Kadiriyy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131~136.
Trimingham, John Spencer. *The Sufi Orders in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I G146 | 카라 조르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춤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ra Zhorga

카라 조르가(Kara Zhorga)는 카자흐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민속춤의 하나로, 말을 탄 씩씩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착안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인의 전통 민속춤 중 가장 대표적



카라 조르가

인 것으로, 대부분의 행사에서 이 춤을 춘다. 느리지 않은 속도와 어깨를 이용한 큰 율동, 손목 꺾기 동작이 카라 조르가의 특징이다. 축제나 행사에서 이 춤을 추는 사람은 대개 청년 남녀들이다. 유목민답게 카자흐인들은 말을 매우 잘 탔는데, 유목민의 기상을 보이며 말을 타는 듯한 춤 동작에는 이런 역사적 내력이 담겨 있다. 즉 수 세기 동안 유목 생활을 한 카자흐인들의 생활과 심성을 보여주는 춤인 것이다.

카라 조르가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할 정도로 카자흐인들에게 인기 있는 춤이며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민속춤이다. 카라는 black, 조르가는 pacer란 의미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다양한 기술로 말을 타고 다닌다’는 뜻이다.

흥겨운 카자흐 전통 민요와 돔브라 등 민속 악기가 연주되면서 빠른 템포의 율동이 시작된다. ‘쿵 짹’ 형태의 3/4 박자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카라 조르가는 카자흐스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다국어 표기 Қаpa Жорға(카자흐어), Каpa жорғ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전통 춤

● 멀티미디어 링크 카라 조르가’의 공연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gjQchr3XQy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unesco-ichcap.org/eng/contents/ich.php?mode=view&code=H0000945>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147 | 카라괴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유형 소분류2 그림자극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ragöz

카라괴즈(Karagöz)는 튀르키예의 전통 그림자극을 말하는데, 그 명칭은 주인공인 카라괴즈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설에 의하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그림자극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의 그림자극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인도에서 서구로 이동하는 집시들로부터 전해져 왔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인도 전통 그림자극은 존재하지만, 집시들이 출발했던 인도 북부 지방에는 그림자극이 많지 않다. 다만, 두 학설 모두 그림자극의 두 주인공인 카라괴즈와 하지바트(Hacivat)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에블리아아 첼레비(Evliya Çelebi, 1611년~1682년)의 기록에 따르면 두 주인공은 셀주크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카라괴즈는 집시 출신이고, 하지바트는 셀주크 술탄 알라엠티딘(Sultan Alaeddin, 재위: 1220년~1237년) 시대의 이오룩차 할릴(Yorkça Halil)이다.

다른 전설에서는 술탄 오르한(Sultan Orhan, 재위: 1326년~1359년) 시대에 부르사에 모스크를 건설할 때 하지바트는 석조공 일을, 카라괴즈는 대장 일을 했다고 한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만담은 모스크 건설에 참여한 인부들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술탄 오르한은 건설을 늦추게 한 두 사람의 머리를 자른다. 그 후 쉐흐 퀴쉬테리(Şeyh Küşterî)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공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설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은 없다.

오스만 시대에 그림자극이 도입된 것은 16세기였다. 그림자극은 당시 이집트 맘루크 그림자극 공연자들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야부즈 술탄



카라괴즈와 그림자극 인형

셀림(Yavuz Sultan Selim, 재위: 1512년~1520년)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그림자극을 관람한 후 그의 아들이 이 극을 보고 싶어 공연자들을 이스탄불로 불렀다. 이집트에서는 그림자극 공연이 11세기 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 맘루크의 그림자극에 사용된 인형은 단색 빛이고 투명하지 못했다. 맘루크 공연자들에게 그림자극을 배운 오스만의 공연자들은 가죽 공예 기술을 이용하여 인형을 투명하게 만들었고 인형에 관절을 추가해 동작성을 높였다.

카라괴즈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 카라괴즈는 오스만 제국이 자리 잡으면서 투르크의 유머와 고전시(divan), 민중시와 신비주의 시, 예술 음악과 민중 음악, 악기, 악기를 들고 추는 춤, 남성이 여성을 흉내 내는 춤 등 예술과 민중 무용으로 더욱 풍부해지게 된다. 또한, 오스만 사회를 구성하던 다양한 인종과 신앙인들의 의상과 캐릭터, 그들의 방언이 첨가된다. 카

라괴즈는 단지 아나톨리아반도뿐만 아니라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후기 이집트까지 퍼지게 된다.

이 그림자극은 보통 한 명의 실연자가 인형을 조종하고 여러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한다. 실연자는 극 실연뿐만 아니라 연출을 비롯하여 인형의 안무까지 담당하며 인형 제작도 직접 한다. 실연자의 제자가 인형들을 출연 순서대로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 제자를 도와주는 사람과 음악 연주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극은 도입부와 만담, 본극이라 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입부에서는 관객이 극에 빠지도록 그림자를 보여주고 움직이며 카라괴즈와 하지바트를 싸움 붙여 관객과 친근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만담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 때때로 각 장 사이에 휴식 시간처럼 만담이 들어가기도 한다. 각 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세대마다 다르다.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나 환상적인 민담 따위가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주요 주인공인 카라괴즈는 민중을 대표한다. 굵은 목소리로 연기하는 카라괴즈는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고난을 겪기도 한다. 하지바트는 엘리트 계층을 대표하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행동을 하고 갈등이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카라괴즈와 반대로 가느다란 목소리의 하지바트는 이스탄불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캐릭터 중에는 카라괴즈와 하지바트의 가족도 있으며 남녀 캐릭터 모두 존재한다. 카스타모노인, 볼루인, 카이세리인, 카라만르인, 에인리인, 라즈인, 쿠르드인, 아랍인, 알바니아인, 루멜리인, 타타르 이민자, 집시, 유대인과 같은 다양한 지방과 민족의 캐릭터는 각기 언어와 방언의 특징이 담긴 말을 한다. 이외에 장애인 캐릭터나 마약중독자, 변태, 연예인과 같은 캐릭터 등 오스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타입의 구성원들이 등장한다. 극에 따라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림자극 카라괴즈는 1.80×0.80cm 크기의 흰색 장막 뒤에서 등유 불이나 촛불을 켜고 공연한다. 인형의 대부분은 낙타 가죽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색을 입히며, 움직임을 위해 가는 막대를 장치한다.

극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규칙성이 있게 변화했다. 보통은 원래 사용하던 음악을 썼으나 일부는 따로 작곡한 것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카라괴즈는 튀르키예에서 지금도 명절 등 특별한 날에 공연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교즈
- 다국어 표기 Karagöz(튀르키예어), karagöz ve Haciva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타 오유누,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ch.unesco.org/img/photo/thumb/01018-HUG.jpg>
<https://www.youtube.com/watch?v=b97PRbyc1-w>, https://wepa.unima.org/wp-content/uploads/2017/09/karagoz_01-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 Metin. “karagöz”,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401~403.
And, Metin. *100 Soruda Türk Tiyatrosu Tarihi*, İstanbul: GerçekYayınevi, 1970.

I G148 | 카라만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Karamanids

카라만 공국(Karamanids)은 아나톨리아의 투르크계 국가로, 1256년부터 1475년까지 200년 이상 존속했다. 카라만 공국의 영역은 남부-중부 아나톨리아와 지중해 해안 지역이며, 오랜 기간 동안 오스만과 병존했으나 결국 오스만에 병합되었다. 이 국가의 지배계층은 투르크멘계의 아프샤르 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성 부족 중에는 오구즈계 투르크와 투르크멘 부족이 섞여 있었다. 카라만 조의 선조들은 일 칸국이 이슬람권에 진입하기 전 아나톨리아 동쪽의 아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몽골 제국의 침입 초기였던 13세기 초에 점차 서쪽으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을 거쳤다가 에르메넥 지역(타우루스산맥의 북서 사면)에 자리하게 되었다.

당대와 후대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국가의 시조인 카라만의 부친은 누르 앳 딘이라는 이름의 수피이며, 정치보다는 종교에 관심이 많아 아들 카라만을 공국의 왕으로 두었다고 한다. 13세기 중반 몽골의 장군 바이주의 침입과, 룸 셀주크 술탄 간에 발생한 내분 등으로 인해 변경의 여러 공국들은 비교적 강력한 자치권을 얻게 되었는데, 일부는 룸 셀주크의 두 술탄 후보 간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들은 몽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술탄 카이카부스를 지지했다. 이에 몽골의 지원을 받은 아나톨리아 행정총독인 파르와나 무인 앳 딘 술레이만이 카라만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 에르메넥의 아미르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카라만 공국은 보다 공인받은 세력이 되었다. 카라만은 뒤이어 몽골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르메니아의 헤툼 왕을 공격했으나, 그때 얻은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

한편 카라만은 룸 셀주크의 술탄 후보 중 카이카부스를 지지했으나 그의 반대파가 세력을 얻었으므로 새로운 룸 셀주크의 군주인 루크 앓 딘과는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룸 셀주크는 카라만 공국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1277년 맘루크 조의 바이바르스가 몽골 군대를 격퇴시키고 아나톨리아 중앙부의 카이세리로 입성한 후, 그에게 복속한 카라만 공국의 알리 술탄을 ‘아미르’로 임명했다. 맘루크 조 세력에 힘입은 카라만 공국은 중심지를 라란데로 이전했고, 그곳에서 성행하던 페르시아 행정언어를 투르크어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1260년대에 메흐메드 벅은 잠시 코니아를 점유하기도 했고, 14세기 초에는 일 칸국과 전쟁을 치렀던 맘루크 조의 가신으로 복속했으므로 일 칸국-맘루크 간의 전쟁 관계가 카라만 공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14세기 초에 카라만 공국은 수차례 코니아를 차지했는데 그때마다 일 칸국의 아나톨리아 총독이었던 아미르 추판에게 쫓겨났다.

그러나 1335년 일 칸국이 멸망한 후, 오스만 무라트 1세의 공주와 결혼한 카라만 공국은 상당히 큰 세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1380년 카라만 공국이 차지한 지역은 본래의 중심지였던 아나톨리아 중남부 지중해 유역인 에르메넥과 라란다를 비롯하여 아크사라이나 코니아와 같은 아나톨리아 중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스만 조가 성장하면서 카라만 조는 1398년 오스만에 병합되었다. 그 이후의 운명은 주변의 타 공국과 유사한 편인데, 중앙아시아의 유목 군주인 티무르가 오스만의 바야지드 1세를 크게 격퇴한 후 오스만 술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여러 후보자가 각축을 벌였다. 이와 같은 정세를 틈타 1402년 재등장한 카라만 공국의 메흐메드 베이는 여느 아나톨리아 벅들처럼 독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오스만에 크게 패배했고, 역으로 오스만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마지막 카라만 공국의 군주 타즈 앓 딘 이브라힘 2세는 서쪽으로는 베니스와 교황, 동쪽으로는 아크코윤루와 오스만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연합했다. 그러나 결국 오스만의 내정간섭을 야기하여 카라만 조는 멸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만오울라르, 카라만오울라르 베이리이

● 다국어 표기 Karamanoğulları Beyliği(튀르키예어), فرمان(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84~386.

F. Sumer, "KARAMAN-OfHULLARI," *Encyclopaedia of Islam*4, Leiden: Brill, 1997, pp.619~624.

Mehmet Fuat Köprülü, *The Origins of the Ottoman Empire*. Tr. Gary Leiser, NewYork: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1992.

I G149 I 카라만르라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민족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ramanlılar

카라만르라르(Karamanlılar)는 아나톨리아 중부 지역에 살면서 투르크어를 사용하던 기독교인을 지칭한다. 카라만르라르는 튀르키예어로 ‘카라만 지역의 사람(Karamanlı, 카라만르)’의 복수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카라만 지역 이외에도 메르신, 코니아, 에르메넥, 에레일, 악사라이, 니으데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했다. 이 지역이 13세기 건설된 카라만 공국(Karamanoğulları 또는 Karamanoğulları Beyliği, 1250년~1487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원한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카라만르라르는 그리스 정교회 신도들이었으며 튀르키예어를 그리스 문자로 표기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대체로 카라만르라르가 투르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 학자들은 이들이 그리스인, 더 정확히는 비잔틴 제국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투르크인일 경우, 이들이 카라만 공국 또는 셀주크 조의 그리스 정교회 신도들이었는지, 아니면 흑해 북쪽에서 내려와 비잔틴 제국에 의해 개종되었던 페체넥, 쿠만, 우즈, 킵차크 투르크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이들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 12세기~13세기인데, 당시 그들을 언급한 문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 내에서 민족성 구분보다는 종교로서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카라만르라르는 스스로를 ‘룸(동로마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정

교회인'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1923년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 합의에 따라 약 20만 명의 카라만르라르가 그리스로 이주했고 일부는 튀르키예에 남았다.

그리스 문자로 기록하는 튀르키예어, 즉 카라만어로 작성된 묘비와 교회 비문, 종교 서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문학 작품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만인, 카라만리데스
- 다국어 표기 Karamanlılar(튀르키예어), Karamanlides(영어)
- 연관 검색어 카라만 공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44;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Aykut Kazancıgil), İstanbul: Kabaıcı, 2002.
Ağca, Ferruh. “Hiristiyan Karamanlı Türkleri ve Karamanlı Ağzı Üzerine”, *Türkbilig*, 2006/11: 3~18.

I G150 | 카라바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우덕찬, 오은경 ● 라틴 문자 Karabakh

카라바흐 지역은 25만~3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턱뼈가 발견됐을 정도로 인류 문명의 역사가 오랜 곳이다. ‘거대한 정원’이라는 뜻의 투르크어 ‘카라바흐(Qarabağ)’가 공식적인 지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부터로 알려져 있다. ‘나고르노’라는 수식어는 산악 지역임을 뜻하는 러시아식 표기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러시아식 수식어 ‘나고르노’ 사용을 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카라바흐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부터다. 1805년 ‘퀴렉차이 조약’으로 카라바흐 왕조(Karabakh Khanate)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러시아 제국은 1813년 이란과 ‘굴뤼스탄 조약’을 체결해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넘겨받는다. 곧이어

1828년 강화조약 ‘투르크만차이 조약’을 체결한다. 러시아 제국은 이 조약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란에서 카라바흐를 포함한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이주할 수 있도록 법적·정치적 제도를 보장해 주었다. 이란과 오스만 제국 등 무슬림 인구와 국경을 맞대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목적이었다. 러시아 제국은 기독교 인구를 정착시켜 보호막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카라바흐에 아르메니아인의 본격적인 정착이 이뤄진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불행한 학살과 포그롬(러시아의 소수민족 박해)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는 ‘아르메니아-타타르 전쟁’(1905년~1906년)이라 불리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시화된다. 이른바 아나톨리아에서 이주해 온 40만 아르메니아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카라바흐에 거주하던 아제르바이잔인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 역사를 뒤로하고 아제르바이잔은 191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했고, 카라바흐는 여기에 귀속된다. 1920년에 캅카스 지역이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된 직후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귀속되었다가 스탈린(Stalin)에 의해 1924년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편입되었고, 카라바흐에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1922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모두 소비에트 연방이 되는 시점까지도 폭동과 서로에 대한 학살은 이어진다.

구소련 체제하에서 카라바흐도 아제르바이잔 사회주의공화국 자치구로 편입되지만 아르메니아는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카라바흐의 영토 분쟁이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카라바흐의 분리를 요구하는 아르메니아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시위로 모스크바는 카라바흐 자치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저지된다. 1989년 12월 1일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와 아르메니아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이를 모스크바가 눈감아주면서 상황은 악화된다.

설상가상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끄는 구소련 지도부가 1990년 1월 이른바 ‘검은 1월(Black January)’이라고 불리는 잔혹사의 주범이 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최신 기술과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무장군인을 풀어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을 벌인 것이다. 1월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날 밤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57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당했다. ‘검은 1월’ 사건은 소련이 해체되는 데 결정적인 불씨가 됐을 정도로 소련연방 전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청났다.



군사적 긴장이 감돌던 카라바흐(2015년)

1991년 결국 소련은 해체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모두 독립국이 됐다. 아제르바이잔은 곧바로 본국에 자치지역으로 귀속됐던 카라바흐의 자치권을 폐지했다. 그러자 한 달 후 카라바흐는 약 20%에 불과한 소수의 아제르바이잔인(이슬람교도)이 약 80%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기독교도)을 통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민투표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 그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조차도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었다. 독립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으로 대략 3만 명 정도의 사망자와 100만 명 정도의 실항민(난민)이 발생했다. 1994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됐다.

카라바흐 충돌은 국제법상 모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전’에 속

한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에 군사기지를 두고 무기 공급을 해 왔던 러시아라 해도 아르메니아 군대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2020년 7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군은 국경 지역(토부즈)에서 충돌했고, 카라바흐 지역에서 전면전을 벌이던 중 아르메니아군은 카라바흐에서 멀리 떨어진 간자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소련연방 내 국가들의 군사협력체)의 지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국제전으로 확대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그간 카라바흐가 자국과 공식적으로 통합되지 못할 바에야 국제법상 ‘불법 점령’이라 하더라도 분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카라바흐가 기독교도인 아르메니아인의 역사적 고향이며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국제 여론을 형성하며 국제사회의 상당한 동조와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군사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전면전을 통해서라도 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영토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벌어진 전면전을 통해 카라바흐 주변 아르메니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상당 부분 탈환했다. 이 전쟁은 2020년 11월 10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러시아 3개국 간의 휴전 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대(對)테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카라바흐 지역의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을 공격했고, 카라바흐 지역 주민 12만명 중 아르메니아계 10만명 이상이 이 지역을 탈출한 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지역을 사실상 완전 지배하고 있으며 카라바흐 경제 재건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고르노 카라바그, 가라바그, 카라바흐.
- **다국어 표기** Dağlıq Qarabağ (아제르바이잔어),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 (아르메니아어), Dağlık Karabağ (튀르키예어), Karabakh (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캅카스
- **멀티미디어 링크** Articles and Photography on Artsakh (Nagorno-Karabakh) from UK Photojournalist Russell Pollard
- **참고문헌(오프라인)** Bournoutian, George A. *A History of Qarabagh: An Annotated Translation of Mirza Jamal Javanshir Qarabaghi's Tarikh-E Qarabagh*, Costa Mesa, CA: Mazda Publishers, 1994.
Robert H. Hewsen, *Armenia: A Historical Atl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오은경, 「강대국 이권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슬픈 땅’의 시련」, 『시사저널』, 제1617호, 2020.10.10.
장병옥, 「나고르노-가라바그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12(no.1), 2008.

I G151 | 카라바흐 칸국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Qarabağ xanlığı

아제르바이잔에 존재했던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 1747년~1822년)은 퀴르 강(Kür çayı)과 아라즈 강(Araz çayı) 사이에 걸쳐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카라바흐 칸국은 패나헬리 칸(Pənahəli xan, 재위: 1747년-1763년)에 의해 세워졌다. 패나헬리 칸은 나디르 샤(Nadir şah)에 군에서 복무했고, 나디르 샤가 암살을 당한 후 패나헬리 칸은 스스로를 칸으로 선언했다.

1748년 캐비를리 지역(Kəbirli mahalı)에 방어를 위하여 바얏 요새(Bayat qalası)을 세웠고, 요새 내에 주택, 모스크, 시장 및 목욕탕을 건설했다. 카라바흐 칸국의 발전으로 이 지역을 노리고 있던 시에키 칸국과 칸국에서 독립한 세력의 경계심이 커진다. 이들은 1748년 패나헬리 칸을 공격하고 바얏 요새를 포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패나헬리 칸은 1752년, 새로운 요새인 샤희불라크 요새(Şahbulaq qalası)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로 만족하지 못했던 패나헬리 칸은 1756년 패나하바트 요새(Pənahabad qalası)를 건설했고, 이 고원에 건설된 요새는 후에 슈사(Şuşa)라고 불리게 된다. 이 슈사는 곧 모든 아제르바이잔의 중요한 무역, 공예 및 문화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패나헬리 칸의 제위에 있는 동안, 통치를 거부한 기독교 세력과의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7세기와 18세기 초에 형성된 이 기독교 세력은 나디르 샤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많은 특권을 누렸고, 카라바흐 칸국 건국 이후, 그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했다. 패나헬리 칸은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다. 패나헬리 칸의 통치를 제일 먼저 배렌대(Vərəndə)의 영주 사흐내재르(Şahnəzər)가 받아들이게 된다. 패나헬리 칸은 영주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었으나, 이런 복속은 형식적일 뿐이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영주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려고 노력했으며 카라바흐 영토에서 아르메니아 국가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다.

나디르 샤의 사망 이후 권력 투쟁을 이용하여 패나헬리 칸은 카라바흐 칸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이전에 나흐츠반 칸국(Naxçıvan xanlığı) 및 이레완 칸국(İrəvan xanlığı)에 속해 있

던 타테브(Tatev), 시시안(Sisian), 카판(Qafan), 메흐리(Mehri), 괴이체(Göyçə) 지역들이 카라바흐 칸국으로 합병되었다. 태브리즈 칸국(Təbriz xanlığı), 나흐츠반 칸국(Naxçıvan xanlığı), 갠재 칸국(Gəncə xanlığı) 및 카라다그 칸국(Qaradağ xanlığı)들은 일정 기간 카라바흐 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패나헬리 칸은 카라바흐 칸국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1757년 카라바흐 칸국은 매함매드헤센 칸 가자르(Məhəmməd həsən xan Qacar)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적군은 카라바흐에 한 달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슈샤에 접근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다. 1759년 우르미야 칸인 패탈리 칸 애프샤르는 판 카라바흐를 공격했다. 6개월 동안 슈샤를 포위했지만 적군은 슈샤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긴 포위 공격이 도시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을 본 패나헬리 칸은 아들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 재위: 1763년~1806년)을 볼모로 내주고, 포위 공격을 막았다.

패나헬리 칸이 사망 후 볼모에서 풀려난 이브라힘헬릴 칸이 칸국을 차지하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영주들을 숙청하고, 협상과 무력을 통해 아르메니아 세력도 정복했다. 이 기간 동안 카라바흐 칸국은 더 강해졌고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남 캅카스에서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795년과 1797년 카자르 제국의 아가 매함메드 샤(Ağa Məhəmməd Şah)가 슈샤를 공격하면서 칸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약화되었다. 20세기 초 칸국의 대내외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804년 5월, 카자르 제국은 러시아에 남 캅카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1804년 6월 16일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친 러시아 세력의 압력과 주장에 직면한 이브라힘헬릴 칸은 후퇴하고 러시아와 협상하게 되었다. 1805년 5월 14일, 러시아와 카라바흐 칸국 사이에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퀴랙차이 조약(Kürəkçay müqaviləsi)이 체결되었다. 퀴랙차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칸과 칸의 상속인 및 칸국의 전체 인구는 러시아 예속을 받아들인다.
2. 칸국은 독립적인 정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3. 칸국의 내부 행정은 칸의 재량에 따라 유지된다.
4. 칸은 러시아에 매년 8,000 체르본(Червонец)을 지불한다.
5. 슈샤에서 러시아 수비대를 유지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협약을 어기고 1806년 6월 12일, 이브라힘헬릴 칸이 쉬고 있던 천막을 급습해 어린아이, 여성, 노인 등 17명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카라바흐 칸국뿐만 아니라 시애키 칸국(Şəki xanı)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브라힘헬릴 칸의 아내가 시애키 칸인 샬림 칸(Səlim xan)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사태를 무력으로 진정시키려 했다. 이브라힘헬릴 칸의 아들인 메흐디굴르 칸(Mehdiqulu xanı, 1806년~1822년)을 칸으로 선포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에게 러시아 군대의 장군 계급을 부여했다. 사실, 그에게 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러시아는 칸국 관리 시스템에서 그를 제외시킨 것이었고, 러시아는 칸국 체제를 폐지했다.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메흐디굴르 칸은 테헤란의 카자르 궁전으로 피신했지만 1826년에 귀국한다. 러시아는 그에게 권력을 박탈하되 카라바흐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다. 메흐디굴루 칸은 1845년에 사망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바그 칸국

● 다국어 표기 Qarabağ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Karabağ Hanlığı(튀르키예어), Qorabog' xonligi(우즈베크어), Карабах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Karabakh Khanate(영어)

● 연관 검색어 시애키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de, 4–Cü Cild*, Bakı, 2000, S.14~53.

Azərbaycan Tarixi: Dərslük I Z. Büny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neşr, 1994, 680 Səh.

Azərbaycan Tarixinə Dair Qaynaqlar. Bakı, 1989, S. 271.

Бабаев Эльгюн. Из Истории Гянджинского Ханства, Баку, Nurlan, 2003, 234 St.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n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Əmrəhov Mais, Çingiz Oğlu Ənvər, Həsənov HƏBİL. *QARABAĞ XANLIĞI. Dərs Vəsəiti*. BAKI, Mütərcim, 2008 – 208 S.

Hacıyeva Zəmfira. *Qarabağ Xanlığı: Sosial–iqtisadi Münasibətlər Və Dövlət Quruluşu*, Bakı, 2007, Səh.

Hüseynov Yunis . “*Qarabağnamələr*” *Azərbaycan Tarixini Öyrənmək Üçün Mənbə Ki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216.

Hüseynov Yunis. *Şuşa Şəhərinin Tarixi* . Bakı: “Şuşa”. 2013. 156 Səh.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248, 288.

Mustafazadə. Tofiq *Qarabağ Xanlığı*, Bakı: “Sabah”. 2009. 333 Səh.

Məmmədov Kərəm. 1000 il İrənı İdarə Edən Türklərin, Qacarları, “*Ədalət*” *Qəzeti*, 28 Fevral, 2021–Ci il.

Mustafayev T. *XVIII Yüzdillik–XIX Yüzd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də)*.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ü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Süleymanov Mehman Gülüstə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608 Səh.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G152 I 카라바흐라르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rabağlar Mausoleum

카라바흐라르 영묘는 아제르바이잔 나흐츠반 공화국 카라바흐라르 마을에 건설되었다. 일 칸국의 지배자 아부 사이드 바하두르 칸(Abu Said Bahadur Khan, 재위: 1316년~1335년)의 후원으로 제한 구디 하툰(Jehan Gudi Khatun)을 위하여 1335년부터 1338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1999년 복구 이전에는 두 개의 미너렛 사이에 있는 입구와 훼손된 지붕만 남은 상태였다. 2003년 완료된 복원 공사를 통해 돔과 같은 주요 요소를 재건하게 되었다.

영묘는 12개의 둥근 테두리가 있는 원통형이다. 둥근 석재를 기본으로 하여 볼트형 천장을 덮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영묘 사방에 4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입구는 직사각형 형태 내에 오지 아치 내에 있으며, 오지 아치 상단부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는 꽃문양을 기본으로 하는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북쪽 입구는 다른 입구와 달리 좀 더 깊고 비문이 있다.

영묘의 외부는 전체적으로 터키적 색과 붉은색의 벽돌을 교차로 배치하여 신(Allah)와 예언자 무함마드, 4대 칼리파인 알리의 이름을 쿠틱 서체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장식했다.

영묘 지붕 바로 밑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고 무카르나스 하단에는 서체 장식이 되어 있다. 나스크 서체로 쓰인 비문에는 묘소 건물의 주인과 앞서 언급한 제한 구디 하툰의 이름이 등장한다. 내부는 12개의 커다란 아치가 있으며 기둥으로 나뉘어 있다.

영묘의 건물 전면에는 15m x 19m 직사각형 건물이 있으며 여러 개의 방이 있다. 이 건물에



카라바흐라르 영묘 전면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는 2개의 미너렛이 있으며, 복원 이전에는 하부 벽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전체적인 장식 측면에서 바르다 영묘(Barda Mausoleum)와 유사하여 같은 건축 유파의 건축가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르다 영묘의 건축가는 나흐츠반 유파의 아흐마드 나흐치바니(Ahmad ibn Ayuub al-Hafız Nakhchivani)이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이 영묘는 1998년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라바으라르 영묘, 카라바으라르 영묘, 카라바으 영묘

● 다국어 표기 Qarabağlar türbəsi(아제르바이잔어), Karabağlar Türbə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나흐츠반

● 멀티미디어 링크 카라바흐라르 영묘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0/Qaraba%C4%9Flar_t%C3%BCrb%C9%99si_restavrasiyadan_sonra.jpg

카라바흐라르 영묘 전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5/Qaraba%C4%9Flar_t%C3%BCrb%C9%99_kompleksinin_%C3%BCmumi_g%C3%B6r%C3%BCn%C3%BCc%C5%9F%C3%BC.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unesco.preslib.az/en/page/2jS0CcEWo1>

<http://archnet.org/sites/3697>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Kırım ve Azerbaycan'da Türk Eserleri*. Istanbul: Baha Matbaası, 1979.

Ⅰ G153 Ⅰ 카라발가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rabalghasun

카라발가순(Karabalghasun)은 몽골의 오르콘 강가에 있는 고도(古都)로 745년~840년 몽골 고원을 지배한 위구르(회흘, 回紇) 제국의 수도였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르



카라발가순

콘계곡 문화경관(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의 일부이다. 몽골어로 ‘검은 성’, 혹은 ‘검은 폐허’라는 뜻의 이 고도는 당대(唐代)에는 ‘회골선우성(回鶻單于城)’ 혹은 ‘회골성(回鶻城)’이라고 불렸으며, 이슬람 문헌에는 ‘오르두 발리크’(Ordu-baliq, 궁전의 성)로 나온다. 중국의 당대에는 장안(長安)에서 카라발가순에 이르는 초원로로 음산(陰山)을 넘는 참천가한도(參天可汗道)와 거연(居延)에서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회홀로(回紇路)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이 길들을 따라 당과 위구르 사이에 견마교역(絹馬交易)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카라발가순은 북방 초원로상에 있는 행정 및 교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마니교(摩尼敎)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위구르 제국 시대에 이곳에서는 관개수에 의한 농경도 행해졌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맷돌 같은 농경생활과 관련된 도구도 발견되었다. 바로 이곳에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카라발가순 비문이라고 불리는 오르콘 위구르 제



UNESCO 오르곤계곡 문화경관

국의 제8대 보의가한(保義可汗, 재위: 808년~821년)의 기공비(紀功碑)이다. 돌궐 문자로 쓰여진 위구르 문자와 더불어 소그드 문자·한문도 새겨져 있어, 당시 위구르가 서방 문화·중국 문화를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위구르인들은 또 다른 비문을 남겼는데 시네우수 비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비문은 제2대 갈룩가한(葛勒可汗, 재위: 747년~759년)의 기공비로 시네우수호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두발릭, 오르두발릭
- 다국어 표기 Karabalghasun(영어), Ordu-Baliq(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돌궐 문자, 시네우수 비문, 고비사막
- 참고문헌(오프라인) 룩 판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정수일 편저, 『실크로드사전』, 창비, 2013.

Tekin, Talat, *A Grammar of Orkhon Turkic* (Uralic and Altaic). Routledge, 1997.

I G154 | 카라발가순 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마니교 ● 유형 소분류2 유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rabalgasun inscription

위구르 칸국 제8대 칸인 알프 빌게 카간(Alp Bilge Qaghan, 재위: 808년~821년)을 위해 세운 비(碑)에 새긴 것으로 소그드어, 중국어, 돌궐어로 적혀 있다. 이 비는 위구르 칸국의 수도였던 카라발가순(Karabalgasun)에서 발굴되었다. 이 비문은 카라발가순 칸의 군사적 업적, 전임 칸들, 그리고 마니교 채택과 마니교 교회 지원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비문은 중앙아시아 마니교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비문의 크기는 높이 400cm, 넓은 면 가로 180cm, 좁은 면 가로 70cm이다. 거북이 조각 뒤에 위치해 있었으며, 석판 주변은 용 문양 부조로 둘러싸여 있다. 비석의 두 개의 좁은 면과 한 개의 넓은 면은 중국어 및 소그드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넓은 면은 돌궐 문자로 적혀 있다. 이 넓은 면을 앞면으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어는 넓은 면의 왼쪽 절반, 다른 오른쪽 절반은 소그드어로 적혀 있다. 중국어와 소그드어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돌궐어의 경우 작은 조각만이 남아 있다.

비문 전반부는 8대 칸에 대한 찬양, 그의 정부 고위직 명칭 및 전대 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763년 안록산의 난에 연루된 후, 3대 칸인 뵈귀 카간(Bögü Qaghan, 재위: 759년~780년)이 위구르 칸국에 마니교를 받아들였으며, 뵈귀 카간이 뤼양(洛陽)에 머물렀고, 이후 마니교 승려들이 위구르의 영토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4대 카간 툰 바가 타르칸(Tun Baga Tarkhan, 재위: 780년~790년), 제5대 칸 퀴뤼그 카간(Külüg Qaghan, 재위: 790년), 제6대 칸인 쿠티루크 빌게 카간(Qutluq Bilge Qaghan, 재위: 790년~795년)의 즉위에 대해 짧게 언급하

고 있다. 또한 ‘동방 교구의 스승이자 지도자’, ‘신 튀양의 신과 같은 주인’, ‘법왕(法王)’과 같이 종교색이 짙은 문구들이 남아 있다.

이 비문에서는 제7대 카간 쿠투룩 2세(Qutluq II, 재위: 795년~808년) 시대에 이루어진 마니교와 승려들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비문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마니교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소수의 사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발가순
- 다국어 표기 Karabalgasun Yazıt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위구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karabalgasun-the-inscription>
- 참고문헌(오프라인) Orkun, Hüseyin Namık. *Eski Türk Yazıtları II*, Istanbul: Devlet Basımevi, 1939.

I G155 | 카라숙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arasuk Culture

‘카라숙 문화(Karasuk Culture)’라는 명칭은 오늘날 하카스 공화국에 위치한 크라스노야르스크 댐 아래 사라가쉬 마을 옆 예니세이강과 합류하는 카라숙강 유역에서 수행된 유적 발굴조사 이름에서 딴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카라숙 문화는 후기 청동기 문화로, 이때는 청동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카라숙 문화는 B.C. 13세기부터 B.C. 9세기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B.C. 14세기 혹은 B.C. 15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카라숙 시대의 묘지 및 고분들이 매우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B.C. 15세기~B.C. 14세기 혹은 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추측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카라숙 시대의 고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련 시절 농경지 개작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분 및 무덤들이 파괴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카라숙 시대의 고분에서 발견된 백골들은 대부분 목이 구부러져 있는데, 이는 고인의 머리 아래 베개가 놓였을 것이란 추정의 단서가 된다.

고분 주변에서는 오늘날 하카스인들의 제례 의식과 동일한 형태로 음식과 음료가 함께 놓인 흔적들이 발견된다.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 주변에서 발견된 머리핀, 귀걸이, 반지 및 구슬과 같은 장신구들은 당시 카라숙 문명이 가장 화려한 청동기 문화를 꽃피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기 고분들에서는 금 장신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이들 문화에 는 금에 대한 금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쉽게도 현재 대부분의 카라숙 문화 유산들은 도굴로 사라져 전해지는 유물들의 양이 많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수크, 카라숙

● 다국어 표기 Карасук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Karasuk Kültürü(튀르키예어), Karasuk Culture(영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 공화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Хака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Гл. Ред. В.Й.

Бутанайев. Абакан: Изд. ХГУ им. Н.Ф. Катанова, 2008.

I G156 | 카라쑤 무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arasu Tomb

카라쑤 무덤은 중국 신장성 알타이지구(阿勒泰地區) 하바허현(哈巴河縣) 자이레이마향(加依勒瑪鄉) 킵커타쓰촌(闊克塔斯村)에서 서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고비 초원에 위치한 무덤 유적

이다. 이 무덤들은 초기 철기 시대, 한대, 돌궐, 근현대 시기까지 조성되었는데, 도굴이 심해서 각 시기별 무덤의 분포나 배치는 확인할 수 없다.

무덤 양식은 시기별로 다른데 초기 철기 시대 무덤은 석곽목관묘이다.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안에 나무로 된 목관을 넣은 것이다. 무덤의 상부는 봉토했는데, 특히 M13호는 직경 22m, 높이 1.5m로 봉토했다. 봉토 아래에는 무덤 구덩이(길이 3.6m, 너비 3.1m, 깊이 3.4m)를 파고 그 안에 석곽을 설치했다. 석곽은 할석을 수직으로 세웠으며 그 안에 목관을 두었다. 목관은 쇠목과 구리목으로 결구되었다. 목관 서측의 상층과 하층에는 각각 말 4필, 3필이 매장되었다. 말은 금동, 청동 장식으로 치장되었고, 손잡이가 하나 달린 청동용기 등도 출토되었다. 목곽 내부에는 남녀 2인을 합장했으나 매우 흐트러진 상태였다. M15호도 M13호와 같은 무덤 양식인 석곽목관묘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두 13필의 말이 매장되었다. 치장된 말의 마구 가운데 금박으로 싯 장식이 발견되었는데, 알타이산 북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알타이산 북부와 서부의 무덤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로 된 무덤방 안에 모관을 넣었는지 여부이다.

7세기 돌궐 시기의 무덤 양식은 구덩이를 판 수혈토광묘이다. 이 무덤에서는 자작나무 껍질과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화살통과 검집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돌궐 무덤으로 초기 돌궐 문화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카라쑤 유적은 중국 신장성의 샤카 시기부터 흉노와 돌궐에 이르는 1000여 년간 이 지역의 문화 변동을 알려주는 유적이다.

● 다국어 표기 喀拉蘇(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于建軍·胡望林, 「2014年新疆哈巴河縣喀拉蘇墓地考古發掘新收獲」, 『西域研究』1期, 新疆社會科學院, 2015.

I G157 | 카라-오유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제사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ara-Oyuk

카라-오유크(Kara-Oyuk)는 알타이의 추야강의 지류인 아크켈 강변에 있는 초기 투르크 시대의 암각화 유적이다. 벨티르 마을에서 위로 1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추야강은 남쪽으로는 러시아 초원, 서쪽으로는 캅카스 북부 지역, 동쪽으로는 몽골 알타이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다. 이 협곡의 고대 도로를 따라 현재에도 러시아 국도가 지나간다. 초기 아시아 오지 여행자들은 고대 문화의 거대한 유적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유적은 동굴, 크고 작은 무덤, 석상, 관개 시설, 선사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는 암각화 등이다.

카라 오유크 유적은 아크-콜(Ак-Кол, Ak-Kol), 차간카(Чаганка, Chaganka), 키질-자르(Кызыл-Джар, Kyzyl-Jar)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암각화가 있는 지역을 알타이 원주민 언어로 수크-투트(Сук-Тут, Sook-Tyt)라고 불렀는데, 낙엽송 무덤이라는 뜻이다. 암각화는 3km 넘게 그려졌는데, 오른쪽 지류인 아크켈강의 오른쪽 독에 2개로 분리된 절벽에 그림이 그려졌다. 100개 이상의 이미지가 발견되었다. 동물(염소, 숫양, 사슴, 낙타) 및 사람 그림. 기하학적인 기호와 전차 그림 등이 있다. 사람 그림은 사냥을 하거나 무기를 착용한 무사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무사는 말을 타고 긴 창으로 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투르크 시대의 암각화는 매우 가늘고 예리한 것으로 사암 절벽에 선긋기 방법으로 그렸다. 그림 주제와 그린 방법을 보면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투르크 시대까지 오랫동안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 오유크

● 다국어 표기 Кара-Оюк(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Окладникова Е. А. Петроглифы Кара-Оюка // Урало-Алтаистика. Новосибирск, 1985.
Кубарев В. Д., Маточкин Е. П. Петроглифы Алтая. Новосибирск, 1992.123 с.

I G158 | 카라유르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ra-yurga

카라유르가(Кара юрга)는 바시키르 민족의 서사 창작물 중 하나로 말 송배 문화와 관련된 바시키르 서사시(쿠바이르)이다. 산문과 운문 형태로 존재한다. 1907년 부란굴로프(M.A. Бурангулов)가 사마라현의 베르흐냐-일라소보 마을에서 하산 부란굴로프에게서 처음 채록했다. 바시키르어로 ‘카라’는 ‘검다’를, ‘유르가’는 달릴 때 같은 편(왼쪽 또는 오른쪽) 앞뒤 발을 동시에 내딛는 말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는 고대 바시키르인들이 말을 성스러운 동물로 여긴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사냥꾼 아블라이는 마셈-바이의 딸 마크티므힐루를 사랑했지만 예물을 줄 수 없어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 카라-유르가가 주인을 위해 그녀를 납치했고 아블라이는 자신의 말을 위해 ‘카라-유르가’란 노래를 지었다.

이 서사시를 모티프로 해서 사피코프(Г.Г. Шафиков)의 희곡으로 만든 연극 ‘검은 말’이 1998년 러시아 극장 무대에 올랐고, 2013년 바시키르 극장에서는 ‘마크티므힐루, 아블라이, 그리고 카라-유르가’라는 뮤지컬이 공연되었다. 이 서사시는 오렌부르크주에서 10개 이상의 이본이 채록되어 보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유르카
- 다국어 표기 Кара-юрга(러시아어), Кара юрга(바시키르어)
- 연관 검색어 쿠바이르, 바시키르인
- 참고문헌(온라인) Башкорт халык ижады. 3-сө т. Эпос. Өфө, 1998; Киреев А.Н.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Уфа, 1970.
Сбор.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М. 1977. 428~448.

I G159 | 카라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기타 ●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유대교 ● 유형 소분류2 분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rimean Karaites

카라임은 카라이트 분파의 유대교를 믿는 투르크인을 지칭한다. 카라이트는 일종의 근본주의 분파로서 모세 율법을 고수하고 토라를 제외한 다른 후속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카라임은 리투아니아, 크림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스위스, 프랑스에도 소수 있다. 카라임이 사용하는 카라임어는 언어적으로 킵차크어 그룹에 속하여, 북 또는 서북 투르크어에 포함된다. 현존하는 카라임어로 번역된 토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세기의 것인데, 이 토라에는 그리스어 단어가 거의 없고, 히브리어 단어도 매우 적다.

일부 학자들은 카라임인이 비잔틴 카라이트 교파 후손이라며, 크림으로 이주한 이들이 투르크어를 배운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라이트 유대교를 받아들인 하자르 칸국의 몰락과 몽골의 침략 등 다양한 이유로 크림반도로 이주한 하자르인과 이 지역으로 이주한 쿠만-킵차크인들이 크림반도 카라임인의 기본 바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우랄 지역에 살던 일부 카라이트 선교사들은 쿠만인 일부를 개종시켰다. 이 쿠만 카라이트 유대교인들은 하자르 카라이트 유대교인들과 신앙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섞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두 종류의 투르크어, 즉 킵차크어와 하자르어를 사용했으나, 당시 다양한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하자르어와 달리 더 순수성을 지키던 킵차크어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쿠만-하자르 카라이트 교파의 언어에서 킵차크어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하자르’, ‘쿠만’, ‘킵차크’와 같이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카라임’이라고 정체화한 것은 15세기 후반이었다. 14세기 리투아니아 대공(Vytautas, 재위: 1392년~1430년)에 의해 카라임인 일부는 노예로서 리투아니아로 강제로 끌려갔고, 일부는 자의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이주했다. 15세기에 이들은 일정한 특권을 받아 처음 트라카이(Trakai) 지역에 정착했고, 이후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17세기 말에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32개의 카라임 커뮤니티가 있었다. 크림반도에 남은 카라이트는 크림 칸국 시대인 1420년 망굽(mangup), 스타리크림(Staryi

Krym), 시프트칼레(cifitkale) 같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1772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하자 상당수가 이스탄불로 피란을 갔다. 그곳에 남아서 러시아의 압력에 대항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탄생 이전에 왔으며,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이들 중 일부는 크림반도를 떠나 파리를 비롯하여 유럽으로 이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는 이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나, 전쟁 초기에는 학살당하기도 했다. 카라임 중 일부는 랍비 유대교인들을 카라임이라고 증언하며 나치의 학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소련 시대의 종교 정책은 카라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1944년 약 30,000명의 카라임인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일부 카라임인은 유럽과 미국으로 탈출했다. 이들 이주자 중 일부는 랍비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폴란드에 거주 중인 카라임의 공동체는 조금 더 잘 유지되는 편이다.

카라임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하자르인을 비롯한 투르크 전체 문화와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 카라임은 신앙 원칙과 예배 방식이 카라이트 교파 유대인과 비슷하나 일부분 다른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루 두 번 기도하는 것은 카라이트 교파 유대인과 같지만, 예배 시 기도문 대부분을 투르크어, 즉 카라임어로 읊는다. 이런 전통은 하자르 칸국 시대부터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토라와 같이 성전(聖典)을 공부하는 데도 히브리어가 아닌 투르크어로 교육한다. 히브리어는 대체로 서적 출판 시에만 이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임

● 다국어 표기 Крымкъарайлар(크림 타타르어), Karaylar(튀르키예어), Qaraimlar(우즈베크어), Keraimlar(아제르바이잔어), Караимнар(타타르어), Караимдер(키르기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uzgun, Şaban. *Hazar ve Karay Türkleri: Türklerde Yahûdilik ve Doğu Avrupa Yahûdilerinin menşei meselesi*, Ankara: Se-da Yayınları, 1985.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 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03

I G160 | 카라임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araim language

카라임어는 투르크어 분류 체계에서 북서 투르크어 그룹에 속하며,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카라임인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카라임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투르크인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카라임어는 다른 투르크어와 달리 인근에서 사용되는 슬라브어의 영향을 받아 많은 유형적 변화를 겪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정치적 이유로 카라임 공동체는 분열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도 멸종 위기에 처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는 카라임인은 260명 정도이며, 이들 중 노년층의 4분의 1정도만 의사소통을 위해 카라임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카라임인 대부분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카라임어는 현재 절멸 위기에 놓였다. 독일 쾰른 대학 언어학과가 1994년부터 3년간 카라임어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이어, 카라임언어, 카라임 투르크어
- 다국어 표기 Karayca(튀르키예어), Karaimische Sprache(독일어), Karaïm(프랑스어), Караим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Demir, N., & Yılmaz, E.,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2002.

I G161 | 카라차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rachays

카라차이 민족의 형성에는 캅카스 토착 주민, 알란인, 불가르인, 킵차크인(폴로베츠인) 등이 관련되었는데, 이들은 캅카스의 쿠반강, 레베르다강, 포드쿠모크강, 말카강 계곡 주위의 토착 민족이다. 카라차이 민족은 코카서스 인종으로서 투르크어 계통의 카라차예보 발카르어를 사용한다.

부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유이유르(юйюр)와 혈연 농촌 공동체인 엘드자마가트(эльджамагат)는 19세기에 이미 붕괴되었고, 현재는 일부일처제 가족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혈족 내의 관계는 아직도 강해서 같은 혈족 내에서의 결혼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에 20만이 조금 넘는 카라차이인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아 공화국에 살고 있다. 튀르키예(21,000명)와 중앙아시아에도 소수의 카라차이인들이 살고 있다.

카라차이란 명칭은 금장 칸국의 칸 중 하나인 카라차이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민족명으로는 1639년 처음 문헌에 등장한다. 1823년 러시아 제국이 카라차이의 영토를 병합하면서 러시아 역사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1782년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지만, 기독교나 원시 종교(탱크리즘, 카라차이어로는 테이리)의 요소도 혼합된 주술적 신앙 형태나 물신주의가 남아 있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차예프치

● 다국어 표기 Карачаевцы(러시아어), قراشاي(아랍어), Karaçayla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162 | 카라칼파크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arakalpak language

카라칼파크어는 카라칼파크인들이 사용하는 투르크어이다. 초기 카라칼파크어는 카자흐어와도 상당히 유사한데, 실질적으로 구어는 카자흐-키르기스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카라칼파크어는 초기 불가르어 및 투르크 방언의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투르크어 분류 체계에서 킵차크 그룹 중 킵차크-노가이 그룹에 포함된다.

카라칼파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투르크 부족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기 때문에 언어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카라칼파크스탄의 언어 문제는 1989년 처음 제기되었으며, 카라칼파크스탄의 공식 언어로서 카라칼파크어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했다. 1990년에는 국가의 공식어 선정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됐으며, 소련의 붕괴 이후 1993년 12월 9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카라칼파크어와 우즈베크어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러시아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표기 문자를 바꾸며 과학 및 기술 개발에 힘썼는데, 우즈베키스탄과 자치공화국들 중에서는 카라칼파크스탄이 처음으로 라틴 문자를 채택했다.

● 다국어 표기 Karakalpakça(튀르키예어), Karakalpakische Sprache(독일어), 卡拉卡尔帕克语(중국어), Каракалпак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칼파크인,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Salih Yılmaz, “Karakalpakistan Özerk Cumhuriyetinde Dil ve Gelişimi”, TDK V. Uluslararası Türk Dili Kurultayı, Ankara, Türkiye, 20 – 26 Eylül 2004, cilt.2, ss.3250~3268.

I G163 | 카라칼파크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rakalpak

카라칼파크인은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이란, 튀르키예 등지에 분포하는 민족으로, 그중 대다수는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에 살고 있다.

카라칼파크스탄의 공식 명칭은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Kara-Kalpak Autonomous Republic)이다. 우즈베크어로는 Qoraqalpog'iston Respublikasi/Қорақалпоғ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카라칼파크어로는 Qaraqalpaqstan Respublikası이다. 카라칼파크스탄의 수도(首都)는 누쿠스이다. 면적은 164,900제곱킬로미터이며 주민은 카라칼파크인과 우즈베크인·카자흐인 등이다.



카라칼파크스탄 국기

카라칼파크스탄 중앙부에는 아무다리야강의 델타 지대, 동부에는 키질쿰 사막, 서부에는 우스투르트 대지(臺地)가 있다.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매우 건조하며 7월 평균기온은 27°C, 1월 평균기온은 -6°C, 연 강수량은 110mm이다. 농경은 관개지에서서만 할 수 있고, 목화와 벼를 재배한다. 양(특히 카라쿨 종류)·소·말 등을 사육하며, 공업은 면직·농축산물 가공 등이다. 쿡그라드~투르크메니스탄 차르조우 간 철도와 타슈켄트 등 주변 도시를 잇는 항공편이 있다.

카라칼파크는 ‘검은 모자’라는 뜻이며, 몽골족과 페르시아족 혼혈의 후손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에는 인종적으로 투르크화되었다. 카라칼파크어는 투르크계 언어이다. 부족은 ‘우루(uru)’라는 씨족으로 분류되며, 우루는 다시 ‘코쉬(koshes)’로 세분된다. 코쉬의 구성원들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로서, 유대감이 매우 강하며 땅도 공동으로 소유한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쌀·수박 등이며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주요 발전 시설로는 소련 시절에 아무다리야 지역에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있다. 아랄해 끝자락에 위치한 국가로 아랄해가 1960년대의 1/5 수준으로 줄어들고, 염도가 11%(일반 해수의 3배)로 높아지면서 먹을 물조차 부족해진 국가가 되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는다.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처럼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칼팍

● 다국어 표기 Qaraqalpaq(우즈베크어) قاراقالپاق(아랍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어, 카라칼파크어, 투르크메니스탄,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in English) Official websit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arakalpakstan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카라칼팍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59322&cid=40942&categoryId=31641>

● 참고문헌(오프라인) Mayhew, Bradley, *Central Asia: Kazakhstan, Tajikistan, Uzbekistan, Kyrgyzstan, Turkmenistan*. Lonely Planet, 2007.

Richardson, David; Richardson, Sue, *Qaraqalpaqs of the Aral Delta*. Prestel Verlag, 2012.

I G164 | 카라코윤루(흑양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Karakoyunlular

카라코윤루(Karakoyunlular) 또는 흑양조는 동부 아나톨리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지역에 건국된 투르크멘 계열 국가로 1351년부터 1469년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카라코윤루는 14세기 초반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유목 생활을 했다. 카라코윤루를 건국한 바이람 호자(Bayram Hoca, 재위: 1375년~1380년)는 모술 지역을 장악하면서 자립했고, 에르주름에서 모술,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장악한다. 카라코윤루가 성장하자 잘라이르 왕조의 술탄 위베이스(Üveys I, 재위: 1356년~1374년)는 모술을 공격한다(1366년). 결국 모술은 잘라이르 왕조의 영토가 되었고 바이람 호자는 가신이 된다(1374년).

잘라이르 왕조의 위베이스가 사망하자 무자파르 왕국이 잘라이르 왕조를 공격하였고, 혼란한 틈을 타 바이람 호자는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을 되찾고 이란 지역 일부를 장악하고 모술 지역을 차지한다(1375년). 바이람 호자가 자립하자 잘라이르 왕조는 바이람 호자를 공격했고, 바이람 호자의 조카 카라 메흐메드 파샤(Kara Mehmed Paşa)가 방어하던 에르지쉬(Erciş)를 공격하여 복속시킨다.

바이람 호자가 사망하자 그의 형제 튀레미슈(Türemiş)의 아들 카라 메흐메드(Kara Mehmed, 재위: 1380년~1389년)가 통치자가 되었고 잘라이르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1382년). 그는 잘라이르 왕조의 계승 분쟁에 개입했고 잘라이르 왕조 아흐메드(Ahmed)가 메흐메드의 딸과 혼인하여 양국은 친선관계를 맺는다.

카라코윤루가 동부 아나톨리아를 장악하며 성장하던 시기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Timur, 재위: 1370년~1405년)가 카라코윤루를 공격하여 에르주름을 점령한다. 메흐메드는 타브리즈를 탈환한다. 이후 피르 하산(Pîr Hasan)이 반란을 일으켰고 메흐메드는 반란 진압 과정에 사망한다. 메흐메드의 사망으로 계승 분쟁이 발생했고 므스르 호자(Mısır Hoca)를 중심으로 투르크멘들이 결집한다. 이후 므스르 호자가 사망하자 형제 카라 이우수프(Kara Yusuf, 재위: 1389년~1420년)가 통치자가 된다.

티무르 제국이 재차 침략하자 잘라이르 왕조 술탄 아흐메드는 바그다드를 버리고 도주한다. 티무르는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카라코윤루를 공격한다. 이때 비리디 호자의 아들 야르 알리(Yar Ali), 에르빌(Erbil)의 영주 셰이흐 알리(Şeyh Ali)는 티무르에게 선물을 바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티무르는 카라 이우수프를 포획하기 위해 에르주름의 아브닉(Avnik)을 공격한다. 카라 이우수프의 형제 므스르 호자가 43일간 방어하다가 항복한다(1394년). 므스르 호자는 사마르칸트로 압송된다.

므스르 호자가 압송되자 분노한 카라 이우수프는 아브닉을 공격하여 아틀라므슈(Atlamış)를 사로잡는다(1395년). 이 소식을 접한 티무르는 인도 원정을 마무리짓고 카라코윤루를 공격한다. 티무르가 시바스로 진군하자 카라 이우수프는 잘라이르 왕조 술탄 아흐메드와 함께 이집트 맘루크 왕조로 망명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한다. 결국 이들은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한다.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 바이에지드 1세(Bayezid I, 재위: 1389년~1403년)에게 카라 이우수프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카라 이우수프는 술탄 아흐메드가 바그다드를 탈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차 티무르가 바그다드를 공격한다. 이때 형제 야르 알리가 사망하고 그의 부인은 포로가 된다. 카라 이우수프는 다마스쿠스로 도주한다(1403년). 시리아의 셰이흐 아흐메드(Şeyh Ahmed)는 카라 이우수프를 환대하지만 맘루크 술탄의 명령으로 카라 이우수프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준다(1405년).

카라 이우수프는 세력을 규합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해 1405년 출정한다. 이에 여러 지역의 투르크멘들이 합류한다. 카라 이우수프는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지역을 통치하던 티무르의 손자 아부 베킬 미르자(Ebu Bekir Mirza)를 공격하여 승리한다(1408년). 이후 카라 이우수프는 이라크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또한 카라코윤루를 침략한 아크코윤루(Akkoyunlu), 또는 백양조의 아일뤼크 오스만 베이(Yülük Osman Bey)를 공격하여 격퇴시킨다(1417년). 이후 티무르 제국의 샤희루 미르자(Şahruh Mirza, 재위: 1409년~1447년)는 카라 이우수프에게 카즈빈(Kazvin), 술타니예 지역의 반환과 복속을 요구한다. 카라 이우수프가 이를 거절하자 샤희루 미르자는 카라코윤루를 공격한다. 카라 이우수프는 샤희루 미르자의 공격에 대항하지만 타브리즈의 동쪽 우잔 인근에서 사망한다(1420년).

카라 이우수프가 사망하자 이스켄데르 베이가 카라코윤루의 통치자가 된다. 샤희루 미르자의 공격에 동조하여 아일뤼크 오스만 베이도 카라코윤루를 공격한다. 이스켄데르 베이는 누사

이빈 인근 지역에서 아크코윤루를 격퇴했지만 샤희루의 공격에 에르주름과 아으르(Ağrı) 지역에서 저항하지만 패배한다(1421년). 이스켄데르 베이는 계속해서 샤희루의 지배에 저항하며 1428년 젤잔(Zencan), 카즈빈을 탈환하지만 셀마스(Selmas) 인근 지역 전투에서 패배한다. 샤희루는 카라코윤루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카라 이우수프의 막내아들 아부 사이드(Ebu Said)를 아제르바이잔의 왕으로 선언하지만 이스켄데르 베이는 아제르바이잔을 탈환한다(1430년).

샤희루는 재차 카라코윤루를 공격하고 지한 샬(Cihan Şah)가 카라코윤루의 통치자라고 선언한다. 이스켄데르 베이는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을 시도했고, 이때 카라코윤루와 아크코윤루의 군대가 충돌하면서 율르크 오스만 베이가 사망한다(1435년). 샤희루는 오스만 제국의 무라드 2세에게 이스켄데르 베이의 송환을 요구하고, 카라코윤루의 통치권을 지한 샬에게 양도하고 호라산으로 귀환한다(1436년). 이스켄데르 베이는 지한 샬과 내전을 벌이지만 결국 지한 샬에게 패배한다.

카라코윤루는 지한 샬 통치 시기에 전성기를 맞는다. 그는 1440년 조르지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스파한 미르자의 아들 풀라드(Fûlâd)를 제압하여 바그다드를 점령한다(1446년). 1447년 티무르 제국 샤희루가 사망하자 술탄니예, 카즈빈을 점령한다. 그리고 아크코윤루를 격퇴하고, 티무르 제국의 계승 분쟁에 참여하여 레이(Rey), 이스파한(İsfahan), 키르만(Kerman)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킨다(1452년~1453년).

카라코윤루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지한 샬의 아들들이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지한 샬은 이들을 진압해야 했다. 특히 호라산 원정 중에 아들 하산 알리(Hasan Ali)가 타브리즈에서 독립을 선포한 일은 지한 샬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그다드 총독이던 아들 피르 부다크(Pîr Budak)의 반란도 수년간 지속되었다(1464년~1466년). 지한 샬은 아크코윤루의 성장을 막고자 1457년 아크코윤루를 공격하지만 패배하여 사망한다(1467년).

지한 샬이 사망하자 반란을 일으켜 마쿠(Maku)성에 투옥되어 있던 하산 알리가 통치자가 되었고 아크코윤루와 전쟁을 준비한다. 1468년 하산 알리는 우준하산에 패배하여 도주했고 1469년 사망한다. 하산 알리의 사망으로 카라코윤루의 영토 대부분은 아크코윤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카라코윤루의 국가 조직은 일 칸국의 통치 조직을 계승했다. 카라코윤루의 통치자를 술탄



카아코윤루 이스켄데르 발행 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라고 칭했는데, 카라코윤루에서 주조된 동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 관료 조직으로 여러 디반이 존재했다. 지방행정은 왕자와 베이들이 처리했다. 지방에 파견된 왕자, 베이들은 소규모의 디반을 조직하여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시에서는 다루가(Daruga)라 불리는 관리들이 재정, 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왕자, 베이들은 사병, 뇌케르(Nöker)를 보유했다. 조세제도는 종교세 세리(şer'i), 관습세 외르피(örfi)로 나뉘었다.

카라코윤루는 시아파 국가로, 당시 아제르바이잔, 아나톨리아에서 활동한 셰이흐 주네이디 사파비(Şeyh Cüneyd-i Safevî, 사파비 교단)의 영향으로 시아파가 득세했다. 카라코윤루의 문학 작품으로는 지한 샤의 투르크 시 등이 유명하며, 아들 피르 부닥(Pîr Budak)의 시도 여러 편 남아 있다. 지한 샤가 건축한 여러 모스크는 타브리즈의 중요한 건축물로 파란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카라코윤루의 역사와 문화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코윤라르
- 다국어 표기 Karakoyunlular(튀르키예어), Qaraqoyunlular(아제르바이잔어), Qora qo'yunlilar davlati(우즈베크어), Қарақоюнлыл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크코윤루(백양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8/Coin_of_Qara_Iskander_%28Kara_Koyunlu%29.jpg/800px-Coin_of_Qara_Iskander_%28Kara_Koyunlu%29.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karakoyunlu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İsmail Hakkı Uzunçarşılı, *Anadolu Beylikleri ve Akkoyunlu, Karakoyunlu Devletleri*, Türk Tarih Kurumu, Ankarak, 2011.

I G165 | 카라쿠스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arakus

카라쿠스(Karakus) 또는 용사 카라쿠스는 카자흐, 키르기스의 알프 카라쿠시(алп каракуш), 카잔 타타르의 카라코시(каракош) 신화에 나오는 검독수리 형상의 거대한 새이다. 카라쿠스는 영웅이 용 아지다르하에게서 자신의 새끼들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영웅을 수호한다. 투르크어로 ‘카라’는 ‘검은’을, ‘쿠스’는 ‘새’를 뜻해서 카라쿠스를 직역하면 ‘검은 새’이다. 카라쿠스는 영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데, 그를 등에 태우고 머나먼 곳까지 옮겨준다.

카자흐, 키르기스 민족에게 카라쿠스는 때로는 새 사므루크(симрух, 시무르그와 같음)와 동일시되곤 한다. 고대 투르크 민족에게 카라쿠스는 샤머니즘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한 여러 투르크 민족의 신화가 존재한다. 알타이-텔레우트인들은 카라쿠스를 ‘동으로 된 발톱을 가



카라쿠스 석상(아디야만, 튀르키예)

진 새', '울겐의 새, 풍요로운 베르쿠트'로 묘사하면서 샤먼을 돕는 정령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굿을 할 때 카라쿠스가 샤먼을 수행하면서 영혼 세계로의 가상 여행을 마칠 수 있게 한다고 여긴다. 카라쿠스는 정령들에게 음료를 나르고, 자작나무 껍질로 된 빈 그릇을 집으로 가져다주고, 긴 여행으로 지친 샤먼의 복이 될 수 있게 한다. 어떤 알타이 신화에서는 카라쿠스를 울겐의 아들 중 하나로 여긴다. 카자흐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중 몇몇 집단도 카라쿠스를 샤먼의 조력자로 생각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쿠쉬
- 다국어 표기 Каракыс(러시아어), Karakuş(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울겐, 아지다르하, 시무르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273~274.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622.

I G166 | 카라타이 마드라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ratay Madrasa

코니아에 위치한 카라타이 마드라사(Karatay Madrasa)는 1251년 셀주크의 재상 젤랄레딘 카라타이(Celaleddin Karatay, ?~1254년)의 명령으로 건설되었다. 건축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카라타이 마드라사가 완성된 해에 열린 축하 연회에 유명한 신비주의 학자 메블라나(Muhammed Celâleddîn-i Rumi, 1207년~1273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마드라사의 수업에 종종 메블라나가 교사로 나섰다고 한다. 이 마드라사는 1914년 17명의 학생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

수리를 위한 조사에서 그 이전에 마드라사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카라타이 마드라사 정면

래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당대 유사한 건축물과 당시 남은 부분으로 보아 대칭적인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라타이 마드라사는 1955년에 수리됐고, 현재는 셀주크 시대 타일 및 도자기를 주로 전시하는 카라타이 타일 박물관(Karatay Çini Eserler Müzesi)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주재료는 실레(Sille) 지방에서 생산되는 석재이나 정문에는 유색 대리석이 사용되었다. 외장이 집중된 정문의 경우 전면부의 약간 왼쪽에 있다. 흰색과 하늘색(또는 회색)의 대리석이 석재 정문에 교차로 배치되어 있다. 정문 가장 윗부분에는 마드라사의 건설과 관련된 비문이 있다. 그 아래의 아치 주변은 기하학 문양으로, 아치의 내부 상단부는 무카르나스(Muqarnas)로 각각 장식되어 있다. 이 주변부는 코란과 하디스의 글귀가 양각되어 있으며 꼬아 올린 듯한 두 개의 작은 기둥 옆 패널도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다른 빈 부분은 식물 문양으로 장



카라타이 마드라사 입구

식되어 있으며 작은 기둥 위의 비문은 코란과 하디스의 일부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문을 통해 돔으로 덮인 중앙 홀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돔은 높이 솟아 있으며 이완과 연결되어 있다. 중앙 이완의 왼편은 젤랄렛딘 카라타이의 영묘로 이용되고 있다. 돔 바로 아래에는 정사각형의 수조가 존재한다. 이 중앙 홀의 돔 중앙은 뚫려 있으며 주변은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돔의 드럼과 벽의 윗부분 가장자리 등 여러 곳에 타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장식 대부분은 쿠픽 서체로 4대 칼리프의 이름, 코란과 하디스의 일부분 및 루미(Rumi)와 팔메트 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문의 석조 기술과 내부를 장식한 타일 모자이크의 구성 등은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타이 메드레세, 카라타이 메드레세시
- 다국어 표기 Karatay Medres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코니아
- 멀티미디어 링크 카라타이 마드라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 Akok, Mahriut. “Konya’ da Karatay Medresesi röhlöve ve mimarisi”, *Türk Arkeoloji Dergisi*, XVIII/2, 1969, pp.5~28.
Mülâyim, Selçuk. “Karatay Medresesi”,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475~476.

I G167 | 카라한 칸국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ra-Khanid Khanate

카라한 칸국(Kara-Khanid Khanate, 840년~1212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투르크계 이슬람 왕조이다. 이 왕조는 9세기 중엽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서부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 후 발라사군(Balasagun)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카라한 칸국은 동서 투르크스탄에 걸쳐 광대한 국가를 건설했고, 11세기 초 호칸드를 경계로 동서로 나누어졌다.

카라한(Karakhan)이라는 용어는, 1874년 역사학자 그리고레프(W. W. Grigorev)가 사용한 이래 보편화되었는데, 이 왕조의 통치자들 칭호에 ‘카라(Kara)’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카라한 칸국 건설 주체의 종족 기원에 관해서는 위그르족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 근거는 위구르의 멸망과 거의 동시에 카라한 칸국이 등장했고, 위구르 통치자의 칭호인 ‘Ay iduk kut’가 카라한 칸국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카라한도 전통적 투르크계 국가들처럼 크게 동서로 양분되어 있었다. 동서 양 진영에 지배권을 행사한 대카간은 동부 진영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며, 서부 진영에는 제2카간의 지위에 해당하는 지배자가 존재했다. 이는 투르크계 국가들에 역사의 계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실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투크 부그라(Satuk Bugra, 재위: 927년~955년) 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향후 투르크계 국가들이 이슬람 왕조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042년에 이르러 카라한 칸국은 동서로 양분되었다. 동카라한 칸국은 발라사군을 수도로 대카간이 통치하고, 소카간들은 카쉬가르와 탈라스에 거주했다. 또 트란스옥시아나와 페르가나 일부 지역에 걸쳐 형성된 서카라한 칸국은 처음에는 외즈켄트, 후에는 사마르칸트를 대카간의 통치 중심지로 삼았고, 소카간은 부하라에 거주했다. 동서 카라한 칸국의 경계는 호칸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양진영의 세력 판도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양진영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한왕조, 카라한제국

● 다국어 표기 Karahanlılar(튀르키예어), Kara-Khanid Khanate(영어)

● 연관 검색어 사마르칸트, 부하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록 관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이희수, 『터키사』, 대한고과서주식회사, 1993.

Grousset, Rene, *The Empire of the Stepp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Qara-khanids”, *Encyclopedia of the Peoples of Africa and the Middle East*, Vol.1, Ed. Jamie Stokes, 2004, (Infobase Publishing), 2009.

I G168 | 카라한 투르크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ara-Khanid Language

돌궐어 그리고 고대 위구르어가 카라한 투르크어(Kara-Khanid Language)의 전신이라 여겨지지만, 카라한 투르크어는 이전 시기에 사용되던 튀르크어와 형태 및 구조적인 측면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대 투르크어의 음성 및 형태학적 특징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 분류로 따져보았을 때 고대 투르크어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카라한 투

르크어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경구개음 /d/가 /d̪/로, /b/는 /w/로 변화되었다. 돌궐 제국 시대와 초기 위구르어와 형태학적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이슬람 종교 어휘가 유입되었다.

카라한 투르크어는 이후 중세 투르크어 문어의 기본 바탕이 된다. 카라한 투르크어는 동부 카라한 투르크어와 서부 카라한 투르크어로 나뉜다. 동부 카라한 투르크어는 카쉬가르어, 서부 투르크어는 킵차크 투르크어와 차가타이어의 시초인 하레즘 투르크어가 된다.

10세기 초 정치·문화적 중심지가 된 카라한 왕국을 통치하던 사투크 부그라 한(Satuk buğra han)의 이슬람교 개종은 투르크인들이 이슬람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카라한 왕조의 통치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위구르인들과 칼룩이었다. 이후에는 오구즈인들과 킵차크인들이 우세를 차지했다.

카라한 왕조 시대에 대초원 유목 문화와 정착 문화가 공존하며 진정한 의미의 문화 발전이 시작되었다. 페르시아, 아랍 등 기존 정착 문명과 교류하며 투르크 문학도 크게 발전했다.

이 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구조와 어휘 측면에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특히 종교 서나 도덕서의 경우 새로운 문학적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실질적 투르크 문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라한 왕조 시대에 카라한 투르크어로 새롭게 형성된 투르크 문학을 소개한 대표적 인물은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와 유스프 하스 하집이다.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세력이 커지는 아랍어에 저항하고자 투르크 고유 언어와 문학, 문화를 생생하게 전했으며, 발라사군의 유스프 하스 하집은 페르시아 문학과 투르크 문학이 서로 비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대 이 두 위대한 문학가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투르크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한어, 카라한 투르크어, 카라한 터키어
- **다국어 표기** Karahanlı Türkçesi(튀르키예어), Kara-Khanid Language(영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 유스프 하스 하집, 돌궐 제국, 위구르 제국, 킵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ERCİLASUN, A. B., *Türk Dili Tarihi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Ankara: Akçağ Yayınları, 2004.

I G169 | 카러브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rovchi

이슬람교에서 성자나 각 수피 종단의 유명 수도승이나 종단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하는 의례를 지야라(ziyara)라고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특정한 방문지가 메카 순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민중의 믿음이 있을 만큼 널리 퍼진 의례이다. 지야라의 대상인 유명 영묘나 무덤을 관리하는 이들을 카러브치(karovchi, 우즈베크어), 튀르베다르(türbedar) 등으로 부른다.

카러브치는 자신들을 일반적으로 그들이 관리하는 무덤과 영묘의 주인, 즉 성인의 후계자라고 믿는다. 때로는 영묘를 지키던 이들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 카러브치는 무덤이나 영묘뿐만 아니라 순례자나 방문객이 기부한 성금과 물품도 관리한다. 카러브치는 자신들에게 성금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권한이 없는 자가 이 금품을 도용하면 병에 걸린다는 미신도 존재한다.

카러브치는 순례자나 방문객에게 방문지에서 취해야 하는 적절한 예절과 의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카러브치는 영묘나 무덤의 기원이나 전설, 역사 등을 숙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베다르
- 다국어 표기 karovchi(우즈베크어), türbed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영묘, 지야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lonso, Komil Kalanov-Antonio. "SACRED PLACES AND "FOLK" ISLAM IN CENTRAL ASIA", *UNISCI Discussion Papers*, N° 17 May 2008, pp.173~185.
Zarcone, Tn. "ZIYARA-6. The Turkish lands, including the Balkans and Central Asia", *Encyclopaedia of Islam* VOL. XI (ed; P. 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chs), Leiden; Brill, 2002, pp.534~535.

I G170 | 카레시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Principality of Karesi

카레시(Karesi) 공국은 14세기 아나톨리아의 서남부에 자리했던 투르크계 공국이다. 이 공국을 세운 투르크 수장 카레시 벡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아시아 방향 해변 및 배후지와 그 남쪽의 영역을 아우르는 옛 미시아(Mysia) 지역을 포함하며, 중심지는 발르케시르(Balikesir)와 베르가마(Bergama)이다. 이 공국은 자체 기록이 드물고 남은 동전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카레시 벡과 그의 아들 아즈란(Ajlān) 벡의 등극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공국의 명단이 문타너(Muntaner)가 작성한 카탈란 원정(1304년~1306년) 참여 명단이나 비잔틴의 파치메레스(Pachymeres, d.)가 1313년 작성한 당시 아나톨리아의 공국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 카레시 공국은 주변의 다른 공국들에 비해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공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니슈멘드 왕조라는 설과, 롬 셀주크의 일부 투르크와 투르크멘들이 비잔틴으로 달아나 도브루자(다뉴브해~흑해 사이, 흑해의 서쪽)에서 세력을 갖추고 남러시아인들과 뒤섞여 살다가 14세기 초 다시 미시아로 돌아와 공국을 세웠다는 설이 있다. 후자는 그들의 성자이자 신비주의 수피인 사리 살투크와 관련된 기억에 의거한다. 1330년대에 이븐 바투타와 알 우마리가 이 공국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는 발르케시르를 다스리는 데미르 칸과, 베르가마를 다스리는 야크시 칸 두 형제가 카레시 공국의 영역을 각기 통치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비잔틴 사료인 칸타쿠제노스(Cantacuzenos)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오스만 사료는 이 두 칸이 카레시 벡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카레시 벡의 아들 아즈란 벡이 1335년경 사망할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두르순이 자신의 재상과 함께 오스만 공국의 두 번째 베이였던 오르한을 초청했다. 그러나 다른 형제가 그를 살해했고, 이에 오스만이 아즈란 벡의 공국을 병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스만 사료의 정보는 너무 간략하다. 이 때문에 카레시 공국이 오스만에 의해 병합된 것은 맞지만, 1330년대에는 여전히 독립된 상태였으며 전술한 야크시 칸이 두르순, 데미르 칸과 형제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두

칸 이후에도 술레이만이라는 이름의 왕자가 오르한 베이의 사망 시점까지 가신으로 있었고, 투르크-비잔틴의 갈등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간섭으로 인해 오스만이 카레시 공국을 일찍 병탄했다. 또한 카레시 공국은 다른 공국들이 대체로 1380년대에 오스만에 병탄되었다가 곧 티무르의 침공으로 인해 부활한 것과 달리, 부활하지 못하고 국가의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시라는 오스만의 행정 구역은 옛 공국의 강역을 장기간 유지했다.

카레시 공국은 이처럼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오스만 역사가들은 이 국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다. 이 점에서 카레시 공국은 오히려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이 공국은 에게해와 마르마라에서 해군력을 키운 세력으로, 비잔틴이 다르다넬스를 건너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오스만이 유럽으로 건너는 것에 발판이 된 세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공국이 오스만에 병탄된 후에도 몇몇 카레시 가문의 수장들이 오스만 측에 서서 그들에게 봉사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레시오올라르, 카레시베이리이
- 다국어 표기 Karesioğulları(튀르키예어) Karesi Beyliği(튀르키예어), فراصي(오스만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63~364.
CL. Cahen, "K̄arasi," *Encyclopaedia of Islam* 4, Leiden: Brill, 1997, pp.627~628.

I G171 | 카르가투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rgatuy

카르가투이(Kargatuy)는 4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열리는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들의 전통 봄맞이 축제이다. 바시키르어로 ‘카르가’는 ‘까마귀’, ‘투이’는 ‘축제’이다. 즉 카르가투이는 ‘까마귀 축제’란 의미이다. 이 축제를 카르가 부트카히[karğa буткаһы, 타타르인들은 카르가

보트카시(карга боткасы)라고도 부르는데, 이때의 의미는 ‘까마귀 죽’이다.

카르가투이는 오래전부터 마을 단위로 열어 온 축제이다. 이슬람 도입 이전에는 새 정령에게 바쳐진 축제였다. 축제 기간 중에는 여성과 젊은이들이 들판이나 높은 장소에 음식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를 대접하고 남는 것은 나무에 놓아둔다. 지역마다 다른形形色색의 매듭과 손수건, 은팔찌, 목걸이, 반지, 꽃, 솔 등으로 나무와 관목들을 장식하고 발효유를 나무 아래에 놓아둔다. 결실을 상징하는 보리, 밀, 기장으로 만든 죽과 베스바르막을 요리하여 나눠 먹고 디저트와 함께 차를 마신다. 식사가 끝나면 그루터기나 돌, 나무 위에 죽을 놓아둔다. 이는 새를 접대하는 의식이다.

카르가투이 축제에서는 시합도 진행된다. 처녀들과 젊은 여인들은 자신의 솜씨와 재능을 선보인다. 군무를 추면서 여러 춤과 타크마크, 노래 등을 부르고 피리, 북 등 전통 악기를 연주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보통 세 번 합성을 지른다. 첫 번째는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합성이다.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의 카르가투이에서는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 외에도 우랄 남쪽이나 포볼지에 중부 지방에서도 이 축제를 즐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르가투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바시키르어, 베스바르막, 타크마크,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 참고문헌(온라인) <http://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2-statya/14116-kargatuj.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Сулейманова М.Н. Доисламские верования и обряды башкир. Уфа, 2005.

I G172 | 카르나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Karnay

카르나이(Karnay, 페르시아어 qarn- shox, nay)는 우즈베크 전통 악기로 동물의 뿔, 구리 혹은 동으로 만든 관악기(우즈베크어 nay)를 의미한다. 인간은 금속을 사용하기 이전 시기부터 동물의 뿔을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카르나이를 제작했다.

카르나이의 역사는 B.C.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르나이는 일반적으로 황동으로 만들며, 최대 3m나 된다. 형태는 대부분 직선형, 곡선형이고, 때로는 종 모양으로도 만든다. 연



카르나이 연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주자는 카르나이의 트럼펫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한 후, 똑바로 서서 위쪽으로 비스듬히 들어 소리를 낸다. 중세에는 전쟁의 시작이나 승리를 알리기 위해, 또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사용되었고, 주로 야외에서 연주된다.

오늘날 카르나이는 주로 결혼식, 축제, 명절 등과 같이 즐겁고 축하하는 연회에서 관악기 수르나이(surnay), 타악기 너고라(nog'ora)와 더이라(doira)와 함께 사용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르나이, 코르나이, 코르나이
- 다국어 표기 Karnay(우즈베크어), Карнай(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8/Mariage_ouzbek.JPG/1024px-Mariage_ouzbek.JPG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2부, 노래하라 삶을 노래하라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omi.ru/brass/karnay>
- 참고문헌(오프라인) Begmatov S., Matyoqubov M., *O'zbek an'anaviy cholg'ulari*, Toshkent: Yangi nashr, 2008.

I G173 | 카를로비츠 조약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Treaty of Karlowitz

카를로비츠 조약은 1699년 1월 26일 17년간 이어온 대투르크 전쟁(Great Turkish War)을 종식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이다.

오스만 제국 메흐메드 4세(Mehmed IV, 재위: 1648년~1687년)는 1683년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한다. 당시 대재상 메르지폰루 카라 무스타파 파샤(Merzifonlu Kara Mustafa Paşa)가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수도 빈으로 진군한다. 오스만 제국은 2차 빈 포위전(1683년)을 전개하지만 실패하고 퇴각한다. 1684년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교황 인노첸시오 11세(Pope Innocent XI)는 신성동맹을 조직하게 된다. 오스트

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를 중심으로 베네치아 공화국,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동맹에 합류했고, 1686년 러시아 차르국이 동맹에 가담한다. 신성동맹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대투르크 전쟁을 전개한다.

오스만 제국은 신성동맹 국가들과 일진일퇴를 반복했다.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폴란드는 몰다비아, 베네치아는 펠로폰네소스반도와 달마티아 지방, 러시아는 흑해 진출을 위해 아조프를 공격했다. 오스만 제국은 여러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1697년 9월 11일 젠타(Zenta)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한다.

이스탄불에 주재 중이던 영국 대사 윌리엄 파젯(William Paget)과 네덜란드 대사 야코부스 콜리어스(Jacobus Colliers)는 오스만 제국 대재상 암자자데 휘세인 파샤(Amcazâde Hüseyin Paşa)에게 신성동맹과의 평화조약을 중재할 수 있다고 알린다. 당시 오스만 제국 술탄 무스타파 2세(Mustafa II, 재위: 1695년~1703년)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자 했지만 휘세인 파샤는 평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16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소진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발칸반도에서 기독교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그다드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이어 나갈 여력이 없었다.

휘세인 파샤는 라미 메흐메드 파샤(Râmi Mehmed Paşa)와 통역가 마브로코르다토(Mavrokordato)를 파젯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파견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일방적인 오스만 제국의 평화협상 조건에 반대하고, 동맹국들의 이권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오스만 제국을 압박한다. 결국 휘세인 파샤가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698년 1월 27일 에디르네(Edirne)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무스타파 2세는 휘세인 파샤에게 평화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 양측은 평화협상 장소에 대해 논의한 끝에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카를로비츠 마을로 정한다.

카를로비츠에서 시작된 평화협상에는 신성동맹 측 대표로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본 외티겐 백작(Wolfgang von Oettingen), 폴란드의 스타니슬라스 말라초프스키 백작(Stanislas Malachowsky), 베네치아의 카를로 루치니(Carlo Ruzzini), 러시아의 프로코피오스 베그다노위치 보즈니친(Procopios Begdanowitch Vozhnitsin)이 참석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라미 메흐메드 파샤가 참석했다. 평화협상은 양측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으며 오랜 시간 진행됐다. 파행 요인은 에르델(Erdel)의 귀속 문제,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의 국경 및 티미쇼아



카를로비츠 조약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라(Timișoara)의 귀속과 성채 철거 문제였다.

오랜 협상 끝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대부분 지역을 얻고, 오스만 제국과의 국경을 사바(Sava)강으로 확정한다. 폴란드는 오스만 제국이 포달리아(Podolia)에서 철수하고, 크림 타타르(Kırım Tatar)가 폴란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끌어낸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달마티아, 펠로폰네소스반도를 양도받는다. 하지만 러시아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하여 1699년 1월 26일 최종적으로 각국의 요구를 반영한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된다. 카를로비츠 조약에서 매듭 짓지 못한 러시아와의 협정은 이스탄불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가

아조프를 차지하고 이스탄불에 러시아 대사가 주재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된다.

오스만 제국은 카를로비츠 조약을 계기로 대투르크 전쟁으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하지만 최초로 유럽 영토를 상실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유럽에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공세적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를로프차 조약

● 다국어 표기 Karlofça Antlaşması(튀르키예어), Friede von Karlowitz(독일어), Karlovitsa müqavil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4세, 무스타파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f/Treaty_of_Karlowitz.jpg/800px-Treaty_of_Karlowitz.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ülkadir Özcan, “Karlofça Antlaşmas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4, 1997, pp.504~507. İsmail Hakkı Uzunçarşılı, *Osmanlı Tarihi*, Türk Tarih Kurumu, Vol 3-1 (2011), pp.585~595, Vol 3-2, 2011, pp.33, 73, 77, 113, 128, 164, 165, 187, 201~202, 215, 233, 237.

이은정, 「제2차 빈 포위 실패, 신성동맹과의 전쟁, 그리고 오스만 사회에서의 후폭풍」, 『역사 속의 유로메나 -교류와 갈등의 역사-』, 예코리브르, 2021, pp.97~113.

I G174 | 카를루크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rluks

중국 문헌에 ‘갈라록(葛邏祿)’으로 표기된 ‘카를루크’는 투르크어로 ‘눈더미’란 뜻이다. 『당서』는 카를루크가 투르크족 계통이고, 돌궐족의 후예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요 거주 중심지는 알타이산맥 서쪽의 카라 이르티쉬와 타르바가타이 근교로 알려져 있다. 카를루크는 이미 서돌궐의 이스테미 야브구(522년~576년) 시대, 카스피해 북부에서 트란스옥시아나에 이르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동돌궐이 멸망하고 당의 영향력이 강화된 630년~680년 사이에도 카를루크는 독자적인 부족

단위로 간간이 중국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다. 640년경 투르판 북부 지역에 거주하게 된 카를루크는 650년과 654년 중국의 공격으로 소탕되어 텐산 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북정(北庭)주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각 부족 단위의 조직과 결속은 와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655년경의 중국 기록은 카를루크가 중국 지배하의 서역이나 동돌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카를루크는 한때(747년) 위구르와 함께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을 벌였으나, 모엔초르 카간에 패퇴당한 후, 타림분지에서 서쪽으로 이주해 갔다. 특히 카를루크는 751년 벌어진 탈라스 전투에서 처음에는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에 가담했다가 배반하고 아랍 측에 가담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아랍 측이 승리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카를루크는 756년경 중가리아 지대에, 766년경에는 패망한 투르기스의 고도인 발라사군과 탈라스 지역에 정착했다. 이로써 아르슬란 일-티르귀(Arslan II-Tirguk) 시대에 과거 서돌궐 제국의 영역에 확고한 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수도는 발라사군이었다. 이들은 외튀켄에 자리 잡은 위구르국의 우위를 인정했다. 이즈음 카를루크는 정치적 명칭으로 투르크멘(Türkmen)이란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종족적 원류를 돌궐 왕가의 아쉬나계로 본 카를루크의 야브구들은 외튀켄의 위구르 카간을 투르크족의 대표로 추앙했다. 그러나 840년 위구르가 키르기스에 멸망한 후에는 키르기스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투르크 카간의 정통 후예임을 자처했다. 카를루크 야브구가 사용한 칭호는 카라한(Kara Khan), 중심부는 여전히 발라사군이었다.

카를루크는 이슬람-투르크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랍 세력과 대결하면서 최초로 이슬람 문화와 접촉한 카를루크는 후일 이슬람화된 투르크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된다. 최초의 투르크 이슬람 국가인 카라한 칸국(Karakhanid)과 가즈나 조(Ghaznavid)의 핵심 지배 세력이 카를루크족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카를루크는 12세기 이후, 서투르키스탄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카라 히타이(西遼)와 호라즘 조의 강성으로 차츰 그 존재가 약화되어 갔다. 1157년 카를루크의 지도자 야브구 칸이 살해되고, 또 다른 카를루크 부족장 아야르 베이(Ayyar Bey)는 1172년 카라 히타이에 인질로 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라즘 조의 군대에 편입되거나, 카라한 칸국의 지배하에 놓인 카를루크족들은 상당 기간 투르키스탄 일대에서 공국(公國) 형태를 지속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를룩

● 다국어 표기 Karluk(튀르키예어), خَلْج (페르시아어), قارلوق (아랍어), 葛邏祿(중국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위구르, 호라즘 조, 탈라스 전투, 돌궐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Golden, Peter. B., "The Karakhanids and Early Islam", in Sinor, Deni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W. Barthold, "Four Studies In History Of Central Asia", Leiden, E. J. Brill, 1962.

I G175 | 카를루크어파

● 시기기타 ● 지역중앙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우즈베키스탄, 중국 ● 유형언어 ● 유형소분류1분류 ● 유형소분류2어파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rluk Languages

카를루크어파는 투르크어족의 한 어파로, 동카를루크-위구르어파(восточная карлукско-уйгурская)와 서카를루크-호라즘어파(Западная карлукско-хорезмийская)로 구성된다. 카를루크어파는 투르크어족에서 오구즈어파와 키르기스-킵차크어파 사이에 위치하며 10세기~11세기에 형성되면서 페르시아어의 영향도 받았다.

동카를루크-위구르어파는 현대에는 없는 여러 고대 투르크어들이 속했는데 위구르-룬 문자나 오르혼 예니세이 문자가 그 기원이다. 동카를루크-위구르어파는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위구르어로 발전했다. 서카를루크-호라즘어파는 차가타이어파(чагатайская)로도 불리는데, 중세 금장 칸국 언어, 카를루크 빌리그어, 고대 우즈베크어가 여기에 속하고, 현대의 우즈베크어로 발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를룩어파

● 다국어 표기 Карлукские языки(러시아어), لغات القارلوق(아랍어), Qarluq dilləri(아제르바이잔어), Karluk dil grub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우즈베크어, 키르기스-킵차크어파, 오구즈어파,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카를루크어 https://ru.wikipedia.org/wiki/%D0%9A%D0%B0%D1%80%D0%BB%D1%83%D0%BA%D1%81%D0%BA%D0%B8%D0%B5_%D1%8F%D0%B7%D1%8B%D0%BA%D0%B8#/media/%D0%A4%D0%B0%D0%B9%D0%BB:Lenguas_karluk.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Н. А. БаскаковК вопросу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тюркских языков//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 Т. XI. Вып. 2. – М., 1952. – С. 121~134

I G176 I 카말 압둘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소설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Kamal Abdullah

아제르바이잔의 작가이자 언어학자인 카말 압둘라(Kamal Abdulla)는 1950년 바쿠(Bakı)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8년 바쿠에 있는 190번 학교를 졸업했고, 1968년~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공부했다. 카말 압둘라는 1973년부터 1976년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SSRİ Elmlər Akademiyası) 언어학 연구소(Dilçilik İnstitutu) ‘투르크어’ 부서에서 일했다. 1977년 1월 모스크바에서 『서사시 ‘현자 코르크트의 서’의 언어적 평행성』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Azərbaycan SSR Elmlər Akademiyası) 내시미 언어학 연구소(Nəsimi adına Dilçilik İnstitutu) ‘투르크어 비교 연구’ 부서에서 보조연구원, 부서장으로 일했다. 이후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이다.

그는 2000년~2014년 바쿠 슬라브 대학교(Bakı Slavyan Universiteti) 총장, 2014년~2017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사회·다문화·종교 문제의 고문으로 활약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Azərbaycan Dillər Universiteti)의 총장이다. 그는 내시미 언어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잡지 <투르크학(Türkologiya)>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방송국에서 ‘아제르바이잔어’, ‘코쉬마(Qoşma)’, ‘보물’(Dəfinə), ‘언어의 비밀’(Sözün sirri)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그의 문학 작품들은 주제 및



카말 압둘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장르 면에서 다채롭다. 그는 학술적 저서들을 쓰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학술적 저서들은 언어와 민속, 문학에 대한 것이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저자-작품-독자(Müəllif-əsər-oxucu, 1985)」, 「신비로운 현자 코르크트(Gizli Dədə Qorqud, 1991)」, 「길의 시작과 끝(Yolun əvvəli və axırı, 1993)」, 「신화에서 글쓰기 까지, 신비로운 현자 코르크트(Mifdən yazıya, yaxud gizli Dədə Qorqud, 2009)」 등이다. 이 중에서 코르크트 서사시 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설과 시, 단편소설도 창작했다. 대표작으로는 『불완전한 원고(Yarımçıq əlyazma)』, 『마술사들의 계곡(Sehrbazlar dərəsi)』, 『잊을 사람이 없다...(Unutmağa kimsə

yox...』, 『은밀한 모험(Sirlərin sərgüzəşti)』, 『날짜가 없는 다이어리(Tarixsiz gündəlik)』 등이 있다. 그는 현대 아제르바이잔 문단에서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말 압둘라
- 다국어 표기 Kemal Abdulla(튀르키예어), Камал Абдулла(러시아어), Kamal Abdullayev(아제르바이잔어), Kamal Abdull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현자 코르크트의 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2/Kamal_Abdull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acılı Asif, *Kamal Abdulla: seçimin morfologiyası*, Bakı: Mütərcim nəşriyyatı, 2010.
Sarvan Salam, *Məqamlar: Kamal Abdullanın yaradıcılığı ətrafında ədəbiyyat söhbəti*, Bakı: Mütərcim nəşriyyatı, 2011.
Səlcuq Elçin, *Kədərin sirri*, Bakı: XXI-YNE nəşriyyatı, 2005.

I G177 | 카말 탈르브자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Kamal Talıbzadə

아제르바이잔의 뛰어난 문학평론가인 카말 탈르브자대(Kamal Talıbzadə)는 1923년 8월 14일에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작가인 압둘라 사이그(Abdulla Şaiq, 1881년-1959년)의 아들이다. 그는 중등교육을 바쿠에서 받았다. 이후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 바쿠 국립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는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의 니자미 갠재비 문학 연구소(Nizami 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의 부서장을 역임했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1991년에 자신의 아버지인 압둘라 사이그(Abdulla Şaiq)의 하우스 뮤지엄을 만들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박물관의 관장(director)을 맡았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의 학자였다. 그는 1982년에 명예로운 학술 종사자(Əməkdar Elm xadimi), 1983년에 명예로운 교육자(Əməkdar Maarif işçisi), 1986년에 국가상(Dövlət Mükafatı laureatı)을 수상했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반세기 넘게 아제르바이잔어에 대한 언어학적 사고를 통해 독특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압바스 새햇(Abbas Səhhət, 1955)』, 『고리키와 아제르바이잔(Qorki və Azərbaycan, 1959)』,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XX əsr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1966)』, 『우리나라 비평에 관한 소고(Tənqidimiz haqqında qeydlər, 1967)』, 『문학유산과 상속인(Ədəbi irs və varislər, 1974)』, 『시민 시인(Vətəndaş şair, 1975)』,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사(Azərbaycan ədəbi tənqidinin tarixi, 1984)』, 『평론과 평론가들(Tənqid və tənqidçilər, 1989)』, 『작품 선집(Seçilmiş əsərləri, 2권, 1991~1994)』 등이다. 카말 탈르브자대의 학술 연구는 그 폭이 넓고 다양하다: 그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학술서와 에세이를 썼고, 문학사를 연구했으며, 작품을 비평했다. 비평가의 이론적·도덕적 생각과 미적 사고에 대한 깊은 지식은 그의 글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카말 탈르브자대의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XX əsr



카말 탈르브자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Azərbaycan ədəbi tənqidi』과 이 작품의 완성본인 『아제르바이잔 문학 비평사(Azərbaycan ədəbi tənqidinin tarixi)』는 체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아제르바이잔 문학 비평의 1차적 근원을 민속 예술에서 찾는다. 그는 11세기 해티브 태브리즈(Xətib Təbrizi), 유시프 호일루(Yusif Xoylu), 에인널 구자트(Eynəl Quzat)이 살았던 때부터 시작해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이 붕괴될 때까지 거쳐 온 여정을 이론적·미학적 사상을 통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과서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 분야의 다른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문학사에서 문학비평사의 형성과 체계화는 대부분 카말 탈르브자대의 연구와 연결된다. 그의 문학 비평 연구들이 비교적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의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의 글은 상당히 정확하면서도 포괄적이었다. 그는 이전에 출판된 많은 작품들을 다시 보완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생전에 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에서 여러 유능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카말 탈르브자대는 2006년 1월 19일에 바쿠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말 탈르브자대
- 다국어 표기 Kemal Talibzade(튀르키예어), Камал Талыбзаде(러시아어), Камал Талибзаде(타타르어), Kamal Talibzade(투르크멘어), Камал Талибзаде(카자흐어), Камал Талибзаде(키르기스어), Kamal Talibzade(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0/0e/%C4%B0smay%C4%B1LTal%C4%B1bzad%C9%9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d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Salamoğlu Təyyar, Azərbaycan Ədəbi Tənqid Tarixinə Dair Portret Oçerklər, Bakı: EL nəşriyyatı, 2011.

Salmanov Şamil, *Akademik Kamal Talibzadə*,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Şəmsizadə Nizaməddin, *Türk Təfəkkürü Məcrasında AkaDeMik Kamal Talibzadə*,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15.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Talibzadə Kamal, *Kübarlıq Məktəbi*, Bakı: Xəzər Universiteti Nəşriyyatı, 2007.

I G178 I 카메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전통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Kamet

카메트(Kamet)는 아랍어 ‘이까마(Iqamah)’에서 파생된 튀르키예어다. 아랍어 이까마는 ‘서다’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 1형동사 ‘까마’의 동명사형으로 ‘서있음, 중지함’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하는데 예배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예잔이라고 하고, 예잔을 듣고 모스크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카메트를 뒤편이 낭송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귀에 아잔이나 카메트를 읊조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는 1932년부터 1950년까지 18년 동안 아랍어 예잔과 카메트를 금지하고 튀르키예어로만 허용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카메트는 서로 다소 다르다.

수니파 카메트 1.(1번)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 2.(1번)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한다(아슈하드 안 라 일라하 일랄라). 3.(1번)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4.(1번) 예배를 서두르시오(하이야 알랏 살라티). 5.(1번) 성공(구원)의 길로 서둘러 나서시오(하이야 알랄 팔라히). 6.(2번) 예배할 준비를 하시오(까드 까마딧 살라트). 7.(1번)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 8.(1번)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라 일라하 일랄라).

시아파의 카메트 1.(2번) 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 2. (2번)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한다(아슈하드 안 라 일라하 일랄라). 3.(2번)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4.(2번) 알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증언한다(아슈하드 안나 알리운 왈리올라). 5.(2번)예배를 서두르시오(하이야 알랏 살라티). 6.(2번) 구

원의 길로 서둘러 나서시오(하이야 알랄 팔라히). 7.(2번)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오(하이야 알라 카이릴 아말리). 8.(2번)예배할 준비를 하시오(까드 까마딧 살라트). 9.(2번)하나님은 가장 위대 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 10.(1번)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라 일라하 일랄라).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멧

● 다국어 표기 Iqamah(아랍어), Tevrat(튀르키예어), Iqama(우즈베크어), İqamə(아제르바이잔어), Иқамат(카자흐어), lkame(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намаз, 튀에즈진, 예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Azak, Umut. “Secularism in Turkey as a Nationalist Search for Vernacular Islam: The Ban on the Call to Prayer in Arabic (1932~1950).”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124, Novembre 2008, 161~179.

Juynbol, Th. W. “İkâma.” In *Encyclopaedia of the Qur’ân*, 1057. Vol. 3. Leiden, Boston and Köln : Brill, 1986.
Özdemir, A. and Kenneth Frank. *Visible Islam in Modern Turke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I G179 | 카무스 튀르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Kamus Turki

『카무스 튀르키(Kamûs-ı Türki)』는 1899년 썬셋딘 사미(Şemseddin Sami)가 편찬한 오스만 투르크어(이하 오스만어) 사전으로, 1901년 초판이 발간되었다. 아랍어에서 온 ‘카무스’는 오스만어로 ‘대사전’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카무스 튀르키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튀르키예어 대사전’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튀르키예어를 튀르키예어로 설명한 최초의 사전인데, 오늘날의 라틴 알파벳이 아닌 당시 튀르키예 문자로 사용된 아랍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썬셋딘 사미는 아나톨리아의 튀르키예어 및 동부 튀르키예어 어휘 등을 사전에 수록하여 고유 어휘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이 사전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준비되어 편찬되었기에, 일부 단어가 생략되거나 표제어의 정의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 출판 이후 다양한 학자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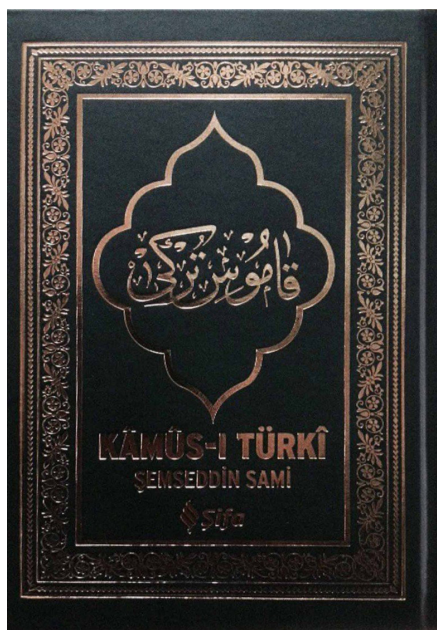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전은 튀르키예의 사회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어휘 연구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셈셋딘 사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언어로 된 모든 단어를 알거나 문장들을 기억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전’은 언어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훌륭한 사전을 가지지 못한 언어는 보물과도 같은 단어를 나날이 소진하고 잃게 되며, 끝내 자신이 지닌 언어의 어휘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의 사전 편찬 철학 및 고유 어휘 보전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카무스 튀르키』는 1985년 <테르주만(Tercuman)> 신문사에서 수정 보완하여 『기본 튀르키예어 사전(Temel Türkçe Sözlük)』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이후 2011년 이상문화출판사(İdeal Kültür Yayıncılık)에서 오스만 투르크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하여 오스만어로 된 사전을 라틴 문자로 번역하고 단어 색인을 추가하여 새롭게 출판했다.

셈셋딘 사미는 알바니아 출신의 19세기 튀르키예 문학가, 사상가로 알바니아어, 튀르키예어,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신문 사설 기고로 글쓰기 생활을 시작한 그는 탄지마트 시기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으며 백과사전 출판, 사전 편찬 등 연구 분야를 언어 및 사전 분야로도 확대했다.

그의 첫 소설 『탈라트와 피트나트의 사랑(Taaşşuk’u Talat ve Fitnat)』은 1872년~1873년 <하디카 신문(Hadika gazetesi)>에 연재되었고, 1875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서양 문학 스타일로 쓴 초기 튀르키예 소설이자 오스만어로 인쇄된 첫 소설이다. 그는 튀르키예어 사전인 『카무스 튀르키』, 『프랑스어 사전(Kamus-ı Fransevi)』, 『아랍어 사전(Kamus-ı Arabi)』, 『백과사전(Kamus-ül Alam)』을 편찬 또는 출판했으며, 다수의



『카무스 튀르키(Kamûs-ı Türki)』 현대 출판 버전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극본도 썼다. 또 『레미제라블』,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했다.

셈셋딘 사미는 23년 동안 백과사전과 사전 편찬을 통해 튀르키예어의 뛰어난 연구자로 발돋움했다. 당대 이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조차 꺼린 사전 작업을 홀로 해내며 마지막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튀르키예어 고유 어휘들을 다루고자 했고, 현대 사전 원칙을 준수하여 첫 튀르키예어-튀르키예어 사전을 편찬한 것이다.

『카무스 튀르키』는 표제어 29,085개에 1,574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당대를 기준으로 고전 및 신문학을 망라한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튀르키예어 고유 어휘들을 모았다. 오늘날 튀르키예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유어도 상당수 담고 있다. 구어 및 방언에서 선별한 표제어도 있으며, 같은 어휘도 지역별 발음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기했다. 고유어의 어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어원에서 파생된 기초 어휘와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고어를 수록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서양어에서 차용된 어휘 및 용어도 담았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들어온 말에 합당한 고유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표제어의 어원을 표기하고 파생된 과정도 제시했으며, 어근에 따라 다양한 접미사로 파생되는 어휘를 담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어의 대표적인 접미사들을 표제어 항목으로 나열하고, 유의어 및 예문도 수록했으며 동사의 경우 활용 형태에 따라 음운 변화를 제시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어휘는 원어의 철자법을 따르면서도 튀르키예어 발음 음독 기호로 표기했다. 아랍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와 아랍어에서 잘못 파생되어 사용되는 어휘도 수록했다.

이후 편찬된 튀르키예어 사전의 대부분은 『카무스 튀르키』를 기반으로 삼았다. 일부 논란이 되는 항목이 존재함에도 이 사전은 튀르키예어의 사전 체계를 현대식으로 확립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오늘날에도 『카무스 튀르키』를 이용한 사전학, 어휘론 등 다양한 튀르키예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무시 튀르키, 튀르키예어사전
- 다국어 표기 Kamûs-ı Türkî(튀르키예어), قاموس ترکی(오스만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투르크어, 셈셋딘 사미, 튀르키예어, 튀르키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ZPJY0HQyL._SL1117_.jpg
<https://turki.cagdassozluk.co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arihvedenedeniyet.org/2013/05/kamus-i-turki-semseddin-sami.html> <http://ia801701.us.archive.org/26/items/KamusiTurki/Kamus-iTurki.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Tercüman Gazetesi, *Temel Türkçe Sözlük*. İstanbulÇiçek, A. 2009.

Sözlük bilimi açısından kâmûs-ı türki üzerine bir inceleme, *Erzincan Eğitim Fakültesi Dergisi* 11-2, 1985. pp.183~193.

Gündoğdu, R., N. Adıgüzel, Ebul F., Önal, *Kâmûs-ı Türki*(Latin Harfleriyle), İstanbul: İdeal Kültür Yayıncılık, 2011.

I G180 | 카부드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bud Mausoleum

카부드 영묘는 1196년 건설된 영묘로, 이란의 마라게(Maragheh) 지역에 있다. 카부드는 페르시아어로 푸른색(감청색)이라는 뜻으로 튀르키예 등지에서는 푸른 영묘(Mavi Kümbet)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묘를 장식한 푸른색 타일로 인한 이름으로 보인다.

이 영묘의 몸체는 석재로 십각형 기초를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렸다. 내부에는 돔 천장이 있으며 외부에는 십각형 뿔의 지붕이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십각형 몸체의 각 모서리는 원기둥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지방의 수르흐 영묘와 비슷한 형식이다. 그러나 이 영묘의 원기둥은 다른 영묘들보다 더 작고 덜 강조되어 있다. 또한, 이 원기둥의 상단은 각 벽면을 장식한 첨두아치(pointed arch)형 벽감의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다. 아치의 상단부에는 글이 적힌 띠가 둘러져 있으며, 이 띠 바로 위에 무카르나스 띠가 있으며 이후 지붕으로 이어진다. 글은 쿠팅 서체로 적힌 코란 구절이다.

영묘는 전체적으로 터키석 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기하학 문양을 구성하는 주요 띠 부분은 테라코타로 되어 있다. 입구는 주변부가 기하학 문양과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벽에 나 있다. 이 무카르나스 바로 위에 이 영묘의 건축 날짜가 포함된 비문이 있었으나 무카르나스와 마찬가지로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입구는 지면에서 약 2m 높이에 있으나 계단은 없다.

영묘 내부 역시 십각형으로 각 면마다 벽감이 있으며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돔의 하단부에도 외부와 마찬가지로 코란 구절이 새겨진 석문이 있다. 다만, 내부는 나스크체로 새겨

져 있다. 이 석문은 회반죽으로 장식되어 있다. 내부 지하에는 무덤방이 있는데, 십자형 평면에 교차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무덤방 벽면은 석고판에 나스크체로 코란 구절이 적힌 비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옛 사진에는 두 번째 입구가 보이는데, 이 입구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형이 아닌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입구는 사라졌다. 이 영묘는 특히 나흐츠반의 뫼미내 하툰 영묘(1186년)와 유사하나, 후대에 지어진 만큼 장식성이나 기술 면에서 조금 더 발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군바디 카부드. 군바디이 카부드

● 다국어 표기 Gunbad-i Qabud(페르시아어), Kümbet-i Kabu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뫼미내 하툰

● 멀티미디어 링크 카부드 영묘_전면부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95089/medium/IAA107979.jpg?1416417449

카부드 영묘_상단 장식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62814/original/IMG28356.jpg?1384726300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1639>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G181 | 카부스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vus Mausoleum

카부스 영묘는 이란 고르간 지역에 지야리드 시대(931년~1090년)인 1006년에 건설된 영묘이

다. 영묘의 주인은 지야리드의 통치자였던 카부스 이븐 보습기르(Qabus b. Voshmgir, 1차 재위: 977년~981년, 2차 재위: 997년~1012년)이다. 카부스는 시인, 천문학자, 서예가이기도 했으며, 이븐 시나(Ibn Sina, 980년~1037년)나 알 비루니(Al-Biruni, 973년~1050년)의 후원자이기도 했다.

카부스 영묘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벽돌로 만들었으며, 십각 별 형의 긴 몸체에 원뿔형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체의 길이는 37m, 지붕의 높이는 18m이다. 건물 동편에 입구가 있다. 입구 상단부에는 초기 형태의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지하 무덤방은 없으며 지붕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없다. 내부에는 장식이 없고 창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외부 면에 벽돌로 만든 두 줄의 쿠픽 서체가 새겨진 석문이 있다.



카부스 영묘

Source: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

지하 무덤방이 없기에 시신도 없지만, 일부 전설에 의하면 카부스의 시신을 보관하던 유리관이 내부 돔에 매달려 있었으며 동쪽 면의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빛났다고 한다.

이 영묘는 사실 영묘의 주인이나 당시 국가 모두 투르크계가 아닌 페르시아계인데 중앙아시아 지역 투르크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투르크 미술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이다. 가즈나 조의 탑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인근 지방에 투르크멘어를 사용하는 투르크멘족이 다수 살았다는 점 등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카부스 영묘는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곤바테 카부스, 곤바드에 카부스
- 다국어 표기 Gonbad-e Kavus(페르시아어), Kümmeŧ diňi(투르크멘어), Kabus Anıtı(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398_0001-1000-1411-20120822111437.jpg

카부스 영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5/Gonbad-e_Qabus.JPG/300px-Gonbad-e_Qabus.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1398/>

<https://archnet.org/sites/1606>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G182 I 카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shi

카스(Kashi)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현급 도시로 현지 위구르어로는 카쉬가르라 부른다. 인구는 1999년 조사 기준 205,056명이다. 인구의 80%는 현지 토착민인 위구르족이다. 고대 소록국의 수도였으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이슬람의 거점도시로 발전했다.

8세기 중엽 돌궐을 멸하고 몽골 고원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위구르가 9세기에 약해지면서, 키르기스에 멸망당하자 위구르족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여 타림 분지로 남하했다. 위구르족이 토착민과 혼혈해, 이 땅의 언어는 투르크어 계열의 위구르어 화되었다. 10세기에는 최초의 투르크계 이슬람 왕조인 카라한 칸국의 세력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 카쉬가르에 들어와 그 왕도가 되기도 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1913년 소록현이 설치되어, 1933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단기간이지만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이 땅에 섰던 적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2년 소록현에서 카스시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다. 1986년 대외로 개방되면서 국가역사문화명성으로 지정되었다. 시내에는 카스 지구 행정 관공서가 설치되어 있다. 위구르족이 많아 동쪽 투르크스탄 분리운동이 번성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 독립을 위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곳은 2010년 서부 중국에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포함된 유일한 도시이며,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카라코룸 하이웨이의 종착역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시, 카쉬

● 다국어 표기喀什(중국어), قەشقەر(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실크로드, 돌궐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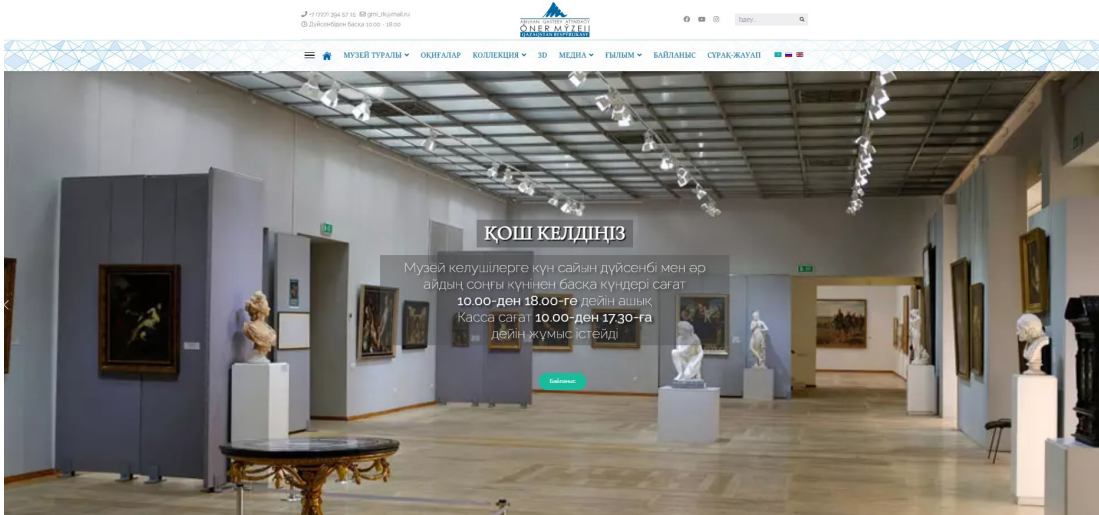
I | G183 | 카스테예프 국립예술박물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 Kasteyev State Museum of Arts

카스테예프 국립예술박물관은 알마티에 있으며 인민예술가 알리한 카스테예프(A. Kasteyev, 1904년~1973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소련 시기인 1935년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설립한 세브첸코 국립미술관과 1970년 설립한 국립응용미술박물관을 통합해서 1976년 국립예술박물관으로 출범했다. 1984년에 카스테예프를 기리는 취지로 명칭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박물관은 근현대 미술 및 공예품 2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이다. 카자흐인들의 전통적 생활상을 담은 그림, 유럽과 아시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 학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해외 기관과 활발하게 협력하며 동시에 대중에게 다가가는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연중 4개월~5개월 동안 진행되는 카자흐스탄과 세계 예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일반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예술관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코너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전통 회화와 응용미술 코너, 러시아 회화, 유럽 회화, 고대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코너, 기타 20세기 현대 예술 코너 등이다. 각각의 코너에는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회화 및 예술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을 추천할 만한 곳이다. 특히 알마티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접근하기에도 용이하다.



Кастеєвтің Ұлттық сурет музейінің сайты
 Source: <https://www.gmirk.kz/>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스테예프 국립예술박물관
- 다국어 표기 Ә. Қастеев атындағы өнер мұражайы(카자흐어), Музей искусств им. А. Кастеева(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MivdHUIZC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gmirk.kz/en/home>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G184 | 카슴 배이 자키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Gasim bey Zakir

아제르바이잔의 시인인 카슴 배이 자키르(Qasim bəy Zakir)는 1784년 슈샤(Şuşa)에서 태어났다. 자키르는 마드라사에 입학해 아랍어 및 러시아어를 배웠다. 이후 러시아 차르 군대에 자원해 무슬림군에 합류했고, 1806년~1813년, 1826년~1828년 두 차례 러시아-이란 전쟁에 참전

했다. 그는 아바스 미르자가 이끄는 이란군에 맞서 싸웠다.

젊은 시절 다양한 전쟁과 전투를 치른 자키르는 1830년 후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여름은 슈사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카라바흐 칸이 기증한 큰드르스탄에서 보냈다. 자키르는 동시대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 당시 아제르바이잔 지식인 그룹의 미르재 페탈리 아훈드자대(Mirzə Fətəli Axundzadə), 이스마이엘 베이 구르트가슬르(İsmayıl bəy Qurtqasıllı), 바바 베이 샤키르(Baba bəy Şakir), 후르쉬드바누 나태반(Xurşidbanu Natəvan) 등과 교류했으며, 조지아 왕자 일리코 오르벨라니와(İliko Orbeliani)와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자키르는 1849년 10월 체포돼 슈샤 감옥에 수감됐다. 그는 재판 없이 1년 동안 슈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쿠로 추방됐다. 그는 바쿠에서 몇 달 동안 유배 생활을 한 후 슈샤로 돌아왔으나 죽을 때까지 경찰의 통제를 받았다. 그는 말년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그는 1857년 슈샤에서 사망했으며 슈샤의 미르재 해산(Mirzə Həsən) 묘지에 안장됐다.

자키르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시의 기반을 마련한 시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주로 차르 제국 통치자들과 식민지법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풍자시를 썼다. 신랄하고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주요 특징이다. 그는 시를 통해 사회 문제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판적 견해까지 표명했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맨쭈m hikəyə(mənzum hekayə)와 우화를 주로 썼다는 것이다. ‘맨쭈 hikəyə’는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문학 장르이며, 각운을 맞춘 시 형식으로 완결된 이야기를 전하는 형태이다. 주요 맨쭈 hikəyə 작품은 『맬리크자대와 샤흐새넴(Məlikzadə və Şahsənəm)』, 『애미르자대, 연인 그리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Əmirzadə, məşuq və cavan aşiq)』, 『사랑에 빠진 사람의 요리하기(Aşiqin təam bişirməyi)』, 『연인들에 대하여(Aşiq və məşuq haqqında)』, 『태를란과 사자(使者)(Tərən və elçi)』, 『낙타를 잃어버린 사람(Dəvəsi itən kəs)』, 『탁발승과 여자(Dərviş ilə qız)』, 『뻔뻔한 탁발승(Həyasız dərviş)』, 『비도덕적인 재판관(Əxlaqsız qazi)』 등이다.

우화 작품으로는 『사자, 늑대 그리고 자칼』, 『낙타와 당나귀』, 『여우와 늑대』, 『기만적인 친구들에 대해(Xain yoldaşlar haqqında)』, 『여우와 사자(Tülkü və Şir)』, 『충성스러운 친구에 대해(Sədaqətli dostlar haqqında)』 등이 있다. 그의 작품에서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고 고귀한 감정으로 묘사된다. 핵심 주제는 의리와 끈기, 인내심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슴 배이 자키르
- 다국어 표기 Касым бек Закир(우즈베크어), قاسم بی ذاکر(페르시아어), Gasim bey Zakir(튀르키예어), Qasim bəy Zakir(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Kərimov Raqub, *Qasim bəy Zakir və müasirlər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3.
Məmmədov Kamran, *Qasim bəy Zakir*,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84.
Qasimzadə Feyzulla, XI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Bakı: Maarif nəşriyyatı, 1974, s. 206~235.

I G185 | 카움 나시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yum Nasyri

근현대 타타르스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학가이자 민속학자인 카움 나시리(Каюм Насыри)의 본명은 가브델카움 가브덴나시로비치 나시로프(Габделькаюм Габденнасырович Насыров)이다. 그는 1825년 2월 14일 카잔현(Казанская губерния)의 베르흐니에 시르다니(Верхние Ширданы) 마을에서 태어났고, 1902년 8월 20일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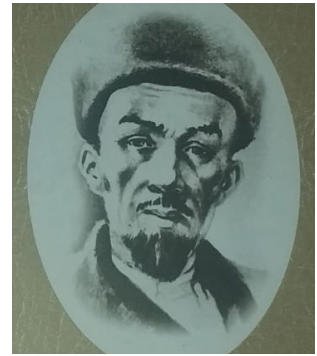
타타르 민족 계몽운동가이자 뛰어난 학자, 작가이기도 한 그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학, 민속학, 철학, 교육학, 수학,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 40여편을 남겼다.

사회운동가로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타타르 민족에게 과학과 문화를 전파하고 타타르어 보존에도 힘썼던 계몽주의자이기도 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인문학적이고 종교적인 가풍 속에서 자란 카움 나시리는 1855년 러시아 정교 성직자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교도로서 이는 대담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당시 카잔 타타르인들의 사회 통념으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신학교의 작은 방에서 늦은 밤까지 동방의 필사본이나 러시아어, 유럽어로 된 문학작품들을 정리하

면서 원고를 작성했다.

1870년대 러시아 국가 교육의 체계로 자치 이슬람 종파 교육이 결합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슬람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문 교사가 부족하고 이슬람 주민들의 저항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움 나시리는 카잔의 이슬람교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1876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언어학, 교육학, 역사 및 문학 분야에서 저술 활동을 지속했다. 그의 민족학과 역사학 분야 연구 결과는 카잔 대학교와 여러 학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카움 나시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움 나스리
- 다국어 표기 Каюм Насыри(러시아어), Насыри Қаюм(카자흐어), Kayyum Nasir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f/Kayyum_Nasiri_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ллин И.А., Закиев М.З. Каюм «Насыири —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Советская тюркология. 1975. № 3. — С. 52~67.

I G186 | 카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창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y

목으로 노래를 부르는 고대 예술 형태인 카이(Kay)는 남시베리아 투르크 민족 중 하나인 알타이인들의 배음창법 음악이다. 카이의 기원이나 역사는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카이는 알타이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다. 카이는 단순히 독특한 창법의 노래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카이에는 알타이인들의 철학과 삶에 대한 도덕적 성찰, 전설과 역

사가 담겨 있다.

카이의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음악가 중 최고 경지에 오른 이들을 카이치(kaychi)라고 한다. 이들은 주로 영웅 서사시나 전설을 토프슈우르란 두 줄 현악기를 연주하며 카이를 통해 이야기한다. 그 내용은 수만 행에 이르며 며칠에 걸쳐 연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카이는 음악적, 민속적, 문학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근대에 들어 카이와 카이치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1920년대 무렵부터 역사적인 카이치들이 등장했다. 칼킨(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 Калкин), 차치예코프(Табара Чачиевков), 알라토프(Шуну Ялатов) 같은 이들을 통해 알타이의 전설과 영웅 서사시들이 전승되고 기록에 남게 되었다. 현재 카이치는 알타이 공화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쿠룰타이 스키지텔 레이(이야기꾼 대회)에서 최고의 카이치를 선발한다. 반면 젊은 가수들은 현대적인 음악에 카이의 창법을 응용하여 독특한 매력을 지닌 민족 음악을 창조하기도 한다.

카이와 비슷한 배음창법(倍音唱法)의 전통 음악으로는 투바의 호오메이(хоомей), 하카스의 하이(хай)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이이, 카이으
- 다국어 표기 Kay(영어), Куй(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알타이인, 투바, 하카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qKTpFmKxI0>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fashiontravel.ru/articles/russia/item/224>
<http://gotoaltay.ru/altay/obshhaja-informacija/muzyka/kaj-enomen-altajskogo-narod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релина, Е. К. “Преподавание горлового п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Сибири: историко-теоре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История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ермь, 2019, pp.208~217.

I G187 | 카이구수즈 압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Kaygusus Abdal

카이구수즈 압달(Kaygusus Abdal)은 수피즘의 한 갈래인 벡타슈 문학의 대표 작가이며 신비주의적 해학과 풍자문학을 개척한 선구자이다. 그의 정확한 생일과 사망 날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시나 소설을 통해 그가 압달 무사(Abdal Musa)의 문하생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1981년 카이구수즈 압달 연구자 귀젤(Güzel)은 그의 시에 이스학 베이(İshak Bey), 이브니 페나리(İbni Fenârî), 무라드 한(Murad Han)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카이구수즈 압달이 수피작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압달 무사의 수피 예배당인 텍케에 입회하면서부터이다. 카이구수즈 압달의 일생과 성장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카이구수즈 압달의 본명은 ‘알라이 가이비(Alâyî Gaybî)’이다. ‘알라엠티딘 가이비(Alâeddin Gaybî)’로 쓰기도 한다. 그의 출생은 1341년 혹은 1342년 이후로 추정되며, 튀르키예 알라니아(Alanya)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알라니아 군주인 휴사메딘 마흐무드(Hüsâmeddin Mahmud)이고, 할아버지는 알라에딘 빈 유수프(Alâeddin bin Yusuf)이다.

알라니아 가문은 카라만오울라르(Karamanoğulları) 공국의 후손으로 기원은 룸 셀주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알라니아 지역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이곳은 이집트와 시리아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출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목재를 수출할 때 이용됐다. 그리고 알라니아 공국은 안탈리아, 카라만, 맘루크 술탄국과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361년~1373년 테케(Teke) 공국과 알라니아 공국은 사이프러스(Kıbrıs) 왕국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테케 공국의 무바리제딘 메흐메드(Mübârizeddin Mehmed), 알라니아 공국의 휴사메딘 마흐무드, 카라만오을루 공국의 알라엠티딘 알리(Alâeddin Ali)가 함께 크브르스 왕국에 맞서 싸웠다. 이 치열한 전쟁으로 안탈리아는 10년 동안 사이프러스의 지배를 받았고 한동안 알

라니아를 포함해 사이프러스 해군의 점령을 받았다. 알라니아 공국의 중심지에서 10마일 거리에는 궁이 있었다.

알라엠티딘 가이비는 이런 환경에서 청년 시절까지 보냈다. 이때 지식 습득은 물론, 사냥과 활 쏘기 같은 기예에도 능해 당시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손꼽혔다. 청년 시절 지금의 안탈리아 엘마르 지역에서 압달 무사 문하생으로 수련을 시작한 후 ‘카이구수즈’라는 이름을 받았고, 오랜 기간 압달 무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다.

‘카이구수즈 압달’이라는 이름을 받고, 정식 수피가 된 그는 1397년~1398년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 자신의 텍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 종파를 정착시킨 뒤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가 헤자즈, 시리아, 이라크를 돌아보고 아나톨리아로 돌아왔다. 1424년~1430년에는 루멜리로 건너가 에디르네, 앙볼, 플로브디프, 비톨라 등에서 머물렀다. 그는 다시 아나톨리아(또는 이집트)로 돌아왔고, 1444년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구수즈 압달이 아루즈 운율로 쓴 시를 모아서 만든 시집이 전해진다. 바로 가죽 공책이 질문하고 옷장이 대답하는 『옷장과의 대화(Dolab-nâme)』이다. 음절 운율로 지은 『연령전(年齡傳, Yaşnâme)』도 있다. 이 외에도 「카이구수즈의 고통(Cefriyye-i Kaygusuz)」이라는 2행 대구법(對句法) 운율시가 있고, 훗날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다룬 『바보전(傳)(Budalanâme)』과 같은 산문 에세이집도 있다.

또한 그는 대구법을 5000번이나 활용한 시를 썼다. 『디반(Divan)』, 『굴리스탄(Gülistan)』, 『메스네비(Mesnevi)』 등 3편이 그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이슬람교 신비주의 교리, 즉 ‘존재하는 것은 하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카이구수즈 압달은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선과 악, 지옥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도 시에 담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이구수즈 아브달

● 다국어 표기 KAYGUSUZ ABDA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벡타슈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lpınarlı Abdülbaki, “Kaygusuz Abdal”, *Türk Dili Dergisi, Türk Halk Edebiyatı Özel Sayısı*, Sayı: 207, Aralık, 1968.

Güzel Abdurrahman, *Kaygusuz Abdal*,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1.

Kocatürk Vasfı Mahir, *Tekke Şiiri Antolojisi*, 2. Basım, Edebiyat Yayınevi, İstanbul, 1968.

I G188 I 카이마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ymakam

카이마캄은 사전상 ‘누구의 자리를 대신해 서 있는’이라는 의미의 카임-마캄(kāim-makām)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로 오스만 제국 중앙 조직 및 지방 조직에 있는 직위이다.

카이마캄은 기록상 16세기부터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대리하게 되는 직함과 함께 쓰인다. 예를 들어 사다레트 카이마카므(Sadâret kaymakamı, 사드라잠 부서의 카이마캄)는 사드라잠(Sadrâzam)이 원정이나 다른 이유로 이스탄불을 떠나 있을 때, 사드라잠을 대신하는 인물에게 붙이는 직함이었다. 캡탄파샤(Kaptanpaşa, 해군 장관)를 대리하는 누군가를 캡탄 파샤 카이마카므(kaptanpaşa kaymakamı)라고 했으며, 중앙 관료 중 원정에 참여한 국(관, 부서)장의 대리인도 카이마캄이라고 했다. 탄지마트 칙령이 선포되기 전까지 총독이나 무타살르프(mutasarrıf)의 대리인에게도 이 호칭을 주곤 했다.

오스만 제국 시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무함마드 알리(Kavalalı Mehmed Ali Paşa, 재위: 1805년~1848년) 시대 이전까지 새로운 이집트 주지사나 베이레르베이(Beylerbey)가 오기 전 대리로 자리를 지키는 이를 카이마캄이라고 불렀다. 이 카이마캄은 이집트 베이레르베이의 임명과 해임 이외의 모든 주지사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이집트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외에 세금 징수원의 대리인과 군 분야에서도 카이마캄 직함이 사용되었다. 19세기 이집트의 서구화된 군 조직에서 대령에 해당하는 미랄라이(Miralay) 바로 밑의 직위를 카이마캄이라고 불렀다. 이 직위는 관개 작업의 책임자였다. 카이마캄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직위가 된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19세기 이집트 영토 외의 오스만 제국에서도 완전히 미랄라이 바로 밑의 직위로 자리 잡았으며, 1842년 이후 세금 징수관(muhasıl-ı emvâllik)은 카이마캄이 되었다. 카이마캄은 내무부

(Dahiliye Nezâreti) 소속으로 도지사[또는 산작 베이(Sancak bey)]를 대신하여 산작 행정 국장(sancak mülkî âmiri)이 되었으며, 산작 평의회(Sancak meclisi)의장이었다.

탄지마트의 원칙을 지방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공무원 교육기관인 멕테비 멀키예(Mekteb-i Mülkiyye)가 1859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카이마캄 등 행정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기(카팁, katip), 재능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졸업생은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후에 카이마캄이나 다른 고위직이 되었다.

1921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행정 단위는 순서대로 주(윌라이에트, vilâyet), 도(산작, sancak), 군(카자, kaza), 읍(나히예, nahiye)이었다. 산작은 1921년 폐지되고, 카자는 공화국 건립 이후 새로운 군(일체, ilçe)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행정국장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대 튀르키예의 행정 군수 직함으로 카이마캄이 사용되고 있다.

● 다국어 표기 kaymakam(튀르키예어), Kaymakam(아제르바이잔어), Қаймақам(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산작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kaya, Yücel. “KAYMAKA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5, İstanbul: TDV, 1995, pp.84~85.
Çadırcı, Musa. *Tanzimat Döneminde Anadolu Kentleri'nin Sosyal ve Ekonomik Yapıları*, Ankara: TÜRK TARİH KURUMU. 1991.
Holt, P.M. “KĀ'İM-MĀ'KAM”, *Encyclopaedia of Islam* VOL. IV (ed; BE. VAN DONZEL, B. LEWIS AND CH. PELLAT), Leiden; Brill, 1997, pp.461~462.

I G189 |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Qaytbay Complex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북쪽에 위치한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는 맘루크 조(Mamluk Dynasty) 후기 술탄인 알 아쉬라프 아부 알 나스르 카이트 베이(Al Ashraf Abu al Nasr Qaytbay, 재위: 1468년~1496년) 통치 시기인 1474년 완공되었다. 카이트 베이는 맘루크 조에서 재위 기간이 두 번째로 긴 술탄이다. 카이트 베이는 오스만 제국과 갈등하는 등 외세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1858년 촬영된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불구하고, 유능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맘루크 조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축을 후원한 대표적 인물이다. 카이트 베이는 복합단지 외에도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카에 최소 85개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17개 건물은 카이로에 있으며 맘루크 조 건축 양식의 정점을 보여준다.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는 카이트 베이가 건설한 건축물 중 초기 건축에 해당한다. 이 복합단지는 1470년 착공하여 1474년 완공했다. 이 단지는 당시 카이로에 건설된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카이로 동쪽의 사막 지역에 공동묘지(지금의 북부 묘지)가 있었다.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는 이 공동묘지 구역 중 왕실 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도 기능했다. 건축 목적은 묘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

지 확장을 막고, 이 단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확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묘지의 크기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이트 베이 복합단지는 모스크뿐만 아니라 거대한 입구, 영묘도 포함하고 있어서 기능이 다양하다. 모스크는 영묘와 함께 이 복합단지의 가장 중요한 건축 요소로 꼽힌다. 모스크는 평면도상 복합단지 중앙에 위치하여, 단지 입구로 들어서면 영묘보다 먼저 마주하게 된다. 모스크 입구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 도로가 모스크 입구를 향해 틀어져 있어 복합단지의 존재감이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파사드는 붉은색 석조와 밝은색 석조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아블라크 양식이다. 또한 입구 상단은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무카르나스 장식이 되어 있어, 마치 종유석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복합단지 내부도 외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톤의 자재가 번갈아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한 모스크 내 기도실 위 천장은 이슬람 세계에서 많이 보이는 기하학적 패턴과 다양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모스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복합단지 건축을 후원한 카이트 베이의 영묘가 있다. 모스크보다 동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영묘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또한 북향으로 창문을 더 많이 내서 보다 밝은 분위기를 낸다. 영묘 위치를 나타내는 돔은 반구형에서 상하로 길어진 형태로 높게 설계되었다. 또한 석재로 건축했고, 외부는 기하학 패턴으로 장식했다. 모스크에서 영묘는 메카 방향인 키블라(Qibla)를 알려주는 미흐랍(Mihrab) 옆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맘루크 조의 통치자가 종교적 권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이트 베이 콤플렉스

● 다국어 표기 Qaytbay Complex(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7/Mosque_of_Sultan_Quait-Bey_%281858%29%2C_by_Francis_Frith.jpg/1024px-Mosque_of_Sultan_Quait-Bey_%281858%29%2C_by_Francis_Frith.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hrens-Abouseif, D. *Islamic architecture in Cairo: An introduction*. Brill, 1989.

Newhall, A. W., *THE PATRONAGE OF THE MAMLUK SULTAN QA'IT BAY, 872~901/1468~1496 (CAIRO, EGYPT,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1987.

I G190 | 카자흐(기원)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zakh

카자흐(Kazakh)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투르크 계열 민족을 가리킨다. 오늘날 카자흐인은 그들의 독립 국가인 카자흐스탄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180만명 이상의 카자흐인이 거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유태계 러시아인 바르톨드(Barthod)에 따르면, 카자흐라 불리는 투르크족이 몽골 제국의 통치에서 이탈해 방향하며 도적 생활을 하고 지낸 데서 카자흐라는 단어가 유래했다. 즉 kazak는 ‘배회하다’라는 의미의 투르크어 kazmak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카자흐 민간에서는 ‘카자흐’를 kaz(거위)와 ak(희다)라는 두 단어에서 비롯된 합성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민간 어원론은 그들의 전설을 반영한 것으로, 전설에 따르면 하얀 거위가 처녀로 둔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카자흐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카자흐라는 말은 15세기 러시아 제국의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다. 여기서 카자흐는 한 사회 계층을 지칭한다. 즉 당시 지배층인 카숨 가문에 예속된 사람들을 다른 하층 계급과 구분하기 위하여 카자흐라 부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인들은 단순히 타타르인이기보다는 여러 투르크계 부족, 즉 크림 타타르인, 카잔 타타르인 그리고 킵차크인, 노가이인 등으로 러시아 지배층에 예속되어 일한 집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카자흐라는 단어는 원래 종족명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계층, 몽골 제국과 카잔 칸국 붕괴 후 러시아인들에게 고용되어 군인으로 복무한 새로운 투르크계 부족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카자흐인들은 15세기~16세기에 러시아 중앙부에서 남방 변경 지대로 이주하여 자치적인 농민 군사공동체를 형성했다. 이후 이들 집단은 카자흐인들이라고 불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작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тар(카자흐어), قازاقتار(아랍어), Kazax(러시아어), Kazakh(영어), 哈萨克(중국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044&cid=40942&categoryId=31642>(두산백과 카자흐족)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Barthold, V. V., "History of the Semirechyé".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vol. 1. Translated by V. & T. Minorsky. Leiden: Brill Publishers, 1962.

I G191 | 카자흐 민속악기박물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he Kazakh Museum of Folk Musical Instruments

카자흐 민속악기박물관은 알마티 시내 중심부인 판필로프 공원에 있으며 다양한 민속 악기들을 전시한다. 이 박물관은 1908년 러시아 건축물 형태로 세워진 목조 건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건축가는 인근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세운 젠코프(A.P. Zenkov, 1863년~1936년)이다. 당시 카자흐인들은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알마티는 카자흐인과 함께 러시아인들도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다. 이에 따라 건물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러시아식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의 양식과는 차이가 난다. 20세기 초에는 카자흐스탄 지역에도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고 카자흐인들 또한 러시아의 선진 문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소련 시기인 1980년 당시 카자흐 공화국은 민속 악기를 별도로 보관하는 박물관을 모색하면서 그 공간으로 당시까지 관공서로 사용하던 건물을 선택했다. 이때 400여 점의 민속 악기가 수집되었다. 1990년 3월 카자흐 공화국 당국은 유명한 카자흐인 돔브라 연주가인 이클라스(Yklas Dukenuly, 1843년~1916년)의 이름을 따서 이클라스 민속악기박물관으로 명명했다. 2012년 카자흐스탄 당국도 이 명칭을 인정했다. 아울러 박물관의 소속을 중앙정부의 문화부에서 알마티시로 이전했다. 현재 이 박물관에는 현악기인 돔브라를 비롯한 1,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악기들을 그 특징에 따라 별도의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자흐 민속악기 박물관은 카자흐인들의 전통 악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자흐 민속악기박물관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 민속악기박물관, 악기 박물관
- 다국어 표기 Қазақ халық музыкалық аспаптар мұражайы(카자흐어), Казахский музей народ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q-1FZOadQ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lmatymuseum.kz/yhlas-en/>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G192 | 카자흐 전통 문양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문양
- 집필자 추영민 ● 라틴 문자 Kazakh oyuy

카자흐 전통 문양은 주로 동물, 식물을 형상화하거나 기하학적 무늬, 우주적 상징 등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전통 문양은 2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유목 생활을 해 온 카자흐 민족에게 말, 양, 낙타, 새 등과 같은 동물은 그들의 삶과 가까이 존재했다. 전통 공예는 인간의 삶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카자흐 민족의 전통 문양에서는 뿔, 발톱, 목, 발, 눈 등과 같은 동물의 외형과 유사한 모습이 많이 관찰된다. 대표적인 예로 양의 뿔(қошқармүйіз), 네 개의 귀(төрткұлак), 낙타 발바닥(түйетабан), 새의 날개(құсқанат), 여우 머리(түлкібас) 문양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물의 뿔은 풍요, 활력, 번영을 상징하여,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문양이다.

또한, 식물의 잎사귀, 꽃, 뿌리 등도 전통 문양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것들은 인간의 음식이자 약재이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 식물을 모티브로 한 문양은 주로 심미적 목적으로 의복이나 가구를 꾸미는 데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마름모꼴, 지그재그 모양, 삼각형 등 기하학적 무늬와 태양, 달, 별 등을 모티브로 한 전통 문양들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작 오유으

● 다국어 표기 Қазақ оюы(카자흐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lim-all.kz/article/4534-Qazaqtyn-ulattyq-oyu-ornegi-arqyly-iskerlik-shygarmashylygygn-arttyru>

● 참고문헌(오프라인) Бүркітбай Аяған, (Бас Ред.) Қазақстан Ұлттық Энциклопедия (5 том). Алматы. 2003.

I G193 | 카자흐스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zakh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위치한 투르크계 국가이며, 세계에서 면적이 9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이다. 카자흐스탄의 유럽 땅 넓이는 약 15만 km²로 카자흐스탄 국토의 5%를 넘는 수준이다.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내륙국이지만 세계 최대 호수인 카스피해의 항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연결된다. 수도는 독립 후 최대 도시인 알마티(Almaty)였다가 현재는 아스타나(Astana)이다. 카자흐스탄의 언어는 카자흐어가 국어, 러시아어가 공용어이다. 종교는 카자흐계가 주로 믿는 수니파 이슬람교이고, 러시아계가 주로 믿는 정교회가 있으며 화폐 명칭은 텡게이다.

인구는 20세기 초까지는 카자흐인이 다수였으나, 소련 시기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 시행 당시 카자흐스탄에 닥친 대기근으로 카자흐인의 40% 가량이 굶어 죽거나 기근을 피해 위구르,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 등으로 이주하면서 카자흐인의 비중이 60%에서 30%까지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러시아인들의 이주까지 겹쳐 1980년대까지는 러시아인이 더 많았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대거 빠져나가고 국외에 살던 카자흐인들이 귀국하면서 카자흐 민족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뚜렷한 대륙성 기후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며, 특히 평원과 골짜기 지역에 그 특징이 심하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수량은 북부가 약 250mm, 남부 산악 지대가 450mm이다. 하지만, 스텝과 사막이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있다.

구 소련 시절 공산당 서기였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1990년 4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6번 당선돼 2019년까지 28년 1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권위주의형 독재 체제가 구축됐다. 1991년 독립 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많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아스타나의 아지레트 술탄 모스크(Әзірет Сұлтан мешіті) 야경

시켜 2009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2017년 양국 간 교역액은 15억달러, 대한민국의 카자흐스탄 누적 투자는 38.7억달러이다. 2022년 현재 약 2,500명의 대한민국 교민이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이며, 200여 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카자흐어),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어, 나자르바예프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카자흐스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041&cid=40942&categoryId=34062>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퍼내기, 1997.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전경

Alexandrov, Mikhail, *Uneasy Allianc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in the Post-Soviet Era, 1992~1997*,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9.

Cummings, Sally,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London: Tauris, 2002.

Olcott, Martha Brill, *Kazakhstan: Unfulfilled Promis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2.

I G194 | 카자흐스탄 구전 문학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Oral Literature of Kazakhsatn

카자흐인들의 구전 문학 전통은 그들의 삶인 유목 생활 및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목 생활이 근간이던 카자흐인들은 영웅 이야기, 전설, 민담 등 여러 형태가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15세기 중반 이후 국가를 만들었던 카자흐인들은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던 투르크인들의 서사시에 대해 많이 전해 듣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자 코루쿠트』와 같은 이야기는 카자흐인들에게도 전승되었다. 다만 문자로 된 기록 문학 형태가 아니라 구전으로 이어지던 형태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불렀던 정확한 가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문자로 채록되기 전까지 그와 같은 구전 전승의 전통은 카자흐인들의 일상을 지배했다.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큰(akyn)’이라는 전문 노래꾼 혹은 만담꾼이 큰 역할을 했다. 키르기스인들에게 ‘마나스치’라는 음송 시인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장문의 내용을 아큰들이 일일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유목민이던 카자흐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존재였다. 이들은 대개 돔브라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구전 서사 문학과 악기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구전 문학으로서 영웅 서사시와 서정시가 있는데 영웅 서사시로는 「코블란드」, 「알파르스」, 「캄바르 바트르」 등이 있고, 서정시로는 「코즈-코르페쉬」, 「바얀-술루」, 「크즈-쥬벡」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작품들은 아큰이라고 하는 음송 시인(소리꾼)이 불렀으며 그 내용은 나중에 문자로 채록되어 오늘날까지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스탄 구전 문학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тың ауыз әдебиеті(카자흐어), Казахская устная литерату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문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factsanddetails.com/central-asia/Kazakhstan/sub8_4c/entry-4653.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195 |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National Museum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4년 7월 2일 개관한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은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아스타나)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독특한 건축물과 함께 현대식 건물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명칭이 알마티 소재 국립 중앙 박물관과 유사하여 혼동스러운 면이 있다.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은 아스타나홀, 독립국 카자흐스탄홀, 황금 전시실, 고대 중세 전시실, 인류학 전시실, 현대 예술 전시실 등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동들을 위한 특별 박물관 및 학습 프로그램실 등도 갖추고 있다.

가장 화려하고 주목을 끄는 전시실은 바로 황금전시실인데 여기에는 고대, 중세기에 금으로 만든 다양한 장식품들이 있어 당시 기술을 알 수 있다. 이식-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 인간을 비롯하여 스키타이 시대의 황금 부조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스타나(누르술탄) 전시실은 도시 아스타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수도로 결정되기까지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양한 민족의 국가인 만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류학적 특징을 집대성한 전시실 또한 주목을 끌며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스탈린의 정책으로 희생된 소수 민족에 관한 내용들도 전시되어 있다. 누르술탄 도심부의 여러 건물들과 잘 어우러져 있는 박물관의 부지는 약 74,000제곱미터에 이른다. 수도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 문화유산의 발전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2013년에 새로운 국립 박물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Ұлттық музейі(카자흐어),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러

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박물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1mSN1gZT28>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150711153300/http://astanamuseum.kz/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9&Itemid=152&lang=en
<https://www.astana-kazakhstan.net/attractions-2/culture-and-entertainment/national-museum-of-the-republic-of-kazakhs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Н. Якубова, *Казахстан. Нур-Султан, Алматы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республики. Путеводитель*, Москва, Эксмо, 2021.

I G196 I 카자흐스탄 국립 중앙 박물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Central State Museum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국립 중앙 박물관은 알마티 최대의 박물관이며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고고학 유물 등 30여만 점이 전시되어 있고, 독특한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내 소장품 수집은 카자흐 자치 공화국 시절의 수도였던 오렌부르크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카자흐인들의 유물들이 오렌부르크 주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후 국가의 수도가 알마티로 이전함에 따라 박물관 전시품도 알마티로 이동하게 되었다. 알마티에서는 지금의 판필로프 공원에 있는 보즈네센스크 성당(일명 젠코프 성당)이 그 역할을 했는데 소련 시기에 이 성당은 무신론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1944년이 되어서야 박물관으로서 지위가 상승하여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렌부르크, 크질오르다, 알마티 등 국가 중심부로 이동하는 동안 박물관 자체도 고고학, 지리학, 인류학 등의 연구와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알마티 중심부인 사말(Samal-1, 44) 지역에 있는 건물은 1985년에 건설되었다. 박물관 내부의 주 전시실은 7개 구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선사 시대, 고대, 중세, 근대 및 현대사와 문



카자흐스탄 국립 중앙 박물관

화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인류 유물과 카자흐인들의 역사 유물 그리고 기타 소수 민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현관 입구 홀을 들어가면 카자흐인들의 선조로 자부하는 ‘황금 인간’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Мемлекеттік орталық музейі(카자흐어),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박물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csmrk.kz/index.php/en/>
https://www.youtube.com/watch?v=9GyXC_GJyM0
- 참고문헌(온라인) <http://csmrk.kz/index.php/ru/about-muz-menu/mnu-history-muz>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Н. Якубова, *Казахстан. Нур-Султан, Алматы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республики. Путеводитель*, Москва, Эксмо, 2021.

I G197 |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국가 기구
- 집필자 추영민 ● 라틴 문자 Kazakhstan khalky Assambleyası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이하 민족회의)는 1995년 3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설립된 카자흐스탄의 소수 민족 회의체이다.

카자흐스탄은 130여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로,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카자흐계 민족(주로 슬라브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민족 관리 매커니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족회의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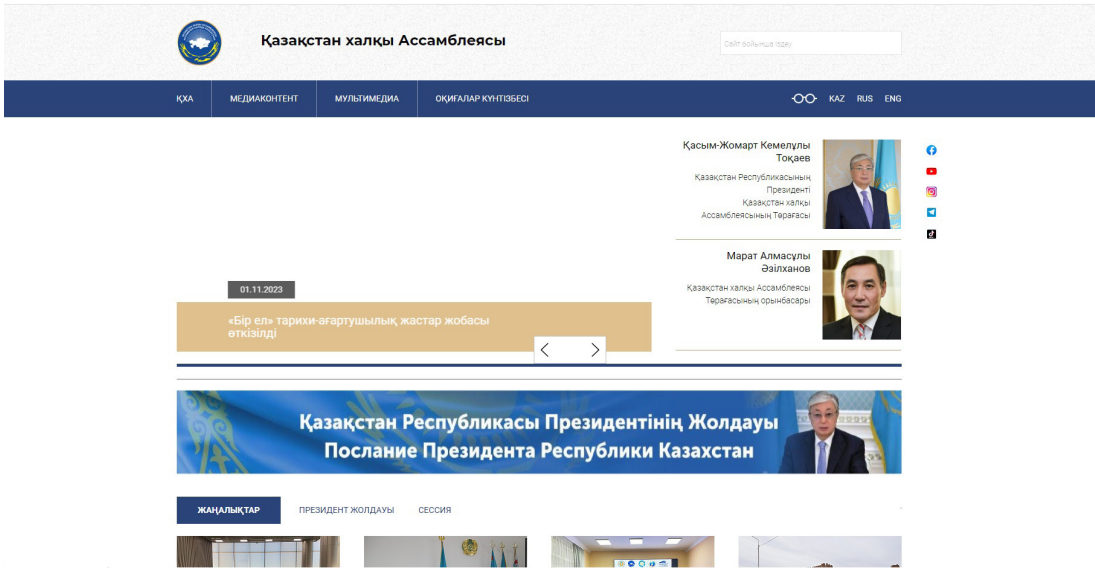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민족회의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카자흐스탄 구성 민족의 시민적, 정신·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족회의는 카자흐스탄의 전 지역에 존재하며, 이들이 모여 국가 수준의 민족회의를 구성한다. 각 지역의 민족회의는 다양한 민족 그룹의 민족 협회(예를 들면 고려인 협회)와 민족 문화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카자흐스탄 내 여러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말 언어 학교, 콘서트, 학술 회의,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공휴일인 5월 1일 ‘국민 통합의 날’을 기준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민족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족 문제를 비롯한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하원 9석을 민족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소수 민족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22년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기존의 하원 9석을 폐지하고 상원 5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초대 의장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대통령(재임: 2015년~2021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홈페이지
Source: <https://assembly.kz/>

이었고, 2대 의장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2021년~현재)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작스탄 할크 아쌘블레야스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стан халқы Ассамблеясы (카자흐어),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러시아어),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다민족, 카자흐스탄 다민족 정책, 다민족 회의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ssembly.kz/>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ssembly.kz/>
https://adilet.zan.kz/kaz/docs/Z080000070_
- 참고문헌(오프라인) Nazarbayev N. A.,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10: Collection of Documents from Session 1-10*. Astana: Elorda. 2005.
Бүркітбай Аяған (Бас Ред.), Қазақстан Ұлттық Энциклопедия (5 том). Алматы, 2003.
Тоғжанов Е. Л. *Қазақстан халқы Ассамблеясының 20-жылдығына орай*. Алматы: Қазақпарат, 2015.

I G198 |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단체 ● 유형 소분류2 협회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Writers' Union of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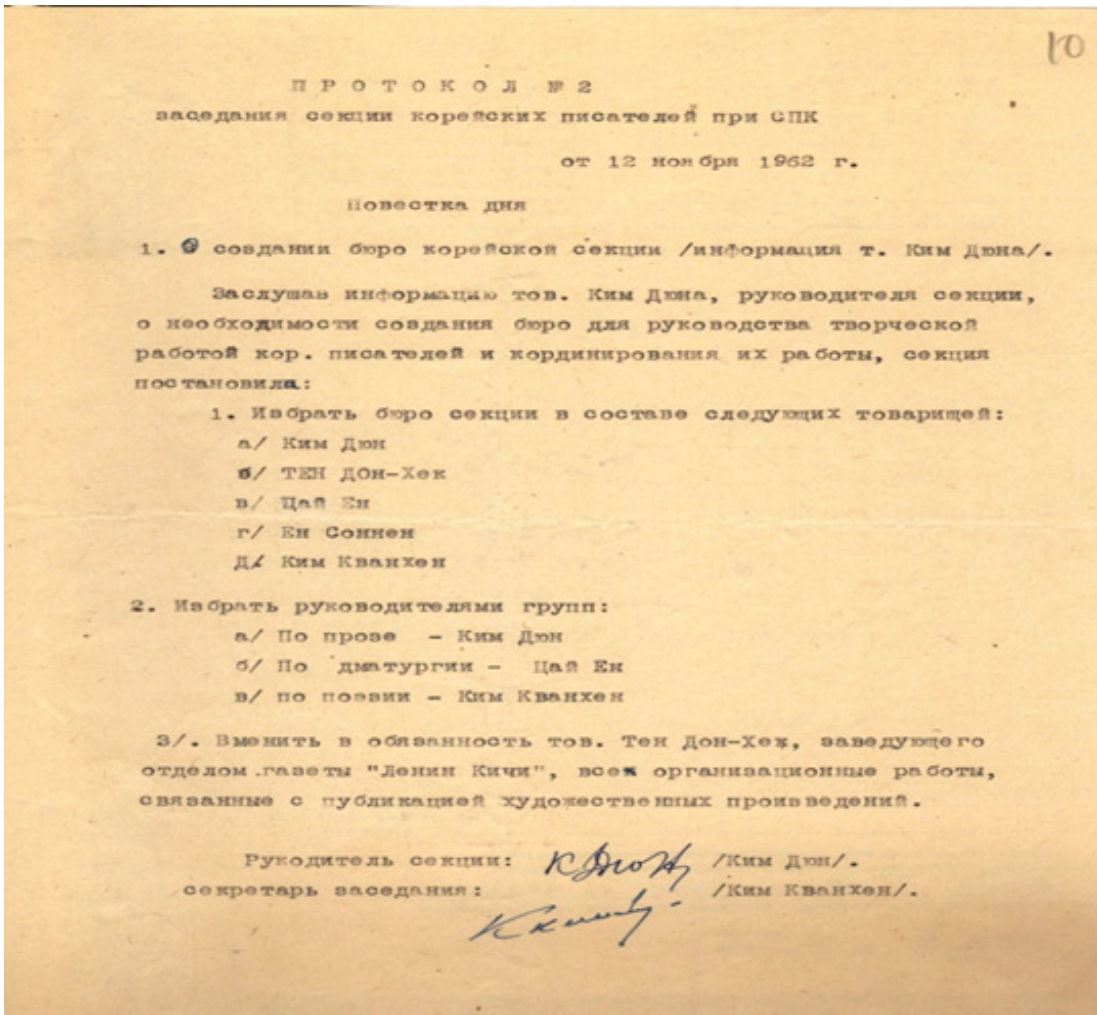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은 1925년 8월 12일 당시 카자흐 자치 공화국 시기 750여 명의 문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하부 조직으로는 카자흐, 러시아, 위구르(1932년), 도이치인 및 고려인(1977년) 문학 파트가 있고, 지부는 카라간다, 세미팔라틴스크, 우랄스크, 누르술탄, 심켄트 등지에 두었다. 창립 2년 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이던 몇몇 문인들이 통합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소련 내무 인민 위원부의 압력으로 결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1925년에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이 출범하게 되었다. 1928년에는 저널 <신문학>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후에 <별>로 개칭되었다. 당시의 문학 조류는 철저히 계급 혁명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때 많은 카자흐 문학가들은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1933년에는 문학 잡지 <광대함>을 발간했는데, 이 잡지가 사실상 기관지 역할을 담당했다.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은 1934년에 1차, 1939년에 2차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를 교환했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한 창작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는 사켄 세이풀린이었지만 1938년 정치 탄압기에 '민족주의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다.

소련 시기 전반기인 대략 195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은 매우 제한적으로 활동했다. 이후 정치 탄압을 받은 작가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문학 활동은 자유롭지 못했는데 특히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작가들에게 정부의 간섭이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은 이렇듯 소련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에 직면했지만 국가의 독립과 함께 현재는 자유로운 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стан Жазушылар Одағы(카자흐어), Qazaqstan Jazýshylar Odaǵy(카자흐어), Союз писателей



작가동맹 고려인팀의 사록

Казахстана(러시아어), Writers' Union of Kazakhstan(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문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349702>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нститут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м.М.О. Ауэзова, *Казахская сове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Т. III, Алма-ата, 1971.

I G199 | 카자흐어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황영삼 ● 라틴 문자 Kazakh language

카자흐어는 계통적으로 투르크어에 속하며 투르크어 분류 체계에 있어 북서투르크어(킵차크어)로 분류된다. 카자흐어는 카자흐스탄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카자흐스탄 본토 뿐만 아니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지에도 사용된다.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비로소 등장한 카자흐어 문어는 아바이 이브라힘(Abay İbrāhim Kunanbay) 및 으브라이 알튼사린(Ibray Altınсарin)과 같은 재능 있는 작가들로 인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전반부터 카자흐어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며 당대 문어였던 차가타이 투르크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발행된 <달라 발라야티(Dala Valayati, 1888~1902)>와 <카자흐(Kazak, 1913~1918)>와 같은 정기 간행물은 카자흐어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자흐어는 투르크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종교와 문화적 영향으로 인하여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차용어도 상당수 발견된다. 1917년 이후 카자흐스탄이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며,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카자흐인들의 과학, 기술, 경영, 문화, 정치 및 일상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을 하게 된 카자흐스탄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카자흐어를 공식어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카자흐스탄에서는 구소련의 영향으로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의 위상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카자흐인들은 20세기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아랍 문자를 사용하여 카자흐어를 표기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1929년에서 1940년 사이에 카자흐어를 표기하기 위해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이후 키릴 문자로 전환되었다. 2017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10월 27일부로 새 라틴 문자를 공표하여, 러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던 카자흐인들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려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작어, 카자흐스탄어, 카자흐스탄언어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ша 또는 қазақ тілі(카자흐어), kazakça(튀르키예어), Казах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哈萨克语(중국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어 분류,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id=0006033738>,
<https://islamansiklopedisi.org.tr/kazak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Üstünova, K. Rusça Etkisindeki Kazakça. Türk Dünyası Dil ve Edebiyat Dergisi, (11). 2001. 98~104.

I G200 | 카자흐어 문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문자
- 집필자 추영민 ● 라틴 문자 Kazakh alypbi

카자흐어는 튀르키예족 킵차크 계열에 속하는 언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 문자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카자흐어는 1929년까지 아랍 문자를 통해 쓰였고, 1929년~1940년 사이에는 라틴 문자가 잠시 사용되기도 했으며, 1940년부터 현재까지는 키릴 문자로 쓰이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자흐어 키릴 문자는 42개 글자로, 기본적으로 33개 러시아어 문자에 카자흐어 발음 표기를 위한 9개 문자(к, ғ, ә, ө, Ұ, Ү, і, н, һ)가 추가된 형태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문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7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대통령 재임 당시 카자흐어 라틴 문자로의 변경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면서 문자 변경이 보다 확실시되었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카자흐어 라틴 문자를 확정 지었으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동 문자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작 알름비
- 다국어 표기 Қазақ әліпби(카자흐어), Казахский алфавит(러시아어), Kazakh alphabet(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primeminister.kz/kz/news/15531>

<https://egov.kz/cms/kk/articles/culture/Alfavit-kazahskogo-yazyka-na-latinice>

● 참고문헌(오프라인) Бүркітбай Аяған, (Бас Ред.) Қазақстан Ұлттық Энциклопедия (5 том). Алматы, 2003.

I G201 | 카자흐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azakhs

카자흐인은 과거에는 키르기스-카이사키(киргиз-кайсаки)로 불렸으나 지금은 카자흐로 불린다. 민족 대부분이 독립 국가인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에도 살고 있다.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에 약 1,2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의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약 160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약 80만 명, 러시아에 약 65만 명, 몽골에 약 10만 명의 카자흐인들이 살고 있다. 카자흐인은 몽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민족이다.

고대에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인도-이란계 유목 민족이 살고 있었다. B.C. 1000년 이후 훈족이 이 지역에 나타났지만, A.D. 6세기~A.D. 8세기에 돌궐의 등장이 이 지역에서의 카자흐 민족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초원 지대에 수많은 투르크계 부족이 오구즈라는 큰 연합체를 만들었고(9세기~10세기), 그중 킵차크 부족이 11세기~12세기에 부상했다. 몽골 제국의 팽창기에는 그 일원이 되었으며, 금장 한국이 약화되자 그 자리에 카자흐 칸(Казахское ханство)을 세움으로써 카자흐 민족이 형성되었다. 카자흐 칸은 1465년부터 1712년까지 존재하면서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의 단결을 촉진시켰다.

인종적으로 카자흐인은 몽골로이드와 코카서스 인종 사이에 위치한 남시베리아 인종에 속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투르크어의 킵차크-노가이 그룹에 속하는 카자흐어가 러시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된다. 19세기 후반기에 카자흐어는 아랍 문자로 표기되었지만, 1929년~1940년

에는 라틴 문자로 표기되었고, 1940년부터 키릴 자모로 표기되어 왔다. 카자흐 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지만, 이슬람교 수용 이전의 텡그리즘이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정교회나 기독교 신자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족

● 다국어 표기 Казахи(러시아어), كازاخ(아랍어), Қазақтар(카자흐어), Kazak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훈족, 오구즈, 킵차크, 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202 | 카자흐인의 작명 관습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zakh custom of naming

카자흐인들이 새로 출생한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다양한 근거에 입각해 있다. 우선 태어날 때 보이는 모반(태어날 때 피부에 나타난 반점)에 따라 칼디바이, 멘디바이, 멘디굴, 아나르바이 등의 이름이 있다. 눈, 머리털, 피부색에 따라 카라코즈, 콕코즈, 카라샤시, 사리, 카라볼라 등의 이름을 짓고 만약 큰 코를 가졌다면 무른바이라고 칭했다. 만약 유아 사망이 많은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그 이름은 톡타르, 투르슨, 투르스쿨, 쥬르신 등이며 딸만 연달아 태어난 집에서는 울발라, 울타이, 울투간, 울잔 등으로 작명되었다. 미숙아의 경우는 샬라벡, 샤파바이, 레케르, 자르트굴로 이름을 붙였다. 때로는 아이가 태어난 당시의 시기와 관계있는 이름이 선택되기도 하는데 아이자락, 타나타르, 쥬마비케, 베이센바이, 아이트쿨, 라마잔 등이 이를 반영한다.

에딜바이, 자일라우쿨, 아디르바이, 타우바이, 알타이, 우쉬캠퍼르 등의 이름은 산이나 들판 등 자연환경과 관계있는 이름이다. 장수를 기원하는 이름은 우미르작, 민좌사르, 벡잔, 에세나만, 무나이트파스 등이 있다. 강한 힘을 염원하는 뜻에서 ‘에르’나 ‘바트르’ 등이 들어가는 단어

를 사용한다. 그리고 용맹한 새, 동물, 금속, 무기 등을 상징하는 이름도 있는데 예르볼, 바티르잔, 이텔기, 졸바리스, 코쉬카르, 나에르바이, 툴파르, 테미르벡, 발타벡 등이 그것이다. 희망적인 염원의 뜻으로 타이바가르, 아이란바이가 있고 지혜와 총명함의 뜻으로 아클잔, 쿠케, 오네르바이 등이 있다. 또한 관대함과 고상함의 뜻으로 미르자바이, 조마르트, 파이즈 등이 있고 행복과 행운의 뜻으로 제미스쿨, 누르쿨 등의 이름을 짓고 아름다움과 행운의 뜻으로 아이굴, 나크쉬, 굴레이, 페리жат 등의 이름이 있다.

어떤 경우는 자손들이 부모들의 은덕을 입기를 바라는 뜻으로 누르술탄, 아스카르 등의 이름을 짓기도 한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족명과 관련하여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우즈베크칼리, 키르기스바이, 둘라트, 노가이바이 등이 이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에는 유럽식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로베르트, 루돌프, 루이자, 디아나 등의 이름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인의 작명 관습
- 다국어 표기 Қазақтың ат қою салты(카자흐어), Казахский обычай наименован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의 이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en/news/show/8010/>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Dana Jeteyeva and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Ⅰ G203 Ⅰ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raditional wedding custom of Kazakhs

옛날 카자흐인들의 혼례 방식은 중매를 통한 중매결혼이 대세였다. 즉 좋은 중매인을 만나는 일은 좋은 배필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대개 혼례 과정은 예비 교섭, 공식적인 중매 행위(quad tusu), 신랑이 신부 마을에 가서 하는 예비 혼례식(uryñ baru), 신부 및 신랑의 마을에서 행하

는 본 혼례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간단하지는 않다.

신랑 신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혈통적 계보에서 7세대 내에 동일한 조상이 있어서 안 된다. 이는 당연히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혼인 연령에 있어서 신랑이 되는 남자는 최소한 15세가 되어야 하며 신부의 경우 최소한 13세에 도달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카자흐인들은 남자의 경우 혼인 적령기가 19세~25세, 여자의 경우 16세~19세였다. 여자가 20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노처녀로 간주되었다. 전통적인 카자흐 사회에서 남자나 여자는 건강해야 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아름다운 체격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연령대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연령대였다.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때는 우선 족보를 검토하는 일이 우선적이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나이를 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의 인격이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신부의 모친, 즉 장모를 보고 결정한다. 엄마와 딸의 품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카자흐인들의 생각이다. 신랑이 되는 남자의 경우는 우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성격이나 특기 등을 중요하게 보고, 집안의 재산은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유목 사회를 유지하던 카자흐인들의 공동체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각자 자녀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일이 흔하다.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친한 친구의 이성 자녀와 혼인을 시키는 일은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녀 사이가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 다국어 표기 Traditional wedding custom of Kazakhs(영어), Традиционный свадебный обычай казах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결혼의례와 관련된 민속신앙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JLSOIgc9N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mash-efc.ru/tradicii-i-obychai-kazahov-svadba>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G204 | 카작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정기 간행물
- 유형 소분류2 신문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zakh

카자흐인들의 주간 신문이었던 <카작>은 1913년 2월 2일에 창간되어 1918년 9월 16일에 종간할 때까지 총 265호를 발간했다. 오렌부르크에서 발간된 이 신문은 아랍 문자를 활용한 카작어로 발행되었다. 20세기 초 카자흐 지식인들의 근대화 노력이 신문 간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창간 당시만 하더라도 카자흐인들은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러시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었다.

<카작>의 편집인은 바이투르스노프(Akhmet Baitursynov: 1873년~1937년), 부케이하노프(Alikhan Bukeikhanov: 1866년~1937년), 둘라툴르(Mirjaqip Dulatuli: 1885년~1935년) 등이며 이들은 카자흐인의 문화와 언어, 교육 개혁의 중요성에 관한 글을 많이 게재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카자흐인들을 정신적으로 각성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들은 보다 나은 카자흐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대화와 서구식 제도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방식 또한 유목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러시아식 교육 제도를 수용하고 카자흐인의 전근대적 사고와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저널 <아이캡>과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들은 카자흐인의 자치 정부인 ‘알라쉬 오르다’의 출범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탈린의 정치 탄압 희생자가 되었다. 러시아 혁명 직후 <카작> 신문은 볼셰비키 세력의 타도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신문이 표방하던 자치와 독립에 대한 열정은 혁명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혁명 직후 전개된 볼셰비키 진영과 반혁명 세력 간의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8년 9월에 <카작> 신문은 폐간되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
- 다국어 표기 Қазақ(카자흐어), Kazax(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이캡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인의 근대화 신문 ‘카자흐’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x7mEUNlyan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nform.kz/lenta/gazeta/ru/>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05 | 카잔 크렘린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성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zan Kremlin

카잔 크렘린 또는 카잔 성은 타타르스탄 카잔시에 위치한 크렘린(성채)으로 신석기, 청동기 시대 거주 지역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이 지역에 9세기~10세기 이후 성채를 건설했는데, 특히 11세기~13세기 불가르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카잔 칸국 시대에 요새 겸 상업 중심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12세기에 카잔 크렘린은 영토 북쪽 경계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전반까지 이 성 내에서 캅차크 칸국과 카잔 칸국이 발전했다. 1552년 이반 4세에 의해 정복당한 이곳은 불가 지역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가 되었다. 1922년부터 1992년까지 타타르 자치 공화국의 행정 중심지였는데, 현재는 고고학 유적지를 비롯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요 건축물과 대통령 궁이 위치해 있다.

초기 카잔 크렘린은 10세기~11세기, 크렘린 언덕 남쪽에 흙으로 폭 14m, 깊이 4m의 해자와 너비 12m, 높이 3m의 요새를 건설했다. 그 외 부분은 지름 20cm~25cm의 통나무로 둘러쌌다. 11세기 초, 이 성채는 불가르 국의 북서쪽 국경 요새였으며, 12세기 후반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성채는 목재 대신 석재로 강화시켰다. 당시 증축했던 2m 두께의 석제 돌담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흰색 석재 담으로 둘러싸인 카잔 크렘린은 12세기~13세기에는 군사, 행정, 무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불가르인의 지역이 러시아 공국에 포함되던 시절에는 카잔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따라서 성채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14세기~15세기 캅차크 칸국 시대에 다시 카잔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과거 훼손되었던 동부와 북동 경사면 성벽을



카잔 크렘린

석재로 보수했고 후에 카잔 칸국에서도 증축과 복구를 지속했다.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카잔 칸국 시대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주거 및 공공건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채 내에 추가적으로 건물이 들어섰고 성채가 확장되었다.

16세기 후반 러시아의 공격으로 카잔이 파괴된 흔적은 성채 내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그후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성채에 정착하며 도시는 변화하고 확장되었다. 17세기 초 성채는 거의 2천 야드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의 성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는 러시아의 건축 문화와 기존의 타타르 문화가 결합한 양상이 나타났다. 18세기에는 러시아의 국경이 이동함에 따라 카잔 크렘린의 군사적 기능이 상실되고 행정 기능이 강화되어 요새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1773년~1775년 푸가체프의 봉기로 인해 카잔 크렘린을 다시 요새로 만들게 된다.

19세기 이후부터 성채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카잔 크렘린에는 13개의 요새탑이 있으며, 성채 주변에는 해자가 파여 있다. 성벽에는 총구가 나 있다. 16세기 중반까지는 석재, 16세기 후반에는 벽돌과 석재, 18세기~19세기에는 주로 벽돌로 건설되었다.



카잔 크렘린에 위치한 컨시스토리움 궁

카잔 크렘린은 도시 계획 개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러시아에 현존하는 유일한 타타르 요새이며, 다양한 문화적 영향의 흔적이 남아 있다. 200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잔 성
- 다국어 표기 Казан кирмәне(타타르어), Казанский Кремль(러시아어), Kazan Kremli(아제르바이잔어), Kazan Kremli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d/Kazan_Kremlin.jpg/1024px-Kazan_Kremli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980/>
<https://kazan-kremlin.ru/muzej-zapovednik/o-kremle/istoriya/>
- 참고문헌(오프라인) Bukharaev, Ravil. *Kazan: the Enchanted Capital*, London: Flint River Press, 1995.

I G206 | 카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zy

카즈는 카자흐인들이 즐겨 먹는 일종의 말고기 순대이다. 이때 사용되는 부위는 갈비살이다. 카자흐인 외에도 키르기스인, 타타르인, 바쉬키르인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 생활문화를 보유한 국가에서 많이 보이는 음식이다. 말은 유목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말이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필요에 따라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말고기를 이용한 것들이며 그중에 하나가 순대와 비슷하게 만든 카즈이다.



카즈

말고기 갈비살을 뜯어서 미리 준비된 내장 속에 채워 둔 다음 뜨거운 물에 삶는 식으로 요리를 한다. 이어서 마치 순대를 만드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잘게 썰면 요리가 완성된다. 이러한 카즈는 최종적으로 접시 위에 밀가루 수제비가 없다는 점에서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는 베스바르막과 차이가 있다. 카즈는 카자흐인들의 정찬상(다스타르한)에 반드시 올라가는 음식으로 간주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카즈와 베스바르막은 둘 다 고기를 이용한 요리인데 격식 차린 손님 대접용으로 준비된다. 따라서 나우르즈를 비롯한 국가적인 명절 외에도 개인적인 잔치나 연회 등에서도 준비된다.

카즈는 고기이지만 대개 차게 해서 먹으며 본 요리를 먹기 전에 먹는 전채 요리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벼운 기분으로 카즈를 조금씩 먹는다. 가끔 카즈는 베스바르막 요리에 함께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 맛은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담백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기름기가 많거나 짜지는 않다.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인들에게 말고기를 이용한 이런 요리는 흔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재래 시장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다국어 표기 қазы(카자흐어), казы(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베스바르막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sJoh4cJYvqw?si=Lma2DEtU0YiQM6hd>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asteatlas.com/kazy>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07 | 카즈 우마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az umakhe

카즈 우마헤는 거위나 오리를 잡을 때 서로 돕는 바시키르인들의 풍속이다. 카즈는 바시키르어로 거위를 뜻하며 우마는 ‘돕다’라는 의미이다. 카즈 우마헤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눈이 내리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카즈 우마헤는 먼저 처녀들과 젊은 여성(보통은 약혼녀)들이 참가한다. 털을 뽑고 내장을 처리해서 쌍으로 밀대에 건 거위를 샘물에 행구러 간다. 이 행렬에는 젊은이들과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물탱크로 가는 길에 ‘거위의 길(каз юлы)’ 행사가 진행된다. 이때 아이들은 거위 털을 흠뻑리고 성인 여성들은 풍요로웠던 지난 날을 감사하고 내년에도 거위들이 이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한다.

모든 작업이 끝난 날 저녁에는 공동 작업에 참여한 이들을 위해 바시키르 전통 음식들이 준비된 축하연이 열린다. 거위 기름을 곁들인 블린니를 차와 함께 마시고 저녁에는 거위 고기와 내장으로 만든 요리를 나눠 먹는다. 축하연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 민속 놀이를 즐긴다. 타타르인들도 같은 풍속을 가지고 있는데 타타르어로는 카즈 오메세(каз өмәсе)라고 불린다.

거위는 고대부터 길들여진 가축이며 고기 외에도 털, 기름, 내장 같은 부산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거위는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바시키르인들이나 타타르인들은 거위 털 베개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말린 거위 고기는 굶주린 여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거위 기름은 약용으로 쓰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즈우마케
- 다국어 표기 Каз Умах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인, 타타르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G208 I 카즈구르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산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zygurt

카즈구르트는 노아의 방주가 존재한다는 카자흐스탄 지역의 산으로, 그 위치는 심켄트 남쪽 40km 지점 텐산 산맥 서부 능선에 있다. 노아의 방주 위치설에서 대표적인 곳은 튀르키예 동부의 아라랏산이지만 카자흐인들에게는 카즈구르트산이 노아 방주가 있는 곳이다.

해발 1,768m 높이의 카즈구르트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7개월 7일 7시간 동안의 비가 내린 이후 처음 방주가 도착한 곳이 바로 카즈구르트산이라는 것인데 동서로 20km 정도가 펼쳐져 있다. 이 산은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잘 보이지 않으나 자세히 보면 쌍봉낙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에게 신비한 인상을 주는 이곳은 이슬람 성지이기도 하여 무슬림들이 순례를 하는 곳이며, 특히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자주 오른다.

구약 성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 노아의 전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카즈구르트 산꼭대기에서는 인접한 심켄트는 물론 타슈켄트, 타라즈, 투르키스탄 등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카즈구르트에서는 이슬람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 아흐메드 야사위 등 수피스트 수도자들을 추모하는 영묘가 건립되어 무슬림들이 자주 찾는



카즈구르트산

곳이 되었다. 산 언덕 위에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배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산기슭에는 고대 시기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인 십자가 형상이 새겨진 돌들도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카자흐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장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즈구르트
- 다국어 표기 Қазығұрт(카자흐어), Казыгур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신화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스탄 신화인 카즈구르트에 대한 러시아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cVvt-WVLg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qazaqstan3d.kz/ru/place/view?id=180>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09 | 카파도키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padokia

카파도키아는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남동쪽 약 22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유적지이다. 인근 카이세리의 에르지에스산의 폭발과 분화로 인해 쌓인 화산재를 빗물과 용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해서 마치 버섯이나 첨탑 같은 모습의 기괴한 바위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화산재로 이루어진 바위는 부드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쉽게 동굴을 파서 집이나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외침에 대비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기도 했다 그 대표적 도시가 데린쿠유(derinkuyu)와 카이막클르(kaymaklı)이다. 로마의 속주로 있던 시기에는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벌룬 투어

이곳으로 피신하여 동굴 속에 교회와 수도원을 축조했다.

오늘날 카파도키아의 중심지는 네브쉐히르(Nevşehir)이다. 이 도시는 해발 1,26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잔틴 제국 때는 니사(Nyssa)라고 불렸다. 네브쉐히르에서 동쪽으로 10킬로미터 가면 위치히사르(Üçhisar)가 나온다. 산 전체가 온통 터널과 집으로 벌집처럼 연결된 천혜의 요새이다. 하지만 카파도키아 관광의 정수는 역시 괴레메(Göreme)이다. 이곳에는 카파도키아의 위대한 스승인 성 대 바실리오스와 니사의 그리고우스가 세운 수도원이 있다.

괴레메에서 북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파샤바아(Paşabağa)가 있다. 이곳은 기기묘묘한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샤바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젤베(Zelve)는 수도원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카파도키아 전체를 볼 수 있는 벌룬 투어가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파도치아, 갑바도기아
 - 다국어 표기 Cappadocia(영어), Καππαδοκία(그리스어), Katpatuka(고대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01』, 2010, 책문.
- Van Dam, R. Kingdom of Snow: Roman rule and Greek culture in Cappadoc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I G210 | 카프다을르 콘스탄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pıdağlı Kostantin

오스만 시대의 화가 카프다을르 콘스탄틴의 생몰 연대를 비롯하여 개인적 정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카프다을르의 첫 번째 작품이 1790년에 그려졌고 마지막 작품이 1807년인 것을 토대로 생몰 연대를 추정할 뿐이다. 그가 그린 ‘마지막 만찬’ 등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레오르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직접 보고 연구했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제자나 스승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는 없다.

카프다을르가 활동한 시기에 오스만에서는 유화와 캔버스의 사용, 명암법 등이 시도되었고 이런 재료와 기법 일부를 세밀화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카프다을르는 이런 기법을 오스만 제국 술탄의 초상화에 적용하여, 술탄의 초상화에 대한 전형성을 뿌리부터 바꿨다.

카프다을르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셸림 3세(III. Selim 재위: 1789년~1807년)의 초상화이다. 이 작품에서 카프다을르는 명암법과 부드러운 붓질 등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세밀화에서 그려진 술탄과는 다르게 셸림 3세의 초상화 속 술탄은 화가(관람객)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즉, 술탄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레파일(Refail)과 카프다을르가 시작한 전통이다. 카프다을르의 다른 여러 셸림 3세의 초상화로 보아, 화가가 술탄을 접견하고 술탄이 직접 포즈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콘스탄틴 카프다을르, 셸림3세 즉위식, 1789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카프다을르의 셸림 3세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현재 톱카프 궁전에 보관 중인 세디르 (sedir)에 앉아 있는 술탄 셸림 3세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고전적인 세밀화에서 유럽풍 그림을 잇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셸림 3세의 포즈는 세밀화에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명암과 사실적인 표현은 서구 풍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카프다을르가 그린 셸림 3세가 서 있는 초상화는 이후의 다른 술탄의 초상화 모델이 된다.

셸림 3세는 카프다을르에게 셸림 3세 이전의 모든 술탄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하는데, 이때 카프다을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지에 대해 자세하게 질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술탄의 초상화는 당대의 세밀 화가인 레브니(Levni)와 다른 화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작품 자체는 카프다을르 특유의 화풍으로 채워져 있다. 술탄들은 모두

3/4 측면상으로 그려졌으며 둥근 메달 안에는 술탄의 이름을 오스만어와 프랑스어로 써두었다.

초상화 하단에는 따로 칸을 마련하여, 해당 술탄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나 성공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초상화는 구아슈 물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카프다을르가 그린 술탄의 초상화 시리즈는 1815년 술탄 셀림 3세의 의뢰를 받은 영국의 예술가 존 영(John Young)이 출간한 『튀르키예 황제의 초상화 시리즈(A Series of Portraits of The Emperors Of Turkey)』에 수록된 판화의 밑바탕이 된다. 다량으로 출판된 덕에 카프다을르가 그린 술탄의 초상화는 현재 유럽의 개인 컬렉터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다.

카프다을르는 초상화로 유명해졌지만 풍경 화가이기도 했으며 종교화도 그렸다. 셀림 3세의 총애를 받았기에 셀림 3세의 폐위 이후 궁중에서 외면당한 뒤부터 주로 종교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프다을르의 작품 세계는 오스만 예술의 근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초상화, 카프달르 콘스탄틴, 카피달리 콘스탄틴

● 다국어 표기 Kapıdağlı Kostantin(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e5rP>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2/Konstantin_Kapidagli_001.jpg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8/III._Seli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Sivrioğlu, Ulaş Töre. “Osmanlı Sarayında Erdekki bir Resaam: Konstantin Kapıdağlı”, *Bandırma ve Yakın Çevresi Tarihi*(ed. Ulaş Töre Sivrioğlu) dora yayınları 2018-08-06 pp.263~273.

Renda, Günsel. “Ressam Konstantin Kapıdağlı Hakkında Yeni Görüşler” *19. yüzyıl İstanbul’unda Sanat Ortamı, Habiati’ye Hazırlık Sempozyumu 14-15 Mart Bildiriler*, Sanat Tarihi Derneği Yayınları, İstanbul, 1996, pp.139~162.

I G211 | 카프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ftan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카프탄
Source: <https://asia.si.edu/wp-content/uploads/>

카프탄(kaftan)은 앞이 트여 있고 끝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가운 형태의 의복이다. 어원은 페르시아어의 하프탄(خفتان, khaftān)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던 이 의복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른 단어로도 표현되었다. 하디스를 비롯하여 다른 기록물에서도 상류층이 카프탄을 입었다든가, 각기 다른 색의 카프탄을 입었다는 등의 언급이 있다. 즉,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던 의복이라는 의미이다.

투르크인에게도 가장 오래된 의복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황금 인간이나, 킱 투르크 조각에서 카프탄이 표

현되었고, 위구르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 Bilig)』나 『현자 코르크트의 서(Kitab-ı Dedem Korkut)』에서 케두트(kedût)나 톤(ton)이라는 단어로 카프탄을 언급한다. 특히 『현자 코르크트의 서』에서는 결혼할 사람은 흰 카프탄을 입고, 약혼녀에게 붉은 카프탄을 보냈으며, 결혼식에는 붉은 옷을 입었다고 언급한다. 카쉬가르 마흐무드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wān Lughāt al-Turk)』에서는 다양한 투르크 부족이 갑옷 위에 카프탄을 입는다고 기록했다.

투르크인들의 카프탄은 소매가 손을 덮을 정도로 길었다. 재질과 색상은 다양하여, 중앙아시아 카프탄의 경우 재질은 주로 모직이었으나 추위가 강한 곳에서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

다. 아나톨리아 셀주크의 경우 짧은 소매나 긴소매 등이 있으며, 앞을 여밀 수 있게 매듭이 있는 벨트와 장식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술탄이 충성을 맹세한 신하에게 하사한 선물 중에 카프탄이 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카프탄은 오스만 제국에서도 주요한 의복이었다. 앞이 트여 있고, 길이는 발목을 넘어 바닥에 닿는 경우도 있었고, 반소매나 긴소매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긴소매 카프탄 위에 옷을 한 겹 더 입기도 했고, 반소매의 경우 동일한 원단으로 보조 소매를 만들어 어깨에서부터 매듭으로 연결하여 긴소매로 만들어 입었다. 이 카프탄은 궁중 의식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털로 장식한 카프탄은 의식에 주로 사용되고, 카파니체(kapaniçe)라고 부른다. 카파니체(kapaniçe)는 긴소매나 민소매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앞을 차프라스트(çaprast)로 잠근다. 카라와 어깨에는 털로 장식하고 차프라스트를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오스만 제국에서도 카프탄은 술탄이 상으로 하사하는 의복이기도 하다. 오스만 제국 관료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여성을 위한 카프탄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예는 거의 없으나, 세밀화 등의 그림에서는 18세기 말까지 입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용과 남성용이 형태상으로 큰 구분은 없으며, 현재까지 남은 예를 보면 더 부드러운 천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프탄은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함께 차츰 사라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캡탄, 카프탄, 힐랏

● 다국어 표기 Kaftan(튀르키예어), Kaftan(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üçükbaşçı, Mustafa Sabri; Atasoy, Nurhan. “Kaftan” *TDV İslâm Ansiklopedisi*ek cildi, Ankara: TDV, 2020, pp.709-710.

Koçu, Reşat. Ekrem. *Türk Giyim Kuşam ve Süslenme Sözlüğü*, Ankara: Süberbank Kültür yayınları, 1967.

I G212 | 카피톨레이션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Capitulation

카피톨레이션은 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 제국들이 유럽과의 무역을 하는 데 법적 근거를 제공한 시혜적 통상 조약이다. 카피톨레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조약문이 여러 챕터들(capitula)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카피톨레이션이라는 용어만 쓰인 것에 반해 이슬람권에서는 아히드나메(Ahidname, 조약), 임티이야자트(Imtiyazat, 특혜) 등 여러 가지 낱말로 불리었다. 샤리아는 원칙적으로 이교도 정권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무슬림 국가 안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무역을 장려하고 관세 수입을 늘리고 국제 관계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유럽인들에게도 무역상의 혜택을 주어야만 했다. 카피톨레이션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의 유럽인 이교도 상인들의 안전한 통행, 무슬림에게 공격받지 않을 권리, 해상 조난 구조, 무슬림 항구에 정박하고 보급 물자를 확보할 권리, 인신과 재산의 안전, 면세 혜택 등이었는데, 시대와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카피톨레이션의 역사적 형성은 지중해 지역의 무슬림 국가들의 외국인 거류민단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가장 오래된 사례로는 13세기 파티마조의 문건이 남아 있고, 맘루크, 셀주크 및 아나톨리아 공국들이 유럽인들과 맺은 조약들도 알려져 있다. 또한 비잔티움이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거류민단과 맺은 조약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카피톨레이션의 전통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카피톨레이션의 형식은 오스만 술탄의 베라트(특허장) 혹은 니산(명령서)에 의한 일방적 특혜 수여이다. 이러한 일방적 특혜 수여에는 이슬람의 영역 밖에 있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샤리아적 법 관념의 틀 안에 맞춘다는 대내 정치의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여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카피톨레이션은 평화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의 상인들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단되었고, 따라서 카피톨레이션에는 평화 조약의 확인이라는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형식이 일방적이라고 해서 내용이 모두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항해권의 문제에서는 특히 오스만 제

국의 배도 상대국 해역을 지날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곤 했다.

오스만 제국의 카피톨레이션의 초기 역사를 보면 주로 국경이 맞닿아 있거나 정복했지만 직접 통치를 하지 않는 속국, 혹은 작은 라틴계 거류지에 수여한 카피톨레이션이 많다. 이러한 예로는 라구사(Ragusa, ‘두브로브니크’라고도 함), 갈라타, 키오스 섬, 낙소스 섬 등이 있었고 자치의 정도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오스만 제국의 카디가 파견되는 경우도, 파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예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고 긴 역사를 가진 것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간 영토가 많았던 베네치아다. 특정 거류지들과의 관계를 넘어 베네치아 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1479년에는 평화 조약에서 흑해의 항해권, 해적들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이스탄불 주재 베네치아 대사인 바일로(bailo)에게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었고 이는 1482년 카피톨레이션으로 재확인되고 확대되었다. 이처럼 역사가 오랜 베네치아와의 카피톨레이션은 다른 유럽 국가와의 카피톨레이션에서 일정 정도 참고가 되었다.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의 카피톨레이션을 얻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매우 눈에 띄는 사례이다.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주적이었던 합스부르크 왕조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오스만-프랑스 동맹 관계를 간헐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프랑스를 특별한 친선 관계에 있다고 보아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대했고,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카피톨레이션을 먼저 수여했으며, 프랑스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프랑스 깃발 아래서 카피톨레이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의 권위를 세워주기도 했다. 17세기 초 프랑스에게는 다른 혜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와 현지 성직자를 보호할 권리도 주어졌는데, 프랑스는 이로부터 오스만 제국 내의 모든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할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1683년 제2차 빈 포위의 실패 이후 신성 동맹과의 오랜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오스만 제국은 카피톨레이션을 외교적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게 되어 예컨대 이집트 지역에서 프랑스는 종전에 10%이던 관세율을 3%로 낮춰 적용받게 되었고, 성지에 대한 권리도 증대되었다. 또한 1739년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베오그라드 조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맺는 데 외교적 도움을 주었으므로 프랑스는 최혜국 조관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1740년). 최혜국 조관은 특혜 수여가 여러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프랑스가 밟은 단계를 따라 16세기부터 점

진적으로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1774년 러시아-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의 끝에 맺어진 패전 조약인 쿠크 카이나르자 조약은 러시아에게 대단히 많은 특혜를 주는 카피톨레이션을 동반하게 되었으니, 마르마라해 양 끝의 해협에서 다뉴브강에 이르는 흑해 해역의 항해권을 러시아와 기타 서양 국가들에게 넘겨주었고 러시아도 최혜국의 권리를 얻음으로써 프랑스와 영국이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혜택들을 갖게 되었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영사관을 설립하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갖게 되었다. 카피톨레이션이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쌍무 조약이 된 것이 언제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1740년 프랑스와의 조약에서라는 설도 있다) 쿠크 카이나르자조약(1774년) 단계에서는 쌍무적인 조약으로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유럽 국가들에 주어진 혜택이 무자비하게 악용되었고, 오스만 제국은 영토 내의 외국인들을 제어할 힘도 없고, 자국 경제를 보호할 능력도 없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얻기 위해 약해져가는 오스만 국가에 위협을 가했고 자기들이 얻은 특권을 확대 해석하여 관철시켰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스만 무슬림들의 분노를 산 것은 카피톨레이션으로 보장된 혜택이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오스만 통치하의 일부 비무슬림들은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얻기 위해 영사관에 뇌물을 주고 오스만 정부로부터 통역사 허가장을 받고 면세 혜택을 얻었다. 카피톨레이션에 의해 특정 숫자의 통역을 고용할 권리가 유럽 외교관들에게 있었는데, 이처럼 허가장을 얻은 통역은 그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과 피고용인들의 면세 혜택마저도 받았다. 17세기부터 유럽 국가의 통역들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이 주어졌고, 유럽인 외교관들은 위와 같은 허가장들을 통역이 아닌 오스만 내국인 비무슬림들에게까지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허가장을 가진 내국인 비무슬림들이 유럽인과 같은 경제적, 법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매우 낮은 관세를 내게 되었다. 1793년 알레포에서만도 1,500인의 내국인 비무슬림 상인들이 통역으로서의 허가장을 받았으나 감사 결과 6인만이 진짜 통역이었다. 심지어 1808년에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보호하에 들어간(mahmi) 그리스인이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세기에 많은 개혁과 유럽식 국제 관계에의 편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피톨레이션은 지속되었다. 1830년대 산업 생산품의 수출을 중시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국내 정치의 혼란을 이용하여 맺은 발타리마느 조약에서 관세를 낮게 책정하여 상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며

오스만 제국의 관세 자주권을 크게 침해했으며 종전의 모든 카피투레이션 특권들을 모두 무기한 인정받았다. 크림 전쟁 후 오스만 제국이 유럽 협조 체제의 일원으로 파리 조약에서 승인받았을 때, 오스만 정부는 카피투레이션의 폐지를 원했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세율만 조금 변했을 뿐 카피투레이션이 지속되었다. 1867년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대신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던 시도와 1869년 국적법을 제정하면서 오스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국적 변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내국인 비무슬림이 카피투레이션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종식시키려던 시도는 유럽 국가들의 완강한 항의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9세기 말 카피투레이션 특권을 누리는 외국 회사들에 의해 은행, 해운, 광산, 가스, 전기, 항만 시설, 우편, 전화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점령당한 오스만 제국은 반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었다.

1908년 집권한 청년투르크 정부는 카피투레이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유럽 국가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오스만 제국은 카피투레이션의 폐지가 선행되면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고, 1914년 9월 8일 카피투레이션 특권들을 폐지했다. 종전 후 세브르 조약에서 카피투레이션이 부활되었고 새로 승전국 측에 가담한 나라들에게도 주어지기로 결정되었으나 로잔 조약에서 완전히 폐지가 승인되었다. 이란의 카피투레이션은 1928년에, 이집트는 1937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

이슬람권에서의 카피투레이션은 19세기 중엽 국제법이 명문화되던 시기에 동등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속지주의 원칙으로 법을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문명국도, 미개 사회도 아닌 일종의 반(半)문명국에 적용되는 예외로 정당화되었고, 열강의 외교관들에 의해 동아시아에 적용된 불평등 조약의 모델이 되어 특혜와 이권의 확보, 영사 재판권 등의 문제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소수자 보호,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되었고, 치외 법권과 영사 재판권이 정당화되었고, 카피투레이션의 전통에서 시혜적으로 주어지던 치외 법권, 영사 재판권은 불평등 조약에 의해 강제로 적용되는 요소로 고정되었다.

● **다국어 표기** *Imtiyazat*; *ahidnam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il İnalçık, “*Imtiyazat*,” *İA* Vol. 22, 2000, pp.245~252.

Alexander H. De Groo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apitulatory Regime in the Ottoman Middle East from the Fif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Oriente Moderno*, Vol. 83, no. 3, 2003, pp.575~604.

Umut Özsu, “The Ottoman Empire, the Origins of Extraterritoriality, and International Legal Theory,” in Florian

I G213 | 칸 꾸미기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풍습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Khan bazama

‘술탄 놀이(Padşah oyunu)’로도 알려져 있는 칸 꾸미기(Xanbəzəmə)는 아제르바이잔의 노브루즈 명절 풍습 중에 하나다. 3일 동안 계속되는 노브루즈 기간에 지인, 친척, 이웃들은 서로 왕래하며 명절 인사를 나눈다. 이때 하는 풍습 중 하나가 칸 꾸미기이다.

거대한 버즘나무 밑에 왕좌 같은 장소를 만들어 카펫을 깔고 이 왕좌에 앉은 이가 칸(왕, xan)으로 선정된다. 사람들은 왕에게 전통 의상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운다. 이와 함께 고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하인들, 사형 집행인과 같이 일종의 왕실을 꾸민다. 이후 주르나(zurna)와 발라반(balaban)과 같은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광장에서 연주를 시키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 칸은 의식 내내 한 번도 웃으면 안 되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하며 당당하게 왕좌에서 명령을 내린다. 칸의 주요 임무는 부정을 막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칸은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식이 시작되면 칸이 묻는다. 예를 들어 “걱정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할머니가 왕 앞에 나서서 말한다. “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 닭을 누군가 훔쳤습니다. 도둑을 찾아서 내 닭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그의 불만에 칸이 답한다. “당신의 닭의 특징을 알려 주면 닭을 찾도록 해 주겠습니다.” 할머니는 광장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 “제 닭은 쥐색(çil-çil)이었습니다. 날개는 길었습니다. 내 닭을 잡아간 사람이 불에 타기를, 불에 태워 버리기를, 닭 잡아간 사람을.” 칸은 도시 보안 책임자를 불러 닭을 찾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곧 책임자는 할머니의 닭을 찾아 할머니에게 준다. 이런 종류의 불평은 계속되며 칸은 사흘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 법을 찾아낸다.

노브루즈를 상징하는 케찰(keçəl)과 코스(kosa)의 대화도 이 의식에서 진행된다. 이 의식 진행 시 광장에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 또한 광장 정문에서 바클라바(paxlava)같은 전통 디저트가 담긴 그릇을 든 한 사람이 의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명절을 축하하는 인사를 하며 그릇을 내밀고 사람들은 그에게 사탕을 한두 개 주며 명절을 축하하는 인사를 한다. 또한, 젊은 소년과 노인은 서로 손을 잡고 주르나와 발라반으로 연주하는 잔기 노래(Cəngi havası)를 들으며 알르(yallı) 같은 전통 춤을 추기도 한다. 각 그룹의 선두에는 스카프를 든 사람이 서 있다. 이런 무리의 끝이나 중간의 대열을 흐트러트린 사람이 있다면 칸은 그에게 벌을 준다. 칸 꾸미기 의식 동안에는 무조건 칸에게 순종해야 한다. 사람들은 칸의 벌을 기대한다. 이 벌은 보통 노래를 부르거나, 등을 때리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다. 보통은 노래를 부르지만, 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달걀 한 바구니, 헬바(halva), 새매니(səməni) 따위를 나누어 주며 벌을 대신한다. 칸이 웃거나 모여든 이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칸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칸을 올린다. 새로운 칸은 정의롭게 통치하고 공정한 결정을 한다. 명절 마지막 날, 칸은 다가올 노브루즈까지 나라에는 정의와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 어린 선언을 하고 명절을 축하하는 낙관적인 결말로 의식은 마무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한 베제메

● 다국어 표기 Khanbezeme(영어), Hanbezeme(튀르키예어), ханбеземе(러시아어), Xanbəzəmə(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주르나, 노브루즈

● 참고문헌(온라인) <https://modern.az/az/news/194999>

● 참고문헌(오프라인) Əliyeva, Sahab. "Gənc Folklorşünasın Tribunası <<XANBƏZƏMƏ>>MƏRASİMİ", *Folklorşünaslıq Məsələləri VI buraxılış*, 2007, pp.106~108.

I G214 | 칸알-칼릴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시장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Khan al-Khalili

칸알-칼릴리는 이슬람 중세 국제 중계 무역의 요충지였던 이집트의 최대 전통 시장이다. 동방에서 오는 향신료는 카이로로 국제 무역로를 따라서 카이로에 모였고, 이곳을 거쳐서 유럽으로 갔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카이로에서 물건을 사서 유럽에 가져가 큰 이윤을 붙여 팔았다. 맘루크 시대에 이집트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맘루크 술탄들은 향신료 중계 무역을 독점하고 나서, 엄청난 관세 수입으로 부를 쌓았다. 유럽인들은 이와 같은 폭리를 피하여 싼 값에 상품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이집트를 우회하여 새로운 무역로로 싼 값의 향신료를 구하게 만들었다. 결국 유럽인들은 향신료의 원산지인 동양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게 되었다. 결국 칸알-칼릴리는 유럽의 새로운 무역로 개발과 지리상 발견 시대를 촉발하는 장소가 되었다.

술탄 바르쿠크(1382년~1389년)의 아들인 가르카스 알-칼릴리가 지금의 시장 안에 대상을 위한 대규모 숙소를 건설하면서 칸알-칼릴리 시장은 시작되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3층 규모로 아래층은 부유한 상인들이 보석, 향료, 비단 등 귀중한 물건을 거래하는 상점으로, 위층은 상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안뜰은 낙타와 말을 매어두는 곳이었다.

칼릴리는 이 시장 건설을 위해 원래 파티마 왕실의 무덤 구역이었던 이곳을 파해쳤다. 이단 이스마일파인 파티마조 칼리프와 그 가족의 무덤을 없애버리고, 그 유골들을 성 밖으로 내버렸다. 이 대규모의 대상 숙소에 많은 외국인 상인들이 투숙하면서 희귀한 물건을 푸니, 이 물건을 사려는 이집트 상인이 몰려왔고, 그 덕분에 대상 숙소 인근은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동방에서 온 귀한 물건들이 이 시장에는 넘쳐났다. 알-칼릴리는 여기서 올린 수입을 아라비아반도의 이슬람 성지에서 주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데 썼다. 맘루크 시대의 이집트 역사가인 마크리지(1364~1442년)는 카이로의 큰길에만 12,000개의 점포가 있고, 도시 전체에는 87개의 시장이 있다고 했다. 무역이 번성함에 따라 대상 숙소는 계속 늘어났고, 노예 시장과 보석 시장도 생겼다. 수단, 아라비아, 시리아, 리비아에서 대상들이 데리고 오거나, 홍해와 지중해에서 배로



칸 알-칼릴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칸 알-칼릴리(카이로, 이집트)

실려온 노예들은 연간 수천, 수만 명 규모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의 노예 사용 방식에 따라 대부분 가내 노비로 이용되었다.

위대한 역사 철학자 이븐 칼둔은 1381년 카이로에 와서 카이로의 번영에 감탄했다. 그 당시의 카이로는 흑사병의 상처가 휩쓸고 나서 막 회복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으리으리하고, 번쩍였다. 16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 국을 멸망시킬 때까지 칸 알-칼릴리 시장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후에 상업 중심지가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옮겨지면서 이 시장은 서서히 그 번영의 정도가 쇠약하여 갔다. 이때에는 페르시아와 튀르키예 상인이 많아졌고, 제국의 지원에 힘입어 튀르키예 상인이 가장 많았고, 시장의 주도권을 쥐었다. 이 때문에 칸 알-칼릴리는 '투르크 바자르'라고 불렸다. 오늘날도 칸 알-칼릴리는 여전히 번영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전통 시장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시장에는 많은 가게와 공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집트 국제 중계 무역의 중심지

● 다국어 표기 خان الخليلي(아랍어), Han el-Halili(튀르키예어), Xon al-Xaliliy(우즈베크어), Xan el-Xəlili(아제르바이잔어), Хан әл-Халили(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qvSl>

● 참고문헌(오프라인) 정혜숙, 『세계를 간다. 이집트』, 랜덤하우스중앙, 서울, 2004, pp.118~119.

최준석, 『함두릴라, 알카히라』 메디치, 서울: 2009, pp.178~184.

Bosworth, Clifford Edmund,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York: 1996, pp.76~77.

I G215 | 칼라 가웨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가톨릭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la Gaweri

이라크 지역의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투르크멘인은 대부분 무슬림이지만, 일부 투르크멘인은 가톨릭을 믿고 있다. 이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톨릭교를 믿었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키르쿠크 지역에 분포했던 이들의 숫자는 약 3만 명 가량이었다. 이 지역의 무슬림 투르크멘인들은 이 가톨릭 투르크멘인을 ‘칼라 가웨리(Kala Gaweri)’라고 부른다. 칼라 가웨리는 종교 이외에 언어, 인종, 관습 거의 모든 방면에서 무슬림 투르크멘과 동일하지만, 무슬림 투르크멘은 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칼라 가웨리는 바트당 집권 시절에 박해받았고, 1950년대에 새로 자리 잡았던 신 키르쿠크 지역의 5개의 성당과 투르크멘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비워졌다.

1977년 인구 조사에서 정부는 이들을 아랍인으로 등록했고, 성당에서 투르크멘어로 전례를 보는 것과 가정에서 투르크멘어를 사용하는 것, 투르크멘식 이름을 짓는 것 등을 금지했다.

칼라 가웨리 대부분은 상업이나 공무에 종사했으나, 정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바그다드와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5천 명 가량이 남아 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갈라 가부루
- 다국어 표기 gal'a gavur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멘
- 참고문헌(온라인) Albayati, Z.J.; E Albayati “Turkmens of Iraq: The Third Ethnic Component of Iraq”, http://www.turkmen.nl/1A_Others/zabe1.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Hacaloğlu, Recep Albayrakç *Türkmen ve Asur Kiliselerinde Okunan Türkçe İlahi Metinleri*, Ankara: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1995.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44.

I G216 | 칼라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l-Mansur Qalawun

맘루크 국의 실질적 건국자 바이바르스가 죽은 후 술탄의 자리는 그의 아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그는 전혀 재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1279년 그의 아버지의 장수들 중 한 사람인 칼라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칼라운은 그 왕좌가 한 세기 이상 계속되는 지배 왕가를 이룩했다. 이 기간은 평화와 번영으로 상징되는 황금의 시대로서 맘루크 시대의 정점기였다.

칼라운은 등극 후 1281년 몽골 일칸군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었다. 전장은 시리아 서쪽의 흠스 부근이었다. 술탄 바이바르스 시기에 한 번 패배했던 몽골은 절치부심했으나, 8만 일칸군은 다시 맘루크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전투 초반에는 맘루크군이 패퇴했으나, 일칸군이 흠스의 약탈을 위해 대오가 흐트러지자 이 틈을 타서 맘루크군 우익이 일 칸군의 좌익을 격파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맘루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일칸은 지도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이집트와는 장기간의 휴전과 우호 관계가 수립했다. 칼라운은 십자군을 지중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몰아 냈다. 그는 십자군의 지중해변 마지막 요새 아카를 치기 위해서 행군하는 도중에 1290년 사망했는데, 후계자인 아들이 다음해 아카를 함락했다. 십자군이 1096년 소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에 몰려든 지 195년 만에 그들은 이슬람 땅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해서 2세기 동안 계속된 십

자군 전쟁은 끝났다.

바이바르스의 정책에 따라 칼라운도 엄격한 규율로 잘 훈련된 12,000명의 맘루크군을 유지했다. 각 부대의 우두머리는 아미르나 베이로 불렸다. 그는 비록 엄하기는 했으나, 그의 부하에게 자비로웠다. 또 그는 온유하고 정직했다. 그러나 손실이 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는 그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학교, 도서관과 복합단지를 이루는 이집트 최초의 병원을 세웠다. 현재 칼라운 영묘 인근은 카이로 최고 건축의 거리이다. 그의 전 군주였던 아유브 조의 술탄 알-살리흐의 영묘, 마드라사, 술탄 바이바르스 마드라사 등 술탄 칼라운 이전 시대 건물이 바로 앞에 있고, 그의 후손들은 오른쪽에 나란히 오늘까지 남는 명작들을 세웠다. 이 거리에서 건물이 가장 큰 돔과 아름다운 미너렛을 지붕에 얹고 있는 힘찬 기운을 느끼는 건물이 술탄 칼라운의 영묘, 마드라사, 병원이다. 그의 치세는 끝까지 영광스럽고, 비옥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칼라운

● 다국어 표기 المنصور قلاون (아랍어), Kalavun (튀르키예어), Kalavun (아제르바이잔어), Айн Джалут шайқасы (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일 칸국, 바이바르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이집트 맘루크 조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0집, 한국이슬람학회, 2000, p.20. 최준석, 『함두릴라, 알카히라』, 메디치, 서울: 2009, pp.142~148.

Bosworth, Clifford Edmund,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York: 1996, pp.76~77.

Said `Abd al-Fatah `Ashur, *Misr wa al-Sham fi `Asr al-Awubiyin wa al-Mamalik*, Dar al-Nahdah al-Arabiyah liItaba`ah wa al-nshri, Bayrut: pp.213~216.

I G217 | 칼라지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haladj Language

칼라지어는 이란에서 통용되는 투르크어이며, 독일의 투르크학자 게르하르트 도어퍼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도어퍼의 발견 이전 칼라지어는 아제르어의 방언쯤으로 취급받았지만, 칼라지어가 고대 투르크어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투르크언어학에 있어 새로운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9세기~10세기 문헌에 따르면 칼라지인들은 세이훈 강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유목민이었다. 『니자뮐물크 데 시야사트나마(Nizamu'l-mulk de Siyāsatnāma)』에는 셀주크 투르크 시대에 알프테긴이 사북티긴(Sabuktigin)이 세금을 징수하고 나라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칼라지와 투르크멘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존재한다. 이 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칼라지는 투르크인이다. 오늘날의 칼라지인들은 이란의 중심부, 테헤란에서 200km 정도 남서쪽에 위치한 술타나바드와 사베(하마단과 콤 사이)의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다. 도어퍼가 1991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24,000명 정도의 인구가 칼라지어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칼라지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은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칼라지어는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Kaşgarlı Mahmut)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에 최초로 언급된다. 카쉬가리 마흐무트는 칼라지인들을 아르구(Argu)라고 명명했으며,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몇 개의 칼라지어 단어는 오늘날의 칼라지어와 매우 유사하다. 도어퍼 이전에도 칼라지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긴 했으나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도어퍼는 1971년을 시작으로, 1980년에는 칼라지어 사전, 1987년에는 칼라지어의 언어와 문법, 1988년에는 칼라지어의 문법과 관련된 책을 펴냈고, 칼라지어와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라치어, 할라치어
- 다국어 표기 Halaçça(튀르키예어), Khaladj Language(영어)

- 연관 검색어 게르하르트 되르페르,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Ölmez, M., Halaçlar ve Halaçça. *Çağdaş Türk Dili*, 84, 15~22, 1995.

I G218 | 칼란 미너렛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lyan minaret

카라한 칸국의 무함마드 아슬란 칸(Muhammad Arslan Khan, 재위: 1102년~1129년)이 1127년 건설을 명하고 바코(Bako)가 설계한 포이 칼란(Po-i Kalan) 복합단지 내 모스크의 미너렛이다.

이 미너렛은 높이 45.6m, 원추형의 최상단부까지 포함하면 48m이다. 하단부는 지름 9m, 상층부는 지름 6m로 상단으로 좁아지는 원통형 형태의 건축물로 불에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다. 약 5m 지점에 입구가 있으며 이 입구는 교량으로 모스크와 연결되어 있다. 입구는 반곡선 아치와 무카르나스(muqarnas)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는 1960년대에 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내부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 이를 통해 상층부 홀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홀에는 16개의 아치형 창문이 존재하며 이를 떠받치는 발코니도 무카르나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무카르나스는 1924년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최상단부는 원뿔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칼란 미너렛의 외벽은 총 13개의 벨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 벽돌로 이루어진 양각 장식이 존재한다. 구운 벽돌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해 만들어낸 양각 장식에는 기하학 문양과 마름모, 지그재그, 십자가 문양과 팔각별 문양 이외에도 나무로 짠 바구니를 떠올리게 하는 문양 등이 사용되었다. 상단부 발코니 아랫부분은 터키석색 유약을 발라 구운 벽돌로 장식했다. 이 장식은 이 미너렛이 1127년 건설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약이 발린 벽돌을 장식으로 사용한 초기 예시이다.

이 미너렛은 미너렛의 본 역할인 아잔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주변 지



칼란 미나렛

역에서 침입하는 적군을 관찰하는 망루의 역할을 했다.

포이 칼란 복합단지는 칭기즈 칸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후 16세기 초에 그 시대의 형태로 재건되었으나 이 미너렛만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다. 칼란 미너렛은 12세기의 건축 형식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라얀 미나렛, 칼란 미나레트, 칼란 미나렛
- 다국어 표기 Minâra-i Kalân(타지크어), Kalon Minor(우즈베크어), Kalon Minare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app.goo.gl/fxvU4Lz7RHL9enSRA>
<https://images.app.goo.gl/1GfozfSbaAmFcygX9>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1990.
Ramazanoğlu, Gözde. *Orta Asya'da Türk mimarîsi*, Ankara : T.C. Kültür Bakanlığı, 1998.

I G219 | 칼릉 말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lym

칼릉 말은 카자흐인의 전통 혼인 의례에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주는 다양한 형태의 예물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소개하는 한국의 관습 중 신부대(新婦代), 즉 신붓값과 동일한 개념이다. 흔히 알려진 지참금 개념보다는 신부 집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금 개념이다. 칼릉 말은 카자흐인뿐만 아니라 바쉬키르인, 시베리아 지역민,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캅카스 지역 사회에 있던 관습이고 심지어 한국의 과거 전통에도 남아 있었다. 칼릉 말은 현금으로 하기도 하지만 가축이나 의복, 특산물로도 한다.

칼릉 말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칼릉 말의 핵심 부분이 바로 21마리~25마리에 이르는 말(horse)인데 이를 ‘카라 말(Qara mal)’이라고 한다. 신부의 양육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축을 팔아서 돈으로 지불하는데 이를 ‘일루(llu)’라고 한다. ‘토이 말르(Toi maly)’는 혼례식 비용, 손님 접대용, 및 신부에게 주는 보상금 대응으로 주어지는 가축이다. ‘수트 아크(Sut aqy)’는 신부를 길러준 데 대한 보상금으로서 신부의 부모에게 주어지며 대개 낙타 두 마리, 좋은 의복 및 기타 선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칼릉 말의 사회적 의미는 신부 집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의 상실이 발생하는 일이며 신부가 신랑 집의 일원이 되어 버려 가족의 상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자 집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에는 비단 신부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부 집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릉 말
- 다국어 표기 Калым(러시아어), Қалың мал(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신붓값,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portalostranah.ru/view.php?id=196>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G220 | 칼리프 압뮐메지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life Abdülmecid



칼리프 압뮐메지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압뮐메지드 2세 또는 압뮐메지드 에펜디로도 불리는 압뮐메지드 칼리프는 1868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압뮐아지즈(Abdülaziz, 재위: 1861년~1876년)이다. 1876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을드즈 궁전에서 감시를 받으며 왕자들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역사, 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를 교육받았으며 미술학교(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Sanayi-i Nefise Mektebi)의 교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당대 화가였던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 1842년~1910년)와 살바토레 발레리(Salvatore Valeri, 1856년~1946년)로부터 미술 교육을 받았고 궁중 화가였던 파우스토 조나로(Fausto Zonaro, 1854~1929년)와 친구가 되었다. 계승 순위가 높지 않았던 압뮐메지드는 예술에 집중했으며, 여러 민간 단체를 비롯하여 오스만 화가 협

회(Osmanlı Ressamlar Cemiyeti) 전시회, 갈라타사라이 전시회(Galatasaray Sergileri), 쉬실리 아틀리에(Şişli Atölyesi) 비엔나 전시회 등 화가들을 후원했다.

1909년에는 오스만 화가 협회의 명예 회장이 되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다. 『하렘에서의 베토벤(Haremde Beethoven, 1915년)』, 『하렘에서의 괴테(Haremde Goethe, 1917년)』, 『야부즈 술탄 셀림(Yavuz Sultan Selim)』 등의 작품은 1917년 비엔나 튀르키예인 전시회에서 전시되었다. 주로 풍경에서 인물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유화와 초상화 작품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동서양의 특징을 섞은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는 회화 외에도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을 두었고 많은 곡을 작곡했으나 그 일부만 지금까지 전해진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궁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앙카라 정부와 접촉하게 되고 황위 계

승자를 비판하며 황실의 압력을 받기도 했다. 1922년 튀르키예 국회는 압뿔메지드를 칼리프로 선출했다. 그러나 세속주의 공화국에서의 칼리프의 위치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1923년 칼리프제는 결국 폐지되었으며, 오스만 구 황실 일원은 해외로 추방되었다. 이로 인해 압뿔메지드도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추방을 당했다. 스위스에서 칼리프제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튀르키예 정부의 압력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에 파리로 이주했으나 1944년 8월 23일 제2차 세계 대전 도중 파리 폭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이스탄불로 옮기길 바랐으나, 이루지 못하고 파리 모스크에서 10년 동안 보관되었다가 메디나로 옮겨졌다. 그는 샤희후바르 바쉬카든에펜디(Şahsuvar Başkadınefendi)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메히스타 카든에펜디(Mehista kadınefendi)와의 사이에서 딸을 두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뿔메지드 2세, 압뿔메지드 에펜디
- 다국어 표기 Halife Abdülmecid(튀르키예어), Abdülmecid Efend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e/Portrait_Caliph_Abdulmecid_II.jpg/800px-Portrait_Caliph_Abdulmecid_II.jpg ,
칼리프 압뿔메지드_하렘에서의 괴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b/Haremde_Goethe.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üçük, Cevdet. “ABDÜLMECİD EFEND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 İstanbul: 1988, pp.263~264.
Özakıncı, Cengiz. “Haremde Beethoven, Sarayda Goethe: Son Halife Abdülmecid Efendi”, *Bütün Dünya dergisi*, Şubat 2011, pp.77~84

I G221 | 칼릴라와 담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lila and Demna

『칼릴라와 담나(Kalilah wa Dimnah)』는 기원전 1세기 인도의 학자 비슈누 샤르마(Vishnu Sharma)가 집필했던 판차탄트라(Panchatantra)에서 기원한 책이다. 6세기경 사산 조 시대 중세 페르시아어(팔라비어)로 번역되었던 판차탄트라를 페르시아의 학자 압둘라 이븐 알 무카파(Abdullah Ibn al-Muqaffa, 756년~760년)가 아랍어로 번역했다. 이때 얻게 된 제목이 ‘칼릴라와 담나’이다. 칼릴라와 담나는 책의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다.

아랍어로 된 칼릴라와 담나는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다. 가장 이른 예는 사만 왕조의 아불 파즐 알 발라미(Abu'l-Fadl al-Bal'ami, ?~940년)의 번역본이나 이 번역본은 일부만 남아 있다. 이후 가즈나 조의 아불 마아알리 나스랄라(Abu'l-Ma'ali Nasrallah)가 번역한 판본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스랄라 이외에도 여러 번역자가 번역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분 재편집되고 문학적 가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부 작품의 경우 이야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판본의 경우 따로 제목이 붙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후사인 와이즈 카세피(Husyin Waiz Kasefi)의 판본은 안와르 이 수하일리(Anwar-i Suhaili), 아불 파즐(Abul Fazl, 1551년~1602년)의 판본은 에야레 다네스(Eyar-e danes)라고 한다.

11세기~13세기에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고대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13세기~14세기에는 나스랄라의 페르시아 번역본을 바탕으로 동 투르크어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쿨 메수드(Kul Mes'ud, 14세기 전반)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로 번역했다.

첫 장의 주인공이자 제목인 칼릴라와 담나는 자칼이다. 이 둘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이 등장하여 액자식 구성으로 통치자의 덕성, 교육, 개인의 도덕, 인간관계 등을 이야기한다. 우화집인 칼릴라와 담나는 생동감 있는 주제를 담고 있기에 세밀화의 주제로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제작되었다.

칼릴라와 담나를 주제로 한 세밀화가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압바스 시대의 재판에서 아프신(Afsin)이 칼릴라와 담나의 세밀화를 소유했다는 이

유로 비난받았다는 언급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3세기 초의 아랍어 판본의 세밀화이며,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MS arabe 3465)에서 소장하고 있다. 페르시아어 사본의 세밀화는 13세기 말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도서관(Topkapı Sarayı Kütüphanesi, MS H. 363)에서 소장하고 있다.

14세기 말 잘라이르 술탄국의 후원으로 제작된 판본은 이스탄불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샤흐 타흐마스프 앨범에 일부 낱장으로 보존되고 있다(İstabil Üniversitesi Kütüphanesi, F1422). 본 판본은 일 칸국의 세밀화처럼 배경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연 묘사와 배경에 중국 예술의 영향이 묻어난다. 또한, 당대의 사실주의적인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흑양조의 바그다드 주지사 피르 부닥(Pir Budaq, ~1466년)을 위해 제작된 작품은 테헤란 골레스탄 도서관에서 소장(Golestān Library, MS 827) 중이다. 15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의 경우 톱카프 궁전 박물관(Topkapı Sarayı Müzesi, R.1023)에서 소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안와르 이 수하일리(Anwar-i Suhaili)나 예야레 다네스(Eyar-e danes)가 세밀화로 그려지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켈릴레와 딘네

● 다국어 표기 Kelile ve Dimne(튀르키예어), Калила мен Димна(카자흐어), Kəlilə və Dimnə(아제르바이잔어), Kalila va Dimna(우즈베크어), Kalila we Dimna(투르크멘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kalila-wa-demna-iii>

● 참고문헌(오프라인)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14.

Kalyon, Abuzer. "Kelile ve Dimne'nin tercüme serüveni", *DİVÂN İlmî Araştırmalar*. sy. 16, 2004/1, s. 227~237.

I G222 | 칼박 타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albak-tash

칼박 타쉬는 알타이 산맥의 추야 고원에 있는 암각화 보존 지구에 위치한다. 또한 추야 고원 남서 지역인 엘란 가쉬 강 상류에 위치한다. 이 암각화는 지표로 드러난 육중한 바위에 그려져 있다. 칼박 타쉬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투르크 시대까지 오랫동안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 그림 중에는 꼬리가 달린 전사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주제는 칼박 타쉬뿐만 아니라 투바, 몽골, 중국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시대에 따라서 암각화의 표현법에 차이가 있다. 사슴 사냥 장면이나 다양한 표식들로 쓰인 제명들이다. 뿐만 아니라 환상 동물도 새겨져 있다. 사슴 사냥에는 물이에 이용된 개도 표현되었다. 개는 생물의 기본적인 디테일과 윤곽만이 표현되었다. 환상 동물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둘로 갈라진 혀를 내밀고 있다. 긴 귀나 뿔은 끝이 앞으로 접혀 있다. 짧은 몸통은 세밀히 조각된 날개가 있고 등 위에는 꼬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앞발은 새의 발톱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발은 가느다랗게 표현하고 있다.

유적을 조사한 쿠바레프는 이 문양이 페르시아 신화에서 비옥함의 상징이었던 사산 조의 센무르브(senmurv)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아프리카의 소그디아 벽화에 나오는 사절단 행렬의 가장 존귀한 사람 중 하나도 센무르브가 수놓은 옷을 입고 있다. 센무르브의 형상은 고대 투르크뿐만 아니라 6세기~10세기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페르시아 및 비잔틴 제국 사이에 교역과 정치 교류가 번성한 결과도 보여준다. 알타이 암각화의 주제는 구체적인 신화적 이야기와 상관성이 있으며 고대 제의 장면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박 타시, 칼박 암각화
- 다국어 표기 Калбак-Таш(러시아어), Kalbak-tash(몽골어)
- 연관 검색어 아프리카시업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Сенмурв из Калбак-Таша. // Наскальные рисунки Евр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I G223 | 칼지 조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Khalji Dynasty

칼지 조는 1290년에서 1320년까지 델리 술탄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조로 인도 아대륙과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했다. 칼지 조를 세운 칼지(Khaljis) 민족은 투르크-아프간 계열의 사람들이다. 기록에 따르면, 칼지의 시초는 훈족과 함께 이주한 투르크인이었다고 한다.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 부족에 동화되기도 했으나, 이후 델리 술탄국에 속하는 칼지 조를 건설하고 통치할 즈음에는 아프간인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10세기~13세기에 만들어진 일부 자료에서는 칼지라는 단어를 투르크어 기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일부는 파슈툰 계열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도, 칼지라는 단어의 어원은 증명된 바가 없다.

정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투르크계와 파슈툰계 사이에서 사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분류되면, 언어와 민족적 변화 과정에 있는 투르크 계열의 민족으로 분류된다.

칼지 사람들은 델리 술탄국의 첫 왕조인 노예 왕조에 충성하는 신하로, 노예 왕조의 술탄인 기야스 우드 딘 발반(Ghiyas ud Din Balban)을 따르는 무슬림 귀족 가문 중 소수에 속했다. 기야스는 자신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투르크계 귀족 40명을 쫓아냈고, 이는 다수였던 투르크계가 쇠약해지고, 소수자의 권력이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새로운 개종자의 증가로 칼지파가 부상하고, 인도-무슬림 파벌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노예 왕조의 마지막 술탄이었던 무이즈 웃 딘 카이카바드(Muiz ud din Qaiqabad)는 17세의 나이로, 잘랄 웃 딘 칼지(Jalal ud Din Khalji)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살해당했다. 잘랄 웃 딘은 70세의 나이로 즉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90년 1월 왕위에 올라 칼지 조의 수립을 선포했다.



칼지 조 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잘랄 웃 딘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알라딘 칼지(Alauddin Khalji)는 데칸반도 주변에 머물다 1296년 델리로 돌아와 잘랄 웃 딘을 살해하고 술탄직에 올랐다. 알라딘은 투르크인을 관직에 임명하는 대신, 인도 대륙 현지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인도-무슬림 제국의 형태를 구성했다.

알라딘은 20년 동안 칼지 조를 통치했고, 주변 지역의 부유한 지역을 침략하여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 몽골이 해당 지역을 2회에 걸쳐 공격했으나 이에 맞서 칼지 조를 지켜냈다. 알라딘은 잔인한 술탄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특히 전쟁 과정에서 그의 잔혹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되는 경우 여성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살해한 것으로 유명하다. 1298년에는 델리 근처에서 새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을 집단 봉기 가능성을 들어 모두 학살하기도 했다.

1315년 12월 알라딘 칼지가 사망하자, 말리크 카푸르가 술탄에 올랐으나 몇달 만에 사망했다. 이후 3년 동안 세 명의 술탄이 직위를 계승했으나, 지속된 쿠데타로 왕위를 지속하지 못했다. 1320년 편자브 지역의 군사령관이었던 가지 말리크(Ghazi Malik)는 델리로 진군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술탄을 살해한 쿠스로 칸(Khusraw Khan)을 참수하고, 스스로 술탄에 올랐다. 가지 말리크는 기야스 알 딘 투글루크(Ghiyath al Din Tughluq)로 스스로를 칭하고, 투글루크 왕조의 첫 번째 술탄이 되었다.

칼지 조의 가장 괄목할 업적은 조세 개혁이다. 특히 알라딘 칼지는 농업세를 2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한 세금은 곡물과 농산물, 현금으로 모두 지불할 수 있게 했다. 조세 추징은 중앙 정

부가 담당하게 했고, 무슬림이 아닌 타종교 피지배 계층에게는 인두세, 토지세, 주택세, 목초세를 부과했다. 알라딘이 정립한 조세 제도는 19세기~20세기까지 인도 지역의 조세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농민의 잉여 물자가 지배 계층에 장기적으로 귀속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지 왕조

● 다국어 표기 سلسله خلجی(페르시아어), सलतनत ख़िलजी(힌디어), Khalji Dynasty(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N1KU>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B. C.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Hasnain, N. *Islam in South Asia: A Short History*, 2013.

Ludden, D. *India and South Asia: a short history*. Simon and Schuster, 2013.

| G224 | 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m

캄은 샤머니즘에서 의식을 주도하는 샤먼을 의미하며, 시베리아 투르크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박쉬(baqshi)가 사용되며 현대 튀르키예어에서는 샤먼을 사용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검은 캄(kara-kam)과 흰 캄(Ak-kam)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하 캄으로 표기한다.

고대 투르크인의 이슬람 이전 신앙 체계에서 캄의 구체적인 역할과 형식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투르크 전통 신앙에서 세계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늘(또는 빛의 층)과 지하(또는 어둠의 층)가 존재하고 인간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캄은 각 층을 오갈 수 있다. 각 층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한다.

캄에게는 일반적으로 수호령이나 도움을 주는 정령(또는 영혼)이 있는데,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런 정령은 대부분 곰, 늑대, 사슴, 토끼, 독수리, 까마귀와 같은 동물의 형태이다. 이들 정령은 캄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힘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곰의 정령이 도와주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말의 정령이 도와주는 식이다. 능력이 있거나 중요한 캄은 이 정령의 수가 10개~12개 정도 되고, 아직 능력이 부족한 캄은 1개~2개의 정령만이 있다. 캄의 능력은 이 정령들의 힘에 비례한다. 정령이 사망하면 캄도 사망한다.

캄은 정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북이나 다프(daf)를 연주하여 이들을 부른다. 타원형의 북은 산양이나 사슴 가죽으로 만들고 나무는 너도밤나무나 삼나무로 만들고 조상령의 영감을 받아 연주된다. 북과 다프의 장식은 지역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북은 말(馬)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즈베크인, 타지크인들의 캄(박쉬)은 제물의 피로 그림을 그린 북을 사용하지만,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투르크멘인, 카라칼팍인은 코푸즈, 돔브라, 뒤타르 등 다른 악기를 사용하며 코푸즈에는 작은 방울과 소리 나는 작은 물건을 달아 둔다. 코푸즈를 사용하는 것은 캄(샤먼)이라고 전해지는 현자 코르쿠트를 연상시킨다. 또한,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 카라칼팍의 캄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수호령 대신 진을 부르는 의식을 한다. 영혼에게 바치던 고기를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진에게는 냄새를 맡게 한다. 의식 도구와 마찬가지로, 캄에게는 특정한 의상이 존재하며, 의상의 장식 등도 각기 의미를 담고 있다.

캄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그 특별한 능력을 이어받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선택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능력이 있거나 신체에 표시가 있는 채로 태어난다. 선택된 이들이라 할지라도 캄의 직위는 노력해서 성취해야 한다. 젊은 캄은 반드시 나이가 있거나 경험이 많은 캄이 기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먼, 함

● 다국어 표기 kam(튀르키예어), кам(타타르어), хам(투바어), хам(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다프, 코푸즈, 돔브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Saadeddin. Gömeç, “Tarihte ve Günümüzde Saha Türkleri”, *Tarih Araştırmaları Dergisi*, 19 (30), 1997, pp.175~203.

Ögel, Bahaeddin. *Türk Kültür Tarihine Giriş VIII*, Ankara: Başbakanlık Basımevi, 1991.

Roux, Jean 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tra. Aykut Kazancıgil), İstanbul:KabalıcıYayınevi, 1994.

Güngör, Harun. “ŞAMANİZ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8, İstanbul: TDV, 2010, pp.325~328.

I G225 | 캄란 미르자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mran Mirza

캄란 미르자(Kamran Mirza)는 1509년 카불에서 버부르(Babur, 재위: 1526년~1530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굴루흐 베굼(Gulrukh Begum)이다. 어린 시절 문학, 군사학 및 정치학을 아버지와 다른 교사로부터 배웠으며 버부르 생전에는 칸다하르와 카불 지역을 통치했다. 아버지 사후에 형제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다.

1540년 수리의 왕 셰르 샤(Sher Shah, 재위: 1438년~1545년)가 인도를 침공하여 버부르(Babur, 우즈베크어 표기: Bobur, 버부르)의 뒤를 이었던 후머윤(Humayun, 재위: 1530년~1540년)을 물리치고 후머윤을 인도 밖으로 추방시켰다. 후머윤은 카불로 돌아왔지만, 캄란은 형인 후머윤에게 카불 지역의 통치권을 넘기지 않았다. 1545년 후머윤은 사피비의 타흐마스프 1세(Shah Tahmasp I, 재위: 1524년~1576년)의 도움으로 캄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캄란은 체포되었다. 후머윤은 캄란을 용서하고 그를 쿠룹의 주지사로 임명하지만, 1년 후 캄란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1550년 캄란은 다시 패배하고 도망갔다. 그 후 다시 비밀리에 카불로 돌아와 후머윤의 아들인 악바르(Akbar, 재위: 1556년~1605년)를 습격하여 카불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이즈음 캄란은 동생인 힌달 미르자(Hindal Mirza)와 사이가 틀어져 그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지만, 후머윤의 복수로 인해 다시 도망치게 되었다. 캄란은 편잡 지방의 지도자였던 코카르(Khokar)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두 형제의 전투에서 후머윤을 지지했기에 캄란을 체포해 후머윤에게 넘겨주었다. 후머윤은 캄란을 다시 용서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그의 눈을 찔러 멀게 하는 벌을 내렸다. 이후 통치에서는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1554년 캄란은 부인 중 하나인 마흐 추착 베굼(Mah Chuchak Begum)과 함께 메카로 순례를 떠났고 1557년 메카에서 사망했다. 몇 달 후 부인도 사망했다. 아들인 카심(Kasim)도 악바르의 경쟁자로 취급되어 유배를 떠났으나 곧 살해를 당했다.

캄란은 카불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동전을 발행했고, 많은 학자와 시인을 후원했다. 또한, 공원과 대상 숙소를 건설했고, 특히 라호르시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캄란 미르자는 바부르 조 문

학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이나 뛰어난 시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썼으며 종교와 종교적 신비주의 요소가 작품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의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 시가 포함된 디반은 반키푸르 동양학 도서관(Oriental public library Bankipore)에서, 페르시아어 디반은 동양 공공도서관(The Oriental Public Library)에서 소장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콤론 미르조, 캄란 미르자
- 다국어 표기 Komron Mirzo(우즈베크어), Kamran Mirza(영어), Kâmrân Mirz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버부르, 후머윤, 바부르 조
- 참고문헌(오프라인) Enver Konukçu, “KÂMRÂN MİRZ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2001, pp.286-287.

I G226 | 캄바 라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amba Lama

캄바 라마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 투바 공화국의 불교 지도자이자, 최고위 불교 수도원의 라마, 즉 종교적 스승을 뜻한다. 19세기에 우스투우 후레의 원장이 캄바 라마의 칭호를 받았다. 당시 투바 지역은 만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캄바 라마도 보그도 게겐(Bogdo-gegen: 몽골 불교 겐룩파의 최고 라마) 지휘하에 있었다.

소련 치하에서 투바는 종교 활동을 억압당했고, 소련 붕괴 후 종교 활동이 재개되면서 캄바 라마도 재등장했다.

1997년 공식적으로 캄바 라마가 등장하기 전, 카자크 오그루다에비치 산다크(Kazak Orgudaevich Sandak, 1918년~1997년)가 투바 불교의 수장 역할을 했으나 공식적인 캄바 라마는 아니었다. 공식적인 제1대 캄바 라마는 1997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아가나크 케르텍(Aganak Khertek, 직무: 1991년~1997년)이다.

캄바 라마는 캄바 라마가 입적하거나 사임하지 않는 이상 5년 임기이며, 선거로 선출된다. 선거단은 불교 단체의 대표들과 승려들로 구성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캄비 라마
- 다국어 표기 Камбы-лама(투바어), Камбы-лам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티베트 불교, 투바
- 참고문헌(오프라인) Walters Philip. "Religion in Tuva: Restoration or Innovation?", *Religion, State and Society*, 29:1, 2001, 23~38.
- Yu, Lepekhov S. "The Religious Policy of the Russian Government towards Buddhism at the End of the 19th and Beginning of the 20th Centu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20, 2013. 02, 145~161

I G227 | 캄바르 바트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ambar batyr

「캄바르 바트르(Kambar batyr)」는 16세기에 활약한 카자흐인 장수 캄바르가 칼막족의 침입을 물리친 활약상을 그린 서사시이다.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이어서 본격적인 채록은 19세기에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판본이 남아 있다. 「캄바르 바트르」는 단순히 영웅의 전투 승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기도 하다. 당시의 불평등한 시대 사회상이 묘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캄바르 바트르」 서사시의 주제는 조국의 보호와 영예를 위한 일에 있다.

이야기는 아짐바이(Azimbay)의 재력과 아름다운 딸을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캄바르가 성장하여 조국을 돌보는 영웅으로 등장한다. 「캄바르 바트르」는 전통적 카자흐인 장수들의 활약에 대한 구전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장수들의 이야기 중에는 코블란드(Kobland), 알파르시(Alpamys), 예르 타르근(Yer Targyn) 등이 있다. 이들 무사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동쪽을 보호하는 활약상을 보여준다. 현재 19개의 판본이 전해진다.

1865년에 최초로 <오렌부르크 지역의 키르기스(카자흐) 스텝>이라는 잡지에 메예르(L. Meyer)가 서사시를 소개했다. 이것은 캄바르의 이야기와 시르다리아 지역의 알트아사르 역사를 연관시킨 것이었다. 1888년에 카잔대학교는 『키사-이 캄바르』를 출간했다. 1902년 디바예프(Abubakir Divayev)가 작성한 것이 1922년 타슈켄트에서 발간되었다. 1930년에는 세이풀린(Saken Seifullin), 무카노프(Sabit Mukanov), 아우예조프(Mukhtar Auezov) 등이 각각 출간했다. 동 서사시는 다양한 카자흐 스텝 지역에서 채록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웅적인 장수 이야기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 도서로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다. 캄바르 바트르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13년에 지정한 무형 문화유산인 영웅 서사시 50개 작품 중의 하나이다.

- 다국어 표기 Қамбар батыр(카자흐어), Камбар баты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영웅 서사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rtegi.ru/index.php?id=6&idnametext=36&idpg=1> , <https://cyberleninka.ru/article/n/the-story-features-of-the-epic-kambar-batyr>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28 | 캅카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서아시아, 기타 ● 나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fkaz

캅카스(Kafkaz)는 러시아 남서부와 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지역, 흑해·아조프 해·카스피 해 사이, 북쪽은 쿠마 강·마니치 계곡, 남쪽은 이란·튀르키예와 접경한 지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유럽의 동쪽, 아시아의 서북쪽을 구분하는 지리학적 지역으로 유럽의 가장 높은 산(엘브루스 산)을 포함하는 캅카스 산맥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란,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주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정치, 군사, 종교, 문화 대립과 팽창주의의 무대가 되



캅카스 지역

어 왔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에 따라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1991년에 독립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래로, 다양한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오세티야-인구쉬 분쟁, 압카지아 전쟁, 2차에 걸친 체첸 전쟁 그리고 남오세티야 전쟁 등이 영토 분쟁의 사례다.

캅카스 지역에 살고 있는 50개가 넘는 민족들은 서로 다른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들만 다른 어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아르메니아어나 오세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제리어는 튀르키예어와 같은 오구즈 계열의 언어로 튀르키예어와 유사성이 크다.

오늘날 대부분의 남부와 서부 카프카스 사람들의 종교는 동방 정교회, 오리엔탈 정교회의 기

독교이며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에는 수니파, 시아파의 이슬람 양대 종파들의 신봉자들이 있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많은 광물들과 에너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알루미늄, 금, 크로뮴, 구리, 아연, 철광석, 수은, 망간, 몰리브덴, 납, 우라늄, 석회석, 석유, 천연 가스와 석탄(무연탄과 갈탄 둘 다 포함)이 매장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프가스, 코카서스

● 다국어 표기 Кавκάз(러시아어), Կովկաս(아르메니아어), Caucasus(영어), Kafkasy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어, 오구즈, 수니파, 시아파

● 멀티미디어 링크 Ethnographic map of Caucasus

<https://www.hunmagyar.org/turan/caucasus/index.html>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map: Population density of the Caucasus

https://web.archive.org/web/20050924025007/http://www.grid.unep.ch/product/map/images/caucasus_envsec2_popdensityb.gif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캅가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75043&cid=51778&categoryId=51778>

● 참고문헌(오프라인) G.Qoranashvili, *Questions of Ethnic Identity According to Leonti Mroveli's Historical Chronicles*, Studies, Vol. 1, Tbilisi, 1995.

Thorez, Pierre. "Caucasus." *Encyclopaedia Iranica* - 2 June 2007.

I G229 | 캣타 아술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Katta ashulla

캣타 아술라(Katta Ashula) 혹은 파트니스 아술라(Patnis Ashula)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 정체성 일부를 형성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큰 노래 혹은 훌륭한 곡이라는 의미를 가진 캣타 아술라(Katta ashulla)는 주로 악기 반주 없

이 2명~4명의 연주자가 부른다. 캣타 아술라는 청중들 사이에서 넓은 음역대를 넘나들며, 우주와 자연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주제로 노래한다.

캣타 아술라를 부르는 가수에게는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 및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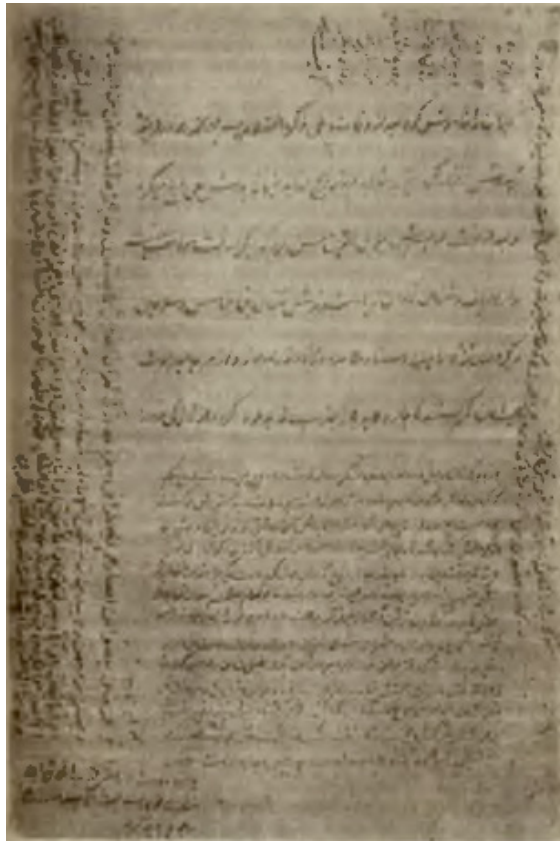
캣타 아술라는 고전 가잘(gazal)을 기반으로 중세 시대에 노래 문화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교훈시 및 수피시들도 캣타 아술라의 가사가 되어 노래로 불렸다. 이후 루트피이(Lutfiy), 나버이이(Navoii), 마쉬라브(Mashrab), 아미리이(Amiriy), 하지니이(Khaziniy),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kat), 자브키(Zavqiy) 등 시인의 시들도 노래로 불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타 아술라
- 다국어 표기 Katta ashulla(우즈베크어), Катта ашула(«Большая песня»)(러시아어), Katta Ashula(Great Song)(영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무키미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ch.unesco.org/en/RL/katta-ashula-00288>
- 참고문헌(온라인) <https://meros.uz/object/katta-ashula>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Abdullayev Rustam Samigovich, *O'zbek mumtoz musiqasi*, Toshkent: Yangi nashr, 2008.
Rajabiy Yunus, *O'zbek Maqomlari 'Shashmaqom'*, O'zbekistondagi YUNESKO, 2007.

I G230 | कैमलूद्दोव्लै 서한집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비평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Letters Kamaluddovle

『**캐말뤼드되블래 서한집(Kəmalüddövlə məktublari)**』은 미르재 패탈리 아훈도브(Mirza Fətəli Axundov)가 1865년에 저술한 문학적·철학적 비평서이다. 이 작품은 인도 왕자 캐말뤼드되블래(Kəmalüddövlə)와 페르시아 왕자 켈랄뤼드되블래(Cəlälüddövlə)가 주고받는 편지



개말뤼드되블래 서한집 원고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 광신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마디로, 이 작품은 동양인들을 종교적 광신과 압제자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원래 아제르바이잔어로 쓰였는데, 나중에 저자 자신이 러시아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다. 이 작품은 전제 정권과 종교적 광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저자의 생애 동안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1924년 바쿠의 신(新)알파벳 위원회(Yeni Əlifba Komiteti)에 의해 절반 정도만 출판됐다가, 풀 버전은 1938년에 USSR 과학 아카데미(SSRİ Elmlər Akademiyası) 바쿠 지부에 의해 출판됐다. 개말뤼드되블래와 쟈랄뤼드되블래는 둘 다 왕자인데, 정치적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Misir)로 이주한다. 개말뤼드되블래의 조국인 인도에서는 영국인

들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외브랭 지비(Övrəng Zibi)를 권좌에서 끌어내고 권력을 장악한다.

두 왕자는 자신들 나라가 처한 상황과 화해할 수 없었지만, 조국을 떠난 것을 슬퍼한다. 또 직면한 재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कै말뤼드되블래는 이를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미국(Amerika)으로, 그 다음에 유럽(Avropa)으로 간다. 그의 여행 목적은 재미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동양 나라들이 왜 발전을 못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선진국의 사회 정치 구조를 익히고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कै말뤼드되블래의 요청으로 서양 국가를 여행한 후 이란으로 떠난다. कै말뤼드되블래는 이란의 몰락을 목격하고 슬퍼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편의 시설과 그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삶은 동양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충격적이었다. 또 다른 충격은 동양 여러 나라들의 국민도, 왕도 자신들의 곤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작품은 동양 국가의 지배 체제에 큰 영향을 준 작품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일부 보수적인 이란 학자들은 『캐말뤼드되블래 서한집』 작품을 근거로 들어 미르재 페탈리 아훈도브를 무신론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동양의 전제 정권에 대한 이토록 위대한 학술 비평서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이 작품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들도 출간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कै말뤼드되블래 서한

● **다국어 표기** Kemalüddövlə mektupları(아제르바이잔어), Письма Кемал-уд-Довле(러시아어), Lettres de Kemal-oud-Dovle(영어)

● **연관 검색어**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a/K%C9%99mal%C3%BCdd%C3%B6vl%C9%99_m%C9%99ktublar%C4%B1.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ndov Mirzə Fətəli, *Kəmalüddövlə məktubları*, Bakı: Qanun nəşriyyatı, 2012.

Əlimirzəyev Xəlil, M.F. *Axundovun ideal və sənət dünyası*,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7.

Məmmədzadə Həmid, *Mirzə Fətəli Axundov və Şərq*, Bakı: Elm nəşriyyatı, 1971.

Şamioğlu Şahbaz, *Mirzə Fətəli Axundzadə*,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6.

Qasımzadə Feyzulla, *Mirzə Fətəli Axundovun həyat və yaradıcılığı*, Bakı: Azərneşr, 1962.

I G231 | 카쿱 샤이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yakuk syaye

‘빠꾸기 차 마시기’란 의미를 가진 카쿱 샤이예는 바시키르인들의 봄맞이 풍속이다. 바시키르어로 카쿱은 빠꾸기를, 샤이는 차를 의미한다. 카쿱 샤이예는 이슬람교 수용 이전부터 내려오던 새를 송배하는 범신론 신앙이 반영된 풍습이다. 과거 바시키르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새로 변한다고 믿었다.

카쿱 샤이예는 보통 4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진행된다. 여성과 처녀들은 발레시, 바우르삭, 블리니, 구바디아, 꿀, 차크-차크, 에렘세크 같은 빵이나 과자, 유제품 등을 가지고 산비탈이나 강기슭에, 때로는 집 앞의 작은 풀밭에 모여 차를 마신다. 이때 민속 놀이나 춤, 노래, 전통 민요인 타크마크를 함께 즐긴다. 카쿱 샤이예는 보통 빠꾸기를 달래는 행위로 시작된다. 빠꾸기가 울면 아이들은 나무 밑에 우유나 양젖을 붓고 알을 놓아두고 나뭇가지에는 붉은 리본을 매단다.

여성들은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빠꾸기에게 풍요와 평화, 가족의 축복을 기원한다. 카쿱 샤이예를 할 때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기도 하는데 만일 산에서 풀몽치가 굴러 내려오면 그해에는 풍년이 깃들고, 만일 돌이 굴러 내려오면 가뭄과 굶주림이 온다고 한다. 빠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소원을 맞추기도 한다. 또한 남은 음식을 돌이나 나무 등에 올려 놓고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고수례를 행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쿱샤이예
- 다국어 표기 Кякук сәйе, кәкүк сәй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인, 바시키르어, 구바디아, 차크-차크, 에렘세크, 타크마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iZRh9W7OgJ0>
- 참고문헌(오프라인) Сулейманова, М.Н. «Кякук сәйе»//Башкир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3, 2007.

I G232 | 카팁 첼레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Kâtib Çelebi

카팁 첼레비(1609년~1657년)는 관료계 안에서의 직위에 따라 하지 할리페(칼파)라고도 불리는 무스타파 이븐 압둘라의 별칭이다. 그는 역사학자, 서지학자, 지리학자였으며 17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특출난 학자였다. 군인이었던 아버지 슬하에서 1609년 2월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5세~6세에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14세에는 세무 관청에 도제로 들어가서 회계와 시야카트 서체를 배웠다.

세무 관료로서 종종 원정과 반란 진압에 동반했던 그는 승진이 잘 안 되자 물려받은 유산으로 이스탄불에 정착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강연에 참석하고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연구 이외의 야심은 거의 없었고, 교제 범위가 넓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인 출신 개종자의 도움으로 라틴어 텍스트를 번역하기도 했다.

주요 저작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1591년에서 1654~1655년 사이 범위까지 다룬 연대기 Fezleke, 오스만 해전의 역사, 아담에서 1648년까지의 주요 연표, 이스탄불의 역사, 프랑크인의 역사, 기독교 유럽의 왕조들의 통치 체제와 종교를 설명한 저작, 아랍어로 된 서지학 사전, 아랍어로 된 집단 전기, 미완성의 세계 지리서, 재정 적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설, 카드자델리운동 당시 논란이 되던 쟁점들을 정리한 책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팁 첼레비

● 다국어 표기 Kâtib Çeleb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Gottfried Hagen, "Katib Çeleb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310.

Orhan Şaik Gökyay, "Katib Çeleb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5, 2002, pp.36~40. [누락된 부분을 추가함]

I G233 | 커밀 야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Komil Yashin



커밀 야신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커밀 야신(Komil Yashin)은 우즈베키스탄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이자 문학 비평가, 사회 평론가이다. 그는 현대 우즈베크 문학, 특히 우즈베크 극작법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커밀 누모노비츠 야신(Komil No'monovich Yashin)은 1909년에 안디잔 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구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신식 학교에서 공부하고, 1925년 레닌그라드로 유학을 떠났다. 커밀 야신은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우즈베크 국립 음악극장에서 문학 조교로 일했다. 이후 그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예술부의 국장을 역임했다. 1958년부터 1980년까지 그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비서관

을 지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16세부터 시를 지었으며, 1925년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시 작품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커밀 야신은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다양한 시 작품들을 썼으며, 대표작으로는 「태양(Quyosh, 1930)」, 「투쟁(Kurash)」, 「콤소몰(Komsomol, 1933)」, 「이웃 여성에게(Qo'shni ayolga)」, 「포로 소녀에게(Tutqin qizga)」, 「열려라 소녀(Ochil, qizcha)」, 「동방의 청소년들에게(Sharq yoshlariga)」, 「황금 호수(Oltin qo'l)」, 「증오(Naftrat)」가 있다.

시뿐만 아니라 극작가로서도 활동했던 커밀 야신의 대표적인 희곡에는 「청각장애인(Karquloq, 1926)」,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Teng - tengi bilan, 1927)」, 「Lolaxon(1927)」, 「태양(Quyosh, 1929)」, 1930년대 우즈베크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희곡 「동지들(O'rtoqlar, 1930)」, 「불태울 것이다(Yondiramiz, 1931)」 그리고 「명예와 사랑(Nomus va muhabbat, 1935)」, 여성 해방을 주제로 한 「롤라헌(Lolaxon)」, 「누르헌(Nurxon, 1940)」, 「굴사라(Gulsara)」, 희곡

「함자(Hamza)」, 1916년대 우즈베크 민족의 해방을 노래한 최초의 우즈베크 오페라 「거대한 운하(Ulug' kanal, 1940)」, 「폭풍(Bo'ron)」, 전쟁을 주제로 한 「다브론 어타(서비르 압둘라, 추스티이와 공동 작업, 1941)」, 「침략자들에게 죽음(O'lim bosqinchilarga, 1942)」, 나버이의 서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 「파르호드와 시린(Farxod과 Shirin, 1944)」이 있다. 그는 희곡 외에도 산문과 소설을 집필했으며, 문학 비평가로도 활동했다.

커밀 야신은 1939년에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O'zbekistonda xizmat ko'rsatgan san'at arbobi) 상, 1951년에는 「굴사라(Gulsara)」로 희곡 분야에서 국가 상을 수상했다. 1974년에는 커밀 야신에게 노동의 영웅(Mehnat Qahramoni) 칭호(unvon)가 부여되었다. 1960년에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추천되었고, 1968년에는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커밀 야신은 1997년 9월 25일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타슈켄트와 안디잔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거리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밀 야신, 코밀 야흐신

● 다국어 표기 Komil Yashin(우즈베크어), Камиль Яшен(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8/83/Kamil_Yashi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komil-yashin-1909-1997/>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samatov Hafiz, Samatov Majid, *Komil Yashin hayoti va ijodi*,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9.

Kattabekov A. va boshqalar, *O'zbek sovet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90.

K. Yashin K., *Asarlar 6 jildlik*,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0.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G234 | 커밀 허라즈미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Komil Xorazmiy

히바 칸국의 시인이자 예술가였던 커밀 허라즈미이(Komil Xorazmiy)는 호라즘(Khorezm)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19세기 후반 히바 칸국이 자신의 지위로 러시아에 합병된 시기에 살았는데, 이 시대의 상황이 그의 작품에 투영되었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1825년 히바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드라사의 교사였다. 커밀 허라즈미이의 본명은 파흘라번 무함마트 니요즈 압둘라 어훈드 오글리(Pahlavon Muhammad Niyoz Abdulla Oxund o'g'li)이며, 음악과 관련한 일부 문헌에서는 파흘라번 니요즈 무함마드(Pahlavon Niyoz Muhammad)로 기록되었다. 역사 기록물에는 맞니요즈(Matniyoz)라고 나온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필명이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어린 시절 학교를 졸업하고 히바의 마드라사에 입학했다. 마드라사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공부하는 동안 동양의 고전문학, 특히 우즈베크 고전문학을 알게 되며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이 시기에 시 연습을 시작했으며 25세~30세에 시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드라사 수학 기간에 서예와 음악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이런 커밀 허라즈미이를 궁에서 채용했고, 처음에는 히바 칸 사이드 무함마드(Sayd Muhammadxon)의 비서로 일했다. 1865년에 왕위에 오른 무함마드 라힘 2세(Muhammad Rahim II)는 그를 미르자버쉬(mirzaboshi: 궁전 자료 기록원의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미르자버쉬는 서예를 하는 일하기에 그가 궁에서 일하는 동안 서예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다.

19세기에는 호라즘의 음악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생겼고, 커밀 허라즈미이는 이 작업에도 참여한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타슈켄트와 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 음악을 여러 번 들어, 그 시스템에 익숙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크 곡을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악보 체계를 '탄부르 악보(Tanbur chizig'i)'라고 하는데, 그는 새로운 악보 체계로 멜로디를 기록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악기였던 탄부르(tanbur)를 사용한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이 악보 시스템으로 「러스트(Rost)」라는 마콤(maqom)의 첫 부분을 작성했다. 커밀

허라즈미이 이후 그의 아들 무함마드 라술(Muhammad Rasul)은 아버지가 시작한 작업을 이어갔고 히바의 「샤쉬마검(Shashmaqom)」 악보를 모두 완성했다. 이 마검 악보는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작곡가로서도 활동했다. 「러스트(Rost)」와 연결하여 지은 「커밀의 무랍바이(Murabbai Komil)」와 「페루즈의 페쉬라위(Peshravi Feruz)」 같은 곡은 현재까지도 전해진다.

또한, 그는 우즈베크의 고전 시와 페르시아 시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커밀 허라즈미이의 가장 큰 업적은 고전 시인의 전통 정신으로 서정시를 집필하여 데번(devon)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데번에는 가잘(g'azal), 무삽바(musabba), 무함마스(muxammas), 무삿다스(musaddas), 마스나비이(masnaviy), 루버이이(ruboiy), 카시다(qasida)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약 8,000개 이상의 미스라(misra)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사회를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의 특성을 찬양하고, 무지를 비판하며, 사랑을 노래한다. 그의 시 가운데 일부 구절은 격언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우즈베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무삽바(musabba), 바흐리(bahri), 타빌(tavil)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 시가 있다. 커밀 허라즈미이의 데번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우즈베크 고전문학 전통의 계승자로 등장하여, 히바 칸국을 지배했던 과거의 잔재, 중세적 무지와 미신과 싸우며 19세기 후반에 호라즘의 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다.

커밀 허라즈미이는 1899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커밀 호라지미, 코밀 호라지미이, 코밀 호라지미의
- 다국어 표기 Komil Xorazmiy(우즈베크어), Камил Хорезм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히바 칸국, 무함맛 라힘 2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komil-xorazmiy-1825-1899>
<http://xorazmiy.uz/oz/pages/view/138>
- 참고문헌(오프라인) Avaz Komil, *Komil Xorazmiy*, Urganch: Xorazm, 2015.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uchu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75.

I G235 | 커적버이 올더쉐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Qozoqboy Yo'ldoshev

우즈베크 작가, 문학 평론가이자 교수인 커적버이 올더쉐브(Qozoqboy Yo'ldoshev)는 1949년 5월 9일 시르다리아(Sirdaryo)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6년부터 1966년까지 보요우트(Boyovut)의 제8번 중등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그는 1970년 가푸르 굴럼(G'afur G'ulom) 시르다리아 국립 사범 대학교(Syrdarya State Pedagogical Institute) 우즈베크어과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굴리스탄 구에 위치한 제1번과 제15번 학교에서 우즈베크어와 우즈베크 문학교사로 일했으며,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제9번 기술 학교의 교육부장, 교감으로 재직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그는 우즈베크 공산당 굴리스탄 지구 위원회 강사, 농업 노동자 노동조합 굴리스탄 지구위원회 위원장, 집단 농장 붉은 아침(Qizil tong)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굴리스탄 주립 대학교(Gulist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사, 교육학 및 초등 교육 교수법(Pedagogy and Methods of Primary Education) 학부장, 우즈베크어 학과장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그는 코리 니야지(Qori Niyazi) 우즈베크 교육 연구소에서 부소장, 학술부 부국장으로 근무했다.

커적버이 올더쉐브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우즈베크어문학부 학장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현대 우즈베크 문학 부서장으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 텍스트 연구, 국가 르네상스(부흥기) 시기 및 현대 우즈베크 문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1985년 「우즈베크 소비에트 풍자 작품에서 성격 묘사의 진화(O'zbek sovet satirik hikoyalarida xarakter tasviri evolyuts'iyasi)」라는 주제로 준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에는 「새로운 교육학적 사고와 중등 학교에서의 문학 수업 방법론 기초(Yangicha pedagogik tafakkur va umumta'lim maktablarida adabiyot o'qitishning ilmiy-metodik asoslari)」라는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는 교수 칭호를 받았다.

커적베이 올더셰브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원이며 지금까지 교육 용어 사전(공저) 1권, 교과서 3권, 교수법 교과서 1권 등 35편의 저서 및 75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커적베이 올더셰프
- 다국어 표기 Qozoqboy Yo‘ldoshev(우즈베크어), Казакбай Юлдаш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가푸르 굴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kitobxon.com/uz/yozuvchi/kozokboy-yuldoshev>
<https://kh-davron.uz/yanjiliklar/muborak-kin/xolis-etirof-ehtiyoji-adabiyotshunos-olim-qozoqboy-yoldoshev-bilan-muloqot.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Yoldosh Q., *So‘z yulqini*, Gafur Gulom nomidagi nashriyot matboo ijodiy uyi, Toshkent, 2018.

I G236 I 킱사러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ksaroy

14세기 후반 아미르 티무르(Timur, 재위: 1370년~1405년)는 칭기즈 칸(Genghis Khan, 재위: 1206년~1227년)의 침략으로 훼손된 사마르칸트를 재건하기 시작한다. 특히 1370년 가을 사마르칸트 도시 외곽을 둘러싼 새로운 요새를 건설했다. 이 요새는 상당히 높았고 6개의 문이 있었다. 또한 요새 내에 4층의 궁전을 건설했다. 이 궁전은 주로 파란색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란 궁전(Kok Saroy, 킱사러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곳에는 아미르 티무르의 저택, 응접실, 도서관, 화폐 주소소, 무기 제작소와 같은 건물들이 있었으며, 외국 대사들을 위한 영빈관도 마련되었다. 왕좌도 푸른색 돌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궁전은 남쪽과 동쪽으로 문이 있었으며 동쪽 문은 도시 중심과 연결되었다. 버부르는 티무르의 자손이 이곳에서 왕좌에 오르고 누군가 반란을 꾀한 자는 이곳에서 죽는다고 기록했다. 킱사러이는 티무르 시대 이후 제국의 보물을 숨겨두거나 감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킱사러



킉사라이 유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는 현재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콕사라이, 쿡사라이, 꺄사라이
- 다국어 표기 Koksaroy(우즈베크어), Gök Saray(튀르키예어), Blue Palace(영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사마르칸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8/Kuksaray_palace_ruins_in_Samarkand.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603/documents/>
- 참고문헌(오프라인) Tombulođlu, Tuba. Mustafa Gökçe, “10. -15. Yüzyıl Seyyahlarının İzlenimlerinde Semerkand”, *History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10(10) December, 2018, pp.131~144.

I G237 | 케네사르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enesari's Revolt

18세기 중엽부터 카자흐인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한 제정 러시아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노골적으로 직접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카자흐인들의 전통적인 행정 지역을 완전히 개편하고 러시아의 팽창에 적합하도록 정책 전환을 꾀했다. 그리고 점차 전통적인 통치자인 ‘칸’ 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 체제에 순응하도록 제도 개혁을 강요했다.

당시 카자흐인들의 영역은 18세기 초 타우케 칸(Tauke Khan: 1625년~1715년) 사후 3개의 대부족(쥬즈)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대, 중, 소쥬즈로 나뉘었다. 지리적으로 제정 러시아에 가장 가까웠던 소쥬즈가 먼저 러시아에 사실상 복속되었고 그 여파는 동쪽에 위치한 중쥬즈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중쥬즈의 에블만수르 칸(УәлиҰллаһ ӘбілмансҰр хан)과 아블라이 칸(Ablai Khan: 1711년~1781년)의 후손으로 알려진 케네사르(Kenesary: 1802년~1847년)는 본격적으로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저항하기 시작했다. 케네사르 저항군은 1837년 봄에 악몰린스크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장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부장 봉기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팽창의 전초 기지이던 오렌부르크를 위협했고 그 세력을 오늘날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모든 카자흐인 부족들과 지도자들이 케네사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고 러시아와 결탁한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인들의 통합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더구나 남쪽의 코칸드 칸국의 케네사르 진영에 대한 군사적 원조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 케네사르 부대들이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자 키르기스인들의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1844년부터 조직적으로 펼쳐진 제정 러시아 군대의 위력 대응으로 마침내 케네사르 봉기는 그 위세가 꺾이고 말았다. 이처럼 케네사르 봉기는 1837년에 시작되어 전체 카자흐인들의 땅을 뒤흔들었지만 1847년에 케네사르가 체포, 처형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정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 카자흐인들의 민족주의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긍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네사르 동상(아스타나, 카자흐스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네사리 봉기
- 다국어 표기 Кенесары көтерілісі(카자흐어), восстание Кенесар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 민족운동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x0pLuc8qR8>
- 참고문헌(온라인) <http://edu.e-history.kz/en/contents/view/272>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38 | 케레메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장소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eremet

케레메트는 추바시 전통 신앙에 나오는 선과 악의 정령으로 천상과 지하의 정령들의 중개인을 의미하거나 대홍수의 나무와 마른 땅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불가강 유역의 투르크, 핀-우고르 민족의 전통 농경 신앙에 등장하는 용어로, 제물, 성스러운 숲, 또는 신(神)을 의미하기도 한다.

케레메트란 단어는 기적을 지칭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용어 ‘카라마트(karamat)’에서 유래한 용어로 불가리아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될 때 전해졌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 용어가 알타이, 텔레우트 같은 유라시아 민족들이 믿는 고대 신의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화에서 케레메트는 천상의 신 투라의 맏아들인데 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자식이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었다. 하지만 슈이탄(Шуйттан)이 사람들을 부추겨 그를 죽이고 불태웠는데, 투라에게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재를 바람에 흩날려 보내 케레메트로 만들었다고 한다.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케레메트는 희생제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이다. 케레메트는 러시아 문학에서 ‘성스러운 숲’을 지칭하며, 이곳은 세계의 시초가 되는 성스러운 샘이나, 세계수가 있는 곳이다. 의례를 행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한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까지 케레메트는 추바시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행위 중 하나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레멧, 케레멧
- 다국어 표기 Керемет(러시아어), Киремет(추바시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인
- 참고문헌(온라인) КИРЕМЕТ// <http://enc.cap.ru/?t=publ&ink=577>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14.

Токарев,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Vol. 1.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1, 640.

I G239 | 케르굴라 말을 탄 켄데베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민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endebai on Kergula horse

「케르굴라 말을 탄 켄데베」는 말을 탄 카자흐인 무사의 활약상을 그린 카자흐인 민담으로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옛날 ‘카잔갑’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매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면서 아내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양털을 깎고 물건 수선을 하면서 살았다. 이들에게서 난 아이가 켄데베인데 아이는 날마다 급격히 성장하여 6일이 지나 웃고, 6개월이 지나 걸었으며 6년이 지나 마침내 진정한 유목 전사가 되었다. 그는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싸울 엄두도 못 낼 정도였고 사냥에서도 늘 성공적이었다.

어느날 사냥에서 늑대의 공격을 받고 있던 암말을 구하고 그 뺏속에서 새끼를 꺼내어 생명을 구해냈다. 켄데베는 새끼 망아지에게 우유를 주면서 정성껏 키웠다. 그 말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6개월 만에 튼튼한 말이 되었고 켄데베 가족은 그 말을 ‘케르굴라’로 이름 지었다. 그렇게 해서 켄데베는 케르굴라를 타면서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말은 속도와 힘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 되었다.

켄데베는 마음씨도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항상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케르굴라를 탄 켄데베’로 불렸다. 어느날 켄데베는 불우한 양치기 소년의 부탁을 듣고 악귀들에게 잡혀 있던 양치기 부모를 구하기로 하고 험난한 길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뛰어난 힘을 가진 케르굴라의 활약으로 악을 다 물리친다.

이 민담은 말을 생활의 터전으로 하는 카자흐인들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제압한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전설적인 힘을 가진 ‘케르굴라’라는 말을 등장시켜 말과 카자흐인의 밀접한 관련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르굴라 말을 탄 칸데바이
- 다국어 표기 Кергүлдің атында Кендебе(카자흐어), Кендебай на коне Кергул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구전 문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rtegi.ru/index.php?id=1&sidnametext=119&idpg=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 второй, Алма-Ата: Жазушы, 1971 г.

I G240 | 케말리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emalizm

케말리즘은 아타튀르크주의라고 불리는데 튀르키예 공화국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건국 이념이다. 케말리즘을 근간으로 아타튀르크 집권기 튀



아타튀르크와 튀르키예 국기(앙카라, 튀르키예)

르키에 공화국은 과거의 오스만 제국과 단절시키고 근대화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케말리즘은 공화주의, 세속주의, 인민주의, 혁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6가지의 통치 이념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케말리즘은 통상 6개의 화살로 표시된다. 이러한 아타튀르크의 지도 이념은 오스만 제국기에 그 자신도 일원이었던 청년 투르크당(Young Turks)의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된다. 오늘날 케말리즘을 정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은 지1야당인 공화인민당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말주의
- 다국어 표기 Kemalism(영어), Kemaliz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청년 투르크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Eric J. Zürcher, *Turkey: A Modern History*. New York, J.B. Tauris & Co Ltd. "Kemalism – Oxford Islamic Studies Online".

I G241 | 케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eep

케페는 투라의 전령으로 그의 이름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추바시 전통 신 중 하나이다. 그래서 투라의 역할은 폴레흐나 하르판과 겹친다. 케페는 홀로 사는 노파에게서 나온 여성 신이며, 이름의 어원은 마리인들의 카바(Кава, 하늘이란 뜻)나 우드무르트인들의 카바-인마르(Каба-инмар, 운명의 여신)와 비교되곤 하는데, 마리어로 카바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

케페는 고대 핀-우그르 신관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하자르 통치 시기의 추바시인들이 사용했다. 또 케페를 히브리어 코카브(кокаб, '별'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고대 그리스의 여신 헤베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추바시 민간 신앙에 따르면 케페는 하늘의 신으로 하늘에서 살지만 그녀의 힘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케페는 투라와 인간들의 선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존경을 받는 신이다. 추바시인들은 모든 기도에서 투라에게 기원을 전달해 달라고 케페에게 기도한다.

케페는 개인의 행복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그 가족들까지 담당한다. 케페는 추바시인들과 다른 신들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제물을 바치곤 했다. 제사는 주로 가을에 거행되었으며 맥주, 죽, 빵과 같은 곡물에서 나온 것들이나 거위, 양 같은 동물에서 나온 산물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베
- 다국어 표기 Kene(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인, 투라, 폴레흐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31~33.

Ⅰ G242 Ⅰ 켈린 살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Kelin salom

켈린 살림(Kelin Salom)에서 ‘켈린(Kelin)’은 ‘신부’, ‘살림(Salom)’은 ‘인사’를 의미한다. 신부 인사는 우즈베크인들의 고유 전통이다. 다른 투르크 민족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존재하지만, 우즈베크인들의 켈린 살림(Kelin Salom)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명칭도 다르다.

켈린 살림은 결혼식 다음 날 신부가 신랑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는 풍습이며 이때 신랑은 참석하지 않는다.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드레스를 입는다. 대체로는 신부가 인사를 드리는 날, 신부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또는 특별 초청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켈린 살림은 신부를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의미를 넘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신앙에 따라 신부



켈린 살림

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결혼식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심리적, 예술적 그리고 미적 기능을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켈린 살림, 켈린 살림
- 다국어 표기 Kelin salom(우즈베크어), Келин-салом /Приветствие невесты(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o'laboyev O. va boshqalar, *XX asr o'zbek folklorshunoslig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Davlat ilmiy nashriyoti. 2017.

I G243 | 코네우르겐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nye-Urgench

코네우르겐치는 아무다리야강 남쪽에 위치해 있다. 원래 이름은 구르간지(Gurganj)이며 그 정확한 뜻은 알려지지 않았다. 13세기 몽골의 침략 이후 우르겐치로 이름이 불리게 되었고, 17세기에 세워진 새로운 우르겐치와 구분하기 위하여 구(舊)라는 의미의 코네(쿠네: كهنه)를 덧붙였다.

코네우르겐치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B.C. 5세기~B.C. 4세기경에 이미 도시 방어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712년 아랍 이슬람 세력이 우마이야 시대에 코네우르겐치를 정복했다. 이들은 트란스옥시아나, 호라산, 페르가나와 함께 코네우르겐치를 투르크িস탄 지역의 입구로 생각했고, 이에 코네우르겐치에 성문을 만들고 궁전을 짓게 되었다.

사만 조 시대(819년~1005년) 초기에는 코네우르겐치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만 조가 호라즘 지역을 모두 손에 넣었던 995년 이후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코네우르겐치는 호라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학문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코네우르겐치에는 당대 이슬람 세계의 주요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븐 시나(Ibn Sina, 980년~1037년), 알 비루니(Al-Biruni, 973년~1050년), 이븐 이라크(Ibn 'Irak, 11세기) 등이 그 예이다.

1043년 셀주크에 의해 정복된 코네우르겐치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세기~12세기의 코네우르겐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1세기 코네우르겐치는 호라즘 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220년 몽골군이 호라즘 지역을 침공하며, 코네우르겐치에도 진군했다. 코네우르겐치의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도시를 방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했으나, 1221년 결국 몽골군은 코네우르겐치를 정복하고 파괴했다. 당시 많은 마드라사와 도서관 등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그 당시까지 이름이 '구르간지'였던 이곳을 몽골인들이 우르겐치로 불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



코네우르겐치

Source: <https://whc.unesco.org/uploads/>

오게 되었다.

도시가 재건된 13세기에는 서아시아와 유럽, 극동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1388년 티무르(Timur, 재위: 1370년~1405년)는 이곳을 정복하며 원래의 주민들을 사마르칸트로 보내고 남은 자리에 보리를 심도록 했다. 코네우르겐치는 후에 샤 루흐(Shah Rukh, 재위: 1405년~1447년)에 의해 재건되었다. 한때 코네우르겐치는 티무르의 주요 도시가 되기도 했으나 과거와 같은 상업적 중요성은 되찾지 못했다. 1430년~1431년에 우즈베크인들이 티무르의 코네우르겐치 지배를 종식했으나 격하된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코네우르겐치는 1511년 히바 칸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1619년 아랍 무함마드 칸(Arab Muhammad khan, 재위: 1602년~1623년)이 히바로 천도했고 1645년 히바의 북동쪽에 새로운 우르겐치가 건설되면서 이곳은 평범한 도시로 남게 되었다.

20세기 초 소련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발굴 및 연구를 시작했고, 200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콘예 우르겐치
- 다국어 표기 Köneürgenç(투르크멘어), Ko'hna Urganch(우즈베크어), Köhne Ürgenç(튀르키예어), Köhne Ürgenc(아제르바이잔어), Ypreniш(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히바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199_0007-1000-750-20140512170936.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1199/>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eri, Aydın. "GÜRGENÇ",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4, Istanbul: TDV, 1996, pp.321~323. Spuler, B. "GURGANDJ", *Encyclopedia of Islam* VOL.II. (ed. 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Brill, 1991. pp.1141~1142

I G244 I 코니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onya

코니아는 튀르키예의 아시아 쪽 영토인 아나톨리아 고원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의 수도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신약 성서에는 이코니움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바르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며 이코니움을 방문한다. 그들은 이코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그 지역 유대교 지도자의 공격을 받아 리스트라와 데르메로로 떠났다.

코니아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1세기 말에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의 중심지가



코니아 Golden Street

된다. 1243년 몽골군의 공격으로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는 몽골 일 칸국의 속주가 된다. 몽골군이 물러간 후 여러 소공국으로 나뉘었다가 1420년 오스만 제국에 편입되었고 1453년 지방 수도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코니아는 곡창 지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 아나톨리아의 새로운 공업 중심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해마다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코니아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이슬람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소리마저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이슬람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이다.

관광지로 알려진 모스크도 유명하지만 메블라나 박물관도 인기가 높다. 이곳을 방문하면 튀



코니아 메블라나 박물관

르키예 수피즘 신비주의 교단의 창시자 메블라나 루미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니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다수가 메블라나 루미를 찾아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냐, 코니아, 코니아
- 다국어 표기 Iconium(그리스어), Konya(영어,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조, 메블라나 루미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01』, 2010, 책문.
Turkey: Major cities and provinces”. Citypopulation.de. Retrieved 2015-02-08.

I G245 | 코니아 성벽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성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nya citadel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가 코니아로 천도하기 전에 코니아에는 비잔틴 시대 이래 존재했던 성벽이 있었다. 이 성벽은 오늘날 알라엿딘 테페시(Alaeddin Tepesi)라고 알려진 언덕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이 성벽 내에 주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니아가 셀주크의 수도로 천명된 1097년 이후에도 한동안 비잔틴 시대의 이 성벽을 이용하여 적을 방어했다. 코니아가 수도로서 기능하며 거주민이 증가하고 상업 지구가 거대화되면서 1221년 약 4km 가량의 성벽을 새로 쌓게 된다. 새로운 성벽의 발달로 기존 성벽과 방어 시설은 아성(牙城: 방어를 위하여 요새화 된 탑)이 되었고, 코니아 성벽은 이중 구조를 이루게 된다. 코니아의 경우 상업 지구가 성외에 있던 다른 셀주크 도시와는 달리 상업 지구가 내성 쪽에 위치했다. 알라엿딘 테페시 위에 당시 성이었던 알라엿딘 쾨시퀴(Alaeddin Köşkü)가 존재했으며 그 외에도 마드라사와 모스크가 성내에 있었다.

셀주크 시대 이후 카라만 조 시대와 오스만 시대에도 코니아 성벽은 지속적으로 수리되고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으로 기능했으나 19세기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코니아를 방문했던 여행가들의 스케치를 통해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성벽의 원형을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내성 벽의 일부는 인제 미나렐리 메드레세(İnce Minareli Medrese) 박물관 건너편에 남아 있어 보호되고 있으며 외성 벽 일부가 상가 뒤편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성벽에는 원래 18개의 출입구가 있었으며 성벽은 인간, 천사, 물고기, 용, 사자, 쌍두 독수리 같은 다양한 문양이 양각으로 조각되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천사 조각으로 아치 형 입구 양쪽에 조각되어 있었다. 쌍두 독수리 조각은 셀주크의 상징이자 알라엿딘 케이쿠바드(I. Alaeddin Keykubad, 재위: 1220년~1237년)를 대표하는 문양이다. 이 조각들은 성벽의 건설과 수리와 관련한 비문과 함께 코니아 인제 미나렐리 메드레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코니아 성벽은 현재 거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나 당대의 석재 조각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셀주크 시대의 도시화와 도시 발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코니아 성벽 인근 알라엠티단 테페시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니아 성, 콘야 성벽
- 다국어 표기 Konya kalesi(튀르키예어), Konya Sur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알라엠티단 궁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26/konya-2.jpg>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26/konya-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uran, Aptullah. *Selçuklular'dan Cumhuriyet'e Türkiye'de Mimarlık*,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2012.
Tanyeli, Uğur. *Anadolu-Türk kentinde fiziksel yapının evrim süreci (11.-15. yy.)*, İstanbul: İ.T.Ü. Mimarlık Fakültesi, 1987.

I G246 | 코니아 알라엠티딘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nya Alaeddin mosque

코니아 알라엠티딘 모스크의 북쪽 면 위쪽에 있는 팔각별 형태의 아랍어 비문에는 술탄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Sultan Alâeddin Keykubad, 재위: 1220년~1237년)가 이 모스크의 건설을 명했다고 적혀 있다. 그 오른쪽 대리석에는 모스크의 건축가는 드마쉬클르 무함마드 빈 하블란(Dîmaşklı Muhammed b. Havlân), 후원자는 아타베그 아야즈(Atabeg Ayaz)라고 적혀 있다. 모스크의 정문 위에 위치한 아랍어로 된 비문에는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의 명으로 1220년에 아타베그 아야즈 감독이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비문에는 술탄 케이카부스 1세(Sultan I. Keykâvus: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의 다른 호칭)의 명으로 1219년 아타베그 아야즈(Atabeg



알라엠티딘 모스크

Ayas) 감독하에 건설하도록 명령했다고 표기되어 있다.

높이 솟은 모스크의 대문은 유색석과 대리석을 기하학적 문양을 구성하도록 쌓아 올렸다. 알라엠티딘 모스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재료이다. 주재료는 석재이지만, 특히 이전 시대 건축물의 자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건물 일부는 무덤 비석이나 교회, 비잔틴 시대 건축물에서 가져온 자재로 만든 것이 보인다.

이 모스크는 평면도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하다. 정문이 있는 북쪽 벽은 안마당으로 이어진다. 이 마당에 두 개의 영묘가 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미흐랍과 미흐랍이 있는 돔이 위치해 있다. 평지붕으로 된 이완과 함께 기도실이 있는 동쪽 부분은 6열의 열주와 서쪽 부분은 4열의 열주로 구성되어 있다.

알라엠티딘 모스크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 모스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돔이 있는 미흐랍 앞까지 나가기에는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이 모스크가 한 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 증축 또는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알라엠티딘 모스크 전면



알라엠티던 모스크 내부

지배적이다. 기도 공간이 나중에 추가로 증축되었다는 학설과 열주로 구성된 이 기도 공간이 사실은 영묘와 미흐랍이 있는 공간과 연결해주는 통로였으나 후에 신자 수가 많아져 기도 공간으로 결합했다는 학설이 있다.

알라엠티딘 모스크의 돔과 미흐랍은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마당의 동쪽에 있는 십각형 영묘의 주재료는 석재다. 내부는 목재 돔으로 되어 있으나 밖은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다. 지붕은 벽돌로 되어 있지만, 과거 걸면을 타일로 장식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영묘는 클르츠 아르슬란 2세(재위: 1156년~1192년) 시기에 건설되었고 건축가는 압뮐가파르 오울루 유수프(Abdülgaffar oğlu Yûsuf)이다. 영묘 내부에는 타일로 덮인 8개의 관이 있다. 이 타일 위에 이름이나 비문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8개의 관 중 4개는 현재 소실된 상태이다. 남아 있는 타일 위의 기록을 볼 때 관의 주인 중 하나는 클르츠 아르슬란 2세(II. Kılıç Arslan, 재위: 1156년~1192년)이다.

두 번째 영묘는 첫 번째 영묘의 서쪽에 있고 지붕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윗부분에 돔이나 삼각뿔이 있었는지, 원래 미완성이었는지 여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영묘의 정문의 경우 윗부분을 두 가지 색의 돌로 배치하여 장식성을 드러낸다. 문 위의 비문은 비어 있으며 내부에 어떤 관도 남아 있지 않다. 내부에는 타일로 화려하게 꾸민 무카르나스가 있는 미흐랍이 존재한다.

알라엠티딘 모스크에는 셀주크 시대의 가장 오래된 설교단이 있다. 1115년 흑단으로 제작되었으며 술탄 메수드(Sultan Mesud, 재위: 1116년~1155년)와 클르츠 아르슬란 2세, 그리고 제작자인 아흐랏틀르 우스타 멘굽베르티(Ahlatlı usta Mengümberti)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에딘 모스크, 알라엠티딘 자미, 알라에딘 자미
- 다국어 표기 Alaeddin camii(튀르키예어), Alaeddin cam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클르츠 아슬란, 코니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5/Alaedin_Camii.JPG/1280px-Alaedin_Cami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Eyice, Semavi. “Alaeddin camii” *İslâm Ansiklopedisi* Cilt 2, Istanbul: TDV, 1989, pp.324~32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G247 | 코니아 인제 미나렐리 마드라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nce Minareli Madrasa

코니아 인제 미나렐리 마드라사는 셀주크 조 이젯딘 케이쿠바스 2세(II. İzzeddin Keykâvus, 재위: 1246년~1262년) 시대의 베지르였던 사힌 아타 파흐레틴 알리(Sahip Ata Fahrettin Ali: ?~1288년)의 명으로 1260년~1265년에 건설되었다. 건축가는 당대의 유명 건축가 켈뤼크 빈 압둘라(Kelük bin Abdullah)이다. 마드라사의 기능이 추가 되어 있으나 주 건물에 각종 부속 건물과 기도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복합단지로 계획하여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제 미나렐리 마드라사는 19세기까지 마드라사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될 만큼 인상적인 미너렛의 일부는 1901년 번개로 훼손되었고 1936년 이후 시작된 다양한 복구 공사를 거쳐 현재는 석공예 및 목공예 박물관(Taş ve Ahşap Eserler Müzesi)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재가 주로 사용된 본 마드라사는 천장이 있는 중정 형식이며 이완은 하나이다. 대문은 동쪽에 있는데, 셀주크 시대의 석재 세공의 절정을 보여준다. 입구 양쪽에 자리한 작은 기둥과 아치는 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곳의 서체 장식도 유명하다. 대문 중앙에는 두 개의 띠가 얽힌 것처럼 보이는 긴 판 위에 석재 양각 솔루스 서체로 코란의 일부가 적혀 있다. 대문 벽감 아치 부분의 로제트에는 건축가의 이름이, 내부의 돔을 지지하는 부분을 둘러싼 띠에는 쿠팅 서체로 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대문으로 들어와 교차궁륭으로 덮인 방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중앙에는 수조가 있으며 그 위로 돔 천장이 보인다. 돔은 팬던티프로 지지되고 있으며 벽돌과 타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사각형의 중정 남쪽과 북쪽에는 통형천정으로 덮인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 있는데, 이 방들은 학생들이 사용했다.

중정에서 세 개의 계단을 밟아 올라 이완으로 진입할 수 있다. 건물 서편에 위치한 이완은 볼트와 아치로 장식되어 있고 벽돌로 덮여 있으며, 이 벽돌은 교차로 쌓아 올려 장식성을 강조했다.

마드라사의 이름을 따오게 된 미너렛은 원래 마드라사와 붙어 있는 기도 공간에 포함된 것으



코니아 인제 미나렐리 마드라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로 마드라사 건물의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미너렛은 정사각형 플랜 위에 다듬돌로 만들어진 밑받침 위에 벽돌로 쌓아 올렸다. 몸체는 유약을 바른 벽돌과 타일 조각으로 장식되었다.

이 건물은 당대 석재 조각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박물관에는 셀주크 조와 카라만 공국의 석재, 대리석 조각품, 코니아 성벽에 있었던 조각들, 석재 관, 목제 창문과 창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셀주크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 조각과 천사상 조각도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인세 미나렐리 메드레세, 인제 미나렐리 메드레세, 인제 미나렐리 메드레세시
- 다국어 표기 Ince Minareli Medrese(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7/Ince_Minareli_Medrese_01.jpg/1024px-Ince_Minareli_Medrese_01.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7/Ince_Minareli_Medrese_02.jpg/800px-Ince_Minareli_Medrese_02.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ulturportali.gov.tr/turkiye/konya/gezilecekyer/nceminare-tas-ve-ahsap-eserleri-muzesi>

● 참고문헌(오프라인) Akok, Mahmut. “Konya’ da İnce Minareli Medrese’ nin rölöve ve mimarisi” *Türk Arkeoloji Dergisi*, 19/1, 1970(1972), pp.5~36.

Akok, Mahmut. “Konya’ da restore edilme yoluyla kurtarılması düşünülen üç Selçulclu eseri, Sırçalı, Karatay ve İnce Minareli Medreselerin restorasyon projeleri” *Türk Arkeoloji Dergisi*, XXIV /1, 1977, pp.41~69.

I G248 | 코란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경전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Kuran

코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다. 코란은 ‘낭송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 동사 ‘까라아’에서 파생된 동명사로 ‘낭송함, 낭송’이라는 뜻이다. 무슬림 전승에 따르면, 코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경 예언자가 된 후 632년 죽을 때까지 약 22년 동안 아랍어로 계시된 알라의 말씀을 담고 있다. 무슬림은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렸다고 믿는다.

코란은 운율 있는 산문체로, 총 114장, 약 6,000절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그리스도교 신약 성서의 약 삼분의 이에 달한다. 무슬림 학자들은 무함마드의 삶의 궤적을 따라 코란을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로 구분한다. 1장을 제외하고 2장부터 대체로 긴 장이 앞쪽에, 짧은 장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긴 장은 메디나, 짧은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것으로 본다.

메카 계시는 간결하고 강렬한 문체를 지녔고, 메디나 계시는 길고 논쟁적이며 법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계시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 내려왔는데, 무함마드 사후 구전 및 각종 기록체에 적은 것을 취합하여 약 651년경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형태의 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무슬림의 코란 형성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코란은 카이로 판본이 저본(底本)이다. 1924년 7월 10일



코란과 염주

(이슬람력 1342년 돌히자월 7일)에 이집트 정부 위원회에서 7가지 독송법 중 하나를 채택하고, 이를 연말과 1936년에 부분 수정하여 오늘날 카이로 판본으로 결정했다. 전통적으로 무슬림은 코란의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카이로 판본에서 처음으로 장과 절을 나누었다. 카이로 판본은 당시 국왕 파루끄(Faruq, 1936년~1952년 통치)의 이름을 따서 파루끄 판본이라고도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란, 쿠란, 꾸란, 꾸르안
- 다국어 표기 Qur'an(아랍어), Kuran(튀르키예어), Quran(아제르바이잔어), Қуръон(타지크어), құран(카자흐어), куран(키르기스어), Qur'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인질, 예언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irmingham_Quran_manuscrip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Welch, A. T. and J. D. Pearson. "al-Ḳur'ān."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5, 400-432. Leiden: Brill, 1986.
Leemhuis, Frederik. "Readings of the Qur'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vol. 4, 353-363.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4.

I G249 | 코란 해설서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ur'an Tercümeleeri

투르크 역사 중 최초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카라한 칸국 시기에 투르크어로 작성된 코란 해설서가 처음 등장했다. 카라한 칸국 당시 통용되던 카라한 투르크어로 작성된 코란 해설서는 현재 맨체스터의 존 라이랜즈 도서관(John Rylands Library)에 '라이랜즈 판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작품은 원어의 바로 밑에 카라한 투르크어로 직역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판본은 총 14개의 서적 그리고 1,145장으로 구성된다. 번역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유실로 인하여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다. 연구자들의 추정으로는 만수르 누흐(Mansur b. Nuh) 재위 당시 코란을 페르시아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이스피카(Ispica) 출신 투르크학자에 의해 투르크어로 번역되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라이랜즈 판본 이외에 카라한 칸국 당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코란 해설서들은 몇 권 더 존재하며, 판본들은 다음과 같다.

- 레닌그라드 아시아 박물관 도서관(Leningrad Asya Müzesi)에 소장되어 있는 집필 날짜와 번역한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판본
- 이스탄불 투르크 이슬람 작품 박물관(İstanbul Türk İslan Eserleri Müzesi) 작품 번호 73번, 전체 텍스트와 함께 902쪽 분량의 번역서
- 타슈켄트 우즈베크 과학 아카데미 작품 번호 2854번 판본

코란 번역서들은 원어 문장 다음에 번역어 문장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아랍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이슬람을 새롭게 받아들인 투르크인들이 아랍어 단어들과 표현들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세심하게 풀어서 썼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란의 번역서
- 다국어 표기 Quran translations(영어), Kur'an Tercüme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투르크어, 카라한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TOGAN, Z., "The Earliest Translation of the Qur'an into Turkish." *İslam Tetkikleri Dergisi*, 4., 1964.
- İnan, A., *Kur'ân-ı Kerîm'in Türkçe tercemeleri üzerinde bir inceleme*.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61.

I G250 | कोरो글루 서사시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오은경,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Epic of "Koroğlu"

「코로글루」는 17세기부터 중동,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진 투르크(오구즈) 민족의 기념비적인 구비 서사시이다. 19세기 페르시아 문학에 따르면 코로글루는 사파비 왕조의 압바스 1세 시기에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활동했던 음유 시인이자 도적이다. 이 「코로글루」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쿠르드, 불가르, 이란 소수 민족에게도 전파되면서 18개~30개 가량의 다양한 버전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서사시는 워낙 넓은 지역에서 파생되었기에 판본들을 편의상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 서부 판본: 아제르바이잔의 서사시 「코로글루(Көр-оглы, Koroğlu)」에서 파생한 아르메니아, 조지아, 쿠르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판본들
- 동부 판본: 투르크멘 판본 「교로글리(Гёроглы)」, 우즈베크와 카자흐 판본 「고르-오글리(Гор-оглы)」

* 동부 판본에는 타지크 서사시 「구르-우글리(Гур-угли, Гур-гули)」가 포함되지만, 캅카스의 키질바시(Qizilbash) 파벌과의 투쟁 내용이 담겨 있어 독립적인 판본 유형으로 보기도 함.

「코로글루」 서사시의 줄거리, 발음, 사건 발생 지역, 인물의 이름이 버전별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투르크-오구즈(türk-oğuz) 서사시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투르크어로 코로글루(Kop-ogly)는 ‘소경의 아들’을 뜻한다. ‘코르(고르, 교르, 코르)’는 ‘장님’이란 뜻이며, ‘오글루(오울, 오길, 울, 오굴 등)’는 ‘아들’을 뜻한다. 한편 코로글루는 ‘무덤에서 난 아들’이란 의미도 있다. 동부 판본에 따르면 코로글루의 어머니는 임신한 채로 매장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 살아남아서 코로글루로 불렸다고 한다. 가푸로브(A.G. Gafurov)는 코로글루는 ‘구르-오글리(위대한 아들)’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코로글루」는 주로 아시옥이나 바흐시 같은 음유 시인들이 전파했으며, 이들의 다국어 능력 덕분에 북호라산,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남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다양한 다스탄(더스텐)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

「코로글루」의 모든 판본에서 코로글루는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에 대항하는 강도이자 시인-아시옥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산문이나 운문으로 구성된다. 「코로글루」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눈을 잃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영주 해센-한(Həsən xan)은 마부 알리-키시(Alı kişi)가 자기의 손님 해센-파시에게 불품없는 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알리-키시와 그의 아들 뢰브썬(Rövşən)은 그라트(Qırat)와 뒤라트(Dürat)라는 해센-한의 암말과 마법의 해마(海馬, dərya atı) 사이의 혼혈마를 훔쳐 달아난다. 아들 로브산은 눈 먼 아버지 때문에 코로글루로 불렸다. 알리-키시와 코로글루는 해센-한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이집트의 칼’을 준비해 무례한 자의 머리를 베어 버린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산으로 도망쳐 고샤부라그(Qoşabulağ) 샘 주변의 첸리벨(Çənlibel) 지역에 자리 잡는다. 고샤부라그 마법의 샘으로 코로글루는 여기서 노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는 강도 델리-해센(Dəli Həsən)의 패거리에게 합류한다. 코로글루의 복수 때문에 그는 지역 영주들의 목표가 된다. 이 때문에 코로글루는 유럽의 로빈후드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된다. 코로글루의 모험 중 하나는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되는 이스탄불 술탄의 딸 니가르(Nigar)와의 만남이다. 술탄이나 칸의 딸이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코로글루」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여인들은 코로글루의 용맹과 공정함에 반하게 된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모험으로는 대장장이 데미르치오글리와의 만남, 바그다그의 감옥에서의 친구 구출, 대머리 함자의 말 키라트 훔치기 등이 있다. 아나톨리아 판본에서 코로

글루의 아버지는 미르자베이로 불린다. 여기서 잔혹한 통치자는 볼루베이(볼루 지역의 통치자란 의미)이다.

「코로글루」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민족, 정치 이념에 따라 다른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변용되었다. 「코로글루」의 서부 유형은 서사적 전설이 영웅 서사시가 되기 이전의 세태 묘사나 역사적 인물 묘사를 담고 있다. 서부 유형 판본 대부분에서 코로글루는 ‘고결한 도적’으로 그려지고, 모든 서부 판본에서 주인공은 민중의 보복자이자 음유 시인이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한 폭군에 대한 복수이다. 또한 서부 판본들은 서사적, 서정적 노래들이 삽입된 시로 구성된 코로글루의 업적에 관한 개별 산문 이야기들로 구성되며, 노래의 작가는 주인공 자신이다.

라이홀(Райхл)은 이 서사시가 16세기 아제르바이잔에서 생겨났다고 추측한다. 요시프 브라긴스키(Иосиф Брагинский)도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실제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윌크스(Wilks)는 「코로글루」 등장인물의 원형이 나중에 사파비 왕조에 가서아바스 대제를 섬긴 반오스만운동인 젤랄리 봉기(Celali ayaklanmaları)의 참가자라고 보았다. 투르크멘 학자들이나 튀르키예, 러시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학자들은 아제르바이잔 버전의 「코로글루」가 가장 오래된 판본이며, 나머지 다스탄 판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오래된 아제르바이잔 판본에서는 반(反)오스만 정서가 그 중심에 있으며, 오스만의 술탄 무라드가 주적이다. 아르메니아 판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사시의 내용 자체는 풍부하고 흥미로운 구비 문학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 아나톨리아와 발칸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판본은 작은 단편 형태인데, 그 주인공은 지방의 영주와 싸우는 도망자가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줄거리를 가진다.

동부 판본 중 키르기스 서사시에서는 코로글루 이야기는 마나스와 알퍼므쉬 서사시 연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다른 투르크 민족에게서 알퍼므쉬는 특별히 오디세이 이야기와 관련된다.

아제르바이잔 버전의 코로글루의 본명은 뢰브샨 알르(Rövşən Alı)이며 그의 어머니는 빛을 받아 그를 잉태한다. 코로글루의 아버지는 칸(또는 지주)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님이 된다. 코로글루는 용감한 친구를 모아 칸(또는 지주)에 대항하고 자유를 위한 투

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버지를 장님으로 만든 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민중을 수탈하는 칸에 대한 저항이었다. 코로글루의 투쟁에 동참하는 친구들로는 델리 해센(Dəli Həsən), 에이와즈(Eyvaz), 대미르치오글루(Dəmirçiöglu)가 있으며 코로글루의 아내 니가르(Nigar)도 포함된다. 코로글루의 말(馬)의 이름은 크랏(Qırat)이며 검은 미스리(Misri)라고 불렸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살았던 곳은 찬리벨(Çənlibel)이다. 코로글루는 때로는 아시옥(aşıq) 역할도 했다. 그는 사즈를 연주하며 시를 노래했다.

튀르키예, 투르크멘, 우즈베크, 카라칼팍, 시비리 투르크, 불가리아 투르크의 ‘코로글루’ 서사시 바탕에는 아제르바이잔 버전의 영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코로글루 서사시의 투르트멘 버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지나는 아라즈 강(Araz çay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코로글루의 아버지가 즈갈르 베이(Cıǵalı bəy)에 의해 장님이 된 이후, 그는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라즈 강(Araz çayı)의 인근에 있는 높은 산 뒤편에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코로글루의 행동 반경은 테브리즈, 이스탄불, 바그다드까지 이른다. 코로글루 서사시의 일부분을 17세기~18세기 쥐느징(cüng-시선詩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앤대립 가라자다기(Əndəlib Qaracadağı, 18세기)의 『시집(Şeirlər məcmuəsi)』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유 시인들은 「코로글루」 서사시를 현악기 사즈(sâz)나 돔브라(dambura), 두타르(dutâr)의 반주에 맞춰 공연하곤 한다. 일부 전통에서 「코로글루」는 완전히 독립적인 음악 장르이기도 하다. 이때는 특별한 가창력 훈련과 기억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흐션에서는 「코로글루」 해설자가 낮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특별한 창법을 구현해 낸다. 현대 타지키스탄과 북아프가니스탄에서는 「코로글루」 공연 훈련을 받은 가수들을 고르글리한(Goroğli-kvân), 고르골리한(Gorğoli-kvân) 또는 고르오글리구(Goroğli-gu)라고 부른다.

오늘날 「코로글루」의 모든 에피소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수들은 필사되거나 저렴한 출판 형태로 보존된 문학 원전을 찾아보곤 한다. 호라산에서 바흐시들은 광고지 뒷면에 표지가 인쇄된 다스탄 사본(Kolliyât-e dâstân-e Kuroğli)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에 재출판된 것이었다. 이 「코로글루」 출판 사본은 페르시아 산문 서사를 대체하는 아제르바이잔어 4행시(qoşma)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 라이홀과 마르크 슬로빈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투르크어가 시어(詩語)로 남아 있지만 공연에서 음유 시인은 산문을 자기 청중들의 언어로 각색한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몇몇 판본 형식에 산문 형태가 사

용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 판본에는 운문만이 사용되었다.

「코로글루」는 주로 찻집이나 사적 모임들, 집안의 대소사 등에서 주로 공연된다. 아제르바이잔과 북호라산에서는 17세기 이래 1978년 이슬람 혁명 때까지 찻집이 이 서사시의 보급과 보존의 주역이었다.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계속된다. 호라즘의 공연에서는 바흐시가 전곡을 공연하는 데 17일이 걸리기도 했다.

「코로글루」 연주자들은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음률을 사용한다. 주된 음률은 8음절에서 11음절로 이루어진 4행시인데, 각 연은 목소리 음률을 악기로 연주하는 간주곡으로 나뉘게 된다. 호라산에서 「코로글루」 음률은 높은 음역대에서 낮은 음역대까지 격차가 크며 종종 음정을 넘어서기도 한다. 또 여기서 음률은 순수하게 기악곡처럼 연주되기도 한다.

「코로글루」의 판본 중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특징을 강조한 판본은 제목에 붙어 있는 수식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코로글루」를 장기괴로글루(JangiKoroğlu)라고 부르는데 ‘전사 코로글루’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달리 코로글루(Dali Koroğlu)’, ‘화난 코로글루’ 혹은 ‘피의 코로글루(Qanlı Koroğlu)’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라산 바흐시들은 ‘라즈미(호전적인) 코로글루’라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퀴르오울루, 괴로글루, 괴로울루, 고르클리, 교르오클리, 코르오클리, 코르오울루, 괴로글루

● 다국어 표기 Kōroğlu(튀르키예어), Go‘ro‘g‘li(우즈베크어), Гүрғули(타지크어), Көроғлы(카자흐어), Koroghlu(영어), Koroğlu(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바흐시, 마나스, 알퍼므쉬, 사즈, 돔브라, 두타르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koroglu-00-paren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kroglu-i-literary-tradition>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pp. 913~950.

Pertev Naili Boratav, “L’épopée et la hikāye”, ed. Jean Denyetal, 3(vols), *Wiesbaden 1959-70*, II, 1964, pp.11~44.

Жирмунский В. М. и Зарифов Х. Т., *Узбекский народны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М., 1947.

Каррыев Б. А., *Эпические сказания о Кёр-оглы у тюрк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М., 1968.

Короглы Х., *Новая версия «Кёроглу»*, в кн.: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восточных литератур*, М., 1969.

К. Райхл, *Тюркский эпос: традиции, формы, поэ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тр. 328.

I G251 | 코무즈(키르기스스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omuz

코무즈는 키르기스인들의 손가락으로 뜯는 3현의 현악기이다. 형태는 길고 가는 목을 가진 류트 유형이다. 지지대가 없는 목에 나무를 통째로 깎은 서양배 형태의 몸통이 일체를 이룬다. 코무즈의 일반적인 길이는 90cm 정도이다. 4도나 5도 음정으로 조율된다. 가운데 현은 멜로디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저음부를 맡는다.

코무즈 전문 연주자를 코무즈치(комузчи)라고 부른다. 연주할 때는 기타와 비슷하게 코무즈를 25-30도로 잡는데, 전문적인 연주자들은 기교를 보이면서 손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소리를 내는 기법이 많이 있으며, 현을 뜯을 때는 모든 손가락을 사용한다. 현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장식 선율의 역할을 하는 세련된 소음정들을 구사할 수 있다. 코무즈의 음정은 가볍고 소리가 크지 않다.

키르기스의 이 악기는 기원전 201년 사마천의 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9세기~10세기 오구즈 영웅 서사시 「현자 코르쿠트의 서(Китаби деде коркуд)」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키르기스 예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무즈를 연주할 때는 아킨이 노래를 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독창 반주 외에 민족 악기 협주에도 사용된다. 코무즈와 유사한 친족 관계의 악기들로는 아제르바이잔의 고푸즈(qopuz), 바시키르 민족의 둠비라(думбыра), 튀르키예의 고푸즈(Kopuz), 하카스 민족의 호미스(хомыс), 야쿠트 민족의 탕시르(тангсыр)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무즈, 코미즈
- 다국어 표기 Комуз(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킨, 현자 코르쿠트의 서, 키르기스, 둠비라, 호미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Изд. 4. Том 14. Москва, 2009, с.718.

I G252 | 코무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muz

코무즈는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둔 투르크의 현악기로 투르크에서 사용하는 악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무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몸체는 서양배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에 현은 세 개다. 프렛은 없고 플렉트럼 대신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종류에 따라 활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몸체는 목재, 현은 동물의 내장을 꼬아 만들거나 말꼬리로 만든다. 활도 주로 말꼬리를 이용하여 만든다.

코무즈의 초기 모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훈족의 악기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무즈의 악기 형태 자체는 여러 변화 과정을 겪었으나 코무즈라는 이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해져오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캅카스, 아나톨리아반도, 발칸에 이르기까지 코무즈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악기는 거의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코무즈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위구르 문서이다. 10세기에 번역된 이야기에 왕자가 코무즈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구절에서 언급된다. 다른 한편 신장 지구에 있는 석굴 사원 벽화에서도 현악기가 묘사되고 이를 코무즈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튀르키예어 표기: *Divânü lugâti't-Türk*)』에서는 코무즈라는 단어를 우드와 유사한 악기로 밝히고 있다. 투르크 전설에서 코무즈는 현자 코르크트(Dede Korkut)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성스러운 악기라고 믿고 있다. 현자 코르크트 전설에서도 코무즈는 자주 등장한다. 15세기 페르시아 음악학자 아브드 알 카디르 마라기(Abd al-Qadir Maraghi)도 그의 저서에서 ‘코푸즈 루미(Kopuz-ı Rumî)’, 즉 ‘아나톨리아의 코푸즈’라는 악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우드와 유사한 악기라고 밝히고 있다. 코푸즈 루미는 두 현으로 한 쌍을 이룬 다섯 쌍의 현이 달린 악기이며 몸체의 절반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그는 ‘코푸즈-으 오잔(Kopuz-ı ozan)’이라는 악기에 대해 언급하며, 이 악기는 삼현 악기이며 목재 플렉트럼으로 연주한다고 설명한다. 역사학자 이븐 비비(İbn-i Bibi, ?~1283 또는 1296년)는 아나톨리아 셀주크의 군대에는 코무즈를 연주하며 승리를 묘사하는 음악가가 존재

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오스만 시대에서는 왕자들의 할례 의식과 공주들의 결혼식 등에서 행하는 에스나프 알라이이(Esnaf Alayi, 길드 행진)가 있는데, 여기서도 코무즈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묘사된다. 이외에도 코무즈는 투르크 시에서도 자주 묘사된다. 14세기~16세기 차가타이 투르크어, 아제르바이잔어, 아나톨리아 투르크어로 부르는 시에서도 코무즈가 묘사되기도 하고, 실제 시 낭송 시 사용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투르크 사회에서는 사가나 서사시 등을 노래할 때 코무즈가 사용된다. 코무즈는 악령을 쫓아내고 선한 영혼에게 도움을 청하는 도구로서, 치료와 종교적 의식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물론 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투르크가 활발하게 이주했던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 트란실바니아와 같은 곳에서도 유사한 이름과 형태의 악기가 전해오고 있다.

일부 투르크 사회에서는 코무즈가 샤먼 문화에서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카자흐 박시가 사용하던 2현 코무즈의 현 중 하나는 태양을, 다른 하나는 달을 상징하고 믿고 있다. 또한, 몸체의 하단 연결부는 땅을, 상단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믿었으며, 활과 현이 만나 내는 소리가 조상신과의 연결을 만들어 준다고 믿었다.

일부 투르크 문화권에서 코무즈와 유사한 명칭의 악기 중에는 입을 공명기로 활용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다. 대체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악기는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으며 ‘입 코무즈’, ‘입 탐부라’ 등으로 알려져 있다. 바시키르인과 타타르인에게는 카부즈(kabuz), 카자흐에서는 산코브즈(şankobız), 키르기스에서는 오오즈 코무즈(ooz komuz), 우즈베크에서는 샹 코부즈(şang kobuz), 사하-야쿠트 투르크에게는 코무스(khomus), 투바 지역에서는 데미르 코무스 또는 쿨루준 코무스(demir khomus/kuluzun khomus), 투르크멘들은 고푸즈(gopuz)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온다. 투르크의 가장 오래된 이 악기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푸즈

● 다국어 표기 Kopuz(튀르키예어), комуз(키르기스어), Qopuz(아제르바이잔어), Қомыз(카자흐어), Qo'muz(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코무즈_알타인의 코푸즈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umHQ7QBjp5w>

코무즈_코무즈 단체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X_wq1wKqS-w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tb.gov.tr/EN-98669/kopuz.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Cömert, Eray. “Kopuz”, *TDV İslâm Ansiklopedisi*, Ek-2, Ankara: TDV, 2016, pp.74~77.

I G253 | 코브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황영삼 ● 라틴 문자 Kobyz

코브즈는 카자흐인을 중심으로 바시키르, 키르기스인, 카라칼팍인, 타타르 민족이 많이 사용하는 투르크인의 전통 현악기이다. 클 코브스(кыл кобыз), 나르 코브스(нар кобыз)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코브즈는 두 개의 향아리 형상의 몸통에, 완만히 둥글게 굽은 목, 크고 평평한 머리를 가지며 말총으로 만든 두 개의 현을 가지고 있다. 울림통(소리통)은 보통 염소가죽으로 덮여 있다. 길이는 보통 60cm~73cm 정도이다. 소리 울림통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다른 현악기와 다르다. 코브즈는 무릎에 끼고 짧은 활로 연주한다.

키르기스인들은 코부즈를 클 크약(Kyl Kyyak)이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카자흐인들의 것과 유사하며, 2개의 현으로 되어 있으며 말총으로 된 키로 연주한다. 타타르인들의 경우 카잔 칸국 몰락 이전에 불가 타타르인들이 많이 사용했으며, 외형은 카자흐인의 것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코브즈는 제례 악기로 샤먼-박시가 연주했다. 전설에 따르면 코브즈와 그 음악은 악한 영이나 질병, 죽음을 내쫓는다고 한다. 박시는 선조들의 영혼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코브즈를 사용했다. 이 악기는 신성하게 여겨져서 일반인들은 이 악기를 만지는 것도 꺼려했다.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브즈는 의례적 의미뿐 아니라 즈라우(명창)의 서사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즈라우는 보통 칸의 군사, 정치 참모로 일하며 칸이나 장군들의 무용담을 찬양하곤 했다.

카자흐 전통 사회에서도 샤먼과 박시가 주문을 외울 때 코브즈를 사용했으며, 허가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 또한, 서사시가 구술 형태로 전승되던 카자흐 전통 사회에서 코브

즈는 널리 활용되었으며 현악기인 돔브라와 함께 인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코브즈는 초원의 위대한 샤먼이자 이야기꾼이며, 학자인 현자 코르크우트가 만 들었다고 한다. 또는, 코브즈의 출현을 코르크우트의 활동 시기인 9세기로 본다. 이후 코부즈는 서사시를 낭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나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비즈

● 다국어 표기 Қобыз(카자흐어), Kobuz(아제르바이잔어), Qo'biz (우즈베크어), Kobiz (튀르키예어), кумыз (바쉬키르어), кубыз (타타르어), Кобыз(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카자흐 전통 악기, 현자 코르크우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XmDf_Xex5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omi.ru/bowed/kobyz/>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Кобыз// Аяган, Буркитбай.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5: 242.

I G254 | 코블란드 바트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obylandy Batyr

「코블란드 바트르」는 15세기 전설적인 킵차크족 영웅 무사 코블란드에 관한 영웅 서사시이다. 최소 29개의 버전이 는 이 영웅 서사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카자흐인들은 동쪽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종족을 괴롭히던 칼막족에 대항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무사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허구적으로 존재했다. 코블란드는 후자에 속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부유한 카자흐인 부족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대략 15세기 무렵이다. 이야기에 따르면 늙도록 자식이 없던 토크타르바이(Toktarbay)와 아날늑(Analq) 부부에게 조상의 은덕으로 아들(코블란드)과 딸(카를르가쉬)을 낳게 되었다. 코블란

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6세에 이미 성숙했고 12세에는 말을 타고 싸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블란드는 신체가 건장한 거구로 성장했다. 그는 코르트크(Qortqy)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되어 코블란드의 미래 행동에 크게 도움을 준다. 코블란드는 인접한 칼묵족과의 싸움을 여러 차례 승리로 이끌면서 카자흐인들에게 높은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코블란드는 조치(Jochi) 칸의 손자인 아블하이르(Abylkhair) 칸과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즉, 15세기 인물이었다. 코블란드는 노가이 칸국과의 정변에도 개입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서쪽 지방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벌어진 전투에서 코블란드는 전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서카자흐스탄 주의 코브다 강가에 거대한 그의 묘가 세워져 있고, 2009년 크질오르다에는 그의 기념비가 제작되었다. 『코블란드 바트르』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카자흐스탄 당국은 2013년에 국가 무형 문화유산로 지정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블란드 바트르
- 다국어 표기 Қобыланды батыр(카자흐어), Кобланы баты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영웅 서사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prominent-figures/show/1267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Ⅰ G255 Ⅰ 코사-코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Kosa-kosa

코사-코사 놀이(Kosa-kosa oyunu)는 아제르바이잔인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널리 퍼진 극형식의 놀이 중 하나로 노브루즈(Novruz) 명절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놀이는 지역에 따라 여성이나 어린이가 한다. 노브루즈 때 코사(Kosa)와 케첼(Keçəl) 역할을 할 사람이

선택된다. ‘코사’는 페르시아어로 수영이 나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동화에 나오는 작은 키에 똑똑하고 교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은 재미있는 극을 보여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코사-코사 놀이를 진행한다. 코사와 캐챠 이외에도 이 놀이의 등장 인물인 늑대, 여우, 자칼과 유사하게 보이는 의상을 입고 참여한다. 코사바시(Kosabaşı)는 모피를 거꾸로 입고 허리와 목에 종을 건다. 코사가 들어가는 집은 축복을 받아 한 해 동안 복이 받게 된다고 믿는다. 코사는 빨간색으로 장식된 국자를 손에 들고 집마다 돌아다니며 선물을 모은다. 코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

‘야 코사-코사 와야지, 와서 인사를 해야지, 국자를 가득 차게 해야지, 코사를 보내야지. 내 코사는 놀이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을 양으로 바꿀 수 있지. 명절 혼차(xonça: 과자 및 다양한 디저트들이 담은 그릇)를 모으고 모든 곳에서 결혼식을 하지. 노브루즈-노브루즈 봄으로, 꽃들이-꽃들이 새로 핀 꽃들아. 우리 정원에서 꽃이 피고, 꽃이 있기를, 나이팅게일이 있기를. 꿀이 아니고, 버터가 되기를,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여성이 일어나서 코사에게 선물 주기를.’

노래가 끝나면 코사는 ‘코사 죽었다’라고 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이때 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다. 그 후 그의 친구들은 ‘아르시은(Arşın, 690mm의 전통 길이 단위)은 길고, 천은 짧고, 수의 없이는 노인은 죽지 않는다.’라고 함께 말한다.

마지막 날에는 새매니(Səməni, 때로는 쎌/솜, Sem/Som)라고 불리는 의식을 거행한다. 솜(Som)은 율라(Yula)라는 영혼의 수호자이다. 새매니는 할바(halva, 달콤한 과자의 일종)인데, 요리한 이것을 노브루즈 밤(Novruz gecəsi)에 새매니 일부를 물에 흘린다. 코사-코사는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상징하는 놀이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사코사

● 다국어 표기 Kosha-kosha(영어), kosa-kosa(튀르키예어), koca-koca(러시아어), kosa-kos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노브루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pp.290~300.

Memmedova .Meleyke, “Azerbaycan Ve Anadolu Folklorunda Mevsimi Oyun ve Temaşalar”, *Motif Akademi Halkbilimi Dergisi* / Cilt:10, Sayı:19 / 2017 (Ocak - Haziran) pp.137~148.

I G256 | 코소보 전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세르비아, 헝가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Battle of Kosovo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발칸반도의 기독교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다. 1389년 세르비아, 보스니아를 중심으로 반오스만 동맹이 결성되어 제1차 코소보 전투가 벌어졌고 오스만 제국이 승리한다. 이후 1448년 헝가리를 중심으로 반오스만 동맹이 결성되어 제2차 코소보 전투를 벌였고 오스만 제국이 승리한다. 제1, 2차 코소보 전투를 계기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진출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

제1차 코소보 전투(1389년)

오스만 제국은 치르메 전투(Çirme savaşı)를 계기로 발칸반도(Rumeli)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발칸반도는 세르비아 왕국의 스테판 듀산(Stefan Dušan)이 사망하면서 왕국이 해체되어 중소 공국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세르비아의 왕 라자르(Lazar)는 모라바 강 유역을 통치했고 1371년 듀산의 아들 우로스(Stefan Uroš)가 사망한 이후 두각을 나타내며 세르비아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오스만 제국 무라드 1세(Murad I, 재위: 1359년~1389년)는 치르메 전투 이후 세르비아를 압박했고 라자르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며 가신이 된다.

세르비아의 왕 라자르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보스니아 왕국의 트브르트코(Tvrtko)와 연합하여 반오스만 동맹을 결성하고 오스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며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유발한다. 무라드 1세는 라자르를 응징하고자 세르비아 코소보로 진군한다. 오스만 제국 군대가 진군해오자 라자르는 주변 기독교 국가들에 구원을 요청한다. 라자르의 요청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군인들이 합류했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국왕 마르코(Marko)와 불가리아 왕국의 국왕 콘스탄틴 데야노비치(Konstantin Dejanović)는 군대를 파견한다.

코소보 평원에서 대치한 세르비아 중심의 반오스만 연합군과 오스만 제국 군대는 양측 약 3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전투를 벌였고 오스만 제국이 승리한다. 전투 과정에

서 세르비아 왕 라자르가 사망했고 수많은 세르비아 귀족들이 몰살당한다. 오스만 제국 무라드 1세는 전투 이후 투항해온 밀로시 오빌리치(Miloš Obilić)의 활약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양측 기록이 천차만별이며 전투의 과정, 승패, 무라드 1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어렵다.

제1차 코소보 전투를 계기로 세르비아 왕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진출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제1차 코소보 전투는 세르비아의 서사시로 남아 구전되었고 18세기~19세기 세르비아 민족주의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제2차 코소보 전투(1448년)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자 헝가리 왕국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당시 헝가리 왕국은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 사이에 위치하여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진출을 막고자 1444년 반오스만 제국 동맹군을 이끌고 바르나(Varna)에서 오스만 제국과 전투를 벌이지만 패배한다.

바르나 전투 이후에도 헝가리의 섭정 휴녘시 야노시(Hunyadi János)는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반오스만 제국 동맹을 결성하고자 교황, 베네치아, 아라곤 왕국, 나폴리 왕국 등 서유럽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내부 문제(무라드 2세의 복위로 인한 정치 문제)와 오스만 제국 변경에 위치한 이스켄데르 베이(İskender bey)의 반란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휴녘시는 이스켄데르 베이와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고자 했다.

휴녘시 야노시는 약 3만~3만 오천 명의 헝가리 군과 약 8천 명의 왈라키아 군대 및 독일, 체코 용병들을 이끌고 오스만 제국을 공격한다. 당시 무라드 2세는 알바니아 원정 중에 헝가리군의 공격 소식을 접했고 소피아에 병력들을 집결시킨 이후 코소보 평원으로 진군한다. 기록에 따라 오스만 제국 군대는 약 5만 명으로 예상된다. 양측 군대는 코소보 평원에서 조우하게 된다. 헝가리 군대는 잘 조직된 중장기병, 경기병을 활용하여 전투를 벌인다. 오스만 제국은 마차를 활용하여 기병들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예니체리의 활약으로 헝가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 전투 셋째 날 헝가리 군의 패색이 짙어 지자 왈라키아 군대는 전장을 이탈했고, 휴녘

시는 도주한다. 휴먼시는 도주하는 과정에 세르비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다.

제2차 코소보 전투를 계기로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지배를 막지 못하게 된다. 헝가리는 지속적으로 오스만 제국에 대항했고 모하치 전투(Battle of Mohács, 1526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후 실레이만 대제(Süleyman I, 재위: 1520년~1566년)에 의해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소바 전투

● 다국어 표기 Kosova Muharebesi(튀르키예어), Kosovo döyüşü(아제르바이잔어), Косово шайқасы(카자흐어), Косовска битка(세르비아어), Rigómezei csata(헝가리아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 1세, 무라드 2세, 코소보, 헝가리, 세르비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kosova-savaslari>

● 참고문헌(오프라인) Aleksandar Fotić, “Kosovo, Battle of”,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 317.

Ⅰ G257 Ⅰ 코자바시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직책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cabaşı

오스만 제국에는 무슬림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았는데, 이들 집단의 대표를 코자바시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코자바시오라는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고, 코자(koca), 레아이아 웨킬리(reâyâ vekili), 초르바즈(çorbacı), 쿠라 웨킬리(kura vekili), 밀레트바슈(milletbaş), 프림쿠르(primkur), 크네즈(knez), 와이와다(voyvoda), 프로토게로스(protogeros) 등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었다. 이 용어들은 각 집단의 주된 사용 언어에 따라 달라졌다.

이들은 자치권이 있는 각 종교 집단의 문제를 살피고, 인두세인 지즈야(Jizya)를 비롯하여 각

종 세금을 거두어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카디(Kadı: 재판관)나 사제와 의논하여 처리했다. 당시 비무슬림 종교 집단은 일부 자치권이 인정되어, 상속과 같은 문제는 카디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코자바시으는 일반적으로는 소속된 지역과 마을에서 선발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만장일치로 선출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교회와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중앙 정부가 힘을 잃으며 지방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와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던 코자바시으는 차츰 권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외세의 영향을 받은 집단 내 독립운동 움직임을 지원하거나, 반란에 가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만 중앙 정부와도 연결을 끊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흐무드 2세(II. Mahmud, 재위: 1808년~1839년)의 개혁 정책 과정에서 코자바시으는 인구 조사 업무와 이를 중앙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1833년~1836년에 지방에서 무흐타를르크(muhtarlık: 이장이나 읍장과 같은 마을 대표자)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기독교인의 마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코자바시으가 그 업무를 떠맡았다. 코자바시으는 1864년 지방법(vilâyet nizamnâmesi)이 발효되어 무흐타를르크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자 사라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자바쉬으

● 다국어 표기 kocabaş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지즈야, 카드, 짐미

● 참고문헌(오프라인) Dia, “KOCABAŞ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140~141.

Soykan, T. Tankut. *Osmanlı İmparatorluğunda Gayrimüslimler: Klasik Dönem Osmanlı Hukukunda Gayrimüslimlerin Hukuki Statüsü*, İstanbul: Ütopya Kitapevi, 1999.

Ágoston, Gábor.; Bruce Master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NY : Facts On File, cop. 2009.

Adanır, Fikret. “Semi-autonomous Forces in the Balkans and Anatolia,” *The Cambridge History of Turkey, vol. 3, The Later Ottoman Empire, 1603-1839*(ed: Suraiya Faroqh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57~158.

I G258 | 코즈 케르페쉬 바얀 술루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황영삼, 김근식 ● 라틴 문자 Koz-Korpesh and Bayan Slu

「코즈 케르페쉬 바얀 술루」는 13세기~14세기 카자흐인의 애정 서사시로서 구전되어 오던 것을 19세기에 채록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깊고 순수한 사랑 및 영웅과 침략자 간의 전투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2013년에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이웃인 사르바이(Sarybai)와 카라바이(Karabai)에게는 각각의 자식인 코즈와 바얀이 있었는데 훗날 이들은 점점 사랑하게 되었다. 주인공 코즈 케르페쉬는 장수(바트르)였고 바얀은 착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여인이었고, 특히 이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젊은이와 결혼하길 원했다. 그러나 사르바이와 카라바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변하게 된다. 카라바이는 마음을 바꿔 자신을 도와준 지역 청년인 코다르(Kodar)에게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한다. 이에 인해 코즈와 코다르 및 바얀 간의 갈등과 다툼이 전개된다. 마침내 코즈가 힘이 강한 코다르에게 죽임을 당하자 바얀은 슬퍼하면서 피를 낸다. 즉 바얀은 코즈를 잊고 코다르와 혼약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조건이 붙었다. 바얀은 코다르에게 혼인을 하려면 자신을 위해 큰 우물을 파 달라고 한다. 코다르는 이를 수용하고 우물을 깊게 파는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코다르는 바얀이 위에서 붙들고 있는 밧줄에 의지하여 우물을 파들어갔는데 적당한 깊이에 이르자 바얀은 밧줄을 끊어 버려서 코다르를 죽게 만든다. 결국 바얀은 코즈의 복수를 한 것이다. 바얀은 코즈가 묻혀 있는 묘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코즈 케르페쉬 바얀 술루」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20개의 버전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문학 작품이었다. 가장 널리 보급된 버전은 자낙(Zhanak) 버전이다. 이 작품을 수집한 초기 시인들은 사블루코프(G. Sablukov, 1830년), 데르비살린(G. Derbisalin, 1834년), 프롤로프(A. Frolov, 1841년), 발리하노프(Sh. Valikhanov, 1856년) 등이 있다. 발리하노프가 채록한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러시아어 버전은 1856년에 푸틴체프(M. Putintsev)의 것이 최초이다. 이 이야기는 1878년, 1890년, 1894년, 1905년에 카잔에서 별

개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소련 시기에는 1925년에 처음 발간되었다. 자낙 버전은 1936년에 알마티에서 아우에조프(M. Auezov) 시인에 의해 발간되었다. 아스타나(누르술탄)에서는 2002년에 이 시집이 발간되었다. 이 단행본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발리하노프 등 8개의 판본이 소개되어 있고, 2부는 서정시에 대한 연구 논문이 실려 있다. 「코즈 케르페쉬와 바얀 술루」는 「크즈 즈벡」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낭만적 서사시이며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기타 투르크 언어로 세계에 소개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즈 케르페쉬와 바얀 술루
- 다국어 표기 Қозы Көрпеш – Баян Сұлу(카자흐어), Козы Корпеш — Баян Сул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문학, 카자흐 서사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9qGf>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59 | 코즐로프 P.K.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ozlov Pyotr

코즐로프(Козлов, Пётр Кузьмич, 코즐로프, 표트르 쿠즈미치, 1863년~1935년)는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고고학자, 지리학자로 몽골과 티베트, 중국 신장 및 사천성,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조사했다. 소비에트와 영국 간의 보이지 않는 탐험 전쟁이었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정점에 도달했던 20세기 초반에 코즐로프는 중국 신장성을 연구한 최고의 연구원으로 스웨덴 스벤헤딘(Sven Hedin) 및 헝가리 오렐스타인(Aurel Stein)과 경쟁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코즐로프의 활동을 엄밀하게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07년~1909년 Mongol-Sichuan 탐험에서 코즐로프는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유적을 발견했는데, 카라-코토(Khara-Khoto)라고 하는 탕구트의 도시를 발견하고, 몇 년에 걸쳐서 발굴

했다. 그곳에서 일종의 도서관을 발굴했는데 탕구트어, 중국어 및 기타 다른 언어로 된 책을 6,000롤 이상 발견했다. 이 발굴은 1923년에 『몽골과 암도, 카라-코토 죽은 도시(Монголия и Амдо и мёртвый город Хара-Хото)』로 발간되었다.

그는 1923년~1926년 ‘몽골-티베트 탐험대’를 끝으로 더 이상 조사를 그만두었다. 원래는 티베트의 수도 라사를 계획했으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몽골만을 탐험했다. 노인 산맥에서 흉노의 무덤 유적인 노인 올라 유적을 처음 발견하고 발굴했다. 그가 사망한 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51년 그를 기념해



코즐로프 P.K.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서 우표를 발간하고 많은 상을 수상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그를 기념한 코즐로프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코즐로프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다한 탐험가 및 고고학자이지만 그레이트 게임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탐험가이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2012년 발간된 세르게예프의 『Большая игра, 1856~1907』(Сергеев Е. Ю. 2012, 그레이트 게임)에 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즐로브
- 다국어 표기 Козлов, П. К.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타인, 고비사막,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8/Kozlov_P.K._1908._Karl_Bulla.jpg/250px-Kozlov_P.K._1908._Karl_Bull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ргеев Е. Ю. Большая игра, 1856—1907: мифы и реалии российско-брит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М.: Товарищество научных изданий КМК, 2012. — 454 с., 8 вкл. С. 226.

I G260 | 코츠크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chkunchixon

우즈베크 칸국을 세운 군주 아불하이르 칸(Abulxayrxon, 재위: 1412년~1468년)의 여덟 번째 아들로 1452년에 탄생한 코츠크칸은 1503년 투르크스탄의 통치자가 되었다. 샤이버니이 칸(Muhammad Shayboniy, 재위: 1451년~1510년)이 사망 후 칸들은 수윤초호자 칸(Suyunchxo'jaxon)을 대칸이라 말했지만, 곧 그의 형인 코츠크칸을 사마르칸트의 칸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1512년부터 부하라에서 우즈베크 칸국을 통치했던 우바이덜라 칸(Ubaydulla xon, 재위: 1512년~1539년)이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1512년 코츠크칸은 가즈드완 전투에 참여하여 사파비 조와 무굴 동맹의 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공헌했다. 1528년 사파비 조와의 잠 전투에서는 비록 패배했으나 1513년과 1529년에는 헤라트(Herat) 지역을 탈환하기도 했다. 1516년~1517년 코츠크칸은 카자흐 족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외교적으로는 무굴과 오스만 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내적으로는 통화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라시드웃딘의 『집사』 등 페르시아어로 된 역사서를 투르크어로 번역하도록 했고, 투르크어로 시를 직접 쓰기도 했다.

부하라에는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도서관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귀취퀴쥐, 코치쿰주칸, 코츠크칸
- 다국어 표기 Ko'chkunchixon(우즈베크어), Köçküncü(튀르키예어), Kochkunju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샤이버니이 칸, 잠 전투
- 참고문헌(오프라인) Mukaminova, R.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One: The Shayb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33~44.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G261 | 코칸드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okand

코칸드(Kokand)는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주 서부의 도시로 페르가나 분지 서부, 소프강 끝 소프 오아시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7만 6,000명이다. 화학·섬유·식품·제분 공업이 발달해 있다. 18세기~19세기 중앙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18세기 말부터 1876년까지 코칸드 칸국(汗國)의 수도였다.

코칸드 칸국은 18세기 페르가나의 봉건 제후였던 우즈베크인 알림 칸(Alim Khan)에 의해 수립되었다. 코칸드 칸국(우즈베크어: Qo'qon Xonligi)은 우즈베크족이 중앙아시아에 세웠던 3대 칸국 가운데 하나이며, 18세기와 19세기에 옛 페르가나의 땅을 영역으로 한 나라이다. 수도는 코칸드(Kokand)로, 이 도시는 서투르키스탄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도시이며,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칸국(汗國)의 수도가 되면서부터이다.

17세기까지의 페르가나에는 호자가(家)의 정권이 분립되어 있었는데, 1709년~1710년 우즈베크족의 수장이 그들을 평정하여 코칸드 칸국을 세워, 그 후계자에 의하여 페르가나 전역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준가르부·회부(回部: 위구르부)를 지배하고 있던 청조(淸朝)의 세력이 미치지, 1759년에는 그 종주권을 인정하고 반세기 동안 공물과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국세(國勢)가 확충되어 북방으로 영토를 넓혔고, 동시에 청조에 대해서도 공물과 사신의 파견을 폐지하고, 1831년에는 청조로부터 무역의 면세 특권을 얻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 내란의 빈발, 부하라 칸국의 압박과 러시아의 진출로 쇠퇴 일로에 있다가, 1875년 칸국(汗國)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구실로 출병한 러시아의 투르키스탄 총독 카프만 휘하의 군대에 의해 수도 코칸드가 함락되었다. 그 후 러시아에 병합된 뒤, 투르키스탄 성의 한 주가 되었다. 이처럼 3개의 칸국들은 서로 통합을 보지 못하고 상호 불신과 반목,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가 이들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그들이 동일한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요무트(Yomut), 살러(Salor), 텍케(Tekke)와 같은 부족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했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결여는 러시



코칸드 우도야르 칸 궁전

아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칸트, 코간드
- 다국어 표기 Qo'qon(우즈베크어), Kokand(영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우즈베크어, 코칸드 칸국, 부하라
- 참고문헌(온라인) <https://qoqon.uz/oz/qo-qon-shahri-aholisi-yil-boshidan-2-7-ming-kishiga-ko-paydi/>
- 참고문헌(오프라인) Ibbotson, Sophie, *Uzbekistan. United Kingdom: Bradt Guides Ltd*, “Jami Mosque Museum | Kokand, Uzbekistan Attractions”. Lonely Planet. 2020.
Mamasodiqov, Diljahon. Qo'qon shahri aholisi yil boshidan 2,7 ming kishiga ko'paydi (in Uzbek).

I G262 | 코칼더쉬 마드라사(부하라)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kaldosh Madrasah

부하라에 건설된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마드라사 중 하나로 면적은 86mx69m이다. 이 건물은 1560년 샤이바니 조 압둘라 칸 2세(Abdullaxon II, 재위: 1583년~1598년)의 적형제이자 수양 동생이었던 쿨버버 코칼더쉬(Qulbobob ko'kaldosh, 1534년~1598년)에 의해 건설되었다.

당시 압둘라 칸 2세를 비롯하여 수피 지도자였던 호자 조이버르(Xoja Jo'ybor, Khwaja Sa'd al-Din Jubari), 그리고 쿨버버 코칼더쉬는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약 26년간 부하라에 다양한 건축물 건설을 후원하며 도시를 확장시켰다.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그 과정에서 건설된 건축물 중 하나였다.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2층으로 된 건물이 42mx37m 크기의 중정을 둘러싼 형태이다. 약 160개의 기숙사 방이 있으며, 교실, 모스크 및 기타 용도의 방은 건물의 모서리 부분과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선은 기숙사 방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동 가능한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건물 모서리는 굴타스타라고 하는 첨탑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지진으로 훼손된 이후 2층 높이 이상으로 복원하지 않았다. 과거 마드라사의 지붕은 파란색 타일로 장식한 돔이 있었으나, 해체되었다.

입구에서 연결된 중앙 통로를 통해 돔형 지붕으로 덮인 5개의 방으로 갈 수 있다. 이 돔은 석고를 주로 하며 격자, 별, 기하학 문양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문은 이완으로 되어 있다. 정문 장식은 자기 타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진으로 훼손된 이후 마졸리카 방식의 타일로 교체되었다.

이 마드라사는 20세기 초까지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했으나 소비에트 시대에는 지역 역사 기록 보관소로 이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복원 수리 작업을 계속해 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켈다쉬 마드라사, 커칼도쉬 마드라사시



코칼더쉬 마드라사 전면(부하라)

- 다국어 표기 Ko'kaldosh madrasasi(우즈베크어), Kukeldash Madrasah(영어), Kükeltaş Medresesi(튀르키예어), Kukeldaş mədrəsəsi(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1142/medium/IHU0071.jpg?1384685299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50/uzbekistan/bukhara/kukeldash-madras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ЎКАЛДОШ МАДРАСАС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ҚҲАРФ, Тошкент;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840.
Knobloch, Edgar. *Monuments of Central Asia*, London: I.B. Tauri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istributed by St. Martin's Press, 2001.

I G263 | 코칼더쉬 마드라사(타슈켄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o'kaldosh Madrasah

타슈켄트에 위치한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1568년~1569년에 건설되었다. 샤이바니 조 압둘라 칸 2세(Abdullaxon II, 재위: 1583년~1598년)의 동생이자 고관이었던 쿨버버 코칼더쉬(Qulbobo ko'kaldosh, 1534년~1598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19세기 초 1층이 철거되었고 1868년 지진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가 1902년~1903년, 1950년대에 복원되었다.



코칼더쉬 마드라사(타슈켄트)

코칼더쉬 마드라사는 2층으로 구성된 교실, 도서관, 학생 숙소, 모스크로 구성된 건물이 38mx26.9m 가량의 내원을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크기는 62.7mx44.9m이다.

남쪽으로 난 정문은 19.7m 높이의 이완으로 되어 있다. 건물 정면 모서리에는 굴다스타라고 하는 작은 첨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정문은 유약을 바른 자기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마드라사는 당대의 전형적인 마드라사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무신론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1990년에는 민속 음악 박물관으로 개관했고, 이후 다시 이슬람 연구 기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국가 유형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켈다쉬 마드라사, 커칼도쉬 마드라사시
- 다국어 표기 Ko'kaldosh madrasasi(우즈베크어), Kukeldash Madrasah(영어), Kükeltaş Medresesi(튀르키예어), Kukeldaş mədrəs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코칼러쉬 마드라사(부하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1410/original/HU0376.jpg?1384685506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293/uzbekistan/tashkent/kukeldash-madrass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ЎКАЛДОШ МАДРАСАС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ҚҲАРФ, Тошкент;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p.840~841.

I G264 | 코켈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문화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okel Culture

코켈 문화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시베리아 투바에 위치한 흥노의 지역 문화이다. 이 문화를 대표하는 코켈 유적은 투바의 험척 강변에 위치한 이시킨 아라즈 산기슭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1959년부터 1966년까지 500개 이상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코켈 문화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무덤 구조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상의 큰 변화이다. 코켈 유적에서는 목관묘에 신전장(伸展葬)으로 장례를 치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에 무덤방(목곽묘)에 굴신장(屈身葬)과으로 매장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코켈 문화는 대량의 무기, 일상 생활용품, 장신구 등으로 그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코켈 유적에는 무덤 시설물과 함께 유기 물질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인골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성 두 개골에 화살촉과 칼 등에 맞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코켈 문화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 및 의기화된 소형 무기가 이 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무로 장식된 검집의 칼과 화살이 달린 활 등이 대표적이다. 코켈 문화의 주민들은 주로 가축 사육을 하고 유목업이 행해짐에 따라, 출토된 동물 뼈 90% 이상이 양 뼈이다. 농업과 결합해서 농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냥과 채집업 등을 행했다. 일상 생활방식은 나무로 된 그릇으로 알 수 있는데, 4개의 다리가 붙은 목제 쟁반, 머그잔, 양과 젓을 짜기 위한 양동이, 국자, 손가락 등으로 확인된다. 크므즈를 따르기 위한 주구가 붙은 목제 잔도 특징적이다. 동복(청동솥)과 쇠복(철솥)으로 된 그릇도 존재한다. 여성용품도 따로 존재하는데, 철제 칼, 핀셋, 굵개 등이 있다. 목제 조각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색칠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형질 인류학적 분석에 따르면 코켈 문화의 주민들은 유로포이드와 몽골로이드의 결합 인종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켈 문화
- 다국어 표기 Кокэль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크므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Дьяконова В.П. Большие курганы-кладбища на могильнике Кокэль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скопок за 1963, 1965 гг.) //Тр. Тувинской комплексной археолого-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 Л. Наука, 1970а. - Т. 3: Материалы по архе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могильника Кокэль. - С. 80-209

I G265 | 코크 파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ok-Pash

코크 파시 유적은 1878년 야드린체프(H. M. Ядринцев)가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유적은 알타이 공화국의 올라간 지역에 위치한다. 바시카우루스(Башкаус, Bashkaus) 출리시만(Чулышман, Chulyshman) 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발리카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이다. 무덤은 북쪽과 남쪽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기 다른 시기의 무덤 모두 56기를 조사했다.

초기 투르크 시대의 무덤은 봉분이 있는 구조로 세 가지 구조의 무덤이 있다. 무덤을 두른 호석이 방형인 것, 호석이 장방형인 것, 타원형으로 고리 모양의 호석이 있는 것 등이다. 방형 호석의 무덤은 납작한 석판으로 석관을 만든 것으로 층층이 무덤을 쌓은 것이다. 장방형 호석의 무덤은 한 층인데, 석판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타원형 고리 모양의 무덤은 덩어리 돌을 이용해서 무덤 구조를 만들었다. 무덤의 호석 범위는 2.2m~5.5m이고, 높이는 0.2m~0.9m이다. 무덤 구덩이는 얇은 것은 0.7m에서 깊은 것은 2.6m까지이다.

죽은 사자는 단독으로 묻혔으며 무덤 방향은 남-남동향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철제 무기, 의복, 장신구류, 마구 등이 있다. 무기류는 채칸(전투용 도끼) 등이 있다. 유적에서 이용된 금속류는 철, 청동, 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유물이 철제로 제작되었고, 청동제는 무기류가 아닌 장신구이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금으로 제작된 유물도 있다. 그 외에도 가죽, 목제품과 유리제로 제작된 유물이 있다. 토기도 2점 확인되었다.

코크 파시 유적은 초기 투르크 시대의 무덤으로 기원후 3세기~4세기 유적이다. 이 유적으로 알타이에서 흉노 제국 이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투르크족이 몽골로 영토를 옮기는 460년 이전의 유적으로 투르크 문화 형성 이전기의 문화적 특징을 알 수 있다. 흉노는 멸망했고 기본적인 속성은 변하지만 무덤에 봉분을 두르고 깊게 무덤을 파는 특징 등은 이 시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크-파시, 코크파쉬

● 다국어 표기 Кок-Паш(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асютин А. С., Васютин С. А., Социальная планиграфия предтюрк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могильника Кок-Паш из Восточного Алтая // Соци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социогенез первобытных обществ: теория, методологи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емерово. – С. 73–78, 1997.
Васютин А. С., Предтюркское и раннетюркское время на Горном Алта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границы бытова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периодизаци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Южной Сибири. Барнаул, 1991.

I G266 | 코푸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Kopuz

코푸즈(Qopuz)는 투르크 민족의 현악기이다. 어원을 살펴보면, ‘고프(qop)’는 ‘높다, 크다’라는 뜻이고, ‘우즈(uz)’는 ‘마법적인 음악 악기’라는 뜻이다. 코푸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푸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982년 위구르 코초 국(UyğurKoço dövləti)에 사절을 보낸 완옌 텐(vanyen-Ten)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위구르인들은 시와 음악을 연주할 때는 주로 코푸즈(Qopuz)라는 악기를 연주했다.

1960년에 미국 고고학자들이 남아제르바이잔에서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이때 그들은 코푸즈를 포함한 문화 유물을 발견했다. 현재 코푸즈는 키르기스와 알타이 민족이 사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소리꾼들은 영웅 서사시를 부르기 위해 코푸즈를 연주했다. 코푸즈는 주로 결혼식과 같은 의식에서 연주됐다. 11세기에 활동한 투르크인 언어학자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Muhamməd əl-Kaşğari)는 코푸즈를 투르크 민족들의 전통 악기인 우드(ud)와 닮은 악기로 제시했다. 코푸즈에는 코푸지 오잔(qopuzi ozan), 코푸지 루미(qopuzi rumi)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코푸지 오잔(qopuzi ozan)은 긴 몸통이 있고 3개의 현으로 돼 있다. 『현자 코르크트의 서



코푸즈

(Kitabi Dədə Qorqud)』에서 연주된 악기가 바로 코푸지 오잔이다. 코푸지 루미는 우드와 유사하며 5개의 현(줄)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무함마드 알 카쉬가리의 사전에 묘사된 중앙아시아의 코푸즈와 동일하다.

코푸즈는 몸통과 지판, 머리로 구성된다. 코푸즈의 줄은 고대에서부터 멀거리의 털로 만들어졌다. 코푸즈는 주로 ‘활(yay)’이라는 막대기 같은 보조 도구를 통해 연주된다. 코푸즈는 전통 악기 카만차(kamança)와도 닮았는데, 카만차와 코푸즈 모두 무릎 위에 두고 연주를 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코푸즈가 현재의 카만차(kamança)와 닮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긴 막대로 연주하는 코푸즈는 주로 알타이, 하카스, 위구르 및 쇼르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네 투르크 부족들이 사용하는 코푸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이 코푸즈는 카만차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다른 종류의 코푸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고 삼각형이다. 투바(Tuva)인들의 코푸즈는 ‘클 코푸즈(qıl qopuz)’라고 부른다. 클 코푸즈는 사각형이며 오구즈(oğuz), 알타이, 하카스, 위구

르 코푸즈와 차이가 난다. 키르기스 민족 서사시 마나스 서사시(Manas dastanı)에서는 ‘은 말 투 코푸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이 악기는 키르기스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카자흐에서도 볼 수 있다. 카자흐 학자 초칸 벨리카노브(Çokan Vəlixanov)는 이를 코브자(kobza)라고 불렀다. 카자흐의 아킨(akin)들이 연주하는 이 악기는 샤먼들의 악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 때문에 초칸 벨리카노브는 ‘현자 코르쿠트의 서’의 주인공인 코르쿠트를 샤먼들의 스승이라고 한다.

코푸즈는 투르크 민족이 거주하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 이 지역들에는 코푸즈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와 같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코부즈(kobuz)’, ‘코브자(kobza)’, ‘코무즈(komuz)’, ‘코므즈(komız)’ 등의 이름으로 이 악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4세기~5세기에 투르크 부족인 훈족이 유럽으로 침공하여 민족들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동안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푸즈
- 다국어 표기 Kopuz(영어), Kopuz(튀르키예어), Konyz(러시아어), Koquz(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고푸즈, 코무즈, 코므즈, 클 코무즈, 우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Kitabi-Dədə Qorqud Ensiklopediyası*, II Cild, Bakı, 2004.
Türk Dili Ve Edebiyatı Ansiklopedisi, C.I., İstanbul, 1977.
Sümer F., “Eski Türklerde Musiki Ve Oyun”, *Türk Dünyası Tarih Dergisi*, Sayı 30, İstanbul, 1989.

Ⅰ G267 Ⅰ 콧 푸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ok Pughā

콧 푸가는 하카스 대초원에서 발견된 황소를 닮은 큰 석상이다. 이 석상은 하카스 신화에서 쿤 아룩이라는 소녀가 황소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후손에게 ‘황소의 자손, 혈통’이라 이름을 지

은 것과 관련이 깊다. 고대 투르크 시대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을 종교로서 믿고 숭배하는 남부 시베리아 투르크인인 하카스인들 사이에는 쿤 아룩(Kün Arıǵ(Kün [날, 해, 일] + Arı[순수한, 깨끗한]))이라는 소녀,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뒤 돌로 변한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 전설은 하카스 영토의 쿤뉘 타그(Künü Taǵ)라 불리는 산기슭에 위치한 회색 황소를 닮은 커다란 바위에서 유래한다.

전설에 따르면 쿤 아룩(소녀)은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온 황소를 기리기 위해 자신에게 태어날 세대를 푸가 쇠기(puǵa söǵi), 즉 ‘황소의 자손, 혈통’이라고 명명했다. 이 혈통의 자손은 3년마다, 우이바트 초원에서 킱 푸가(회색 황소 석상, 고대 투르크어에서 킱은 파랑/녹색 등 푸른색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색을 지칭할 때도 사용됨)라고 불리는 동물 모양의 암석에 제물을 바친다. 이 황소의 석상이 푸른색을 나타낸다는 것은, 알타이족인 투르크족과 몽골인들의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식과도 같다.

또한 남부 시베리아의 킱 푸가와 관련된 신화는 축산업의 기원, 특히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의 소 사육의 기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킱 푸가

● 다국어 표기 Kök Puǵa / Kök puǵa(하카스어), Сивый бык(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G268 | 콘구르 부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ongur Buga

콘구르 부가(Куңыр буға)는 바시키르의 서사시(쿠바이르)이다. 산문과 운문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서사시는 1865년 이그나티예프(Р.Г. Игнатъев)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는데, 부란 굴로프(М.А. Бурангулов), 메르겐(К.Мэргэн), 살람(Г. Салям) 등이 채록한 판본도 있다. 1969년 샤쿠로프(Р.З. Шакуров)가 아스카로보(Аскарово) 마을의 세센 미르하이दारов(М. Мирхайдаров)에게서 채록한 것이 유명하다. 콘구르 부가는 아크하크-콜라, 카라 유르가와 더불어 동물을 주제로 한 바시키르 이야기이다. ‘콘구르’는 바시키르어로 밤색, 갈색을 의미하고 ‘부가’는 황소를 뜻한다.

서사시의 여주인공은 갈색 암소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고향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시집을 갔다. 몇 년이 지나 암소는 송아지들을 많이 낳았는데, 콘구르 부가라는 소가 이들을 이끌었다. 한 번은 이 송아지 무리들이 우랄 산맥의 남쪽으로 떠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여주인공은 ‘콘구르 부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이 무리의 뒤를 쫓는다. 노래는 우랄 지역의 위대한 자연과 바시키르 영웅들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중간중간 콘구르 부가를 부르는 소리로 끊기는데, 이것은 옛날 가축의 수호신을 부르는 주문을 떠올리게 한다. 소 떼를 찾은 그녀는 동물들과 집으로 돌아간다.

러시아어로는 콘구르 부가(Конкур буга) 또는 쿤기르 부가(кунгир буга)로 표기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콘구르 부우가, 쿤기르부가, 콩구르부가
- 다국어 표기 Конкур буга(러시아어), Куңыр буға(바시키르어)
- 연관 검색어 쿠바이르, 카라 유르가, 바시키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шкорт халык ижады. 3-сө т. Эпос. Өфө, 1998.
Киреев А.Н.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Уфа, 1970.
Сбор.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М. 1977, 455~476.

I G269 | 콘체스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루마니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Concesti

콘체스티 유적은 민족 대이동기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1812년에 지금의 루마니아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은 크게 두 그룹, 야만인 그룹과 후기 로마 그룹으로 분류되었는데, 최근 야만인으로 분류된 그룹이 훈족 유목민의 전통을 가진 그룹과 동게르만족으로 세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 나온 문화 전통은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후기 로마 그룹은 은제 공예품, 헬멧, 의자 및 은제 식기가 기본이고 금 칠보 장식도 있다. 특히 은제 그릇은 화학적 조성이 매우 균질한데, 은이 93%~98% 정도 포함된 것으로 후기 로마 또는 초기 비잔틴 은제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그룹은 연구 초창기에는 그리스-로마 유물로 분류되기도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럽 대초원의 훈 시대와 관련된 유물이다. 대부분 말을 장식하던 마구 장식으로 안장과 고삐의 부속품이 많다. 안장 가운데는 금박으로 감싼 것도 있고 물고기 비늘 장식이 찍힌 것도 발견되었다. 다양한 마구 장식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로 훈족 기원이며 동유럽의 유물일 수도 있다. A.D. 375년 훈족의 침입이 시작되는 시점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게르만 문화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물은 금관과 금관을 장식하던 애플리케 장식과 황금 마스크이다. 콘체스티 유적에서 투구(헬멧)와 명문이 있는 은제 접시를 통해서 이곳에 매장된 지휘관의 신분을 알 수 있다. 헬멧은 후기 로마 투구로 근위대 장교의 것이다. 접시의 비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가하던 4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유적을 연구한 초창기에는 이 유적이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여겨졌으나, 후기 로마 제국의 지휘관의 투구와 명문이 있는 은제 접시로 보아서 로마 제국의 군사 문화와 더 밀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이 19세기 초에 발견되었음에도 200년 동안 이를 종합하는 연구 저서가 발간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 종합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콘체시티
- 다국어 표기 концешт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Г. Фурасьев, E.A. Шаблавина Концешти: княжеское погребение эпохи Велик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19.

I G270 | 콥카리-울력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Ko'pkari- Uloq

콥카리-울력(Ko'pkari-uloq)은 중앙아시아인들의 말 경기를 의미한다. 콥카리-울력은 주로 중앙아시아인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나 노부르즈 축제기간인 봄에 열린다.

대회에는 건강하고 키가 크지 않은 말이 선택된다. 말 안장의 높이가 높지 않아야 경기 중 땅에 있는 동물의 시체(염소나 어린 양)를 빠르고 쉽게 집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 채찍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용 헬멧, 겹옷 및 바지 등을 착용한다.

콥카리-울력 참가자들은 한 줄로 서서 마을의 장로 혹은 연장자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신호가 울리면 기수들은 땅에 놓여 있는 동물의 시체를 먼저 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동물의 시체를 잡은 이와 다른 기수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며,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기수가 승자가 된다. 콥카리-울력에서 상대를 뒤에서 공격하거나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중들은 동물의 시체를 집어 내는 등 경기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승자는 과거에는 카펫, 황소, 숫양, 염소, 비단 등을 선물로 받았지만 최근에 콥카리-울력 우승자는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선물로 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콥카리-울러크
- 다국어 표기 Ko'pkari - uloq(우즈베크어), Купкари(улак, бузкаш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노부르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si=VqxyUwJmsVFci1q2&v=GTzf6XtAgIQ&feature=youtu.b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maqolalar/jo-ra-xudoyberdiyev-uloq-so-zining-ma-nosi>
<https://kun.uz/uz/20736996> Elmurod ERMATOV. Milliy o‘yinlarda millat ruhi mujassa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Eshnazarov J., *Jismoniy madaniyat tarixi va boshqarish*, Toshkent: Fan va texnologiya, 2008.

I G271 I 퀴세다의 전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Battle of Köse Dağ

퀴세다는 현재 아나톨리아반도의 중북부에 위치한 산으로, 시바스(Sivas)에서 동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퀴세다의 전투는 이 산에서 몽골군과 룸 셀주크군 간에 벌어진 전투이다. 셀주크 투르크의 잔여 세력이었던 룸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군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것은 룸 셀주크의 황금시대라 불리며 사방의 세력을 공격하고 견제했던 카이쿠바드 1세(Keykûbad, r., 1220년~1237년) 시기였다.

그는 몽골 제국의 2대 대칸인 우구데이 칸이 이란으로 파견하여 아제르바이잔에 주둔했던 초르마군 노얀(Chormaqan)과 국소전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초르마군 노얀이 1241년에 사망하고 조치 울루스의 바투 휘하에 있던 바이주 노얀(Bayju)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을 때 몽골은 이전에 비해 훨씬 위협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주는 카이쿠바드의 후계자인 카이후스로우(Kaykhusraw) 2세에게 몽골리아 본토로의 조근(朝覲) 및 인질 헌상, 다루가치의 지배 승인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몽골 제국에서 가신국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복속의 표징이었다. 즉, 바이주 노얀은 룸 셀주크를 몽골의 간접 지배권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구데이가 1242년에 사망한 후, 바이주는 1242년~1243년 사이의 겨울에 아나톨리아 중부의 도시인 에르주름(Erzurum)을 정복했

고, 봄에 본격적인 아나톨리아 정복을 계획했다.

카이후스로우는 처음에는 몽골 공격의 심각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다소 늦게 대응했으나 결국은 주변의 동맹국과 가신들을 대대적으로 소집했는데, 이때 소집된 이들 중에는 아나톨리아뿐 아니라 시리아의 알레포, 아르메니아, 조지아, 트라브존의 프랑크인들도 있었다. 다만 이때 아르메니아는 이미 몽골군에 복속을 염두에 둔 상태였고, 조지아인들도 그들을 침입한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카이후스로우 2세는 군대를 시바스에 소집했는데, 아직 군대가 완전히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몇몇 장수들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군대를 콰세다의 산사면으로 이끌고 갔으며 2만 명의 병력을 몽골 군대에 파견했다.

이슬람력 641년 무하람월 6일(서력 1243년 6월 26일), 콰세다에서 몽골의 기병은 그들의 전통적인 ‘후퇴하는 척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여 룸 셀주크 군대를 철저히 멸망시켰고, 룸 셀주크 군대는 더 이상의 전투를 하지 않고 달아나 투카트, 앙카라로 향했으며 몽골군은 룸 셀주크의 거점인 시바스를 차지했다. 몽골군은 더 서쪽으로 진격하지 않았고 대신 카이후스로우 2세의 재상, 무하자브 앓 단을 가신으로 삼아 아나톨리아의 중부인 시바스와 카이세리를 지배하게 했으며, 달아난 룸 셀주크의 술탄도 아나톨리아 남부 안탈리아에 머무르며 몽골제국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결국 이 전투는 룸 셀주크 투르크의 붕괴를 야기하는 사건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콰세다아 전투

● 다국어 표기 KÖSEDAĞ SAVAŞ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L. Cahen, “Köse Dağ,” *Encyclopaedia of Islam* 5, Leiden: Brill, 1997, pp.271~272. CL.

Cahen, *Pre-Ottoman Turkey: A General Survey of the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and History, c. 1071-1330*, tr. J.

Jones-Williams, New York: Taplinger, 1968, pp.137~138.

I G272 | 콰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oze

하카스어로 콰제(köze), 투바어로 콰제(közhee; köjee)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양을 한 석상 및 조각상이다. 다양한 형태의 석상들은 수천 년 동안 남부 시베리아의 하카스 대초원에서 발견되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형태를, 일부는 무정형으로서 고분 주변 혹은 고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석상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고대 돌궐 제국 시기까지 다양한 연대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시베리아뿐만 아니라, 광활한 대륙의 영토에서 살았던 투르크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석상들을 남겼다. 학자들은 투르크인들이 전투에서 죽인 적의 수만큼 석상을 세운다고 언급하거나, 거대 암석에 인간 또는 동물 모양을 새김으로써 암석에 신성함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카스 민속학 기록에 따르면 이 석상들의 대부분은 영웅, 무당 등 한 시대의 저명한 인물의 상징이며, 최고의 창조자 조물주(Teaaans)에 의해 돌로 변했다 전해진다. 때문에 하카스인들은 이들 석상이 모두 자신들의 조상(신)이라고 여긴다.

카타노프(Katanov)는 하카스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석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미누신스크의 타타르인들은 그들(석상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모습은 마치 그 석상들이 그들의 신성한 조상인 것처럼 그들 석상의 입에 카이막 혹은 기름을 먹이는 시늉을 한다.”

하카스인들은 이들 석상을 콰제(하카스어로 ‘영웅, 의로운 돌’)라 부른다. 조상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하는 하카스인들은, 바위로 만들어진 석상 앞이나 주변 앞을 지날 때 술을 흘뿌리거나 석상의 몸통에 기름을 칠하고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돌며 기도를 올린다. 석상의 주변을 지날 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카스)에게 매우 불쾌한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 석상의 주인인 선조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무례하게 보고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하카스인들은 석상 근처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그들이 묻혀 있는 지역 주변의 땅을 함부로 파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며 공경을 표하는 행위를 통해 선조들이 자신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투바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7세기~9세기에 고대 투르크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투바어로 궤제(közhee/köjee)라고 알려진 석상과 조각상들이 발견된다. 학자들에 의하면 궤제 숭배(석상 숭배)는 이들의 민속 신앙인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석상들은 투르크인들에게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들 석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샤머니즘을 믿는 투르크인들이 금기시하는 행위이다. 1920년대 투바 인민 공화국 당시 모든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났으며 샤머니즘 탄압에서 피해갈 수 없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거대 석상 궤제의 머리를 예니세이 강변에 가라앉히려 했으나 이 석상의 머리는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왔다고 한다. 물론 믿기 어려운 소문이지만, 이는 옛 석상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두려움이 표출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교제

● 다국어 표기 Köze / Köze(하카스어), Közhee(Köjee) / Көжээ; Közhee dazhi(köjee daji) / Көжээ дажы; Kizhi közhee / Кижичи көжээ(투바어)

● 연관 검색어 카타노프, 카이막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G273 | 궤제 팔라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oze palazy

궤제 팔라지(Koze palazy)는 초기 청동기 문화인 오쿠네프 고고학 문화에 속하는 석상으로 다른 석상들보다 크기가 비교적 작고 달걀 형상을 하고 있는 석상을 말한다. 기원전 3000년 후반 그리고 기원전 2000년 초반 오쿠네프 고고학 문화는 남부 시베리아의 땅 고유의 초기 청동기 시대 문화로서 수백 구의 석상들로 유명하며, 이들은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과 하카스 대

초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높이가 몇 미터에 달하고, 수백 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진 거대 청동기 시대의 석상들은 특히 18세기 연구를 위해 하카스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크라디코프(Okladnikov)는 그라즈노프(M. P. Gryaznov)와 쉬네드(E. R. Schneid)와 함께 1929년 하카스-미누신스크 대초원의 고대 문화에 대한 독특한 유물들에 대한 출판물을 발행했으며, 이를 계기로 마치 이스타섬의 석상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대 석상들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석상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거대 석상들 중 일부는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오쿠네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달걀 모양의 석상을 세계산의 자궁에 있는 세계의 알로 인식했으며,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죽은 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카스인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석상들을 여성 석상(거대 석상)의 자손으로 여겼으며, 립스키(A. N. Lipskiy)는 키가 50cm를 채 넘지 않는 계란 모양을 한 청동기 시대의 우상을, 쿼제 팔라지(köze palazı, 쿼제의 아이)라는 아이 석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쿼제 팔라지
- 다국어 표기 Köze palazı / Köze палазы(하카스어), Дитя изваяния(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G274 | 쿼프뤼뤼 가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가문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öprülü family

쿼프뤼뤼 가문의 시조 격인 쿼프뤼뤼 메흐메드 파샤(Köprülü Mehmed Paşa, 재임: 1657년~1661년)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대재상이었다. 그는 알바니아 출신이며, 데브쉬르메 제도를 통

하여 궁정 관료가 되었고, 일정 기간 아마시아(Amasya)의 쿠피뤼(Köprü) 지역에서 머물렀다. 그의 별명이자 가문의 칭호인 쿠피뤼뤼(Köprülü: 쿠피뤼 사람)는 이 지역명에서 유래한다. 메흐메드 파샤를 포함하여 이 가문에서 6명의 대재상(Sadrazam 또는 vezîr-i âzam)이 나왔다. 쿠피뤼뤼 가문 출신 사람들이 고위직에 머물며 오스만 제국의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 17세기 후반 1656년부터 1683년까지를 따로 '쿠피뤼뤼 가문의 시대(Köprülüler Devri)'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쿠피뤼뤼 가문 일원이 지속적으로 대재상직을 역임했다.

메흐메드 파샤는 대재상직을 역임하기 전, 초룸 지역 주지사(Çorum voyvoda), 다마스쿠스 영사(mütesellim), 아마시아 산작 주지사(Amasya sancak beyliği), 톱카프 궁전 경비대장(kapıcılar kethüdası), 재상(Vezir)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을 역임했다. 1657년 메흐메드 파샤는 대재상직에 임명되었고, 재임하는 동안 부패 척결, 오스만 군대의 재편성을 시도하여 제국 권력을 다시 중앙 집중화하고, 권력 체제를 정비하는 데 일조했다.

1658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부활하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자 그는 군사 원정을 이끌어 승리했다. 또한 그는 아버지 하산 파샤(Abaza Hasan Paşa, ?~1659년)의 반란을 진압했다. 1659년 왈라치아, 몰도비아, 에르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정을 떠나 45일간의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고령이었던 메흐메드 파샤는 병든 몸이 되자 1661년 사망하기 전 술탄에게 아들 쿠피뤼뤼 자데 파즐 아흐메드 파샤(Köprülüzade Fazıl Ahmed Paşa 재임: 1661년~1676년)를 대재상에 임명하도록 설득했다.

파즐 아흐메드 파샤는 1637년 탄생 후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 메흐메드 파샤 사망 전까지는 다마스쿠스 주의 총독(1660년~1661년)과 에르주룸 주의 총독(1659년~1660년)으로 재임했다. 1661년 대재상에 임명된 후 아버지 시대에 이미 국내 정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였기에, 재임기간 동안 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오스만-합스부르크 전쟁(1663년~1664년)에서 원정대를 이끌었고, 이어 베네치아 공화국의 칸디아(Candia, 현 이라클리오) 지역 점령, 1672년 부하흐(Buchach) 조약 등을 이끌며 오스만 제국의 영토 확장에 큰 공헌을 했으나, 1676년 병사했다.

메르지폰루 카라 무스타파 파샤(Merzifonlu Kara Mustafa Paşa, 재임: 1676년~1683년)는 4살에 부모를 잃고 부친의 친구였던 메흐메드 파샤의 밑에서 자랐으며, 후에 그의 딸과 결혼하여 쿠피뤼뤼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함께 자랐던 파즐 아흐메드 파샤와 함께 폴란드 원정에

참여했으며, 1676년 파즐 아흐메드 파샤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대재상직을 역임했다. 대재상이 된 후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코사카들의 지위 문제 처리를 담당했으며 제2차 비엔나 공성전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비엔나 전쟁에서 패배를 이유로 1683년 처형을 당했다.

코프뤼뤼 다마드 아바자 시야부쉬 파샤(Köprülü Damadı Abaza Siyavuş Paşa, 재임: 1687년~1688년)는 압하지야 출신으로 메흐메드 파샤의 노예였으나, 파즐 아흐메드 파샤가 대재상직을 역임하는 동안 경비대(kapıcılar kethüdası)에서 일하며 파즐 아흐메드 파샤의 원정에도 참여했다. 메흐메드 파샤의 딸 아이셰 하툼(Ayşe Hatun)과 결혼하여 코프뤼뤼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군 내에서 승진을 지속하여 비엔나 공성전의 참모장, 디야르바크르 주지사(1684년), 알레포 주지사(1687년) 등을 역임했다. 1687년 대재상 사르 쉴레이만 파샤(Sarı Süleyman Paşa, 재임: 1685년~1687년)에 대항하는 반란군들은 시야부쉬 파샤를 ‘대재상’으로 선택했으며, 시야부쉬 파샤도 반란에 동참했다. 당시 술탄이었던 메흐메드 4세(IV. Mehmed, 재위: 1648년~1687년)는 이 반란군이 자신을 폐위시킬까 두려워 시야부쉬 파샤를 대재상이라고 인정하고 인장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메흐메드 4세는 폐위되었고, 쉴레이만 2세(II. Süleyman, 재위: 1687년~1691년)가 술탄이 되었다. 그가 대재상직에 있는 동안 오스만 제국은 군사적 실패를 이어갔다. 시야부쉬 파샤는 반란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1688년 사망했다.

코프뤼뤼 파즐 무스타파 파샤(Köprülü Fazıl Mustafa Paşa, 또는 코프뤼뤼자데 파즐 무스파파 파샤 Köprülüzaade Fazıl Mustafa Paşa, 재임: 1689년~1691년)는 메흐메드 파샤의 차남이자 아흐메드 파샤의 동생이다. 아버지와 형이 대재상직을 역임하는 동안 근위대로 일하기도 했으며 형의 원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1680년에는 일곱 번째 재상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시야부쉬 파샤가 참여했던 군사 반란과 메흐메드 4세 폐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 정치의 혼란을 피해 한동안 지위를 내려놓았던 무스타파 파샤는 1688년 다시 정계에 진출했다. 1689년 오스만 제국은 합스부르크 군대가 발칸반도까지 진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무스파타 파샤가 대재상으로 임명되었다. 무스타파 파샤는 지방 재판관 임명으로 국내 정비를 시작했다. 재정적, 행정적, 군사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세금 제도 개혁과 국가 재정 마련과 재정 개혁을 도모했고, 군사 개혁을 통하여 군대를 강화했다. 1690년 합스부르크 군을 상대하는 원정을 이끌었으나 1691년 전쟁 중 사망했다.

암자자데 코프뤼뤼 휘세인 파샤(Amcazade Köprülü Hüseyin, 재임: 1697년~1702년)는 코

프릴뤼 메흐메드 파샤의 조카이다. 암자자데(Amcazade)는 조카라는 의미이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최초의 기록에서 1683년 비엔나 공성전 원정에서 참모 장교로 등장한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자 상관이었던 메르지폰루 카라 무스타파 파샤(Merzifonlu Kara Mustafa Paşa, 재임: 1676년~1683년)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장교였던 휘세인 파샤도 투옥된다. 1684년 감옥에서 풀려난 갈리폴리 근처의 차르닥의 경비 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공과에 따라 승진과 강등을 반복했다. 1697년 오스트리아 원정에 참여한다. 이 시기 젠타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은 참패하고, 그 직후 암자자데는 대재상직에 임명되었으며, 카를로비츠 조약을 이끌었다. 카를로비츠 조약과 젠타 전투의 패배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손실로 인하여 휘세인 파샤는 경제 및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1702년 병을 이유로 사임했고, 같은 해 말에 사망했다.

코프릴뤼자데 누만 파샤(Köprülüzade Numan Pas, 재임: 1710년 6월~8월)는 파즐 무스타파 파샤의 장남이다. 어린 시절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고 1691년 아버지 사망 이후 코프릴뤼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1696년 오스트리아 원정에 참여했고 1697년 여섯 번째 재상이 되었다. 그후 각종 직위를 역임했고, 1710년에는 술탄 무스파타 2세(II. Mustafa, 재위: 1695년~1703년)의 딸 아이셰 하툼(Ayşe Hatun)과 결혼하여 오스만 제국의 사위로서 황실 가계도에 이름을 올렸다. 1710년 술탄 아흐메드 3세(III. Ahmed, 재위: 1703년~1730년)는 누만 파샤가 러시아와의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고 그를 대재상직에 임명했으나, 술탄의 예상과 반대였기에 대재상 임명 3개월 만에 해임되었다. 해임 후에도 지방 주지사나 총독직 등을 역임했다. 1719년 열병으로 사망했다. 누만 파샤 이후 코프릴뤼 가문에서 대재상은 더 나오지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프룰루 가문, 코프릴뤼 아이레시
- **다국어 표기** Köprülü ailesi (튀르키예어), Körpülülər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대재상, 카를로비츠 조약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epe, M. Münir. “AMCAZÂDE HÜSEYİN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İstanbul:TDV, 1991, pp.8~9.
Özcan, Abdülkadir. “KÖPRÜLÜZÂDE NÜMAN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TDV, 2002, pp.263~267.
Sarcaoğlu, Fikret. “SİYAVUŞ PAŞA, Köprülü Damadı”,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7, İstanbul: TDV, 2009,

pp.313~315.

Özcan, Abdülkadir. “MERZİFONLU KARA MUSTAFA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TDV, 2002, pp.246~249.

Özcan, Abdülkadir. “KÖPRÜLÜZÂDE FÂZİL AHMED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TDV, 2002, pp.260~263.

İlgürel, Mücteba. “KÖPRÜLÜ MEHMED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TDV, 2002, pp.258~260.

I G275 | 코슬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gusli

코슬레는 러시아의 구슬리와 비슷한 형태로 현을 뜯는 추바시 민족의 전통 악기이다. 날개 모양을 한 구슬리와 차이는 부채꼴로 배열된 현의 모양에 있다. 코슬레와 유사한 악기로는 불가리아의 타타르, 마리, 우드무르트 등의 민족 악기들이 있다.

코슬레의 기원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14세기 손으로 뜯는 악기가 러시아 무당이나 광대들에게 사용되었지만 17세기 종교적 이유로 퇴출되었다. 16세기의 연대기를 보면 특별한 생김새의 구슬리가 카잔 칸국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코슬레의 기원과 연관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고대 불가리아 왕국의 부족들을 통해 유럽에 구슬리 같은 뜯는 현악기가 전해졌다는 가설도 있다. 흉노가 중국의 악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코슬레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추바시 민족은 18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 이 악기를 코슬레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매장 의식이나 추도식, 명절 식탁, 겨울 야회, 결혼식 등에서 즐겨 사용했다. 1990년대부터는 체복사리(Чебоксары)의 음악 초등학교에서 코슬레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합주단이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현대의 코슬레는 10cm~15cm 두께 이상의 큰 몸체를 가지는데 가문비나무나 단풍나무가 재료가 된다. 측벽은 원추형으로 좁아지는 복잡한 곡선 모양이며 상판은 130cm~135cm, 폭은



교슬레

60cm~65cm이다. 교슬레의 소리는 크지 않지만 뚜렷하며 풍부한 음색을 지닌다. 남녀 모두 연주하는데, 연주할 때는 앉아서 악기를 무릎에 얹고 타원형의 부분을 가슴에 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괴슬레, 쿠슬레, 코슬레

● 다국어 표기 Кёсле(추바시어)

● 참고문헌(온라인) 추바시 백과사전 КЁСЛЕ

<http://enc.cap.ru/?t=publ&lnk=897>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тков, К., Благодартов, Г., Язовицкая, Э.,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63, 53.

I G276 | 쿠뒸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düm

쿠뒸땀은 주로 종교 음악에 사용되는 반구형 드럼 형태의 악기이다.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악기 각각의 크기는 유사하나 각각 면의 두께 차이로 소리에 차이가 난다. 쿠뒸땀 면의 지름은 약 28cm~30cm 가량이며 악기의 높이는 지름의 절반 정도이다. 몸체는 주로 구리로 만들지만, 때에 따라 금을 섞어 만들기도 한다. 채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낙타 가죽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가죽의 두께는 하나는 2mm, 다른 하나는 1mm 정도이다. 채의 길이는 25cm~30cm 가량이고, 주로 목재를 이용해 만든다.

구리로 된 몸체가 바닥에 닿아 소리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으로 만든 도넛형의 방석 같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연주한다. 가벼운 소리를 내는 오른쪽의 쿠뒸땀은 ‘뒸땀(düm)’이라고 부르고, 높은 소리를 내는 왼쪽의 쿠뒸땀은 ‘테크(tek)’라고 부른다.

쿠뒸땀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단지 단어의 어원이 ‘먼 곳에서 온(kudûm)’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예블리이아 첼레비의 기록에 쿠뒸땀 연주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하다.



쿠뒸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쿠뭇은 주로 이슬람 신비주의 종단의 종교 행사에서 연주되며 특히 메블레비하네 (Mevlevihane: 메블라나 종단 텍케)의 종교 행사에서 많이 연주되었다. 특히 메블레비하네에서 쿠뭇은 가장 중요한 리듬 악기로 취급되며 쿠뭇을 연주하는 사람을 쿠뭇젠(Kudümzen)이라고 부른다. 쿠뭇젠은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메블레비하네의 종교 행사에서 연주단을 이끈다. 세마젠(semazen: 메블라나 세마 춤을 추는 승려)의 발걸음과 인사에 맞추어 쿠뭇은 센 음량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이슬람 신비주의 종단에서 연주되던 쿠뭇은 차츰 비종교 곡에서도 연주되고 있으며 오늘날 튀르키예에서는 국립 튀르키예 전통 음악단 등에서 타악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뭇
- 다국어 표기 kudüm(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1/Kud%C3%BCm.jpg>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kud%C3%BCm+
- 참고문헌(오프라인) Ungay, Hurşit. “kudü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323~323.
Rauf Yekta Bey, *Türk Musikisi* (Trans.; Orhan Nasuhioğlu), Istanbul : Pan Yayıncılık, 1986.

I G277 I 쿠드리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udryge

쿠드리게 유적은 러시아 알타이의 추루스만(Chulyshman)과 텔레스코예(Teletskeye) 호수의 합류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쿠드리게 강의 우안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1920년대와 1980년대에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에서는 호석이 둘러진 무덤이 확인되었다. 돌판을 수직으로 세워서 돌린 후 그 안에 석관을 설치하거나 혹은 무덤구덩이 위를 덩어리 돌로 덮은 구조의 무덤이다. 평면 형태 장방형으로 대체로 1.5m×2m~3.5m×4m 크기이다. 무덤을 둘러싼 호석은

계속 연접해서 증축되었다. 그래서 무덤을 두른 호석은 안의 무덤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미 설치된 호석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자를 매장한 곳에서 5m~7m 떨어진 구덩이에 말을 매장했다. 이곳에서는 재갈과 재갈멈치, 등자, 버클, 갑옷(찰갑), 검, 단검, 화살통, 뼈 화살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동물의 뿔로 제작된 안장 장식으로 두 마리 호랑이를 묘사한 유물이 잘 알려져 있다. 두 마리의 호랑이와 그 양쪽에 유제류와 곶을 쫓는 궁수가 표현되어 있다. 사냥하는 장면은 고대 투르크 민족에게 일반적인 것이다. 묘사된 인물은 사산 제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속유물 가운데, 재갈멈치, 4~6세기 여성 두부 장식을 흉내 낸 은제와 청동 귀걸이, 동물 문양이 그려진 세공품 등은 사산 제국과 관련된 것이다.

알타이의 투르크 시대 다른 유적과 함께 분석한 결과 쿠디리게 문화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시기는 6세기~7세기 혹은 7세기와 8세기 가량으로 추정된다. 쿠디리게 유적은 630년에 알타이로 갔던 돌궐 제국의 카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드리게

● 다국어 표기 Кудырыгэ(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제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Гаврилова А.А., Могильник Кудырыгэ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алтайских племён. М.-Л.: 1965. 144 с.

Илюшин А.М., Могильник Кудырыгэ и вопросы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истории Саяно-Алтая. //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аяно-Алтае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2000. С. 157~169.

Азбелев П.П., К исследованию культуры могильника Кудырыгэ на Алтае. // Пят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чтения памяти Михаила Петровича Грязнова. ТД Всеросс. науч. конф. (Омск: 19-20 октября 2000 г.). Омск: ОмГУ, 2000. С. 4~6.

I G278 | 쿠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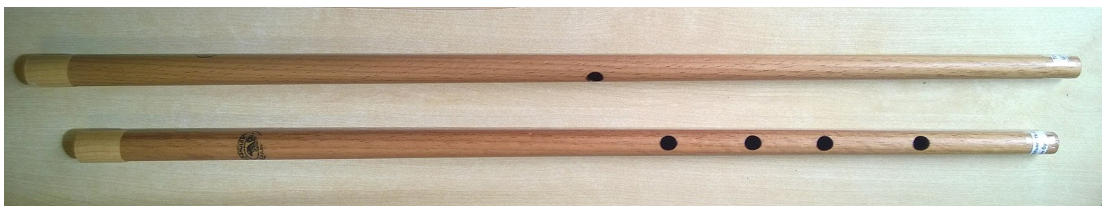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Quray

쿠라이는 바시키르, 타타르 민족의 관악기이다. 치비즈가(чибызга)로 부르기도 한다. 구성과 재료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인 호른보스텔-작스 분류법에 따르면 쿠라이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기명 악기(aerophone)에 해당하며 플루트의 하위 분류로 포함되면서 현악기에 속한다.

길이는 다양한데 보통 120cm~180cm부터 450cm~1,000cm까지 이르기도 한다. 음역대나 박자, 역동감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인 재료는 말린 우랄 누룩치 깃대지만, 오늘날에는 금속이나 합판 같은 현대적 재료를 쓰기도 한다. 독주, 합주, 협주 악기로 사용된다. 바시키르 민족과 타타르 민족에게 쿠라이는 가장 널리 퍼진 악기이다. 명절이나 축제에서 쿠라이 명인들이 경연 대회를 펼치기도 한다.

쿠라이의 어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킵차크어화된 페르시아어가 기원이라고 추측된다. ‘쿠라’는 큰 산형 식물의 깃대를 의미하고 ‘나이’는 플루트를 의미한다. 고대 투르크어의 ‘콰구라이(qağuray)’에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는데, 이는 ‘마른’, ‘건조한’이란 의미이며, 고대 몽골어로 콰구라이는 마른 깃대란 의미이다.

쿠라이에 대한 첫 번째 문헌 기록은 18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팔라스(П.С. Паллас)가 학술 탐험을 하고 쓴 『러시아 제국의 각 지방 여행』에서 처음 기록되었다.



쿠라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구라이, 크라이
- 다국어 표기 الكوراي(아랍어), Kuray(아제르바이잔어), Кура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프즈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9/Quraybash.jpg/68px-Quraybash.jpg>
<https://www.youtube.com/watch?v=zG092DV8bVk>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тков, К. А., and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Благодатов.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Гос.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во, 1963, 56~57.

I G279 | 쿠레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스포츠
● 집필자 김홍중, 황영삼 ● 라틴 문자 Kurash

쿠레시는 한국의 씨름과 유사한 투르크 민족의 전통 무예이다. 정확한 출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유라시아 초원 문화에 속하는 유목 민족에게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예로서 씨름, 레슬링, 유도와 비슷하다. 도복을 입은 두 선수가 유도 시합과 같이 힘을 겨루어 상대방의 어깨를 지면에 닿게 하면 승리하게 된다. 쿠레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격투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국제 쿠레시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그 역사가 최소 3500년 이상이다.

소련 시기에 스포츠 게임으로 정착되어 1948년부터 쿠레시 전국 대회가 열려왔고 1980년대 초 쿠레시, 삼보, 유도 선수였던 코밀 유수포프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기 규칙을 만들었고 이는 러시아 쿠레시에 적용되었다.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널리 즐기는 운동이다.

‘싸움’이란 뜻의 쿠레시는 아제르바이잔어로 güleş, 바시키르어로 көрәш, 타타르어로 кҮреш, 튀르키예어로 güreş로 불린다.

쿠레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서 있는 상태에서 규칙에 따라 겨룬다. 어떻게 상대를 쓰러뜨리는지 심판이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쿠레시 규칙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쿠레시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쿠레시 경기는 정식 경기장 이외에도 일반 들판에서도 펼칠 수 있어서 대개 카자흐인들의 전통 축제에서 많이 진행되기도 한다.

투르크 국가들은 쿠레시를 두고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는데, 2016 카자흐스탄 쿠레시 (казакша кyрес)가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전통 쿠레시 경기를 전통 무예의 하나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후세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 반면 현재 국제 쿠레시 연맹(International Kurash Association)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귀레시, 규레쉬, 귀레쉬, 쿠라쉬, 쿠레시

● 다국어 표기 Кyреш, кyраш(러시아어), көрәш(바시키르어), Кyрес(카자흐어), güleş(아제르바이잔어), кyреш(타타르어), güreş(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바시키르어, 타타르어,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쿠레시 시합(2018, 예카테린부르크 사반투이)

<https://www.youtube.com/watch?v=WD5OY4fZg4k>

타타르스탄 쿠레시 시합

https://www.youtube.com/watch?v=-oEI5maczfw&has_verified=1

카자흐스탄 쿠레시 시합

<https://ich.unesco.org/en/photo-pop-up-00973?photoID=09843>

<https://youtu.be/QW-gnUCA1TA>

● 참고문헌(온라인) 쿠레시의 역사

<https://kurash-ika.org/en/istoriya-kurasha/> Хабибуллин Ильгам Зульффарович Традиционная башкирская борьба курэш // Вестник ЧелГУ. 2008. №35.

<https://cyberleninka.ru/article/n/traditsionnaya-bashkirsкая-borba-kuresh>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6.04.2020).

http://womau.org/bbs/board.php?bo_table=e_ak_b3x1&wr_id=67&pageNum=2&subNum=1&ct=49, <http://worldnomadgames.com/en/sport/Kazakh-Kuresi/>

● 참고문헌(오프라인) Janet Blake, Lucas Lixinski eds., *The 2003 UNESCO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Хабибуллин Ильгам Зульффарович,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Курэш как элемент традицион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башкирского народа, Ав. Диссер. Канд. Н., Ижевск, 2008, 5~7.

I G280 | 쿠루쉴루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rşunlu mosque

쿠루쉴루 모스크는 게르미안 공국의 중심지였던 쿠타히아(Kütahya)에 건설된 초기 모스크 중 하나이다. 1377년~1378년 쉴레이만 샤후(Süleyman Şah, 재위: 1361년~1387년) 시대에 아히 셰이크 무함메드 빈 알라엠티딘(Ahi Sheikh Muhammed bin Alaaddin)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다. 이 모스크의 돔은 구리(Kurşun: 쿠루쉴)로 덮여 있는데, 여기서 모스크의 이름을 따왔다. 쿠루쉴루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 시대, 이 지방의 통치자였던 카심 파샤(Kasım Paşa)에 의해 복구되어 카심 파샤 모스크(Kasım Paşa camii)라고 불리기도 한다.



쿠루순루 모스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 모스크에는 약 7m x 7m 크기의 정사각형의 기도실과 기도실 북쪽에 인접한 배랑이 있다. 기도실은 지름 6m의 돔이 덮여 있으며, 반원형의 미흐랍은 벽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키블라 벽 상단부에는 아치형 창이 나 있다. 동쪽 벽과 북쪽 벽에도 창문이 있다.

이 모스크의 배랑은 3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앙은 미러 볼트, 양쪽은 돔으로 덮여 있고, 양쪽 끝에는 벽이 세워져 있다. 배랑 중앙에 기도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 배랑은 마름돌로, 기도실의 경우 벽돌과 석재가 섞여 사용되었다.

쿠루쉬루 모스크의 미너렛은 모스크 동쪽 모서리의 벽과 인접해 있다. 정사각형 밑받침 위에 원통형으로 솟은 미너렛은 기도실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나선형 계단을 통해 미너렛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다.

3개의 돔과 볼트로 덮여 있는 배랑과 싱글 돔은 게르미안 공국 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모스크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게르미안 공국의 건축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루쉬루 자미, 쿠루쉬루 모스크, 쿠타하 쿠루쉬루 모스크, 쿠타하 구루쉬루 모스크
- 다국어 표기 Kurşunlu Cam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live.staticflickr.com/4602/25745115197_0f6934d912_b.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620>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G281 | 쿠룸친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문화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urumchin culture

1912년에 페트리가 처음 유적을 발굴한 쿠룸친 문화(Kurumchin culture)는 기원후 5세기 바이칼의 투르크 문화로 부랴트족 혹은 야쿠트족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주로 바이칼 호수 연안과 앙가라 강, 레나 강, 셀렝가 강 등에 분포하고 있는 이 문화의 유적은 취락지와 묘지, 암각화

등이 있는데, 대표적 유적으로 쿠리칸(КУРЫКАН, KURYKAN)과 호리(ХОРИ, HOR)가 있다. 이 유적은 토성, 취락, 무덤 등이 확인되는 복합 유적이다. 취락지는 흙 성벽을 쌓아올려서 만들어졌는데, 지형에 따라 평면의 형태가 다양해 궁형, 방형, 부채꼴 등이 있다. 집을 만들 때 자작 나무 껍질과 낙엽송 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든 점이 특징적이다.

바이칼 호수의 올흔 섬 암각화에 이들의 주거 형태 중에 하나인 춤(chums)이 그려져 있다. 무덤은 깊은 수혈을 파고 석관묘를 쓰고 나무로 덮은 것이다. 무덤의 두향은 북동쪽이다. 흥미로운 점은 무덤 주변에 가묘를 쓰는데, 1기에서 많게는 100기까지 가묘를 쓰는 경우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일상생활 용구, 무기류, 장신구 등이다. 생활 용구로는 토기가 대표적이는데 토기 모양은 원통형으로 지그재그 문양이 그려졌다. 철제 낫, 팽이, 맷돌 등의 생활용구 외에도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도 다수 출토되었다. 쿠림친 문화의 형성에는 흉노 문화가 많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루무친 문화

● 다국어 표기 Курумчин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Дашибалов Б. 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урыкан и хори. Улан-Удэ, 1995.

Харинский А. В. Предбайкалье в кон. I тыс. до н. э. сер. II тыс. н. э.: генезис культур и их периодизация. Иркутск, 2001.

Ⅰ G282 Ⅰ 쿠르드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ürt

쿠르드는 현재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유랑 민족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약 4,000만 명의 인구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중 1,500만 ~2,000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튀르키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튀르키예 최대의 소수 민족이다.

이들은 ‘쿠르만주어’와 ‘키루다시어’라는 독자 언어를 쓰는 인도 유럽어계 민족이다.

쿠르드족은 4,000여 년 전 지금의 이란·이라크 국경 지대에 있는 자그로스 산악 지대에 살던 고대 민족 ‘구티(또는 쿠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중동 일대에서 고유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다 중세 때 아랍 민족의 통치를 받은 이후 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었고 투르크 민족의 아나톨리아 진출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수차례 독립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주변국의 방해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 쿠르드족은 1920년 세브르 조약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1923년 영국은 모술 지역 등의 유전 지대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신탁 통치를 받던 바그다드에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의 땅) 지역 통제권을 넘겨줬으며, 이후 영국·프랑스가 주도해 만들어진 국경선에 따라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아르메니아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튀르키예 쿠르드족은 1984년 압둘라 외잘란에 의해 결성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라크 북부 산악 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튀르키예를 상대로 무장 분리주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큐르트

● 다국어 표기 Kurds/Kurdish(영어), كورد(아랍어), Kür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니, 세브르 조약, 쿠르드노동자당

● 참고문헌(오프라인) The World Factbook (Online ed.). Langley, Virginia: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5. ISSN 1553-8133. Retrieved 2 August 2015.

lady, Mehrdad R., *The Kurds: A Concise Handbook*. Taylor & Francis, 1992.

I G283 | 쿠르드 노동자당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정당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rtia Karkaren Kurdistan

쿠르드 노동자당의 정식 명칭은 쿠르드 노동당(Partia Karkaren Kurdistan: PKK)이다. 1978년 11월 27일 튀르키예 쿠르디스탄의 상징적인 수도인 디야르바크르에서 설립된 쿠르드 민족의 독립운동 단체로 1984년부터 본격적인 무력 투쟁을 전개했다.

PKK는 출범 이후 튀르키예 내 쿠르드 민족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쿠르드 민족의 설움과 착취를 해결해줄 유일한 해방구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튀르키예의 동부 지역을 통제할 정도로 성장했다. PKK의 이러한 성장은 튀르키예를 자극시켜 강력한 탄압을 초래했다.

1980년 9월 레바논 베카 계곡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PKK 지도부는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1983년 튀르키예로 돌아가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1980년부터 이라크의 쿠르드 민주당(KDP)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기 시작했다. PKK는 시리아와 그리스의 지원을 받았지만 1998년 10월 20일 튀르키예에 저항하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한 ‘아다나 각서’로 인해 시리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그리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PKK의 모든 지부를 지원했다.

PKK의 유혈 독립 투쟁은 1984년 아나톨리아 남부의 튀르키예군 기지 두 곳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PKK의 사령관인 압둘라 오잘란(Abdullah Ocalan)은 이라크와 튀르키예 국경의 보단바디난 지방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로 하고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 세력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라크와 튀르키예는 PKK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그러자 PKK는 튀르키예 국내의 무장 병력 3,000명과 국외의 무장 세력 7,000명에게 격문을 보내면서 이라크군과 튀르키예군에 대한 반격을 펼쳤다. 그들은 이라크군과 튀르키예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테러와 방화 및 파괴에 치중했고, 산악 지대에서는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1984년 봄철 전투에서는 쿠르드 게릴라 측 2,700명이 사망했고, 튀르키예군과 이라크군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튀르키예와 PKK 간의 무장 대립은 1992년부터 한층 더 격렬

해졌다. PKK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과 치안 기관 시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로켓탄으로 공격했다. 이에 튀르키예군은 동남부 지방에 병력 15만 명을 배치하는 한편, 이라크 영토 내로 병력 2만 명을 월경시켜 PKK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PKK 사령관 오잘란은 1993년 튀르키예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쿠르드 국가 독립 요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면서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PKK 내의 강경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5월 독단적으로 전투를 재개하고, 튀르키예군 38명을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튀르키예 정부의 태도는 다시 강경한 탄압 쪽으로 전환되었다. 쿠르드족 분리운동은 1999년 2월 PKK 반군 지도자 오잘란이 케냐에서 체포되어 튀르키예로 압송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격렬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튀르키예 정부는 강경 정책을 지속하여 PKK 반군 대규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PKK는 이에 맞서 독립 전쟁 총 공세를 결의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오잘란은 PKK 반군에게 전쟁 종식과 튀르키예 영토 내 철수 및 튀르키예군에게 항복을 명했다. 그 결과 일부는 항복했으나 대부분은 이라크와 이란의 거점 기지로 이동하여 반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오잘란의 체포 이후 튀르키예 내에서 세력이 약화된 PKK는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력 부대가 이라크 북부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정부군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PKK 소탕을 위해 이라크 북부 국경을 넘어 PKK군을 공격했고 쿠르드 민주당(KDP)을 지원하여 PKK 소탕 작전에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결국 이러한 공조 체제로 인해 PKK와 KDP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2004년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브레머 미국 행정관으로 하여금 PKK가 테러 조직임을 다시 밝히게 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독립 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PKK가 이라크 내의 정치 세력화가 되는 것을 매우 우려해왔다. PKK는 명칭을 쿠르드족 인민 의회(KONGRA-GEL)로 바꾸고 이라크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튀르키예군과 간헐적인 교전을 지속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언어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화 정책을 펴는 한편 PKK 등 쿠르드 분리운동 세력에 대한 무력 소탕 작전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 연합 등의 국제 단체는 PKK를 테러 단체로 간주한다. 1948년 이후 37,000명 이상이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튀르키예와 동맹국이 아닌 스위스,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의 국가들은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PKK, 페카카

● 다국어 표기 Kurdistan Worker's Party(영어), Partia Karkaren Kurdista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lci, Ali, *The PKK-Kurdistan Workers' Party's Regional Politic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Springer, 2016.

Bilgin, Fevzi; Sarihan, Ali, eds., *Understanding Turkey's Kurdish Question*. Lexington Books, 2013.

I G284 | 쿠르만가즈 사그르바울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황영삼, 김근식 ● 라틴 문자 Kurmangazy Sagyrbaiuly

쿠르만가즈 사그르바울르(1823년~1896년)는 제정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던 부케이 칸국(1801년~1845년) 지금의 서카자흐스탄 주에서 출생하여 음악가, 예술가로서 활동한 근대 카자흐 민족 작곡가이다. 돔브라 등의 악기를 연주하여 카자흐 음악 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쿠르만가즈는 8세 때 당시 유명한 사회운동가였던 우작(Uzak)을 만나면서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고, 돔브라 연주를 통해 카자흐인들의 정서를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후 10년간 고향을 떠나 음악을 공부하며 작곡가로서 실력을 갖췄다.

쿠르만가즈가 성장할 무렵 그가 거주하던 부케이 칸국은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 저항하며 카자흐인들의 국가를 유지하던 때였다. 따라서 카자흐인의 민족주의 정서가 들어간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일은 곧 러시아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정치적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1860년대의 제정 러시아 사법 개혁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쿠르만가즈가 남긴 돔브라 곡(돔브라 큐이)은 약 60개로서 돔브라 연주를 위해 작성되었고, 카자흐인의 민족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작품에는 <꿀 같은 기분>, <아다이>, <마쉬나> 등이 서정적인 것이고, 1830년대 부케이 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봉기를 다룬 작품으로는 <키쉬켄타이>가 있다. 그의 사망 연대가 1889년 혹은 1896년 등으로 모호하지만 쿠르만가즈는 지금의 러시아 지역인 아스트라한 주에서 생을 마감했다. 알마티에는 그의 이름을 딴 쿠

르만가즈 국립알마티 음악원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르만가지 사그르바울르
- 다국어 표기 Құрманғазы Сағырбайұлы(카자흐어), Курмангазы Сағырбайұл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 멀티미디어 링크 19세기 카자흐인 작곡가 겸 돔브라 연주가인 쿠르만가즈의 모습
<https://presidentlibrary.kz/en/news/memory-terrible-tragedy-august-6-world-day-prohibition-nuclear-weapon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nur.kz/1739364-kurmangazy-sagyrbajuly-biografia.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85 | 쿠르반 바이라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Kurban Bayramı

쿠르반 바이라므는 튀르키예어로 라마잔 바이라므(Ramazan Bayramı)와 함께 이슬람교의 2대 종교 명절 중 하나이다. 쿠르반은 아랍어 꾸르반(Qurban)에서 온 말로 희생물을 뜻하고, 바이람은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로 명절을 의미한다. 아랍어로는 이드 알아드하(Id al-Adha)라고 한다. 튀르크 문화권에서는 쿠르반 하이트(Qurban Hayit), 쿠르반 아이트(Kurban Ait), 에 이데 꾸르반(Eid-e Qurban) 등으로도 불린다. 라마단 단식이 끝난 후 시작하는 라마잔 바이라므와 비교하여 더 큰 명절로 간주하기에 뷔웁바이람, 즉 대명절(大名節)이라고 한다.

코란 37장 99절~111절에 따르면, 이브라힘(아브라함)은 알라의 명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 했다. 히브리 성서 창세기 22장 1절~18절에서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코란에서는 이브라힘의 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인 112절~113절은 이스마일을 언급한다. 무슬림 전승은 이브라힘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들이 이스마일이라고 믿는다.



쿠르반 바이람의 희생 제물 잡기

이처럼 이브라힘의 강한 신앙을 본받아 메카 대순례 기간인 순례월 10일에 전 세계 무슬림들은 양, 염소, 낙타 등 가축을 희생하여 알라에게 바치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튀르키예를 비롯한 투르크 문화권 국가에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리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르반, 쿠르만 바이람

● 다국어 표기 Id al-Adha(아랍어), Kurban Bayramı(튀르키예어), Qurban bayramı(아제르바이잔어), Иди Курбон(타지크어), Қўрбан айт(카자흐어), Курман айт(키르기스어), Qurban hayit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하즈, 라마잔 바이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r.wikipedia.org/wiki/Kurban_Bayram%C4%B1#/media/File:1_Animal_sacrifice_at_Eid_at_Adh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Firestone, Reuven. "Sacrifice."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516–518. Vol. 4.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4.

Mittwoch, E. "Īd al-Aḡḡā."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1007–1008. Leiden: Brill, 1971.

I G286 | 쿠르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시대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kurykan

중국의 역사서 『당서』에 의하면 ‘Guligan이 바이칼 북쪽에서 유목을 행했다. 그들의 군사는 5,000명에 달했다.’라고 한다. 이들이 투르크어를 사용한 ‘guligan’, 즉 쿠르칸(kurykan)족이다. 이 민족은 5세기~8세기에 존재했던 쿠룸친스크(kurumchinsk)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유물에 의하면 쿠르칸족의 경제와 문화는 『당서』의 기술보다 더 풍요롭고 다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쿠르칸 사람들은 소, 양, 염소, 낙타, 특히 말을 사육했다.

쿠르칸 말의 우수성은 지역 밖에까지 알려졌다. 그 당시 중요한 일은 혹독한 겨울을 대비한 건조 준비였다. 바이칼 부근에서는 초목 지역의 농사에 이용된 관개 시설도 발견되었다. 정착지 주변에서는 긴 이랑 모양의 경작지와 주철 쟁기, 쇠낫, 맷돌 등의 농기구들이 발굴되었다. 농작물로는 수수, 밀, 보리, 삼을 재배했다.

쿠르칸족은 사냥과 어업에도 종사했다. 사냥은 주로 가을철에 이루어졌다. 이때 잡은 고기들은 혹독한 추위 덕분에 겨우내 보관이 쉬웠다. 어업의 증거로는 출토된 낚시 바늘과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린 시시킨(Shishkin) 벽화가 있다. 쿠룸치 사람들의 가옥이 발견된 우시칸(Ushkan) 섬은 바이칼의 바다표범(nerpa)을 잡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야금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쿠다(Kuda) 강 계곡과 우투-엘가(Utu-Elga) 지역에서는 풀무에 통풍구가 있는 용광로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굴된 화살촉과 칼들은 매우 품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 형태는 움막집과 천막집(유르트)이 공존했다. 쿠르칸의 시대는 10세기까지 지속되었다가, 키르기스(Kyrgyz) 왕국(8세기~12세기)에 의해 쇠퇴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르칸
- 다국어 표기 курыкан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ванов В.Н.(ed). Якут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ИГИ, Якутия. 2007, 166-169.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pp.26~27.

I G287 | 쿠르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urt

쿠르트는 유목 생활을 영위하던 카자흐인들의 전통 발효 음료로서 요구르트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대개는 둥근 고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시장에 가면 크기는 작고 둥글게 생긴 하얀 음식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쿠르트’로 불리는 치즈이다. 사용되는 우유는 양이나 암말에서 얻어지고, 제조 과정에는 가족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의 작업으로 만들어진다.

착유 직후에는 우유를 용기에 넣고 신맛이 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점차 응고되어 두꺼워지면 여성 연장자가 종종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발효유를 가공하여 살구 정도의 크기로 둥글게 만든다. 이후 둥글게 된 것은 야외에서 천 위 또는 유목민이 거주하는 천막 지붕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쿠르트는 형겔 안에 보관되어 이동된다. 맛이 매우 짜기 때문에 사용 전 크므즈(쿠미스)나 물에 혼합된다. 갈슘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는 종종 아기에게 작은 조각을 준다. 쿠르트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 겨울에는 우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식처럼 먹거나 수프나 고깃국에 첨가한다.

카자흐인들의 이러한 전통적 유목 생활 방식은 19세기 이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고, 소련 시기에는 정착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서 점차 유목 생활의 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제조법을 고수하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쿠르트 제조의 전통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쿠르트는 ‘카식’이라고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르트, 카쉬
- 다국어 표기 Кыргыз(카자흐어), кыр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크즈, 유제품(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uS3OZZGEP>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fondazione-lowfood.com/en/ark-of-taste-slow-food/kurt-cheese/>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88 | 쿠릴타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구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urultay

쿠릴타이(Kurultay)는 투르크 민족이나 몽골 민족을 비롯하여 북방 유목민 사이에 옛날부터 관행으로 내려온 합의 제도(合議制度)를 지칭하며 투르크어와 몽골어로 ‘집회(集會)’를 의미한다. 유목민은 이동성 목축에 의존해 왔으므로 씨족(氏族), 즉 혈연자(血緣者)의 집단 내지 이에 준하는 집단을 사회 구성의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약간의 혈연관계가 있는 씨족에 의하여 부족이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 씨족이나 부족에는 각각 내부에서 선출되는 장로가 있어서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선우(單于) 또는 가한(可汗, 카간)이 추대되었고 중요한 국사가 결정되었다. 이 합의를 위한 모임을 쿠릴타이라고 한다. 몽골 제국의 칸은 쿠릴타이를 통해서 선출됐다. 이외에 킵차크 칸국 등에서도 쿠릴타이와 유사한 정치 회의를 통해 칸이 선출됐다.

일반적으로 쿠릴타이 기간 동안 투르크족이나 몽골족의 왕족과 족장은 다음 칸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됐다. 쿠릴타이는 새로운 칸 선출뿐만 아니라 법 제정, 군사 행동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치 회의였다. 쿠릴타이는 칸의 명으로 널리 소집되는 왕공(王公) 및 유력 부족의 수장, 중신으로 구성된 유목 국가의 최고 정치 회의였다. 그 역할은 크게, 우선 황제(칸) 후보자 선정이나 즉위, 세계 각국으로의 원정 계획 수립, 그리고 법령 제정 등이었다. 주로 봄이나

여름에 많이 개최되고, 큰 강의 수원지 등 목초지와 물이 있는 토지가 개최 장소였다. 또한 한 명의 칸(황제) 아래서 두세 번 정도 개최되었고, 황제의 오르도 근처에서 행해졌으며 국정에 대한 토의를 거치고 난 뒤에는 이를 경축하는 토이라는 연회가 뒤따랐다.

몽골 황제나 황족들이 울르스(국가)의 방침을 결정하고자 주최하는 쿠릴타이는 특히 예케 쿠릴타이(Yeke Qurilta, 페르시아어로는 Qūriltāi-yi Buzurg로 번역하면 대(大)쿠릴타이)라고 불렸다. 그 밖의 집회를 제르게(jerge)라 불렀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국회에 상당하는 로야 지르가의 ‘지르가’라는 말의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사서(史書)에 수록된 유목민 관계 기록에도 1세기의 흉노(匈奴)·선비(鮮卑)·오환(烏桓) 등에 쿠릴타이가 존재했던 흔적이 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경우이다. 이 나라에서는 칭기즈 칸으로부터 적어도 쿠빌라이까지는 쿠릴타이가 본연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군주권(君主權)이 절대화함에 따라서 쿠릴타이는 형식화되고 군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국회(國會)’가 되어버렸는데, 이와 같은 쿠릴타이의 변질은 일찍이 흉노 등에 게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군권(君權)이 약화되면 쿠릴타이는 또 다시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흉노의 주권이 분열하거나 동요할 때 장로들의 회의에서 선우가 추대되었던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릴타이

● 다국어 표기 ᠬᠤᠷᠠᠯᠲᠠᠢ(몽골어), قوريلتاي(페르시아어), 忽里勒台(중국어), Khuraltai(영어), Кыргызтай(러시아어), Kurultay(튀르키예어), Qurultay(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칭기즈 칸

● 멀티미디어 링크 [Qurultay of the Crimean Tatar people](#)

A video (in the Bashkir language) about the Second World Qoroltay of the Bashkirs

● 참고문헌(오프라인) Grousset, R.,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Michael., *Burgan, Empire of the Mongols* (Rev. ed.). New York: Chelsea House, 2009.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I G289 | 쿠만딘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umandin

러시아의 투르크계 소수 민족인 쿠만딘(Kumandin)인은 20세기 초까지는 타타르-키지(타타르인)로 스스로를 불렀지만 곧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세웠고 1990년 초반부터 독립적인 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쿠만딘은 쿠만딘어로 ‘백조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백조는 쿠만딘 민족의 토렘이다. 언어적으로 쿠만딘인들은 투르크계지만 생활 관습은 우그로-사모예드의 특징을 보인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총 인구가 2,892명이었다. 이들은 알타이 변강, 알타이 공화국, 케메롭스키 주에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쿠만딘어, 알타이어,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쿠만딘 민족이 믿는 종교는 지역화된 샤머니즘, 부르하니즘, 러시아 정교이다. 쿠만딘인들의 기원은 초원 유목 지대의 몽골화로 인해 투르크계 민족이 시베리아 삼림 지역으로 밀려난 것에서 시작된다. 북알타이 지역에서 이들은 사냥, 어업, 채집, 원시 농업에 종사했다.

쿠만딘인들은 스스로를 ‘쿠만디(къуманды, къубанды)’로 부르며 적극적으로 민족 부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르노-알타이에서는 1999년부터 쿠만딘 민족 부활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2007년 쿠만딘 지식인들은 북알타이 토착 민족 쿠만딘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쿠만딘 민족 정체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만딘인, 쿠만, 쿠만디족
- 다국어 표기 Кумандинцы(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2005.
Малинов А.В. Сб.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ного Алтая», СПб., 2008.

I G290 | 쿠미스 알루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마술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umis Alu

쿠미스 알루(Kumis Alu)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말을 탄 선수들이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말을 탄 채 달리면서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동전을 누가 많이 줍는가를 겨루는 경기이다. 이때 동전은 비닐 랩에 포장되어 있어서 그 랩을 낚아채면 되고, 대개 일렬로 흩어져 있는 동전 포장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정확히 손으로 건져 올려야 한다. 지나간 동전은 다시 되돌아가서 건져올 수 없다.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말에서 내리지 않고 건져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쟁터에서 떨어져 있는 화살이나 기타 무기류를 바로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곧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것이다. 말을 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경기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손이 땅에 닿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뛰어난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경기에 임하기도 한다.

대체로 이 경기의 선수들은 청소년들이 많으며 한번에 모든 동전을 줍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땅 위에 있는 포장지를 잡아야 하므로 놓치게 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경기는 히포드롬(경마장)의 트랙에서 진행되며 크즈-쿠우 등과 함께 실행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미스 알루
- 다국어 표기 Кумис Алу(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민속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ld.qazaqtv.com/en/programms/viewArchive?id=24216>
- 참고문헌(온라인) <https://oldru.kyzylorda-news.kz/news/rukhanizhangyru/23815-igra-nashih-predkov-kumis-alu.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291 | 쿠미크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쿠미크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umyks

쿠미크인들은 러시아 연방의 투르크계 민족으로 50만명 정도의 인구규모이다. 인구 대부분은 다게스탄 공화국(43만 명)에 살고 있으며 북오세티야 공화국과 한티만시 자치구(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에도 소수가 살고 있고, 튀르키예로도 일부가 이주했다.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는 과거 실크 로드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테르스코-술라크스키 하류 지역과 다게스탄 저산 지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쿠미키야라고 부르기도 한다.

쿠미크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설은 다게스탄 주민들이 투르크화된 것이라는 것과 투르크계 민족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어느 설이든 투르크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북다게스탄을 대표했던 하자르 칸국이 그러하다. 쿠미크란 민족 명칭의 기원은 확실치는 않는데, 과거 폴로베츠 민족에게서 나온 키마키(кимаки)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킵차크인의 다른 명칭인 쿠만(куман)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북캅카스에서 투르크 민족을 쿠미크(кумык)나 쿠무크(кумук)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쿠미크의 전통적 가족 형태는 30명까지 이르는 씨족 공동체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 제도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었고 그 이후 소가족 제도로 변화했다. 여성들의 소유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안 물건들은 공동 소유 형태를 유지했다.

쿠미크인들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지만 구비 문학에는 고대 텡그리즘의 영향이 엿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미키
- 다국어 표기 Кумыки(러시아어), قوموق(아랍어), Kumuk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다게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G292 I 쿠바다바드 궁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badabad palace

쿠바다바드 궁전은 알라엿딘 케이쿠바드 1세(I. Alâeddin Keykubad, 재위: 1220년~1237년)의 명으로 1226년~1236년에 건설된 셀주크 시대의 궁전이다. 지금의 튀르키예 베이세히르(Beyşehir) 호숫가에 위치해 있는 쿠바다바드 궁전은 건축가 에미르 사뎃딘 쿠피켄(Emîr Sâdeddin Köpek)의 책임하에 건설되었다.

최초 유적 발굴을 한 제키 오랄(M.Zeki Oral)에 이어서 1965년~1966년에는 카트리나 오토돈(Katharina Otto-Dorn)이, 1980년대 이후에는 뤼츠한 아룩(Rüçhan Arık)이 이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궁전의 주요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다.

발굴 결과 낮은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벽 일부분과 궁륭이 남아 있으며, 대궁(大宮)과 소궁(小宮)이 각기 따로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쿠바다바드 궁전은 두 궁 이외에도 선고(船庫)와 함께 모스크, 목욕탕, 화덕, 부엌, 창고, 군인 숙소 등 다양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궁 앞에는 사냥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0mx35m 넓이의 대궁은 궁터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으며, 50mx55m 넓이의 테라스 위에 세워졌다. 이 테라스는 호수를 바라보는 동쪽 방향 위에 벽으로 세워져 있다. 대궁은 서쪽에는 내원, 가운데는 본궁 건물, 동쪽에는 호수 방향으로 뻗어 있는 테라스로 나뉘어 있다. 중정은 다양한 크기의 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정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방은 다른 곳보다 약 35cm 가량 높은 곳에 평평한 바닥이 있으며, 이곳에 이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굴 당시 원형을 보전하고 있던 세라믹 타일 장식에 ‘es-sultan’으로 적힌 것으로 보아 이곳이 왕좌가 있던 방이나 대신 회의가 개최되던 방으로 보고 있다.

소궁은 대궁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사각형의 가까운 플랜이다. 소궁도 대궁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방에 있는 이완과 그 앞에 위치한 마당(또는 방)으로 중심축을 구성하고 그 양옆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 형식이다. 이런 구성은 중앙아시아-이란의 건축에서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쿠바다바드 궁전 출토 타일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Kubadabad_Palace#/media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세라믹 타일과 양각 석회 벽 장식의 대부분은 코니아 세라믹 작품 박물관(Konya Çini Eserleri Müzesi)에서 전시 중이다. 세라믹 타일의 경우, 상회 기법과 하회 기법으로 흰색, 터키석 색과 보라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세라믹 타일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술탄과 신하들, 사냥 대회와 음주 장면, 상징성이 있는 다양한 동물과 상상의 동물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술탄이 석류와 술잔을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타일에는 ‘es-sultan’이라는 글이 함께 남아 있다. 석회벽 장식에도 동물과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쿠바다바드 궁전은 현재까지 유적이 남아 있는 유일한 아나톨리아 셀주크 궁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바드아바드
- 다국어 표기 Kubadabad Saray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 1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Kubadabad_Palace#/media/File:Konya_Karatay_Ceramics_Museum_Kubad_Abad_Palace_find_231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Uğurlu, Kâmil. “Kûbâdâbâd Sarayı”,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İstanbul, 2002, pp.299~300.
Arik, Rüşhan. *Kubad Abad*, İstanbul, 2000.

I G293 I 쿠바이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ubair

쿠바이르(Kubair)는 시 형식의 바시키르 민족 구비 문학 장르의 하나이다.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쿠바이르는 14세기에 만들어졌다. 이이라우(йырау: 투르크어로 가수란 의미로, 투르크 민족들의 즉흥 시인) 또는 세센(сэсэн: 바시키르 민속 이야기꾼)이 주된 쿠바이르 창작자였다. 쿠바이르의 시행은 7음절 율격에 기초한다. 시의 절은 쌍으로 된 압운이나 복합 압운을 가진 4개에서 30개까지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쿠바이르는 현악기인 둠비라 연주와 함께 공연된다. 쿠바이르 선율의 대부분은 반음 오음계 장음계로 된 하나의 멜로디 유형으로 통합된다.

유명한 쿠바이르 이야기꾼으로는 아산 카이티(Асан Кайты), 아이크 아이다르(Байкайдар), 가비트 세센(Габит-сэсэн), 하브라우-이라우이(Хабрау-йырауи) 등이 있다.

다양한 쿠바이르 작품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시조나 조국을 수호한 실제 영웅의 업적을 기리는 영웅담(「수켄 바티르, Сюкем-батыр」, 「툴겐 바티르, Тюльген-батыр」, 「쿠벡 바티르, Кубек-батыр」 등)
- 철학적이거나 교훈적인 이야기 또는 속담, 격언, 수수께끼(「도둑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Вор не разбогатеет」, 「옳은 말, Верное слово」, 「부탁하면 말해주지, Скажи, если простите」 등)

- 조국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것을 수호하겠다는 표현이 담긴 서정시 (「아, 나의 우랄, 나의 우랄!, Ай, Урал мой, Урал мой!», 「광대한 우랄에서, На раскинувшемся Урале», 「이델- 우리의 조국, Идель - наша Родина」 등)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바이루
- 다국어 표기 Кубаир, Кобайыр(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То3учм0Bpwg>
- 참고문헌(온라인) <http://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3324-kubair.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льманова Л.К. О ритуальной функции песен о батырах//Эпос "Урал-батыр" и мифология: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 науч. конф. Уфа, 2003.

I G294 I 쿠브라위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brawiya

쿠브라위야(Kubrawiya)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수피 종단 중 하나로, 설립자는 나즘 알딘 쿠브라(Najm al-Din Kubra, 1145년~1221년)이다. 종단 설립 연도는 쿠브라가 호라즘으로 돌아온 118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184년을 기준으로 사망한 1221년까지 약 40년 동안 쿠브라는 60명 가까운 칼리프(수피 교단에서 제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위를 의미)를 키워냈다. 이들은 13세기~14세기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이라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쿠브라위야를 전파했다.

쿠브라위야의 종단 계보는 4대 칼리프 알리(Alī ibn Abī Ṭālib, 656년~661년)로 이어진다. 설립자인 쿠브라는 수흐라와르디아(Suhrawardiyya)에서 할리페가 되었기 때문에, 쿠브라위야를 수흐라와르디아 종단에서 파생된 계파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쿠브라가 수흐라와르디아에서 수피즘을 익혔다 하더라도, 이집트와 호라즘 지역의 지리적 차이나 기존의 수흐라와르디아



네즈멧딘 쿠브라 영묘(우르겐치, 투르크메니스탄)

에서 중점으로 두던 부분과 쿠브라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 간의 차이가 있어 쿠브라위야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븐 아라비(Ibn 'Arabī, 1165년~1240년)에 대한 관심은 종단의 특성이 되었다. 이와 함께 열두 이맘에 대해 보낸 존경심으로 인해, 쿠브라위야를 시아파 계열의 신비주의 종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쿠브라위야는 수니파 신비주의 종단으로 본다.

쿠브라위야의 전파는 일반적으로 이 종단 소속의 할리페들의 여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킵차크 칸국의 칸인 베르케 한(Berke Han, 재위: 1256/1257년~1266년)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케르만 지역에 건설된 텍케(tekke)는 이 종단이 이란 남부와 남동부까지 퍼지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카슈미르 통치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 이 지역에 텍케와 마드라사를 건설하고, 브라만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유도

했다. 쿠브라위야는 가까운 편자브 지역까지 퍼졌으나, 세대가 바뀌며 힌두교의 반대로 그 영향력은 차츰 축소된다.

호라즘, 사마르칸트, 메르브, 타슈켄트와 같은 많은 지역에서도 한때 쿠브라위야 종단이 중흥했으나, 낙쉬반디 종단의 성장으로 인해 차츰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이 지역에서 17세기경까지는 쿠브라위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로의 전파는 할리페의 여행과 주요 통치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쿠브라위야는 16세기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에도 전파되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게 된다. 사파비 제국의 경우, 타브리즈에 진출하게 되었다. 사파비 정부가 시아파로의 개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수니파를 유지했고, 정부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파비 제국에서도 16세기경 쿠브라위야는 사라지게 된다. 수니파 쿠브라위야의 계보는 대체로 15세기경 이후에는 대부분 다른 종단에 흡수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 종단은 동남아시아까지 전파되었다고는 하나, 중국어로 번역된 일부 서적 이외에는 확인된 바는 없다. 중국으로의 전파는 17세기 청나라 시대로 보고 있으며, 간쑤성 동상(東鄉) 지역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퍼졌으며, 1983년 기준으로 1만여 명의 신도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브레비예, 쿠브로비릭, 퀴브라이야, 쿠브레위이이에

● 다국어 표기 Kübravilik(아제르바이잔어), Kubroviylik(우즈베크어), Kübreviyy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ürkiye’de Mezhepler ve Tarikatlar*, İstanbul: Gerçek Yayınevi, 1969.

Alagar, Hamid. “NECMEDDÎN-i KÜBRÂ”,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 TDV, 2006, pp.498~506.

Alagar, Hamid. “KUBRA”, *Encyclopaedia of Islam*(ed:C.E. Bosworth, E. Van Donzel, B.LEWIS And Ch. PELLAT) VOLUME 5. Leiden: E.J. Brill. 1986, pp.300~301

I G295 | 쿠빌라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ubilai

1259년 밍케가 남송 정벌 중에 사망하자 몽골 제국은 또다시 대칸위 승계 문제를 둘러싼 승계 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승계 분쟁의 주역은 밍케의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릭 비게였다. 물론, 밍케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훌레구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1256년 이래 페르시아 지역의 통치자로 군림해 왔고 그 영지는 제국의 본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군사를 이끌고 승계 분쟁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했다.

밍케가 사망하자 북중국 총독이었던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을 중단하고 1260년 그의 본거지인 개평(開平)으로 돌아가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개최해서 자신이 대칸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쿠빌라이에 의한 이러한 쿠릴타이의 개최는 칭기즈 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전통적으로 대칸을 선정하는 쿠릴타이는 몽골리아에서 개최되어야 했고 칭기즈 칸에 의해 분봉된 4개 울루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만 했다.

한편, 밍케가 사망하자 몽골인 본고장의 총독으로 카라코룸의 행정을 담당해오던 아릭비게도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개최해 대칸임을 선언하는데, 이에 밍케의 황후와 차가타이가 및 외계대이가계(系)의 왕자들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외계대이가의 대표 인물이었던 하이두까지 동조하게 되었다.

쿠빌라이와 아릭비게 간의 전쟁은 1262년 본격화되어 약 3년여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1264년 쿠빌라이가 카라코룸을 점령하고 아릭 비게가 항복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아릭 비게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몽골 제국의 명실상부한 대칸위에 오른 쿠빌라이는 국호를 칭기즈 칸 이래 계속 써오던 '대몽골(大蒙古: Yekke Ulus Mongol)'에서 중국식인 원(元)으로 바꾸었고 연호를 중통(中統)으로 정했으며 천도를 단행해서 제국의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大都: 오늘날의 북경)로 옮김으로써 유목 사회와 농경 사회를 융합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쿠빌라이의 대칸으로의 등극과 영농 정착 지역인 대도로의 천도는 하이두를 대표로 하는 외계대이가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이후 순수 유목민 전통에 입각한 칭기즈 칸 가문의 제국

재건을 위한 하이두가 중심이 된 복위 전쟁(復位 戰爭)의 계기가 되었고 몽골 제국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쿠빌라이는 칭기즈 칸 이래 몽골 민족의 숙원이었던 중국 통일을 위해 핑계 사후 중단되었던 본격적인 남송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1268년 몽골군의 남송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었는데 몽골의 남송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은 바얀(Bayan)과 우리양카타이의 아들이었던 아추(A-chu)였다. 몽골군은 양자강 중류의 요충이었던 양양(襄陽)을 포위하고 1274년까지 약 6년간에 걸친 집요한 공격 끝에 남송의 주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남송은 가사도(賈似道)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항했지만 1275년 정가주(丁家州)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얀 장군 휘하의 몽골군은 약 100만의 남송군을 궤멸시키고 말았다. 이 전투는 몽골군이 송의 마지막 보루였던 수군(水軍)을 격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전투로서 몽골의 중국 정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1276년 송의 수도였던 항주가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고 송의 마지막 유아천자인 공종(恭宗)이 몽골 조정으로 압송됨으로써 송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송의 승상(丞相) 진의중(陳宜中)과 통장(統將) 장세걸(張世傑) 등은 제병(帝昺)을 새로운 군주로 옹립해서 복주(福州)와 광주(廣州)를 중심으로 항몽 투쟁을 전개했지만 1279년 4월 몽골군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송군의 저항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중국의 전역이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마침내 몽골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방 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는 정복 왕조를 건설했다.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최초의 정복 왕조 건설에 성공한 쿠빌라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 내의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즉, 당시 몽골 제국 내에는 다양한 피정복민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신분 질서를 엄격히 하여 각 민족 간의 차별을 둠으로써 몽골인의 지배를 강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몽골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의 지위를 제국 건설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규정했는데 몽골인은 국인(國人)이라 하여 제 1등급으로 분류했다. 제 2등급은 색목인(色目人)이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서역인이라고도 칭해지는 서방계의 잡다한 민족을 총칭하는 것으로 칭기즈 칸의 서방 원정 시 몽골군에 항복하고 협력한 나이만, 위구르, 탕구트인들을 비롯해서 티벳, 페르시아, 아랍, 동부 유럽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뛰어난 행정 기술과 재능을 발휘해서 몽골 제국에 봉사했는데 주로 조세 징수, 재정 관리, 무역과 외교, 정복지 통치 등에서 그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또한, 이들은 오르탁(Ortaq: 斡脫)이라는 상인 조합을 구성하여 황실 및 귀족들의 영리 사업을 담당하며 고리

대금업, 상업, 해외 무역 등에 종사했고 위탁자인 몽골인들에게 거대한 부를 제공해 주면서 그들도 부와 권세를 함께 누렸다. 이들은 각기 고유의 언어, 문자, 종교, 풍속을 유지할 자유를 가지며 집권층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제3등급에는 화북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과 고려인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제4등급에는 몽골의 침입 때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의 강남인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민으로 전락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선진 정착 사회라 할 수 있는 중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실무 행정에 밝은 한인들을 몽골의 통치 기구 안에 흡수하여 이들에게 조세 면제의 특권을 주면서 중급, 하급 관리 또는 상급 서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쿠빌라이의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 1270년 쿠빌라이는 고려(高麗)를 완전 정복하여 속국화시켰고 고려를 발진 기지로 해서 2차에 걸친 일본 원정을 감행하기도 했다. 몽골군의 제1차 일본 원정은 1274년 감행되어 몽골군은 대마도(對馬島: Tsushima)에 상륙했지만 일본 수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후 우수한 함선과 더불어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파송하여 1281년 몽골의 제2차 일본 원정이 시작되어 몽골군 함선들은 2대로 나뉘어 구주(九州: Kyushu) 해안에 정박했다. 몽골군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어 가열될 때 태풍이 내습하여 몽골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버려둔 채 철수해야만 했다. 이후 태풍이 일본을 구했다고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신평(神風: Kamikaze)이라 불렀다. 또한, 쿠빌라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공략에 나서 1287년에는 미얀마를 완전 정복했고 오늘날의 베트남 지역에 있던 안남국(Annam: 북베트남)과 참파국(Champa: 남베트남) 그리고 오늘날의 크메르와 라오스 및 타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크메르 제국, 수마트라(Sumatra), 자바(Java)를 공략했다. 특히, 몽골의 베트남 지역 공략은 쩌 흥 다오(Tran Hung Dao)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항거로 큰 고전을 치르다가 종국에 몽골군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정복 전쟁 이외에도 쿠빌라이는 이미 세계 제국화된 몽골 제국을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했는데 즉, 그는 전통 중국 왕조의 치국책의 틀이라 할 수 있는 유교 국가의 모델을 몽골 제국에도 적용시켰다. 쿠빌라이가 새롭게 채택한 행정 제도는 당, 금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며 대간의 절대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새로이 부각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외계데이 재위 시기에 설치된 중서성(中書省)의 기능이 확대되어

쿠빌라이 치하에서는 정부의 중추가 되는 관서로서 다른 모든 행정 부처를 통괄하게 되었고 최고 책임자로는 황태자가 임명되었다. 둘째, 새롭게 추밀원(樞密院)을 설치해서 황제의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의 군사 관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셋째, 어사대(御史臺)를 설치해서 대칸과 중앙 관서의 장들이 유교의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했으며 이밖에도 지방 행정부의 공개 감찰 및 하위 관리에 대한 비밀 감찰 업무를 수행했다.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중국이 고래로부터 농업 국가였다는 점에서 농업 진흥책을 채택하여 경제 부흥 정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앙 행정부 기구 내에 농업의 증진을 위한 특별 관서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사농사(大司農司)이다. 또한, 그는 농업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농상집요(農桑輯要)를 편찬하게 했으며 과거 농업 생산물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처럼 그는 농업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몽골 제국 내 각 지역 간의 교역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교역 활동도 적극 권장하여 제국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켰는데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남긴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 따르면 쿠빌라이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내의 여러 도시들이 크게 번성했다고 전한다.

한편, 쿠빌라이 역대 중국 황제와는 달리 모든 종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취했는데 그 결과 중국 역사상 독특한 종교 행위를 전담하는 일련의 부서들이 설치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선정원(宣政院)이었다. 그는 티벳승 팍스파(Phags-pa: 八思巴) 라마를 선정원의 책임자로 임명해서 몽골 제국 내의 모든 불교 관계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쿠빌라이는 그가 총애한 팍스파 라마를 이용해서 티벳과 같은 광대한 나라를 손쉽게 지배할 수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팍스파 문자를 만들게 해서 이 문자는 원조의 공식 문자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한, 쿠빌라이는 새로운 역서(曆書: 달력)를 채택했다. 원래, 몽골 제국 초기에는 금의 역서를 이용했으나 후에 야율초재가 변경한 것으로 대체했고 다시 페르시아인 천문학자 자말 알딘(Jamal al-Din)이 편찬한 역서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상 3가지 모두 부적당하고 사용이 불편해서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역서인 수시력(授時曆)이 편찬되어 공식 역서로 채택되었다.

몽골 세계 제국의 대칸이자 중국의 황제로서 쿠빌라이의 재위 시기는 원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기간이었다. 그의 선정으로 과거 수십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피폐되었던 중국이 또다시 번성하는 새로운 국가로 출현하게 되었다.

- 다국어 표기 契丹, 遼(중국어), Kubilay(영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쿠랄타이, 마르코 폴로
- 참고문헌(오프라인) 록 관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1989.
李龍範, 『中世 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8.
조성을 편역, 「격동의 아시아 정복왕조시대」, 『송조와 몽골제국』, 집현전, 1988.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G296 I 쿠삼 이븐 압바스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utham ibn Abbas

쿠삼 이븐 압바스(Qutham ibn Abbas)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숙부 압바스 이븐 압달 무탈립(Abbas ibn Abd al-Muttalib, 565년~653년)과 숙모 루바바 빈트 알 하리스(Lubaba bint al-Harith, ?~650년)의 아들이다. 쿠삼 이븐 압바스의 어머니 루바바는 무함마드의 첫 아내이자 첫 여성 무슬림인 하디자(Khadija bint Khuwaylid, 555년~619년) 이후 첫 여성 무슬림이 되었다. 또한, 루바바는 무함마드의 아내 중 하나인 마이무나흐(Maymunah bint al-Harith, 594년~671년)의 동생이기도 하다.

쿠삼은 무함마드의 장례식 중 염을 할 때 시신을 돌리는 일과 무덤에 넣는 일을 했으며, 가장 늦게 묘지에서 나왔다. 즉, 무함마드를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 이븐 아비 탈립(Ali ibn Abi Tālib, 601년~661년) 시대에, 메카의 주지사로 임명받았다. 이와 함께 메디나의 주지사였다는 설도 있다. 658년, 아미르 알 하지(Amir al-hajj: 순례단을 보호하는 사령관)를 수행했고, 파트와를 주기도 했다.

쿠삼은 무아위야 시대의 호라산 주지사 사이드 이븐 우스만(Sa'id ibn Uthman, ?~680년) 지휘하에 호라산 인근 지역 원정에 참여했다. 원정 후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포상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다섯으로 나눠 다른 이들과 공로를 나누었다.

675년 사이드 이븐 우스만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원정에 참여하여 전사했다. 메르브에 있는 그의 묘소는 시대가 변하며 일종의 순례지로 변화되었고, 그 주변부에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건설되었다. 그의 무덤은 사마르칸트 지역민들에게 ‘살아 있는 왕’이라는 의미의 셔흐진다(Shohizinda)라고 불리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셈 빈 압바스, 쿠삼 이븐 압보스
- 다국어 표기 Kusem bin Abbas(튀르키예어), Qusam ibn Abbos(우즈베크어), Qusam ibn Abbas(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셔흐진다
- 참고문헌(오프라인) Bakır, Abdulhalik. “KUSEM b. ABBAS”,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462~463;
Kurt, Hasan. “Orta Asya’da Peygamber Ailesinden Bir Sahabi Kusem b. Abbas”, *Ankara Üniversitesi İlahiyat Fakültesi Dergisi*, Cilt:39 Sayı:01 1999, pp.565~579

I G297 | 쿠산 왕조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ushan Dynasty

쿠산 왕조는 한 무제의 명을 받들어 대흉노 격멸을 위해 공수 동맹을 체결하고자 장건이 찾아갔던 대월지를 의미하는데 즉, 이란계의 샤카족(스키타이) 또는 토하리족의 한 분파에서 시작하여 전성기인 카니슈카 1세 때에는 중앙아시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북인도까지 통일한 제국을 지칭한다. 흉노에게 밀려난 월지족의 5개 가문이 이 박트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문인 귀상(霜貴) 가문의 쿠줄라 카드피세스가 이들을 통합하고 인도로 진출하여 왕국을 세웠으며 이 귀상 가문의 이름을 따서 쿠산 왕조라고 부른다.

쿠산 왕조는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그 후 카니슈카왕은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는 등 쿠산 왕조 전성기를 이루어 간다라 미술 등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대승 불교도 이때 성립되고 발전했다. 그러나 226년 파르티아 대신에 사산 조 페르시아가 이란에서 발흥하여 아프



쿠산 왕조 시대(2세기~3세기)의 석불

가니스탄을 병합하자 쿠산 왕조는 그의 속국이 되었다가 240년경 사산 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다.

쿠산인들은 불교가 파르티아,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브라만교에서는 외부인이 브라만교로 유입될 경우 낮은 카스트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인 그리스인들과 인도-스키타이인들, 쿠산의 토하라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중앙아시아로 불교가 급속히 전파되었다.

또한 쿠산 왕조는 무역을 통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해안 지방, 인도 북부를 아우르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관리했으며 결과적으로 호라산, 트란스옥시아나와 인도 북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지금의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 지방이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며 특히 많은 혜택을 보았다. 쿠산 왕조는 주화나 불상 같은 유물 이외에 자체적인 문헌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기 어렵다.

쿠산 왕조의 중심 영역은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소그디아나(사마르칸트 일대) 지역에서 토하리스탄(박트리아), 힌두쿠시 산맥을 거쳐 간다라와 인도 북부 지역에 걸쳐 있었으며 남서쪽의 이란을 지배하던 파르티아와 국경을 접했는데 양국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확실치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산조, 쿠산 왕국, 쿠산 조

● 다국어 표기 Βασιλεία Κοσσανῶν(그리스어), 貴霜(중국어)

● 연관 검색어 무제, 흉노, 장건, 스키타이, 박트리아, 트란스옥시아나, 페르가나, 사마르칸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ifAeUefHVw>

● 참고문헌(오프라인) Avari, Burjor, *India: The Ancient Past*. London: Routledge, 2007.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Sailendra Nath Sen,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 New Age International, 1999.

I G298 | 쿠안쉬 임 푸사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anshi im pusar

『쿠안쉬 임 푸사르』는 『관음경(觀音經)』의 위구르어 번역본으로, 위구르어 제목인 쿠안쉬 임 푸사르(Kuanshi im pusar)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의미한다.

『관음경(觀音經)』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경전의 25품인 최후 6장인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 독립된 것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백연화처럼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이며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부른다.

쿠안쉬 임 푸사르의 번역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당시 묘법연화경은 둔황 지역에서 인기 있던 경전으로, 위구르어 번역본도 둔황에 있던 한역본을 기반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굴된 『쿠안쉬 임 푸사르』의 서체와 문체 등으로 13세기경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구르어본의 현대 출판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란돌프(Friedrich Wilhelm Radloff, 1837년~1918년)가 했으며, 프리드리히 뮐러(Friedrich W. K. Müller, 1863년~1930년)가 번역본을 출간하기도 했고,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쿠안쉬 임 푸사라는 삼보(三寶, Triratna)로 시작하여 제25품의 제목과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투르크어, 힌두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본격적인 내용은 ‘불행에 빠진 누군가가 관세음보살을 기억한다면, 그는 불행으로부터 구원된다. 이리하여 그분을 관세음보살이라 한다’라는 내용으로 58행까지 지속된다. 여기서 부처는 무진의보살(Aksayamati, 위구르어 표기: Alkınçsız kögüzlüg bodisvt)을 불러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며, 무진의보살과 질의응답 형태로 관세음보살의 특징과神通력에 대하여 대화한다.

무진의보살은 부처와 대화하며 관세음보살의 덕행과 동정심,神通력에 놀라고, 진주 목걸이를 꺼내 관세음보살에게 내밀고 관세음보살이 이를 거절하자 대중 구제에 사용할 것을 말하며 다시 권한다. 이에 부처도 받을 것을 말하고 관세음보살은 목걸이를 받아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다보여래(또는 다보불 Prabhutaratna, 위구르어 표기: Erüş erdni burkan)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석가모니에게 바친다. 이후 부처와 무진의보살의 질답은 계속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처의 관세음보살의神通력에 대해 설법을 들은 84,000명의 대중이 모두 부처의 마음을 믿게 되고, 장은 다시 삼보로 마무리된다.

쿠안쉬 임 푸사르는 위구르의 대승 불교에 대한 자세와 위구르 문학을 비롯하여 위구르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취급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묘법연화경, 쿠안시 임 푸사르, 관음경

● 다국어 표기 Kuanṣi im pus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묘법연화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9220&cid=50766&categoryId=50794>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법화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9413&ref=y&cid=50766&categoryId=50794>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관음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8635&ref=y&cid=50766&categoryId=50794>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Şinasi. Kuanṣi im Pusa (Ses İṣiten İllâh) : vap hua ki atlıg nom çeçeki sudur (saddharmapundariika-sutra),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93.

Shimin, Geng. “Budist Uygur Edebiyatı”, *Türkler* 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1422~1469.

Özcan, Ceyda. “Eski Uygurca Kuanṣi İm Pusa Üzerine Notlar”, *Bellefen*, 2015, 63 - 1, pp.37~47.

I G299 I 쿠유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huyukh

불은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투르크 샤머니즘의 식뿐만 아니라 장례 의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카스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불에 의해 양육된다고 믿는다. 불에 탄 음식의 냄새는 후유(Huyuh)라고 불리는데, 하카스인들은 후유가 죽은 자들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 이 냄새를 맡은 죽은 자들을 배부르게 한다고 믿는다. 장

레 의식에서 불을 지피고 죽은 자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전통은 하카스인의 이웃이라고도 여겨지는 알타이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하카스인들의 샤먼 민담에서도 자신은 죽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사냥꾼이 산신에게 제공된 사슴의 뿔이 타는 냄새를 맡고 자신의 배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신은 냄새를 맡자 배가 불러져 놀란 사냥꾼에게 “사실 넌 죽은 존재야! 이 냄새를 맡고 배가 불렀다는 것은 네 가족들이 집에서 너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불을 지피고 음식과 술 등을 불 속으로 던져서 태웠기 때문이라고!”라고 말한다.

이러한 불의 매개력 덕분에 재가 된 음식과 음료가 다른 세계로 전달된다고 믿는 하카스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사체를 화장하여 그들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보내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무슬림 여행자 게르디지(Gerdîzi)는 불의 순도(순수함, 깨끗함)를 강조하며, 돌궐족에 대한 비잔틴 문헌에서도 불과 관련된 의식들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은 불에 떨어진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불이 현생과 저승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화장 장례 풍습이 근간이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유크

● 다국어 표기 Huyuh / Xyrox(하카스어), Khuyukh(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letov, T. B., *Şaman Masalları Üç Âlem Gezginî*. İstanbul: Asi Kitap, 2018.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21.

I G300 |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안힐루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전설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uzyykurpyas i Mayankhyly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안힐루」는 사랑에 관한 바시키르의 서사적 전설이다. 이 전설은 쿠즈-쿠르파치, 한 피리 연주자에 의해 바시키르어로 기록되었고, 1809년 리페이스키 산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바시키르 이야기』란 제목으로 1812년 처음 출판되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초 바시키르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간주된다.

1938년 갈리모프(С.Г. Галимов)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안힐루』의 판본 중 하나를 채록했고, 1959년 키레예프(А.Н. Киреев)는 사르트-아브드라세보 마을과 바카예보 마을에서 몇몇 판본을 채록했다.

이 전설은 중세 투르크 민족에게서 발생해서 카자흐, 알타이 및 몇몇 민족들과, 특히 바시키르 민족에게서 가장 널리 보급되었다. 줄거리의 중심에는 젊은이들 사이의 결혼, 동맹, 관습과 충돌, 출산과 죽음이 놓여 있다.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안힐루」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랜 옛날 한 호숫가에 바시키르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카자흐인들이 유목하고 있었다. 바시키르 족장은 자신의 막내딸 마안힐루를 부유한 카자흐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결심했다. 카자흐인의 아들은 천연두를 앓아 얼굴이 상한 상태였다. 두 사람이 상견례를 할 때 마안힐루는 약혼자의 얼굴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마안힐루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의 한 선한 젊은이를 목동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를 사랑하게 된 마안힐루는 가난한 젊은이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서글피 울어 흘러내린 눈물이 호수가 되었고 그 호수를 마안 호수라 불렀다.

마안힐루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쿠지이쿠르파스가 그녀의 무덤에 찾아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도 마안힐루의 무덤 옆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지이쿠르파스-마안힐루
- 다국어 표기 Кузыйкурпяс и Маянхылу(러시아어), Кузыйкурпяс менән Маяннылыу(바시키르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카자흐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шкир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Эпос// Сост. М. М. Сагитов. Комментар. Н. Т. Зарипова, М. М. Сагитова и А. М. Сулейманова. — Уфа, 1987. — Т. I. — 541 с.

I G301 I 쿠차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ucha

오아시스 쿠차(Kucha)는 타클라마칸 북로에 번성했던 도시로, 지금의 중국 쿠차 현에 위치하던 도시 국가이다. 이곳은 인도, 페르시아 제국, 박트리아 등의 교역국과의 갈림길로, 실크로드 서역 북도의 중심 도시 역할을 담당했다. 쿠차는 수많은 민족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언어 및 문화 교류가 지속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의 주민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쿠차에는 원래 토하라인들이 거주했으나 인도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인도화되었고, 대부분의 토하라인들이 인도 북부로 이주하고 나서는 이 지역에 투르크인들이 정착했다.

1세기 말 쿠차에는 불교가 도입되었다. 이 지역의 불교 신자들은 그들의 불교 가르침이 산스크리트어 원문 그대로 예비 신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다. 쿠차의 승려들은 중국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레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 불교 스승들에게 오아시스 쿠차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온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쿠차는 실크로드 북로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로서 투르판에 비견할 만했다. 신라의 승려 혜초도 이곳을 지나가면서 『왕오천축국전』에 기록을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자, 쿠처, 구자국



쿠차 지역의 불교 사원 유적지(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 다국어 표기 كۇچا(위구르어), 库车(중국어)
- 연관 검색어 투르판, 실크 로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Hansen, V., *The Silk Roa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I G302 | 쿠타드구 빌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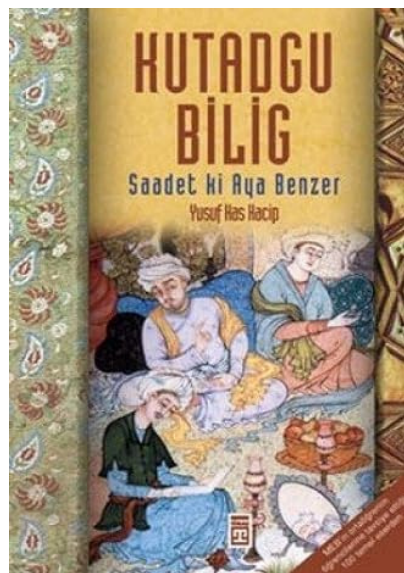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교훈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utadgu-Bilig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Bilig)』는 최초의 이슬람 투르크 왕조인 카라한 칸국 시기에 유수프 하스 하지브(Yusuf Has Hajib)가 집필한 투르크 문학의 정수라고 칭송받는 책이다. 쿠

타드구 빌리그를 직역하면 ‘행복해지는 지혜’를 뜻하는데, 6,645개의 이연대구(二言對句, couplet)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페르시아의 시성 피르다우시의 샤나메(Shanam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샤나메와는 달리 군주가 취해야 할 자세와 도리를 설교한 교훈서이다.

쿠타드구 빌리그에 등장하는 ‘구주여, 먼저 백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라’, ‘훌륭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킨다면 백성은 당신에게 복종 하리라’라는 표현들은 절대적 군주권 행사에 따르는 통치자의 백성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즉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카간은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책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 공평한 법 집행과 외적으로부터의 보호, 질서와 안정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쿠타드구 빌리그는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헤라트 사본의 영인본, 2권은 페르가나 사본의 영인본, 3권은 카이로 사본의 영인본(Copies of Herat, Ferghana, and Cairo Copies)이다. 또한 이 책은 중세 투르크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Bilig)』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타트구 빌릭, 쿠타드구 빌릭
- 다국어 표기 Kutadgu Bilig(튀르키예어), 福乐智慧(중국어), Qutadqu-bilik(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페르가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E.J. Brill's First Encyclopaedia of Islam 1913-1936. BRILL. 31 December 1987.

I G303 |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utaybah ibn Muslim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Abū Ḥafṣ Qutayba ibn Abī Ṣāliḥ Muslim ibn ‘Amr al-Bāhili)은 669년 지금의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 까이스 아일란 부족 연합 소속의 바일라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바이드 알라 이븐 지야드(Ubayd Allah ibn Ziyad, ?~686년)는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의 아버지 무슬림 이븐 암르(Muslim ibn ‘Amr)를 이라크 총독으로 임명했다. 무슬림 이븐 암르는 우마이야 왕조 2대 칼리프인 야지드 1세(Yazid I, 재위: 680년~683년)와 가까운 관계였으나, 당시 우마이야 왕조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바드 알라 이븐 알 주바이르(Abd Allah ibn al-Zubayr, 624년~692년)를 지지했기 때문에 반란이 진압된 후 691년 사형을 당했다.

695년 쿠타이바는 당시 이라크 총독 하자즈 이븐 유스프(Al-Hajjaj ibn Yusuf, 661년~714년)가 무흐타르 알 타카피(Mukhtar al-Thaqafi, 622년~687년)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자즈를 지지했고 군대를 지휘해 하자즈의 신용을 얻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반란 진압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었다. 701년 또는 702년에 쿠타이바는 레이(Rey)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704년 또는 705년에는 호라산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호라산 주의 중심지였던 메르브(Merv)에 도착한 쿠타이바는 바로 중앙아시아 원정을 시작했고, 705년 발흐(Balḥ), 706년~709년 부하라(Bukhara)와 인근 지방을 전쟁으로 정복하거나 조공을 조건으로 평화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정복했다. 709년 혹은 710년에는 토하리스탄 지역의 투르크 베이였던 니제크 타르한(Nizek Tarha, ?~709년)이 반란을 시도했으나 하자즈의 명을 받은 쿠타이바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710년 혹은 711년에는 시스탄(Sistan) 지역의 투르크 통치자였던 루트빌(Rutbīl)의 화평 요청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다. 711년 혹은 712년 평화 협정을 어긴 소그드를 정복하기 위하여 트란스옥시아나로 진군했고 이 일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마르칸트를 정복했다. 당시 소그드 통치자들은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나, 쿠타이바는 그들을 도시에서 추방하고 군인을 배치했다.

712년 혹은 713년에는 타슈켄트와 페르가나를 정복했고 714년 중앙아시아 정복을 지속하던

중 하자즈의 사망 소식을 듣고 트란스옥시아나로 돌아왔다. 칼리프 왈리드 1세(Al-Walid I, 재위: 705년~715년)는 그의 충성을 칭찬하며, 호라산 총독으로 재임명하고 정복 사업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그에 쿠타이바는 715년 마지막 월정을 떠났다. 쿠타이바는 당시 당나라 국경 근처 도시였던 카쉬가르(Kashgar) 근처까지 진출해 당나라 정부와 사절을 통해 접촉하던 중, 왈리드 1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왈리드 1세의 뒤를 이은 술라이만(Sulayman ibn Abd al-Malik, 재위: 715년~722년)은 왈리드 1세와 가까웠던 하자즈와 쿠타이바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쿠타이바는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타개하려 노력하기도 했으나 곧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군대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아내와 아들, 다섯 명의 형제들과 함께 715년 살해를 당한다.

우마이야 왕조의 핵심 군사 지도자 중 하나였던 쿠타이바는 당시 통제되지 않았던 호라산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우마이야 왕조가 공고히 지배할 수 있게 했으며, 국경 동쪽을 중국과 맞닿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정복했던 지역 대부분은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권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 쿠테이베 민 무슬림

● **다국어 표기** Kuteybe bin Müslim(튀르키예어), Qutaybah ibn Muslim(영어), Qutayba ibn Muslim(우즈베크어), Quteybə bin Müslüm(아제르바이잔어), Құтайба ибн Муслим(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iğit, İsmayil. “KUTEYBE b. MÜSLİ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490~491.

Bosworth, C. E. “Qutayba b. Muslim”. *The Encyclopaedia of Islam*(ed: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New Edition, Volume V: Khe-Mahi. Leiden: E. J. Brill, 1986, pp.541~542.

Roux, Jean-Paul. *Orta Asya : tarih ve uygarlık* (trans: Lale Arslan), Istanbul: KabcacıYayınevi, 2006.

I G304 | 쿠투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Sayf al-Din Qutuz



Source: <https://it.wikipedia.org/>

투르크멘족 출신인 쿠투즈(Sayf al-Din Qutuz)는 호라즘 국의 마지막 술탄인 잘랄 알-딘 만크부르티의 누이의 아들이었으며, 본명은 마흐무드 이븐 맘두드였다. 그는 몽골군이 호라즘 국을 침입했을 때 어린 아기였다. 전란 속에서 그는 가족을 다 잃고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사이프 알-딘 쿠투즈라는 이름을 받고 시리아로 팔려갔다. 거기서 그는 맘루크 병사로 양성되면서 성장했다. 쿠투즈는 그의 과거와 환경 때문에 몽골을 극도로 증오했다. 그는 용기와 지략을 지녔으며, 전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예리했다. 지도자적 기질이 뛰어났던 것이다.

바그다드 함락 후 몽골의 훌라구는 그 침입의 화살을 시리아와 이집트로 향했다. 당시 이집트의 지배자는 맘루크 조의 술탄 쿠투즈였다. 그는 몽골의 거대한 힘을 알면서도 항복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의 대칸인 몽케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와 몽골 형제국인 킵차크 칸국과의 충돌로 훌라구의 주력군이 시리아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집트가 전장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술탄 쿠투즈는 대규모의 군대를 모아 시리아로 진출했다. 기병이 우세한 몽골과의 싸움은 평지인 이집트보다, 산악이 많은 시리아가 그의 군대에게 유리했다. 쿠투즈는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근접전을 펼쳐 적을 격파할 전투 지형을 찾았다. 그런 지형은 팔레스타인의 아인잘루트였다. 그는 이곳에서 몽골군을 유인해 포위 섬멸하는 전술로 대승을 거두고,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계를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구했다. 만약에 그가 몽골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몽골군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북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가 모든 이슬람 세계를 초토화시켰을 것이다.

쿠투즈는 아인잘루트에서 몽골을 격파함으로써 이집트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중세 이슬람 문명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아인잘루트에서 승리하고 이집트로 개선하던 쿠투즈는 맘루크이지만 그와 계열이 달랐던 바이바르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쿠투즈

● 다국어 표기 سيف الدين قطز(아랍어), Kutuz(튀르키예어), Qutuz(우즈베크어), Qutuz(아제르바이잔어), Құтыз(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p.28.

Ahmad 'Attiyah Ilah. 'Al-Qamus al-Islamiyun', Maktabah al-Nahdah al-Misriyah, al-Qahirah: 1963, V.1, pp.401~402.

Philipp, Thomas & Haarmann, Ulrich. *The Mamluks in Egyptian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p.5.

Thorau, Peter. *The Lion of Egypt*, Longman, London:1992, pp.75~85.

I G305 I 쿠툼 웃딘 아이박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Qutub al din Aibak

투르크스탄 출신으로 투르크인이었던 아이박은 1150년 출생했다. 그는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툼 앓 딘 아이베크, 쿠툼딘 아이베크, 쿠툼 앓딘 아이박 등이다. 투르크어로 '아이박'은 '달(아이)'과 '주인(베크, 박)'을 의미한다. 아이박은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니샤푸르(Nishapur)의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다. 카지 파크루딘 압뒸 아지즈 쿠피(Qazi Fakhruddin Abdul Aziz Kufi)의 시종으로 지내면서 궁술과 기마술을 습득하고 종교도 학습했다. 이후 상인에게 다시 팔리게 된 아이박은 구리 조(Ghurid Dynasty) 술탄이었던 무함마드 구리(Muhammad Ghori)에게 팔리게 되었다. 당시 구리 조는 가즈니(Ghazni)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후 아이박은 총명함과 인품으로 술탄의 눈에 띄



쿠티웃딘 아이박에 의해 건립된 쿠티미나르(뉴델리, 인도)

게 되었고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아이박의 삶은 1192년에서 1206년까지 술탄 무함마드 구리가 차지했던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살았던 시기, 1206년에서 1208년까지 델리 일부 지역과 라호르 지역을 통치한 시기, 1208년에서 1210년까지 인도의 노예 왕조, 델리 술탄 조(Delhi Sultanate)의 지역을 통치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구리 조의 술탄이었던 무함마드 구리는 현재 인도 북부 지역을 점령한 후 아이박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1192년 아이박은 델리 지역을 장악하고 현지 지도자 체제로 운영하다가 1193년부터 직접 델리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델리 지역을 통치했으나, 구리 조에 충성하는 장군 신분을 유지했으며 구리 조의 술탄 무함마드도 아이박을 구리의 수도인 가즈니로 소환하는 등 아이박의 세력을 견제했다. 아이박이 가즈니에 있는 동안 인도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도 했으나 이후 델리 지역으로 돌아

가 다시 점령했다. 1197년에서 1198년에는 바다운(Badaun) 지역을 점령했고, 구리 조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쟁 구도를 유지하던 가하다발라 조(Gahadavala Dyanasty)의 수도 바라나시(Baranash)를 장악했다. 이후에도 주변 지역을 점령하며 아이박은 자신의 통치 지역을 넓혀나갔다.

구리 조의 무함마드 구리가 사망한 후에 아이박은 북부 인도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완전히 독립된 왕조를 건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인도 북부에 형성된 이 왕조를 일컬어 노예 왕조, 델리 술탄조라고 지칭한다. 아이박은 라호르(Lahore)로 왕조의 수도를 옮겼고, 1206년 비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1208년이였다.

왕위에 오른 후 영토 확장보다 확보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 1210년 폴로와 유사한 마상 경기를 하던 중 말에 떨어져 사망했다. 아이박의 영묘는 라호르에 있다.

아이박은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힌두 사원을 모스크로 개조했다. 또한 힌두 사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건축 자재를 쿠티프 미나르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티프 미나르 아이바크

● 다국어 표기 Qutub al din Aibak(영어), قطب‌الدین ایبک(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쿠티프 미나르 복합단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Burton-Page, J., & Michell, G., *Indian Islamic architecture: Forms and typologies, sites and monuments*. Brill, 2007.

I G306 | 쿠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강덕수, 김홍중 ● 라틴 문자 Kut

쿠트는 시베리아의 투르크계 민족(알타이인 등)의 전통 신앙(샤머니즘)에서 인간의 영혼을 정의하는 여섯 개념 중 하나로 ‘영혼’, ‘혼’의 뜻과 비슷하다. 쿠트는 ‘사라지다’란 의미의 동사 ‘쿠두트(кудут)’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와 한국어의 ‘긋’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각 투르크 민족들마다 그 개념과 믿음이 조금씩 다르다.

베르비츠키는 쿠트가 생명력, 비옥함, 행복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 타타르인들에게 쿠트는 생명 그 자체와 같다. 쿠트는 틴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틴은 사람이 죽어서야 그 육체를 떠나는 반면 쿠트는 사람이 잠을 잘 때 작은 불의 형태로 인간의 육신을 떠날 수도 있고 놀라기도 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알타이어에서 ‘쿠트가 빠져나갔다’는 의미의 ‘쿠두 칠리프 파르디(куду чьлып парды)’는 ‘얼이 빠졌다’, ‘정신이 나가다’를 의미한다. 보통 쿠트는 알아서 자기 육체로 되돌아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곁을 통해 쿠트를 되돌아 오게 할 수도 있다. 쿠트를 잃어버린 상황은 질병이나 불행을 겪는 것을 의미하며 쿠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틴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시베리아 투르크계 야쿠트인의 인식에서 사람은 세 가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첫 번째 살근 쿠트(salgyn kut, 공기의 혼), 두 번째 부오르 쿠트(buor kut, 땅의 혼), 세 번째는 이에 쿠트(ije kut, 어머니 혼)이다. 야쿠트인은 샤먼이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는 태어날 때 정령들에 의해 세 영혼이 거두어진다고 믿는다. 최고의 샤먼이 되어야 하는 아이의 공기의 혼은 샤먼의 신 아르 다르한(Ary Darxan)의 딸들이 자기들의 거처로 데려간다. 그들의 집 근처에는 9개의 구멍이 있는 낙엽송이 있다. 데려온 영혼들은 구멍에 차례대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제일 아래 구멍들에서는 약한 샤먼들이, 중간층의 구멍들에서는 중간 샤먼들이, 상층부에서는 우수한 샤먼들이 교육받는다. 아홉 번째 구멍에서 교육받은 샤먼은 최고의 샤먼이 된다. 샤먼의 집 근처에 있는 나무를 으익 마스(yjyk mas, 이정표 나무)라 불렀다. 야쿠트 신화에서 태양신 아이으

의 토욘은 세 그루의 나무를 키웠다. 그는 가운데 나무에 앉아 자신의 신통력을 첫 번째 샤먼에게 전해 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콧, 꾀, 꾀
- 다국어 표기 кут(러시아어), Ku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아이으, 토욘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672 с
Вербицкий, В.И. «Алтайские инородцы: сборник», Рипол Классик, 1881, 78.
Безертинов, Р. Н. “Встреча с Душой,” Тенгрианство и эп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исто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17, 109.
Иванов В.Н.(ed). Якут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ИГИ, Якутия. 2007. 530

I G307 | 쿠트루그 티무르 미너렛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utlugh Timur Minaret

쿠트루그 티무르 미너렛은 킵차크 칸국의 호라즘의 지배자였던 쿠트루그 티무르(Qutlugh Timur, 재위: 1321년~1333년)가 쿤야 우르겐츠에 건설한 미너렛이다. 1320년~1330년에 건설된 이 미너렛은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1011년에 건설되었고 쿠트루그 티무르는 단지 복구를 했거나 높이를 더 높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미너렛과 연결된 금요 모스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너렛과 연결된 모스크나 다른 건축물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이 미너렛이 단독적인 건축물인지, 건설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쿠트루그 티무르 미너렛은 중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미너렛 중 가장 큰 미너렛으로, 주재료는 벽돌이며 높이는 60.63m이다. 무에진이 올라갈 수 있는 발코니와 그 윗부분은 훼손되어 남



쿠트루그 티무르 미너렛

아 있지 않다. 훼손된 부분을 포함하면 65m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점차 좁아지는 원통형의 이 미너렛의 바닥 부분 지름은 11.64m이고 가장 높은 부분의 지름은 2.83m이다.

이 미너렛에는 3개의 비문이 있으며 총 18개의 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미너렛 건설의 후원자로 알려진 쿠트루그 티무르의 이름과 함께 킵자크 칸국의 우즈베크의 이름이 서체로 장식된 비문이 있다. 약 51m 높이에 위치한 발코니는 완전히 훼손되었으나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두 개의 문이 있던 자리의 흔적과 내부에는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남아 있다. 최상부로부터 약 1.4m 부분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진이나 화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시아 중세의 미너렛은 대체로 2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름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원통형이 연결된 인도-이란식 미너렛과 호라즘 지방을 비롯하여 이란 북부와 캅카스 지방에서 흔히 보이는 원통형 몸체에 호화로운 발코니가 달린 형식의 미너렛이다. 이 미너렛은 이 두 번째 스타일의 좋은 예로, 이른바 호라즘 스타일의 미너렛을 잘 보여주고 있다.

쿤야우르겐츠 지방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지방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이 미너렛도 이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1993년 발행된 투르크메니스탄 500 마나트 지폐에 이 미너렛이 그려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유통되지 않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트루그 티무르 미나렛, 투트루그흐 티무르 미나렛, 쿠트루그흐 티무르 미나레트, 마나리 쿠트루그 티무르, 투쿨르구 테부르 미노라시

● 다국어 표기 Manar-i Qutlugh Timur(페르시아어), ҚУТЛУҒ ТЕМУР МИНОРАСИ(우즈베크어), Gutlug Timuryň minarasy(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캡차크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8/KonyeUrgenchMinaret.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hc.unesco.org/en/list/1199>

● 참고문헌(오프라인) “ҚУТЛУҒ ТЕМУР МИНОРАСИ”,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2005, p.414.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G308 I 쿠툼 미나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utb Minar

13세기 델리 술탄조를 건립한 쿠툼 알 딘 아이바크(Qutb al-Din Aibak, 재위: 1206년~1210년)는 1119년 쿠툼 미나르(Qutb Minar), 즉 쿠툼 미너렛 건설을 명한다. 이 미너렛은 인도 메흐라울리(Mehrauli) 지방에 위치한 쿠왓트 울 이슬람(Quwwat ul Islam) 복합단지 내에 있는 쿠툼(Qutb) 모스크 동쪽에 있다.

쿠툼 미나르의 높이는 73m 가량으로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단부 지름은 13.7m, 최상부 지름은 3m이며, 4개의 미너렛 발코니가 있다. 이 미



쿠티브 미나르

너렛은 마름돌 쌓기 방식으로 회색 델리 규암으로 만들어졌다. 하단부 3개 층은 아그라산 붉은 색 사암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단부 두 층은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했다. 첫 번째 3개 층은 이 지역의 상인방(上引枋)식으로 건설되었고 나머지 층은 궁형(弓形)으로 건설되었다.

쿠틀 미나르의 첫 번째 층은 29.1m 높이에 있으며 12개의 흠이 파여 12개의 벽기둥이 있는 듯 보이는 원통형이다. 두 번째 층의 높이는 13.39m, 반원형의 흠과 두 개의 비문 띠로 둘러싸여 있다. 세 번째 층은 별 형이고, 12.31m이다. 여기도 두 개의 비문 띠로 둘러싸여 있다. 네 번째 층은 7.3m이고, 다섯 번째 층은 7m이다. 나스흐 서체와 쿠틀 서체로 된 비문에는 코란 구절과 건설 연도, 복구 연도를 비롯하여 건축과 관련한 통치자의 위대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 개의 미너렛 발코니가 있는데, 이 발코니는 무카르나스 장식으로 떠받혀 있다.

쿠틀 알 딘 아이바크가 사망했을 당시 쿠틀 미나르는 첫 번째 층만 완성된 상태였다. 일투트 미시(Iltutmish, 재위: 1211년~1236년)는 쿠틀 미나르의 남은 부분을 완성하고, 3층을 추가로 건설했다. 피루즈 샤 투글룩(Firuz Shah Tughluq, 재위: 1351년~1388년)이 4층과 5층 건설을 명령했다. 4층과 5층은 1368년 낙뢰에 의해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면서 추가로 건설되었다. 당시 낙뢰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 짐새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부속 간의 조임이 강화되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영국 식민지이던 시대에는 영국이 복구 공사를 맡았으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쿠틀 미나르는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미너렛 본래의 기능, 즉 기도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무아딘이 탑 위로 올라가는 기능은 수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쿠틀 미너렛은 전체적으로 카라한 칸국의 자르 쿠르간 미너렛, 가즈나 조의 술탄 마수드 3세 미너렛을 석재로 옮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다양한 장식을 활용했다.

1993년 UNESCO 쿠틀 미나르 복합단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 미너렛도 함께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틀 미나레트, 쿠틀 미나르, 쿠틀브 미나르, 쿠틀브 미나레트
- 다국어 표기 क़ुतुब मीनार(힌두어), Kutub minar(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쿠틀 미나르 하단부

http://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0233_0001-375-500-20151104153142.jpg

쿠틀 미나르 전체

http://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0233_0025-500-375-20151104153200.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hc.unesco.org/en/list/233/>

<https://archnet.org/sites/2542>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Balasubramaniam, Ramaswami, *The World Heritage Complex of the Qutub*, New Delhi: Aryan Books International, 2005.

I G309 | 쿠틀 미나르 복합단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Qutub Minar complex

쿠틀 미나르 복합단지는 인도 델리(Delhi) 메흐라우리(Mehrauli) 지역에 건설된 델리 술탄 조(Delhi Sultanate)의 복합단지이다. 복합단지(Complex)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물을 한데 모아 건축한 곳. 혹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슬람 세계에서 복합단지는 오스만 제국이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쿠틀 미나르의 의미는 ‘승리의 탑’이다. 미나르는 높이 솟은 탑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의 세력을 강조하고 표출하기 위한 고층의 탑을 건설했다. 이를 가리켜 미나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쿠틀 미나르는 쿠틀 웃딘 아이박(1150년~1210년)이 건설하기 시작했다. 아이박은 첫 번째 델리 술탄 지도자였다. 이후 아이박의 술탄직을 계승한 일투트미쉬(İltutmish)가 건축을 지속했고, 투글라크 조(Tughlaq Dynasty)의 술탄인 피로즈 샤 투글라크(Firoz Shah Tughlaq)가 전체 건축을 완료했다. 모든 건축이 종료된 시기는 1368년이다.

쿠틀 미나르 옆에 ‘이슬람의 돔’이라는 뜻을 가진 ‘쿵바트 이슬람 모스크(Qubbat ul Islam Mosque)’가 위치한다. 완공된 이후 투글라크 조의 알라우딘 칼지(Alauddin Khilji)와 영국



쿠티브 미나르 복합단지

이 복합단지에 새로운 건축물과 구조물을 추가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된 건물로는 알라이 다르와자 문(Alai Darwaza gate), 알라이 미나르(Alai Minar), 철 기둥(Iron Pillar)이 있다.

쿠티브 미나르 복합단지는 1993년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티브 미나르 콤플렉스
- 다국어 표기 Qutub Minar complex(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9/Qutab_Minar_mausoleum.jpg/800px-Qutab_Minar_mausoleu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urton-Page, J., & Michell, G. *Indian Islamic architecture: Forms and typologies, sites and monuments*. Brill, 2007.

I G310 I 쿨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l

쿨(kul)은 사전상으로는 ‘노예’라는 의미의 투르크어이다. 이 단어는 투르크인들이 이슬람화 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어와 쿠르드어에도 퍼졌으며 ‘알라의 종’이라는 단어로 이해되었다. 이는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투르크인이 군사 노예로 활약하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비슷한 의미의 아랍어 단어 ‘굴람(غلام, Ghulam)’이 사용되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쿨’은 궁전과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육성된 노예를 의미한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노예보다는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술탄에게 종속되어 충성하는 신하의 개념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아랍-이슬람 국가에서 궁전, 군대 및 행정 기관에서 일하는 굴람(gulam)이 투르크-이슬람 국가에서도 계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술탄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병을 고용하는 전통이 지속된 것이다. 오스만 제국 초창기에 쿨 출신들은 군대에서만 복무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 관료로도 활약하여, 이들은 하급직부터 최고위인 대재상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에 임명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비투르크인 출신의 노예를 고용하는 것은 오스만 1세(Osman I, 재위: 1280년~1299년) 치세 때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 쿨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으며, 궁궐에 인질로 잡혀 있던 발칸반도의 영주의 아이들이 포함되기도 했고, 대도시에서는 노예 시장에서 구입한 아이들도 있었다. 무라드 1세(Murad I, 재위: 1362년~1389년) 치세에 펜칙법(Pençik kanunu: 전리품의 5분의 1은 국고로 옮기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전한 사람에게 나누는 법으로, 무라드 1세 통치 시기 전쟁 포로도 전리품에 포함되었다.)을 바탕으로 쿨 출신의 군인들이 예니체리 군의 일원이 되었다. 바이에지드 1세(I. Bayezid, 재위: 1389년~1402년) 치세에는 쿨 출신의 관료와 군인들은 티마르(timar)도 지급받기 시작했다. 1402년 티무르와의 전쟁 이후 시작된 공백기 동안 쿨 출신의 귀족과 군인들이 더욱 증가했고, 일미이에(ilmiye: 종교학자) 계층 이외에는 거의 모든 계급에 존재했다.

무라드 2세(II. Murad 재위: 1421년~1451년)에 오스만 제국 국경 내의 기독교인 백성들의

아이들을 데브쉬르메(Devşirme) 제도를 통해 관리를 양성하는 방식이 정착되었으며 이는 쿨 시스템에 도입된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무라드 2세 치세 때부터 제도화된 쿨 시스템은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 시대에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쿨 출신의 신하들과 쿨 출신이 아닌 신하들, 즉 투르크 출신 신하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찬다를르 가문 출신의 대재상 할릴 파샤(Halil Paşa, 재임: 1439년~1453년)가 메흐메드 2세의 즉위를 반대하고, 이후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당한 이후 쿨 출신의 신하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또한, 메흐메드 2세 치세에는 직속 기병대라 할 수 있는 카프쿨루(kapıkulu) 부대를 쿨 출신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베이레르베이(beylerbey)직과 산작 베이(sancak bey)직에 쿨 출신의 신하들을 임명하며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즉, 통치자 입장에서 유력 가문 출신의 신하보다는 쿨 출신의 신하를 통제하기가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15세기와 16세기에 걸친 오스만 제국의 확장 정책과 대제국 건설에 쿨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다. 쿨에게 세금이나 각종 의무 면제 혜택이 증가하고, 단기 임명은 뇌물을 증가시켰으며 카프쿨루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일으켰다. 또한, 지방에서 쿨 출신이 아닌 이들이 행정과 군대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국가가 그들에게 다른 호칭을 부여해야 했고, 이는 술탄의 행정권을 쿨 출신만이 대표하는 원칙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한편 17세기 이후부터 데브쉬르메 제도를 통해 소년들을 징집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18세기에는 관료로부터 교육받은 계층들이 지방 행정 관직에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쿨 제도의 중요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차츰 쿨 출신들이 일정 기간 임무를 수행하고 승진하는 방식으로 관료를 양성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재능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19세기 마흐무드 2세(II. Mahmud, 재위: 1808년~1839년) 치세에는 궁전 조직을 기초부터 유럽식으로 바꾸게 되며 쿨을 양성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 **다국어 표기** ku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티마르, 데브쉬르메, 찬다를르 가문

● **참고문헌(오프라인)** İnalçık, Halil. *Devlet-i ‘Aliyye-Osmanlı İmparatorluğu Üzerine Araştırmalar I*, 60. Basım,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2017.

Özcan, Abdülkadir. “KU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348~350.

I G311 | 콤투라 석굴 개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Kumtula

‘콤투라(庫木吐喇)’는 위구르어의 음차로서 ‘사막의 봉화대’라는 의미이다. 석굴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쿠차현(庫車)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콤투라 석굴은 ‘위칸강(渭干河, 무자르트강)’의 동쪽 기슭 언덕 위에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3km에 이르지만 2000년대 초 콤투라 석굴 입구에 농경수 확보를 위해 건설한 댐으로 인해 다수의 석굴이 물에 잠기거나 훼손되었다.

약 80개의 석굴들이 강의 북쪽에 집중되어 조성되었지만, 동굴의 형태와 벽화의 보존 상태가 온전한 것은 40여 개가 안 된다. 남쪽의 석굴들은 강의 동쪽 언덕과 산의 계곡을 따라서 대략 32개의 석굴이 분포하는데,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굴은 10여 개 정도에 이른다.

이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석굴의 수가 적은 이유는 세월의 풍화 작용도 한몫을 했지만,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탐험대인 독일의 그린베델(Grünwedel, Albert)과 르콕(Le Coq, Albert von), 프랑스인 펠리오(Paul, Pelliot) 등이 1903년~1913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차례 석굴을 약탈하여 벽화편, 소조상, 고문헌, 불교 경전, 목조상 등의 유물을 자국으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콤투라 석굴의 개착은 기원후 4세기경 시작되어 11세기 전후로 폐기된 것으로 본다. 현재 콤투라 석굴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 쿠차현 키질석굴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 114개 굴이 편호되어 있다.

콤투라 석굴은 용도에 따라 예배굴, 승방굴, 강당굴, 영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배굴은 예배를 목적으로 축조된 굴로서 벽화와 소조상이 조영되며 중심주굴과 방형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심주굴은 쿠차 지역 중심주굴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데, 2, 3, 7~10, 15~17, 24, 33, 53~56, 70~72 등 40여개의 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방형굴은 궁륭형(穹窿形) 천장을 갖춘 20~23, 25~27, 34, 79굴들과 종권형(縱券形) 천장의 19, 37, 60굴 등이다.

승려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승방굴은 6, 21, 44, 47, 49, 80굴 등이다. 그리고 승려들의 강독과 토론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강당굴은 68, 69굴이다. 또한 고승을 기념하기 위한 영굴(影

窟)에는 16, 74, 75굴이 있다.

쿰투라 석굴은 개착한 시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양진(兩晉) 시기로 2, 46, 63굴이 이 시기에 조영된 석굴에 해당되며, 제2기는 남북조(南北朝)에서 수대(隋代)까지의 기간으로서 26, 28, 29, 31, 33, 34, 54, 58굴을 꼽을 수 있다. 다음 제3기는 당대(唐代)로서 4, 9, 10, 11, 12, 13, 14, 15, 16, 36, 37, 38, 42, 43, 45, 60, 61, 62, 65, 71굴이 이 시기에 조영되었다.

쿰투라 석굴은 총 114개 굴 중에서 53개의 석굴에 벽화가 남아 있는데, 53개의 석굴 중에서 1/4의 석굴이 천산 위구르 왕국 시기에 새로이 개착되거나 중수되었다. 벽화가 남아 있는 위구르 시기의 굴은 10, 12, 13, 19, 22, 24, 38, 41, 42, 45, 62, 68, 75, 79굴이다.

쿰투라 석굴은 쿠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위구르 관련 벽화를 보유한 석굴 사원으로서, 약 9세기 중엽부터 11세기까지 천산 위구르 왕국의 위구르인들은 이곳에 새로운 석굴을 개착하거나 기존의 석굴을 중수하여 사원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벽화의 내용은 대승 불교를 기반으로 했으며, 당의 양식이 남아 있다. 석굴에는 소량의 소조상과 다수의 쿠차문(龟兹文, 브라흐미문자), 한문(漢文), 위구르어문(回鹘文) 등의 제기가 기록되어 있어, 쿠차지역의 불교와 문자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쿰투라 석굴 내부에 도해된 벽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중원의 불교 문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서방정토변상도(西方淨土變相圖)>, <약사여래변상도(藥師如來變相圖)>, <법화경변상도(法華經變相圖)>, <미륵설법도(彌勒說法圖)> 등 대형의 경변상도와 불교 고사화, 동물 문양 등이 현존한다. 더불어 위구르 불화의 특징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나야약사변상도> 또한 도해되었다.

특히 이른 시기 본생도의 경우 키질 석굴과 매우 유사한 화면 구성과 도상을 가지고 있어, 무자르트 강을 따라서 개착된 키질 석굴과 쿰투라 석굴 간의 도상 혹은 화사의 왕래를 짐작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쿰투라 석굴
- 다국어 표기 庫木吐喇(중국어), قۇمتۇرا مەڭگۈى(위구르어), Kumtura Mağara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쿰투라 석굴, 신장위구르 자치구, 펠리오, 투르판

- 참고문헌(오프라인) 晁華山, 「庫木吐喇石窟初探」, 『中國石窟庫木吐喇石窟』, 文物出版社, 1992.
- 新疆龜茲石窟研究所 編, 『庫木吐喇石窟內容總錄』, 文物出版社, 2008.

I G312 | 콧두스 무함마디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Quddus Muhammadiy

소비에트 시대 우즈베키스탄 아동 문학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콧두스 무함마디이(Quddus Muhammadiy)는 1907년 타슈켄트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잃은 콧두스 무함마디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농업 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중앙아시아 대학의 생물학과에서 공부했다.

그의 작품 활동은 1930년대에 시작되어 신문 <동방의 사실(Sharq haqiqati)>과 잡지 <지표면(Yer Yuzi)>에 게재되었다. 콧두스 무함마디이는 1936년~1937년 집필한 대표적인 서사시인 「자기 비판(O'z-o'zini tanqid)」에서 낡은 것과 혁신, 낡은 전통과 새로운 전통을 비교하고, 삶과 사람들, 특히 아이들 성격에 나타나는 몇몇 결점을 편견 없이 조롱하기도 했다.

콧두스 무함마디이는 1941년~1944년에는 유명한 국민 시인, 바흐쉬(baxshi), 이슬람 어타(Islom ota)와 함께 지내며 그의 서사시를 필사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첫 시집은 『시험(Sinov, 1947)』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후 그의 시집은 꾸준히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독자에게 참고 사항(O'quvchiga esdalik, 1947)』, 『시와 동화(She'r va ertaklar, 1947)』, 『소망(Orzu, 1948)』, 『봄이 왔다(Bahor keldi, 1950)』,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Dunyoda eng kuchli nima?, 1951)』, 『40명의 소년과 40명의 소녀(Qirq o'g'il va qirq qiz, 1951)』, 『우리의 친구들(Bizning do'stlarimiz, 1952)』, 『당신이 태어난 날(Sen tug'ilgan kun, 1952)』, 『새 집(Yangi uy, 1953)』, 『친애하는 친구들(Mehribon do'stlar)』, 『선집(Tanlangan asarlar, 1957)』 등이다.

특히 네 권으로 구성된 책 『자연의 알파벳(Tabiat alifbosi)』은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보호를 권장한다.

쿣두스 무함마디이는 아동 문학의 연구자로도 수십 편의 논문을 썼다. 특히 그가 집필한 「아동 문학의 발전을 위해(Bolalar adabiyotining yanada ravnaqi uchun, 1961)」, 「아동 문학을 공부하자(Bolalar adabiyotini o'rganaylik, 1963)」, 「영감으로(Ilhom bilan, 1967)」와 같은 글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또한, 번역가로서도 활동하여, 그가 번역한 사무일 마르샤크, 세르게이 미할코프, 추코프스키와 같은 작가의 작품들은 우즈베크 아동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작품들은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쿣두스 무함마디이는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던 간에 아동의 미래와 성숙과 정신적 성장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시는 우즈베크의 민속을 친근하게 다루고, 어린이에 대한 사랑, 삶의 기본 원칙으로서 노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의 시집 『날개 있는 친구들(Qanotli do'stlar)』은 1970년 함자(Hamza)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공화국 국가 상을 수상한다. 그는 1982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 칭호를 받았다.

쿣두스 무함마디이는 1999년에 세상을 떠났다.



우즈베키스탄 우표의 쿣두스 무함마디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쿣두스 무함마디
- 다국어 표기 Qudus Muhammadiy(우즈베크어), Куддус Мухаммади(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b/Stamps_of_Uzbekistan%2C_2007-2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Safarov O., *She'rim- ochil dasturxon*, Toshkent: Musiqa, 2011.

I G313 I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오스만 제국,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Treaty of Küçük Kaynarca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은 1774년 7월 21일 지금의 불가리아 북동부 카이나르자(Кайнарджа, Kaynardzha)에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강화 조약이다. 폴란드 문제를 발단으로 시작된 1768년~1774년의 러시아-튀르크 전쟁을 종결시킨 평화 조약이다. 전문 28개조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오스만 제국은 흑해 북안의 여러 요새 할양, 베사브리아부터 크림반도 일대에 사는 크림타타르의 독립 승인, 제국 영내에서 그리스 정교회 교도에 대한 러시아의 보호권, 흑해 및 에게해의 러시아 상선의 자유 항행권, 러시아에 대한 카피톨레이션의 승인 등을 인정했으며,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다.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흑해와 흑해 연안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11차례 전쟁을 이어 나갔고 이를 러시아-튀르크 전쟁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흑해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고, 오스만 제국은 흑해 지역의 크림 칸국(Crimean Khanate: 1441년~1783년)에 대한 종주국으로의 이권과 러시아의 흑해 지역 진출을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 속에 전쟁이 지속되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Екатерина II, 재위: 1762년~1796년)는 폴란드 내정에 간섭하면서 카자크(Kazak, Казаки, Cossacks) 부대를 폴란드에 파견한다. 카자크 부대가 폴란드로 이동하는 과정에 크림 칸국,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약탈, 잔학 행위를 일삼자 분노한 오스만 술탄 무스타파 3세(Mustafa III, 재위: 1757년~1774년)가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군대는 순식간에 크림반도와 멤레케테인(Memleketeyn: 왈라키아, 몰다비아) 지역을 점령하고 다뉴브강을 넘어 오스만 제국의 루멜리 영토를 유린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영국의 지원 속에 해군을 활용하여 체슈메(Çeşme)에서 오스만 제국 해군을 격파했고, 그리스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리스인의 반란을 지원한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무능한 지휘관들로 전쟁을 이끌어갈 전략이 부재했고 군대 내부의 무능과 부패가 만연했다. 그리고 제국 내

부는 경제 파탄, 무슬림-비무슬림의 갈등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전쟁에 승기를 잡고 있었지만 러시아 전국을 강타하는 대농민 반란 푸가초프의 난(Pugachov, 1773년~1775년)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양국은 평화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대표는 이에르괴위(Yergögü, 현 루마니아 지우르지우, Giurgou)에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오스만 제국 대사 압둘케림 에펜디(Abdülkerim Efendi)와 러시아 대사 이반 시모린(Ivan Simolin)은 9개의 항목에 협의를 진행했다(1772년 5월 30일). 오스만 제국 무스타파 베이(Mustafa Bey)와 러시아 제독 스피리토프(Spiritov) 사이에 별도 9개 항목의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다(1772.6.22). 이러한 과정 끝에 양측은 폭산(Fokşan, 현 루마니아 폭사니, Focşani)에서 본격적인 휴전 협정을 시작했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28개의 공개 조항과 2개의 비밀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을 체결했다.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과 크림 칸국의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크림 칸국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슬람 칼리프로서의 종교적 지배 권리는 유지할 수 있었다. 몰다비아, 왈라키아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루마니아 공국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얻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클부르누(Kilburnu), 케르즈(Kerc), 이에니칼레(Yenikale), 아작(Azak) 지역을 장악했다. 그리고 캅카스 산맥 북쪽 초원 지대 카바르다(Kabarda)를 장악하면서 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자국 상인들에 대한 카피톨레이션이 부여되었고, 흑해상을 통한 지중해 무역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영사관을 개설하게 된다. 러시아는 갈라타 지역에 러시아 정교회 설립이 허용되었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황실에 대해 존중해야 했고, 러시아는 캅카스 산맥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에게해 도서 지역을 오스만 제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한다. 끝으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에 450만 루블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내부에 거주하는 정교회 기독교인의 보호자를 자칭하며 오스만 제국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크림 칸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국의 영토 상실이 시작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퀴취크 카이나르자 조약, 큐축 카이나르자 조약, 퀴축 카이나르자 조약, 쿠츠크 카이나르지 조약, 퀴축 카이나르자

● 다국어 표기 Küçük Kaynarca Antlaşması(튀르키예어), Кючук-Кайнарджийский ми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emal Beydilli “Küçük Kaynarca Antlaşmas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6, 1997, pp.524~527.

Karaman Şakul, “Küçük Kaynarca, Treaty of”,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p.317~318.

이은정,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민음사, 2019.

I G314 I 쿠타하 도자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도자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ütahya ceramics

쿠타하는 기원전 3세기부터 현대까지 지속해서 도자기를 생산한 지방이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오스만 초기 시대까지 쿠타하에서 어떤 도자기를 생산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15세기~16세기 초 이즈니크와 비슷하게 쿠타하에서도 청화백자와 타일을 생산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17세기에 이룰수록 다른 지방과 비교해 쿠타하 타일과 도자기 생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이즈니크의 도자기 공방이 몰락할수록 쿠타하 타일과 도자기의 중요성이 커졌다. 1710년에 술탄 아흐메트 3세(III. Ahmet, 재위: 1703년~1736년)는 딸 파트마 술탄(Fatma Sultan, 1702년~1733년)의 궁전 장식을 위해 이즈니크가 아닌 쿠타하에 타일을 주문하기도 했다.

쿠타하 도자기는 이즈니크와 비교할 때 새로운 형태로 생산되었다. 색상은 이즈니크와 유사했지만, 색상 톤은 확연히 달랐다. 특히, 쿠타하 자기는 노란색과 보라색을 추가함으로써 색상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16세기~17세기는 쿠타하 도자기가 정점에 이른 시기로, 이때는 흰색 또는 크림색 점토에 투명한 유약을 바른 후 양식화된 식물 문양과 사람이나 동물 문양으로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퀴타하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도자기 제품

했다. 퀴타하에서는 작은 접시와 잔, 수통, 굴아브단(Gülabdan: 장미수 등을 보관하기 위한 주전자의 일종), 펜던트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100년도 되지 않아서 퀴타하 도자기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퀴타하 도자기와 타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1차 민족 건축 시대(1.Ulusal Mimarlık Dönemi, 1908년~1930년)의 영향으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옛 건축물에서 투르크적인 것을 찾아 새로운 건축에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퀴타하 타일은 앙카라, 이스미르, 코니아, 부르사와 같은 대도시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건물 장식에 사용된다. 퀴타하 타일 장인인 다비드 오한네샨(David Ohannesyan, 1884년~1953년)이 해외, 특히 예루살렘에 퀴타하 타일을 알림으로써 퀴타하 타일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된다.

그러나 공화국 건국 초기 시절, 공공건물의 대부분이 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타일이 장식으로 쓰일 일이 없게 되자 퀴타하 도자기는 잠시 정체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자재 수입 경로가 끊기게 되자 쿠타하 도자기 생산은 다시 활발해졌으며, 당시 쿠타하의 아짐 타일 공장(Azim Çini Fabrikası)의 생산이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전까지 작은 공방 또는 제작소에서 수공예 형식으로 생산되던 쿠타하 도자기가 현대적인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현대 튀르키예에서도 쿠타하 타일은 중요한 장식 요소로 쓰이고 있으며, 도자기는 특히 이즈니크 도자기를 떠올리게 하는 도자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관광객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큐타하 도자기, 큐타하 치니, 쿠타하 치니,
- 다국어 표기 Kütahya çinisi(튀르키예어), Kütahya seramiğ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니크 도자기, 차낙칼레 도자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vam.ac.uk/_data/assets/image/0005/225662/2006AM7266_pilgrim_flask1_custom_290x335_06200717.jpg, http://www.vam.ac.uk/_data/assets/image/0018/222408/2006AF0245_cup_saucer_custom_290x201_6610742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rlı, Belgin Demirsar. “Kütahya Çiniciliği”, *Anadolu’da Türk devri çini ve seramik sanatı*, Ankara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07, pp.329~349.

I G315 | 권사룩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un Sarygh

권사룩은 하카스 공화국의 유명한 민담꾼 예브도키야 쿨라가세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아흐 사라아아트그 권사룩’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영웅 서사시이다. 이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인 권사룩(투르크어로 Gün은 ‘태양’을 의미함)은 여성이며 매우 비범한 인물이다. 또한 권사룩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칸이다.

이 영웅 서사시는 1970년대 하카스에서 ‘레닌 출르(레닌의 길)’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Xakas

Çiri(Hakas Place/Country))로 알려진 신문에서 연재되어 독자들에게 알려졌지만 책의 형태로 출판된 적은 없었다. 쿤 사룩은 티무르 다블레토프(Timur B. Davletov)와 다투 오쿠탄 다블레토프(Nükhet Okutan Davletov)가 2021년 최초로 하카스어에서 외국어(튀르키예어)로 번역을 시도했고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책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다른 하카스 서사시와 비슷하게 쿤 사룩의 영웅들은 달, 태양, 불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하카스인들의 서사시를 통해 나타나는 샤머니즘적 모티프들은 고대 투르크인들의 샤먼 신화와 더불어 이 지역의 샤머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쿤 사룩, 군 사룩

● 다국어 표기 Kun Sarygh(Kün Sarǵ)(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Davletov, N. & Davletov, T., *Kün Sar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nkara: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2021.

I G316 I 큐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yuy

큐이는 카자흐 전통 악기인 돔브라(домбра), 코브즈(кобыз), 시비즈기(сыбызгы)를 위한 음악 작품이다. 지난 100년 동안 큐이는 악기 문화가 크게 발달한 카자흐스탄에서 형성되었다. 큐이란 단어는 옛날에는 기악, 성악 음악의 개념을 합친 것이었다. 그래서 몇몇 투르크 민족에게서 큐이는 기악 음악이나 노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큐이 연주자를 큐이시(күйши)라고 부른다.

다양한 서사적 전설이나 동화, 전설은 큐이에 맞춰 묘사된다. 그래서 이들 중 대다수는 표제 음악의 특성을 지닌다. 큐이는 단조, 혼성조, 변조의 운율 조직을 가지고 있다. 큐이 음악은 전 음계에 기초한 5음계 요소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큐이는 2개 성음으로 되어 있으

나 단성음이나 삼성음도 가끔 존재한다.

큐이 장르의 다양성은 카자흐 민족의 역사, 관습, 의례, 구비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뛰어난 큐이시이자 작곡가인 쿠르만가지 사기르바이올리(Курмангазы Сағырбайұлы)와 카르시기 아흐메디아로프(Каршығи Азмедьяров), 다울레트케레이 시가이올리(Даулеткерей Шигайұлы)는 서부 카자흐스탄 스타일을 대표하며, 타트팀베트(Таттимбет)와 아가샤야크(Ағашаяқ)는 동부와 북부 큐이를 대표하고, 이흘라스 두케노프(Ихлас Дуқонов), 수구르 알리올리(Сугур Аліұлы), 바이세르케 쿨리술리(Байсерке Қлышулы)는 남부 큐이를 대표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큐이
- 다국어 표기 Кюй(러시아어), күй(카자흐어), күү(키르기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돔브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46WevNrDuM>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2004. — Т. 3. С. 394.

I G317 | 크나 게제시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풍습 ● 유형 소분류2 결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ına gecesi

크나 게제시(kına gecesi: 헤나의 밤)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결혼식 전날 밤에 치르는 신부를 위한 행사이다. 크나, 즉 헤나를 태우기 때문에 ‘헤나의 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의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공통적인 순서와 형식이 있다. 다음은 튀르키예의 크나 게제시다.

결혼 전날이나 이틀 전, 신랑 측은 견과류 따위와 헤나를 신부 측에 보내고, 크나 게제시 아침에 신부 측은 집 앞에 깃발이나 천을 걸어 오늘 크나 게제시가 있음을 알린다. 과거에는 신부의

집에서 행했으며 여성들만이 모였다. 여성 손님들은 신부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구성된다. 신부 측은 손님들에게 견과류를 대접한다.

신부는 성장을 하고 베일을 쓴 채 손은 붉은 천으로 덮어두고 앉는다. 독신 여성들은 헤나가 담긴 쟁반에 양초를 꽂은 채 입장한다. 이들은 신부의 주변을 돌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주로 가족과 부모님을 주제로 한 노래로 멀리 떠나야 하는 신부를 울리려는 목적으로 부른다. 신부가 울면, 신부의 손바닥에 헤나를 놓고 동전을 올린 후, 주먹을 쥐게 하고 펴지 못하게 천으로 감싼다. 이때 헤나를 신부의 손에 올리는 역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이 맡는다. 이 여성의 결혼 운이 새 신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후 신부와 그 친구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결혼을 축하한다.

현대에는 연회장을 대여하여 크나 게제시 행사를 치르고, 남성 친구들과 신랑이 참석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나 게제시

● 다국어 표기 Kına gecesi(튀르키예어), xına gec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결혼 의례와 관련된 민속 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Ömek, Sedat Veyis. *Türk halkbilimi*,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2000.

Həsənqızı, Almaz. 『AZƏRBAYCANDA XINA GECƏSİ MƏRASİMİ』, 국제언어문학, 제50호, 2021, pp.45~64.

I G318 | 크드르 아타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Qydyr Ata

크드르 아타는 카자흐인들의 전통 새해 명절인 나우르즈 시기에 등장한다는 성스러운 노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행운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한다. 마치 성탄절 전날 밤에 나타나는 산타 클로스과 같다.

크드르 아타는 나우르즈의 시작일인 3월 21일 밤에 등장하는데 대개 3월 22일 새벽 3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하여 선물을 주고 축복을 빌어준다.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해 둔다. 크드르 아타는 한밤 중에 촛불을 들고 유르타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반긴다. 크드르 아타는 새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은 이에 호응하면서 인사를 한다. 한 동네의 방문을 마친 다음 크드르 아타는 타고 온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시 다른 동네로 간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이 축복과 선물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1년 내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성스러운 노인’ 크드르 아타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크드르 아타의 방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반 민중들의 새해맞이 축제가 본격적으로 거행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디르 아타
- 다국어 표기 Қыдыр ата(카자흐어), Кыдыр ат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나우르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3FpXnFP0p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ru.sputnik.kz/20190319/kydyr-ata-legendy-nauryz-9612170.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G319 | 크라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radin N. N.

크라딘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민족, 고고학, 역사학연구소 소속으로 역사학 박사이다. 러시아인으로 시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에서 1962년에 태어났으며, 러시아의 대표적인 흥노 고고학자이다. 2011년에 그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학문적 성과로는 1992년에 발표된 ‘Кочевые общества(유목민 사회)’에서 유목민 사회의 독립적인 진화 경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크라딘은 생산 방식의 특수한 형태에 관한 통합이론을 만들었다. 가장 큰 유목 사회가 외부의 농업 사회로부터 착취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공격, 산물의 강탈, 정복이다.

그는 이후에는 이중주의(ксенократия(xenocracy))라는 개념으로 흉노, 거란, 몽골 제국 등 유목 제국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러시아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 투바자치공화국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발굴해서 연구를 확장했다. 특히 몽골에서는 거란의 성이었던 친톨고이(Chintolgoy-balgas) 성곽 유적을 발굴하고 저서를 냈다.

그는 유라시아 초원 사회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론 연구인 ‘초원 세계 시스템 분석’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농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유목민 사회 정치조직의 특별한 형태로 ‘суперсложное вождество(super-complex chiefdom)’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의 개념은 2001~2011년까지 러시아의 고등학교 교과목에 소개되기도 했다.



크라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다국어 표기 Крадин Н.Н. (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1/Nikolay_Kradin.jpg/250px-Nikolay_Kradi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радин Н.Н. Кочевые общества.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1992, 240 с.
Крадин Н.Н., Ивлиев А.Л., Очир А., Васютин С.А., Данилов С.В., Никитин Ю.Г., Эрдэнэболд Л. Киданьский город Чинтолгой-балгас.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11, 173 с.

I G320 | 크라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러시아 정교 ● 유형 소분류2 민족
- 집필자 김근식, 최선아 ● 라틴 문자 Kryashens

크라셴인은 러시아 정교를 믿는 타타르 계통의 소수 민족이다. 이들은 혈연적으로는 타타르인에 속하지만 16세기~18세기에 러시아 정교로 개종해서, 이슬람을 믿는 타타르인의 문화에서 분리된 집단이다.

타타르인은 일반적으로 하자르와 킵차크에 존재하는 투르크인을 말하는데, 서구 학자들은 투르크스탄 지역에서 흑해 북쪽에 사는 투르크인을 ‘타타르인’이라고 불렀다. 러시아 역사에서는 전통적으로 20세기 초까지 투르크인의 뿌리를 가진 무슬림 집단의 대부분을 ‘타타르’라고 지칭했다. 아랍인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몽골인들을 지칭할 때 ‘타타르’를 사용했다. 즉, 타타르인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불가 지역에서 ‘타타르’가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슬림’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타타르라는 이름은 킵차크 칸국이 해체되고 난 후 세워진 카잔, 크림, 아스타라한 칸국, 카심 칸국과 같은 국가들에 사는 투르크인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 타타르인들 중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이들을 ‘세례를 받은(타타르인)’이라는 의미인 크라셴(Кряшены, Kryashen)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크라셴이라는 명칭은 러시아어 ‘세례(крещение)’에서 유래한다.

크라셴은 ‘세례를 받은 타타르인’이 아닌 마치 다른 하나의 민족처럼 ‘크라셴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타타르’가 민족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를 믿는 타타르인은 스스로를 러시아어로 ‘세례받은 타타르인(крещенные татары)’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불가강에 살던 투르크의 후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0세기 초부터 16세기까지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러시아가 카잔 칸국을 정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러시아는 비슬라브인 기독교화 및 러시아화를 목표로 1555년 카잔 주교구를 설정하고, 카잔과 스비야스시크를 포함하는 교구에 주교와 신부들을 보냈다. 주교구 지역민에게 세례를 내릴 것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 또한, 러시아화와 기독교(러시아 정교)화

를 위해서 교회와 수도원, 학교가 세워졌으며 타타르어로 된 종교 문서들이 출간되었다. 선교사들은 학교를 통해 일부 타타르인들을 교회의 사제와 교사로 성장시켰다. 불가 강과 카마 강 근처의 비옥한 토지는 러시아인 사제와 수도원에 나누어 주었으며 남은 부분은 러시아인 이주민들과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인 타타르인에게 분배했다. 무슬림 타타르인들은 황무지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으며 높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정책으로 타타르인들은 16세기 이후에 기독교화 및 러시아화를 겪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크라센은 타타르인에 속하지만 16세기~18세기에 이루어진 기독교화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로 개종해서, 이슬람을 믿는 타타르인의 문화에서 분리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무슬림 마을이 다시 조직화되고 이슬람 문헌 출판이 증가하면서 크라센들 중 일부가 다시 이슬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무슬림으로의 재개종을 막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크라센 대부분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바시키르 공화국, 추바시 공화국, 마리엘 공화국, 우드무르트 공화국 등 이웃한 다른 러시아 자치 공화국과 키로프, 사마라, 오렌부르크, 첼랴빈스크주(州) 등 러시아 지역에도 소수 존재한다. 2010년 러시아 인구 조사에 따르면 55,635명의 크라센인이 러시아 연방에서 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도 2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 문화는 기본적으로 카잔 타타르인들과 큰 차이는 없으나, 불가강을 따라 있는 핀우그리아족들과 가까운 관계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정교회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타타르인과 구별되는 문화적 요소도 있다. 독특한 인종과 종교의 혼합으로 크라센인의 의복 문화와 주거 문화는 타타르인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언어적으로는 타타르어의 서부 방언과 동부 방언을 사용하는 동시에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타타르어로 설교를 하고 있으며 관련 서적도 타타르어로 출간한다. 크라센인은 십자가 예배소(обетная крест-часовня)에 죽을 바치면서 기도하거나 큰 가마솥 앞에 특정 성자의 성화를 놓고 날씨 기원을 하는 독특한 기독교 관습을 가졌다. 이들은 기독교 명절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성탄절(Рождество Христо)은 투임 케노(Туйым кено)라고 부른다.

크라센인 자체도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5개의 소집단으로 나뉘는데, 카잔 타타르 크라

센(казанско-татарский), 엘라부스키(елабужский), 몰케엠프스키(молькеевский), 치스토 폴스키(чистопольский), 나가이바크(нагайбак)가 그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라센, 키라헨
- 다국어 표기 Кряшены(러시아어), Керәшен татарлары(타타르어), Krişinler(튀르키예어), Keräşenlər(아제르바이잔어), كيراشين تاتار, (아랍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시키르공화국,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십자가 예배소
<https://www.korely.ru/upload/iblock/eec/eec50914cadbf80e606e5c5a7f3fce3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Ank, Durmuş. “Türk kültürünün Farklı Bir Boyutu Olarak Krişin-Hristiyan Tatarların Dinî İnanışları”, *AÜİFD* 47, 2006, sayı I, s. 67~86.

I G321 I 크레타 전쟁(1645~1669)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그리스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Cretan War(1645~1669)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가 1645년부터 1669년까지 에게해 크레타섬을 두고 벌인 전쟁을 크레타 전쟁이라 한다. 크레타섬 동부 지중해 지역의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이 지역은 1204년 제4차 십자군 때부터 베네치아의 영토였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 섬을 점령한 이후 동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레타섬에 대한 군사 원정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오스만 제국이 크레타 원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1644년 이스탄불과 이집트를 오가던 오스만 제국 선박을 몰타의 해적들이 습격하면서부터였다.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가 몰타 해적에게 항구를 제공한 것에 대해 비난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1645년 여름 실라흐다르 유수



크레타섬, 그리스

프 파샤(Silahdar Yusuf Paşa)를 시켜 크레타섬을 공격했다.

오스만 제국의 크레타 원정은 초기에는 별 어려움없이 이루어져서 서부 크레타섬의 중요한 요새인 하니아(Chania)를 1645년에 정복했고, 레티몬(Rethymon)을 1646년 정복하면서 주변 일대를 오스만 제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크레타의 중심지 헤라클리온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크레타 원정은 장기전으로 변화했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의 크레타에 대한 보급과 증원 병력 파견을 막기 위해 해상을 봉쇄했고 두 차례 해전에서 승리했다(1648년 낙소스 해전, 1656년 다르다넬스 해전). 오스만 제국은 대재상 쿠피릴뤼 메흐메드 파샤(Köprülü Mehmed Paşa)의 노력으로 해상 봉쇄를 풀었지만 당시 오스만 제국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크레타 원정군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크레타를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 군대는 헤라클리온 공성전을 수행하지 못했고, 1660년 프랑스-베

네치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재상에 임명된 쿠피뤼뤼 파즐 아흐메드 파샤(Köprülü Fazıl Ahmed Paşa, 메흐메드 파샤의 아들)는 크레타 원정 증원군을 편성하여 1666년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크레타에 도착한다. 당시 베네치아는 더 이상 서유럽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면서 헤라클리온은 고립된다. 결국 베네치아 사령관 프란체스코 모르시니는 1669년 9월 오스만 제국에 항복한다.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는 협정을 맺었고 베네치아는 크레타섬에 대한 소유권을 오스만 제국에 이양하게 된다. 일부 요새들이 1715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했지만 실패했고 크레타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 다국어 표기 Girit Savaşı(튀르키예어), Krit müharibəsi(아제르바이잔어), Guerra di Candia(이탈리아어)
- 연관 검색어 쿠피뤼뤼 가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girit>
- 참고문헌(오프라인) Elias Kolovos, “Cretan War”,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p.157~158.

I G322 | 크림 칸 궁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n Saray

크림 칸 궁전의 이름은 한 사라이(Han Saray) 또는 바크차사라이(Baqçasaray)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바크차사라이(Bağçasaray) 마을에 위치해 있다. 멩잉리 기라이 한(Meñli I Giray, 재위: 1467년, 1469년~1475년, 1478년~1515년)이 살라츠크(Salaçıq)에서 이곳으로 천도하면서 도시의 이름이 바크차사라이 즉, 정원의 궁전이 되었다. 궁전은 바흐체사라이를 지나는 취룩 수(Çürük Su) 강가에 있다.

크림 칸 궁전의 전체 터는 동-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다. 주요 건물은 서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 서쪽 터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편이나 중정 남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아져 삼층의 계단 형태의 언덕으로 변한다. 주요 공간은 크게 세 개의 중정으로 나뉜다.

크림 칸 궁전은 입구를 통해 첫 번째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정 바닥은 본래 석재였다. 중정 오른쪽의 궁전 건물은 시대마다 증축되면서 거대한 복합체 형태가 되었다. 두 번째 중정으로 들어가는 문은 데미르 카프(Demir Kapı)인데 이는 1503년에 건설되었다. 이 문은 멩잉리 기라이에 의해 살라축의 궁전에서 가져왔다. 이탈리아 건축가 알레비조 노비(Alevizo Novi)가 러시아 황제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가던 길에 붙잡혀서 만들게 되었다. 전형적인 르네상스 형식으로 벽감 중앙에는 원형의 비문이 있다.

데미르 카프를 지나면 나무 기둥 아케이드가 있는 L자형의 체슈메(çeşme) 중정, 즉 분수의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정의 구석에는 대리석으로 된 2개의 분수가 있다. 분수 중 하나는 르네상스 스타일로 1733년에 만들어졌고 코즈야쉬 체슈메시(Közyaş Çeşmesi: 눈물의 분수)는 바로크 양식으로 1763년에 만들어졌다. 이 분수가 푸시킨(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Пушкин, 1799년~1837년)의 시와 차이콥스키(Пётр Ильич Чайковский, 1830년~1893년)의 발레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체슈메 중정 모서리에 거대한 직사각형 공간은 디반 하네시(Divan hanesi: 국무 회의 등이 개최될 수 있는 거대한 홀)이다. 1736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곳에서 각종 회의와 의식이 열렸다. 이 디반 하네시에 배치된 상하단 두 줄로 이루어진 창문을 통해 대중정을 볼 수 있다. 상단부 창문은 색유리로 되어 있고 하단부 창문은 철책으로 되어 있다. 1736년 기록된 그림에 의하면 이곳에는 카펫 대신에 다색의 타일로 덮인 바닥과 중앙에는 대리석 수조, 벽에는 다색의 방석을 깔린 의자가 있었다. 여기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대사를 영접하는 홀이 있다.

중정 남쪽에는 소 모스크(Kiçik Han Cami)가 있다. 1741년 건설된 이 모스크는 중앙의 돔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체슈메 중정과 디반 하네시가 이어지는 벽 뒤편으로 특 튀어나온 형태의 건물을 알튼 오다(altın oda), 즉 황금 방이라고 한다. 1764년 건설된 직사각형 형태의 이 방은 이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창문과 천장은 붉은색 바탕에 다양한 색 장식을 비롯하여 양각 장식이 있다. 방석이 깔린 긴 의자도 붉은색 천 위에 금실로 수가 놓여 있다. 푸른색이 주를 이루는 벽에는 시대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시가 쓰여 있다.



크림 칸 궁전

앞서 언급한 소 모스크를 마주 보는 편 뒤쪽에는 하렘(xārām,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다. 하렘은 다양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20년경까지는 목욕탕을 포함하여 총 네 개의 건물이 하렘에 속해 있다. 건물은 지붕이 있는 단층 목조 건물이며, 3개의 방이 있었다.

하렘에는 이른바 ‘페르시아 정원(farsı baqçası, 파르스 바크차스)’이 있는데, 하렘에 있던 목욕탕을 따 목욕의 중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중정 북동쪽 모퉁이에 피라미드형 지붕이 있는 팔각형 나무탑(Toğan qullesi: 토간 쿨레시)이 있다. 이곳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각종 행사를 지켜보거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궁전 동쪽에는 팔각형으로 된 두 개의 영묘와 묘지가 있다. 이 영묘와 묘지는 크림 칸국의 왕족들이 묻혀 있다. 18세기 이후 석상과 묘비를 장식한 카부슈(kavuş: 오스만 시대 관모의 일종) 장식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영묘 옆에는 모스크가 있다. 모스크는 3개의 주랑으로 이루어진 기도실이 있으며, 지붕은 뾰족한 형태이다. 미너렛은 팔각형 모양으로 높이는 28m 가량이며, 원뿔형의 지붕이 있다. 내부에는 풍부한 장식성을 가진 석재 미흐랍과 민바르가 있고, 정면 배랑 옆에는 아케이드가 있다. 모스크의 남서쪽에는 목재 계단을 통해 왕을 위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곳은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아르슬란 게라이 칸(Arslan Geray, 재위: 1748년~1756년, 1767년)이 1750년에 건설한 마드라사는 모스크의 동쪽 벽에 붙어 있다.

데미르 카프 서쪽에는 사르 귀젤 하맘(Sarı güzel hamam), 즉 ‘노란 빛의 아름다운’ 목욕탕이 있다. 목욕탕의 비문에는 사합 기라이 1세(I. Sahib Geray, 재위: 1532년~1551년)가 1532년에 건설했다고 적혀 있다. 온돌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이 하맘은 공기 순환을 위하여 돔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스탄불 궁전에서 성장한 크림 칸들이 귀향한 후에는 그 영향을 받아 궁전 건축 역시 오스만 양식을 따라가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한 사라이, 크림 칸 사라이, 크림 한 사라이

● 다국어 표기 Hansaray(크림 타타르어), Ханский дворец(러시아어), Kırım han sarayı(아제르바이잔어), Хан сарайы(카자흐어), Xon saroyi(우즈베크어), Hansara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림칸, 타타르

● 멀티미디어 링크 눈물의 분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8/Bakhchysarai_04-14_img11_Palace_Fountain_of_Tears.jpg/800px-Bakhchysarai_04-14_img11_Palace_Fountain_of_Tears.jpg

칸 사라이 전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a/Hansaray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3686>

Inci Bowman, “Crimean Tatar Architectur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Crimean Website.

<http://www.iccrimea.org/monuments/monuments.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Kırım Türk Eserleri”, *Sanat, Tarihi, Edebiyatı ve Musikisiyle Kırım* (ed:Oktay Aslanap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3, pp.11~57.

I G323 | 크림차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유대교 ● 유형 소분류2 분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rymchaks

크림반도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크림 타타르인 이외에 카라이트 유대교를 믿는 카라임인, 그리고 랍비 유대교를 믿는 크림차크인이 있다. 크림차크(Крымчаки)라는 명칭은 19세기 소련이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며, 이전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스텔 발라라르(Срель балалары)라고 불렀다. 반면, 크림 타타르인은 크림차크인을 ‘수염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의미의 줄르풀르 추푸트라르(zulufli çufutlar), 카라임인은 ‘수염이 없는 유대인들’이라는 의미의 줄르프스즈 추푸트라르(zulufsız çufutlar)라고 불렀다.

크림차크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설 중 하나는 2천여 년 전 예루살렘의 예배당이 무너진 후 흩어진 유대인 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다른 학설로는 크림차크인은 사실 투르크인이 캅카스로 이주한 유대인들과 교류한 결과 유대교를 믿게 되면서 발생했다는 설이 있다.

7세기 말, 크림반도는 하자르 칸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당시 하자르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크림차크인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자르 칸국 통치 시기 크림차크인은 하자르인과의 결혼과 교류를 통해 하자르인이 크림차크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8세기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당시 크림차크인은 유대인으로 취급되었고, 이중 납세 의무나 주거지 제한 정책을 받게 되었다. 카라이트 유대교를 믿고 있던 카라임인은 스스로를 ‘크림 타타르인’이라고 말하여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41년 독일군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당시 크림반도의 거의 모든 크림차크인을 학살했다. 당시 독일군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크림차크인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들 중 피난에 성공한 극히 일부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크림차크인 대부분은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2000년대에 크림차크인은 우크라

이나에 약 200여 명, 크림반도에 약 200여 명, 이스라엘에 600명~700여 명, 그리고 미국에 소수만이 남아 있다.

크림반도의 크림차크인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나 오늘날 명확한 예배 형식이나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도 대부분 전승되지 못했고, 아랍어로 쓰인 기록 문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정생활과 의례 등은 크림 타타르인들과 거의 유사하다. 크림차크인은 크림 타타르어에서 약간 변형된 크림차크어를 사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림차

● 다국어 표기 Қырымшақтар(카자흐어), Kırımçaklar(튀르키예어), Qırımçaqlar(아제르바이잔어), Кыргызчаклар(타타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167&cid=56762&categoryId=56762>
<https://web.archive.org/web/20151017142435/http://library.eajc.org/page70/news13498>;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ulı, Kenesbay. “Kırmılı Musevî Türkler Kırımçaklar”(Aşur Özdemir, Trans) *Atatür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Dergisi*; 1995, sayı: 3, pp.221~225.

I G324 | 크사술 엔비이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ısasu'l-Enbiya

13세기는 아나톨리아에서 이전 시대까지 주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저술되어왔던 문학 작품들이 투르크어로 쓰이기 시작하게 된 시기였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과 함께 종교적, 도덕적 작품들도 투르크어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투르크어를 구사하던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더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의 문학 작품들은 시와 산문에서 번역까지 다양한 주제로 집필되었다. 또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번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는 투르크어의 문화와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크사술 엔비이아』는 직역하면 ‘예언자의 이야기’인데, 아랍, 페르시아 및 투르크 문학에 있

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책은 아담에서 예수, 마지막 이슬람 예언자 무함메드의 삶의 이야기와 기적, 사하바 및 네 칼리프의 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몽골 침략과 몽골의 세계 정복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총 484개의 행으로 구성된 43개의 시가 있다. 이 책은 주석이 달린 번역서로서 종교적인 지식 전파와 함께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아나톨리아 투르크어 즉, 하레즘 투르크어로 쓰인 『크사술 엔비아』의 역자는 나시렛딘 빈 부르하네딘 랍구지(Nâsireddin bin Burhaneddin Rabguzî)이다. 그는 작품에서 자신을 리바트 오구즈룩 부르한(Ribat Oguzlug Burhan)의 아들 카지 나시르(Kazi Nasir)라 소개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는 랍구지(Rabguzi)로 알려져 있다. 랍구지(Rabguzî) 리바트 오구지(Ribât-ı Oguzî)의 축약된 형태인데, 이는 그가 실제 오구즈 리바트(Oghuz Ribât)라는 도시 출신이며 오구즈 투르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랍구지(Rabguzi)가 오구즈 투르크였다는 사실은 투르크 언어학사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투르키스탄과 알톤오르두 시대에 공통적으로 통용되었던 하레즘 투르크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랍구지(Rabguzi)의 『크사술 엔비아』는 아랍어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역서를 다시 호라즘 투르크어로 번역을 한 작품이며 이 번역서는 몽골 제국의 왕자였던 나스레딘 톱 부가의 명을 받들어 1310년 작성되었다. 『크사술 엔비아』 랍구지 역본은 크사술 랍구지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판본이 존재한다. 6개의 사본이 상트페테르부르크(Leningrad)에서, 2개는 스웨덴에서, 1개는 파리, 1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판본은 15세기에 복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의 사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사술 엔비아, 크사술 엔비아
- 다국어 표기 Kisasu'l-Enbiya(영어), قصص الأنبياء(아랍어), Kasasü'l-Enbiyâ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호라즘 투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Ankara: Akçağ, 2016.
Akar, Ali, *Türk dili tarihi*, Ankara: Ötüken, 2014.

I G325 | 크산토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santos

튀르키예에 존재하는 13개의 세계 문화유산 중 1988년 6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크산토스이다. 크산토스는 고대 리키아(Lycia)의 수도였고 이 도시의 역사는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에도 등장한다. 특히 이곳은 고고학 유적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838년 영국의 펠로우스에 의해 발견되어 많은 고고학적 유물이 영국으로 건너가 대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본격적인 발굴은 1950년대 이후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리키아 왕국의 암굴묘를 비롯해서 헬레니즘 문화권의 장례 예술을 보여주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크산토스 극장 유적

Source: <https://whc.unesco.org/uploads>

발굴되었다. 특히 비문들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자들은 인도 유럽어의 고대 형태이다.

이 밖에도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 아고라 등의 아크로폴리스 유적과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도 발견되었다. 크산토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레툰(Letoon)이 있는데 크산토스와 레툰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좋은 고고학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산토스

● 다국어 표기 Xanthos(영어), Ksantos(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0484_0005-1000-666-2014070816524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ryce, Trevor R, The Lycians : a study of Lycian history and civilization to the conquest of Alexander the Great. Vol. 1 The Lycians in literary and epigraphic sources,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1986.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 여행 01』, 책문, 2010.

I G326 | 크산티 클막 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šanti kilmak nom

위구르 불교 문헌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참회(회개, 고백)서의 존재이다. 『크산티 클구룩 놈 비티(Kšanti Kılğuluk Nom Bitig)』와 같은 『자비도량참(慈悲道場懺)』의 번역서나 『자비도장수참(慈悲道場水懺)』의 번역서도 있으나 위구르인들만의 고백서가 존재한다.

『크산티 클막 놈(Kšanti kilmak nom)』이 위구르인이 만든 고백서의 일종이다. 이 고백서는 널리 퍼지고 여러 번 필사되어 발굴지마다 낱장으로 다수 발견됐다. 과거 이 고백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 자의 이름을 기입했기 때문에 필사본마다 각각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다.

많은 고백서의 존재는 위구르인의 종교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위구르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마니교가 도입되었는데, 마니교에서는 죄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종교적 활동이었다. 마니교의 회개서인 『후아스투아니프트(Huastuanift)』는 위구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후 위

그르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마니교의 회개서에 익숙한 평신도를 위하여 유사하게 회개와 관련된 일종의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했다. 크산티 클막 놈은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크산티 클막 놈의 내용은 아소카 왕(Ashoka, 재위: B.C. 273년~B.C. 232년), 메난드로스 1세(Menander I, 재위: B.C. 165년~B.C. 130년), 카니슈카(Kanishka, 재위: 120년~144년) 등 유명인의 사례를 들어 악행의 나쁜 영향을 설명한 다음, 불교로 개종해 경건한 불교도가 된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서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지옥의 무서움을 소개한 뒤 현세에서 미륵불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크산티 클막 놈』은 위구르 불교가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 참회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산티 클막 놈, 크산티 킬막 놈
- 다국어 표기 Kšanti kilmak nom(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후아스투아니프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Raschmann, Simone-Christiane. “Turfan Bölgesindeki Uygurca Yazmaların Kullanımıyla İlgili Neler Biliyoruz? (tra.Dilek BEKTAŞ)” *Kesit Akademi Dergisi*, (2), 113~134.
Zieme, Peter. “Local Literatures: Uighur”,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Vol. 1: literature and languages*(ed, Jonathan A Silk; Oskar von Hinüber; Vincent Eltschinger), Leiden, The Netherlands: Koninklijke Brill NV, 2015, pp.871~882.

I G327 I 크즈 코루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yz Koru

옛날 카자흐인들은 대개 자식을 장가보낼 때 부모들이 미리미리 자식들의 배우자감을 찾아 두었다. 특히 아들을 가진 집안의 경우 적령기에 다다른 아들을 위하여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았다. 이 과정은 유목민 사회에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래서 때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는 집안끼리 사전에 서로 약정하여 미래에 사돈이 맺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 딸과 아들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아들을 가진 집안은 신붓감 찾기를 주도적으로 행했다. 물론 일종의 중매쟁이를 내세워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붓감을 모아서 선택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을 ‘신붓감 보기’라고 할 수 있는 ‘크즈 코루(또는 ‘크즈 탄다우’)’라고 불렀다. 크즈 코루를 통해서 남자는 자신의 배필이 될 만한 신부를 찾아서 선택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그 부모들이 하지만 간혹 신랑의 집안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을 때는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남성 위주의 유목민 사회를 형성했던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의 하나인 크즈 코루는 단지 일대일의 만남이 아니라 소수의 선남선녀의 장으로 마련되어 일정한 게임을 통하여 시간을 갖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필을 정했다. 배필을 찾는 일은 혼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혈연적으로 7대 조상까지 파악하여 동일한 가문에 속하는 혼인은 금지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친혼의 방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관습이었다. 크즈 코루는 결혼을 앞둔 남자가 자신을 배필로 결정하기 위해 신붓감들을 모아 놓고 결정하는 사회적 관습으로서 옛날 카자흐인의 혼례 관습 중의 하나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즈 코르

● 다국어 표기 кыз кору(카자흐어), кыз кор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의 전통 의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bilu.kz/smotriny.php>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G328 | 크즈 쿠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마술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yz Kuu

크즈 쿠우(Kyz Kuu)는 카자흐인들의 말타기 전통 놀이로, 말을 타고 앞서 출발한 소녀를 바로 이어 출발한 소년이 따라잡으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출발 직전의 두 말 사이의 간격은 대략 15m 정도인데 소년이 탄 말은 뒤에 위치하며 전체 거리는 약 400m이다. 따라서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앞선 말을 따라잡을 수 있다.

소년이 소녀의 말을 추월한다면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 관습이다. 그래서 소녀가 보기에 소년이 마음에 든다면 눈치 채지 않게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추월당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추월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도착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소녀가 먼저 출발하



크즈 쿠우

고 소년이 바로 이어서 말을 타고 달려간다. 이와 같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인데 그 결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기는 유목 민족인 카자흐인을 비롯하여 키르기스인, 아제르바이잔인 등의 전통 관습에 남아 있다. 대개 중요한 축제와 기념일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콕파르 경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소년과 소녀들을 위한 놀이로 볼 수 있다. 이 놀이는 트랙에서 이루어지며 결과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 여기에 참여하는 소년, 소녀들의 연령대는 대개 중고등학생 정도에 해당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즈 쿠파르, 크즈 쿠파마이, 크즈 코우
- 다국어 표기 қыз қуу(크즈 쿠파르, 카자흐어), qyz qyar(크즈 쿠파르, 카자흐어), қыз қумай(크즈 쿠파마이, 키르기스어), qiz-qov(크즈 코우,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콕파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ld.qazaqtv.com/en/programms/viewArchive?id=22928>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alanews.kz/42214>, <http://kabdolov.kz/aza-sha-sayra/aza-lty-oyyndary-kazakhskie-natsionalnye-igry-kazakh-national-g/yz-uu-kyz-kuu-kyz-kuu>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329 | 크즈-즈벡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yz-Zhibek

「크즈 즈벡」은 16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인 전통 구전 서정시이다. 카자흐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바탕으로 한 이동 민족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흩어져 살아야 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집안 간, 부족 간의 불협화음이 늘어나고 그 결과 상호 간의 유혈 사태도 잦았다. 지역의 족장들의 권위가 커지고 이들 간의 우위 경쟁도 심해지는 경향도 나

타났다.

「크즈 즈벡」에는 카자흐인들의 예술, 생활 관습, 규범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바자르바이(Bazarbai)의 아들 톨레겐(Tolegen)은 14세에 배필을 찾아 나섰는데 210명 중에서 스르를바이-칸(Syrlybai-khan)의 딸 즈벡(Zhibek)을 선택했다. 톨레겐은 석 달 동안 스르를바이-칸의 초대를 받아 머물다가 나중에 집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귀가 도중에 숨어 있던 베케잔(Bekezhan)이라는 인물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베케잔은 즈벡에게 그의 죽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베케잔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었고, 즈벡도 자살을 하고 만다는 비극적 스토리이다. 후반부에서 산스즈바이(Sansyzbai)는 톨레겐 형제를 찾으러 나섰고 결국 칼묵족의 칸 코렌(Koren)을 죽이고 자갈바이족(zhagalbai)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1880년에 알렉산드로프(Y. A. Alexandov)는 아큰(Akyn: 구전시 낭송가) 무사바이(Musabai)로부터 「크즈 즈벡」을 채록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팔리올라 투흐바툴린(Falliola Tukhvatulin)은 자이산(Zhaisan)에서 채록하여 또 다른 판본으로 1894년에 카잔에서 발간했다. 카자흐어본은 1900년, 1903년, 1905년, 1909년, 1911년에 카잔에서 발간되었다. 투흐바툴린 판본은 1925년, 1933년, 1939년, 1957년, 1967년에 발간되었다. 1988년에는 「크즈 즈벡」 서정시가 러시아어로 별도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한편 1934년에는 카자흐 공화국 알마티 아바이 극장에서 오페라로 공연되기도 했다. 「크즈 즈벡」은 200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크즈 즈벡」에서 ‘크즈’는 처녀, ‘즈벡’은 비단이라는 뜻이다. 즈벡은 사람으로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즈-즈벡
- 다국어 표기 Қыз-Жібек(카자흐어, 크즈 즈벡), Кыз-Жибек(러시아어, 크즈-즈벡)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문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n.wikipedia.org/wiki/Kyz-Zhibek>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G330 | 크즐라르 아아스

- 시기 A.D. 10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ızlar ağası

크즐라르 아아스(Kızlar ağası, 오스만 튀르키예어: قیزلر اغاسی)는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서 일하던 환관인 ‘여자들의 아아’를 말한다. 크즐라르 아아스의 정식 명칭은 ‘기쁨의 집의 아아’라는 의미의 ‘다뤘사아아데 아아스(Darüssaade Ağası 오스만 튀르키예어: دار السعادة اغاسي)’이다.

이 직책은 1574년 무라드 3세(III. Murad, 재위: 1574년~1595년) 통치 시기에 만들어졌다. 16세기 톱카프 궁전의 상주 인원수가 증가하며 환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직책이다. 최초의 크즐라르 아아스는 하베쉬 메흐메드 아아(Habeşi Mehmed Ağa)였다.

크즐라르 아아스는 흑인이 담당했다. 초기에는 백인 환관과 함께 근무했으나 1592년부터 흑인만이 크즐라르 아아스가 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에티오피아나 누비아 출신의 콥트교도나 유대교 노예 출신이었다. 이들은 거세된 후 궁중으로 팔려와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일정 교육과 개종 후 최하급 직위부터 배치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하렘에서 경비 임무를 담당했다.

이후 이들은 술탄의 개인 비서(müşahip ağaları), 일곱 환관과 그 장(baş ağa), 왈리데와 술탄의 아내들과 황자들의 아아, 하렘의 기도를 주도하는 이맘, 하렘의 보물을 관리하는 하즈네다르 아아스(haznedar ağası) 등 각종 임무를 맡았다.

환관의 임명은 황실의 공식적인 명령서와 술탄으로부터 의복을 받아 행해졌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봉토를 소유했으며, 궁전 내에 개인실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은퇴 후에는 연금을 받았다. 17세기 이후로 이들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은퇴 후 일반적으로 이집트로 추방되었는데, 이들은 노후를 대비하여 이집트에 재산을 구매해두고 와크프(재단)를 설립했다.

크즐라르 아아스는 술탄의 어머니인 발리데와 궁전의 남성 영역을 연결하는 중개자였고, 하렘에서 황자가 궁중학교에 입학하여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교육을 감독하는 일도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렘 소속의 재단을 관리했으며, 지방 총독(주지사)의 통신을 술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술탄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었으며, 하렘과 관련된 물품 구매나 수리

비용, 예산 관리와 같이 회계 업무 처리도 했기에 후기로 갈수록 그 권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황위 계승에 있어서도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환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하여 1715년 실라흐다르 다마트 알리 파샤(Silahdar Damat Ali Paşa, 1667년~1716년)는 흑인 노예와 거세를 금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전사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고, 1731년 카바쿨라크 이브라힘 파샤(Kabakulak İbrahim Paşa, ~1743년)는 당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던 하즈 베쉬르 아아(Hacı Beşir ağa)를 강제 은퇴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해임되고 말았다. 고관들은 지속적으로 크즐라르 아아스의 권력을 축소하려고 노력했다. 술탄 마흐무드 2세(Mahmud II, 재위: 1808년~1839년)의 개혁 정책으로 크즐라르 아아스의 업무는 하렘의 관리와 의식에 국한되었으며 1908년 청년튀르크당의 혁명 이후 크즐라르 아아스 제도는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즈라르 아아스, 다뤘싸아아데 아아스

● 다국어 표기 Kızlar ağas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톱카프 궁전, 하렘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ındağ, Ülkü. “DÂRÛSSAÂD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1~3.

Hathaway, Jane. *The Chief Eunuch of the Ottoman Harem: From African Slave to Power-Broker*,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Ⅰ G331 Ⅰ 크즐바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izilbash

튀르키예어로 크즐바슈(Kızılbaş)라는 단어 자체는 ‘붉은 머리’를 뜻하며, 이는 이들이 붉은 색 보르크(börk: 투르크인 전통 모자)를 썼던 데서 기인한다. 크즐바슈들의 모자는 십이각형의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흰 천으로 감싼다.

이 크즐바슈는 전통 신앙과 정통 이슬람을 결합시키고 일부 신비주의와 시아파 신앙까지 혼합된 이슬람교 분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이란 사파비 조나 시아파 무슬림을 뜻하기도 한다. 종단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여서 크즐바슈를 적대하는 세력은 멸칭(蔑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사파비와 적대 관계가 종종 형성되었던 오스만 제국에서는 멸칭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후에 이 종단의 이름은 알레비(Alevi: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라는 중립적인 단어로 부르게 된다.

크즐바슈라는 용어는 15세기부터 사용되었지만, 크즐바슈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로 보고 있다. 투르크인들은 641년 니하반드 전쟁 말기에 이란을 정복하던 이슬람 세력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10세기경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투르크인 중 천신 신앙과 같은 유일신 성격이 강한 전통 종교관과 이슬람의 유사점을 발견하여 재빨리 이슬람을 받아들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투르크멘으로 지칭되는 유목-반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인은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였다. 이들 투르크멘은 아나톨리아반도로 이주하게 되고 기존의 유목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1240년 투르크멘들은 바바 일리아스 호라사니(Baba İlyas Horasânî, 13세기)가 주도하는 봉기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전통 투르크 신앙을 통해 이슬람을 해석하는 신비주의 이슬람을 가르치던 바바 일리아스 호라사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던 투르크멘에게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봉기를 주도했다. 이 봉기는 일부분 성공했으나 바바 일리아스를 비롯하여 많은 투르크멘이 사형을 당했다. 이때 이 가르침을 기초로 벡타슈와 크즐바슈가 발전하게 된다.

정치적 운동에 실패한 이들은 종교적 운동으로서 믿음을 지속해나간다. 이들 중 일부가 셰이흐 사피이웃딘 에르테비(Şeyh Safiyyüddîn-i Erdebî, 또는 사피앗딘 아르다빌리 Safî-ad-din Ardabili, 1242년~1334년)가 설립한 ‘사파비’ 종단을 따르기 시작했다. 아나톨리아반도의 공국들과 몽골 제국에 신자들이 있었다. 셰이흐 쥐네이드(Şeyh Cüneyd, 또는 셰이크 주나이드 Shaykh Junayd, 1447년~1460년)는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쥐네이드는 시아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전적인 시아파와는 달리 움직였다. 쥐네이드를 비롯한 사파비 종단의 선교사들은 투르크멘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자극하며 결속시켰다. 쥐네이드 사망 후 그 추종자들은 쥐네이드의 자손을 중심으로 캅카스 부족들과 전쟁을 치르며 영역을 넓혀나갔다.

당시 오스만 조의 술탄 바이에지드 2세(II. Bayezid, 재위: 1481년~1512년)가 정복 전쟁으

로 이들의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사이에, 사파비 종단의 이스마일(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은 ‘사파비 왕조’를 개국하기에 이른다. 아나톨리아반도에 남아 있던 이스마일의 지지자들은 선전 활동을 하고 봉기를 일으켜 오스만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된다. 사파비 왕조 개국 이후 타흐마스프 1세(Tahmasp I, 재위: 1524년~1576년)와 이스마일 2세(Ismail II, 1576년~1577년)는 크즐바슈의 신학적 견해 차이와 시아파 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십이이맘파를 택하게 된다. 이스마일은 이란으로 갔지만, 그 추종자들은 아나톨리아반도, 아제르바이잔, 발칸반도 등에 남아 그 믿음을 이어갔다. 이들은 16세기~17세기에 걸쳐 계속 봉기를 일으켰다. 다른 종교 집단의 반란과 달리 크즐바슈는 사파비나 사파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스만 중심부를 향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반란 지도자들은 각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봉기는 종단적인 봉기라기보다는 사회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오스만과 사파비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봉기가 성공하지 못했던 17세기부터 19세기, 이후 공화국 시대까지 이들은 사회 정치적인 운동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이후 오스만 제국 붕괴와 함께 시작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의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곧 진압되었고, 대체로 튀르키예 공화국의 세속주의를 환영했다. 이후 크즐바슈라는 명칭 대신에 알레비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이 집단은 1961년 조직화 과정을 거쳐 1980년대 이후 커다란 집단으로 성장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즐바슈의 신앙은 초기 단계에서 기존 종교적 신념과 이해와 이슬람을 섞었던 이른바 ‘민속 이슬람’의 형태였다. 여기서 후대 신학자들의 해석이 담긴 종단들이 파생되기도 했다. 이슬람의 근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신비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천신 사상, 자연 숭배, 조상 숭배, 샤머니즘과 같은 투르크 전통 신앙, 불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의 모티브들이 결합된 모습을 취했다. 그럼에도 이들 종단의 데르비쉬 활동은 아나톨리아반도의 이슬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15세기 이후에는 후루피즘(Hurufism)의 영향으로 카발리즘, 기독교 신플라톤주의가 첨가되기도 했으나 깊은 수준은 아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질바쉬, 크즐바쉬
- 다국어 표기 Qızılbaş(아제르바이잔어), Kızılbaş(튀르키예어), Qizilboshiilar(우즈베크어), Қызылбаст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알레비, 사파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Üzüm, İlyas. “KIZILBAŞ”,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5, Ankara: TDV, 2002, pp.546~557.
- Dalkeseni, Nilgün. “Alevi Kızılbaş Kimliğinin Oluşumunun Tarihsel Arka Planına Bir Bakış”, *Alevilik Araştırmaları Dergisi (Journal Of Alevi Studies)* cilt 3, 2012, pp.241~256.

I G332 I 클-쿠비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yl-kubyz

클-쿠비즈(Kyl-kubyz)는 바시키르 민족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뜯는 현악기이다. 장방형 바가지 형태의 속을 파낸 나무통에 줄 조이개가 달린 목을 연결하여 클-쿠비즈를 만든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울림판은 반쯤 개봉되어 있고, 현의 재료는 꼬지 않은 말 털이다. 음역대는 2.5옥타브이며 줄 조이개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쿠비즈로 나뉜다.

학자들에 따르면 5세기~8세기의 클-쿠비즈는 바흐쉬(샤먼)들이 굿을 할 때 귀신을 쫓거나 의례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자 코르크투는 클-쿠비즈의 발명자이자 최초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고대에는 일반인이 클-쿠비즈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고 한다. 이슬람 수용과 함께 클-쿠비즈는 점차 사라졌다. 이 악기는 바시키르 서사시 「자야톨라크와 히우힐루」에서도 언급되었다.

1990년대 초 국가 장인 갈리모프(Р.М. Галимов)가 클-쿠비즈를 복원했고, 미르하이दार프(И.М. Мирхайдаров)와 슈가유포프(В.Ш. Шугаюпов)가 보완하여 완성했다. 1994년 처음으로 클-쿠비즈 교습이 시작되었고, 우파 예술 아카데미에서 전문가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2006년 클-쿠비즈 연주는 바시키르 쿠라이 경연에 포함되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클-쿠비즈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클 쿠브즈, 클 코비즈
- 다국어 표기 Кубыз(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현자 코르쿠트, 바흐쉬
- 멀티미디어 링크 클-쿠비즈 <https://www.youtube.com/watch?v=HxyAEVoQSEk>
- 참고문헌(온라인) 악기 클-쿠비즈: <http://bashenc.online/ru/articles/87428/>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гушев А.М. Традиционные башкирские народ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Уфа, 1997.

I G333 I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자치 공화국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irgiz ASSR

러시아 혁명 직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치적 대변혁이 발생했다. 1920년 8월 26일 오렌부르크를 수도로 한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이 출범했는데 이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영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때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은 ‘카라-키르기스(검은 키르기스)’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의 정확한 명칭은 ‘키르기스 자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RSFSR)’의 하부 조직이다.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인들을 키르기스인이라고 불렀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 공화국 명칭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 명칭은 1925년 7월 24일 ‘카자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즉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은 카자흐 자치 공화국으로 변경되었고, 카라-키르기스 자치주(자치 공화국)는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카자흐 명칭은 15세기 후반 카자흐 칸국의 명칭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그 결과 카자크(코사크)들과 발음이 매우 유사하게 되었다.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의 수도는 1925년 7월에 오렌부르크에서 크질오르다로 이전되었고 이어서 1927년에 다시 알마티(알마아타)로 이전되었다. 1936년 12월 5일 카자흐 자치 공화국은 카자흐 공화국으로 승격되었다.

- 다국어 표기 Кыргыз АССР(카자흐어), Киргиз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Сове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소련,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VXw8TUIEb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391880>

● 참고문헌(오프라인) Жамбыл Омарович Артыкбаев,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во, 2006.

I G334 | 키르기스스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내륙국으로 1864년 제정 러시아에 의해 정복되었다. 러시아 혁명 후 소비에트 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고 1926년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 1936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을 거쳐 1991년에 독립했다. 정식 명칭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yrgyzstan)이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인(人)의 나라'라는 뜻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북쪽으로 카자흐스탄, 서남쪽으로 타지키스탄,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 동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다. 산과 하천에 의한 지형의 변화가 많은 산악국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소련의 통치 편의에 따라 국경선이 구획되어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내 같은 민족이 거주함으로 인하여 영토·민족 분쟁을 겪게 되었다. 행정 구역은 7개 주(oblasty)와 1개 시(shaar)로 이루어져 있다.

1936년 지금의 공화국이 되었으며 1991년 8월 독립을 선언하고 12월 CIS(독립 국가 연합)에 가입했다. 2005년까지는 혁명과 내전으로 정국불안이 이어졌다.

텐산 산맥과 파미르 아라이 산맥에 있는 산악 지역의 국가로 기후는 매우 건조하다. 주민은 키르기스인이 48%, 러시아인이 26%, 우즈베크인이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이슬람이며 의무 교육은 9년이다. 산지의 목초지가 넓기 때문에 양의 이목(移牧)을 행하고 있다. 귀리, 밀, 사탕무, 담배, 과수 재배 등의 농업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은, 안티몬, 망간, 제분업, 제당업 등의 공업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나린 부근의 전경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공화국 중에 최빈국이다. 특이한 점은 2010년 12월에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는 데에 성공하여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체제의 국가라는 것이다. 2017년 11월에 의원 내각제에서 의원 집정부제로 사실상 개헌을 했다. 한국과는 구소련 해체와 한-소 수교 이후인 1992년에 수교했으며, 1993년 대전 세계 박람회에 CIS공동관 국가로 참여한 적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르기스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 다국어 표기 Kyrgyzstan(영어), Кыргызстан(키르기스어), Киргиз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o.wikipedia.org/wiki/%ED%82%A4%EB%A5%B4%EA%B8%B0%EC%8A%A4%EC%8A%A4%ED%83%84>

<https://en.wikipedia.org/wiki/Kyrgyzstan>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키르기스스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1670&cid=40942&categoryId=34066>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Jacob M. Landau and Barbara Kellner-Heinkele,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zerbaijan,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Turkmenistan and Tajikista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Kyrgyzstan: Traditions of Nomads by V. Kadyrov, Rarity Ltd., Bishkek, 2005.

I G335 | 키르기스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yrgyz Language

키르기스어는 투르크어 분류 체계 중 북서 투르크어(킵차크어)에 속하는 투르크어이다. 키르기스어는 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되며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지에서 약 450만 명에 의해 사용된다.

키르기스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타언어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발전되었다. 유목 민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키르기스어의 형성은 고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 키르기스어(~9세기/10세기)는 예니세이 비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기 키르기스어(9세기/10세기~15세기/16세기)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대 키르기스어와 예니세이 비문에서 발견되는 언어 사이에는 약 천오백 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유사점이 상당하다. 비문에서 사용되었던 동사, 대명사, 명사, 숫자, 형용사 등은 현대 키르기스어에서 거의 보존되어 사용된다.

중기 키르기스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관련 언어들과 방언들로 그 변화를 유추해 볼 때, 키르기스 칸국이 10세기에 멸망한 이후 초기 키르기스어를 기초로 한 음성학적 변화는 지속되었다.

현대 키르기스어는 16세기 이후의 시기로 분류되며, 몽골-중가르 시기(16세기~18세기), 18세기 이후 소련의 통치 이전, 소련의 통치 시기로 세부적 분류가 가능하다.

소련의 통치 이전 시기까지 키르기스인들은 오랜 세월 뚜렷한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유목 민족의 특성으로 인해 키르기스 방언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키르기스 부족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통합된다. 소련의 언어 정책으로 인해, 개별 부족의 방언을 민족 언어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키르기스어는 1989년 9월 23일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식 국어로 지정된다. 하지만 소련의 통치를 받을 당시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행정 및 과학 용어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러시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키르기스 국민들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르기즈어

● 다국어 표기 Кыргыз тили(키르기스어), Kirgizca(튀르키예어), 柯尔克孜语(중국어), Киргиз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어 분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Юнусалиев, Б. М., Кыргыз тили жана анын диалектилери. Тандалган эмгектер, б. 64~94. Фрунзе: Илим, 1985.

I G336 | 키르기스-킵차크어파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어파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yrgyz-Kipchak language

키르기스-킵차크어파는 투르크어 대(大)킵차크어족(крупная кыпчакская группа)의 한 분파로서, 시베리아 투르크어파나 북동투르크어파로 불리기도 한다. 위구르어파, 야쿠트어파, 하카스어파, 키르기스-킵차크어파를 포괄한다. 현대의 시베리아 남부, 우랄 산맥 주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알타이 공화국 등을 기반으로 한다.

키르기스 킵차크어는 중세 오르콘 비문의 돌궐어에서 유래하며 현대에는 투바어(тувинский язык), 야쿠트어(якутский язык), 하카스어(хакасский язык), 쇼르어(шорский язык), 키르기스어(киргизский язык), 알타이어(алтайский язык), 텔레우트어(телеутский язык), 텔렝기트어(теленгитский язык) 등으로 발전했다.

키르기스 킵차크어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단계: 8세기~9세기, 공동 동킵차크어(이르티시 강 유역, 중가르 왕국, 알타이 공화국까지)
- 2단계: 고대 남알타이어의 분화(11세기)
- 3단계: 페르간 킵차크어에서 분화
- 4단계: 키르기스어의 동킵차크 방언에서 형성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르기스-킵차크어파
- 다국어 표기 Киргизско-кыпчакские языки(러시아어), لغات ترك سيبيريا(아랍어), Sibiryä Türk dil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위구르어, 야쿠트어, 하카스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바어, 야쿠트어, 하카스어, 쇼르어, 키르기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Н. А. БаскаковК вопросу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тюркских языков//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 Т. XI. Вып. 2. - М., 1952. - С. 121-134.

Ⅰ G337 Ⅰ 키르베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관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irve

키르베는 주로 아나톨리아 동부 및 동남부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으로서 할례를 위한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할례 중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을 이른다. 키르베(kirve)의 어원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페르시아어를 어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튀르키예 거주 투르크멘인들은 사

으드츠(sağdıç: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서부 에게 지역의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쉰네트 바바스(sünnet babası: 할례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키르베는 할례를 치를 아이의 할아버지나 삼촌, 외삼촌과 같이 친척 관계의 성인 남성이 될 수도 있으나 비혈연인 자가 될 수도 있다. 키르베는 할례를 치르는 동안 아이의 팔을 손으로 잡고 다리로 아이의 다리를 잡는 일을 한다. 동시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이의 보호자와 의논하여 할례 연회의 비용을 보태고 연회에 참석한 손님과 친인척과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 이후 아이의 가족이 아이의 교육비 등을 낼 수 없을 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아이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상담자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 키르베가 되길 요청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 또는 보호자, 할례 담당자 중 하나이다. 이것은 지역 전통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키르베는 상대방 가정과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 성립된다. 우선 아동의 보호자들은 키르베 후보자에 대하여 소문을 알아본 후, 소문이 나쁘지 않으면 그 가정을 방문하여 키르베 역을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 시, 키르베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가져간다. 키르베가 되면, 아이에게 할례 전 옷을 선물하고,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간다. 또한, 할례 전에 키르베는 아이의 가족을 위하여 의복을 사고, 그 가정에 기름, 쌀, 설탕과 같은 식료품을 가져가야만 한다. 할례 당일에는 말이나 차에 아이를 태워 마을을 돌게 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례 장소까지 데려다준다. 할례가 끝난 후 아이와 아이의 가족은 선물을 가지고 키르베를 방문한다. 할례 이후, 아이의 아버지 또는 보호자는 키르베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키르베에게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명예가 된다.

키르베와 할례를 치르는 아동 및 그 가족과는 가상의 혈연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가상의 혈연은, 할례 중 키르베의 옷에 아동의 피가 묻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번 키르베가 되면, 이것은 취소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키르베의 가정과 아동의 가정 사이에서는 혼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족이나 가정 간에 살인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혼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키르베 관계를 맺기도 한다.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는 키르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지역에서 할례 중 아이를 붙잡는 역할을 친척이나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담당하지만, 키르베와 같은 사회 경제적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우드치, 쉰네트 바바스

● 다국어 표기 Kirv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Nutku, Özdemir. “Kirv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6, İstanbul: TDV, 2002, pp.68~69.

Örnek, Sedat Veyis. *Türk halkbilimi*,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2000.

I G338 | 키르크 키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yrk Kyz

키르크 키즈는 중앙아시아 튀르크 민족 신화에 나오는 신실한 이슬람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과 관련된 성스러운 지명을 뜻하기도 한다. 키르크는 40명, 키즈는 처녀를 뜻해, 키르크 키즈는 ‘40명의 처녀’라는 의미이다. 이교도들이 뒤쫓아 올 때 알라신이 이들이 기원한 대로 돌로 변하게 해(일부 경전에는 절벽에 숨겼다는 내용도 있음) 이들을 구했다고 한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을 키르크 키즈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도 같은 이름의 지명이 여러 곳 있다.

카라칼파크 신화에서 키르크 키즈는 동명의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40여 명의 처녀-무사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굴라임(Гулаим, Гулайым)이 이끄는 이들은 함께 섬에 살고 있었는데, 칼미키의 칸 수르타이시(Суртайши)의 침입을 물리치고 카라칼파크 사람들을 구한다.

제라브샨스크 계곡의 우즈베크 신화에서 키르크 키즈는 특별한 종류의 정령으로 샤먼의 조력자이자 샤먼의 주신 파리(пари)의 수하로 등장하고, 때로는 칠탄(чильтан: 페르시아어원으로 40명이란 뜻) 정령과 동일시된다.

키르크 키즈의 형상은 타지크-페르시아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 타지크 신화에서 40명의 처녀(칠두흐타론 чильдухтарон)가 이슬람 성인이나 샤먼을 돕는 정령으로 등장한다. 이슬람 수용 이전에 키르크 키즈는 중앙아시아, 이란계 민족들에게 선한 수호 정령으로 인식되었으며



고대의 키르크 키즈 요새(카라칼파크스탄)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는 이슬람 성인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키르크 키즈에 대한 고대의 원형은 카라칼파크 서사시나 키르기스의 기원 설화에 나타난다. 키르기는 키르크 키즈를 자신들의 선조로 여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르크 크즈

● 다국어 표기 Кырк кыз(러시아어), kirk ki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рабанбай Тажибаев, Сорок девушек: Каракалпакская народная поэ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М., 1956.

Абрамзон, Киргизы и их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Фрунзе, 1990.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2, М., 32.

I G339 | 키메섹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imeshek

키메섹은 얼굴만 내놓은 상태로 머리 전체를 휘감고 있는 일종의 큰 후드로서 자식이 있는 카자흐 여성들이 착용한다. 모양새는 얼굴을 제외한 머리 전체와 어깨, 가슴, 등쪽까지 덮고 있는 형태이다. 키메섹은 얼굴이 드러난 주변부에 화려한 장식을 하기도 하고 특정한 씨족이나 부족의 문양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런 키메섹을 한 여성을 보면 우선 혼인 여성임을 알 수 있고, 또 자식이 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도 가늠할 수 있다. 키메섹은 하얀 천으로 만들어 나이에 따라 장식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대개 황금빛 실로 장식되어 있다.



키메섹을 착용한 카자흐스탄 여성들

전통 카자흐 여성들은 잔치나 순례 및 공식 행사에 반드시 키메섹을 착용하는데 이는 이슬람 여성의 히잡을 연상시킨다. 이슬람 히잡의 카자흐인 스타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 종교를 수용하면 여성들은 히잡을 하게 되는데 카자흐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은 나이가 많고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키메섹의 형태로 나타났다.

키메섹의 옷감 색은 반드시 흰색이었는데 이는 청결함, 순수함의 상징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현재 키메섹 착용은 카자흐인, 카라칼팍인, 키르기스인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메섹, 킴메섹
- 다국어 표기 Кимешек(카자흐어), элечек(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전통 의상, 사우켈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1Qplxj5hT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visitaktobe.kz/en/putevoditel/tradiczii/naczionalnoe-kostyumyi/kimeshek>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Baur Publishing, 2006.

I G340 | 키스티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Qistibi

키스티비는 타타르스탄과 바시키르 공화국, 우드무르트의 대중적인 전통 음식이다. 키스티비의 어원은 ‘누르다’라는 의미의 바시키르어 ‘키스티(кысты)’, 타타르어의 ‘키스티루(кыстыру)’로 알려져 있다. 키스티비는 여러 소가 들어간 납작하게 구운 빵이다. 반죽은 발효를 하지는 않는다. 전처럼 구운 비발효 빵 위에 소를 얹고 반원형으로 접는다. 으깬 감자, 기장 쌀 죽, 고기소를 곁들인 키스티비가 가장 인기가 있다. 외관은 얇은 핫케익이나 소첸을 연상시

킨다. 표면에 녹은 버터를 바를 수도 있으며 소는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비발효 반죽은 변하지 않는 키스티비 고유의 특징이다. 소를 변경하면 키스티비는 금식기에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 된다.



키스티비

키스티비는 정주화된 러시아 투르크 민족의 음식 문화 형성을 잘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하다. 비발효 반죽은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의 불라니 같은 음식의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소의 적용은 러시아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키스티비는 유목 민족의 전통 음식 형태였으나 버섯, 꿀, 곡물 소의 사용은 정주 문화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스트비이, 크스트바
- 다국어 표기 кыстыбый(러시아어), кыҫтыба(바시키르어), кыстыбий(타타르어), qıstıby(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시코르토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Ny-N27p6_0
- 참고문헌(온라인)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5501-kystybyj>
키스티비의 역사
<https://girls.ru-land.com/stati/kystybyy-kystybyy-eto-nacionalnoe-tatarskoe-blyudo-i-kazhdaya-tatarochka-znaet-kak-ego>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венская, О. Кухни народов мира. Татарская кухня, М.:Директ-медиа, 2011.
Мингазова, Р. Кулинарные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тата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молодежный взгляд в будущее, Курск, 2018.

I G341 | 키질 석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Kizil

키질(克孜爾, Kizil) 석굴의 ‘克孜爾’는 위구르어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붉다’는 의미이다. 키질 석굴은 서역 최대의 규모라고 불리는 석굴 사원으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거리에 바이청 현성(拜城縣城)이 있으며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거리에 쿠차현(庫車縣)이 있다.

키질 석굴 일대에는 무자르트강 북쪽 밍오이타크산(明屋達格山)의 동서 2km에 이르는 절벽에 200개가 넘는 굴이 현존하고 있다. 석굴은 협곡에 의해서 곡서구(谷西區), 곡내구(谷內區), 곡동구(谷東區), 후산구(後山區)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곡서구에는 1굴~80굴 그리고 1973년에 발견된 신1굴이 있고, 곡내구에 81굴~135굴이 있다. 또한 곡동구에 136굴~200굴이 개착되었으며, 후산구에 201굴~235굴이 분포하고 있어 총 236개의 석굴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키질 석굴의 편호는 236굴까지 되어 있지만, 석굴과 벽화의 상태가 양호한 굴은 70여 개의 굴에 불과하다.

키질 석굴은 일반적으로 양진(兩晉, 3세기 중엽~5세기 초) 시기에 개착하기 시작하여 남북조(南北朝, 5세기 초~6세기 말) 시기에 번성기를 맞았고, 당대(唐代, 618년~907년)는 만기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키질 석굴을 초창기(3세기 말~4세기 중엽), 발전기(4세기 중엽~5세기 말), 번성기(6세기~7세기), 쇠락기(8세기~9세기 중엽)의 네 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키질 석굴 벽화의 편년과 양식 연구는 독일 탐험대의 그뤼네베델(Grünwedel, Albert)과 르콕(Le Coq, Albert vo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뤼네베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벽화를 간다라 양식, 인도-스키타이 양식, 조기 투르크 양식, 만기 투르크 양식, 페르시아 양식의 5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키질 석굴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스키타이 양식만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4세기 중기에서 8세기 중기까지를 키질 석굴의 존립 시기로 보았다. 르콕은 그뤼네베델과 마찬가지로 키질 석굴의 벽화에서 간다라와 인도-이란의 영향이 엿보이는 것을 시대 구분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석굴에서 발견된 투르크스탄-브라흐미 문자의 서체와 사본들을 참고로 하여 서기 600년을 전후로 제1양식과 제2양식으로 구분했다.



키질 석굴

이어서 발트슈미트는 독일 베를린의 인도 박물관 소장 키질 석굴 벽화편과 브라흐미 서체를 집중 분석하여 벽화의 양식을 세 시기로 분류했다. 즉 제1양식은 제1기 인도-이란 양식, 제2양식은 제2기 인도-이란 양식, 제3양식은 당대 불교 미술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국 양식으로 구분했다. 즉 제1양식은 인도풍의 사실성을 추구하여 난색계(暖色系) 채색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서 제2양식은 여래 및 보살에 페르시아풍의 장신구가 묘사되며, 채색에서는 한색계(寒色系)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제3양식은 둔황(敦煌) 당대(唐代) 벽화와 표현 기법 및 벽화의 주제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중국양식이다. 발트슈미트는 다시 위의 양식을 벽면에 남아 있는 브라흐미 문자의 서체를 근거로 하여 시기를 세분화했다. 즉 제1양식은 500년 전후, 제2양식은 600년 이후, 제3양식은 700년경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현존하는 예가 많은 제2양식을 600년경, 600년~650년경, 650년~700년까지로 세분했다.

키질 석굴의 구조는 중심 주굴(中心柱窟, Chaitya), 대상굴(大像窟), 방형굴(方形窟), 승방굴

(僧房窟, Vihara)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면이 방형이며 궁륭형 천장인 중심 주굴은 중심 주에 의해 주실(主室)과 후실(後室)로 구분되며, 7, 8, 17, 38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또한 대상굴은 중심 주굴의 일종으로 중심주 앞 정면 벽에 소조의 큰 입상이 안치되는 47, 157굴이다. 그리고 방형굴은 승려들이 불경을 강독하는 곳이었으며, 승방굴은 승려들의 개인 생활 공간이다. 승방굴을 제외한 중심 주굴, 대상굴, 방형굴은 예배용 굴로서 벽화가 장엄(莊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벽화가 가장 많이 있는 굴이 중심 주굴이다.

이 중심 주굴의 천장은 마름모형(菱形)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수의 본생도가 그려졌고, 주실의 벽면에 불전도가 묘사됐다. 그리고 후실에는 열반도(涅槃圖)와 분사리도(分舍利圖)가 그려지며 전실의 입구 위쪽에 <도솔천미륵설법도>가 위치해 있다.

키질 석굴 벽화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쿠차 지역의 불교 성격을 반영하듯이 발전기(4세기 중엽~5세기 말)에는 본생고사, 인연고사, 불전고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번성기와 쇠락기에는 천불도(千佛圖)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이 시기 쿠차의 불교가 서서히 대승 불교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 다국어 표기 克孜爾(중국어), قەزىل مىڭ ئۆي(위구르어), Kızıl Mağaraları(튀르키예어), Қызыл үңгірлері(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bert Grü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in Chinesisch-Turkistan*, Berlin, 1912.
 上海人民美術出版社, 『克孜爾石窟志』, 上海人民美術出版社出版發行, 1993.
 北京大學考古學系·克孜爾千佛洞文物保管所編著, 『新疆克孜爾石窟考古報告』第1卷, 文物出版社, 1997.

I G342 I 키타브 알 디르야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itab al-diryaq

‘해독제의 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키타브 알 디르야크(Kitab al-Diryaq)』는 그리스 고대 후기 작가인 갈렌(Johannes Grammatikos/Galen)이 쓴 책을 아랍어로 번역한 책이라 믿어 왔

다. 그러나 그리스 문헌 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책은 갈렌의 책이 아니며, 10세기 익명의 아랍 작가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글을 편집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테리악이라고 하는 고대의 의약물을 설명하고 필요 약초와 수집 방법, 치료법, 그리스의 해독 전문가와 의사 9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까지 6개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 도서관 판본[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rabe2964]과 비엔나 국립 도서관 판본[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A.F. 10]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이 중 프랑스 국립 도서관 판본은 장기 왕조의 누렛딘 아르슬란 샤 1세(Nur al-Din Arslan Shah I, 재위: 1193년~1210년)의 명으로 1199년 1월에 무술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밀 화가는 무함마드 아빌 파스(Muhammad ibn Abi l-Fath)이다. 프랑스 판본은 총 7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밀화가 있는 페이지는 36페이지, 그중 인물이 그려진 것은 11페이지, 약초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12페이지, 그리고 독사를 묘사한 표가 있다.

비엔나 국립 도서관 판본에는 구체적인 제작 일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3세기 초기 또는 13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엔나 판본은 표지 삽화, 10페이지의 세밀화가 함께 있는 텍스트 페이지, 뱀과 독사를 묘사한 표가 있는 3페이지 등을 포함하여 총 30페이지가 보존되고 있다.

두 판본의 세밀화는 구성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판본이 우주와 약초, 의료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비엔나 판본은 권력자의 묘사가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세밀화는 12세기~13세기 대 셀주크 조와 중앙아시아 미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둥그런 얼굴과 찢어진 눈과 같은 인물 묘사는 투르크 세밀화 전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인물이 땅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압바스 시대에 투르크족이 전래시킨 이래로 다양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아랍어로 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랍 세밀화 역사의 맥락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셀주크 조의 영향력 아래에 작성되었던 작품으로 투르크 세밀화 역사에 있어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해독제의 서, 치료의 책, 해독제의 책

● 다국어 표기 Kitab Al-Tiryak(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642359/1528064/restricted>

● 참고문헌(오프라인) Pancaroğlu, Oya. “Socializing Medicine: Illustrations of the Kitāb al-diryāq”, *Muqmas*, Vol.18. 2001, pp.155~172.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14.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Kerner, Jaclyne J. “Art in the Name of Science: The Kitāb al-Diryāq in Text and Image”, *Arab Painting: Text and Image in Illustrated Arabic Manuscripts* (ed: Anna Contadini), Leiden ; Boston : Brill, 2007, pp.25-40.

I G343 I 키탕 무카디메 에부 레이스 에스 사마르칸디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tab Mukadime Ebu Lays es-Samarkandi

『키탕 무카디메 에부 레이스 에스 사마르칸디』는 10세기 아랍어로 쓰였으며 15세기경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로 번역된 종교 서적이다. 번역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16세기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인 아산베이 이반 수둔(Asanbay Ibn Sudun)에 의해 맘루크 술탄 칸수 가브리(Kansu Gavri)에게 헌정되었다. 저자는 아부 레이스(Ebu Lays Nasr b. Muhammed b. Ahmet b. İbrahim es-Semer kand)로, 하나피(Hanafi) 분파의 위대한 피크흐 학자 중 한 명이다.

이 작품은 하나피 분파의 창시자인 이مام 아잠 아부 하니파(Imam-I Azam Abu Hanifa)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논평으로 알 피크흐 알 아크바르(al-Fiqh al-Akba)라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무카디메라는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Şerhü'l Fıkhü'l-Ekber』라고 불리는 에스 사마르칸디의 5권짜리 작품의 서론 부분이다.

하나피파의 샤리아법을 다룬 이 작품은 이슬람교의 5계율 중 하나인 기도하는 법과 기도의 조건 중 하나인 우두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리서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존하는 필사본이 약 30개 이상이다.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로 번역된 번역본의 경우 현재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박물관 도서관에 1451번으로 등록되어 보관 중이다. 아야소피아 사본의 경우 47장(97페이지)으로 각 페이지당 6개의 아랍어 행, 그 아래에는 번

역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명한 폴란드 투르크학자 아나니아즈(Ananiasz Zayaczkowski)가 1959년에 텍스트와 사진, 1962년에 팩시밀리 판을 출판했다. 또한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DK)은 1992년 이 서적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키탃 무카디메 에부 레이스 에스 사마르칸디』는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번역서이기 때문에, 맘루크 킷차크 투르크어 연구에서 중요한 서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킷타 무카디메 아부 레이스 에스 사마르칸디
- 다국어 표기 Kitab Mukadime Ebu Lays es-Samarkand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İNLER, F., EBU'L-LEYS ES-SEMERKANDI'NİN (V. 373/983) MUKADDİMETÜ'S-SALAT İSİMLİ ESERİNİN TAHKİKİ NEŞRİ. Journal of Islamic Law Studies, (28), 2016.
Dinler, F. *Ebu'l-Lays Es-Semerkandi ve Mukaddimetüs's-salat isimli eserinin tahkiki* (Master's thesis, Sakarya Üniversitesi), 2006.

I G344 I 키프로스 문제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Cyprus Problem

키프로스 문제는 통상적으로 키프로스 분쟁을 의미하는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에서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전체 주민의 78%)과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전체 주민의 18%) 간의 무력 충돌 결과 발생한 분쟁을 지칭한다.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의 성립으로 82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는 종식되었지만 독립 후 헌법 시행을 둘러싼 그리스계 주민과 튀르키예계의 주민의 대립으로 독립 초부터 여러 문제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키프로스는 1964년 제1차 키프로스 사태, 1967년 제2차 키프로스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사태는 유엔 및 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수습되었지만, 1974년 발생한 제3차 사태로 키프로스는 분단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키프로스 키레니아 베이 전경

1974년 튀르키예의 대 키프로스 침공으로 인한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키프로스 내의 그리스계, 튀르키예계 주민과 이들 배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와 튀르키예 정부의 견해 차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2003년 2월 26일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이 남북 키프로스과 보장 국가단(그리스, 튀르키예, 영국)에 제출한 키프로스의 포괄적 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한 기초(Basis for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Cyprus Problem)라는 제목의 통일 방안은 역대안 중에 가장 건설적인 통일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난 플랜(Annan Plan)’이라고 알려진 이 협상안을 남 키프로스 측이 부결함으로써 양측 협상은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북 키프로스: 64.9% 찬성, 남 키프로스: 75.83% 반대) 통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2010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남 키프로스의 크

리스트피아스 대통령과 북 키프로스의 데르비스 에르오을루(Dervis Eroğlu)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키프로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계 및 튀르키예계 주민들이 상호 일정 부분 정치적 양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입장에서 옳다고 주장해 온 원칙을 버리고 양보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그리스계 주민들의 57%가 키프로스 문제의 해결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튀르키예계 70%도 이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프로스 분쟁

● 다국어 표기 Kibris Meselesi(튀르키예어), Cyprus Problem(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 참고문헌(온라인) UN Resolutions on Cyprus

<https://web.archive.org/web/20070605191416/http://www.un.int/cyprus/resolut.htm>

Cyprus and Turkey's EU Process A Summary of the Problem from Turkish Perspective

<https://web.archive.org/web/20060703030055/http://www.turkishweekly.net/editorial.php?id=31>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키프로스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 2008.

Dodd, Clement, *The History and Politics of the Cyprus Conflict*. Palgrave Macmillan, 2010.

Michael, Michalis S., *Resolving the Cyprus Conflict: Negotiating History*. Palgrave Macmillan, 2009.

I G345 | 킵차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pchak

킵차크는 비잔틴 자료에 의하면 코만(Koman) 또는 쿠만(Kuman), 이슬람 자료에 의해서는 키프약(Kipyak) 또는 키프착(Kifchak)으로 불리며, 그들이 살았던 거대한 초원 지역은 데쉬트 킵차크(Desht-i Kipchak)라 불린다. ‘킵차크’라는 명칭은 문헌에서 간혹 명사, 형용사 및 민속

어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어의 기원 및 어원에 대한 정보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 동쪽의 킵차크와 서쪽의 쿠만으로 알려진 이 두 투르크 부족은 러시아 출처에 따르면 포로베트츠(Polovets/Половецкие)라는 용어로 표기된다. 킵차크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13세기 후반에 기록된 킵차크어와 라틴어로 제작된 사전인 『쿠만의 서(Codex Cumanicus)』가 있다. 그 외에도 알튼 오루드, 이집트 및 시리아에서 편찬된 킵차크 투르크어 문헌, 크림반도에서의 에르메니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아르메니아 투르크어로 작성된 문헌들이 남아 있다.

역사서 속의 쿠만인은 8세기 서돌궐 제국의 서쪽 지역 영토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쪽에 거주하던 킵차크인은 서돌궐 제국의 부족들 중 ‘키멕(kimek)’과 같은 파에 속하며, 발카쉬 호수에서부터 이르티쉬 강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910년 중국 북부에서 키탄족의 세력 강화로 인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투르크인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11세기 초 킵차크는 야익 강 북부쪽 이딜 강부터 우랄 산맥을 넘어 카마 이딜 지역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며 그곳에서 이딜 불가르인들과 섞이게 된다. 이딜 불가르 지역 남부에 살던 이딜인들은 11세기에 킵차크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다른 킵차크들은 남부로 이동하여 하자르인들을 제거하고, 페체네크과 우즈의 거주지를 점령했으며, 북 캅카스와 돈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디네예프르(Dnyepyr) 지역으로 이동했다. 1060년 이후, 킵차크는 다뉴브를 따라 트란실바니아-헝가리(Transilvania-Hungary)로 진격한다. 1087년 비잔티움과의 불화를 겪던 페체넬의 사령관 타투쉬는, 다뉴브 동쪽에 있던 킵차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뉴브 해안의 풍부한 자원들을 포기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했던 킵차크는 페체넬의 도움을 거절하게 된다. 그로 인해 페체넬과 킵차크 둘 사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한편 비잔티움은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역이용해, 페체넬과 킵차크 둘 사이를 자극했고 그 결과 페체넬과 킵차크는 앙숙이 된다. 1090년에서 1110년은 킵차크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다. 1091년 킵차크는 비잔티움을 오랜 세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페체넬들로부터 구해냈으며, 동시에 킵차크 대초원 북쪽에 위치한 키예프 공국에 절대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 쿠만족 일부는 1130년 헝가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헝가리 왕들에 의해 여러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키예프 공국은 1184년 킵차크 한국으로의 대 원정을 계획하고, 그로 인해 킵차크는 전쟁에서 참패를 겪는다. 1185년 승리에 고무된 이고르(Novgorod-Seversk Knezi Ígor)는 또다시 킵차크에 대항하는 전투를 계획하지만, 루시(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킵차크는 콘차크(Konçak)의 지휘 아래 대초원에서 사력을 다해 싸워 결국 이고르를 붙잡는다. 이고르는 포로로 수용되어 있던 도중, 탈주를 하게 되고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 일화는 고르의 전설/이고르 서사시(Slovo o Polku Igoreve)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러시아 문학의 가장 중요한 걸작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칭기즈 칸이 1220년에서 1222년 투르키스탄을 침공했을 당시 위협을 느꼈던 킵차크는 수년간 여러 고난을 함께 했던 키예프 공국과 동맹을 맺지만, 1223년 5월 31일, 2만 명의 몽골 군대가 칼카(Kalka)강을 따라 쳐들어오고 이 전쟁에서 루시-킵차크 군대를 격파한다. 몽골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기에 원치 않았던 킵차크는 불가르 지역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같은 해 불가르 국가를 찬탈한 바투 한은, 12월 러시아 땅을 점령하기에 나선다. 1238년 러시아 북부는 모두 몽골의 통치를 받았다. 모든 유목민들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기를 원했던 몽골인들은 1239년 쿠만-킵차크 역시 복속시키기를 원했다. 몽골인들과 싸웠던 쾨텐(Köten)이라는 사령관은 결국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4만 명의 기병과 함께 헝가리 왕에게 피신을 하게 된다. 킵차크 중 일부는 크림반도에 머물렀지만 일부는 이딜 불가르인들과 혼합되어 카잔 투르크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투르크 언어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몽골인의 침략으로 킵차크인이 불가르족의 영토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불가르어가 킵차크어화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몽골 제국의 군대에서 복무했던 쿠만-킵차크 출신들도 꽤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인들은 자신의 사상에 반대하는 쿠만-킵차크들은 사형을 시켰지만, 그들의 통치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후계자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후에 알튼 오르두 국(황금 군국)의 건립 토대가 되었다. 킵차크는 약 2세기 동안 캅카스, 비잔티움, 흑해 북쪽 지역에 거주하며 각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페체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루시인들이 흑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냈고 킵차크 유목민들을 투르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킵차크 때문에 이동로가 막혀버린 키예프 공국의 주민들을 북쪽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결과 모스크바가 루스인들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포르베트츠’라고 불리던 킵차크족의 여인(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콕착, 킵차크, 콕차크

● 다국어 표기 Қыпшақ(카자흐어), Qipchoq(우즈베크어), Кыпчак(키르기스어), Кыпчак(노가이어), Кипчаки(우크라이나어), Qırçaq(타타르어), Кыпчакъ(카라차이발카르어)

● 연관 검색어 코덱스 쿠마니쿠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Arat, Reşid Rahmeti, Kıpçak. İslam Ansiklopedisi. C. VI, 713~716, 1977.

Kurat, Akdes Nimet, *Türkiye ve Rusya: XVIII. yüzyıl sonundan Kurtuluş Savaşıma kadar Türk-Rus ilişkileri (1798-1919)* (No. 180). Ankara Üniversitesi Basımevi, 1970.

Kurat, A. N. *Peçenek tarihi*. Devlet Basımevi, 1937.

Golden, P. B. *Türk Halkları Tarihine Giriş*. (Trans. O. Karatay), Ankara, 2002.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14.

I G346 | 킵차크 초원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형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Steppe of Kipchak

킵차크 초원은 서쪽은 드네프르강(江)에서 동쪽은 불가강·우랄강을 건너 키르기스스탄까지 펼쳐져 있다. 예로부터 아시아계 유목 민족의 이동과 성쇠가 이곳에서 되풀이되었다. 9세기~10세기에는 하자르족이, 11세기~12세기에는 폴로베츠족이 강성해져서 키예프·루시와 교섭을 가졌다. 현재 이 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3국에 걸쳐 있다.

몽골군의 제2차 서정(1235년~1244년) 결과 킵차크 초원을 중심으로 성립된 몽골의 4대 칸국 중의 하나가 킵차크 칸국(Qipchaq Khanate: 金帳汗國)이다. 1244년 제2차 서정을 통솔한 바투(Batu, 칭기즈 칸 장자인 주치의 차남, 1208년~1255년)는 대칸 외게데이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진격을 멈추고 회군하던 중 주치(칭기즈 칸의 장남)에게 책봉된 호라즘과 킵차크 일원(불가강 하류 일대)에 사라이(Sarai, 현 카스피해 북쪽 해안 아스트라한(Astrakhan), 1243년 정도(定都))를 수도로 하는 킵차크 칸국을 건립했다.

킵차크 칸국의 판도는 오늘날의 카스피해와 흑해 및 유럽 동북부 지역, 즉 키르키스 초원을 중심으로 한 남 러시아 일대인데, 서는 도나우(Donau, 다뉴브)강 하류, 동은 아르피스강(러시아와 중국 신장성 경계), 남은 캅카스(Kavkaz), 북은 카자흐의 발하슈 지역까지 광활한 지역을 포괄했다. 러시아의 여러 공국(公國) 대부분은 킵차크 칸국에 복속되었다. 이 칸국은 원조(元朝, 1271년~1368년)가 멸망한 후에도 100여 년간 존속하다가 1480년에 모스크바 대공(大公) 이반 3세(Ivan III, 재위 1462년~1505년)에 의해 멸망했다.

킵차크 초원은 동서 문화 교류사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는데 이곳을 통해 중국 문명과 슬라브 문명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전대에는 주로 초원로를 통해 이 두 문명 간에 견직물이나 모피 등 약간의 문물이 간접적·간헐적으로 교역되어 왔으나, 몽골 제국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물이 직접적·지속적으로 교류되었다. 견직물과 차 그리고 인쇄술 등 중국 문물과 기술이 이 시기에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킵차크 초원
- 다국어 표기 Dashti qipchoq(카자흐어), Steppe of Kipchak(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칭기즈 칸, 킵차크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cJ1M9QnGt0>
- 참고문헌(오프라인) Clauson, Gerard,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13th Century Turk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Golden, Peter B.,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Turkic People*.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92.
-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Naomi Walford, (t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 Lattimore, Owen, "The Geographical Factor in Mongol History," in Owen Lattimore, (ed.), *Studies in Frontier History: Collected Papers 1928-195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I G347 I 킵차크 칸국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ipchak Khanate

금장 한국(金帳汗國)이라고도 칭하는 킵차크 칸국의 기초는 칭기즈 칸의 손자인 바투(Batu: 1237년~1255년)에 의해 구축되었다. 칭기즈 칸의 장자 주치(求赤:拙赤)는 당초 이르티시강(江)이서(以西)의 스텝을 영지로 받았으나, 주치 사후 그의 차남 바투는 몽골 서정군의 총수가 되어 러시아 및 동유럽 각지를 석권함과 동시에 남러시아를 확실히 장악하여 킵차크 칸국의 기초를 닦았다. 킵차크 칸국은 차가타이 칸국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스텝 지대에 남아 있던 국가였다. 킵차크 칸국은 흔히 금 호르드(Golden Horde)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킵차크 칸국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바투(Batu)가 기거하던 천막이 금색(金色)이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호르드(Horde)는 몽골어 오르도(Ordo)에서 기원한 단어로 그 뜻은 군주가 기거하는 천막 즉, 행궁(行宮)을 뜻한다.

킵차크 칸국은 중국의 원조(元朝)나 일 칸국과는 달리 영농 정착 민족의 거주 지역 내에 위치



킵차크 칸국의 수도였던 사라이 바투 유적

하지 않으면서 영농 정착 국가인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지배했다. 킵차크 칸국은 다른 칸국들과는 달리 국가를 오래 존속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동적인 형세에 적시 적응할 수 있는 국가 구조의 특성 때문이었다. 즉, 킵차크 칸국은 고정된 수도가 있었고 국가를 구성하는 영농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과 유목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근본적으로 적대시하던 이 두 부류의 민족들이 공존할 수 있었다.

킵차크 칸국은 칭기즈 칸이 그의 장남인 조치(Jochi)에게 이르티쉬(Irtysh)강과 알타이산맥을 연한 지역을 급여하면서 킵차크 스텝과 그 이서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의 사후 바투에 의해 지배권이 계승된 후 동유럽까지 판도가 확장되었다. 바투의 재위 시기에 킵차크 칸국을 방문한 서양의 선교사 빌헬름 환 뤼스브뤽(Wilhelm VanRuys-broeck)의 여행기에 킵차크 칸국의 광대함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 정치와 경제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도시들이 존재했고, 카마(Kama)강 유역에 상업의 중심지였던 볼가르(Bolghar)가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다가 후에 카마강 어구에 킵차크 칸국의 정식 수도였던 사라이(Sarai)가 축조되었다고 한다. 대칸이 카라코룸에서 통치하던 시기에도 킵차크 칸국은 몽골 제국 내에서도 다른 칸국들에 비해 비교적 반자치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킵차크 칸국의 지배층에 많이 진출해 있던 투르크족의 영향으로 일 칸국과 비슷하게 일찍이 이슬람을 수용한 킵차크 칸국은 현지 투르크계 백성들과 투르크계 지도층의 영향으로 투르크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1255년 바투 사후 총 12명의 군주들이 제위에 올랐다.



킵차크 칸국의 동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킵차크 한국, 킵차크 한국
- 다국어 표기 اولوس جوجي (페르시아어), بلد أوزبك (아랍어), 金帳汗國 (중국어), Altın Ordu Devleti (튀르키예어), Qızıl Orda (아제르바이잔어), Алтын Орда (카자흐어), Oltin O'rda (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cpr6TbkpFk>
- 참고문헌 (오프라인) Ahinjanov S.M. “Kipchaks in history of medieval Kazakhstan”, *Alma-Ata*, 1989.
Faizrakhmanov G., “Ancient Turks in Sibiria and Central Asia” *Kazan*, ‘Master Lain’, 2000.
Kimball L., “The Vanished Kimak Empire”, Western Washington U., 1994.
Pletneva S.A., “Kipchaks”, Moscow, 1990.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G348 I 킵차크어파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어파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ipchak languages

킵차크어파는 투르크어족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포함하는 어파이다. 북서어파(северо-западная), 타우어파(тау)라고 불리기도 한다. 킵차크어파는 전 러시아 영역에 분포되어 있

다. 킵차크어파의 주요 특징은 음성적 구조에서 ы, и, у, ү의 음색을 지니는 8개~9개의 모음이 있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형에서 보다 고대적인 형태가 남아 있다.

(예) таг > тау ‘산’, тег- > тий- ‘만지다’, өгрөн - > үйрөн- ‘배우다’

킵차크어는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뉜다. 우선 킵차크-불가르어 소그룹(Кыпчакско-булгарская подгруппа)은 중세 금장한국(золотоордынский)의 언어였고, 오늘날의 타타르어와 바시키르어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킵차크-오구즈어 소그룹(Кыпчакско-огузская подгруппа, узо-половецкая подгруппа)은 중세의 폴로베츠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지금의 카라임어, 쿠미크어가 여기에 속한다. 킵차크-오구즈어는 킵차크-쿠만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킵차크-노가이어 소그룹(Кыпчакско-ногайская подгруппа)에는 오늘날의 노가이어, 카라칼파크어, 카자흐어가 속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킵차어파, 킵차어파

● 다국어 표기 Кыпчакские языки(러시아어), Qırcaq dilləri(아제르바이잔어), Қыпшақ тілдері(카자흐어), Kırcaq grub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카라칼파크어, 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Н. А. БаскаковК вопросу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тюркских языков//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 Т. XI. Вып. 2. - М., 1952. - С. 121~134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달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 『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 『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 『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 『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8-2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82 05030
ISBN 979-11-985841-8-2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